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0.12.10.(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고연석, 권오영, 김문식, 김창준, 김태영(덕문), 박은경, 박정혜, 오용섭, 이종민, 이혜은, 장경희, 정은우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0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2	공개
3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공개
4	경진년 연행도첩	공개
5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공개
6	'미륵원'명 청동북	공개
7	말모이 원고	공개
8	조선말 큰사전 원고	공개
9	효의왕후 어필 및 함-만석군전·곽자의전	공개
10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공개
【검토사항】 6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11	보물 제1512호 20공신회맹축 - 영국공신녹훈후	공개
12	보물 제1513호 20공신회맹축 - 보사공신녹훈후	공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3	고려사	공개
14	윤승길 초상 및 함·함받침	공개
15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공개
16	구미 대둔사 경장	공개

심 의 사 항

Ⅰ.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0-07-001

1.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耆社契帖)

가. 심의사항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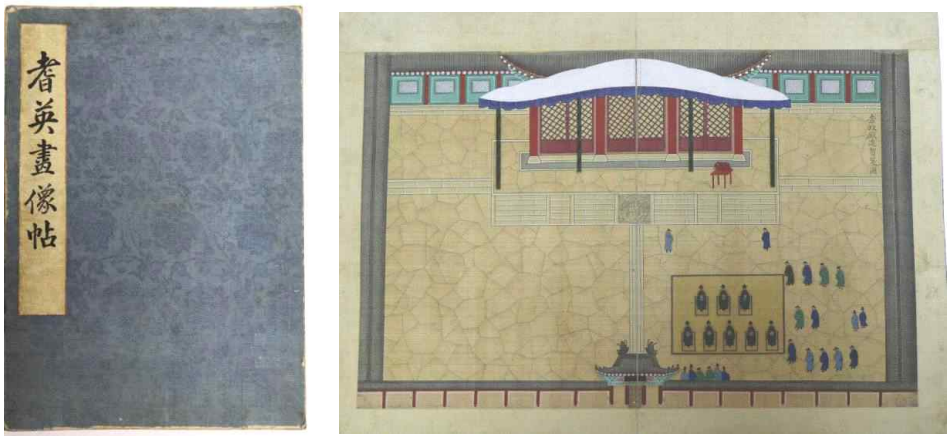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2017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17.5.2.)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된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에 대해 관계전문가 조사(’19.3.27./5.31.) 및 과학조사(’19.3.27./5.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0.4.13.) 검토사항으로 부의했으나, 역사 및 서예 분야 보완조사 사유로 보류되었음. 이에, 관계전문가 보완조사(’20.7.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0.8.)에 검토사항으로 재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10.30～11.29.)하고, 국보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639호(1978.12.7.)
○ 명　　칭 : 기사계첩(耆社契帖)
○ 소유자(관리자) : 홍**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휴대세교길 257-7(배방읍)
○ 수　　량 : 화첩 1첩, 내함 1점, 호갑 1점, 외궤 1점
○ 규　　격 : 화첩 전체 53.3×37.5cm, 외궤 46.5×63.3××11.5cm, 내함 41.0×56.0×5.3.cm, 호갑 접은상태 59.5×57.5cm, 호갑 펼친상태 117.0×105.8cm
○ 재　　질 : 비단에 채색(화첩), 목재(궤, 함), 호갑(직물, 종이, 가죽)
○ 조성연대 : 1719～1720년(숙종 45～숙종 46)
○ 제 작 자 : 김진여(金振汝),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許俶) 등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표지 및 숭정전진하전도)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화첩 관련>

ㅇ (지정 가치 있음)

1. 이 화첩은 1719년 숙종이 59세의 나이에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기로소에서 제작을 주관한 계첩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기록화이다. 11명의 기로신에게 1본씩 반사하고 기로소에도 보관하였으므로 총 12본이 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보 제325호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하여 여러 소장본이 전한다. ≪기사계첩≫은 내용 면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높이 인정되며 제작 화원과 서사관 등을 알 수 있어서 17세기 전반 궁중 채색화 연구에 귀한 학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2. 조사 대상인 ≪기사계첩≫의 그림은 사실적인 묘사와 생동감 있는 필치로 높은 화격을 보여준다. 특히 그림을 그린 화원은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들로서 기로신들의 초상화는 18세기 전반의 전형적인 화법으로 그려졌다. 또한 경현당 석연에서 차운한 기로신들의 축하시는 모두 자필로 쓰여 있어서 각자의 개성적인 서풍도 확인할 수 있다.
3. 다른 현전하는 ≪기사계첩≫에서는 볼 수 없는 제1-2면의 “晩退堂藏”, 제53-54면의 “傳家寶藏” 글씨는 이 계첩이 1719년 당시 행사에 참여한 기로신 중의 한 사람인 홍만조의 소장품이었음을 말해준다. 원래는 공란인 상태로 제작된 것인데 나중에 집안에서 누군가가 글씨를 쓴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이 작품은 풍산홍씨 종중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작품의 전승 경위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내용으로서 주목된다.
4. 이 계첩을 포장하고 있는 내함, 호갑, 외함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점은 희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유물의 완전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이 내함, 호갑,

외함은 계첩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물의 봉과(封裹) 방식을 알려주고 세부적인 공예 제작기법에 대해서도 귀한 정보를 알려준다. 마땅히 “기사계첩 및 함”으로 같이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5. 화첩 제목의 문제이다. 겉장의 표제가 “耆英畫像帖”으로 붙어 있지만 기사계첩의 표제는 “己亥耆社帖”(국보 제325호)이나 “耆社契帖”(이화여대박물관본, 보물 제929호) 처럼 소장처마다 다르다. 그 외의 소장본에도 표지 형식은 동일하나 표제가 “耆老所契帖”, “親臨己亥耆社契帖” 등으로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표제를 쓸 흰 제첨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반사한 때문이라 생각한다. 현재 이 유물은 “기사계첩”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국보 제325호도 “기사계첩”으로 지정되었다. 이 계첩은 기로소에서 기로신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해서 만든 계첩 제작의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지금까지 불리어 온 “기사계첩”이라는 제목은 작품의 성격을 대변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정 명칭은 “기사계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6.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소장의 ≪기사계첩≫은 숙종의 기로소 입소라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으며 제작시기 및 제작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서 학술적으로 중요하다. 또 기로신들의 시문은 자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은 높은 완성도와 화격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할만 한 예술성도 갖추었다. 아울러 계첩과 동시기에 같이 만들어진 함(내함, 호갑, 외함)도 공예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함께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 <기사계첩>은 국왕이 기로소에 들어간 일과 기로연을 베푼 일을 기록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 행사 장면을 화려하고 상세하게 그림으로 재현했으며, 참석자의 초상화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 참석자들이 지은 시가 거의 모두 자필로 적혀있어 문학사, 서예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화재이다.
-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보 제325호 보다도 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외함, 내함, 호갑이 함께 전하고 있기에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개인소장 기사계첩은 초상화와 기록화가 함께 있는 구성, 기록화에서 일상의 행인 모습의 표현, 선염법으로 입체감 표현 등에서 새로운 형식을 띠는 계첩이다. 또한

시문의 글씨를 통해 당시 서예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화첩을 동일한 목적으로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첩이나 인물과 기물 등의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며, 화격이 다소 낮은 편이다. 그리고 홍만조의 축하시 제목이 빠져 있다. 그럼에도 이 첩은 다른 소장본에 비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계첩은 국보로 승격될만한 가치를 갖는다.

<궤, 함, 호갑 관련>

ㅇ (지정 가치 있음)

<기영화상첩>이라는 표제를 가진 <기사계첩>은 1719년에 김창집을 비롯한 10명의 대신들의 계회를 글과 그림으로 그린 50면의 화첩으로 1978년 보물 제63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화첩은 제작 당시의 장황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첩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화첩을 넣은 흑칠내함, 이것을 싼 쪽빛무명호갑, 양자를 담은 흑칠외궤까지 모두 갖추어 18세기 초에 회화를 보관하기 위한 3중 구조의 회화 봉과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대연대를 가진 목공예품이나 섬유공예품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공예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기영화상첩은 1719년 당시의 장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면에서 당시의 배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가 되고, 그와 함께 흑칠내함과 쪽빛무명호갑 및 흑칠외궤의 3종 수납구가 조합되는 봉과식은 조선왕실의 의궤 등의 기록에 해당되는 이른 시기의 사례로서, 이후 왕실과 사대부가에서 함과 갑의 2중 구조로 회화나 서책을 보관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쳐 학술적 영향과 가치가 뛰어나다.

공예기술적인 면에서 화상첩을 넣었던 내함과 호갑 및 외궤는 18세기 초 목공예, 금속공예, 염직공예 및 가죽공예의 기술적 성취를 엿볼 수 있다. 내함과 외궤는 백골에서 맞댐과 띄엄사개 짜임이 발견되고, 안팎의 옻칠을 달리하되 내함에는 종이싸개 위에 흑칠을 하고 표면을 정교하게 마연하였고, 천판 뚜껑을 반닫이하거나 별도로 빼닫는 방식으로 다양한 목공예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금속 소재로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황동 및 시우쇠를 사용해서 간결한 거멀 장식이나 사각 경첩 및 낙목과 배목 그리고 시우쇠로 8엽 국화동 시우쇠 손잡이를 달아 목재를 보강하는 금속공예기술도 엿볼 수 있다. 쪽빛무명호갑은 안팎 무명 사이에 서너 겹의 한지를 배접하거나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가죽으로 싸고 휘감아 직물의 취약성을 보강한 점과 빛에 강한 쪽염을 해서 직물유물의 보존성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기영화상첩과 함께 제작되어 화첩을 담고 싼 흑칠내함과 쪽빛무명호갑 및 흑칠외궤 일괄은 조선 숙종 45년, 1719년 당시 제작되었다는 역사적 가치, 3중 구조의 봉과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학술적 가치, 당시 목공예, 금속공예, 염직공예, 가죽공예를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잇다는 공예기술사적 가치 등에서 볼 때, 현재 보물 제639호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 명칭 변경의 필요성

본 화첩은 내함과 호갑 및 외궤 등이 함께 제작되었으므로 이것을 포괄하는 '기사계첩 및 함'으로 명칭 변경이 요구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궤 : 기사계첩의 외궤에 부착된 띠장문은 19세기의 돈궤와 뒤주에 사용된 뚜껑문 양식으로 알려져 왔다. 기사계첩 외궤의 제작년도가 1719년이므로 이때에 이미 띠장문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목가구 편년자료에 중요한 자료이다.
- 함 : 숙종 31년(1705)에 제작한 보·인록의 장석 양식과 같아 숙종년간에 제작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1) 두석으로 장석을 하였다. 보·인록의 장석은 두석 위에 조이하고 도금하였다.
2) 경첩은 상하의 크기가 동일하다. 보록의 경첩은 불로초형태에 연화문과 어자지문을 조이하고 도금을 하였으나 상하의 크기는 같다. 숙종 이후부터 경첩의 밑짝이 길어진다.
3) 낙목은 나비머리에 죽절채를 한 숙종년간의 특징을 보인다 보·인록의 낙목머리에는 양단에 작은 투공이 하나씩 있으나 숙종 후기에는 이 투공이 없다.

이상 보물 제 639호 기사계첩을 보관한 외궤와 내함은 기사계첩과 제작시기가 동일하며 숙종연간의 목가구 양식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로서 기사계첩과 함께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 역사적·학술적·공예적 가치 인정

-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耆社契帖)≫은 ≪기영화상첩(耆英畫像帖)≫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가로 53.0㎝, 세로 37.5㎝ 크기의 화첩.
- 10명의 초상화와 축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화원 명단이 들어 있어 당시 화풍과 서체 연구는 물론, 관복제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직물사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유물이라고 판단됨. 겉표지에 연화문단 혹은 연화만초문단이라고 부르는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음. 이 문양은 현재까지 공개된 유물 중에서 1684년(숙종 10년)『선묘보감(宣廟寶鑑)』의 책의부터 1745년(영조 21)『세종영릉표석영건청의궤』까지 확인되는 문양임. 1720년(경종 즉위년) ≪기영화상첩≫은『선묘보감』외에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에 해당됨.
- 그 외에 화첩을 담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흑칠내함과 내함을 보호할 호갑, 외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화첩만 남아 있는 다른 ≪기사계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호갑은 훼손 부분에 대해 보존처리가 필요함.

- **봉과물을 갖춘 유일한 ≪기사계첩≫이므로 국보 지정 가치 있음.**
  -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에 추가된 봉과물의 제작 근거는 부족하지만 제작 연대가 화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봉과물을 갖춘 유일한 ≪기사계첩≫이므로 국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 명칭 변경의 필요성**
  - 내함·외궤, 호갑 등이 추가되었으므로 봉과물을 포함할 수 있는 "기사계첩 및 함" 등 문화재 명칭을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 있다고 생각됨.

마. 보완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이 『기사계첩』은 조선 국왕의 기로소 입소를 당대에 기록한 최초의 기록물이면서 이후 영조와 고종이 기로소에 입소할 때 전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기사계첩』 가운데 전승 과정이 분명하고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점, 화첩을 온전히 보관하기 위한 3중의 보존 장치가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명칭을 '기사계첩 및 함'으로 하여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기사계첩(耆社契帖) 및 함'은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서화첩을 보관한 내함·호갑·외함이 잘 갖춰져 있다. 앞표지의 표제 '耆英畫像帖'과 제1-2면의 '晩退堂藏' 및 제53-54면의 '傳家寶藏'은 전승 경위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수록된 「契帖序」와 「御帖跋」은 기사(耆社)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이고, 그림이나 진영(眞影)은 풍속사와 회화사의 귀중한 자료이며, 기신(耆臣)들의 자필은 서예사의 실물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서화와 함(내함·호갑·외함)은 역사적, 풍속사적, 회화사적, 서예사적,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서예사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 화첩의 국보 지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서예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탁월하며, 예술적 가치 역시 높다고 보아 지정의 가치가 있다.
2. 숙종 후기의 조선 서예는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서예 고전을 학습할 방법으로서 첩학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 화첩에 글씨를 남긴 기로신들은 모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주요 문인들이었으며 서예를 생활화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일상에서 구사했던 서풍은 그 시대의 서풍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첩에서 볼 수 있는 바는 심미적 취향이 반영되고 개성을 볼 수 있는 서풍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3. 동시대에 활동한 서예 명가들의 작품들을 제외하고, 시대의 서풍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유례가 매우 희귀하며, 그 점에서 이 글씨들은 이 화첩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을 담보하고 있다.

4. 화첩의 현상도 지정할 가치가 현저하다. 이 화첩은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미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본이 거친 보존처리 과정 이전의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현존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필요성도 있고, 그 보존으로 인하여 담보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근거 기준>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에 해당함
2. 제작 연대가 300년이 넘었으며, 훌륭한 품질로 현재까지 보존이 잘 되어왔음
3. 조선왕조에서 국왕이 주도하여 기로회를 조직하고 그 기록물을 만든 예가 희귀함
4. 18세기 초, 문화와 정치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들과 관련이 매우 깊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

1차 조사보고서

<화첩 관련>

□

○ 현상 및 내용 특징

전반적으로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례적으로 화첩을 넣은 내함, 내함을 싼 호갑, 호갑을 보관하는 외함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기사계첩≫의 내용을 이미 국보 제325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기사계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보승격 조사 대상 유물	기 국보지정 유물과 비교
순서 (면)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개인소장)	국보 제325호 <기사계첩> (국립중앙박물관)
앞표지	표제: **“耆英畵像帖”**	표제: **“己亥耆社帖”**
1-2	**“晩退堂藏”**	**空欄**
3-4	“契帖序” : 1720년 12월 상순에 任堕 지음	左同
5	空欄	좌동
6	“肅宗大王御製”	좌동
7-8	“御帖跋” : 金榦 지음	좌동
9-10	어첩 봉안부터 기로소 사연까지 각 행사의 참여자의 명단	좌동
11-12	<御帖奉安圖>	좌동
13-14	<崇政殿進賀箋圖>	좌동
15-16	<景賢堂錫宴圖>	좌동
17-18	<奉盃歸社圖>	좌동
19-20	<耆社私宴圖>	좌동
21-22	“座目” : 기로신 11명의 명단	좌동
23	<領府事鹿川李公七十五歲眞> 李濡(1645-1721)의 반신초상	좌동
24	<領議政夢窩金公七十二歲眞> 金昌集(1648-1722)의 반신초상	좌동
25	<行判府事甲峯金公七十一歲眞> 金宇杭(1649-1723)의 반신초상	좌동
26	<行知事黃公八十歲眞> 黃欽(1639-1730)의 반신초상	좌동
27	<行知事白閣姜公七十歲眞> 姜鋧(1650-1733)의 반신초상	좌동
28	<行司直晩退洪公七十五歲眞> 洪萬朝(1645-1725)의 반신초상	좌동
29	<行副司直六松李公七十四歲眞> 李善溥(1646-1721)의 반신초상	좌동
30	<判尹丈巖鄭公七十二歲眞> 鄭澔(1648-1736)의 반신초상	좌동
31	<右參贊竹里申公八十一歲眞>	좌동

	국보승격 조사 대상 유물	기 국보지정 유물과 비교
	申銋(1639-1725)의 반신초상	
32	<知事水村任公八十歲眞> 任堕(1640-1724)의 반신초상	좌동
33	김창집이 칠언시 3수 「耆社志喜」,「賀班」,「謹次洪尙書賀班韻」	좌동
34	이유의 칠언시「敬次耆社志喜韻」	좌동
35	김우항의 칠언시 2수 「謹次領相金公耆社志喜韻」,「謹次洪尙書賀班韻」	좌동
36	황흠의 칠언시「謹次首相耆社志慶韻」	좌동
37	강현의 칠언시「敬次耆社志喜韻」,「敬次賀班韻」	좌동
38	홍만조의 칠언시 2수 「敬次首相耆社韻」,「陳賀日口占志喜錄呈求和」	좌동
39	이선부의 칠언시「敬次」2수	좌동
40	정호의 칠언시 2수 「敬次元輔夢窩金公耆社志慶韻」,「敬次賀班韻」	좌동
41	신임의 칠언시 4수	좌동
42	임방의 칠언시 2수「耆老錫宴後以首輔命唱呈二律」	좌동
43	이유의 칠언시「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	좌동
44	김창집의 칠언시「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	좌동
45	김우항의 칠언시「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	좌동
46	황흠의 칠언시「謹此耆社諸公韻」	좌동
47	강현의 칠언시「敬次」	좌동
48	홍만조의 칠언시 : **제목이 없음**	좌동: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라는 제목 있음**
49	이선부의 칠언시「敬次」	좌동
50	정호의 칠언시「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	좌동
51	신임의 칠언시「親臨錫宴後次任知樞詩韻」	좌동
52	화첩 제작 참여자 명단	좌동
53-54	**“傳家寶藏”**	**空欄**
뒷표지	뒷표지	좌동

표제는 “기영화상첩(耆英畵像帖)”이다. 제1-2면에는 한 면에 두 글자씩 “만퇴당장(晩退堂藏)”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 화첩은 만퇴당 홍만조(洪萬朝, 1645-1725)의 소장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글씨가 있는 면은 모두 붉은 안료로 인찰하였는데, 다만숙종의 어제가 있는 제5-6면은 바탕이 홍색 비단으로써 황색 안료로 인찰하였다. 기록화 5폭의 제목은 화면 우측에 쓰인 것을 따른 것으로서 다른 기사계첩과 동일하다.

제39면 이선부의 칠언시 <敬次> 두 번째 수의 “協”자 부분은 네모나게 잘라내고

다시 써서 붙인 흔적이 있으며 제41면 신임의 칠언시 4수 중 “言同樂駐東流” 부분은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있다. 또 제 44면 김창집 칠언시의 “領議政金昌集” 부분에는 무언가 붙였던 흔적이 보인다.

52면에 쓰인 화첩 제작에 참여한 감조관(監造官) 고정삼(高挺參), 서사관(書寫官) 이의방(李義芳), 화원(畫員)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許俶) 등의 명단은 다른 기록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내용으로서 이 화첩의 그림을 그린 화가의 실체와 궁중기록화의 실질적인 제작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귀한 자료가 된다.

제 53-54면에는 “전가보장(傳家寶藏)”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 글씨는 제 1-2면의 “만퇴당장(晩退堂藏)”과 함께 다른 기사계첩에는 없는 부분으로 이 화첩의 전승 경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

ㅇ 현　　상

- 옻칠한 나무상자에 금구가 부착된 외함이 있고, 그 안에는 바깥에 남색 비단에 황색 가족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안쪽에 황색 직물을 덧댄 호갑(護匣)으로 싼 내함이 있다. 내함 역시 옻칠한 나무상자에 금구가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내함 속에 들어있는 한 권의 첩(帖)으로 이루어져 있다.
- 외함은 윗부분 2/3 정도가 꺾이어 뒤로 넘겨 열 수 있는 형태이다. 들리는 부분은 현재 분리되는데 경첩이 없어서 원래의 방식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흑색 옻칠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마모로 인하여 광택이 흐리다. 여기저기 금구가 부착되어 있는데 양 옆면에는 들쇠가 한 개씩 있고 모서리에 거멀잡이가 있으며 앞면에는 배목이 있고 길목은 없어졌다. 뒤쪽 한 귀퉁이에는 쥐가 갉아먹은 부분이 있다.
- 호갑은 십자 모양으로 가운데 직사각형 부분이 있고 네 변에는 반원에 가까운 날개가 붙은 형상이다. 짧은 변 한쪽 날개의 가운데에 기다란 가죽 끈이 달려 있다. 테두리와 네 귀퉁이에 가죽을 대어 보강했으며 앞면에 작은 구멍이 뚫려있고 역시 테두리에 가죽을 데었다. 내함의 길목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긴 변 한쪽에도 가죽 끈이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있다. 외피는 남색의 직물 여러 쪽을 이어서 만들었고, 내피는 황색 직물을 사용했다. 직물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외함의 쥐가 갉아먹은 곳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실되었고, 가죽 부분은 오염되어 검게 때가 묻어 있다.
- 내함은 외함과 같은 형태인데 윗부분 6/7 정도가 꺾이어 뒤로 넘겨 열 수 있는 형태이다. 들리는 부분은 목재가 살짝 휘었으며 위에 금속 경첩이 두 개 붙어 있다. 바깥쪽은 흑색 옻칠이 되어 있는데 광택이 선명하고, 안쪽은 붉은색 옻칠

이 되어 있다. 여기저기 금구가 부착되어 있는데 거멀잡이, 배목, 길목, 앞바탕 등이다.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화첩은 호접장 형태로 한 장씩 넘기면 좌우 양면이 펼쳐진다. 앞뒤 표지는 연꽃넝쿨무늬가 있는 쪽빛 비단으로 장식했다. 앞표지에는 화초문이 있는 흰 비단에 “耆英畫像帖”이라고 먹으로 적은 제첨이 붙어 있다. 표지는 낡아서 가장자리가 일부 닳았다.
- 성되어 있다. 5점의 기록화는 좌우 양면에 걸쳐 이어진다. 회장은 흰 비단을 사용했는데, 열화되어 담황색이다.
- 화첩의 크기, 장황형식 및 전체의 구성 순서는 국보325호와 거의 동일하다. 일부 차이는 다음과 같다.

앞표지 “耆英畫像帖”(36.8x6.0cm) <국보325호는 “己亥耆社帖”(36.7x5.9cm)>
1-2면: 대자묵서 “晩退堂藏” 만퇴당은 기사연에 참석하고 화첩을 받았던 홍만조의 호이다. <국보325호는 空欄>
7면: 12열의 “延祁君昤”의 글자 昤을 가리지 않았다. <국보325호는 위에 붉은 비단을 붙여 가렸다>
11-20면: <御帖奉安圖> 이하 5점의 그림은 국보325호와 거의 같으나 세부적인 필치가 약간 차이가 나며 인물 복식의 색채 배분이 조금씩 다르다.
24면: 김창집의 반신초상의 회장 부분에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39면: 이선부의 칠언시 <敬次> 두 번째 수의 3열 글씨 “協”자 부분을 네모나게 잘라내고 다시 써서 붙였다.
41면: 신임의 칠언시 4수 중 “言同樂駐東流” 부분을 지우고 다시 적은 흔적이 있다.
44면: 김창집의 칠언시 맨 끝의 “領議政金昌集”부분에도 테두리에 무언가를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53-54면: 대자묵서 “傳家寶藏” <국보325호는 空欄>

ㅇ 내용 및 특징

- 전체적인 내용과 특징은 위의 차이점을 제외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국보325호)와 거의 동일하며, 상태는 좀 더 양호하다.
- 이 화첩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국보325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보물 제638호), 삼성미술관리움본이 있다. 이들 가운데서 이 개인 소장본은 원형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상태도 가장 좋다. 더욱이 화첩과 함께 제

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함, 내함, 호갑이 함께 전하고 있는 점도 매우 희소한 사례로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내함의 경우 조선시대 서류함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1750년에 제작된 이삼(李森)의 분무공신화상첩과 함께 전하는 목함과 유사하다.

ㅇ 참고문헌

『기사계첩』(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76)
김문식,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사학지』 40권, 2008
『삼성미술관 리움소장 고서화 제발 해설집 III』(삼성미술관리움, 2009)
『조선시대 초상화 III』(국립중앙박물관, 2009)

ㅇ 기 타

- 1978년 12월 7일에 보물 제639호로 지정되었으며, 기로사연에 참석했던 홍만조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다.

□

ㅇ 현 상

기사계첩은 기로신에게 나눠 줄 11부와 기로소에 보관할 1부를 합쳐 모두 12부가 제작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리움 소장본이 알려져 있다.

조사대상인 개인 소장본에는 서문, 어제(御題), 발문, 의식별 참석자 명단, 기록화 5폭, 좌목(座目), 초상화 10폭, 축시 19편, 제작 참여자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첩의 앞의 1·2면과 뒤의 51·52면에는 후대에 쓴 글씨가 있다.

첩의 각 면에는 수흔과 유흔이 보이지만 해충에 의한 손상 없이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선조는 59세 때인 1719년에 태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일을 계승하려는 취지로 기로소에 입소하였다. 본 계첩은 이를 기념하고자 제작되었다. 서문은 임방(任埅)이 하였고 발문은 김유(金楺)가 하였다. 어제는 숙종의 눈 질환 때문에 세자(경종)이 대사(代寫)하였다. 좌목에 실린 기로신은 이유(李濡, 1645~1721),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우항(金宇杭, 1649~1723), 황흠(黃欽, 1639~1730), 최규서(崔奎瑞, 1650~1735), 강현(姜鋧, 1650~1733), 홍만조(洪萬朝, 1645~1725), 이선부(李善溥, 1645~1721), 정호(鄭澔, 1648~1736), 신임(申鉁, 1639~1725), 임방(任埅, 1640

~1724)이다.

첩에는 기로신이 경희궁 흥정당에서 제작한 어첩을 봉안하러 가는 행렬이 표현된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 기로신이 진하례를 올리는 장면이 그려진 <숭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 기로신에게 내려진 친림 사연 모습이 담긴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기로신이 경현당 석연에서 하사받은 은배를 받들고 기로소로 돌아가는 행렬이 묘사된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기로소에서 열린 기로연이 표현된 <기사사연도(耆社賜宴圖)>가 있다. 이 기록화들에서는 부감이나 부감과 정면을 혼합한 시점이 사용되었으며, 행렬 장면에는 기존의 궁중기록화에 등장하지 않았던 구경하는 행인이 묘사되었다. 이 첩과 국보 325호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사계첩>과는 건축물, 인물, 그리고 기물의 표현에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를 비교하면 국립중앙박물관본에서는 인물의 흉배가 표현되어 있으며 옷주름 등의 표현이 자세하며 자연스럽다. 또한 기물의 표현이나 건물의 처마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된 편이다. 반면에 개인 소장본은 명암법이 휘장 아래의 단 주름이나 지붕과 건물의 기단 등에 구사되었다.

첩에는 최규서를 제외한 10명의 초상화가 있다. 당시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았기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상의 인물은 모두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반신상으로, 사모에 단령을 착용하였다. 이 계첩의 제작에는 주관화사로 보이는 김진여(金振汝, 1675~1760)를 비롯해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1663~1735 이후), 장득만(張得萬, 1684~1764). 허숙(許俶, 1688~1729이후)이 참여하였다. 여러 화원의 참여로 인해 초상화 제작 기법이 차이가 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우선 이유 · 김창집 등의 초상에서는 먹과 연백을 중첩하여 명암과 양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주름이 선으로 묘사되지 않고 부드럽게 면으로 처리하였다. 서양화법의 영향인 이 방식은 김진여가 주로 이용한 화법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황흠 · 신임 등의 초상에는 먹을 이용한 명암법이 사용되었으며 주름이 자세히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강현 · 이선보의 초상에는 엷은 선염으로 입체감을 나타냈는데, 18세기부터 보이는 화법이다. 아울러 선묘를 추가하여 이목구비와 주름이 묘사되었다. 이 초상화들의 상단에는 전서로 대상 인물의 관직, 호, 나이가 적혀 있다.

첩의 뒤쪽에는 다양한 서풍으로 쓴 기로신의 자필 축시가 있는데, 왕의 기로소 입소 축하시는 최규서와 임방을 제외한 9명이 썼으며, 석연 후 쓴 시는 기로신이 된 임방을 포함하여 10명이 지었다. 이 첩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비교하면 홍만조의 축하시 제목이 없다. 계첩의 좌목 등은 서사관 이의방(李義芳)이 썼다.

첩의 앞뒤에는 행서기가 가미된 해서가 있다. 앞에는 홍만조의 당호인 만퇴당(晩退堂)이며 뒤에는 전가보장(傳家寶藏)이다. 두툼한 필획 등으로 미루어 후대에

썼을 것으로 보인다.

<함, 궤, 호갑 관련>

□

○ **규격 상세**

1) 흑칠내함

-세로 41.0㎝ x 가로 57.0㎝, 높이 5.3㎝

2) 쪽빛무명호갑

-펼친 상태 : 세로 117.0㎝ x 가로 105.8㎝, 끈길이 30.8㎝

-접은 상태 : 세로 44.0㎝ x 가로 57.5㎝, 높이 5.5㎝

3) 흑칠외궤

-세로 46.5㎝ x 가로 63.3㎝, 높이 11.5㎝

○ 재　　질 :

1) 내함 ; 잣나무, 옻칠, 황동제

2) 호갑 ; 무명, 종이, 서피, 녹비, 삼실

3) 외궤 ; 소나무, 옻칠, 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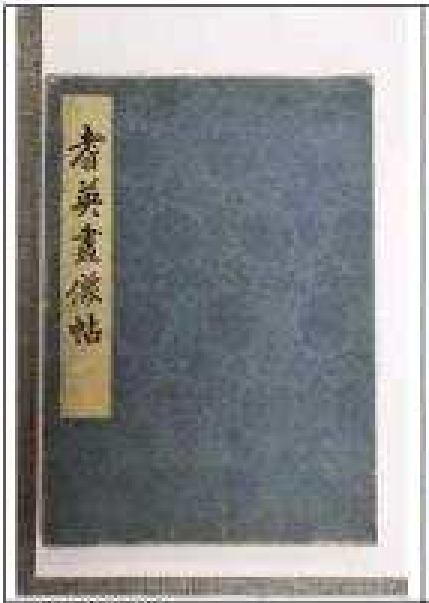
○ **형　　식**

<기사계첩(耆社契帖)>은 숙종 45년(1719)에 소속이 같은 70세 이상의 김창집(金昌集)을 비롯한 10명의 대신들이 단령을 입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풍류를 즐겼던 계회(契會)를 기념하기 위해 글과 그림으로 만든 50면의 화첩이다. <기영화상첩(耆英畫像帖)>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화첩은 계회에 참석한 10명의 초상화와 자필로 쓴 축시, 박동보・장득민・허숙 등 초상화를 그린 화원의 명단이 들어 있으며, 1978년 12월 7일 보물 제639호로 지정되었다. 함께 지정된 보물 제638호인 <기사계첩>이 2면을 1면으로 붙인 데 반해 이 화첩은 제작 당시의 장황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회화작품일 뿐 아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보존하고자 화첩을 흑칠내함에 넣고, 이것을 쪽빛무명호갑으로 싸고 가죽끈으로 묶은 후 다시 흑칠외궤에 넣는 등 3중 보존장치에 넣어 보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흑칠내함

흑빛무명호갑

흑칠외궤

<table>
<tr><td> 
</td><td> </td></tr>
<tr><td>기영화상첩</td><td>기사계첩을 넣은 내함</td></tr>
<tr><td> </td><td> </td></tr>
<tr><td>내함을 싸기 위해 호갑을 펼친 모습</td><td>호갑의 좌우로 내함을 싸기</td></tr>
<tr><td> </td><td> </td></tr>
<tr><td>내함을 호갑으로 싼 모습</td><td>내함과 호갑을 넣은 외궤</td></tr>
</table>

<기사계첩을 후첨내함, 호갑, 외궤의 순서로 넣고 싸는 순서>

○ 조성연대 : 1719년(숙종 45년)

○ 형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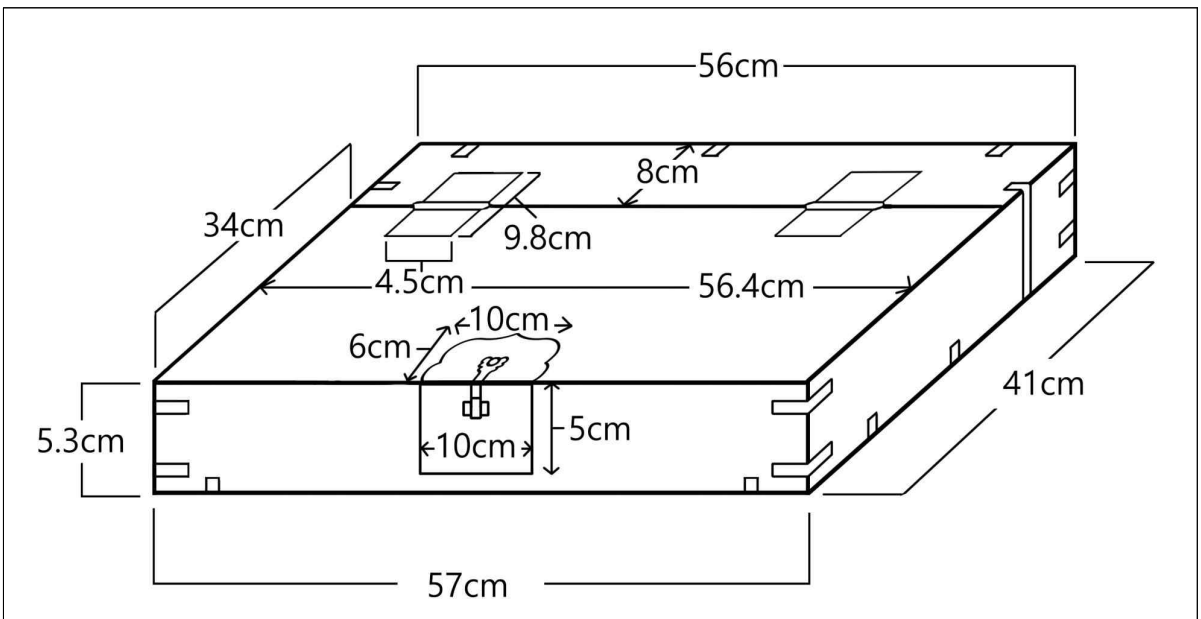
1) 흑칠내함

<기사계첩>을 넣어 보관하는 내함은 세로 41.0 x 가로 57.0㎝, 높이 5.3㎝의 직육면체의 상자 형태로 천판의 1/4 부분을 상하로 절개하고 경첩을 달아 아래쪽 뚜껑을 위로 젖히고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다.

(1) 재료와 형태

내함의 경우 질이 좋은 잣나무를 두께 1㎝ 로 켠 판재를 사용하고 있다. 바닥면의 밑널과 옆면의 측널, 측널과 천판의 판재는 각각 '맞댐'으로 연결하고 있다.

밑널은 41 x 57㎝이고, 측널은 높이 5.3㎝이다. 천판은 전체면을 앞뒤쪽에서 둘로 나누어 뒤쪽 1/4에 해당되는 8 x 57㎝, 앞쪽 3/4에 해당되는 34 x 57㎝의 널판으로 각각 나누고, 뒤쪽은 측널에 고정시키고 좌우에 각각 9.8 x 4.5㎝ 크기의 경첩을 달아 앞쪽을 문짝으로 사용해서 열 수 있게 만들었다.



흑칠내함의 실측 치수

(2) 칠

흑칠내함은 밑널과 측널 및 천판을 각각 판재와 판재를 사개물림이 아닌 맞댐으로 붙인 다음, 내부 면은 소지 위에 그대로 생칠을 발라 마감하고 바깥면은 종이를 바른 후 표면에 흑칠을 발랐다. 현재 안쪽의 생칠 상태나 천판 위 흑칠의 상태가

깨끗하고 좋은 편이다. 전통적으로 왕실 유물의 경우 내함의 안쪽 면에 붉은 색으로 염색한 한지를 바르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겉면에 흑칠을 바른 천판과 밑널은 둘다 원래 바른 흑칠의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특히 측널과 함께 감잡이로 고정된 밑널은 형태 변형이 없이 원래의 형태 변형이나 칠의 변형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안팎에 각기 다른 조건의 칠을 바르되 측널과 함께 고정된 부분과 문짝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잡이로 고정되지 않는 부분의 형태는 차이를 보였다. 천판 뚜껑의 위쪽 1/4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3/4 아래쪽은 안팎 칠의 팽창률이나 함수율이 다르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바깥쪽 위로 볼록하게 휘어 배가 부르게 변형되어 있는 편이다.

맞댐 형식으로 내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옆면을 보면 밑널과 측널이 서로 연결된 하단부가 <기사계첩>을 수납하거나 눌리면서 연결 부위에 옻칠이 떨어져 나가 훼손된 것이 확인된다. 향후 부분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이에 비해 직육면체 상자형 몸체는 하단부의 흑칠은 사용하면서 긁힌 자국이 약간 보일 뿐 윗면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칠면의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

3) 금속제 장식

목재 널판을 고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속제 장식을 부착하고 있다. 금속 장식의 경우 천판의 두 군데에 사각형 경첩을 달아 문짝을 연결하고, 직사각 문짝의 윗바탕에 뻗침대가 달리고, 앞바탕에 배목이 달려 맞물리는 것이다.

모서리의 거멀장식이나 뚜껑의 윗짝을 여닫을 사각경첩 및 배목과 낙목은 구리와 아연의 주성분에 납과 주석을 합금한 황동제를 사용하고 있다. 금속 장식의 경우 천판의 두 군데에 사각형 경첩을 달아 문짝을 연결하고, 직사각 문짝의 윗바탕에 뻗침대가 달리고, 앞바탕에 배목이 달려 맞물리는 구조이다.

밑널과 측널, 측널과 측널, 측널과 천판 등의 연결부는 길고 짧은 거멀 감잡이로 보강되어 있다. 측널과 측널은 모서리마다 상하 2개씩 총 8개의 짧은 거멀 감잡이로 마감되어 있다. 밑널과 측널은 앞쪽은 2개, 좌우쪽은 2개의 짧은 거멀 감잡이로 마감되어 있다. 독특한 곳은 뒤쪽으로 밑널과 옆널 및 천판을 한꺼번에 고정할 수 있도록 긴 국수형 거멀 감잡이로 마감하였는데, 옆쪽은 좌우 1개씩, 뒤쪽은 3개로 고정시키고 있다.

뚜껑에 해당되는 천판의 앞뒤는 9.8 x 4.5㎝의 사각경첩으로 여닫을 수 있게 처리되어 있다. 앞쪽 문판에는 위쪽 윗바탕은 제비초리형이고, 아래쪽은 방형 바탕에 배목이 부착되고, ㄱ자형 뻗침대가 달려 있다.

앞널의 앞바탕과 뻗침대와 배목 | 측널의 거멀 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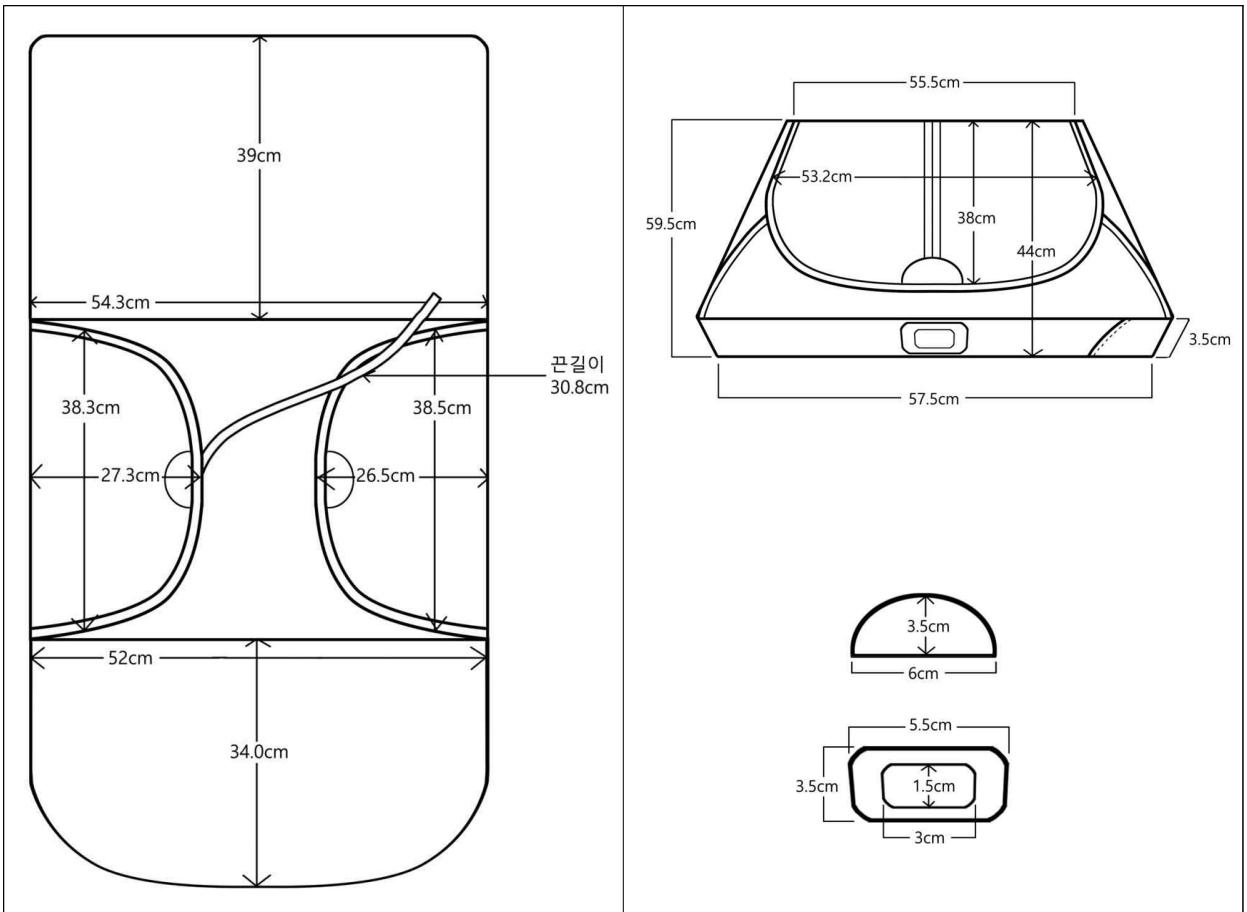
모서리의 거멀장식이나 뚜껑의 윗짝을 여닫을 사각경첩 및 배목과 낙목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황동제로 약간 검은 때가 묻었지만 녹슨 흔적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 다만 낙목을 고정시킨 것이 자물쇠나 비녀못이었는지 유실되어 알 수 없다.

2) 쯕빛 무명 호갑 ;

호갑은 흑칠내함을 넣을 수 있도록 무명으로 만든 보호형 갑이다. 세로 44.0 x 가로 57.5㎝, 높이 5.5㎝의 직육면체 형태이고, 뚜껑 부분은 위쪽 네 면에서 반원형의 날개처럼 펼쳐서 26.5-26.5㎝, 38.3-38.5㎝ 길이의 좌우날개를 먼저 덮고, 34.0-39.0㎝의 상하날개를 덮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1) 재료와 규격

직육면체 상자 형태의 호갑은 펼친 상태는 세로 117.0 x 가로 105.8㎝이고, 접은 상태는 세로 44.0 x 가로 57.5㎝, 높이 5.5㎝이다. 겉감은 청색 무명으로 상하 덮개는 28㎝ 무명 2폭을 중앙에서 연결하였고, 좌우 덮개는 무명 27㎝ 폭과 12㎝ 폭을 연결해서 만들었다.



호갑의 세부 치수

호갑의 겉감은 쪽색 평직 무명이고, 안감은 소색의 평직 무명이며 테두리 및 모서리에는 옻칠한 가죽을 덧대었다. 안감은 소색 무명인데, 1폭은 27㎝였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속감은 한지를 넣었고, 연결 부위는 삼실로 꿰매었다. 덮개의 가장자리는 옻칠한 가죽을 둘러서 마감하였다. 덮개의 끝 부분은 세로 3.5 x 가로 6㎝의 반원형을 가죽으로 덧대고 여기에 길이 30.8㎝의 가죽끈을 매달아서 묶을 수 있게 만들었다.

호갑의 안쪽의 소색 무명

호갑의 안팎과 내함의 수납

쪽빛무명호갑의 바닥면과 옆면 및 네 날개로 펼친 상태

(2) 마름질과 바느질

호갑의 경우 안팎은 무명 직물이며, 그 사이에는 3-4겹의 한지를 속심으로 사용한 배접천(쪽 무명 겉감+ 한지 속감+ 소지무명 안감) 5판을 오려 사용한다.

호갑의 재료 ; 겉감 ; 쪽빛 무명 / 속 한지 3-4겹의 배접 / 안감 ; 소색 무명

이렇게 안팎 무명 속에 서너 겹의 한지를 속감으로 넣어준 배접천은 일정한 두께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죽과 같은 강도와 질감을 갖게 된다.

배접천으로 호갑을 만들 때 부드러운 섬유의 성격과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형태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호갑의 크기는 1) 내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보다 약간 큰 세로 44.0 x 가로 57.5㎝ 직사각형의 크기에 높이 5.5㎝로 올리기 위해 27-28㎝ 폭의 배접천으로 일정 크기를 재고, 2) 옆면의 모서리를 세울 5㎝ 높이만큼 겹칠 부분까지 포함하여 마름질한다. 이렇게 바닥과 옆면이 작업이 되었으며 이제 3) 사방으로 덮개용 날개를 붙이는데, 1)과 2)는 1개의 판으로 마름질하고, 3)은 각각 4개의 판을 좌우 날개는 26.5-27.3㎝로 마름질하고, 위아래 날개는 34.0-39.0㎝로 마름질해서 총5장의 판을 만들어 바느질하여 붙이는 것이다.

1) 바닥과 2) 옆면을 만들어 모서리를 잘라낸 뒤, 3) 사방 날개 만들어 붙이기

안팎 무명천에 속심을 넣은 배접천은 이미 충분히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잇대어 꿰매는 방식은 가죽을 꿰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선 가죽을 꿰맬 때처럼 1㎝ 정도의 일정한 간격마다 구멍을 뚫고 바늘 두 개로 구멍에 넣어 한 땀 한 땀 꿰매는 방식을 사용하여 꿰매었다.

(3) 가죽으로 모서리와 끈 장식 마감하기

배접천으로 만든 호갑을 단단하고 질기게 만들기 위해, 가죽을 이용하여 보강을 해준다. 목가구에 거멀장석이나 경첩 등 금속제 장석으로 보강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우선 밑판과 옆면이 연결된 네 모서리에 표면이 오톨도톨한 질감이 있고 길기고 단단한 서피를 세로×가로 각 12㎝ 정도, 밑면의 한 변 6㎝ 정도로 오려낸 다음 대준다. 밑면은 반지름 6㎝의 1/4원으로 둥글게 처리하고 옆면까지 바느질한다. 배접천과 가죽까지 함께 바느질하려면 두꺼워서 바늘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미리 뚫어놓은 후 바늘 2개로 ∞자로 한 구멍씩 교차하는 방식으로 꿰맨다. 모서리를 맞댄 부분은 감침질로 마감한다.

호갑의 네 모서리를 감싼 가죽 | 네 모서리를 꿰맨 안쪽 가죽

덮개 가장자리와 끈을 가죽으로 처리 | 가장자리 가죽의 안팎 바느질 부분

배접천으로 만든 전후좌우 네 방향의 날개는 모서리를 둥글게 오려낸 다음, 먼저 부드러운 사슴가죽으로 끈을 만든다. 끈은 4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나비 1.2㎝

에 길이 30.8㎝ 로 왼쪽 덮개의 것 1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끈을 고정시키기 위해 덮개 중앙에는 세로 3~3.5㎝ 가로 6㎝ 정도의 1/2 원형 바대를 만들고 바늘 2개로 ∞자로 한 구멍씩 교차하는 방식으로 꿰맨다.

다음으로 배접천의 가장자리의 올풀림을 막기 위하여 가장자리 부분의 안팎을 서피가죽으로 각각 1㎝ 두께로 빙 두르며 감싸준다. 이를 위해 먼저 바깥쪽 쪽빛 무명 쪽에 가죽을 올려 놓고 2㎝ 정도의 넓게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시침을 해서 고정시키고 난 후 안쪽 소색 무명쪽에는 1㎝ 정도의 간격으로 감침질을 해서 마감한다. 앞쪽 낙목과 양쪽 쇠가 튀어나온 곳은 처리하기 위해 바깥쪽 3.5x5.5㎝, 안쪽 1.5x3.0㎝ 구멍을 내고 가죽을 대어 마감한다.

앞쪽 낙목의 튀어나온 곳을 가죽으로 마감한 부분의 안팎

(4) 호갑의 끈 고정하기

뒤쪽 끈을 둘러 뺄 곳의 겉면 | 뒤쪽 안쪽면에 가죽을 삼실로 꿰매기

호갑은 좌우 날개의 녹비 끈을 먼저 묶어 고정시키는 데, 현재 왼쪽 1끈만 남아있다. 아래쪽과 위쪽 날개에 끈을 둘러 뒤쪽으로 뺄 곳은 안쪽면에 가죽을 대고 삼실로 꿰매어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 앞뒤 끈은 결실되어 있다.

(5) 훼손 상태

쪽빛 무명 호갑의 경우 직물과 가죽 제품으로 이뤄져 있어 오랜 300년의 세월동안 훼손이 된 상태이다. 형태적으로 볼 때 내함을 덮는 아래쪽 날개의 일정 부분이

유실되었다. 바닥의 경우 두 군데가 뜯어져서 안팎과 함께 내부의 속심이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직물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나 소색이나 쪽색이 변색되거나 퇴색되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덮개의 경우 바닥면이나 좌우 덮개 및 안쪽으로 들어가는 덮개보다 맨 위에 놓이는 덮개의 변색과 오염이 심한 편이다. 부분적으로 모서리를 박은 실은 삭아서 다른 실로 꿰매거나 삼실로 꿰맨 실밥이 뜯어져 있기도 하다. 가죽의 경우 오랜 시간 경화되어 딱딱해지고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편이다. 네 군데 모서리 부분에 반원형으로 돌린 가죽 중 왼쪽 모서리의 경우 가죽이 일부 훼손되었고, 대개는 모서리의 연결부위가 터진 경우가 있다. 4개의 날개를 빙둘러 돌린 띠의 경우 모서리에 가까운 부분이 떨어져 나가 끝이 잘리고 돌돌 말려 있는데, 이것은 내함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생긴 손상이다. 호갑을 묶는 사슴가죽 끈은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결실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지만 제작 당시인 18세기 초의 원형을 잘 가지고 있다.

3) 흑칠외궤;

화첩을 넣은 내함을 호갑으로 싸서 넣는 외궤는 세로 46.5㎝ x 가로 63.3㎝, 높이 11.5㎝ 크기이며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상자형이다. 외궤의 판재 두께는 1㎝이고, 아래쪽 판면의 두께 또한 1㎝여서 외궤의 깊이는 10㎝ 이다.

흑칠외궤의 실측과 조사 당시 외궤

(1) 백골과 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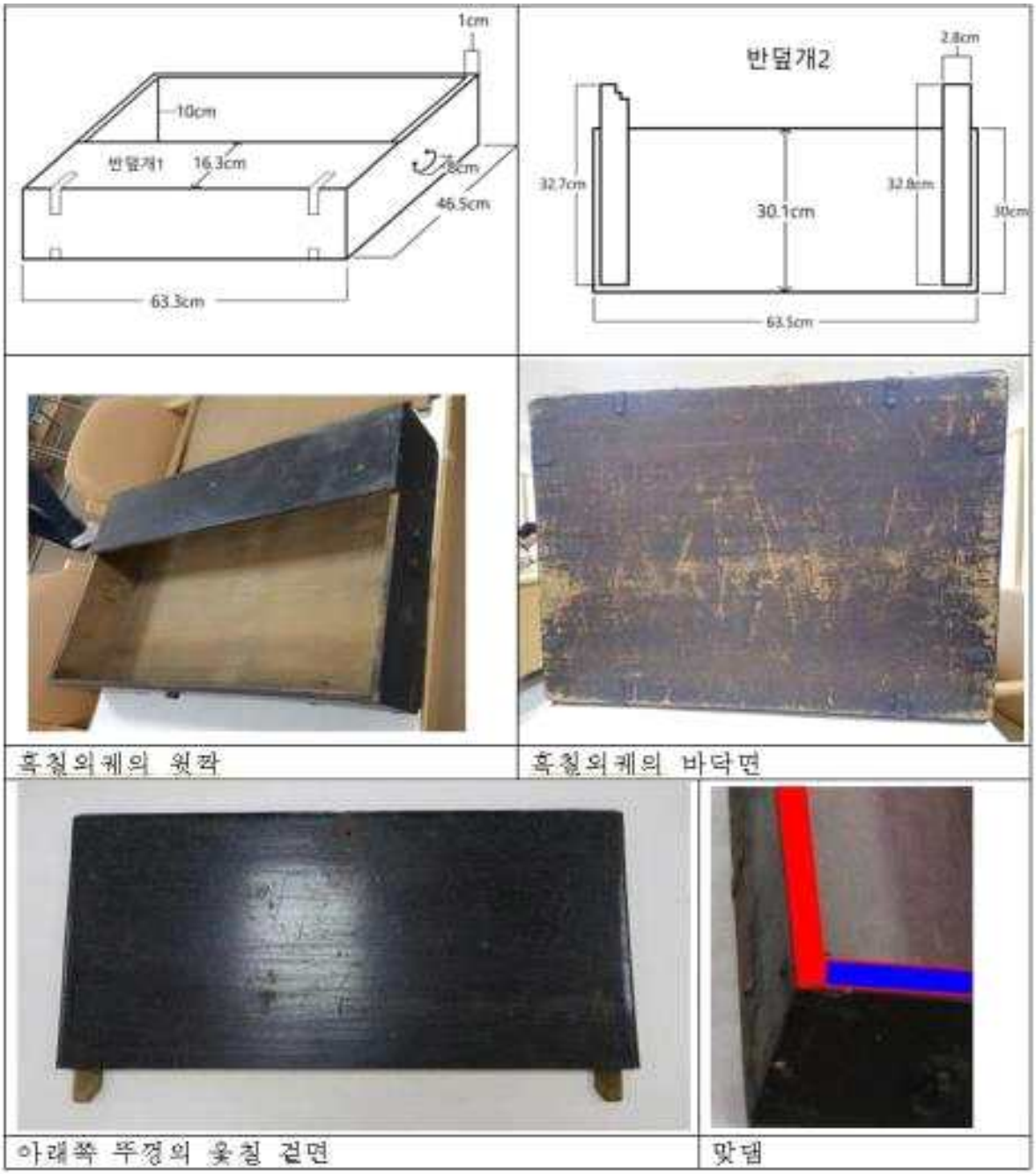
외궤를 제작한 백골의 경우 비교적 표면이 거친 소나무를 사용해서 1㎝ 두께의 판재로 켠 것을 재료로 삼아 제작하였다. 상자형으로 만들기 위해 아랫판과 옆판 및 윗판과 윗판의 판재끼리의 결합은 맞댐으로 처리하였다. 옆면의 경우 백골은 '띄엄사개'라 하여 사개짜임 중 촘촘하지 않은 사개로 짜맞추었다.

외궤 옆면의 띄엄사개(노란선) 짜임와 상하면의 맞댐 처리

(2) 외궤의 구조와 형식

외궤의 형태는 내함과 마찬가지인데, 다만 외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천판의 구조와 형태가 다른 편이다. 외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천판 부분은 1/3 위쪽과 2/3 아래쪽 판으로 절개되어 있고 이동에 편리하도록 좌우에 철제 손잡이가 달려 있다.

외궤의 전체 크기는 세로 46.5㎝ x 가로 63.3㎝, 높이 11.5㎝ 크기이며 이중 천판은 전체 46.5㎝ 길이를 위와 아래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하여 옆널에 고정시키는 부분은 전체 길이 중 1/3에 해당되는 윗뚜껑은 16.3 ㎝이고, 2/3에 해당되는 아랫뚜껑은 30.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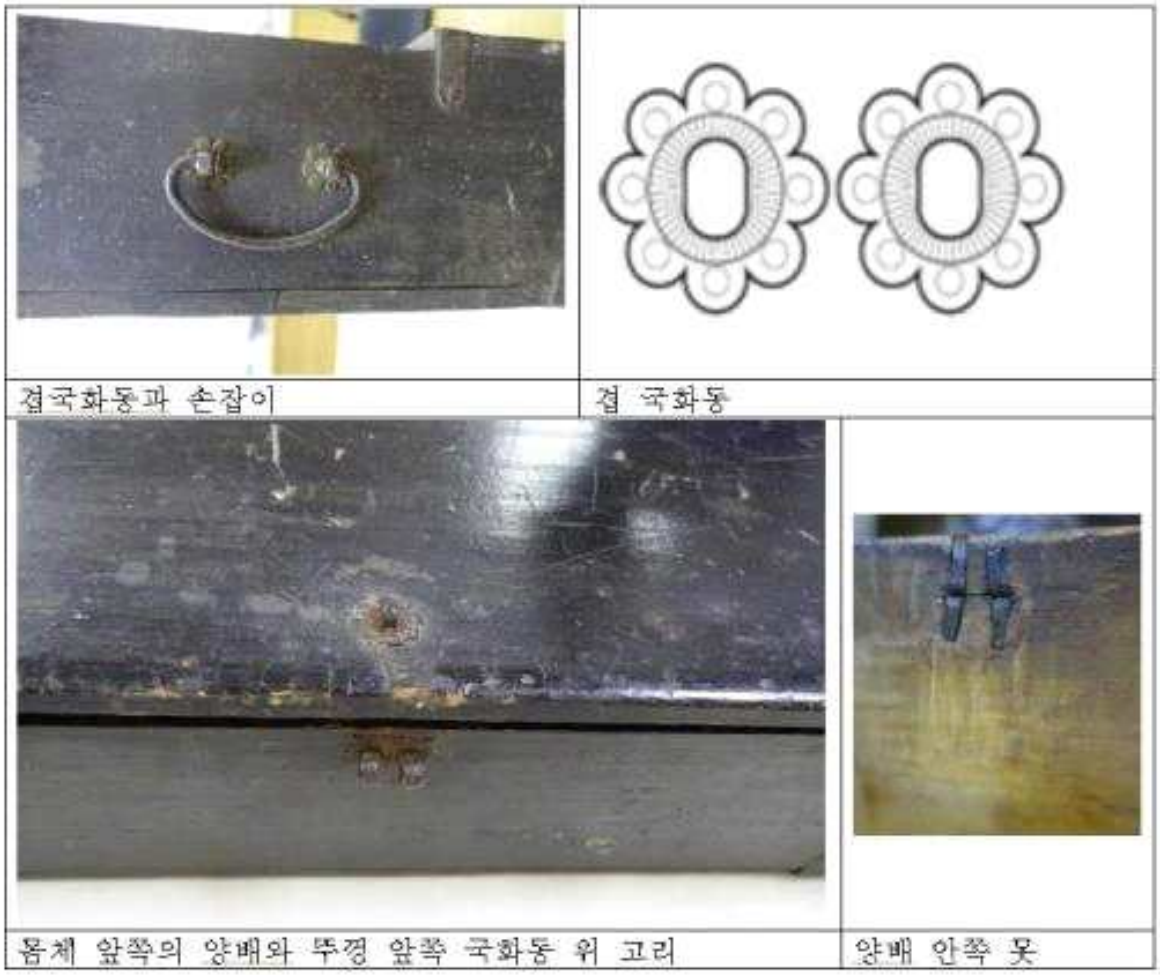
아래쪽의 뚜껑은 안쪽의 좌우 옆면에 2.8 x 32.7㎝ 크기의 부목[띠장]을 덧댄 형식으로서, 뚜껑이 몸체에서 분리되어 뺏다 끼웠다 하는 형식이다. 덧댄 부목이 삐죽 튀어나온 쪽을 고정된 뚜껑 쪽으로 밀어 넣어 고정시키는 것이다.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뚜껑 부분을 앞쪽으로 빼서 열도록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닫이 뚜껑의 경우 위로 여닫는 것과 비교된다.

이와 같이 부목을 덧댄 뚜껑의 형식은 조선 후기 돈궤나 뒤주 등에서 많이 발견된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궤에서도 뚜껑의 상하를 분리한 후 앞쪽 뚜껑 안

쪽에 부목을 좌우에 덧댄 형식까지 일치한다. 다만 후자의 궤는 뚜껑의 상하를 경첩에 의해 연결하여 반닫이처럼 여닫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

(3) 금속 장석

외궤의 밑널과 옆널은 맞댐으로 되어 있으며, 양자는 각 면에 2개씩의 시우쇠 장석이 부착하고 그곳을 다시 두정으로 박았다. 천판의 위쪽 1/4은 윗널을 옆널에 고정시킬 때 좌우에 각 1개씩의 시우쇠 장식을 붙이고 다시 두정으로 박았다.
좌우 옆널에는 각각 겹국화동을 배치하고 8㎝의 손잡이를 배목으로 사용하였다.
외궤의 아래쪽 뚜껑 정면 앞쪽에는 시우쇠로 만든 8엽 국화동 위에 고리를 박았고 안쪽 면에서 보면 좌우로 벌려져 있다.



(4)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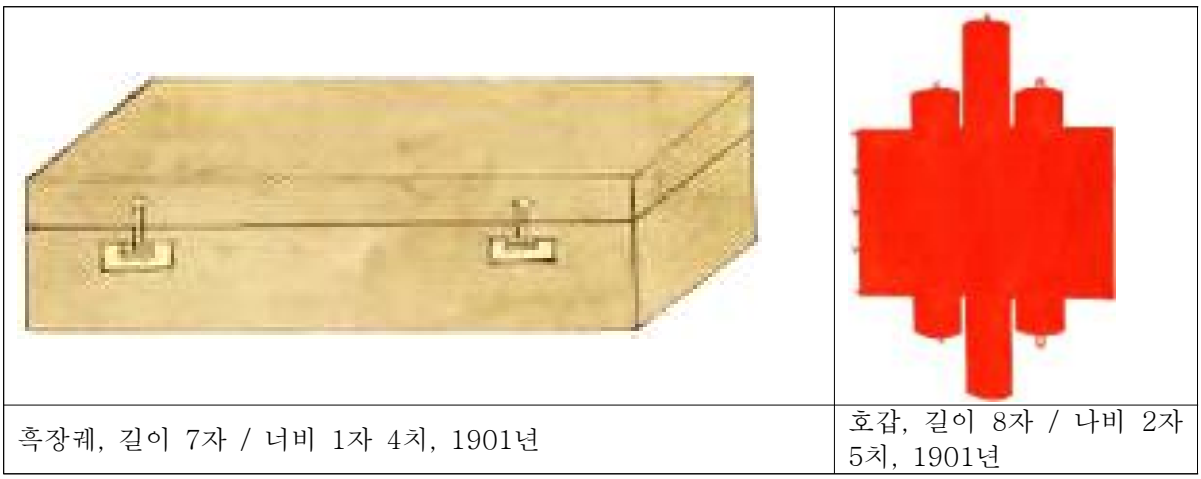
외궤는 바닥 부분의 옻칠이 긁히거나 조금 훼손되고, 뚜껑과 앞면의 자물쇠 부분이 유실된 것 외에는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양식적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기사계첩>은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 먼저 내함에 화첩을 넣고 그것을 호갑으로 싼 다음 다시 외궤에 넣는 내함, 호갑, 외궤의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봉과식 방식은 1800년에 거행된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궤』(규13121)에서 죽책을 보관하기 위해 홍화주로 죽책갑을 십자형으로 제작하여 싸고, 이것을 흑칠내궤에 두석장식으로 자물쇠를 만들어 담고, 흑칠외궤 또한 두석장식으로 자물쇠를 만들어 담았다. 이처럼 양자가 3중 구조인 점은 같으나, 죽책은 화첩과 달리 1) 비단 죽책갑으로 싸고 2) 죽책내궤에 담고, 3) 죽책외궤에 넣는 순서가 달랐다.

죽책갑, 9치5푼, 1800년	죽책내궤, 1자1치, 1800년	죽책외궤, 1자3치, 1800년

아울러 1901년 태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문조, 헌종의 <영정>을 모사하는 전말을 기록한 『영정모사도감의궤』(규13990)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영정을 흑장궤에 담고, 이것을 다시 호갑으로 싸는데, 전자와 달리 2중 구조로서 영정을 1) 흑장궤에 담은 다음 2) 호갑으로 싸는 방식이었다. 기사계첩이 내함과 호갑 및 외궤로 3중 구조로 구성되는 반면 외궤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흑장궤, 길이 7자 / 너비 1자 4치, 1901년	호갑, 길이 8자 / 나비 2자 5치, 1901년

한편 1604년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된 이산보(李山甫, 1539~1594)에게 내린 <공신교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한산이씨 충간공파 종택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의 봉과방식은 영정을 1) 내궤에 담고, 2) 호갑으로 싸는 방식이다. 이것은 영정을 담을 때 흑장궤에 담고 호갑으로 싸는 2중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기사계첩> 호갑이 무명으로 제작하는 것과 달리 <이산보 교서> 호갑은 가죽으로 만들고 있어 재료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구성 면에서 볼 때 전자는 1) 내함에 넣고 2) 호갑으로 싸고, 3) 외궤에 담는 3중 구조인 반면, 후자는 1) 내함에 넣고 2) 호갑으로 싸 2중 구조로 된 점이다.

이산보 교서와 교서함, 호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102)

이하응초상 족자와 영정함, 호갑
1869년,서울역사박물관, seo019028-004

또한 1869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50세가 되던 해인 1869년 이한철이 얼굴을 그리고 유숙이 금관조복을 그린 이하응 초상과 비교할 수 있다. 이 족자는 1) 흑칠궤에 담겨 2) 청색비단으로 두르고 3) 호갑으로 싸는 구조로 되어 있다. 양자는 모두 3중 구조인 점은 일치하였으나 전자가 청색 무명인 것과 달리 후자는 청색 비단으로 되어 있고, 전자가 흑칠외궤인 것과 달리 후자는 검은 호갑인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ㅇ 참고문헌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궤』(규13121), 1800년
『태조숙종영조정조순조문조헌종영정모사도감의궤』(규13990), 1901년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 어책조사 학술연구결과보고서』, 1, 2012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 어책조사 학술연구결과보고서』, 2, 2013.
김미라, 「조선왕실 옥책내함 제작시기 연구」, 『고궁문화』9, 2016.12.
김미라, 「조선왕실 제작 옥책 내함의 편년과 활용」, 『동양미술사학』 제7호, 2018.9.
김삼대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보인록 연구」, 『조선왕실의 어보』2, 국립고궁박물관, 2010.
김희수・김삼기, 『목가구』, 국립민속박물관, 2003.
도환주, 「조선조 뒤주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9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의 공신』. 2012.
허상호, 「조선후기 명문 괘불궤 연구」, 『불교미술사학』 제28집, 2019.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go.kr/

□

ㅇ 현　　상

- 외궤와 내함 두점 모두 보수흔적 없이 양호함

ㅇ 내용 및 특징

외궤는 소나무에 시우쇠로 장철하였으며 뚜껑에 띠장을 댄 띠장문이 부착되어 있다. 띠장문은 조선 후기에 돈궤와 뒤주에 설치한 뚜껑문의 형태이다.
띠장문이란 천판을 반으로 절개하여 앞쪽을 뚜껑으로 삼고 뚜껑 안쪽에 긴 띠장을 대어 뚜껑을 닫으면 띠장이 뒤에 고정된 천판 밑까지 가 뚜껑을 위로 열지 못하고 앞으로 빼서 열도록 한 뚜껑문의 양식이다.
내함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는 함, 보록 등 상자류의 주재료 였던 잣나무로 만들었고 두석으로 장석을 하였다. 장석 중 경첩은 상하의 크기가 동일하며 낙목은 나비머리에 죽절채를 한 숙종년간의 특징을 보인다.

ㅇ 참고문헌

『조선왕실의 어보』 제2책(국립고궁박물관, 2010).

□

ㅇ형　　식

좌우, 상하 날개를 순서대로 접고 날개에 달린 끈으로 묶는 형식

【그림 26】 ≪기사계첩≫ 호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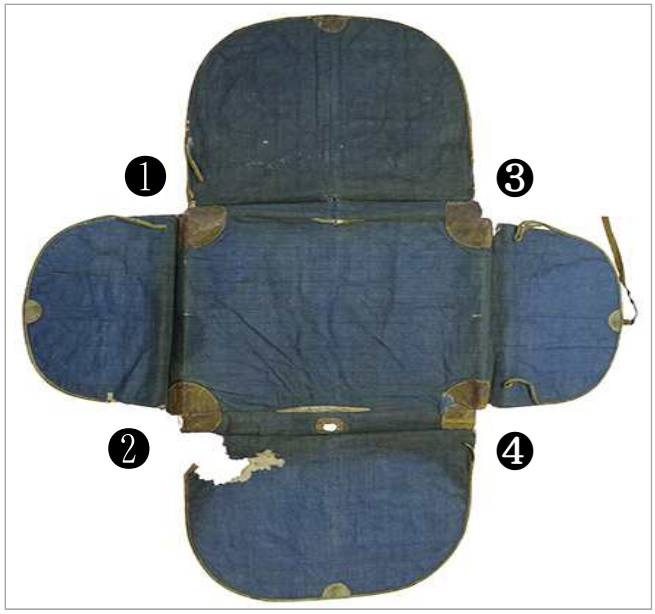
ㅇ 조성연대 : 18세기 전기(조선 숙종 45년, 1719)

ㅇ 현　　상 : 부분적 파손. 보수 필요한 상태(그림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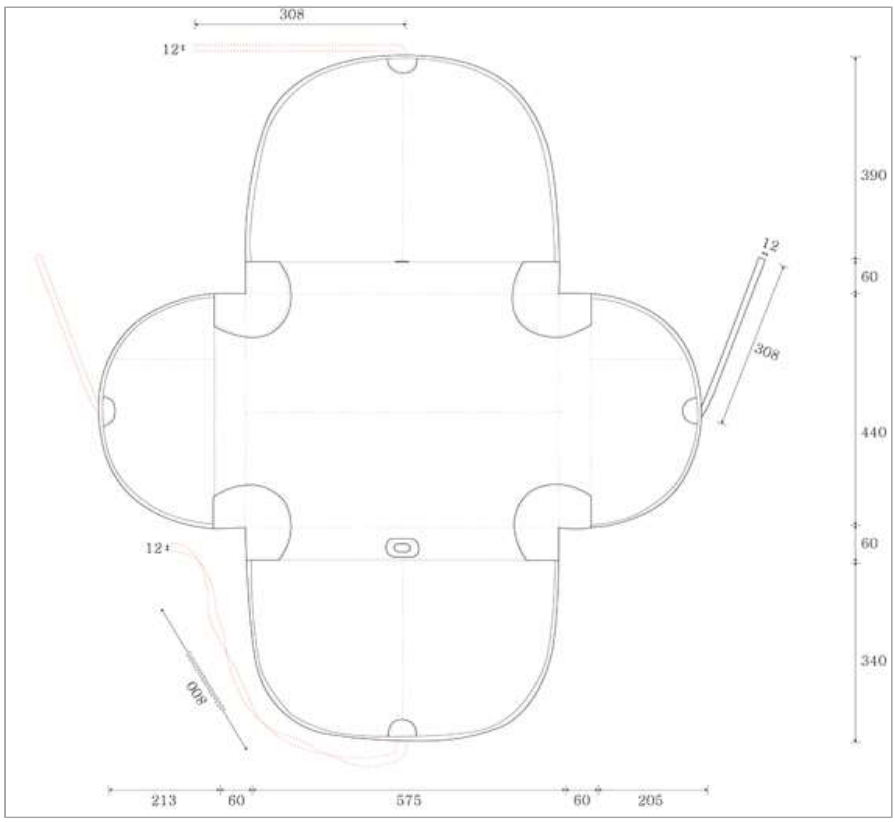
- ❶모서리 한 부분 온전, ❷한 부분 파손, ❸·❹두 모서리 박음선 풀림.
- 네 모서리 부분의 회장은 몸체와 분리된 상태.
- 묶는 네 끈 중 하나만 남은 상태.

ㅇ 용　　도 : 화첩 담은 내함(흑칠함)을 싸서 보호하는 용도

ㅇ 전개도(그림 176·177)



【그림 27】 호갑 펼친상태(겉)



【그림 28】 호갑 실측도(겉)

○ 소재[1)]

- 겉감[外拱] : 청목(靑木, 청색 무명, 1폭 30㎝, 밀도 20×14/㎝, 그림 78)
  - 세로 폭 : 28㎝ 2폭으로 만들었는데 중앙에서 연결함.
  - 좌우 날개[端] : 27㎝ 폭과 12㎝ 폭을 연결함.
- 안감[內拱] : 소색 무명(1폭 27㎝, 밀도 18×14/㎝, 그림 179)
- 배접지[褙] : 한지(그림 180)
- 실[縫作] : 삼실[麻絲](그림 181)
- 바대[錢]·회장(回裝) : 옻칠한 갈색 서피(黍皮)(그림 182)

【그림 29】 겉감(四方 5mm)

【그림 30】 안감(사방 5mm)

【그림 31】 종이(사방 5mm)

【그림 32】 삼실(사방 5mm)

1) 『寶印所儀軌』(奎 14212) 호갑 명칭과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등의 기록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호갑 유물 등을 참고하였음.

【그림 33】 옻칠한 서피 회장(겉너비 0.6㎝, 안너비 0.9㎝)

○ 제작법

- 겉감 청목 폭을 이어붙인 후 밑판과 날개 4조각(5조각) 재단.
- 소색 무명 안감 역시 폭을 이어붙인 후 겉감과 동일한 형태로 재단.
- 겉감과 안감 사이에 한지 배접(그림 183).

【그림 34】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은 종이 2~3겹 배접

- 밑판에 자물쇠 두석 낙목(落目)과 양배(兩排, 가로 2.4㎝, 세로 1㎝)를 내놓을 수 있는 구멍 만들기(그림 184~185).
  - [외경] 가로 5.5㎝, 세로 3.5㎝ [내경]가로 3.0㎝, 세로 1.5㎝
- 윗날개에 아래쪽 덮개 끈을 관통시킬 수 있는 구멍 만들기(그림 186).

【그림 35】 내함의 낙목·양배를 내놓을 호갑의 구멍(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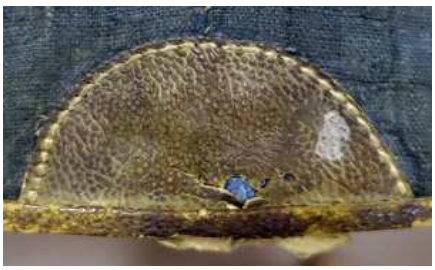
【그림 36】 내함의
낙목·양배와 호갑의 구멍

【그림 37】 아랫쪽 날개의
끈을 끼울 윗변의 구멍

- 밑판의 네 모서리에 녹피 바대(가로×세로 각 12㎝ 정도, 밑판 한 변 길이 6㎝, 높이 6㎝)를 꿰매고 세로선을 박아 상자 만들기(그림 187).

【그림 38】 밑판 모서리 서피 바대(그림 2 ❶·❷)

- 네 날개의 둥근 가장자리 중앙에 서피 끈바대(가로 6㎝, 세로 3~3.5㎝)를 상침으로 고정시킴(그림 188).
- 네 날개에 끈 고정하기 : 현재 남아 있는 길이 30.8㎝, 너비 1.2㎝
  - 아래쪽 날개 : 큰 구멍 쪽 날개의 끈은 돌띠고름처럼 한 바퀴를 돌려야 하므로 80~90㎝ 정도로 길이어야 함.
  - 나머지 두 날개 : 현재 남아 있는 끈 정도의 길이(30.8㎝)면 가능.
- 겉면에 서피 회장을 두른 후 끈 위치에 구멍을 뚫어 끈(그림 189)을 끼운 후 안쪽에서 회장의 가장자리를 감침질로 고정시킴(그림 190).



【그림 39】 서피 끈바대(가로 6㎝,
세로 3~3.5㎝)와 회장

【그림 40】 녹피끈
(길이 30.8㎝, 너비 1.2㎝)

【그림 41】 서피 회장의 안쪽 바느질 상태(좌)와 뜯어진 부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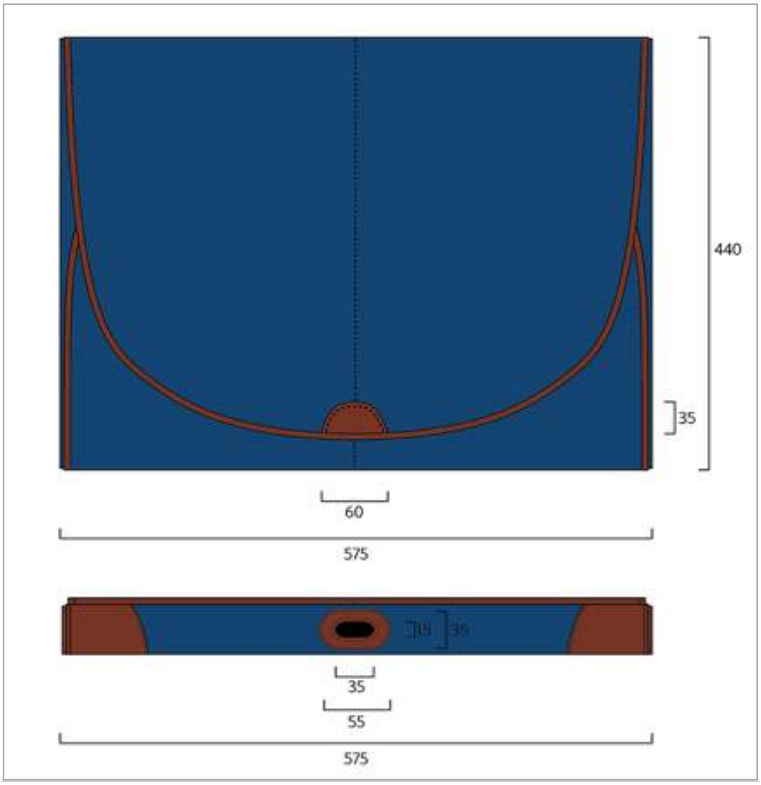
● 밑판 네 가장자리에 완성된 네 날개를 각각 연결하여 호갑 완성시킴.

○ 호갑의 사용 방식(그림 191)

- 좌・우 날개를 접는다.
- 아래 날개를 접어 위쪽 구멍에 끈을 끼워 아래로 돌려 감는다.
- 윗날개를 덮고 상・하 날개의 양 끈을 묶는다.

【그림 42】 호갑 사용법

○ 완성된 호갑의 도식화(그림 193)



【그림 43】 접은 상태의 호갑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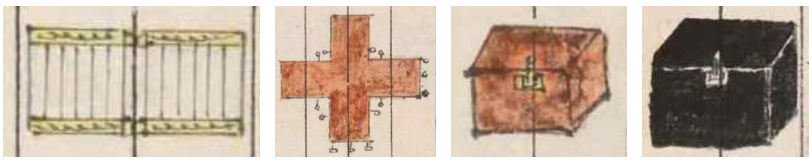
○ **참고 유물**

- 이산보 호성공신 교서함과 호갑(그림 194)
  - 1604년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된 이산보(李山甫, 1539~1594)에게 내린 공신교서와 교서함, 호갑이 한산이씨 충간공파 종택에 보관되어 있음.
  - 용도의 공통점 : ≪기사계첩≫의 호갑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함.
  - 소재의 차이점 : 사진상으로 이산보 호갑은 가죽으로 판단되며 ≪기사계첩≫은 청색 무명으로 제작하여 소재의 차이를 보임.
  - 구성법의 차이점 : 두 호갑의 제작 구성법을 비교해 볼 때, 이산보 교서함 호갑은 날개를 미리 밑판에 연결한 후 전체를 한꺼번에 둘러 회장의 훼손이 적은 반면, ≪기사계첩≫ 호갑의 회장은 네 날개에만 둘러서 밑판과 연결했기 때문에 밑판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면서 회장도 함께 훼손되어 몸체와 분리되었음. 따라서 훼손여부로 볼 때 이산보 교서함 호갑 구성법이 더 튼튼한 구성법으로 판단됨.

【그림 44】이산보 교서와 교서함, 호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 102)

ㅇ 1759년『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110~111쪽) 三房儀軌 옥책 봉과물

- ①玉冊 ②匣 ③袱袱 ④結纓子 ⑤倭朱紅漆內函 ⑥袱袱 ⑦黑漆外櫃 ⑧外裹單袱
- 옥책 관련 봉과물 도상(그림 94)



【그림 45】①玉冊 ②匣 ⑤倭朱紅漆內函 ⑦黑漆外櫃

- 匣一件所入【外用紅廣織 內藍廣織 槊用草注紙 長廣從貼數多少造作 而用象牙作丹樞 以冊盛於匣內 先以上端下摺 次以下端上摺以樞鎖之 又以右端左摺次左端右摺 亦以樞鎖之 用布帛尺】
- ≪기사계첩≫ 호갑과의 봉과물 구성 유사성
  - 옥책 봉과물 종류 8종 중 4종에 해당.
- ≪기사계첩≫ 호갑과 옥책갑의 소재 사용법 유사
  - 겉감과 안감, 그 사이에 종이 넣는 방식 접는 방식 유사함.
- ≪기사계첩≫ 호갑과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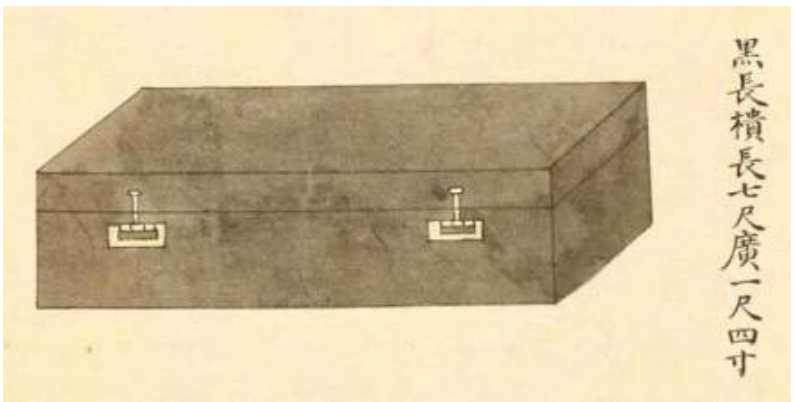
- 옥책 갑은 상아 단추로 맺는 방식인 반면, ≪기사계첩≫ 호갑은 끈으로 묶는 방식임.

○ 1860년대 이하응(李昰應, 1820~1898) 초상 흑장궤 호갑(서울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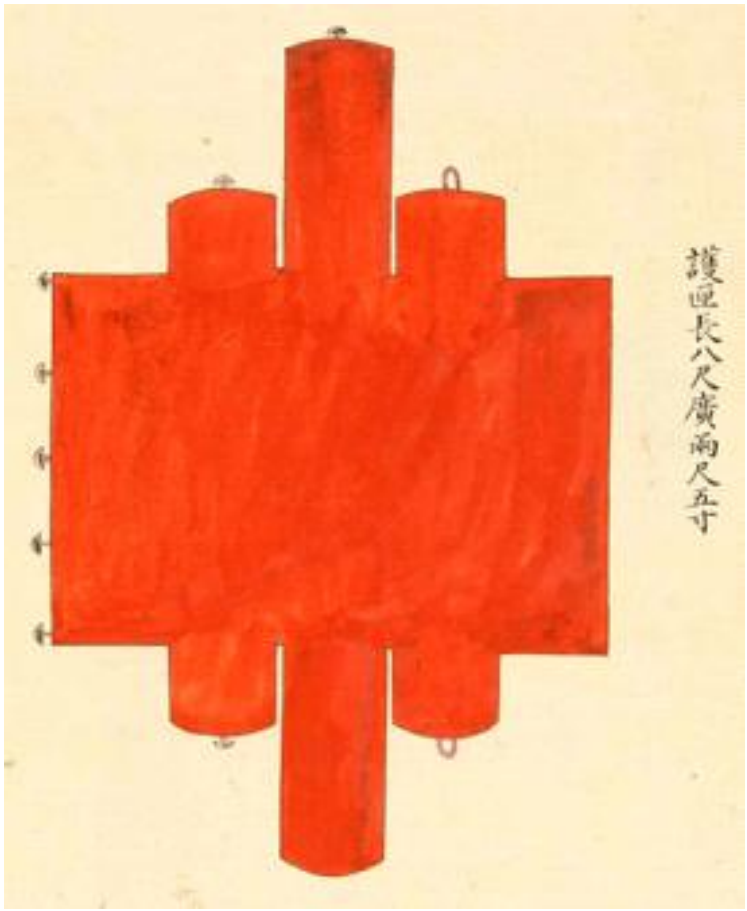
- 흑색 문단(겉)과 청색 문단(안) 두 겹으로 제작한 호갑.(그림 95)
- 종이 배접 가능성 있음.
- 끈 대신 상아 단추를 사용하여 여밈.

【그림 46】이하응 초상 흑장궤 호갑
(국립고궁박물관 2015: 120~121, 123)

○ 1901년『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影幀摸寫都監儀軌』(奎 13990) 궤와 호갑



【그림 47】1901년 흑장궤 도상
(『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影幀摸寫都監儀軌』001책: 136)



【그림 48】 1901년 호갑 도상
(『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影幀摸寫都監儀軌』 001책: 136)

ㅇ 참고자료

- 『寶印所儀軌』(奎 14212)
- 『尙方定例』
- 『世宗英陵表石營建廳儀軌』(외규160)
-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奎 13102)
- 『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影幀摸寫都監儀軌』(奎 13990)
-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 국립고궁박물관, 2015, 『국역 보인서의궤』.
- 국립고궁박물관, 2015, 『宮袱 궁중보자기』.
- 국립고궁박물관, 2016, 『國朝寶鑑』.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조선의 공신』.

보완조사보고서

□

ㅇ 주요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국왕이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한 경우는 총 네 번이 있었다. 1394년(태조 3) 태조가 60세가 되었을 때, 1719년(숙종 45) 숙종이 59세가 되었을 때, 1744년(영주 20) 영조가 51세가 되었을 때, 1902년(광무 6) 고종이 51세가 되었을 때가 그것이다.

태조가 기로소에 입소한 행사는 당대의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고, 심희수(沈喜壽)와 김육(金堉)이 작성한 「기로소선생안서(耆老所先生案序)」와 유근(柳根)이 작성한 「문충공이원익사궤장서(文忠公李元翼賜几杖序)」에 나타난다. 태조의 기로소 입소에 관한 당대 기록은 왜란이나 호란 때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태조 이후 60세를 넘긴 국왕은 나오지 않았고, 광해군은 67세까지 생존했지만 49세에 왕위에서 밀려났으므로 기로소에 입소하지 못했다.

숙종이 59세가 되던 1719년 새해에 국왕의 기로소 입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왕세자(경종)가 기로소 입소를 요청하자, 숙종은 자신이 60세가 되면 태조의 행적을 따라 기로소에 입소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강화도에 보관된 실록을 검토해도 관련 기록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심희수, 김육, 유근의 기록을 바탕으로 망육(望六, 59세)이 되는 1719년에 국왕이 기로소에 입소하고 기로신을 위한 기로연을 열기로 하였다. 또한 태조가 어필로 제명(題名)한 『기로소선생안(耆老所先生案)』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므로, 새 책자를 만들어 제일 앞에 태조의 묘호(廟號)를 쓰고, 그 다음 장에 숙종의 존호(尊號)를 쓰기로 결정했다. 다만 숙종은 당시 눈병을 심하게 앓아 직접 존호를 쓸 수 없었으므로 왕세자가 국왕을 대신하여 쓰기로 했다.

1719년 2월 11일에 숙종은 경덕궁(慶德宮, 경희궁) 흥정당(興政堂)에서 기로소 입소식을 거행했다. 영의정 김창집이 책자를 올리자 왕세자가 “耆老所御帖”이란 제목을 쓰고, 태조의 시호와 숙종의 존호(顯義 光儉 睿聖 英烈王), 기로소에 들어간 일자를 기록했다. 기록을 마치자 이 책자를 기로소로 가져가 건물 벽에 있는 감실에 봉안했다. 6월 9일에 기로소의 영수각(靈壽閣) 건물이 완성되자, 6월 24일에 『기로소어첩』을 기로소 감실에서 영수각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2월 12일에는 경덕궁 숭정전(崇政殿)에서 국왕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는 진하(進

賀)가 있었다. 왕세자가 문무백관을 인솔하고 나아가 경사를 축하하는 전문(箋文)을 올렸고, 숙종은 70세 이상의 관리와 80세 이상의 백성들에게 자급(資級)을 올려주는 혜택을 내렸다.

4월 18일에 숙종은 경덕궁의 편전인 경현당(景賢堂)에서 기로신에게 기로연(耆老宴)을 베풀었다. 기로연의 절차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나오는 「양로연의(養老宴儀)」를 응용했다. 이날 숙종은 "賜耆老所"라 새겨진 은배(銀杯)를 하사하며 기로신들에게 다섯 번째 술잔은 이 술잔으로 마시게 했다. 숙종은 어제시를 지은 다음에 이를 새긴 현판을 기로소에 걸게 했다. 숙종의 어제시 제목은 '경현당에 직접 가서 기로신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날 짓다[親臨景賢堂耆老諸臣錫宴日作]'이다.

4월 18일의 기로연이 끝나자 영의정 김창집은 국왕이 내린 은배를 가지고 기로소로 가서 잔치를 계속하겠다고 아뢰었다. 숙종은 기로연에 참석했던 악부(樂部)를 데려가도록 허락했고, 기로신 10인은 기로소에 이동하여 잔치를 계속했다.
9월 28일에 경덕궁 경현당에서 숙종을 위한 진연(進宴)이 거행되었다. 이날 숙종에게는 9잔의 술잔 대신에 7잔의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행사를 간소화했으며, 진연에 관한 기록은 『숙종기해진연의궤(肅宗己亥進宴儀軌)』로 정리되었다.

『기사계첩(己巳契帖)』은 1719년에 있었던 숙종의 기로소 입소와 기로신에게 내린 기로연을 기록한 것으로, 4월 18일 기로연이 끝난 후 작성되기 시작하여 1720년 12월에 완성되었다. 『기사계첩』은 총 12부가 작성되었으며, 1부는 기로소에 보관하고 11부는 기로신 11인이 한 부씩 나눠가졌다.

『기사계첩』의 제일 앞에는 임방(任埅)이 지은 계첩서(契帖序), 숙종의 어제시인 숙종대왕어제(肅宗大王御製), 김유(金楺)가 지은 어첩발(御帖跋)이 있다. 다음에는 1719년의 각 행사에 참여한 관리의 명단과 행사를 시간 순으로 그린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 숭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가 있다. 그 다음에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최규서를 제외한 기로신 10인의 반신초상이 있다. 당시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아서 초상을 그릴 때 참석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김창집을 비롯한 기로신 19인의 칠언시가 수록되어 있다. 숙종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는 시는 최규서와 임방을 제외한 9인의 기로신이 작성하였고, 기로연에 참석한 후에 지은 시는 최규서를 제외한 10인의 기로신이 작성하였다. 이 계첩의 마지막에는 『기사계첩』을 제작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

보물 제639호인 『기사계첩』은 표지의 제목이 "耆英畫像帖"으로 되어 있어, 국보 제325호의 제목인 "己亥耆社帖"과 보물 제929호의 제목인 "耆社契帖"과는 다르다. 이 『기사계첩』의 제1면과 제2면에는 "晩退堂藏", 제53면과 제54면에는 "傳家寶藏"

이란 글씨가 있어, 1719년 행사에 참여한 기로신 가운데 홍만조(洪萬朝)가 소장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계첩은 지금도 풍산 홍씨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어 그 전승 과정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 『기사계첩』은 다른 소장본에 비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 국보 제325호에 없는 계첩을 제작한 참여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사계첩』은 책자를 온전히 보관하기 위한 흑칠내함, 쪽빛무명호갑, 흑칠외궤를 완전히 갖추고 있어, 계첩만 남아있는 다른 유물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ㅇ 참고자료

『기사계첩』(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76)
김문식,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사학지』 40, 2008.
김문식, 「1902년 고종황제의 기로소 입소」, 『국왕 의례 정치』, 태학사, 2009.

□

ㅇ 현　　상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기사계첩(耆社契帖) 및 함'은 54면으로 구성되었다. 제작 당시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서화첩을 보관한 내함·호갑·외함이 잘 갖춰져 있다. 제24면 김창집 반신 초상의 회장 부분에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붙였던 흔적이 보이고, 제39면 이선부의 <敬此> 두 번째 시에서 '協'자는 네모나게 잘라내어 다시 써서 붙였다. 제41면 신임의 칠언시에서 '言同樂駐東流'는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보이고, 제44면 김창집의 칠언시 끝부분 '領議政金昌集'에는 무언가를 붙였던 흔적이 보인다. 54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앞표지 : 耆英畫像帖(36.8x6.0cm)이란 표제가 있음.
제1-2면 : 제1면에 '晩退', 제2면에 '堂藏'이 각각 1행 2자.

제3-4면 : 契帖序 2면.
제5-6면 : 모두 홍색 비단이나 제5면은 공간이고, 제6면은 肅宗大王御製임.
제7-8면 : 御帖跋 2면.
제9-10면 : 契會 행사 때 陪進한 人名 2면.
제11-12면 : 御帖奉安圖 2면.
제13-14면 : 崇政殿進賀箋圖 2면.
제15-16면 : 景賢堂錫宴圖 2면.
제17-18면 : 奉盃歸社圖 2면.
제19-20면 : 耆社私宴圖 2면.
제21-22면 : 座目 2면.
제23-24면 : 李濡·金昌集의 眞影.
제25-26면 : 金宇杭·黃欽의 眞影.
제27-28면 : 姜鋧·洪萬朝의 眞影.
제29-30면 : 李善溥·鄭澔의 眞影.
제31-32면 : 申銋·任堕의 眞影.
제33-34면 : 金昌集·李濡의 祝詩.
제35-36면 : 金宇杭·黃欽의 祝詩.
제37-38면 : 姜鋧·洪萬朝의 祝詩.
제39-40면 : 李善溥·鄭澔의 祝詩.
제41-42면 : 申銋·任堕의 祝詩.
제43-44면 : 李濡·金昌集의 祝詩.
제45-46면 : 金宇杭·黃欽의 祝詩.
제47-48면 : 姜鋧·洪萬朝의 祝詩.
제49-50면 : 李善溥·鄭澔의 祝詩.
제51-52면 : 제51면은 申銋의 祝詩, 제52면은 계첩 작성의 監造官·書寫官·畫員의 명단.
제53-54면 : 제53면에 '傳家', 제54면에 '寶藏'이 각각 1행 2자.
뒤표지 :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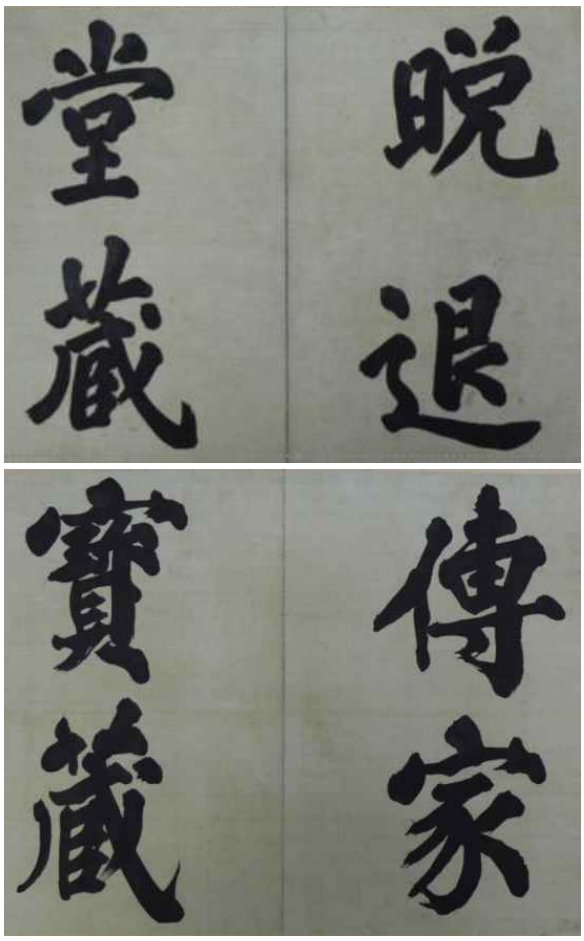
이 중에서 앞표지의 표제 '耆英畫像帖'과 제1-2면의 '晩退堂藏' 및 제53-54면의 '傳家寶藏'은 다른 기사계첩에 없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전승 경위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를 제외한 총 50면은 서예와 그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서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3-4면의 契帖序, 제6면의 肅宗大王御製, 제7-8면의 御帖跋, 제9-10면의 契會 행사 때 陪進한 人名, 제21-22면의 座目, 제33-51면의 耆

臣들의 祝詩, 제52면의 계첩 작성의 監造官・書寫官・畫員의 명단 등이다. 이를 서사자로 구분하면 크게 어필, 기신(耆臣)의 자필(自筆), 서사관의 글씨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신들의 자필은 각자의 서체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서예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외의 것은 모두 그림에 속하니, 여기에서는 서예에 속하는 부분만 대상으로 삼아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겠다.

ㅇ 내용 및 특징

서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먼저 앞표지의 '耆英畫像帖', 제1-2면의 '晩退堂藏', 제53-54면의 '傳家寶藏'은 서풍이 서로 다르고, 다른 기사계첩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임방(任埅, 1640~1724)이 쓴「契帖序」에 의하면, "계첩은 12부이고, 그중의 하나는 기소에 소장하였으며, 나머지는 기신(耆臣)의 여러 집에 나누었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11명이나 초상을 그린 것이 10명인 것은 신하 최규서(崔奎瑞, 1650~1735)가 은퇴하여 고향 집에 있어서 임금에게 나아가 뵐 수 없었던 까닭이다[帖凡十二, 其一藏於耆所, 餘則分於諸家. 名錄爲十一人, 而圖像則爲十者, 臣奎瑞以退處田

廬, 不得登筵, 故也]."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11부를 반사(頒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반사할 때 제첨(題簽)은 공간으로 비워두는 것이 통례이다. 현재 기사계첩 제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耆英畫像帖' 이외에 '己亥耆社帖'(국보 제325호), '耆社契帖'(이화여대박물관본, 보물 제929호), '耆老所契帖', '親臨己亥耆社契帖' 등이 있다. 이는 소장처가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晩退堂藏'에서 만퇴(晩退)는 홍만조(洪萬朝, 1645-1725)의 호이고, '傳家寶藏'은 집안에 전하여 보물로 소장한다는 뜻으로 '耆英畫像帖'이 기신(耆臣)의 한 사람인 홍만조 소장품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현재 풍산홍씨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으므로 작품의 경위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耆英畫像帖'의 글씨는 '肅宗大王御製'를 본받은 것 같으나 이보다 필획이 정확하고 단정하며 굳센 것이 특징이다. '晩退堂藏'은 둥근 필획의 원필(圓筆)을 주로 운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은 있으나 골력보다 살짐이 많아서 점잖고 의젓한 유생의 문인 글씨와 같다. 이에 비해 '傳家寶藏'은 모나거나 둥근 방필(方筆)과 원필을 운용하여 능각(棱角)을 나타내는 굳센 느낌과 힘찬 필획에서 굳세고 단호하며 호방한 무인의 글씨와 같아 '晩退堂藏'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제3-4면의 契帖序는 임방의 글씨로 제42면의 耆老錫宴後以首輔命唱呈二律과 비교하여 설명하겠다. 전자는 파리하고 필획의 굵기가 거의 일정하며, 후자는 살지고 필획이 굳세면서 가로획보다 세로획을 더욱 굳세고 곧게 처리하며 골격을 나타내었다. 서체는 해서로 약간 행서 필의를 더하여 활발함을 나타내었고, 필세는 자간보다 행간이 넓어 종세를 나타내었다. 서체는 장식적인 미와 필력이 결핍된 송설체에서 벗어나 왕희지 서체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웅건하고 혼후한 안진경 서체를 본받았다. 전자와 후자의 유사성은 '糸・灬・彳' 등의 부수를 행서 필의로 처리한 것, '事・前'에서 마지막 세로획을 길게 빼지 않으면서 중심을 중궁(中宮)에 두었다는 것, '艹'의 필순・형체・각도가 유사하다는 것,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서사한 '堈'에서 '防'의 자형・위치・각도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제6면의 肅宗大王御製는 숙종의 어필이 아니니, 당시 숙종은 시력이 약해져서 왕세자(즉 경종)가 대신 서사한 것이다. 이는 임방의 契帖序에서 "금상전하(즉 경종)께서 춘궁에 계실 때 왕명을 받들어 어첩 머리에 태조대왕의 시호를 적으셨다[今上殿下在春宮, 承命寫御帖首題, 太祖大王謚號]."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다시 다음에 보이는 김유(金楺, 1653-1719)의 御帖跋에서 "예부의 신이 건언하길, '마땅히 하나의 첩자를 만들어 왕세자(즉 경종)께서 친히 태조의 존호와 연월일을 쓰시고, 그 아래에 우리 전하의 존호와 연월일을 써서 들이시며, 들임을 마치면 승지 예부 신은 의장을 갖추어 본 기소(耆所)에 봉안하십시오.'라고 하자 상은 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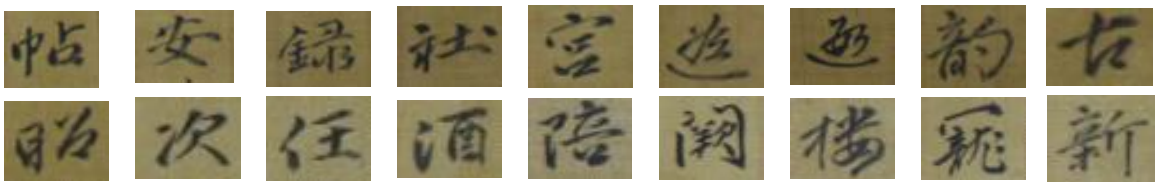
다고 하셨다[禮部臣建言, 宜作一帖子, 春宮親寫, 太祖尊號, 某年月日, 入其下書, 我殿下尊號, 某年月日, 入訖, 承旨禮臣, 具儀仗奉安本所, 上可之]."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보면, 肅宗大王御製는 숙종이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왕세자였던 경종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숙종이 을해년(1719) 태조대왕의 고사에 따라 기소(耆所)에 납시고 4월 18일 경덕궁 경현당에서 기신(耆臣)들을 위한 연회를 베푸셨으며, 특히 은잔을 하사하시어 은총을 내리셨다는 것이다. 글씨는 부친 숙종의 글씨를 닮았으며, 법도가 단정하고 의젓하며 부드러운 서풍은 왕실에서 용인한 조맹부나 한호의 송설체(松雪體)와 석봉체(石峯體)를 학습한 면모가 보인다.

제7-8면의 御帖跋은 당시 이조참판으로 대제학을 겸하였던 김유가 쓴 것으로 내용은 계첩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기록하여 기사(耆社)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글씨는 필획의 변화가 많지 않고 간가(間架)는 너그러워 군색하지 않으며, 살지거나 파리함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중화미(中和美)를 나타낸 여유롭고 의젓한 문인의 필치이다. 서풍은 자형과 적획(趯畫)·날획(捺畫)·과획(戈畫)·辶 등에서 송설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9-10면의 契會 행사 때 陪進한 人名은 서사관이 썼다. 그는 제52면의 기록을 통해 서사관상호군(書寫官上護軍) 이의방(李義芳, 생몰 미상)이란 성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적은 자세하지 않다. 이외에 제21-22면의 座目, 제52면의 계첩 작성의 監造官·書寫官·畫員의 명단 등도 서사관이 쓴 것으로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사전에 의하면, 서사관(書寫官)은 각 관아에서 필사하는 일을 하였던 잡직의 구실아치이고, 사자관(寫字官)은 조선시대 승문원·규장각에 속하여 문서를 베끼는 일을 맡아보던 말단 벼슬이라 하였다. 이를 보면, 서사관은 사자관보다 낮은 하급관리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서사관의 임무는 오로지 올바르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사하는 실용서예에 충실히 하는 것이어서 작가의 성정을 나타내는 예술서예와 구별이 있다. 따라서 서사관 이의방이 쓴 글씨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행서 필의가 전혀 없는 방정한 해서로 자형과 필획은 변화가 없고 자간과 행간은 일정하며, 필획 사이의 간가(間架)는 고르고 한결같아 마치 판에 박은 듯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하며 천편일률적이어서 보기에 좋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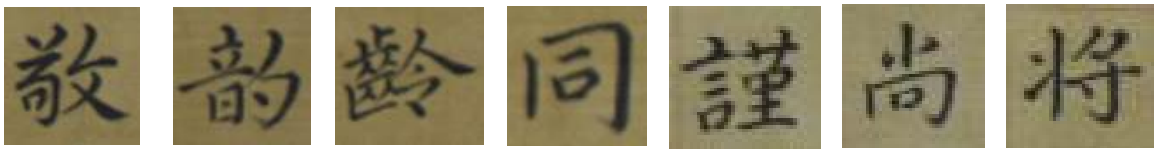
제33면은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칠언시「耆社志喜」·「賀班」·「謹次洪尙書賀班韻」3수인데, 제44면의「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과 함께 살펴보겠다. 그는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자이고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며, 동생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김창업(金昌業)·김창집(金昌緝)·김창립(金昌立)과 함께 문장의 대가로 육창(六昌)이라 불렸다. 그의 백부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중국 송나라 구양수(歐陽脩, 1107-1072)가 역대 금석문을 모아『집고록발미(集古錄跋尾)』를 편찬한 것처럼 우리나라 금석문을 모아『금석총(金石叢)』180권을 이루어 금석학사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김수증은 유독 예서를 천착하였는데, 이는 남인의 핵심이었던 허목이 선진유학과 고문에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고전(古篆)을 깊이 천착한 것에 비하여 그는 서인의 핵심이었던 송시열과 긴밀하여 한나라 훈고학의 연구 방법을 취하여 진・한나라의 소전・예서를 중시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예서 전통은 가학으로 전해져서 12대손 김충현(金忠顯, 1921-2006)에 이르러 더욱 꽃을 피웠다. 이러한 예서의 영향은 김창집에게도 전해져서 편방형의 넓적한 자형이 많이 보인다. 이는 마치 예서에서 해서로 변천하는 과도기 시기에 중국 종요(鍾繇, 151-230)의 <천계직표(薦季直表)>・<선시표(宣示表)> 등에 나타나는 예서의 필의를 띤 넓적한 자형의 질박한 서풍과도 같다. 예를 들면, '帖・安・錄・社・宮・邀・遐・韻・古・昭・次・任・酒・陪・闕・樓・寵・新'자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글자들은 일반적으로 장방형이나 아무리 키를 작게 하여도 정방형에 가까운 자형을 나타내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그는 자간보다 행간이 넓은 종세(縱勢)의 필세 바탕 위에 이러한 글자들은 적당하게 안배하여 종세 가운데 횡세(橫勢)를 나타내는 착락(錯落)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유행서풍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성정과 정취를 나타낸 독특한 서풍이라 하겠다.



예서 필의를 나타낸 편방형(扁方形)의 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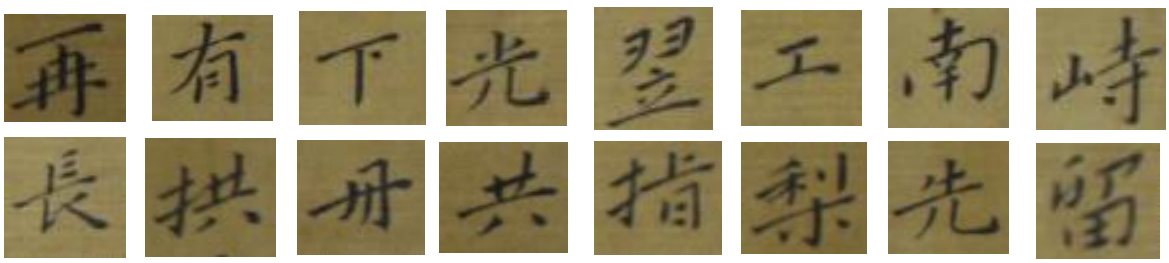
제34면은 영중추부사 이유(李濡, 1645-1721)의「敬次耆社志喜韻」으로 제43면의「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와 함께 살펴보겠다. 점과 필획의 안배는 가지런하여 안온한 느낌이 들고, 자간을 조금 넓게 하여 답답하지 않으면서 여유로운 운치를 나타내었다. 자형은 장방형을 주로 하면서 자간보다 행간이 넓어 종세(縱勢)의 필세를 나타내었고, 서풍은 규범적인 한호의 석봉체와 유사하다. 장방형을 이루는 전형적인 해서는 위가 긴밀하고 아래가 성근 상밀하소(上密下疏)를 운영하여 키가 훤칠하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의 일부 자형은 위아래를 고르게 안배하고 중심이 중궁(中宮)에 있는 정방형을 나타내어 안정감은 있으나 생동한 느낌은 떨어진다. 이러한 예는 '敬・韻・齡・同・謹・尙・將' 등의 글자에서 보인다.



위아래를 고르게 안배하고 중심이 중궁(中宮)에 있는 자형

제35면은 김우항(金宇杭, 1649-1723)의「謹次領相金公耆社志喜韻」·「謹次洪尙書賀班韻」으로 제45면의「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과 함께 살펴보겠다. 해서에 행서 필의를 섞은 해행서로 왕희지 서체를 본받았으나 가로획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어 활발한 기운보다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자간이 조금 넓어 글자마다 독립되어 서체는 비록 해행서이지만, 왕희지 글자를 집자하여 쓴 것처럼 필세가 연결되지 않고 판에 박은 듯한 느낌이 든다. 한 글자마다 필법을 준수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꼬박꼬박 쓴 것에서 평생 청빈한 삶과 근엄한 문인의 절조가 느껴진다.

제36면은 황흠(黃欽, 1636-1730)의「謹次首相耆社志慶韻」으로 제46면의「謹此耆社諸公韻」과 함께 살펴보겠다. 그의 글씨는 용필과 결구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성을 나타내었다. 해서에서 가로획의 일반적 필법은 기필의 윗부분과 수필의 아랫부분이 수평을 이루어야 위로 향한 듯하면서도 안정감을 나타낸다. 만약 기필의 윗부분과 수필의 윗부분이 수평을 이루면 아래로 쳐지는 느낌이 들고, 수필의 아랫부분이 기필의 윗부분보다 많이 올라가면 공중에 뜬 느낌이 든다. 황흠의 가로획은 후자에 속하고, 이는 대부분 붓을 비스듬히 뉘어 쓰는 언필(偃筆)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로 말미암아 자형 또한 쏠리고 기울어진 형체를 형성하였다. 이는 '再·有·下·光·翌·工·南·峙·長·拱·丹·共·指·梨·先·留' 등의 글자에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 송나라 소식(蘇軾, 1037-1101) 서예의 주요 특징으로 바위에 눌린 두꺼비의 형상이라는 놀림이 있었지만, 굳센 필획과 비옥한 살짐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오히려 독특한 서풍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황흠의 글씨를 보면, 소식 서풍의 겉모습만 본받았을 뿐 내면의 진정한 면모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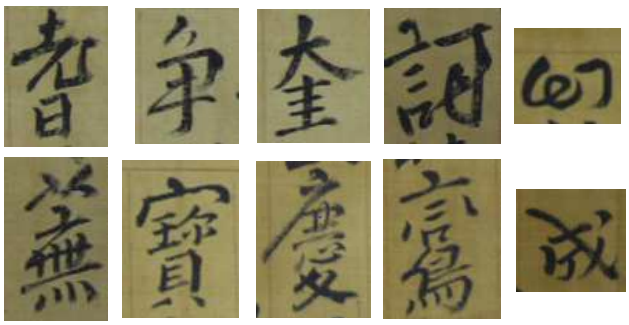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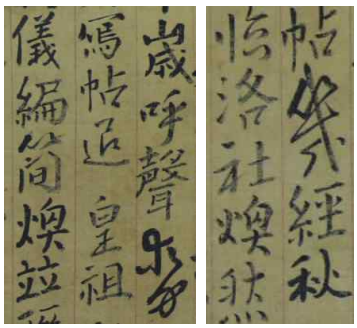
가로획이 지나치게 위로 향하거나 기울어진 자형

제37면은 행지중추부사 강현(姜鋧, 1650-1733)의「敬次耆社志喜韻」·「敬次賀班韻」으로 제47면의「敬次」와 함께 살펴보겠다. 그는 부친 강백년(姜栢年, 1603-1681)

을 이어 아들 강세황(姜世晃, 1713-1791)과 함께 삼대가 기소(耆所)에 들어가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의 영광을 누렸다. 특히 강세황은 시·서예·회화 삼절로 유명하고, 높은 감식안을 지닌 서화 평론가로도 명성이 있었다. 집안 대대로 서예의 명성이 있었고, 그는 특히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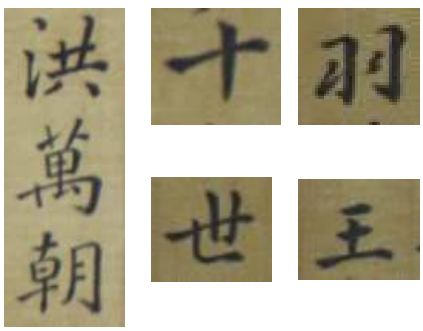
그의 글씨는 기신(耆臣)들 자필에서 가장 개성적 색채를 나타내었다. 서체는 해서를 기조(基調)로 삼고, 여기에 행서나 초서 심지어 예서 필의까지 섞어 변화무쌍함을 나타내었다. 비록 때로는 안진경 <제질고> 필의를 띠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자가풍(自家風)의 서체라 할 수 있다. 용필은 질박하고 법도의 구속을 초탈한 천진함을 나타내면서 지면 가득히 종횡무진 제멋대로 하였으며, 자형에서도 일반적인 격식을 벗어난 자신의 독특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먹색은 진하거나 옅은 농담의 변화가 있고, 필세는 활달한 기상을 유감없이 나타내었으며, 필치는 거칠고 호방한 가운데 섬세한 필법을 갖추면서 유창함과 묘함을 겸하였다. 이러한 글씨는 평소 각 서체를 섭렵하고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연마하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나타내며 소식이 말한 "글씨는 처음 아름다움에 뜻이 없어야 아름답게 된다[書初無意於佳乃佳爾]."라는 경지를 체현한 것이라 하겠다.


개성적
자형


먹색의
변화

<제질고>
필의

제38면은 홍만조(洪萬朝, 1645-1725)의 「敬次首相耆社韻」·「陳賀日口占志喜錄呈求和」로 제48면의 「謹次任尙書耆老賜宴後韻」과 함께 살펴보겠다. 글씨는 비록 달필이고 노년의 원숙미를 나타내었지만, 골격과 필력이 뛰어나지 못하여 한낱 늙은 선비의 의젓하고 여유로운 자태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일부 몇 글자와 자신의 성명을 서사한 데에서 기개와 절조가 나타나고 있어 충성스러운 선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9면은 이선부(李善溥, 1646-1721)의 「敬次」 2수이고, 제49면에도 「敬次」 1수

가 있으나 성명 밑에 2행으로 '孫海運 代寫'라 썼으므로 본인의 글씨가 아니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제40면은 한성부판윤 정호(鄭澔, 1648-1736)의「敬次元輔夢窩金公耆社志慶韻」·「敬次賀班韻」으로 제50면의「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과 함께 살펴보겠다. 그는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鄭澈, 1536-1593)의 4대손이고,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하생으로 일생을 노론의 선봉 역할을 하였으며, 시문과 서예로도 유명하였다. 그의 글씨는 스승 송시열이 안진경 서체를 배운 뒤 주자를 모방해 개성적인 경지에 이른 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필획은 굵고 강직하며, 운필은 장중하면서도 동태적인 미를 나타내어 답답하기보다는 주체성이 강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서풍은 웅건하고 장중하며, 필법에 구애받지 않는 자연스러움은 기교가 없는 질박한 미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의 미가 함께 어울려 교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는 당시 유약하고 쇠미한 송설체에서 벗어나 서예를 단순한 기예에서 성리학 수양의 범주로 끌어올리며, 조선 서예의 토착화를 모색하는 면모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제41면은 우참찬 신임(申鋹, 1639-1725)의「二聖御帖奉安靈壽閣後賡和領台金相國志喜詩兼呈同社諸公」2수로 제50면의「親臨錫宴後次任知樞詩韻」과 함께 살펴보겠다. 그는 시와 서예로 유명하였고, 창덕궁 영수각(靈壽閣)의 편액을 썼을 정도로 당시 명성이 있었다. 글씨는 당나라 우세남의 서풍을 본받아 소쇄하고 윤택하며, 외유내강처럼 정신을 안으로 지켜 운치가 뛰어났다. 필획은 단정하고 적획(趯畫)과 날획(捺畫)의 파임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자형은 대체로 키가 큰 장방형이고, 자간보다 행간이 넓은 종세(縱勢)의 필세를 나타내었다. 필치는 비록 유창하지 않지만, 전혀 무리가 없이 서두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서사하면서도 여유와 의젓한 자태를 나타내었다.

ㅇ 문헌자료

·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圖錄(5) 特別展 耆社契帖, 이화여자대학교 1976.

· 곽노봉,『서체』, 다운샘 2015.

□

ㅇ 현 상

조선의 19대 국왕 숙종의 회갑을 맞아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계첩 12본 가운데 하나로, 상태가 매우 양호한 계첩과 이를 포장한 호갑, 호갑에 포장하여 계첩 담는 내함 및 총괄하여 보관하기 위한 목재 궤까지 갖추고 있다.

- 청색 비단으로 마감된 표지에는 제첨이 있는데, 여기에 적힌 글씨들은 현전하는

이본마다 내용이 다르다. 이 첩의 경우는 “耆英畫像帖” 다섯 글자가 행기가 있는 해서로 적혀 있다.

- 1, 2면에 해당하는 내지에는 서자 미상의 대자 해서 네 글자가 있다.
- 3, 4면에는 임방(任埅, 1640~1724)이 지은 서문이 있는데, 해서와 행서를 섞어 서사관 이의방이 쓴 것으로 보인다.
- 5면은 금니 구획선만 있고 내용은 없으며 6면에 숙종의 어제시 한 수와 관련 사항을 부기하였다.
- 7, 8면에는 김유(金楺, 1653~1719)가 지은 발문이 있는데, 이 역시 서사관이 쓴 것으로 보인다.
- 9, 10면은 어첩 봉안과 기로연 등에 참여한 인원의 명단이며 서사관 이의방이 썼다.
- 11면부터 20면까지는 어첩 봉안부터 기로사에서의 연회 장면을 기록한 그림들이다.
- 21, 22면은 이의방이 쓴 좌목이 있다.
- 23~32면에는 10인의 기로신 반신상이 있다.
- 33면에는 당시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자작 시 세 수를 적었다. 김창집의 이름 주위에 접착한 흔적이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본에는 이런 흔적이 없다.
- 34면은 영중추부사 이유(李濡, 1645~1721)가 짓고, 자필로 쓴 시 한 수가 있다.
- 35면에는 김우항(金宇杭, 1649~1723)이 자신의 시 세 수를 쓴 것이 있다.
- 36면에는 황흠(黃欽, 1639~1730)이 짓고 쓴 칠언시 한 수가 있다.
- 37면에는 강현(姜鋧, 1650~1733)이 짓고 쓴 시 두 수가 있다.
- 38면에는 홍만조(洪萬朝, 1645~1725)가 짓고 쓴 시 두 수가 있는데, 홍만조는 이 화첩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 39면에 있는 이선부(李善溥, 1646~1721)의 시 두 수는 그의 손자 海運이 대신 썼다.
- 40면에는 정호(鄭澔, 1648~1736)가 짓고 쓴 칠언시 두 수가 있다.
- 41면에는 신임(申銋, 1639~1725)이 짓고 쓴 시 네 수가 있다.
- 42면에는 임방이 자작시 두 수를 직접 써 놓았다.
- 43면부터 51면까지는 임방을 제외한 아홉 사람의 시 아홉 수를 지은이들이 직접 썼으며, 그 순서는 임방만 건너뛸 뿐 위의 순서와 같다.
- 52면에는 제작에 참여한 인원의 명단으로 서사관 이의방이 썼다.
- 53, 54면에는 대자 행서 ‘傳家寶藏’이 두 글자씩 있다.
- 서사관이 쓴 어제와 서문과 발문을 제외하고 시는 모두 지은이들이 손수 썼다. 39면에 있는 이선부의 시는 그의 손자 이운해가 대필한 것이다. 이 시의 둘째 수에 ‘協’ 자를 수정하기 위해 종이를 따로 붙였고, 41면에 있는 신임이 쓴 시에서도 오자를 닦아서 지우고 고친 흔적이 있는데 이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본에는 없다.
- 이 첩에는 48면 홍만조의 시에 제목이 없으나, 국립중앙박물관 본에는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이 첩은 국왕을 비롯하여 기로신 11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하여 한 본씩 소장했던 계첩으로, 중심 행사였던 기로연을 소재로 한 기록화와, 기로신 11인의 반신초상화를 수록하고, 이어서 국왕이 지은 어제시, 기로신들이 어제시의 뜻을 이어 지은 시와 차운시를 담고 있다. 어제시는 당시의 세자가 썼으며 서문과 발문 등 공적인 내용은 서사관 이의방이 맡아서 썼고, 행사에 참석한 기로신들이 지은 시들은 모두 그들이 손수 썼다.

계첩을 반사할 때 표제를 비워 놓았기 때문에 수령한 기로신이나 그 집안에서 제첨에 글씨를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는 미상이다.

또, 앞뒤 표지 안쪽의 내지에는 행기가 있는 대자 해서가 각각 네 글자씩 있다. 주인인 홍만조의 소유임을 밝힌 내용과 '집안의 보물로 간직하라'는 당부인데, 앞의 서풍과 뒤의 서풍이 다른 점으로 보아 서자가 다르거나 시점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

이 첩에서 행사에 참석한 기로신들이 국왕 숙종의 시에 화운하여 지은 시를 자필로 쓴 점은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임방이 지은 서문에 의하면 기로연 당시, 기로신들은 모두 임금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는 등, 매우 훈훈한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분위기는 이들이 자필로 쓴 글씨들이 단정하지만 여유로움에서도 느낄 수 있다. 특히 강현이 분방한 개성을 숨기지 않은 서풍으로 차운시를 쓴 점은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근거로 들 수 있다.

18세기 초의 서사관 이의방이 보여주는 해서의 서풍은 당시의 관각서풍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자료임도 주목할 만하다. 17세기 후반까지 이어오던 석봉체의 전형에서 벗어나 晉唐 해서의 전형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18세기 초기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즉, 이 첩은 글씨 자료들로만 보아도 18세기 초엽의 관각서풍과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대부들의 개인서풍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자료는 희귀하여 국가문화재로서 자격이 충분하므로, 국보로 지정하여 보전할 가치가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만든 계첩의 이본이 존재하여 대조할 수 있는데, 일부 내용의 출입은 물론이고, 특수한 조치를 취한 흔적의 여부도 본에 따라 다른데 이는 수령하여 보전한 가문이나 소장자와 연관된 점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시 문화적 현상의 미시사례로서도 매우 희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ㅇ 글씨의 특징과 그 의의

이 첩에 수록된 글씨의 특징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 첫째, 18세기 초 조선의 관용 서풍과 개인 서풍의 대조이며,
- 둘째, 명확한 제작 경위가 있는 복수의 이본을 비교할 수 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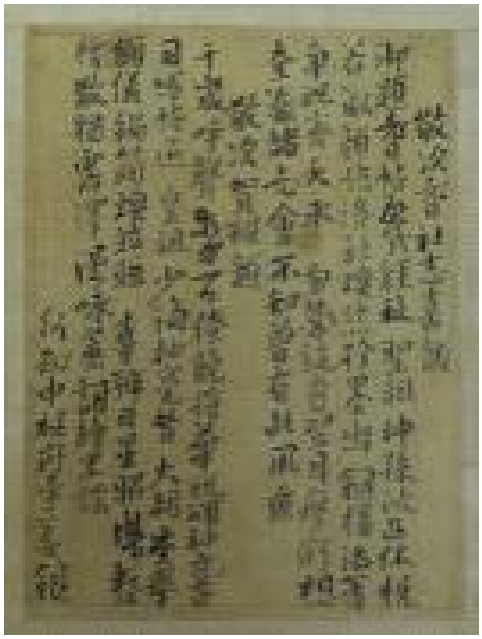


그림 112 姜鋧의 자필 시(37면)

이와 같은 두 가지 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유물은 희귀하여 국가지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화첩의 공식 서사관 李義芳은 1689년(숙종 15)에 태어나 1732년(영조 8)에 세상을 떠났다. 이 화첩의 글씨를 담당했던 시기에 그는 만 서른 살이었는데, 이 화첩을 제외하면 그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화첩의 글씨를 맡고 난 뒤의 활동이 기록들에서 보이는데,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던 1724년에 그가 景宗의 신주 글씨를 썼음을 확인할 수 있고(《承政院日記》, 英祖 즉위년 12월 15일 기사), 이후로 主簿와 察訪 등을 지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서사관으로 살았으며, 몇 차례 상급을 받거나 현직에 나아간 사례들도 모두 서사 작업에 대한 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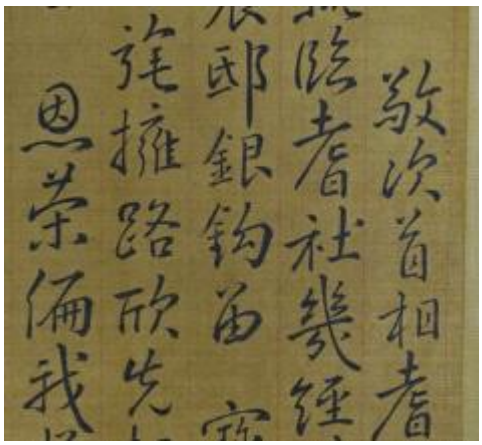


그림 113 洪萬朝의 자필 시(부분, 38면)

숙종, 경종, 영조에 이르기까지 왕실에서 중요한 의례가 여러 차례 거행되었고, 여기에 소요되는 문서에 이의방과 같은 서사관이 기여할 기회가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첩에 남은 이의방의 서풍이 이전 시대의 그것과 차별되는 점이 선명하지 않은 사실은 같은 화첩에 있는 사대부들의 서풍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숙종의 재위기간을 거치면서 조선의 서예가 이전과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淸으로부터 수입한 法帖을 통해 다양한 古法을 접하고, 이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점이었다. 궁중 서사관들은 변화를 늦게 받아들여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첩에서 이의방의 서풍은 그와 같은 전시대로부터 전래된 격식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사관이 보여주는 보수적 입장과 대조적으로 이 화첩에 글씨를 남긴 기로신들 가운데에는 개인의 흥취를 거리낌 없는 서풍에 담아낸 이들이 눈에 띈다. 가장 대

표적인 인물이 강현(姜鋧, 1650~1733)인데, 김창집의 제안으로 기로신들이 지은 시들을 직접 쓴 묵적들 중에 강현의 서풍은 격식에서 자유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그림 1) 그의 서풍에서 볼 수 있는, 유쾌한 분방함은 그와 함께 자작시를 손수 써서 남긴 기로신들 가운데 단연 돋보인다.

강현이 보여주는 바, 심미적(審美的) 취향의 서풍은 다른 기로신에게서도 부분적으로 보이는데, 홍만조(洪萬朝, 1645~1725)는 강현보다는 소극적이고 단정함에 가까우나 17세기 중기까지 조선의 사대부 서예를 풍미했던 석봉체와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兩宋體와 차별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시대 서풍의 변모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임과 함께, 이 화첩의 글씨들은 이본이 있음으로써 흥미로운 비교작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화첩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을 대조하면, 육필을 남긴 기로신들은 글자를 구성하는 방식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자간과 글자 크기는 일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본 사이에 章法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강현은 같은 시를 열두 차례나 써야 했으므로 운필을 균일하게 하기가 불가능했을 텐데, 표 1은 그런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상은 강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로신들의 글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화첩처럼 보존 상태가 좋은 본이 있음으로써 그 양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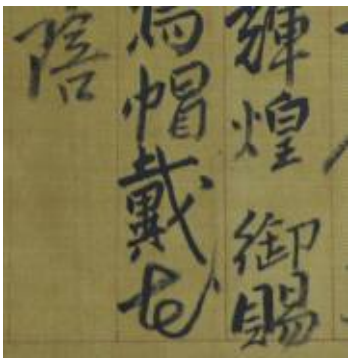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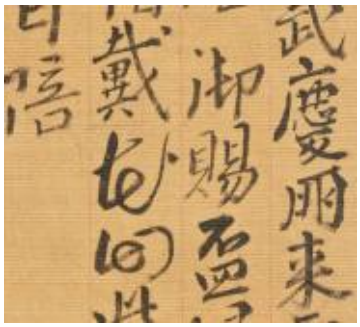
개인소장 『기사계첩』	국립중앙박물관 본
	

표 1 이본 간 장법 등의 차이를 살필 수 있는 사례

이본간의 상이점에서 특별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럿인 점도 이 화첩의 특징이자 담보하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서첩에 시를 각자 짓고 써서 남기자는 제안을 한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은 노론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본에 따라 그의 이름이 가려진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 화첩에는 종이와 같은 것으로 가렸다가 떨어진 흔적이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본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이 사실은 동일한 화첩을 복수로 만들어 각자 소유했지만, 그 주체나 후손

의 입장에 따라 화첩의 구성요소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표 2)

개인소장 『기사계첩』	국립중앙박물관 본

표 2 이름을 가렸던 흔적

ㅇ 문헌자료

- 『기사계첩』(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76)
- 『조선시대 초상화 Ⅲ』(국립중앙박물관, 2009)
- 김문식,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사학지』 40권(단국사학회, 2008)
- 이완우, 「조선후기의 서예」, 『한국서예이천년 특강논문집』(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000)

□ 《기사계첩》 수록 원문 국역

(『기사계첩』, 이화여대박물관, 1976.)

2. 제1면

○原文

契帖序

檀帝紀元後九十二年即我

睿宗大王龍興之四十五年己亥也以明年 聖算恰滿六旬式讌

太祖大王甲戌故事以 重尊而祖入書社實我朝 三百年再有之大慶而

歷代帝王之所未行也今 上殿下在春宮承 命寫御帖首題

太祖大王謚號 盖以西檀舊謚歲久無傳也次題 先大王尊號倂係以入社

年月承旨禮官即 奉安于本所書老諸臣亦皆給遞是日拜表稱賀是

年四月十八日 上特設宴于慶德宮之景賢堂引書臣十人竟日同樂酒凡

五行五酌終擧 上親賜銀盃一具盃心鐫以金字曰賜書老所仍 命五

酌用此盃杯若大而諸臣不敢辭皆飽醉宴罷諸臣趨入 楊前拜前稽首謝

恩而 上各問歲多小諸臣以次前對仍請奉 賜盃歸飲社中剏又 命

掖御樂而導之於是諸臣順齒 恩花前列 倦人相與扶醉而出笙歌振路

觀者塡咽莫不豔歎及至享宴者供以餘續諸書臣子孫亦來與

盛擧而觀達相顧榮感曰此事不可不張大以垂不朽也面謀作帖子先書

御帖敍文及五圖仍列書諸臣名爵而繪寫小異又以賀啓宴席老書諸首載

其下既而又得 御製一律於 先大王陟方之後即臨宴日所作也諸臣

奉玩擡咽益不自勝敬寫一本并諸帖首署臣堅識之嗚呼 先大王以大

德 大位克享大壽以增光 烈祖之盛休而臣等際千載一遇之會共依

日月之光華切闕陛之戀不盡 寶命方新眞遭遇遭逢圖報之賢萬有人世未

克畢陳而專纏其為哀慟罔萬々於在廷百僚而若臣駑尤荷曠絶之 寵

叅殿簡帥月之班功臣需雲之澤雖糜粉碎結未足以酬其萬一則區區報

大之痛當復如何今於序帖之文義不敢以不文辭遂拉雜書之如此

嗚呼感激是帖始於前歲今乃得成盖因緣事之久未就終來以此一本

仰塵於 先大王睿覽此又諸臣之痛極無窮者也帖凡十二其一藏於

書所餘則分於諸家名錄為十一人而圖像則為十者臣至壻以退處

田廬不得登筵故也噫契帖之作世亦多有而若斯帖者固未之

見也此豈但各傳子孫以為鎭家之寶而已哉轉使千百世之後亦

得以仰

睿考緬武之烈知臣等遭逢之盛云庚子季冬上院 資憲大夫議

政府左參贊任堅謹序

○해석

제첩시

숭정기원 후 九十二년은 우리나라 숙종대왕이 즉위하신지 四十五년이 되는 기해년(1719 —역자)이다. 그 다음 해에 대왕의 나이가 六十이 되시므로 태조 대왕의 갑술년(1354 —역자)의 고사에 따라 지존의 지위를 물려주고 기사①에 나아갔으니 실로 우리 왕조 三백년간에 두번째의 큰 경사이며 역대의 제왕에서 일찌기 행하지 못하시던 일이다.

금상전하(경종—역자)께서 돌궁에 계실 때 황명을 받들어 어첩(御帖)에 기록하시니 먼저 대조대왕의 시호(諡號)를 적으셨다. 이는 본래 서루(西樓)②에 적혀 있던 것이 세월이 오래 되어 전하지 못하게 된 때문이다. 다음에 선대왕(先大王)(숙종—역자)의 존호를 적으시고 아울러 기사(耆社)에 나아가던 연월도 기록하시었다.

승지와 예관이 어첩을 본소에 봉안할 때 거로 제신도 모두 배진(陪進)하였고 다음 날 배전칭하(拜箋稱賀)하니 그 때 四월十八일이 었다. 삼계시는 경덕궁(慶德宮)③ 경현당(景賢堂)에 연석을 베푸시고 기신 十인을 초대하시어 종일토록 같이 즐기시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다섯 잔씩 들었다. 주연에 앞서 상께서는 친히 은잔 하나씩을 하사하셨으니 그 속 바닥에는 금자로 「사기로소(賜耆老所)」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다섯잔을 돌 때 이 은잔으로 마시도록 명하셨다. 술잔이 매우 크고 여러 신하들이 감히 사양할 수 없었으므로 모두 매우 취하였다.

주연이 끝난 다음 제신들은 임금의 자리 앞에 나아가 엎드려 고마운 말을 드리니 임금께서는 한 사람마다 얼마나 마셨는가를 물으시고 제신은 차례로 대답하였다. 이어서 하사 받은 은잔을 받들고 기사에 돌아가서 마실 것을 청하니 임금께서는 어악(御樂)을 연주케 하시고 기사로 인도하기를 명하시었다. 이에 제신들은 머리에 은화(恩花)④를 꽂고 악인들을 앞세우고 시로 취한 몸을 부축하며 나아갔다. 음악소리는 거리에 넘치고 영예로운 한 때를 이루니 바라보는 사람들도 욱이 예여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기사에 이르러 주연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차려 놓았으며 여러 기신의 자손들도 함께 모여 즐거움을 한껏 나누었다. 연회가 끝나자 모두 서로 바라보며 영광된 감격을 느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크게 벌려서 오래도록 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고 즉히 철자를 만들어 먼저 어첩의 발문과 호도(五圖)⑤를 수록하고 그 다음에 기로 제신의 이름과 벼슬을 배열하고 이어서 초상화와 연석을 축하하는 각자의 시를 써이 그 뒤에 싣기로 작정하였다.

얼마 후에는 또한 숙종대왕의 어제한 수를 선대왕(先大王)이 승하하신 뒤에 얻게 되었으니 바로 연석에 나아가던 날에 지으신 시였다. 제신은 받들어 보고 송구에 복복여 견디지 못한 채 감기 一부씩을 적어 여러 철자 앞에 싣기로 하고 신 임방(任埅)에게는 서문을 적을 것을 위촉하였다.

오호! 선대왕께서는 대덕과 대위(大位)를 지니시고 대수를 누리시어 열조(烈祖)의 경사에 빛을 더 하시었다. 신들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당하여 함께 밝고 크신 은혜를 믿고 높고 깊은 영광을 누리고저 하였다. 뜻밖에도 선왕의 천명은 아직도 창창하신데 급히 멀리 떠나가시고 허약한 이 몸은 오히려 이 세상에 남아 살며 임금을 따라 뵈시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슬프고 한스러움이 그지없다. 조정의 수많은 신하들 가운데서도 신 임방(任埅)은 더욱 넓고 큰 은혜를 입어 외람되게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연락의 혜택도 받았으니 비록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그 은혜의 만의 일도 갚지 못하거늘 이 간절하고 기막히는 아픔을 또한 어찌 당할 것인가. 이제 첩자의 서문을 적게 되니 어쩔 수 없이 글을 꾸미거니와 드디어 피눈물을 뿌리며 이와 같이 쓴다.

오호! 슬프다. 이 첩자는 전 해에 비롯하여 이제야 이루어졌으니 이는 그림이 오래 걸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한 책조차 선대왕의 어람에 받쳐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제신들의 통한이 그지없는 바이다.

첩자는 모두 12부로 그 중 1부는 기소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기신들 집에 나누었다. 명단에 수록된 것은 11인이나 그림이 10이 된 것은 신 규서(奎瑞)가 서울에 온퇴하여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문이다.

아! 제첩을 만드는 일은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나 이 첩자와 같은 것은 일찌기 본적이 없다. 이는 어찌 다만 자손에게 전하여 진가(鎭家)의 보물을 삼고자 할 따름이겠는가. 장차 천백세 뒤에라도 역대 성왕의 은덕을 우러러 보고 신들이 만난 영광의 성대함을 알리고자 함이다.

경자(1720 —역자) 12월 상순

지헌대부의정부좌참찬 임방 삼가 씀

〔주〕

① 耆老社 또는 耆所·耆老所라고도 하며 벼슬이 正二品이상이고 七〇세가 넘은 중신들의 모임이다. 太祖 三년(1394)에 비로소 설치하였고 肅宗과 英祖도 太祖 때의 故事를 따랐다.

② 景福宮 안에 隆文樓·隆武樓가 있어 隆文樓를 東樓, 隆武樓를 西樓라고 하였다. 이 건물은 太祖 四년(1395)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③ 지금의 서울고등학교에 있던 궁궐이다. 光海君 八년(1616)에 건립하였고 英祖 三六년(1760)에는 慶熙宮이라고 개칭하였다. 仁祖反正 이후 昌德宮을 東闕, 慶德宮을 西闕이라고 하였으나 1829년 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다.

④ 剪花는 곧 剪綵花로서 원래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주던 꽃이다. 길이 약 90cm의 참대에 무른 종이를 감고 다홍색·보라색·노랑색의 세 송이 무궁화 종이 꽃을 달아서 모자 뒤에 꽂는 것이다.

⑤ 五圖단 이 첩帖에 수록되어 있는 御帖奉安圖, 崇政殿進賀箋圖, 景賢堂賜宴圖, 奉恩寺社圖, 耆社稧宴圖의 다섯 폭 그림을 말한다. 또 崇政殿은 光海君 一〇년(1618)에 건립된 慶德宮의 外正殿이다. 1829년 화재 때에 다행히 재난을 면했으나 1926년 불하되어 지금은 동국대학교 구내로 옮기었다.

3. 제2면

○原文

肅宗大王御製
[illegible]
不覺吾年及六旬[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吾悔我
先大王於去年己亥[illegible]
太祖大王盛事 入書[illegible]
[illegible]
先大王御製于[illegible]
聖上以眞弓錄之[illegible]

○해석

숙종대왕 어제

숙종대왕께서 친히 경현당(景賢堂)에서 기로제신에게 베푸신 연석에 나아간 날 지으셨다.

어느듯 내 나이 六十이 되었구나 기사에 나아감은 옛 성왕의 본보기
아픈 몸이 오른 전(殿)에 군신이 모여 있고
풍악 속에 잔을 드는 얼 본 늙은이
글자 새긴 금잔은 옥과 같이 빛나고
꽃 꽂은 계단 모자에 수염은 은빛
늙은이를 모시려는 뜻 깊은 자리
거듭되는 고운한 잔 누가 막으리
삼가 생각하면

선대왕(숙종—역자)께서 작년 올해(1719—역자)에 태조대왕의 고사에 따라 기로소에 나아가 四월 十八일에 기로 제신에게 경덕궁(慶德宮) 경현당(景賢堂)에서 연회를 베푸셨으며 특히 은잔을 하사하여 은총을 내리셨다.

이제 선대왕께서 승하하신 뒤에 금상(경종—역자)께서 선대왕의 어제를 조정에 내리게 하시니 그 중에 이 한 수가 있었다. 신들은 봉독하고 숭품에 목메었으며 드디어 수판(繡板)으로 꾸며 기사의 벽에 걸어 두고 간절한 사리움을 의탁하고저 하였다.

4. 제3면

○原文

御製敎

書契之會非古也實自書自唐易始而其後踵以行之者可計而數也而人君與臣僚結社盍未聞焉惟我

太祖康獻大王創業之越三年甲戌以 實算六十循甲書社親寫 御諱于西樓壁上踰以紗籠不幸逢于壬辰之亂其說具載故議政臣沈喜壽金應南等先生案序及故府院君柳根所著文忠公李元翼鳥川杜序中喜壽相元翼皆仕亂前是必親實而不妄也今我

殿下英明神聖同符 太祖即位之越四十五年己亥而 實算亦五十九我 春宮邸下以愛日之誠累請用 太祖故事 上敎諫諫不聽會有前直長李楨者上書請而又申前疏臣亦為之言 上意肯命考實錄而還言無有欵 上乃言曰倡史無徵不宜輕舉其已之宗臣密昌君樞等東曹君柄等延祐晉吟等後先上章援據甚悉且曰國初史牒多闕今未可準

宣廟末年亦嘗擬待六旬追踵故事而未及則亦足為證今 殿下不率典 太祖盛事若踰時永永孤于世 上感其言遂許施行於是禮部臣趙言宜作一帖子 春宮親寫 太祖聖製某年月日入其下書我

殿下尊號某年月日入設承旨禮臣具儀仗奉安本所 上可之禮部臣復建言宜告 廟頒慶 上又可之三百年再有之儀今乃夫覩天地垂祐臣民歡躍太平萬世自今維新以臣忝官太史 命撰敎文辭記顚末臣承 命竊感伏而思之 殿下盡事一舉而三善具焉纘志而述事也敬老而尊年也上下之同樂也率 太祖已行之軌而成

宣廟未及之志孝莫大焉貴而能卑尊而能謙敬莫尚焉不私於一己而普思於八方仁莫盛焉以孝敎而親親之道正以敬敎而長長之風興以仁敎而煦煦之俗成何者魯哀公問於孔子曰二三大夫勸寡人隆敬於高年何也孔子對曰君言之及此將天下賴之昔有虞氏貴德而尚齒夏后氏貴爵而尚齒殷人貴富而尚齒月周人貴親而尚齒年之貴乎天下久矣於戲我 聖祖尚齒之義盡歸於此而我 殿下實遵之前聖後聖其揆一也況刷三善以敎於民而民斯隆矣春臺壽域永永無疆可拱而俟是為跋 敎可

吏曹參判兼大提學
金相宗 敎製進

○해석

어첩발

기영의 회는 오랜 옛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실은 당나라 백거이(낙천—억자)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 뒤 이어서 행해진 것은 헤아릴 정도로 드물 일이었다.

그러나 임금과 신하가 결사(結社)한 일은 일찌기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우리 태조 강헌대왕(康獻大王)께서 창업하신지 三년되던 갑술년 〔1394—역자〕에 보령이 六十이 되셨을 때 기사에 나서서 친히 어휘(御諱)를 서루(西樓) 벽 위에 적으신 일이 있어 사릉(紗籠)으로 간직하였더니 불행히도 임진란에 없어지고 말았다. 이에 관한 기록은 여러 곳에 실려 있거니와 옛 의정신(議政臣) 심희수(沈喜壽) 〔1548—1622—역자〕, 김육(金堉) 〔1580—1658—역자〕 등 선생께서 지어 놓은 서문과 또 옛 부원군(府院君) 유근(柳根) 〔1549—1627—역자〕의 제서, 문충공(文忠公) 이원익(李元翼) 〔1547—1634—역자〕의 궤장(几杖)①을 하사받은 기록의 서문에 보인다. 심희수·유근·이원익은 모두 임진란 전에 벼슬하던 분들이므로 필연코 사실을 밝힌 일일 것이며 함부로 꾸민 일은 아니리라.

이제 우리 전하〔숙종—역자〕께서는 영명 신성하심이 태조대왕과 상부하시며 즉위하신지 四十五年되시는 기해년 〔1719—역자〕에 또한 五十九가 되셨다.

동궁〔세의 경종—역자〕께서는 지극하신 효성으로써 여러번 태조의 고사를 따르시기를 청하였으나 상께서는 굳이 겸양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마침 전의 직장(直長)②이즙(李楫) 〔1668—1731—역자〕이 상서하여 다시 같은 뜻을 여쭈었고 연신(筵臣)도 또한 진언하는 바 있어 상께서 허락하실 뜻을 가지시고 실록을 조사하기를 명한 바 있었으나 그 기록이 자세하지 못함을 알려드렸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서에 비추어 증거가 없다면 가벼게 움직기져 말아야 한다」하시어 그만 두었다.

종신인 밀창군(密昌君) 직(稷) 등, 동선군(東善君) 영(栐)등, 영기군(延礽君) 급(昑) 등이 선례를 조사하여 글을 올리게 되니 증거를 들어냄이 매우 자세하였다. 그 글에서 이르기를 「국초의 사서는 소루함이 많으므로 이제와서 준거할 수 없으오나 선조대왕 말년에는 일찌기 六十을 기다려 고사를 따르려 하시다가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므로 역시 증거로 삼을만 합니다. 전하께서 만약에 옛 사례를 따르지 아니하신다면 태조대왕의 성사와 훌륭한 사례는 장차 영구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하였다. 상께서는 그 말에 감복하시고 드디어 시행할 것을 허락하셨다.

이에 예부의 신이 진언하기를 청장을 만들어 동궁이 친서하되 먼저 태조의 존호와 연월일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하의 존호와 연월일을 적어 승지 예신(禮臣)이 의장을 갖춘 뒤에 본 기소에 봉안하기를 청하였던 바 상의 윤허를 받았다. 예부의 신은 또 이 사실을 종묘에 고하여 경축의 뜻을 널리 펴기를 다시 진언하니 상께서도 윤허하시었다. 이리하여 왕조 三백년래 두번째의 큰 의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천지를 두루 살피시고 은혜를 신민에게 내리시니 그 기쁨은 그지없고 태평만세는 이제 더욱 새로워 지리라.

신에게 대사(太史)의 관을 내리시고 발문을 찬하여 전말을 자세히 기록하라 하시니 신은 명을 받고 두렵기만 하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의 자애로운 행사는 한번에 삼선(三善)을 갖추는 일이다. 옛 뜻을 이어 행사를 펴는 일이며, 경로하여 노인을 받드는 일이며, 상하가 함께 즐기는 일이다.

태조에서 일찍기 행하신 사례를 따르시고 선조에서 미처 이루지 못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은 그 효(孝)가 막대(莫大)한 것이며, 귀하신 몸을 낮추시고 지존의 자리를 굽히실 수 있는 것은 경(敬)이 막상(莫尙)한 것이며, 한 개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팔방에 펴시는 일은 인(仁)의 막성(莫盛)한 것이다. 그러하여 효교(孝敎)로써 어버이를 섬기는 도(道)를 바로 하시고, 경교(敬敎)로써 어른을 받드는 풍(風)을 일으키시고, 인교(仁敎)로써 화목하는 속(俗)을 이룩하셨다.

옛 연고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묻기를 「몇 사람의 대부(大夫)가 과인에게 고령자를 공경할 것을 권하였으니 무슨 까닭이오」 하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으니 장차 온 천하가 든든할 것이오. 예전에 유우씨(有虞氏)는 덕을 귀히 하여 노인을 받들었고 하후씨(夏后氏)는 벼슬을 귀히 하여 노인을 받들었으며 은인(殷人)은 재산을 귀히 하여 노인을 받들었고 월주인(月周人)은 가까움을 귀히 하여 노인을 받들었다고 하니 천하에 나이 많음을 귀히 여긴지는 오래 되었읍니다」고 하였다. 태조대왕께서 노인을 받드신 뜻은 이곳에 있었으며 우리 전하께서 또한 그 뜻을 따르셨으니 전성(前聖)과 후성(後聖)이 같음이로다. 하물며 친히 삼선(三善)을 행하시어 백성을 가르치시니 백성은 다만 따를 뿐이로다. 태평성세는 영영무강하리니 다만 앉아 기다리노라. 이로써 위의 윤허를 받아 발문을 삼는다.

이조참판겸대제학 김유 명을 받들어 지어 올린다.

〔주〕

① 白居易(대저이 772—846)는 중국 唐代의 詩人이다. 官途에도 올랐으나 인생에는 물고 도교에 뜻이 있어 세속을 떠났다. 그의 시는 통속여 넘치고 시대사조에 맞는 바 많아 서민들이 즐겨 불렀다.

② 大臣이나 重臣이 늙어서 벼슬을 그만 둘 때 임금이 하사하시던 几와 杖이다. 几(궤)는 앉을 때 팔을 기대어 몸을 편하게 하는데 쓰이는 물건이고 杖(장)은 지팡이다.

③ 조선시대 문직의 하나.

5. 제4면

○原文

御柘掌安時
堂上七員 進
行判中樞府事金字杭 病不能陪從預待本所
議政府左參贊崔 攸 病不能陪從預待本所
行判敦寧府事崔生瑞 在外
 落後人員
右承旨申思益
檢閱朴師聖
假注書黃梓
行嘗書村書閱張厚

禮曹佐郎李宏国
崇政殿進講時
堂上八員 進
講政府左參贊 欽 禮曹判書物故除進
行判敦寧府事崔奎瑞 在外
景賢堂 讌宴時
堂上十員 進
知中樞府事任 堕 特命加資進參
行判敦寧府事崔奎瑞 在外
珠盧堤社時
堂上十員 進
行判敦寧府事崔奎瑞 在外
事五事所兼房高振会
本所宴會時
堂上十員 進
行判敦寧府事崔奎瑞 在外
行戶曹判書閔相琦 同設宴慰会
堂上子弟
司僕寺僉正金濟謙
社稷署令黃燦河
關仁館令洪重浩
司憲府監察尹思進
綾工監同監役任衡元

○해석

어첨 봉안 때 당상관(堂上官) ⑧七명이 모시었는데 행판중추부사 김우항(行判中樞府事 金宇杭)은 병으로 모시고 따라가지 못함으로 미리 기로소에서 기다렸고 의정부 의정인 좌윤(議政府左參贊 黃欽)도 병으로 모시고 따르지 못하여 미리 기로소에서 기다렸고 행판돈녕부사 최규서(行判敦寧府事 崔奎瑞)는 서울에 있지 않았다. 이밖에 모시고 따라간 사람은 우승지 신사설(右承旨 申思說), 검열 박사성(檢閱 朴思聖), 가주서 황재(假注書 黃梓), 행예조판서 민진후(行禮曹判書 閔鎭厚), 예조좌랑 이안국(禮曹佐郎 李安国)이었다.

숭정전(崇政殿)진찬(進饌)때는 당상관 八명이 모시었는데 의정부좌찬성 황흠은 예조에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갔으며 행판돈녕부사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았다.

경현당(景賢堂) 석연(錫宴)때에는 당상관 十명이 나이갔는데 지중추부사 임장 (知中樞府事 任堕)은 특명으로 품계(品階)를 올려 참례하였고 행판돈녕부사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았다.

하사 받은 잔을 받들고 기로사에 돌아올 때는 당상관 十명이었는데 행판돈녕부사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았고 기로소 약방(藥房)의 고진탕(高振宕)이 잔을 받들었다.

기로소의 연회 때는 당상관 十명이 있었는데 행판돈녕부사 최규서는 서울에 없었

고 행호조판서 송상기(行戶曹判書 宋相琦)는 석연(錫宴)할 때의 자리를 지두어 가지. 와서 참례하였다. 또 이 때 참례한 당상관 자제들은 사복시첨정 김세경(司僕寺僉正 金洗謙), 사직서령 황서하 (社稷署令 黃瑞河), 용인현령 홍중징(龍仁縣令 洪重徵)/ 한무감찰 신사원(司憲府監察 申思遠), 선공감가감역 임정원(繕工監假監役 任鼎元) 이었다.

〔주〕

①正三品 이상의 문무관

7. 제5면

○原文

錫宴事宜圖

○해석

어첩을 봉안하는 장면의 그림

8. 제6면

○原文

崇政殿進賀儀圖

○해석

숭정전에서 축하하는 글을 올리는 장면의 그림

9. 제7면

○原文

景賢堂錫宴圖

○해석

경현당에서 사연(賜宴)을 베푸는 장면의 그림

10 제8면

○原文

후조당친필

○해석

하사받은 잔을 받들고 기로사로 돌아가는 장면의 그림

11. 제9면

○原文

書社私宴圖

○해석

기로사에서 사연(私宴)을 베푸는 장면의 그림

12. 제10면

○原文

座目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 李 裳 癸巳生 慶州府尹歷任 完山人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金昌集 庚戌生 夢窩 癸丑進士 安東人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 金字杭 庚辰生 甲寅生 金海人

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兼知 經筵事 黃 欽 戊己生 庚申生 昌原人

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兼弘文館提學 崔奎瑞 丙辰生 甲寅進士 海州人

崇 祿 大 夫 行 知 中 樞 府 事 兼 錦 壬辰生 白 頭 乙卯進士 癸卯重試 晉山人

正 憲 大 夫 行 龍 驤 衛 司 直 洪萬朝 壬子生 晩退 庚辰生 癸卯增廣 豊山人

正 憲 大 夫 行 義 興 衛 副 司 直 李宗淳 公車 六松 癸丑春壇試 德水人

正 憲 大 夫 奎 城 府 判 尹 兼 知 春 秋 館 事 鄭 晦 甲申生 文顯 壬辰進士 癸卯重試 迎日人

正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知義禁府事同知 經筵成均館事 申 綽 庚辰生 竹里 丁酉進士 癸卯重試 平山人

資 憲 大 夫 知 中 樞 府 事 任 瑄 大科 水村 癸巳生 辛卯進士 豊川人

○해석

명단

대광보국숭록대부영중추부사 이유, 자는 자우, 율유생, 호는 녹천, 무신년 별시①에 급제하였고 본관은 완산 (전주—역자) .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 김창집, 자는 여성, 무자생, 호는 몽와 계축년에 진사②가 되고 갑자년 정시③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안동.

대광보국숭록대부행판중추부사 김우항, 자는 제중, 을축생, 호는 갑봉, 기유년에 생원④이 되고 신유년 식년과⑤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김해.

보국숭록대부행지중추부사겸지경연사 황흠, 자는 경지, 기묘생, 계묘년에 생원이 되고 경신년 별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창원.

보국숭록대부행판돈녕부사겸홍문관제학 최규서, 자는 문숙, 경인생, 호는 용호, 기유년에 진사가 되고 경신년 별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해주.

숭록대부행지중추부사 강현, 자는 자정, 경인생, 호는 백각, 을묘년에 수석으로 진사가 되었고 정신년 춘당대시⑥, 병인년 중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진산 (전주—역자)

정헌대부행용양위사직 홍만조, 자는 중지, 을유생, 호는 만퇴당, 기유에 생원이 되고 무오 증광시⑦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풍산.

정헌대부행의흥부부사직 이선부, 자는 공보, 병술생, 호는 육송, 계축년 춘당대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덕수.

정헌대부한성부판윤겸지춘추관사 정호, 자는 중순, 무자생, 호는 잠암, 임술년에 진사가 되고 갑자년 정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영일.

정헌대부의정부우참찬겸지의금부사동지경연 성균관사 신임, 자는 화중, 기묘생, 호는 죽리, 정유년에 진사가 되고 병인년 별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평산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임방, 자는 대중, 경진생, 호는 수촌, 계묘년에 진사가 되고 임오년 알성시⑧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풍천.

〔주〕

① 조선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임시로 서울에서만 보이던 과거.

② 조선시대에 初試와 覆試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진사는 선비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하급관료에 취임하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③ 조선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이던 과거. 이 과거는 특별히 궁전 뜰에서 보이므로 庭試라고 하였다.

④ 조선시대에 生員試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生員試는 과거의 예비고사와 같은 성격이며 생원은 선비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성균관에 입학하는 자격 및 하급관료에 취임하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⑤ 子·午·卯·酉의 간지가 들어 있는 해에 보이던 과거.

⑥ 조선시대에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또는 儒生을 시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문무과의 과거,
五년(１５７２) 처음으로 임금이 昌慶宮 春塘臺에 친림하여 과거를 보였으므로 그 이름*
다.

⑦ 조선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이던 임시과거제도, 여진대 光海君 四년(１６１２)의
德宮 낙성, 顯宗 三년(１６６２)의 군주 탄생 등의 경사 때 실시하였다.

⑧ 일명 謁聖科라고도 하며 임금이 文廟에 참배할 때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文科와 武科의
시험, １４１６년 太宗 一四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13. 제11면 우

○原文

領府事鳳川李公七十五歲眞

○해석

영부사 경천 이공의 七十五세 때 진영

14. 제11면 좌

○原文

領議政夢窩金公七十二歲眞

○해석

영의정 몽와 김공의 七十二세 때 진영

15. 제12면 우

○原文

行判府事甲峯金公七十一歲眞

○해석

행판부사 갑봉 김공의 七十一세 때 진영

16. 제12면 좌

○原文

知事黃公八十一歲眞

○해석

지사 황공의 八十一세 때 진영

17. 제13면 우

○原文

知事白閣李公七十歲眞

○해석

지사 백각 강공의 七十세 때 진영

18. 제13면 좌

○原文

行司直晩退吳公七十五歲眞

○해석

사직 만퇴 홍공의 七十五세 때 진영

19 제14면 우

○原文

行副司直六松李公七十四歲眞

○해석

부사직 육송 이공의 七十四세 때 진영

20. 제14면 좌

○原文

刑判文景鄭公七十二歲眞

○해석

판윤 정암 정공의 七十二세 때 진영

21. 제15면 우

○原文

右參贊竹里申公八十一歲眞

○해석

우참찬 죽리 신공의 八十一세 때 진영

21. 제15면 좌

○原文

知事水村任公八十歲眞

○해석

지사 수촌 임공의 八十세 때 진영

22. 제16면 우

○原文

御帖奉安後口占一律志實錄奉同社諸公次和
吾王五十九春秋入社喜承聖眄依南極明星拱北
閣東宮寶墨映西樓同時點背懷相作並日龍顔
喜乃祖從古榮光今代載洛陽誰道是風流
賀短
春閨閶闔鼓鼕鼕遥認庶爭先觀盛儀伏出銅壺聽漏轉
鳳城聯玉佩回龍嘯阿陵共獻壽神祝雪雨仍看大有
隨更賀聖躬康復慶 當宜長奉萬年巵
謹次洪尚書賀短韵
小臣珥忝托旺傳敢效封人祝帝堯好事盛稱前後
聖盛儀應續古今朝高年加禮 恩之至大德延綿
孔昭更荷田閒暇一物太平綢繆但歌謠
領議政 金昌集

○해석

금상(숙종)의 어첩을 봉안한 뒤에 사를 일수를 지어 기쁨을 표하고 기로사 제공에게 기록해 주어 화답을 구함.

우리 임금 나이 五十九세인데
기로사에 들어감은 멀리 성조의 자취이었네
남극의 노인성은 북궐에 비쳐 이고
동궁의 보묵(寶墨) 서루(西樓)에 빛났다
한때의 기로들은 좋아라고 춤을 추고
이튿날 용안에는 별 나오심이 기쁘도다
예로부터 영광이 이번에 제일이니
낙양(洛陽)에서 그 뉘가 이런 풍류를 말할손가
반열에서 하례함.
궁궐에 봄이 드니 따스한 햇빛 더더구나
서민들 앞을 다퉈 거룩한 의식을 구경하네
의장대 금마문(金馬門)을 나오매 학가(鶴駕)①를 보았고
반열에는 옥패소리 연달아 용루로 향하도다
남산 같은 수명을 모두 비옵는데
우뢰소리 비바람은 강차 큰 풍년 점치리
다시 우리 님의 회춘하신 경사를 하례하니
이 궁안에 길이 만년술을 드리고져
홍판서의 하반운(賀短韻)을 차운함
이 몸이 백관의 우두머리에 있어서 감히 옛날 화봉인(華封人)의 요임금 비는 것을 본받으려
좋은 일은 비로소 앞 뒤의 성인을 일커르고
상대한 의식은 열성조에 도운 일이라
교령자에 응당한 예우 더하니 은택이 지극하고

큰 덕이 장수를 누리니 천리가 헛되지 않도다
전원(田園)에 돌아가려는 이 몸에 은총을 베푸시니
강구연월(康衢煙月)의 격양가를 노래할 뿐이로다
영의정 김창집

23. 제16면 좌

○原文

敬次書社志喜韻
箕齡常祝八千秋書社今逢堵
萬休題由 銅閘追故事藏來
實帖起新樓形庭已劃吟窓貿
玉體仍聞勿藥徵何幸身親叩
盛際需雲解澤典同流
領中樞府事 李頤

○해석

기로사 기쁨을 축하한 시를 삼가 차운함
요임금 연령을 언제고 八천년을 빌었더니
기로사에서 지금 억만가지 좋은 일만났네
동궁에서 글제를 내어 옛일을 모방했고
보첩(寶牒)을 봉안하매 누각을 새로 지었구나
질내에서 벌써 만세의 하례를 드렸고
옥체는 약 안 쓰고도 나으신줄 내 들었네
다행히 이 몸이 태평성대 만났으니
성대한 연회와 큰 은택이 함께 흐르네
영중추부사 이 유

24. 제17면 우

○原文

謹次領相金公書社志喜韻
甲戌于今幾百秋遺迹堂留事實休
視書盛筆憑虛案御帖珍藏倣舊樓書
社榮光前後最吾 王疾病匪幾瘳慰叶
甲獻南山祝喜溢章篇 澤遍流
謹次洪尚書貫珠韻
彤庭端日會群僚勳地優賢親舊恩
祖庭嘉聞啟事拜孫入社見今朝 重
宣寶牒千年永 貳極鴻鈞百代昭何幸

小臣逢遠際春晷再坡題謹述

金宇杭

○해석

임의경 김공이 기로사에 입사한 것을 축하한 시를 차운함
갑술년이 어제였던 몇 백년이나 되었던가
벌써 태조의 사적 따라 아름다움은 이었도다
옛 구제 좇아 기로회 계설에 힘써 서열하였고
어침을 받들어 영수각 다락에 고이 간직하였네
기로사의 영광은 고금에 으뜸인데
우리 님의 벼슬도 거의 나으셨네
천세를 물려서 남산의 수를 비오니
온 누리에 기쁨이 넘치고 은택이 흐르리
홍광서 하반운을 삼가 차운함
좋은 날 금절 안에 백관이 모여서
땅이 여지도록 환호하는 소리 우러 님 경수를 빌었네
거룩하신 태조께서 다락에 제명(題名)하신 일 예전부터 전해왔는데
신실하신 후손이 기로사에 들어가심을 우리 세대에 보셨네
임금님 나이는 천년이나 길 것이요
세자의 밝은 덕은 백대(百代)에 빛나리
어찌다 이 좋이 이런 성대 만나서
춘대(春臺)의 수역(壽域)에서 태평가를 듣겠네

김우항

25. 제17년 화

○原文

謹次 首相奉社宗慶韻

老臣謹賀己望秋李觀吉 邓西

有休宇意 題綸添海屋筹

賀始下詔標光增洛社喜年會盛

卜 尚宮堂日編打手舒工舞劇

紀跡高高時表民德

賀 歌

해석

영의정의 기로사 경사를 축하하는 운을 삼가 차운함
풍초한 이 좋이 어느것 의정(衮堂)에 들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두번째 있는 경사를 보는구나

신령스러운 산대(簣)가 해옥(海屋)③에 빙임을 기뻐했고
다시 보첨을 받들어 동궁(銅宮)에 간직하였네
영광은 낙사(洛社)④의 기영회(耆英會)⑤보다 더 빛나고
정사는 헐내에서 이튿날 환후 나으실 것을 점쳤구나
두 손 모아 백관들 함께 축수드리니 종남산(終南山)같이 높고 한강수 같이 길리로다

황 흠

26. 제18면 우

○原文

敬次耆社志喜韻
御製耆社規模絕秋 聖祖 神孫政氏休
恍若 威頭臨洛社煥然玄圃出銅樓添
簪笋抵斉天永勿衰詵者聖日修仍
想坐流 諸老會不知曾有此風流
敬次賀班韻
千官吁聲動百僚競持華祝頌神堯書
司寫帖追 皇朝少海抽毫勝 大明重
筆綸儀編簡地位聯 恭號日星暉曜
賜得歡領德澤深味無詞謝里誠
行知中樞府事 李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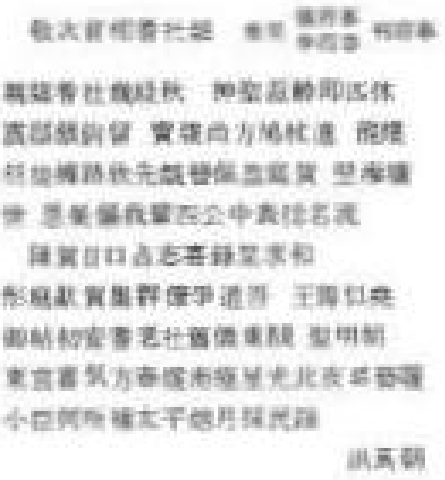
○해석

기로사 기쁨을 축하하는 시를 차운함
기로사 어첨에 친히 제명하신지 몇해런가
거룩한 성조(聖祖)와 신성한 후손이 정히 짝이 되었네
황홀하게 천안이 낙사(洛社)에 임림한 것 같고
빛나는 보묵(寶墨)은 동궁(東宮)에서 나왔도다
산대를 더하니 하늘같은 수를 빌었고
약을 쓰지 않아도 이튿날 평환이 쾌히 나으시리
신선들의 여러 노인회를 손꼽아 보아도
일찌기 이만한 풍류 있는 것 듣지 못했네
하반운(賀班韻)을 삼가 차운함
천세를 부르는 소리 백관에서 우러 나오니
화봉인(華封人)의 비는 바로 우리님께 다투어 송축하였네
기로사 제명첩은 태조 때를 모방하고
소해(少海)⑥의 휘두른 붓 대왕님을 대신 했도다
두번째의 의식은 역사에 빛이 나고
함께 실린 존호는 해와 별 같이 빛나도다
노후한 이몸도 오히려 은택 입으니
부질없이 거친 글로 민요에 이었네

행지중추부사 강 현

27. 제18연 화

○原文



○해석

영의정 기사운을 삼가 차운함
김해서 영부사 좌부사 신사재(四宰)①에게 올림
기로사에 참입하신지 몇해나 지났던가
성심하신 높은 수(壽)가 끝 좋은 복 되었도다
동궁의 필적은 보첩에 남아있고
상방(尙方)②의 지팡이는 용두(龍頭)에 올렸네
기치가 융위한 길가에는 먼저 보기를 다투었고
백관은 뜰에 가득해서 성후의 회춘하심을 하례하도다
세상에 드문 은총 우리들에 치우쳤으니
영의정과 영부사의 내외종이 모두 영등할렸네
진하하는 날 임으로 기쁨을 축하하고 화답함은 구함
궁정에서 하례하는데 백관들 모여
우러남의 수명이 드림금 같다 다투어 칭송하네
이점을 처음으로 기로사에 봉안하니
옛날 의식은 다시 성명의 조정에서 보였도다
동궁의 기쁜 기색 봄날 같이 따스하고
남극의 노인성 이 밤에 유독 밝고나
붉은 이 몸 무엇을 보필할까 보냐
태평연월의 노래나 모아 올려 하노라

홍만조

28. 제19면 우

○原文

敬次
恩祖曾當六十秋書英社裏應識休 神
孫話美光前牒 御手題名傲古儔已見
露星座歲曜旋開 聖疾應期痊老臣盡
日模天什思貴春臺化澤流
敬次
五雲多處序千僚時萬 重華編 帝堯
盛事追徵開聖世神儀今擧泰平朝歌雲
動地天應協 仁壽如山理孔昭甲運康
衢傾老幼會看徵服聖歌謠

李善溥 孫海運代唱

○해석

삼가 차운함
선왕께서 六十세 되어
기로사에 들어 큰 은혜 베푸셨네
거룩한 그 후손 자취를 이어 보첩(宝牒)에 빛내고
손수 성명을 써서 옛 다락에 갈직했도다
노인성은 세해 맞아 더욱 빛나고
님의 환후 때맞춰 나으신 줄 기쁘고야
늙은 이 몸 하늘같은 님의 공덕 형용 해 내어
성대에 은택을 찬미할까 하노라
삼가 차운함
오색 구름 궁궐 속에 백관이 늘어 섰는데
때는 마침 세자가 섭정을 맡았도다
성대한 행사는 멀리 개국할 때 본뜨고
거룩한 의식은 이제 태평성대를 빛냈네
우뢰같은 기쁨을 지축 흔드니 하늘도 응당 감화하였고
어전 수목 삼과 같으니 천리가 원래 밝았도다
강구연월을 사람마다 칭송하니
우리님 남몰래 이 노래 듣고 계시길

이 선 부손과 해운 대신 씀

29. 제19면 좌

○原文

敬次元輔夢窩金公書社志慶韻

千歲為春千歲秋我 王申受上天休書美
好事光臨社 烈朝遺力勝記樓可但君臣
慶同衆更欣民國病仍瘳餘生延得須臾命
鼓杖均霑湛露流

敬次質照韻

浮生不用歎衰遲何幸躬瞻慶世儀 御筆題
封候玉帳貴班懽拾盛增榮圖傳瘤疫癘
身在孤負恩行摸武陵溪畔前頭問法酒會
須同拳 萬年巵

漢城府判尹 鄭范朝

○해석

영의정 동화 김공의 기로사 자축운을 삼가 차운함
천년은 봄으로 삼고 천년을 가을로 삼았으니
거룩하신 우리님 상제(上帝)의 음우(陰佑)를 받으셨네
기영회 좋은 모임 기로사에 친림하시고
성조께서 끼치신 규모 영수각(靈壽閣)①에 남아 있도다
임금과 신하가 한 자리에 즐기는 것 좋을시고
만백성이 성환(聖恩)의 나오심을 기뻐하네
남은 여생 잠시나마 다 이어
크신 은혜 고루 젖시고져
하반운(賀班韻)을 삼가 차운함
뜬 세상 인생이 어찌 늙음을 탄식하랴
다행히 세상에 보기 드문 의식 옴소 보았노라
어절에 제명(題名)함은 옥책문에 비겼고
하례의 반열에 환호성은 옥 섬돌에 넘쳤고야
애닯다 이 몸이 고질에 감기어
거룩한 의식을 헛되이 저버렸고나
앞으로 궁궐 안에서 벗주의 모임 연다면
그때에야 단년의 헌수배를 드리오리

한성부판윤 정 호

30. 제20면 우

○原文

二聖御筆奉安靈壽閣後書和領台金相國志慶詩兼同

社諸公二首

[illegible]承 祖武幾春秋書社 徵題更四休 衙鈷傳宣由禹錫
綉衣隨擧貫 龍樓迎鮑正并呼出祝 聖旨爭依勿勸
梅福死更臣如盛際留言同樂飲東流 右次韻
聖祖 神孫壽考年時同喜會嘗無前歡騰昔日勝今日
運合先天與造天 少海書明金鍰上老人星照玉樓邊一
時際遇光千古盛事登歌永世傳
奉安後翌日賀班領台有詩一律謹次如呈
春殿晴開晝漏遲鳳擎捲日引朝儀千官北極瞻環佩萬
壽南山供玉觴屬日乃稱天實佑 洪恩一堂同相隨共華
白髮情書老時誦 春宮獻賀能首時時聞下
錫宴日醉中口占追次洪尙書前日賀班詩韻
登瀛書老列仙儕爭效牽封祝帝堯壽耀呈韓多此夜
親臨賜宴翻 先朝床邊扶杖醉如畫酒後 龍顔喜轉昭
簫吹鳳歌頻數鵲上林黃鳥亦相語

右參贊 申 銑

○ 해석

두 임금의 어휘 보첩을 영수자에 봉안한 뒤 영의정 심상국의 기념시에 화답하고 삼가 올려 여러분에게 올림 二수

신려이 선왕을 보우한지 몇해런가
기로사 제명이 다시 없는 영광일세
보첩은 한 쌍의 궁인으로 전해졌고
거룩한 의식은 용루에서 하례하네
높으신 연령이 만세축하 합당하고
환후는 자연히 약 안 써도 나을세라
늙은 이 몸 태평성대 만났으니
원컨대 같이 즐겨 가는 세월 잡아 매고저 이삼은 차운
성조(聖祖)와 신손(神孫) 수고(壽考)의 나이에
기로회 함께한 일 전고에 드물었네
거짜운 오늘이 그 옛날과 마찬가지
운수는 선천수 후천수가 꼭 같을세
소해(少海)의 글에는 금첩(金牒)위에 두었었고
노인성 별 빛은 옥루(玉樓)가에 비추었네
한 때에 서로 모여 천고에 빛났으니
거룩한 기록이 악부 올라 영원하리

이첩을 봉안한 후 이튿날 하례의 반열에서 영의정의 사율시가 있어서 삼가 차운 하여 올림

몸 궁점 탈싹 개고 낯 누수(漏水)는 더더인데

홍로관 긴 소리 조회한다 전갈하네
천궁의 옥패소리 궁성 안을 진동하고
남산의 만세소리 옥계절에 넘더있네
이른날 나으심은 하느님의 도우시고
거룩한 은총이란 비와 함께 내렸어라
성성한 백발을 드리운 기로들은
세자를 옹호하고 축하의 잔 올리었네
사연(賜宴)하던 날 취중에 입으로 불러 홍관서회 전일 하반운(賀班韻)을 차운
자리에 오른 기로들은 신선이 하강한 듯
서로들 다퉈 우러 님 수복을 축하하네
노인성 별 및 상서로움 이 밤에 유독한데
이 자리 천림 태조대왕 뒤를 이었도다
상 앞의 피살 찌다보니 그림과 같았고
한 순배 뒤에 용안에는 기쁨이 넘친로야
난봉(鸞鳳)의 노래 풍악이 진창 울리니
상림원(上林苑)의 꾀꼬리도 역시 맞추어 노래하네

후찰한 신 임

31. 제20연 화

○原文

○해석

기로사 사연 후 영의정 분부로 사물 二수를 지어 올림
옥좌가 별전에 전림해 어연(御宴)을 베푸시니
노인성 떠고 열 사람이 같이 모였네
한 자리에서 고전음악 함께 즐기고
천세 축수는 북두칠성 술잔을 다투어 올리네
태조 때 성대한 의식을 다시 보았고

성조(聖朝)의 길운이 거듭 돌아옴을 하례했도다
하치않은 이 몸이 하늘같은 은총 입어
외람되게 재신(宰臣) 자리에 올라 말석에 모시었구나
님의 술잔 함께 쉬해 다섯 순배 돌렸는데
기로사에 돌아와 은배(銀盃) 내린 영광을 자랑한다
눈 앞에 신선의 풍악은 하늘에서 내려온 듯
머리 위에 핀 꽃은 햇빛에 더욱 밝구나
문부(文富)⑪의 제공(諸公)들이 일찌기 이런 성사(盛事) 없었는데
적로(狄盧)⑫만이 어찌 그 이름 홀로 천명했던고
장안에 관광자들 인산인해 이뤘는데
우리나라에 수성(壽星)이 비친다 다투어 칭송하네
기해년 사월 상순 임 방

32. 제21면 우

○原文

謹次任尙書書老 錫宴後韻
參贊書臣 御宴開 先朝盛事此重來
恩光捧謝新歌琴 聖澤頻傾別玉杯
近獻 天顔知有喜 奇歌遠露欲無回更
時不盡同歡意長祝千秋萬歲陪
特許移筵增榮行古今曾有此 恩榮方
知善養諸書老何幸生逢我 聖明一社
風流擬已陳 兩朝休德誰能名爭言盛
美異塔增却恐丹青寫不成
領中樞府事 李 崇

○해석

임판서의 기로사 사연후의 시를 삼가 차운함
기로사 재신을 사랑하와 어연을 열었으니
개국 때 장한 일 이 자리에 또다시 보았네
영광의 은총은 어사화를 두루 꽂았고
거룩한 은택은 내려주신 은잔에 술을 부었네
천안을 가깝게 대해 뵈니 기쁜 빛 뚜렷했고
담로(湛露)⑬의 가사(歌詞)를 높이 불러 떠날줄 모르겠네
끝 없이 함께 즐긴 마음 가실줄 몰라서
천 가을 만년 봄 님의 앞을 뫼시고저
고마우신 분부 자리 옮겨 풍악 잡히니
예로부터 이런 은총 일찌기 있었던가
여러 기로에 공양 잘 함을 이제야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성상 함께 만났도다
한 노인 풍류는 이만하면 더 할 수 없었고
두 분의 거룩한 성덕을 어찌라 이름할가
성대한 잔치 그림 그려 전하려 하나
아마도 단청으로 이루지 못할까 하노라

영중추부사 이 유

33. 제21번 화

○原文

次任尙書重老 錫爵後韻

翠幕排雲宿雨開駕歌先報 禁聲來
臣入華筵傳觴 聖主臨筵擧盞賀
慶逢聖壽飛鳥砂花東籬 景到明時
會無期盛肥著 前星燭日照
十前扶醉拉再行擎出銀盃不辭勞 老
與豈從身俱退西樓尋社路分明勻天漢
乘仍李 蓬平地神仙可得老雖何異
盛事聖恩隆錫宴亦稀逢

張顯祖 立岩集

○해석

일찬서 기로 사연 한 후에 지은 시를 차운함
푸른 장막 안개에 숫고 내리던 비 개었는데
피고리 노래 넘 거동하심을 먼저 알려 주노라
기로사 노인들 자리에 들에 성찬이 상에 오르고
님이 오시자 술잔이 여러 순배 도누나
푸른 빛 장막에 술이 익으니 양대로 다시고
사모 위에 어사화 꽂았으니 은총 띠고 돌아왔네
그 임금 그 신하 이런 기회 다시 없는데
풍일토목 세자가 옆에 모시니 더욱 기뻐라
옛 노인이 부축 받아 기쁘단히 나가는데
은잔 하나에 하사하는 양 다시 없는 영광일세
북녘 대궐에 님을 모시니 이 몸이 황홀하고
서쪽 다락을 다시 찾으니 길이 무릉하고나
균천(鈞天)음의 풍악은 들도 없는 은총이며
평지에 신선이란 이를 힘을 모아 말하네
만년 남을 영수각을 높이 쳐다보니
여러 동지 다 함께 낙심되는 것 보고파라

영의정 김창집

34. 제22면 우

○原文

謹次任尙書書老 錫宴後韻
親臨別殿盛筵開 樂奏簫韶悅羣寀
承 賜鏘玉座四三行酒 勸金杯勻天
法饌 加恩錫斜日霄司倚醉回千古君
臣無此樂須更不死淨明階
書英勝集古人行 御宴陪歡較我榮
後登 筵尤林幕歸時會赴不分明 天
威特許同金榜 聖敎親承賜玉名 服待
金牌仍大熟南山北斗獻秋成

金宇顒

○해석

임란서의 기로 사연한 뒤의 시를 삼가 차운함
님께서 친히 별전에 납시어 잔치를 베푸사
소소(簫韶)⑱의 풍악을 잡히니 봉황이 온 듯 하여라
지척에서 천안을 뵙고 옥쾌를 우러렀는데
세 네 순배 선온(宣醞)⑲에 금잔까지 주시네
균천(鈞天)의 풍악을 앞에 잡히고
저물게 기로사에서 술이 취해 돌아오누나
천고에 군신의 이런 즐거움 없으니
잠깐이라도 죽지 않고 영원되게 뫼시고져

기로사 장한 모임 옛날에도 있었는데
어연을 모시고 기꺼움이 누가 더 영광될는고
취한 뒤에 자리에 오르니 숨구한 마음 간절하고
돌아올 때 기로사 모임 꿈 속만 같았고나
님께서 존엄하시니 한 방에서 즐거움 허락하시고
술 잘 마신다는 문무 친히 돌았네
우순풍조 이 강산에 풍년들기 기다려
신곡으로 술을 비저 북두(北斗)의 잔으로 남산수(南山壽) 올리고져

김우항

35. 제22면 좌

○原文

謹次書社 諸公韻
衰花滿鬢法筵開諸老皆從壽域來仙樂嘈嘈
喚玉管香烟裊裊繞金盃丹心共托風雲契
髮白髮均感雨露恩何幸小臣逢 盛際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 欽

○해석

기로사 여러분의 시를 삼가 차운함
곤룡포 단정하게 법연이 열렸는데
기로사 여러분이 노인성 뵈고 모여들었네
신선의 풍악은 옥통소 울리었고
향기로운 연기는 금잔을 돌리었네
일편단심은 함에 물운의 계함(契函)을 맺었고
흰 머리털은 고루 우로의 은택에 젖어 있구나
요행하게도 소신이 태평성대 만나서
외람히도 늙은 몸이 지척에 모시었네
술 취한 노인들 그림 가운데 신선 같으니
길 가는 사람들이 영광이라 손짓하네
악부의 풍악은 가는 곳마다 구성지게 울리고
임수각에 새로 쓰인 금서 눈이 부시네
성조 때 거룩한 일 이제 다시 이었는데
이번의 어연(御宴)은 영원히 이름을 남기리
흉상을 우러러 남산수(南山壽)를 빌고저
붓을 던지매 도리어 글귀가 부끄럽구나

황 흠

36. 제23연 우

○原文

牧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해석

삼가 차운함
옥과가 친림하사 법연이 열렸는데
늙은 신하들 연줄달아 모여 들었네
백발은 기로연 자리에 휘날렸고
금빛 글자는 하사하신 술잔에 황홀하구나
기로사로 돌아가는 풍악은 버들거리에 울리고
조정에서 물러나는 오사모(烏紗帽)는 꽃을 꽂고 돌아오네
이 생에 비록 죽어도 아무 유감이 없으니
지척에서 천안을 종일토록 모시었네

누수(漏水)가 다하고 밤 종이 우는데 그래도 다니니
늙은 나이에 성군의 은총을 입었도다
세자를 가까이 대하니 전성(前星)이 빛을 내고
남극의 노인성은 수할 줄조가 역력하다
드높구나 하늘은 도와줄 것을 알것이며
거룩하고 지극한 덕은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구나
그대들은 내가 시를 가려는 것을 비웃지 마소
이로부터 용열한 몸 노성(老成)들에게 양보하려네

37. 제23면 좌 강 현

○原文

謹次任尙書書老 賜宴後韻
仗移便殿法緣開詔許委蛇與富來頭載
御香花滿帽口含 天澤宇擣杯需題可
但嘉辰設 實算將看喜甲回喜極祝疑
身是夢十年今始 聖顔陪
盛事曾聞 太祖行豈知吾輩荷茲榮庇
陳法樂 天顔稚座列書英當聲明宣續
更翻靈降頭風流誰說酒 仙名此身宛在
春憂裡但把歌篇倍口成

洪萬朝

○해석

임판서 기로사 사연한 뒤의 운을 삼가 차운함
님께서 편전에 납시어 법연을 열었으니
노인들 희희낙낙하여 잔치에 모여드네
머리에 어사화 꽂았으니 향기는 사모에 가득하고
입으로는 선온(宣醞)을 마시니 금자가 술잔에 새겨졌도다
진수성찬은 이 잔치를 위해서 베풀어 졌는데

성수(聖壽)는 옛 갑년(甲年)이 되돌아 온 것을 잘차 보겠구나
너무 기쁘니 황홀하기가 꿈 꾸는 것만 같아서
십년만에 처음 용안을 뵈옵게 되었네

상대한 의식은 대조께서 치르신 것 일찌기 들었으나
우리들이 이 영광 볼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궁정에 법악(法樂)을 연주하니 천안이 화평하시고
화석엔 기로들 앉았으니 백설같은 머리털이 휘하도다.
누각을 지어 영수각이란 현액을 새로 달았고
종유노름엔 그 뉘가 주선(酒仙)이란 이름을 자랑할고
이 몸이 한연히 춘대(春臺) 가운데 있는 것 같으니
노래가락 닷추어 입에서 나오는대로 불러 보았네

홍만조

38. 제24면 우

○原文

敬次
三百年逢景運開賓筵山衆九天來 騎
鯨喜極瓊樓雙 俊合簪黃塵塞五岳河海
開陰符策紀風雲日月籌明回試看唐宋
事其會能得 臨無意遇時
上皇之樂昇天行法謂高適十老榮聖恩
倒花承露重 笑題詩酌謝心明似光共
陽和照萬 歌舞爭嬉落落名不醉無歸
休逗雅興乎輕遠風韻成

李德泂 號海鳧 代製

○해석

삼가 차운함
삼백년만에 좋은 운수 다시 돌아와
넓은 궐내에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나
옥화는 임숙한데 임금과 세자 두 분을 뵈옵고
법주는 무무 익어 다섯 잔을 기우렸네
하해같은 은덕 남산같은 수명을 모두 칭송했고
풍운의 제합(契會)과 일월의 제회(際會)가 밝게 돌아왔네
옛날 당송(唐宋)의 기영회를 시험해 보라
용안을 가까이 모신 일 있었던가

구름 위에 솟는 풍악 소리 하늘로 올라가니
악보(樂譜)에 옛 본 신선의 곡조 새로 올랐네
사모에 꽂은 어사화는 이슬에 젖어 무겁고
기로연에 주는 술잔 마음에 새겨서 취했네
아름다운 영광은 함께 밝은 세대를 만났고

신령스런 수명(壽命)은 무한한 긴 이름 남기리로다
취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고 시편을 읊으니
만년 헌수잔은 요순의 풍악으로 드리고저

이선부 손자 희문이 대신 씀

39. 제24면 좌

○原文

謹次任尙書書呈 錫宴後韻

今日靑丘奉遇開休盛時盟自天來燦爛

南曜明 宮簇裡搖來演注壽盃禧露柏

鉉千載願 恩隆法樂一時回社中仍當

霽雲澤解裏貽疑 離座陪

五雲深處詠周行十老能前美拜衆 內

賜金盃 恩更修中興實宇歐編明書英

曾有吾倚事壽德誰如我同名可但春暮

隔一世從容復相逢治成

漢城府判尹 鄭逑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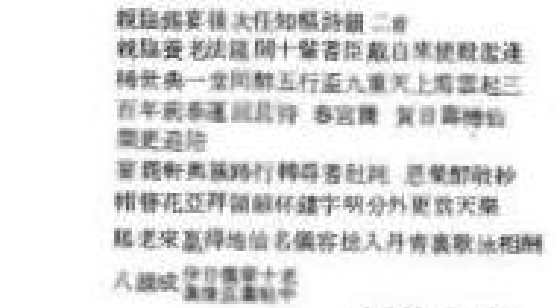
임환서 기로 사연한 후의 시를 삼가 차운함
우리나라 태평 운수 오늘에야 열렸으니
좋은 징조 하늘에서 내려주었네
남극의 노인성은 궁궐 안에 밝아 있고
동해 물 끌어들여 법주를 비겼도다
첫 연회 예식을 파하니 천추에 드문 일이요
은총은 법악을 잡혀 한꺼번에 돌아왔네
기로사 가운데 다시 성연을 베풀어 주시니
취한 중에도 님의 혈을 모신 듯 하여라

오색 구름 깊은 곳에 거룩한 의식 베풀으니
열 신선이 자리 앞에 함께 영광됨을 하례하네
하사하신 금잔은 은총이 너무나 과분하고
길게 새긴 글자는 눈이 활짝 밝아진다
기로사 모임은 전에도 우리 세배(侍輩) 있었으니
수와 덕이 그 뉘가 우리 님과 같을소냐
다만 태평성대에서 한 평생 넘겼으니
이로부터 지극한 다스림이 아루어지리

한성부판윤 정 호

40. 제25번 우

○原文



右參贊 申 鉉

○해석

친림해서 사연한 뒤에 임지충추부사의 시를 차운함 二수
님께서 친히 거둥하사 알조의 잔치를 베푸시니
열명의 기로들 흉앙 떡말 모였도다
편전에선 의탐되이 시상에 도움 온총 받았고
한 자리에서 다섯 순배 술잔에 다 함께 취했구나
구슬궁궐에는 오색 구름 잠들고
삼백년전의 태평한 운수는 다시 돌아오도다
또 다시 동궁의 하례하는 날을 기다려
헌수하는 술잔과 신선의 풍악을 거듭보겠구나
잔치를 파한 후 초헌 타고 길을 이어나가
다시 기로사를 찾아서 은총을 자랑하네
술에 취해 사모가 비뚤어니 어사화 내려 놀랐고
잡사하게 받은 운잔에 새긴 글자 뚜렷하구나
분수밖에 다시 아악의 풍류를 하사하시니
늙은 이 몸을 신선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네
이 일을 모두 화첩(畵帖) 속에 들어가니
가사를 서로 읊어 팔운(八韻)을 이루었네
이 날 일을 늙은이에 일을들 이 화첩 속에 그리다.

우찬찬 신 임

〔주〕

① 동궁의 행차를 말함
② 춘당대(春塘臺), 창경궁(昌慶宮)에 있음
③ 바다 섬에 있는 신선의 집
④ 낙양(洛陽)의 뜻
⑤ 송(宋)나라 때 문언박(文彦博)·부필(富弼)·사마광(司馬光) 등 十三인이 낙양에서 만든 모임
⑥ 세자의 별칭
⑦ 이조 때 의정부의 우찬찬의 뜻

⑩ 임금이 일용에 쓰는 물건을 보관함을 말함
⑪ 기로소 안에 있어 어침(御寢)을 두던 누각
⑫ (1)전(殿) 뒤의 어원(御苑)
(2)창덕궁 요금문(曜金門) 밖에 있던 어원. 서원(西苑)이라고도 함
⑬ 문언박(文彦博)과 부필(富弼)의 두 사람을 말함. 주⑤ 참조
⑭ 당(唐)대 사람인 적인걸(狄仁傑)과 노조린(盧照隣)의 두 사람을 말함
⑮ 시경(詩經)에 담로장(湛露章)이 있어 임금의 은혜가 어질고 깊음을 말함
⑯ 하늘의 중앙을 뜻함. 전하여 상제(上帝)의 서울
⑰ 순(舜)임금이 읊던 풍악
⑱ 임금이 신하에게 술을 따사 하시던 일 또는 그 술
⑲ 태자의 뜻

41. 제25면 좌

○原文

監造官本所掌院		副司勇		高祖皐
書寫官	上護軍			李義芳
書員	前萬戶			金振汝
	前萬戶			張泰興
	副司果			朴東晉
	副司果			張得萬
	副司果			許 銀

○해석

감조관	기로소아방	부사용	고조삼
서사관		상호군	이의방
화원		전만호	김진여
		전만호	장태흥
		부사과	박돌진
		부사과	장득만
		부사과	허 숙

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7-002

2.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上一之二)

가. 심의사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6.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0.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10.30～11.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上一之二)
○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26.2×17.0㎝(반곽 19.8×13.2㎝)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乙酉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65년(세조 11) 경

그림 149.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조사본『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권상 1의2는 佛陀多羅(?~?)가 漢譯하고 宗密(780~841)이 疏鈔한 것을 세조 11(1465)년에 刊經都監의 國譯本을 底本으로 經文의 한글口訣 부분만을 편집하여 鑄字所에서 乙酉字로 印出한 金屬活字本이다.

乙酉字는 주로 佛經을 刊行할 목적으로 鑄成되었던 까닭에 당시 儒臣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甲辰字 鑄造時에 이를 녹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傳本이 그다지 많지 않아 오히려 貴重本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사본『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初印本이라 인쇄상태도 깨끗하여 귀중한 판본에 속하며 15세기 國語學과 書誌學 및 金屬活字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조사본『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稀貴性과 貴重性을 지닌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기준>

世祖 11(1465)년에 乙酉字로 간행된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판본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93호(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월정사 소장), 보물 제1219호(아단문고), 보물 제1219-1호(권상1의2・권하1의1～2의2, 아단문고 소장), 보물 제1219-2호(권상2의2・권하3의1～2, 김민영), 보물 제1219-3호(권하1의1～2・권하2의1～2, 부산 취정사), 보물 제1514호(권상1의1, 장서각 소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 1의2는 중국 당의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의 소초본(疏鈔本)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口訣)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세조 11년(1465)에 주자소(鑄字所)에서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을유자로 인출된 판본은 활자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종 15년(1484)에 갑진자(甲辰字)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서 사용하여 그 종류도 많지 않다. 더욱이 조사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는 완질(完帙)도 전해지지 않으며 전래본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 동일한 을유자본 가운데 일부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등 몇 곳에 책의 일부가 전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사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 1의2는 전래되는 판본이 적은 귀중본으로서, 15세기 國語學과 書誌學 및 金屬活字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신라시대 승려인 惠居(899-944)가 『원각경』을 강의한 기록이 있으므로 신라시대에는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 知訥이 『원각경』을 신봉한 후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에서는 승려교육의 교재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 선종 강원의 학제는 沙彌科·四集科·四敎科·大敎科의 4단계였으며, 이외에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隨意科가 있었다. 사교과에서는 고등교육과정으로 『楞嚴經』·『大乘起信論』·『金剛般若經』·『圓覺經』을 이수하였다. 『원각경』 즉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四敎科의 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많이 간행되고 유통되었다. 이들 간본을 체제에 따라 크게 '한문본'·'주석본'·'언해본'·'구결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문본’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원각경』의 판본은 고려시대에는 대장도감판, 우왕 6(1380)년 간본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대장도감판은 고종 28(1241)년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하여 “辛丑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간기가 판각되어 있다. 그 판목이 해인사에 수장되어 있으며, 후쇄본이 동국대학교 등에 수장되어 있다. 우왕 6(1380)년판에는 송나라 효종황제의 주석과 李穡의 발문, 시주질, 간행기록이 실려 있다. 북촌박물관 수장본(보물 1518-1호)과 부산 삼광사 수장본(보물1518-2호)이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한문본’은 을해자본과 간경도감판이 있다. 을해자본은 간경도감 설치 이전인 세조 3(1457)년 9월에서 세조 7(1461)년 초 사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전래본이 극히 적어 계명대와 고려대에 전부 합해 잔본 6책이 전래되고 있다. 번각은 여러 판종이 전래되고 있다. 또 세조 8(1462)년 간경도감에서 고려 선종 10(1093)년 교장도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판본도 있다. 이는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주석본’은 涵虛得通의 주석본으로 세조 10(1464)년 강희안의 필적을 登梓本으로 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하였다. 번각본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본과 조병순 구장본이 알려져 있다.

‘언해본’은 세조 11(1465)년 간경도감판이다. 세조가 구결을 달고 信眉, 孝寧大君, 韓繼禧, 成任, 姜布孟 등이 한글로 번역하였다. 간경도감판 언해본에는 본경, 본경의 언해, 요해, 요해의 주석, 요해의 언해를 수록한 체제의 목판본이다. 번각본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수장되어 있다.

조사대상인 ‘구결본’은 세조 11(1465)년 원각사를 준공한 기념으로 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을유자로 인출한 판본이다. 이 판본에는 언해는 없고, 본경과 요해에 한글 구결만 붙인 것이다. 간경도감의 목판본 언해본과 구분하여 ‘원각경구결본’이나 ‘을유자원각경’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결본은 宗密의 『圓覺經大疏鈔』를 저본으로 하였는데, 본경과 疏鈔에는 세조가 한글로 구결을 단 것이다. 을유자는 세조 11(1465)년 정난종이 쓴 松雪體의 글자를 바탕으로 대·중·소로 주조한 동활자이다. 구결용의 한글활자도 주조하였다. 이 활자는 불경을 인출하기 위해 주조하였기 때문에 유신들이 싫어하여 『圓覺經』·『金剛經』·『碧巖錄』·『兵將說』·『唐書』 등을 인출하였으나, 갑진자(1485) 주조 후 대체되었으므로 인본이 많지 않아 중시되고 있다. 현재 을유자본 『원각경』의 완질은 확인되지 않았고,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고궁박물관 · 고려대·영남대·한국학중앙연구원·아단문고·호림박물관 등에 잔본이 수장되어 있을 뿐이다. 완질은 전래되지 않지만, 각각의 잔본을 합하면 한 질이 될 수 있다. 그 전래본은 <표>와 같다.

<표> 을유자본 원각경의 현전본 현황

<table>
<tr><th>연번</th><th>구분</th><th>장수</th><th colspan="2">수장처</th><th>수장처</th></tr>
<tr><td rowspan="4">1</td><td>圓覺經略鈔書</td><td rowspan="4">111</td><td colspan="2"></td><td rowspan="4">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1514호)</td></tr>
<tr><td>圓覺經略疏序</td><td colspan="2"></td></tr>
<tr><td>圓覺經序</td><td colspan="2"></td></tr>
<tr><td>上一之一</td><td colspan="2">고려대 만송문고</td></tr>
<tr><td>2</td><td>上一之二</td><td>102</td><td colspan="2">세종대왕기념사업회</td><td>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아단문고(보물 1219-1호)
조병순 구장본</td></tr>
<tr><td rowspan="3">3</td><td>上二之一</td><td>29</td><td colspan="2">호림박물관</td><td rowspan="3">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신암문고
조병순 구장본</td></tr>
<tr><td>上二之二</td><td>90</td><td>하남시 광덕사
(보물 1219-2호)</td><td rowspan="2">월정사
(2 : 장27-90)
(3 : 장1-28)</td></tr>
<tr><td>上二之三</td><td>28</td><td></td></tr>
<tr><td rowspan="6">4</td><td>下一之一</td><td>38</td><td colspan="2" rowspan="2">기장군 취정사(보물 1219-3호)</td><td rowspan="4">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만송문고
아단문고(보물 1219-1호)
조병순 구장본</td></tr>
<tr><td>下一之二</td><td>33</td></tr>
<tr><td>下二之一</td><td>34</td><td colspan="2" rowspan="2">영남대
기장군 취정사(보물 1219-3호)</td></tr>
<tr><td>下二之二</td><td>32</td></tr>
<tr><td>下三之一</td><td>78</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국립중앙도서관
하남시 광덕사(보물 1219-2호)
고려대 경화당문고
조병순 구장본</td></tr>
<tr><td>下三之二</td><td>61</td></tr>
</table>

이후는 선초의 판본을 저본으로 번각본이 많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구결본의 번각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해본에는 구결도 달리고 언해도 되었기 때문에 구결본보다는 수요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유자본 『원각경』의 간행처가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을유자본 『원각경』에는 간경도감판과 같은 형식의 간기가 없고, 을해자본 『楞嚴經』이 교서관에서 간행된 바 있으므로 교서관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권상1-2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수장된 서적이 보물 제1514호로 지정된 바 있으므로 복본이 있다. 그러나 을유자로 인출된 서적이 극히 적고, 활자의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인본이 깨끗한 편이나 전래과정에 마멸이 생기게 되었다. 구결에는 15세기 국어가 반영되어 있어 국어학은 물론 서지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을유자판 『원각경』은 이미 여러 차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및 現狀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卷上 1의2)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卷上 1之2 / 佛陀多羅(?～?, 唐朝) 漢譯 ; 宗密(780～841, 唐朝) 疏鈔 ; 世祖(1417～1468, 朝鮮朝) 懸吐. -- 金屬活字(乙酉字)本. -- [漢城] : [鑄字所], [世祖 11(1465) 推定].

1卷1冊(卷上 1之2) : 四周單邊, 半郭 19.8×13.2㎝, 有界, 半葉 大字 6行13字單行, 中字 6行19字雙行, 小字註 6行19字四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6.2×17.0㎝.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卷頭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版心題: 圓覺.

卷尾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墨　書: 欄外註 等.

內　容: 指定申請本『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宗密의 疏鈔本을 底本으로 하여 收錄된 經文은 "如是我聞 一時 婆伽婆 入於神通大光明藏 三昧正受 一切如來 光嚴住持 是諸衆生 淸淨覺地 身心寂滅 平等本際 圓滿十方 不二隨順 於不二境 現諸淨土 與大菩薩摩訶薩 十萬人俱 其名曰 文殊舍利菩薩 普賢菩薩 普眼菩薩 金剛藏菩薩 彌勒菩薩 淸淨慧菩薩 威德自在菩薩 辨音菩薩 淨諸業障菩薩 普覺菩薩 圓覺菩薩 賢善首菩薩 等 而爲上首 與諸眷屬 皆入三昧 同住如來 平等法會 於是 文殊舍利菩薩 在大衆中 卽從座起 頂禮佛足 右繞三匝 長跪叉手 而白佛言 大悲世尊 願爲此會 諸來法衆 說於如來 本起淸淨 因地法行 及說菩薩 於大乘中 發淸淨心 遠離諸病 能使未來末世衆生 求大乘者 不墮邪見"까지이다.

乙酉字: … 그 뒤 을유(1465)년에 [세조께서]『圓覺經』을 印行하고자 鄭蘭宗에게 下命하여 [父字本을] 쓰도록 하였으나 그 字體가 고르지 못하였는데 이름을 '乙酉字'라 하였다. (… 其後乙酉年 [世祖] 欲印圓覺經 命鄭蘭宗書之 字體不整 名曰 乙酉字 …. (成俔『慵齋叢話』. 卷7. 活字條)

… 成化 乙酉(1465)年에 鑄成된 것을 '乙酉字'라 하니 鄭蘭宗이 [父字本을] 書寫한 것이며, 이들[乙亥字·乙酉字]은 지금 바야흐로 병용되고 있다. 甲辰(1484)年 가을 8월에 承政院에 傳旨를 내려 '甲寅字와 乙亥字는 매우 精好하나 字體가 너무 커서 印行하는 서적이 簡帙이라도 繁重하다. 또한, 이미 세월이 오래되어 散落되고 없어져서 補鑄하여 사용하려고 하여도 그 처음의 乙酉字와는 비길 바 되지 못하니, 그

字體가 端正하지 못하여 사용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成於成化乙酉年字 謂之乙酉字 鄭蘭宗之所書 今方竝用焉 甲辰秋八月 我殿下傳旨于承政院 若曰 甲寅·乙亥字極爲精好 然而字體差大 所印之書 簡帙繁重 且已歲久散落 將盡雖補鑄 …. 金宗直, <新鑄字跋[甲辰字]>條.)

所藏歷: 指定申請本『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88년에 구입한 遺物이다. (유물취득경위서 참간).

現　狀: 전반적으로 漏濕으로 다소의 變色과 헤진 곳이 있으나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원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表紙는 후대에 改裝된 듯하다.

他藏處: 指定申請本『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과 동일의 乙酉字本이 국립중앙도서관(권상1의2(2)・권상2의1～2의3(3)・권하1의1～2의3(4)・권하3의1～삼의2(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신암貴442・경화당貴443・만송貴44A1・만송貴44A2), 성암문고(4책), 아단문고(권상1의2・권하1의1～2의2),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월정사, 장서각(권상1의1), 취정사(권하1의1～2・권하2의1～2), 호림박물관 등에 일부 소장되고 있다.

旣指定: 指定申請本『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과 동일의 乙酉字本이 보물 제793호(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월정사 소장), 보물 제1219-1호(권상1의2・권하1의1～2의2, 아단문고 소장), 보물 제1219-2호(권상2의2・권하3의1～2, 김민영), 보물 제1219-3호(권하1의1～2・권하2의1～2, 부산 취정사), 보물 제1514호(권상1의1, 장서각 소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ㅇ 現　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의 지정신청본『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권상 1의2는 전반적으로 漏濕으로 인한 다소의 變色과 헤진 곳이 있으나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원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表紙는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ㅇ 內容 및 特徵

『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은 唐朝에 北印度 罽賓國의 고승인 佛陀多羅(?～?)가 漢譯한 佛經으로 크고[大] 방정하며[方] 광대한[廣] 圓覺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修多羅 중에서 으뜸이 되는 經典이라는 뜻이며, 불교의 수행에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경전이다. 그러나 산스크리트어의 原本이 없어 중국에서의 僞作된 經典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은 釋迦牟尼가 文殊菩薩・普賢菩薩・普眼菩薩・金剛藏菩薩・彌勒菩薩・淸淨慧菩薩・威德自在菩薩・辯音菩薩・淨諸業障菩薩・普覺菩薩・圓覺菩薩・賢善首菩 등 12菩薩과 圓覺의 妙理와 그 觀行을 문답한 내용을 각 1章씩 수록하여 전체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장의「文殊菩薩章」은 經의 眼目이 되는 부분으로 如來因行의 근본과 果相을 설하고 있는데, 이는 因地에 圓覺을 닦는 자가 모든 현실이 허공의 꽃이요 夢幻임을 알면 곧 生死의 윤회가 없어질 뿐 아니라, 生死가 곧 涅槃이고 輪回가 곧 解脫이라는 것이다. 제2장의「普賢菩薩章」이하는 圓覺을 닦고 證得하는 데에 필요한 觀行을 설하

고 있다. 제2장의 「普賢菩薩章」에서는 중생들이 圓覺의 淸淨한 境界를 듣고 수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하고 있으며, 제3장의 「普眼菩薩章」에서는 중생들이 어떻게 사유하고 住持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하고 있다. 제4장의 「金剛藏菩薩章」에서는 ① 만일 중생이 본래 成佛이면 왜 다시 일체 無明을 설하였는가? ② 만일 無明이 중생이 본래 가졌다면 어떤 인연으로 본래 成佛이라 설하였는가? ③ 만일 본래 佛道를 이루고 다시 無明을 일으켰다면 如來는 어느 때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킬 것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5장의 「彌勒菩薩章」에서는 輪回를 끊는 방법을 설하고 있으며, 제6장의 「淸淨慧菩薩章」에서는 聲聞性·緣覺性·菩薩性·如來性·外道性 등 五性의 所證 差別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제7장의 「威德自在菩薩章」에서는 중생의 세 가지 根性에 따른 修行의 방법을 설하고 있으며, 제8장의 「辯音菩薩章」에서는 圓覺門에 의하여 修習하는 길에 대해 설하고 있다. 제9장의 「淨諸業障菩薩章」에서는 末世의 衆生을 위한 將來眼에 관하여 설하고 있으며, 제10장의 「普覺菩薩章」에서는 수행하는 자가 닦아야 할 法과 行, 제거해야 할 病과 發心하는 방법, 邪見에 떨어지지 않는 법 등을 설하고 있다. 제11장의 「圓覺菩薩章」에서는 圓覺境界를 닦기 위하여 安居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으며, 제12장의 「賢善首菩薩章」에서는 本經의 이름과 信受·奉行하는 방법, 本經을 受持하는 功德과 利益 등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고려조의 知訥(1158~1210)이 깊이 신봉하여 '了義經'이라 하면서 크게 유통되고, 조선조 초기에 涵虛 得通和尙(1376~1433)이 『圓覺經疏』를 짓고 그 뒤에 有一禪師(1720~1799)와 義沾禪師(1746~1796)가 각각 『圓覺私記』를 지으면서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같이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 널리 讀誦·硏究되고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져서 불교 수행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經典의 내용이 훌륭한 이론과 실천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文體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며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고려조 우왕 6(1380)년에 李穡(1328~1396)이 지은 跋文이 있는 판본을 비롯하여 조선조 世祖年間에는 乙亥字로 간행된 판본과 세조 10(1464)년에 涵虛 得通의 註釋을 붙여 간행된 刊經都監의 판본 및 세조 11(1465)년에 乙酉字로 간행된 판본이 있다. 선조 3(1570)년의 全羅道 安心寺版은 刊經都監版의 覆刻이고 선조 8(1575)년의 全羅道 安心寺版은 乙酉字本의 覆刻이며, 광해군 3(1611)년의 智異山 雙溪寺版은 乙亥字本의 覆刻이다. 이밖에도 인조 12(1634)년의 京畿道 龍腹寺版, 효종 6(1655)년의 順天 仙巖寺版, 현종 2(1661)년의 密陽 靈井寺版(現 表忠寺), 숙종 7(1681)년의 寧邊 普賢寺版, 영조 34(1758)년에 寫字官이 板下本을 쓰고 校書館에서 새긴 金剛山 乾鳳寺版 등이 있

다. 그 뒤로도 철종 12(1861)년의 乾鳳寺版, 고종 19(1882)년의 甘露社版과 고종 20(1883)년의 涵虛 得通의 註釋이 있는 楊州 奉印寺版, 1926년의 新文館 新鉛活字版本도 있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현존하는 經板으로는 선조 21(1588)년의 淸道 雲門寺의 經板과 광해군 3(1611)년의 河東 雙溪寺의 經板 및 효종 6(1655)년의 順天 仙巖寺의 經板 등이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는 唐朝의 圭峰 宗密(780～841)의 疏鈔本에 세조가 한글로 口訣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세조 11(1465)년에 鑄字所에서 乙酉字의 金屬活字로 간행된 版本이다. 乙酉字版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이 간행되기 전에 세조는 이미 즉위 7(1461)년에는 각종 佛經을 諺解하여 刊行하기 위한 刊經都監을 설치[2]하고 즉위 10(1464)년에는 圓覺寺를 설치[3]하였으며, 즉위 11(1465)년에는 孝寧大君(1396～1486)과 韓繼禧(1423～1482) 및 信眉(1403～1480) 등에 의하여 諺解·校正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을 刊經都監에서 木版으로 간행[4]하기도 하였다.

乙酉字本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刊經都監版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을 底本으로 하여 간행된 판본으로 한글活字의 併用이 문제가 되었던 듯, 本文의 諺解의 部分은 생략되고 經文과 註釋의 한글口訣 부분만 편집하여 인출된 연유로 口訣만은 刊經都監版과 일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乙酉字版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刊經都監版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와의 구별을 위하여 '圓覺經口訣本' 또는 '乙酉字圓覺經'으로 稱名되기도 한다.

을유자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체제는 「序文」과 본문의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크게 1·2로 나누고 상권1을 다시 1·2로 나누고 상권2를 1·2·3으로 나누었으며, 하권은 크게 1·2·3으로 나누고 각각 1·2로 구분하였다. 결국, 「서문」을 제외하고 본문은 모두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7年 6月 16(乙酉)日條.
初設刊經都監 置都提調·提調·使·副使·判官.

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0年 5月 3(乙卯)日條.
幸興福寺與王世子及孝寧大君補·臨瀛大君瑤·永膺大君琰·永順君溥·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雲城府院君朴從愚·南陽府 院君洪達孫·領中樞院事沈澮·兵曹判書尹子雲·戶曹判書金國光·中樞院副使金漑·商山君黃孝源議創圓覺寺 以補·瑤·琰·溥·叔舟·致寬·從愚·河城尉鄭顯祖等爲造成都提調 禮曹判書元孝然及子雲·國光·漑爲提調 以僉知中樞院事尹岑·崔善復·都承旨盧思愼等爲副提調 初興福寺廢爲樂學都監 人呼爲大寺.

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1年 3月 9(丙辰)日條.
孝寧大君補 嘗讎校圓覺經 至是事訖 上御思政殿設宴慰之 王世子與補·臨瀛大君瑤·永膺大君琰·永順君溥·龜城君浚·原川卿宜·河城尉鄭顯祖·巨濟正徹·河東府院君鄭麟趾·蓬原府院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澮·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南陽府院君洪達孫·領中樞院事沈澮·判中樞院事沈決·左贊成尹士昕·右贊成朴元亨·右參贊崔恒·工曹判書金守溫·吏曹判書梁誠之·禮曹判書元孝然·吏曹參判洪應·禮曹參判任元濬·兵曹參判宋文琳等入侍 對馬州 宗彦七郎·灑文多難等亦入侍 上賜宗彦七郎大紅羅藍羅各一匹 白苧布十匹 黑麻布十匹 虎皮一張 豹皮一張 油紙席一張 其餘賜物有差 宗彦七郎等 下庭拜謝 又賜酒肉 送至其館 命入侍宰宗以次進酒 仍命叔舟·元亨 兵曹判書尹子雲·刑曹判書金礩等子弟中加一資 以韓繼禧爲吏曹判書 梁誠之知中樞院事 姜希孟仁順府尹 韓致仁僉知中樞院事 吳凝司憲執義 繼禧·希孟以譯圓覺經功也.

조사본『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乙酉字本의 卷上 1의2이다.「序文」은 경전의 본문에서 설할 내용이 요약·제시된 글로 裵休(797~870)의「圓覺經略疏序」와 그의 스승인 圭峰 宗密의「圓覺經序」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圭峰 宗密의「圓覺經序」는 경전의 특징과 중요성 그리고 註釋書의 성립 배경과 이에 얽힌 일화 등이 밝혀져 있다.

조사본『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에 수록된 經文은 "如是我聞 一時 婆伽婆 入於神通大光明藏 三昧正受 一切如來 光嚴住持 是諸衆生 淸淨覺地 身心寂滅 平等本際 圓滿十方 不二隨順 於不二境 現諸淨土 與大菩薩摩訶薩 十萬人俱 其名曰 文殊舍利菩薩 普賢菩薩 普眼菩薩 金剛藏菩薩 彌勒菩薩 淸淨慧菩薩 威德自在菩薩 辨音菩薩 淨諸業障菩薩 普覺菩薩 圓覺菩薩 賢善首菩薩 等 而爲上首 與諸眷屬 皆入三昧 同住如來 平等法會 於是 文殊舍利菩薩 在大衆中 卽從座起 頂禮佛足 右繞三匝 長跪叉手 而白佛言 大悲世尊 願爲此會 諸來法衆 說於如來 本起淸淨 因地法行 及說菩薩 於大乘中 發淸淨心 遠離諸病 能使未來末世衆生 求大乘者 不墮邪見" 까지이며, 經文에는 한글口訣이 있어 讀經의 편리성이 도모되어 있다.

조사본『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諺解)』은 卷上 1之2의 1책으로 卷頭題와 卷尾題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고 版心題는 '圓覺'이다. 版式의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8㎝ 가로 13.2㎝이며 界線이 있다. 半葉의 行字數는 大字의 경우 6行 13字의 單行이고 中字의 경우 6行 19字의 雙行이며 小字註의 경우 6行 19字의 4行이다. 版心의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며, 규격은 세로 26.2㎝ 가로 17.0㎝이다. 紙質은 미색으로 염색된 전형적인 印經韓紙로 간혹 藁精紙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裝訂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이는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된 刊經都監版『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諺解)』의 경우에 版式의 변란이 四周雙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2.2㎝ 가로 18.5㎝이며 界線이 있는 점과 半葉의 行字數는 大字는 9行 17字이고 中·小字는 9行 21字에 小字는 雙行인 점 및 版心의 版口가 上下大黑口이고 魚尾가 上下內向黑魚尾인 점 등과는 크기나 판형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乙酉字는 세조 11년(1465)에 虛白堂 鄭蘭宗(1433~1489)이 松雪體를 바탕으로 서사한 父字本으로 大·中·小字의 金屬(銅)活字가 주조된 것이며, 口訣을 인쇄하기 위하여 한글활자도 주조되었다. 乙酉字의 鑄字事實은 成俔(1439~1504)의『慵齋叢話』에서 "… 그 뒤 을유(1465, 세조 11)년에 [世祖께서]『圓覺經』을 印行하고자 鄭蘭宗에게 下命하여 [父字本을] 쓰도록 하였으나 그 字體가 고르지 못하였는데 이름을 '乙酉字'라 하였다.(… 其後乙酉年 [世祖] 欲印圓覺經 命鄭蘭宗書之 字體不整 名曰 乙酉字 …. (成俔『慵齋叢話』. 卷7. 活字條)"는 기록과 金宗直(1431~1492)의「新鑄字跋[甲辰字]」의 "… 成化 을유(1465)년에 鑄成된 것을 '乙酉字'라 하

니 鄭蘭宗이 [父字本을] 書寫한 것이며, 이들[乙亥字·乙酉字]은 지금 바야흐로 병용되고 있다. 갑진(1484)년 가을 8월에 承政院에 傳旨를 내려 '甲寅字와 乙亥字는 매우 精好하나 字體가 너무 커서 印行하는 서적이 簡帙이라도 繁重하다. 또한, 이미 세월이 오래되어 散落되고 없어져서 補鑄하여 사용하려고 하여도 그 처음의 乙酉字와는 비길 바 되지 못하니, 그 字體가 端正하지 못하여 사용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成於成化乙酉年字 謂之乙酉字 鄭蘭宗之所書 今方竝用焉 甲辰秋八月 我殿下傳旨于承政院 若曰 甲寅·乙亥字極爲精好 然而字體差大 所印之書 簡帙繁重 且已歲久散落 將盡雖補鑄 …. 金宗直, <新鑄字跋[甲辰字]>條)"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세조는 즉위 10(1464)년에 圓覺寺를 짓기 시작하는 한편 孝寧大君 李補에게 명하여『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讎校하게 하였으며, 다시 이를 간행하기 위하여 乙酉字를 鑄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虛白堂 鄭蘭宗은 松雪體의 楷書에 능하여 昌德宮의 여러 殿門의 扁額과 奉先寺의 鐘銘 등을 썼던 당대의 명필가였다. 그러나 松雪體는 晋體처럼 楷正하지도 못하며 그 자체를 바탕으로 시급히 주조된 乙酉字도 端正하지 못하여 당시 儒臣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종 15(1484)년에 甲辰字를 새로 鑄造할 때 녹여서 사용되고 말았다. 나아가 乙酉字는 字樣이 단정하지 못하여 인쇄하기를 꺼려서 겨우 20년밖에 사용되지 않아 그 印本의 종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乙酉字로 인출된『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諺解)』의 完帙도 전해지지 않으며 傳來本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오히려 귀중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사본『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과 동일의 乙酉字本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권상1의2・권상2의1～2의3・권하1의1～2의3・권하3의1～삼의2), 고려대학교도서관(신암貴442・경화당貴443・만송貴44A1・만송貴44A2), 성암문고(4책), 아단문고(권상1의2・권하1의1～2의2), 영남대학교도서관, 월정사, 장서각(권상1의1), 취정사(권하1의1～2・권하2의1～2), 호림박물관 등에 부분적으로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본『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과 동일의 乙酉字本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93호(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월정사 소장), 보물 제1219-1호(권상1의2・권하1의1～2의2, 아단문고 소장), 보물 제1219-2호(권상2의2・권하3의1～2, 개인), 보물 제1219-3호(권하1의1～2・권하2의1～2, 부산 취정사), 보물 제1514호(권상1의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사본『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初印本이라 인쇄상태도 깨끗하여 귀중한 판본에 속하며 15세기 國語學과 書誌學 및 金屬活字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동일의 판본들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조사본『大

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도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佛陀多羅 漢譯, 宗密 疏鈔, 世祖 懸吐,『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乙酉字本. [漢城] : [鑄字所], [世祖 11(1465) 推定].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所藏本.
- 李仁榮 著,『淸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 寶庫社, 1993.
- 서울특별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옥영정・서정문)>.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pageNo=1_1_1_1
- 국립중앙도서관: https://nl.go.kr/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dongguk.edu/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其　他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88년에 구입한 遺物이다.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판본인 乙酉字本『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권상1의2(2)・권상2의1～2의3(3)・권하1의1～2의3(4)・권하3의1～삼의2(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신암貴442・경화당貴443・만송貴44A1・만송貴44A2), 성암문고(4책), 아단문고(권상1의2・권하1의1～2의2),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월정사, 장서각(권상1의1), 취정사(권하1의1～2・권하2의1～2), 호림박물관 등에 일부 소장되고 있다.

또한, 지정신청본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와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793호(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월정사 소장), 보물 제1219-1호(권상1의2・권하1의1～2의2, 아단문고 소장), 보물 제1219-2호(권상2의2・권하3의1～2, 김민영), 보물 제1219-3호(권하1의1～2・권하2의1～2, 부산 취정사), 보물 제1514호(권상1의1, 장서각 소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

○ **書誌事項**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卷上 1之2 / 佛陀多羅(?~?, 唐朝) 漢譯 ; 宗密(780~841, 唐朝) 疏鈔 ; 世祖(1417~1468, 朝鮮朝) 懸吐. -- 金屬活字(乙酉字)本. -- [漢城] : [鑄字所], [世祖 11(1465) 推定].

1卷1冊(卷上 1之2) : 四周單邊, 半郭 19.8×13.2㎝, 有界, 半葉 大字 6行13字單行, 中字 6行19字雙行, 小字註 6行19字四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6.2×17.0㎝.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卷頭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版心題: 圓覺.

卷尾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墨　書: 欄外註 等.

○ **現　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은 1988년에 구입한 유물이다. 책은 누습과 오염으로 인해 일부 변색이 있으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매우 좋다. 표지는 본래의 것이 아닌 후대 개장된 것이다.

○ **內容 및 特徵**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은 중국 당대 북인도 계빈국(罽賓國)의 고승인 불타다라(佛陀多羅, ?~?)가 한역한 불경으로 크고[大] 방정하며[方] 광대한[廣] 원각(圓覺)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수다라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경전이다. 일명 『원각경』이라고도 하며 달리 『대방광원각경』·『원각수다라요의경』·『원각요의경』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불교전문강원 사교과(四敎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경전의 내용은 석가여래가 12명의 보살과 문답을 통해 원각의 묘리(妙理)와 그 관행(觀行)을 설하는 것으로 문수보살장(文殊菩薩章), 보현보살장(普賢菩薩章), 보안보살장(普眼菩薩章), 금강장보살장(金剛藏菩薩章), 미륵보살장(彌勒菩薩章), 청정혜보살장(淸淨慧菩薩章), 위덕자재보살장(威德自在菩薩章), 변음보살장(辯音菩薩章), 정제업보살장(淨諸業障菩薩章), 보각보살장(普覺菩薩章), 원각보살장(圓覺菩薩章), 현선수보살장(賢善首菩薩章) 등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의 「문수보살장」은 경전의 안목(眼目)이 되는 부분으로 여래인행(如來因行)의 근본과 과상(果相)을 설하고 있다. 제2장의 「보현보살장」에서는 원각(圓覺)을 닦고 증득(證得)하는 데에 필요한 관행(觀行)을 설하고 있다. 제3장의 「보안보살장」에서는 중생들이 어떻게 사유하고 주지(住持)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하고 있다. 제4장의 「금강장보살장」에서는 무명(無明)을 중심으로 성불(成佛)과 불도(佛道)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다. 제5장의 「미륵보살장」에서는 윤회를 끊는 방법을 설하고 있다. 제6장의 「청정혜보살장」에서는 성문성(聲聞性)·연각성(緣覺性)·보살성(菩薩性)·여래성(如來性)·외도성(外道性) 등 5성(五性)의 소증 차별(所證差別)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제7장의 「위덕자재보살장」에서는 중생의 세 가지 근성에 따른 수행의 방법을 설하고 있다. 제8장의 「변음보살장」에서는 원각문(圓覺門)에 의하여 수습(修習)하는 길에 대해 설하고 있다. 제9장의 「정제업장보살장」에서는 말세의 중생을 위한 장래안(將來眼)에 관하여 설하고 있다. 제10장의 「보각보살장」에서는 수행하는 자가 닦아야 할 법(法)과 행(行), 제거해야 할 병(病)과 발심(發心)하는 방법, 사견(邪見)에 떨어지지 않는 법 등을 설하고 있다. 제11장의 「원각보살장」에서는 원각경계(圓覺境界)를 닦기 위하여 안거(安居)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다. 마지막 제12장의 「현선수보살장」에서는 본경(本經)의 이름과 신수(信受)·봉행(奉行)하는 방법, 본경(本經)을 수지(受持)하는 공덕과 이익 등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원각경』은 고려의 지눌(知訥, 1158~1210)이 깊이 신봉하여 『원각요의경』이라 하면서 크게 유통되었고, 조선초기에는 함허 득통(涵虛得通, 1376~1433)이 『원각경소(圓覺經疏)』를 짓고 그 뒤에 유일(有一, 1720~1799)과 의첨(義沾, 1746~1796)의 두 선사가 각각 『원각사기(圓覺私記)』를 지으면서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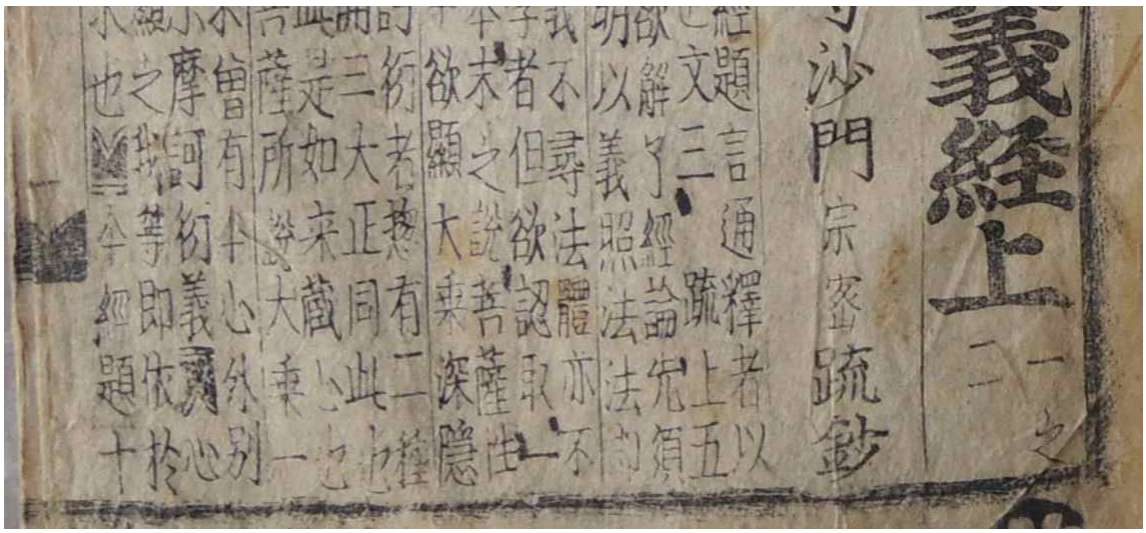
『원각경』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고려 우왕 6년(1380)에 이색(李穡, 1328~1396)이 지은 발문(跋文)이 있는 판본을 비롯하여 조선 세조대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판본과 세조 10년(1464)에 함허 득통의 주석을 붙여 간행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판본 및 세조 11년(1465)에 을유자(乙酉字)로 간행된 판본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라도 안심사에서는 선조 3년(1570)에는 간경도감판의 복각판을 간행하였고, 선조 8년(1575)에는 을유자본의 복각판을 간행하였다. 한편 지리산 쌍계사에서는 광해군 3년(1611)에 을해자본의 복각판을 간행하였고, 이후 인조 12년(1634)의 경기도 용복사판(龍腹寺版), 효종 6년(1655)의 순천 선암사판(仙巖寺版), 현종 2년(1661)의 밀양 영정사판(靈井寺版), 숙종 7년(1681)의 영변 보현사판(普賢寺版), 영조 34년(1758)에 사자관(寫字官)이 판하본(板下本)을 쓰고 교서관(校書館)에서 새긴 금강산 건봉사판(乾鳳寺版) 등이 있다. 또한 철종 12년(1861)의 건봉사판(乾鳳寺版), 고종 19년(1882)의 감로사판(甘露社版), 고종 20년(1883)의 함허 득통의 주석이 있는 양주 봉인사판(奉印寺版) 그리고 1926년에 신연활자로 신문관(新文館)에서 간행한 판본까지 상당히 많은 판본이 유행되었다.

한편 『원각경』의 현존하는 경판(經板)으로는 선조 21년(1588)에 만들어진 청도 운문사(雲門寺)의 경판과 광해군 3년(1611)에 하동 쌍계사(雙溪寺)에서 만들어진 경판 및 효종 6년(1655)에 순천 선암사(仙巖寺)에서 만들어진 경판 등이 있다.
조사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는 중국 당의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의 소초본(疏鈔本)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口訣)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세조 11년(1465)에 주자소(鑄字所)에서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이미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과 한계희(韓繼禧, 1423~1482) 및 신미(信眉, 1403~1480) 등에 의하여 언해·교정된 목판본으로 간행된 바가 있었다.(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9일 병진)

을유자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는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판본으로서, 본문(本文)의 언해(諺解)는 생략되었고 경문(經文)과 주석(註釋)의 한글로 이루어진 구결(口訣) 부분만 편집하여 인출되었다. 따라서 을유자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는 '원각경 구결본(圓覺經口訣本)'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을유자본『원각경(언해)』의 체제는「서문」과 본문의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크게 1·2로 나누고 권상 1을 다시 '一之一'과 '一之二'의 두 편으로 나누고, 권상 2를 '二之一'과 '二之二' 그리고 '二之三'의 3편으로 나누었다. 하권은 크게 1·2·3으로 나누고 각각 '一'과 '二' 로 구분하여 6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본『원각경(언해)』는 그 가운데 권상 '一之二'에 해당한다.



조사본의 「서문」은 경전의 본문에서 설할 내용이 요약·제시된 글로 배휴(裵休, 797~870)의 「원각경약소서(圓覺經略疏序)」와 그의 스승인 규봉 종밀의 「원각경서(圓覺經序)」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본 권상 '一之二'에 수록된 경문(經文)은 제1장의 「문수보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래인행(如來因行)의 근본과 과상(果相)을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바가바(婆伽婆)께서 신통대광명장(神通大光明藏)에 드시어 삼매로 바로 수용하시니, 일체 여래의 빛나고 장엄하게 머무시는 자리며, 모든 중생들의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며, 몸과 마음이 적멸하여 평등한 근본 자리이다. 시방에 원만하여 불이(不二)를 수순하시며, 불이의 경계에서 모든 정토를 나투시어 대보살마하살 십만 인과 함께 하시었다. 그 이름은 文殊師利菩薩·普賢菩薩·普眼菩薩·金剛藏菩薩·彌勒菩薩·淸淨慧菩薩·威德自在菩薩·辯音菩薩·淨諸業障菩薩· ·普覺菩薩·圓覺菩薩·賢善首菩薩 로서, 그들이 으뜸이 되어 여러 권속들과 함께 삼매에 들어가 여래의 평등한 법회에 함께 하였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엎드려 절하며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이 법회에 온 모든 대중을 위하여 여래께서 본래 일으키신 청정한 인지법행을 말씀해 주소서. 그리고 보살들이 대승에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멀리 여읨을 설하시어, 미래의 말세 중생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사견(邪見)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를 땅에 대어 절하며 이같이 세 번 거듭 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재선재로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여래의 인지법행을 물으며, 또 말세의 일체 중생들 가운데 대승을 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바르게 주지함을 얻어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위없는 법왕의 대타라니문이 있으니 원각(圓覺)이라 한다. 일체 청정한 진여보리와 열반과 파라밀을 흘려내어 보살을 가르쳐 주시나니, 일체 여래께서 본래 일으키신 인지(因地)에서 청정각상(淸淨覺相)을 원만히 비춤에 의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셨느니라. 어떤 것이 무명(無明)인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비롯함이 없는 예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사방을 장소를 바꾼 것과 같아서, 사대(四大)를 잘못 알아 자기의 몸이라 하며, 육진(六塵)의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이라 한다. 비유하면 병든 눈이 허공 꽃이나 제 이(二)의 달을 보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허공에는 실제로 꽃이 없는데 병든 자가 망령되이 집착을 하나니, 허망한 집착 때문에 허공의 자성을 미혹할 뿐 아니라, 또한 실제의 꽃이 나는 곳도 미혹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허망하게 생사에 헤매임이 있으니 그러므로 무명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명이란 것은 실제로 체(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꿀 때는 없지 아니하나 꿈을 깨고 나서는 마침내 얻을 바가 없는 것과 같으며, 뭇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지나 일정하게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하지 못함과 같다. 왜냐하면 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 남이 없는 가운데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니, 그러므로 생사에 헤맨다고 이름 하느니라.
선남자여, 여래의 인지(因地)에서 원각(圓覺)을 닦는 이가 이것이 공화(空華)인 줄 알면 곧 륜전(輪轉)이 없을 것이며, 또한 몸과 마음이 생사를 받음도 없으리니, 짓는 까닭에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없기 때문이니라. 지각하는 것도 허공과 같으며,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곧 허공 꽃의 모양이로되, 또한 지각하는 성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있고 없음을 함께 보내면 이를 곧 청정정각(淸淨正覺)에 수순(隨順)한다고 이름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요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여래장(如來藏) 중에 일어나고 멸함이 없기 때문이며, 보고 듣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법계의 성품이 구경(究竟)에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한 것과 같기 때문이니, 이것을 인지법행(因地法行)이라 하느니라. 보살이 이에 의하여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말세중생이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펴시려고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문수여,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여래께서 본래의 인지(因地)로부터 다 지혜의 깨달음으로써 무명(無明)을 요달(了達)하셨느니라. 그것이 허공 꽃인 줄 알면 곧 능히 유전(流轉)을 면할 것이며 마치 꿈꾸는 사람이 깰 때에 얻을 수 없음과 같느니라. 깨달음이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여 움직여 구르지 않으니 깨달음이 시방계(十方界)에 두루하면 곧 불도를 얻으리라. 뭇 환(幻)이 멸하여도 처소가 없으며 도를 이룸도 또한 얻음이 없으니 본성이 원만한 때문이니라. 보살이 이 가운데서 능히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키나니 말세 모든 중생들도 이를 닦으면 사견을 면하리라

如是我聞 一時 婆伽婆 入於神通大光明藏 三昧正受 一切如來 光嚴住持 是諸衆生 淸淨覺地 身心寂滅 平等本際 圓滿十方 不二隨順 於不二境 現諸淨土 與大菩薩摩訶薩 十萬人俱 其名曰 文殊師利菩薩 普賢菩薩 普眼菩薩 金剛藏菩薩 彌勒菩薩 淸淨慧菩薩 威德自在菩薩 辯音菩薩 淨諸業障菩薩 普覺菩薩 圓覺菩薩 賢善首菩薩 等而爲上首 與諸眷屬 皆入三昧 同住如來 平等法會
於是 文殊師利菩薩 在大衆中 卽從座起 頂禮佛足 右繞三匝 長跪叉手 而白佛言 大悲世尊 願爲此會 諸來法衆 說於如來 本起淸淨 因地法行 及說菩薩 於大乘中 發淸

淨心 遠離諸病 能使未來末世衆生 求大乘者 不墮邪見 作是語已 五體投地 如是三請 終而復始

爾時 世尊 告文殊師利菩薩言 善哉善哉 善男子 汝等 乃能爲諸菩薩 諮詢如來因地法行 及爲末世一切衆生 求大乘者 得正住持 不墮邪見 汝今諦聽 當爲汝說 時 文殊師利菩薩 奉敎歡喜 及諸大衆 默然而聽

善男子 無上法王 有大陀羅尼門 名爲圓覺 流出一切淸淨眞如 菩提涅槃 及波羅蜜 敎授菩薩 一切如來本起因地 皆依圓照淸淨覺相 永斷無明 方成佛道 云何無明 善男子 一切衆生 從無始來 種種顚倒 猶如迷人 四方易處 妄認四大 爲自身相 六塵緣影 爲自心相 譬彼病目 見空中華 及第二月

善男子 空實無華 病者妄執 由妄執故 非唯惑此虛空自性 亦復迷彼實華生處 由此妄有輪轉生死 故名無明

善男子 此無明者 非實有體 如夢中人 夢時非無 及至於醒 了無所得 如衆空華 滅於虛空 不可說言 有定滅處 何以故 無生處故 一切衆生 於無生中 妄見生滅 是故說名輸轉生死

善男子 如來因地 修圓覺者 知是空華 卽無輪轉 亦無身心 受彼生死 非作故無本性無故 彼知覺者 猶如虛空 知虛空者 卽空華相 亦不可說無知覺性 有無俱遣 是則名爲淨覺隨順 何以故 虛空性故 常不動故 如來藏中 無起滅故無知見故 如法界性 究竟圓滿遍十方故 是則名爲因地法行 菩薩因此 於大乘中 發淸淨心 末世衆生 依此修行 不墮邪見 爾時 世尊 欲重宣此義 而說偈言

文殊汝當知 一切諸如來 從於本因地 皆以智慧覺 了達於無明 知彼如空華 卽能免流轉 又如夢中人 醒時不可得 覺者如虛空 平等不動轉 覺遍十方界 卽得成佛道 衆幻滅無處 成道亦無得 本性圓滿故 菩薩於此中 能發菩提心 末世諸衆生 修此免邪見

조사본 『원각경(언해)』의 판식은 다음과 같다. 권두제와 권미제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고 판심제는 '圓覺'이다. 판식(版式)의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19.8㎝ 가로 13.2㎝이며 계선이 있다. 반엽(半葉)의 항자수는 대자(大字)의 경우 6行 13字의 단행이고 중자(中字)의 경우 6行 19字의 쌍행이며 소자주(小字註)의 경우 6行 19字의 4행이다. 판심의 판구(版口)는 백구(白口)이고 어미(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며, 규격은 세로 26.2㎝ 가로 17.0㎝이다. 지질은 미색으로 염색된 전형적인 인경한지(印經韓紙)와 함께 고정지(藁精紙)가 함께 사용되었다. 장정은 오침안정법의 선장으로 개장되어 있다.

을유자(乙酉字)는 세조 11년(1465)에 허백당(虛白堂) 정난종(鄭蘭宗, 1433~1489)이 송설체(松雪體)를 바탕으로 大・中・小字의 활자를 주조하였고, 구결(口訣)을 인쇄하기 위하여 한글활자도 주조되었다.그러나 이 서체는 단정(端正)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당시 유신(儒臣)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종 15년(1484)에 갑진자(甲辰字)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서 사용하여 을유자로 인출한 책은 종류도 많지 않다.

조사본 『원각경(언해)』은 완질(完帙)도 전해지지 않으며 전래본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동일한 을유자본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권상1의2・권상2의1~2의3・권하1의1~2의3・권하3의1~삼의2), 고려대학교도서관(신암貴442・경화당貴443・만송貴44A1・만송貴44A2), 성암문고(4책), 아단문고(권상1의2・권하1의1~2의2), 영남대학교도서관, 월정사, 장서각(권상1의1), 취정사(권하1의1~2・권하2의1~2), 호림박물관 등에 부분적으로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文獻資料

- 佛陀多羅 漢譯, 宗密 疏鈔, 世祖 懸吐,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乙酉字本. [漢城] : [鑄字所], [世祖 11(1465) 推定].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所藏本.
- 서울특별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옥영정・서정문)>.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지정사례

보물 제1219-1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2, 권하1의1~2의2 (1995.04.03. 지정)
보물 제1219-2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2의2, 권하3의1~2 (2008.06.27. 지정)
보물 제1219-3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1의1~2・권하2의1~2 (2015.03.04. 지정)
보물 제1514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1, (2007.04.20. 지정)
보물 제793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1984.10.15. 지정)

□

○ 현　　상

조사대상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上 1-2는 세조 11(1465)년 을유자와 을유한글자로 간행한 책이다. 이 경전은 一乘圓頓의 敎義와 觀法의 실천을 기록하고, 석가여래의 원만한 각성을 밝힌 책이다. 을유자는 불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세조 11(1465)년 주조한 활자이며, 성종 16(1485)년 갑진자를 주조할 때까지 20년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전래본이 많지 않으며, 완질의 전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서는 인쇄상태도 깨끗하며, 한글 구결이 달려 15세기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上 1-2 / 佛陀多羅(唐) 譯; 宗密(唐) 疏鈔; 信眉(朝鮮) 等受命編.
金屬活字本(乙酉字). [世祖 11(1465)年] 26.2 × 17.0 ㎝.
1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19.8 × 13.2 ㎝. 有界, 6行 大字13字, 小字19字.
內向黑魚尾.

版心題: 圓覺.

○ 내용 및 특징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한국 불교의 大乘經典 가운데 하나이다. 약칭해서 '大方廣圓覺經', '圓覺修多羅了義經', '圓覺了義經'으로도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圓覺經’이라 불린다. 서명에서 大方은 “여러 방향으로 크게 퍼져나가 시원시원한”, 廣圓은 “넓고 원만한”, 覺은 “깨달음”, 修多羅는 Sūtra를 음차한 것으로 “經”이라는 뜻이고, 了義는 핵심만 ‘요약한’으로 풀이된다. 즉 一乘圓頓의 敎義와 觀法의 실천을 기록하고 석가여래의 원만한 각성을 밝힌 책이다.

중국 唐나라 때 북인도 罽賓國의 고승 佛陀多羅가 와서 번역한 한역본이나,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어 당나라 때 만든 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또한 『首楞嚴經』도 예로부터 위경이라는 의혹이 있었고, 『大乘起信論』도 중국에서 찬술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본경 내용의 많은 부분이 『수릉엄경』이나 『대승기신론』과 같기 때문이다. 위경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지만 대승불교의 사상과 수행 방법에 대한 일체가 포함되어 있어 疑經이라 하여 찬술의 진위와 관계없이 널리 읽혔다.

『원각경』은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천을 논하였을 뿐 아니라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여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도 뛰어나다고 한다. 주된 내용은 석가여래가 12명의 보살과 문답을 통해 圓覺의 妙理와 그 觀行을 설한 내용이다. 중요한 주석서는 당대의 宗密(780-841)이 주석한 『圓覺經大疏』 12권, 송대 효종의 『御注圓覺經』 2권, 行霆의 『圓覺經類解』 8권, 보경 3(1227)년 智聰이 지은 『圓覺經心鏡』 6권 등이 있다.

疏鈔를 한 圭峰 宗密은 장경 3(823)년 『圓覺經大疏』를 지은 후 이어 『圓覺經大疏鈔』를 지어 이전의 취지를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유교와 도교의 전적도 빈번하게 인용되어 있다. 이 책은 『禪源諸詮集都序』와 『禪門師資承襲圖』와 함께 중국 선종사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 知訥 이후 크게 신봉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한문본 · 주석본 · 언해본 · 구결본이 간행되었다. 또한 선초에 涵虛堂 得通이 『圓覺經疏』를 짓고, 有一과 義瞻이 각각 『圓覺經私記』를 지은 뒤 승려 교육의 교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조사대상본은 세조 11(1465)년 원각사를 준공한 기념으로 세조의 명을 받아 鄭蘭宗의 서체를 字本으로 해서 만든 乙酉字로 인출되어 있다. 을유자 『원각경』의 체제는 서문과 본문의 상 ·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의 분권은 다소 복잡하다. 상권은 1 · 2, 하권은 1 · 2 · 3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권 1은 다시 1 · 2로, 상권 2는 1 · 2 · 3으로 구분되어 있고, 하권 1 · 2 · 3은 각각 1 · 2로 구분되어 있다. 결국 서문을 제외하고 모두 11편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권상의 1 · 2이다.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누습되어 변색된 부분이 많다.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원형이 유지되어 있다.

본서는 구결본으로서 본경과 요해만 있고, 언해는 없다. 본경은 대자, 본경의 구결과 요해는 중자, 요해의 구결과 주석은 소자로 수록되어 있다. 한자는 대 · 중 · 소 3종이 사용되었으나, 한글은 중 · 소자가 사용된 것이다. 본경과 요해에는 한글

구결이 있고, 요해의 주석에는 구결이 없다. 본경은 대자 단행, 요해는 중자 쌍행, 요해의 주석은 소자 4행으로 조판되어 있어서 특이하다. 한편 간경도감판은 언해본으로서, 본경 · 본경의 언해 · 요해 · 요해의 주석 · 요해의 언해 순으로 수록된 것과는 다른 체제이다. 조사대상본에는 권두에 수록될 '鈔書', '疏序'와 '序'가 수록되지 않았으나, 보물 제1514호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본은 본경의 상권 1의 1 · 2 앞에 鈔書, 疏序, 序가 다 있어 완전하다.

ㅇ 문헌자료

옥영정, 장서각 소장 보물 『楞嚴經』과 『圓覺經』의 인쇄문화적 가치. 장서각 20. 2008.10. 5-31.

金美京・姜順愛, 『圓覺經』 版本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에 관한 硏究. 서지학연구 46. 2010.09. 329-370.

남권희, 장서각 소장 불교 典籍文化財의 書誌 연구. 장서각 29. 2013.04. 10-43.

ㅇ 기 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88년 2월15일 개인 수장본을 구입한 경전이다.

ㅇ 지정사례

보물 제1219-1호. 을유자. 上1之2, 下1之1·2, 下2之1·2. 아단문고 수장. (1995.04.03. 지정)
보물 제1219-2호. 을유자. 上2之2, 下3之1·2. 하남시 광덕사 수장. (2008.06.27. 지정)
보물 제1219-3호. 을유자. 下1之1·2, 下2之1·2. 기장군 취정사 수장.(2015.03.04. 지정)
보물 제1514호. 을유자. 卷頭·上1之1.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 (2007.04.20.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0-07-003

3.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

가. 심의사항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6.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0.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10.30.～11.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
○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28.0×19.0㎝(半郭 21.8×14.6㎝)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乙亥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81년(성종 12) 추정

그림 154.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조사본『分類杜工部詩(諺解)』는 唐朝의 시인 杜甫(712～770)의『杜工部詩』를 成宗 12(1481)년에 弘文館典翰 柳允謙(1420～?)·曹偉(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義砧(?～?) 등이 왕명을 받들어 諸註를 參訂한 漢詩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글로 譯編한 杜詩의 註譯書로 성종 12(1481)년에 乙亥字와 乙亥字 倂用 한글字로 初刊된 판본이다.

조사본『分類杜工部詩(諺解)』는 최초의 國譯 漢詩集으로 原作에 충실하면서도 韓國語의 표현력을 탁월하게 구사한 좋은 飜譯이라 평가되고 있다. 諺解文에는 表記法과 文法 및 構文의 構造面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飜譯文學과 國語 및 國語史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金屬活字印刷文化에 있어서도 乙亥字와 乙亥字 한글금속활자의 倂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의『分類杜工部詩(諺解)』의 권11에는 보물 제1051-2호(권11～12, 계명대학교도서관 소장)에서 缺落된 권11의 제1～8장에 해당하는 <節序>의「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

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 등 작품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한층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稀貴性과 貴重性을 동시에 지닌 판본인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기준>

조사본『分類杜工部詩(諺解)』와 동일한 초간본이 보물 제1051-1호(권13, 경기도박물관, 1990.09.20), 보물 제1051-2호(권11-12, 계명대학교도서관, 2001.08.03), 보물 제1051-3호(권21,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05.07), 보물 제1051-4호(권17-19, 토지주택박물관, 2011.11.01)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성종 12년(1481)에 홍문관 전한(典翰) 류윤겸(柳允謙, 1420~?)·조위(曹偉, 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의침(義砧, ?~?) 등이 왕명을 받들어 여러 주석을 참정(參訂)한 한시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사본은 乙亥字와 乙亥字 倂用 한글字로 간행된 초간본으로서 그 중 권11은 이미 지정된 보물 제1051-2호 가운데 권11만이 동일 권차로서 유일하다. 더욱 이미 지정된 권11에는 제1장부터 제8장까지가 결락된 상태로 전하고 있으나, 조사본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節序>의「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 등 작품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조사본은 半齒音(ㅿ), 傍點, 牙音(ㆁ) 등이 사용되고 있어 표기법과 문법 및 구문의 구조면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조사본은 완질이 전하지 않고 동일한 권차도 없다는 희소성과 초기 한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두보 사상의 바탕은 修己治人과 忠君愛民의 유가정신이었다. 두보는 성정에 바탕

을 둔 올바른 인간정신을 연마된 형식으로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조선에서는 이백보다 두보가 더 많이 읽혔다. 성종년간 간행한 『두시언해』는 송대 강서시파의 말폐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학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두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국가 공인의 표준화된 체계로 만든 결과물이었다. 두보의 시를 통해 문학과 도학의 상관성을 설파하여 조선 후기 도학의 발전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두보의 시는 우리말로 정밀하고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다.

『두시언해』는 인쇄사적 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을해자 뿐 아니라 을해자 한글 활자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간행한 번역시집으로서, 을해자와 을해한글자로 인출되어 인쇄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의 활자본은 한정판이었으므로 인출한 부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해판한 후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었으므로, 많은 수요가 있을 때는 새로 조판하거나 판각해야 했다. 수요가 많아 중간할 때는 목판으로 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에 『두시언해』의 을해자본의 전래본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두시언해』을해자본의 현전본

권차	수장처	간행년도
권1,2,4	失傳?	성종 12(1481)년
권3	李謙魯 구장본 보성고등학교(石南 구장본)	
권5	개인 소장	
권6	서울대 가람문고(교정본) 연세대 도서관	
권7	서울대 가람문고(교정본) 서울대 일석문고 김종오(金亨奎 구장본) 李謙魯 구장본	
권8	李謙魯 구장본	
권9	李謙魯 구장본	
권10	한국학중앙연구원 李謙魯 구장본 李丙疇 문우서방(李能雨 구장본)	
권11	서울대 일반고도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李丙疇 구장본) 계명대 도서관**(보물 1051-2호)**	
권12	계명대 도서관**(보물 1051-2호)** 개인	
권13	간송미술관 경기도박물관**(보물 1051-1호)**	
권14	趙叅衍	

권차	수장처	간행년도
권15	서울대 가람문고 鄭喆	
권16	서울대 가람문고 鄭喆 李謙魯 구장본	
권17	국립중앙박물관(교정본) 동경대 소창문고 李謙魯 구장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보물 1051-4호)**	
권18	국립중앙박물관(교정본) 崔鉉培 구장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보물 1051-4호)**	
권19	국립중앙박물관(교정본) 李謙魯(이인영) 구장본 개인 소장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보물 1051-4호)**	
권20	동국대 李謙魯 구장본	
권21	동국대 청주고인쇄박물관**(보물 1051-3호)** 李謙魯 구장본	
권22	李謙魯 구장본 김지헌(승문각)	
권23	李謙魯 구장본 김지헌(승문각)	
권24	서울대 일사문고	
권25	동국대(李丙疇 구장본) 李寬求	
중간본 (완질)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강대학교 도서관 서울대 심악문고 한국학중앙연구원(윤석창 구장본) 등	인조 10(1632)년

『두시언해』는 최초의 국역 한시집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번역문학 서적으로서 가치가 있다. 세종의 한글창제에서 예종연간까지는 『東國正韻』(1448), 『周易傳義口訣』(1466), 『救急方諺解』(1466년경)을 제외하고는 불경언해가 중심이었다. 성종연간에 들어 한글사용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한글문헌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불경 언해본의 인출은 지속되었고, 성종 13(1482)년부터 성종 20(1489)년 사이에 최초의 한글언해 시집인 『두시언해』가 간행되었다. 이외 『救急方諺解』, 『救急撮要諺解』 등 전염병예방과 치료, 기근구제 등의 한글문헌이 계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선조연간 후반에는 『小學諺解』, 『四書諺解』 등의 번역으로 이어진다.

『두시언해』는 국문학과 국어학 연구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두시언해』도

중간본은 목판본이다. 인조 10(1632)년 경상도관찰사 吳䎘(1592-1634)이 대구부사 金尙宓의 도움으로 초간본을 교정하여 영남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판각한 중간본은 25권 완질이 전래되고 있다. 초간본에는 15세기 국어가 반영된 데 비해, 중간본은 초간본을 단순하게 복각한 것이 아니라 교정해 간행한 것이므로 17세기 국어가 반영되어 있다.

국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이유는 한글로 표현된 유창한 문체와 풍부한 어휘에 있다. 순수 고유어가 풍부하게 쓰였고, 중간본에 비해 지금은 사라진 순수 고유어가 풍부하게 구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문체에서도 운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점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또 일반적인 두시의 해설에서는 창작 배경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삭제시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표준화된 번역과 간결하고 분명한 字意를 전달하게 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언어학적으로는 초간본에는 방점과 “ㅿ”·“ㆍ”·옛이응“ㆁ”·“ㅱ”이 사용되어 있고, 자음접변 현상은 뚜렷하지 않으며, 모음조화는 잘 지켜지고 있으며, 구개음화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중간본에서는 'ㅿ' 이 'ㅇ'으로 바뀌고, 받침 'ㄷ'이 'ㅅ'으로 변화되었다. 또 자음접변 현상이 두드러지고, 모음조화 현상은 무너지고 있으며, 구개음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와 17세기 국어에 있어 음운과 어휘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간본은 25권 완질이 전래되지만, 초간본은 권1·2·4는 전래가 확인되지 않아 다 모아도 완질이 되지 않는다. 보물로 지정된 권차는 권11-12, 13, 17-19, 21이다. 조사대상본인 권11은 본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수장본, 서울대 일반고도서와 계명대(보물 1051-2호)의 3책이 전래되고 있다. 계명대 수장본에는 장1-8이 결락되어 있고, 서울대 일반고도서본에는 장52와 54가 필사되어 있으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수장본에는 장22·24·46·54가 결락되어 필사하여 보충되어 있다. 이 3책을 합하면 결장을 보완할 수 있다.

을해자본의 다른 권차가 보물로 지정된 바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존이란 관점에서 수리한 서적이 아니어서 새로 수리할 필요는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및 現狀

지정신청본『分類杜工部詩(諺解)』卷11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1 / 杜甫(712-770, 唐朝) 著, 柳允謙(1420-?) 等奉命 諺解編次.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成宗 12(1481) 推定].

1卷1冊(54張) : 四周單邊, 半郭 21.8×14.6㎝, 有界, 半葉 本文 8行17字, 諺解·註文 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8.0×19.0㎝.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 題: 分類杜工部詩諺解.

卷頭題: 分類杜工部詩.

版心題: 杜詩.

卷尾題: [分類杜工部詩].

序 文: [杜詩序; 詩自風騷而下盛稱李杜然其元氣渾茫辭語艱澁」故箋註雖多而人愈病其難曉成化辛丑秋上命弘」文館典翰臣柳允謙等若曰杜詩諸家之註詳矣然」會箋繁而失之謬須溪簡而失之略衆說紛紜互相」牴牾不可不研覈而一爾其纂之於是廣摭諸註芟」繁釐枉地里人物字義之難解者逐節略疏以便考」閱又以諺語譯其意旨向之所謂艱澁者一覽瞭然」書成繕寫以進命臣序臣竊惟詩道之關於世敎」也大矣上而郊廟之作歌詠盛德下而民俗之謠美」刺時政者皆足以感發懲創人之善惡此孔子所以」刪定三百篇有無邪之訓也詩至六朝極爲浮靡三」百篇之音墜地子美生於盛唐能抉剔障塞振起頹」風沈鬱頓挫力去淫艷華靡之習至於亂離奔竄之」際傷時愛君之言出於至誠忠憤激烈足以聳動百」世其所以感發懲創人者實與三百篇相爲表裏而」指事陳實號稱詩史則豈後世朝風詠月刻削性情」者之所可擬議耶然則聖上之留意是詩者亦孔」子刪定三百篇之意其嘉惠來學挽回詩道也至矣」噫三百篇一刪於孔子而大明於朱氏之輯註今是」詩也又因聖上而發揮焉學詩者苟能模範乎此」臻無邪之域以抵三百篇之藩垣則豈徒制作之妙」高出百代而已耶我聖上溫柔敦厚之敎亦將陶」冶一世其有補於風化也爲如何哉成化十七(1481, 성종 12)年十」二月上澣承訓郎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臣曺偉謹序] [曺偉, 『梅溪先生文集』. 卷4. 序].

總目次: -卷1; 紀行上(古詩40首). -卷2; 紀行下(律詩37首)·述懷上(古詩24首). -卷3; 述懷下(律詩53首)·疾病(古詩2首 律詩2首)·懷古(古詩13首 律詩5首). -卷4; 時事上(古詩31首). -卷5; 時事下(律詩44首)·邊塞(古詩17首)·將帥(古詩4首 律詩6首)·軍旅(古詩2首 律詩7首). -卷6; 宮殿(古詩2首 律詩15首)·省守(律詩5首)·陵廟(古詩2首 律詩14首)·居室上(古詩11首). -卷7; 居室下(律詩38首)·題人居壁(古詩5首 律詩 7首)·田園(古詩2首 律詩5首). -卷8; 皇族(古詩8수 律詩1首)·世胄(古詩4首 律詩2首)·宗族(古詩6首 律詩32首)·外族(古詩3首 律詩6首)·婚姻(古詩2首 律詩1首). -卷9; 仙道(古詩3首 律詩1首)·隱逸(古詩2首 律詩4首)·釋老(古詩8首 律詩8

首)·寺觀(古詩4首 律詩15首). -卷10; 四時(古詩1首 律詩39首)·夏(古詩3首 律詩4首)·秋(古詩5首 律詩20首)·冬(古詩4首 律詩9首). -卷11; 節序(古詩·律詩 共50首)·晝夜(古詩2首 律詩21首)·夢(古詩2首 律詩2首). -卷12; 詩(月·江·雨·晴·雪 等詩)·雲雷(古詩1首 律詩2首). -卷13; 山嶽(古詩3首 律詩3首)·江河(古詩9首)·都邑(古詩2首 律詩35首). -卷14; 樓閣(古詩4首 律詩35首)·眺望(律詩9首)·亭榭(古詩3首 律詩3首). -卷15; 園林(古詩3首 律詩24首)·池沼(律詩9首)·舟楫(律詩12首)·橋梁(律詩3首)·燕飮(古詩7首 律詩20首). -卷16; 文章(古詩2首 律詩14首)·書畵(古詩18首 律詩6首)·音樂(古詩3首 律詩5首)·器用(古詩4首 律詩3首)·食物(古詩8首 律詩4首). -卷17; 鳥(古詩11首 律詩25首)·獸(古詩8首 律詩5首)·蟲(律詩3首)·魚(律詩2首). -卷18; 花(古詩3首 律詩13首)·草(古詩1首 律詩2首)·竹(律詩3首)·木(古詩7首 律詩7首). -卷19; 投贈(古詩1首 律詩6首)·寄簡上(古詩17首). -卷20; 寄簡中(律詩13首). -卷21; 寄簡下(律詩52首)·懷舊(古詩3首 律詩9首). -卷22; 詩(懷舊詩13首)·酬寄(律詩9首)·惠貺(古詩1首 律詩3首)·送別上(古詩19首). -卷23; 送別下(律詩80首). -卷24; 慶賀(古詩1首 律詩4首)·傷悼(古詩8首 律詩22首). -卷25; 雜賦(古詩13首 律詩6首 絶句27首 謌9首 行17首).

卷目次: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에는 <節序>(古詩·律詩共50首)와 <晝夜>(古詩2首 律詩21首, 夢附 古詩2首 律詩2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節序(古詩·律詩 共50首)>에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杜日兩篇」·「熟食日示宗文宗武」·「又示兩兒」·「小寒食舟中作(前寒食一日也)」·「寒食」·「淸明」·「淸明二首」·「哀江豆」·「麗人行」·「曲江二首」·「曲江對酒」·「曲江値雨」·「曲江陪鄭八丈南史飮」·「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端午日賜衣」·「牽牛織女」·「九日寄岑參」·「九日曲江」·「九日楊奉先會白水崔明府」·「雲安九日鄭十八携酒陪諸公宴」·「九日五首」·「九日諸人集于林」·「九日登梓州城」·「九日奉寄嚴大夫」·「巴嶺答杜二見憶(御史大夫嚴武)」·「九日」·「九日藍田崔氏莊」·「絶句」·「小至」·「至日遣興奉寄北省舊閣老兩院故人二首」·「冬至」·「臘日」·「杜位宅守歲」·「千秋節有感二首」 등이 수록되어 있고 <晝夜>(古詩2首 律詩21首)에는 「今夕行」·「夜歸」·「朝二首」·「晩」·「反照」·「暝」·「向夕」·「薄暮」·「日暮」·「日暮」·「夜二首」·「夜」·「中夜」·「中宵」·「不寐」·「倦夜」·「夜」·「東屯月夜」·「將曉二首」·「曉望」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夢附>(古詩2首 律詩2首)에는 「夢李白二首」·「歸夢」·「晝夢」 등이 수록되어 있다.

缺　張: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에는 제22AB·24AB·46AB·51B~53AB 등에 缺落張이 있으며, 제22AB·24AB·46AB 등은 他本에서의 복사물로 대체되어 있고 제46AB~54AB 중의 제51A를 제외한 缺落張은 他本의 제53AB의 복사물로 대체되어 있다.

缺　文: 제22AB장; 「曲江陪鄭八丈南史飮」(雀啄江頭黃柳花鵁鶄鸂鶒滿晴沙 自知白髮非春事 且盡芳樽戀物華 近侍即今難浪跡此身那得更無家 丈人才力猶强健豈傍靑門學種瓜), 「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鬢毛垂領白花藥亞枝紅 欹倒衰年廢招尋令節同 薄衣臨積水吹面受和風 有喜留攀桂無勞問轉蓬), 「端午日賜衣」(宮衣亦有名端午被恩榮 細葛含風軟香羅疊雪輕 自天題處濕當暑著來淸 意內稱長短 終身荷聖情). 제24AB장; 「牽牛織女」(牽牛出河西織女處其東 萬古永相望七夕誰見同 神光竟難候此事終朦朧 颯然積靈合何

必秋遂通 亭亭新粧立龍駕具層空 世人亦爲爾祈請走兒童 稱家隨豊儉白屋達公宮 膳夫翼堂殿鳴玉凄房櫳 曝衣遍天下曳月揚微風 蛛絲小人態曲綴瓜果中, 初筵浥重露日出甘所終 嗟汝未嫁女秉心鬱忡忡 防身動如律竭力機杼中 雖無姑舅事敢昧織作功 明明君臣契咫尺或未容 義無棄禮法恩始夫婦恭 小大有佳期戒之在至公 方圓苟齟齬丈夫多英雄). 제46AB장;「夜二首」(白夜月休弦燈花半委眠 號山無定鹿落樹有驚蟬 暫憶江東繪兼懷雪下船 蠻歌犯星起重覺在天邊 城郭悲笳暮村墟過翼稀 甲兵年數久賦劒夜深歸 暗樹依巖落明河繞塞微 斗斜人更望月細鵲休飛),「中夜」(中夜江山靜危樓望北辰 長為萬里客有愧百年身 故國風雲氣高堂戰伐塵 胡雛負恩澤嗟爾太平人). 제51B장; 「李白二首」(死別已呑聲生別常惻惻 江南瘴癘地逐客無消息 故人入我夢明我長相憶 恐非平生魂路遠不可測 魂來楓林青魂返關塞黑). 제52AB장; (今君在羅網何以有羽翼 落月滿屋梁猶疑照顔色 水深波浪闊無使蛟龍得, 浮雲終日行遊子久不至 三夜頻夢君情親見君意 告歸常局促苦道來不易 江湖多風波舟楫恐失墜 出門搔白首若負平生志 冠蓋滿京華斯人獨憔悴 孰云網恢恢將老身反累 千秋萬歲名寂寞身後事). 제53A장;「歸夢」(道路時通塞江山日寂寥 儉生唯一老伐叛已三朝 雨急青楓暮雲深黑水遙 夢魂歸未得不用楚辭招). 제53장B;「晝夢」(二月饒睡昏昏然不獨夜短晝分眠 桃花氣暖眼自醉春渚日落夢相牽 故鄉門巷荊棘底中原君臣豺虎邊 安得務農息戰鬥普天). 제54AB장; 無吏横索錢). (결장된 제54장에 끼워진 복사본은 제53장의 복사본임).

現　狀: 지정신청본『分類杜工部詩(諺解)』는 전체가 褙接되어 있으며, 전체 54장의 본문 중 제22장, 제24장, 제46장, 제54장 등은 缺落되고 본문의 末尾에는 일부 낙장이 있다. 전반적으로 漏濕으로 다소 많이 變色되고 헤진 흔적이 있으며 일부 흐리게 인쇄된 글자도 있으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지정신청본의 表紙는 후대에 改裝된 듯하다. 차후 지류문화재 보존처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所藏歷: 지정신청본『分類杜工部詩(諺解)』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77년에 전 동국대학교 李丙疇 교수로부터 購入한 遺物이다. (유물취득경위서 참간).

評　價: 지정신청본『分類杜工部詩(諺解)』는 최초의 國譯 漢詩集으로 諺解文에는 表記法과 文法 및 構文의 構造面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飜譯文學과 國語 및 國語史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또한, 보물 제1051-2호에서 缺落된 권11의 제1~8장에 해당하는 <節序>의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 등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한층 높게 평가될 수 있다.

所藏處: 『分類杜工部詩(諺解)』의 初刊本은 권01; 無傳. 권02; 無傳. 권03; 通文館(石南 舊藏). 권04; 無傳. 권05; 個人. 권06;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延世大學校圖書館. 권07; 김종오(金亨奎 舊藏),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石文庫, 通文館. 권08; 通文館. 권09; 通文館. 권10; 文友書林(李能雨 舊藏), 李丙疇, 通文館, 韓國學中央硏究院. 권11;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서울大學校圖書館, 李丙疇. 권12;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個人. 권13; 澗松美術館(全澄弼 舊藏), 최영란(보물 1051), 경기도박물관(보물 제1051-1호). 권14; 趙參衍. 권15;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권16;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通文館. 권17; 國立中央博物館(校本), 東京大學校圖書館 小倉文庫, 通文館,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18; 國立中央博物館

(校本, 崔鉉培 舊藏),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19; 國立中央博物館(校本), 通文館(李仁榮 舊藏), 個人,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20; 東國大學校圖書館, 通文館. 권21; 東國大學校圖書館, 淸州古印刷博物館(보물 제1051-3호), 通文館. 권22; 김지헌(承文閣), 通文館. 권23; 김지헌(承文閣), 通文館. 권24;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簑文庫. 권25; 東國大學校圖書館(李丙疇 舊藏), 李覓求 등에 소장되어 있다. 現存本 중 권3·9·18·19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1954~1959년에 通文館에서, 1976·1978년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84년 弘文閣 등에서 각각 影印된 바 있다.

既指定: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1051-1호(권13, 경기도박물관, 1990.09.20), 보물 제1051-2호(권11~12, 계명대학교도서관, 2001.08.03), 보물 제1051-3호(권21,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05.07), 보물 제1051-4호(권17~19, 토지주택박물관, 2011.11.01)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參 考: 李仁榮 著,『淸芬室書目』. 270面, 418面.

○現 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分類杜工部詩(諺解)』권11은 전체가 褙接되어 있으며, 전체 54장의 본문 중 제22장, 제24장, 제46장, 제54장 등은 缺落되고 본문의 末尾에는 일부 落張이 있다. 전반적으로 漏濕으로 다소 많이 變色되고 헤진 흔적이 있으며 일부 흐리게 인쇄된 글자도 있으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지정신청본의 表紙는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절실히 요구된다.

○ 內容 및 特徵

『分類杜工部詩』는 唐朝의 '詩聖'·'詩史'로 칭송되는 杜甫(712~770)의 全詩集이다. 杜甫는 河南省 鞏縣 출신으로 字는 子美이고 號는 少陵이며, 晉代의 杜預, 祖父 杜審言 등이 그의 선조이다. 李白(701~762)·高適(707~765) 등의 詩人들과 교유하여 李白과 함께 '李·杜'로 竝稱되기도 한다. 44세에 安祿山(703~757)의 亂이 일어나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長安에 연금되었으나 1년 만에 탈출하여 肅宗의 行在所로 달려가자, 그 공으로 左拾遺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관군이 長安을 회복하자 장안으로 돌아와 조정에 出仕하였으나, 1년 만에 華州의 지방관으로 좌천되었다. 48세에 관직을 버리고 秦州 등을 거쳐 四川省의 成都에 정착하여 浣花草堂을 지었다. 이 무렵에 成都의 節度使 嚴武(726~765)의 幕僚로 工部員外郞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이로 인하여 '杜工部'라 불리게 되었다. 54세에 歸鄕의 뜻을 품고 成都를 떠나 揚子江을 하행하여 55세에 泗川省의 夔州의 협곡에 이르러 2년 동안 寓居하였다. 이 시기의 詩들은 杜詩의 가장 완숙한 경지의 작품들로 평가되어 이

시기의 전문적인 硏究書들도 출간되었다. 다시 夔州에서 벗어나 방황하다 潭州와 岳州의 사이에서 59세의 나이로 病死하였다.

杜詩에 관한 전문적인 評論과 註本 등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杜詩學'이 나타날 정도로 杜詩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唐朝와 宋朝를 거쳐 淸朝에 이르기까지 整理·註釋된 專門書만도 무려 700~800여 종류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만도 200여 종류에 이르고 있다. 杜詩의 정리작업은 編年·分類·集註·評點 등의 각종 유형과 계통을 형성하며 발전하였으며, 杜詩에 대한 評說과 分析도 각종 관념과 학파를 형성하였다. 唐朝에서 北宋朝까지 杜詩는 定本이 없이 搜集·輯佚·校勘·整理·編纂 등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王洙(997~1057)의 『杜工部集』 20권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杜集의 定本과 評註에 있어서 祖本이 되는 판본이다. 南宋朝에는 輯佚本과 編纂本을 기초로 하여 編年·分類·集注·評點·年譜·詩話 등이 대량으로 나타나 趙次公(?~?), 蔡夢弼(?~?), 郭知達(?~?), 黃希(?~?), 黃鶴(?~?) 등이 頭角을 나타냈으며, 특히 劉辰翁(1232~1297)의 評點本은 杜詩學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元朝와 明朝에서는 選註와 評點을 중심으로 하여 趙汸(1319~1369), 單復(?~?), 胡震亨(?~?) 등의 저술이 있으며, 杜律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시기이다. 明末에서 淸初까지는 杜詩가 集大成된 時期로 王嗣奭(1566~1648)의 『杜臆』을 비롯하여 錢謙益(1582~1664)의 『箋註杜詩』, 朱鶴齡(1606~1683)의 『杜工部集輯注』, 浦起龍(1679~1762)의 『讀杜心解』, 沈德潛(1673~1769)의 『杜詩偶評』, 楊倫(1747~1803)의 『杜詩鏡銓』 등의 저작이 쏟아져 나왔다. 校勘·考證·系年·註釋·解意·評論 등의 여러 방면에 걸출한 저작들이 나왔으며, 특히 仇兆鰲(1638~1717)의 『杜詩詳註』는 杜詩의 評註本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乾隆·嘉慶年間 이후로 여러 종류의 杜詩集이 나왔으나, 律詩 혹은 한 방면에 중점을 둔 연구성과로 淸初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詩話·筆記·雜說類의 저작들도 쏟아져 沈檀(1645~1730)의 『李杜詩話』, 翁方綱(1733~1818)의 『杜詩附記』 등의 저작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杜詩의 간행은 朝鮮朝 初期에 宋朝의 魯訔(1100~1176)이 編次하고 蔡夢弼(?~?)이 會箋한 『杜工部草堂詩箋』이 세종 13(1431)년에 慶尙道 密陽에서 開刊된 바, 이는 編年體의 杜詩集이다. 이어서 『纂註分類杜詩』가 編次되고 甲辰字·丙子字·甲寅字·訓鍊都監字 등의 活字本과 覆刻本으로 간행되었다. 『纂註分類杜詩』는 宋朝 徐居仁(?~?)의 『集千家註分門杜工部詩』에 따라 편차하고 劉辰翁의 批點을 달아 元朝 高崇蘭(?~?)의 『集千家註分類杜詩』의 批點도 인쇄하면서 여러 註釋을 참고하고 새로이 편집하여 『分類杜工部詩(諺解)』의 底本이 되기도 하

였다. 虞集(1272～1348)의 『虞註杜律』, 趙汸의 『類選杜詩五言律』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范椁(1272～1330)의 『杜工部詩范德機批選』, 明朝 單復의 『讀杜詩愚得』, 元朝 劉辰翁(1232～1297)의 『須溪先生批點杜工部排律』과 『須溪先生批點杜工部七言律詩』, 明朝 邵寶(1460～1527) 集註의 『杜少陵先生詩集註抄』가 간행되었다. 특히, 澤堂 李植(1584～1647)의 『纂註杜詩澤風堂批解』는 編年으로 엮어 諸家의 註에 자신의 批解를 붙인 것으로 조선조 杜詩學의 큰 성과이다. 潛谷 金堉(1580～1658)은 李白과 韓愈(768～824)의 詩를 함께 모아 句讀點이나 吐를 달지 않은 白文으로 『三大家詩全集』(杜詩는 권1～4)을 간행하였으며, 正祖의 명으로 『杜陸千選』 8권과 『杜律分韻』 5권이 간행된 바도 있다. 이러한 刊本들 뿐만 아니라, 各處의 杜詩와 관련된 각종 寫本은 조선조에 杜詩를 熱讀한 盛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分類杜工部詩(諺解)』는 唐朝의 시인 杜甫(712～770)의 『杜工部詩』를 成宗 12(1481)년에 弘文館典翰 柳允謙(1420～?)·曹偉(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義砧(?～?) 등이 왕명을 받들어 諸註를 參訂한 漢詩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글로 譯編한 杜詩의 註譯書이다. 原作에 충실하면서도 韓國語의 표현력을 탁월하게 구사한 좋은 飜譯이라 평가되고 있다. 成宗 12(1481)년에 乙亥字와 乙亥字 倂用 한글字로 初刊[5]되었으나, 전체 25권 중 권1·2·4는 전하지 않는다.

仁祖 10(1632)년에 慶尙監司 吳䎘(1592～1634)이 大丘府使 金尙宓(1573～1652)에게 부탁하여 25권을 관하의 各邑에서 목판에 나누어 새기도록 하여 重刊하기도 하였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초간과 관련된 기록은 『王朝實錄』의 각종 기사[6][7][8]를 비롯하여 重刊本의 卷頭와 曺偉(1454～1503)의 문집인 『梅溪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전하는 「杜詩序」[9] 및 張維(1587～1638)의 문집인 『谿谷先生集』에 수록

---

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3(1482)年 7月 6(癸酉)日條.
弘文館副提學柳允謙等上箚子曰 臣等伏見聖上 留意經史 孜孜靡遑 凡在見聞 莫不欣慶 但今年之旱 無異去年 連歲飢饉 近古未有 方務救荒之不暇 而如四傳·春秋·綱目新增·文翰類選·杜詩·李白詩·庸學口訣 皆設局 而供億隨之 若論一日之費 則些少 積日計之 則乃活飢民之若干資 恐非今日之急務也 且綱目 朱文公一從春秋書法 片言隻字 皆寓褒貶 摭採諸儒之論 參酌而附 皆有深意存焉 誠千萬世之大典 不能贊一辭者也 今雖附入諸論 不無詳略重複之病 伏惟聖鑑停罷 臣等心有所懷 不能默默 傳曰 爾等豈以我之好學爲非哉 只爲供億之費耳 今從爾等之言停之 仍傳曰 前日命撰綱目新增者 以諸書汗漫 不能遍覽 故欲摭取諸論 以爲一書耳 撰後予獨覽之 勿頒于外.

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25(1443)年 4月 21(丙午)日條.
命購杜詩諸家註于中外 時令集賢殿參校杜詩諸家註釋 會粹爲一故 求購之.

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1(1480)年 10月 26(壬申)日條.
御晝講 講訖 侍讀官李昌臣啓曰 詞章 雖若不關於治國 中朝使臣 如張寧·祈順輩出來 則必與唱和 詞章不可視爲餘事 而不習之也 杜詩 詩家之祖 前司成柳允謙 傳受其父方善 頗精熟 請令年少文臣受業 上曰 可.

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0(1489)年 8月 26(辛亥)日條.
禮曹啓曰 本國使臣求書冊 只與論語·孟子何如 傳曰 醫方所以活人也 今客人所索多 而只許此書 無乃不可乎 如得效方·東坡·杜詩·黃山谷·詩學大成等冊許之 無乃可乎.

9) 曺偉, 『梅溪先生文集』. 卷4. 序. '杜詩序'條.
詩自風騷而下盛稱李杜然其元氣渾茫辭語艱澁」故箋註雖多而人愈病其難曉成化辛丑秋上命弘」文館典翰臣柳允謙等若曰杜詩

되어 전하는 「重刻杜詩諺解序」[10]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본문의 체제는 대체로 杜詩 原文 2구씩을 大文으로 수록하고 註釋文과 諺解는 雙行의 小文으로 諺解 혹은 懸吐하여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註釋文과 本文의 諺解는 白圈으로 구분하였다. 杜詩의 原文은 『纂註分類杜詩』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부분적인 글자의 출입이 보이며, 註釋文도 『纂註分類杜詩』의 註釋文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새로운 註釋을 添加·修正한 경우가 있다. 傍點은 註釋에 國文이 섞여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표기되어 있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初刊本에는 半齒音(ㅿ), 傍點, 牙音(ㆁ) 등이 사용되어 있어, 初·重刊本의 언어의 차이에 의한 國語 및 國語史의 가치는 물론 최초의 國譯 漢詩集이라는 점과 지금은 사라져 버린 순수한 固有語를 풍부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文體에 있어 韻文의 성격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국어국문학 연구의 중요한 문헌으로 看做되고 있을 뿐 아니라 15세기 당시의 언어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總目次는 권1에 <紀行上>(古詩40首), 권2에 <紀行下>(律詩37首)와 <述懷上>(古詩24首), 권3에 <述懷下>(律詩53首)와 <疾病>(古詩2首 律詩2首) 및 <懷古>(古詩13首 律詩5首), 권4에 <時事上>(古詩31首), 권5에 <時事下>(律詩44首)를 비롯한 <邊塞>(古詩17首)과 <將帥>(古詩4首 律詩6首) 및 <軍旅>(古詩2首 律詩7首)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6에 <宮殿>(古詩2首 律詩15首)을 비롯한 <省守>(律詩5首)와 <陵廟>(古詩2首 律詩14首) 및 <居室上>(古詩11首), 권7에 <居室下>(律詩38首)와 <題人居壁>(古詩5首 律詩7首) 및 <田園>(古詩2首 律詩5首), 권8에 <皇族>(古詩哀王孫等 律詩送李卿華等)과 <世胄>(古詩4首 律

諸家之註詳矣然」會箋繁而失之謬須溪簡而失之略衆說紛紜互相」牴牾不可不研覈而一爾其纂之於是廣摭諸註芟」繁釐枉地里人物字義之難解者逐節略疏以便考」閱又以諺語譯其意旨向之所謂艱澁者一覽瞭然」書成繕寫以進命臣序臣竊惟詩道之關於世敎」也大矣上而郊廟之作歌詠盛德下而民俗之謠美」刺時政者皆足以感發懲創人之善惡此孔子所以」刪定三百篇有無邪之訓也詩至六朝極爲浮靡三」百篇之音墜地子美生於盛唐能抉剔障塞振起頹」風沈鬱頓挫力去淫艷華靡之習至於亂離奔竄之」際傷時愛君之言出於至誠忠憤激烈足以聳動百」世其所以感發懲創人者實與三百篇相爲表裏而」指事陳實號稱詩史則豈後世朝風詠月刻削性情」者之所可擬議耶然則聖上之留意是詩者亦孔」子刪定三百篇之意其嘉惠來學挽回詩道也至矣」噫三百篇一刪於孔子而大明於朱氏之輯註今是」詩也又因聖上而發揮焉學詩者苟能模範乎此」臻無邪之域以抵三百篇之藩垣則豈徒制作之妙」高出百代而已耶我聖上溫柔敦厚之敎亦將陶」冶一世其有補於風化也爲如何哉成化十七年十」二月上澣承訓郎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臣曺偉謹序]

10) 張維, 『谿谷先生集』. 卷6. 序. '重刻杜詩諺解序'條.
詩須心會 何事箋解 解猶無所事 況譯之以方言乎 自達識論之 是固然矣 爲學者謀之 心有所未會 烏可無解 解有所未暢 譯亦何可已也 此杜詩諺解之所以有功於詩家也 詩至杜少陵 古今之能事畢矣 卮材也極其博 用意也極其深 造語也極其變 古人謂胸中無國子監 不可看杜詩 詎不信歟 註解者稱千家 謂其多也 至其密義粤語 鮮有發明 讀者病之久矣 成化年間 成廟命玉堂詞臣叅訂諸註 以諺語譯其義 凡舊說之所未達 一覽曉然 梅溪曹學士偉奉敎序之 然其印本之行於世者甚鮮 記余少時 嘗從人一倩讀之 旣而欲再觀 而終不可得 常以爲恨 今年天坡吳公翻按節嶺南 購得一本 繕寫校定 分刊於列邑 而大丘府使金侯尙宓實相其役 旣成 走書屬序於余 嗚呼 比興之義 謂無與於斯文 詩直可廢也 詩有未可廢者 則杜詩何可不讀讀杜而有諺解 其不猶迷塗之指南乎 況是編也 成廟所嘗留神 以嘉惠後學者也 重刊而廣布 使學詩者 戶藏而人誦之 以裨聖朝溫柔敦厚之敎 此誠觀民風者所宜先也 吳公嗜學工文詞 又敏於吏職 乃能於蕃宣鞅掌之餘 加意斯文 百年垂廢之書 煥然復新 甚盛擧也 余旣重吳公之請 又自喜及其未老 將復睹舊所欲觀而未得者 遂不辭爲之序.

詩2首)를 비롯한 <宗族>(古詩6首 律詩32首)과 <外族>(古詩3首 律詩 6首) 및 <婚姻>(古詩2首 律詩1首), 권9에 <仙道>(古詩3首 律詩1首)을 비롯한 <隱逸>(古詩2首 律詩4首)과 <釋老>(古詩8首 律詩8首) 및 <寺觀>(古詩4首 律詩15首), 권10에 <四時>(古詩1首 律詩39首)를 비롯한 <夏>(古詩3首 律詩4首)와 <秋>(古詩5首 律詩20首) 및 <冬>(古詩4首 律詩9首) 등의 수록되어 있다. 권11에는 <節序>(古詩律詩共50首)와 <晝夜>(古詩2首 律詩21首) 및 <夢>(古詩2首 律詩2首), 권12에는 <詩>(月・江・雨・晴・雪・雷・雲 等), 권13에는 <山嶽>(古詩3首 律詩3首)과 <江河>(古詩9首) 및 <都邑>(古詩2首 律詩35首), 권14에는 <樓閣>(古詩4首 律詩35首)과 <眺望>(律詩9首) 및 <亭榭>(古詩3首 律詩3首), 권15에는 <園林>(古詩3首 律詩24首)과 <池沼>(律詩9首)를 비롯한 <舟楫>(律詩12首)과 <橋梁>(律詩3首) 및 <燕飮>(古詩7首 律詩20首)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16에는 <文章(古詩2首 律詩14首)>과 <書畵>(古詩18首 律詩6首)를 비롯한 <音樂>(古詩3首 律詩5首)과 <器用>(古詩4首 律詩3首) 및 食物(古詩8首 律詩4首), 권17에는 <鳥>(古詩11首 律詩25首)를 비롯한 <獸>(古詩8首 律詩5首)와 <蟲>(律詩3首) 및 <魚>(律詩2首), 권18에는 <花>(古詩3首 律詩13首)를 비롯한 <草>(古詩1首 律詩2首)와 <竹>(律詩3首) 및 <木>(古詩7首 律詩7首), 권19에는 <投贈>(古詩1首 律詩6首)과 <寄簡上>(古詩17首), 권20에는 <寄簡中>(律詩13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21에는 <寄簡下>(律詩52首)와 <懷舊>(古詩3首 律詩9首), 권22에는 <詩>(13首)를 비롯하여 <酬寄>(律詩9首)와 <惠貺>(古詩1首 律詩3首) 및 <送別上>(古詩19首), 권23에는 <送別下>(律詩80首), 권24에는 <慶賀>(古詩1首 律詩4首)와 <傷悼>(古詩8首 律詩22首), 권25에는 <雜賦>(古詩13首 律詩6首 絶句27首 謌9首 行17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分類杜工部詩(諺解)』에는 杜甫의 詩 1451首와 王維, 岑參 등 杜詩와 관련하여 酬唱 혹은 次韻한 詩 16首에 註釋을 달고 풀이하였으며, 內容은 主題에 따라 紀行・述懷・懷古 등 數十門으로 分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의 表題는 '分類杜工部詩諺解'이고 卷頭題와 卷尾題는 '分類杜工部詩'이며 版心題는 '杜詩'이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1.8㎝ 가로 14.6㎝이며 界線이 있다. 半葉의 行字數는 本文은 8行 17字이며 諺解와 註文은 雙行이다. 版心의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며, 규격은 세로 28.0㎝ 세로 19.0㎝이다. 지질은 韓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의 권11에 수록된 杜詩는 <節序>의 古詩와 律詩共50首와 <晝夜>의 古詩 2首와 律詩 21首 및 <附夢>의 古詩 2首 律詩 2首이다.

구체적으로는 <節序>에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杜日兩篇」·「熟食日示宗文宗武」·「又示兩兒」·「小寒食舟中作(前寒食一日也)」·「寒食」·「淸明」·「淸明二首」·「哀江豆」·「麗人行」·「曲江二首」·「曲江對酒」·「曲江値雨」·「曲江陪鄭八丈南史飮」·「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端午日賜衣」·「牽牛織女」·「九日寄岑參」·「九日曲江」·「九日楊奉先會白水崔明府」·「雲安九日鄭十八携酒陪諸公宴」·「九日五首」·「九日諸人集于林」·「九日登梓州城」·「九日奉寄嚴大夫」·「巴嶺答杜二見憶(御史大夫嚴武)」·「九日」·「九日藍田崔氏莊」·「絶句」·「小至」·「至日遣興奉寄北省舊閣老兩院故人二首」·「冬至」·「臘日」·「杜位宅守歲」·「千秋節有感二首」 등이 수록되어 있고 <晝夜>에 「今夕行」·「夜歸」·「朝二首」·「晩」·「反照」·「暝」·「向夕」·「薄暮」·「日暮」·「日暮」·「夜二首」·「夜」·「中夜」·「中宵」·「不寐」·「倦夜」·「夜」·「東屯月夜」·「將曉二首」·「曉望」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夢>에는 「李白二首」·「歸夢」·「晝夢」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의 권11에는 제22AB·24AB·46AB·51B~53AB장 등에 缺落張이 있으며, 제22AB·24AB·46AB장은 他本의 복사물로 대체되어 있고 제46AB~54AB장 중의 제51A장을 제외한 缺落張은 他本의 제53AB장의 복사물로 대체되어 있다. 결락된 제22AB장의 缺文은 「曲江陪鄭八丈南史飮」의 "… 近侍卽今難浪跡此身那得更無家 丈人才力猶强健豈傍靑門學種瓜"와 「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의 "鬢毛垂領白花藥亞枝紅 欹倒衰年廢招尋令節同 薄衣臨積水吹面受和風 有喜留攀桂無勞問轉蓬"의 전체 및 「端午日賜衣」의 "宮衣亦有名端午被恩榮…"까지이며, 제24AB장의 缺文은 「牽牛織女」의 "… 稱家隨豊儉白屋達公宮 膳夫翼堂殿鳴玉淒房櫳 曝衣遍天下曳月揚微風 蛛絲小人態曲綴瓜果中, 初筵浥重露日出甘所終 嗟汝未嫁女秉心鬱忡忡 防身動如律竭力機杼中 雖無姑舅事敢昧織作功 明明君臣契 …"까지이다. 제46AB장의 缺文은 「夜二首」의 "… 斗斜人更望月細鵲休飛"와 「中夜」의 "中夜江山靜危樓望北辰 長爲萬里客有愧百年身 故國風雲氣高堂戰伐塵 …"까지이다.

제51B장의 缺文은 「李白二首」의 "死別已呑聲生別常惻惻 江南瘴癘地逐客無消息 故人入我夢明我長相憶 恐非平生魂路遠不可測 魂來楓林靑魂返關塞黑"이며, 제52AB장의 缺文은 "今君在羅網何以有羽翼 落月滿屋梁猶疑照顔色 水深波浪闊無使蛟龍得, 浮雲終日行遊子久不至 三夜頻夢君情親見君意 告歸常局促苦道來不易 江湖多風波舟楫恐失墜 出門搔白首若負平生志 冠蓋滿京華斯人獨憔悴 孰云網恢恢將老身反累 千秋萬歲名寂寞身後事"이다. 제53A장의 缺文은 「歸夢」의 "道路時通塞江山日寂寥 偸

生唯一老伐叛已三朝　雨急青楓暮雲深黑水遙　夢魂歸未得不用楚辭招”이며, 제54B장의 缺文은「晝夢」의 “… 無吏橫索錢”이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國家文化財指定 現況은 다음과 같다.

<表>『分類杜工部詩(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國家文化財指定 現況

	金屬活字本(初刊)	木版本(重刊)	備考
書　名	分類杜工部詩	分類杜工部詩	
版　本	金屬活字(乙亥字 및 竝用 한글字)本	木版本	
刊　年	成宗 12(1481)年 鑄字所	仁祖 10(1632)年 慶尙道	
卷冊數	25卷	25卷 17冊	
所藏處	下記 參看	國立中央圖書館, 서울大學校圖書館 心岳文庫, 韓國學中央硏究院(尹錫昌 舊藏) 等	
初刊本의 所藏處 및 文化財指定現況	卷01 無傳. 卷02 無傳. 卷03 通文館(石南 舊藏, 李謙魯 舊藏). 卷04 無傳. 卷05 個人. 卷06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延世大學校圖書館. 卷07 김종오(金亨奎 舊藏),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石文庫, 通文館. 卷08 通文館. 卷09 通文館. 卷10 文友書林(李能雨 舊藏), 李丙疇, 通文館, 韓國學中央硏究院. 卷11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서울大學校圖書館, 李丙疇. 卷12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個人. 卷13 澗松美術館(全瀅弼 舊藏), 최영란 (보물 1051), 京畿道博物館(보물 제1051-1호).	卷14 趙參衍. 卷15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卷16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通文館. 卷17 國立中央博物館(校本), 東京大學校 圖書館 小倉文庫, 通文館, 土地住宅 博物館(보물 제1051-4호). 卷18 國立中央博物館(校本, 崔鉉培 舊藏),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卷19 國立中央博物館(校本), 通文館(李仁榮 舊藏), 個人,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卷20 東國大學校圖書館, 通文館. 卷21 東國大學校圖書館, 淸州古印刷博物館 (보물 제1051-3호), 通文館. 卷22 김지헌(承文閣), 通文館. 卷23 김지헌(承文閣), 通文館. 卷24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簑文庫. 卷25 東國大學校圖書館(李丙疇 舊藏), 李寬求.	

지정신청본『分類杜工部詩(諺解)』는 최초의 國譯 漢詩集으로 諺解文에는 表記法과 文法 및 構文의 構造面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飜譯文學과 國語 및 國語史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金屬活字印刷文化에 있어서도 乙亥字와 乙亥字 한글금속활자의 倂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지정신청본『分類杜工部詩(諺解)』의 권11에는 보물 제1051-2호(권11～12,

계명대학교도서관 소장)에서 缺落된 권11의 제1~8장에 해당하는 <節序>의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 등 작품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한층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의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이상과 같은 稀貴性과 貴重性을 지닌 판본인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硏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杜甫 著, 柳允謙 等奉命 諺解編次,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1. 乙亥字本.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成宗 12(1481) 推定].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所藏本.
-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 寶庫社, 1993.
- 서울특별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옥영정·서정문)>.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pageNo=1_1_1_1
- 국립중앙도서관: https://nl.go.kr/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dongguk.edu/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其 他

지정신청본은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77년에 購入한 遺物이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初刊本은 권01; 無傳. 권02; 無傳. 권03; 通文館(石南 舊藏). 권04; 無傳. 권05; 個人. 권06;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延世大學校圖書館. 권07; 김종오(金亨奎 舊藏),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石文庫, 通文館. 권08; 通文館. 권09; 通文館. 권10; 文友書林(李能雨 舊藏), 李丙疇, 通文館, 韓國學中央硏究院. 권11;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서울大學校圖書館, 李丙疇. 권12;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個人. 권13; 澗松美術館(全瀅弼 舊藏), 최영란(보물 1051), 京畿道博物館(보물 제1051-1호). 권14; 趙參衍. 권15;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권16; 서울大

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通文館. 권17; 國立中央博物館(校本), 東京大學校圖書館 小倉文庫, 通文館,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18; 國立中央博物館(校本, 崔鉉培 舊藏),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19; 國立中央博物館(校本), 通文館(李仁榮 舊藏), 個人,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20; 東國大學校圖書館, 通文館. 권21; 東國大學校圖書館, 淸州古印刷博物館(보물 제1051-3호), 通文館. 권22; 김지헌(承文閣), 通文館. 권23; 김지헌(承文閣), 通文館. 권24;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簑文庫. 권25; 東國大學校圖書館(李丙疇 舊藏), 李寬求.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現存本 중 권3·9·18·19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1954~1959년에 通文館에서, 1976·1978년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84년에 弘文閣 등에서 각각 影印된 바 있다.

또한,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와 동일한 초간본이 보물 제1051-1호(권13, 경기도박물관, 1990.09.20), 보물 제1051-2호(권11~12, 계명대학교도서관, 2001.08.03), 보물 제1051-3호(권21,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05.07), 보물 제1051-4호(권17~19, 토지주택박물관, 2011.11.01)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 **書誌事項**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1 / 杜甫(712-770, 唐朝) 著, 柳允謙(1420-?) 等奉命 諺解編次.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成宗 12(1481) 推定].
1卷1冊(54張) : 四周單邊, 半郭 21.8×14.6㎝, 有界, 半葉 本文 8行17字, 諺解·註文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8.0×19.0㎝.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 題: 分類杜工部詩諺解.
卷頭題: 分類杜工部詩.
版心題: 杜詩.
卷尾題: [分類杜工部詩]

○ **現 狀**

조사본 『분류두공부시(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1977년에 전 동국대학교 李丙疇 교수로부터 구입한 유물이다. 전체가 배접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누습으로 인한 변색과 섬유 열화 등이 확인된다. 전체 54장의 본문 중 제22장, 제24장, 제46장, 제54장 등은 결락(缺落)되고 본문의 말미에는 일부 낙장(落張)이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 內容 및 特徵

『분류두공부시(分類杜工部詩)』는 중국 당대의 '시성(詩聖)'·'시사(詩史)'로 칭송되는 두보(杜甫, 712~770)의 시 전집이다. 두보는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 출신으로 자는 자미(子美)이고 호는 소릉(少陵)이다. 이백(李白, 701~762)·고적(高適, 707~765) 등의 시인들과 교유하며 문명을 널리 알렸다. 44세에 안록산(安祿山, 703~757)의 난이 일어나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되었으나 1년 만에 탈출하여 숙종(肅宗)의 행재소로 달려가자, 그 공으로 좌습유(左拾遺)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관군이 장안을 회복하자 장안으로 돌아와 조정에 출사하였으나, 1년 만에 화주(華州)의 지방관으로 좌천되었다. 48세에 관직을 버리고 진주(秦州) 등을 거쳐 사천성의 성도(成都)에 정착하여 완화초당(浣花草堂)을 지었다. 이 무렵에 성도의 절도사 엄무(嚴武, 726~765)의 막료로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郞)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이로 인하여 '두공부(杜工部)'라 불리게 되었다. 54세에 귀향의 뜻을 품고 성도를 떠나 양자강을 하행하여 55세에 사천성의 기주(夔州)의 협곡에 이르러 2년 동안 우거하였다. 이후 기주에서 벗어나 방황하다 담주(潭州)와 악주(岳州)의 사이에서 59세의 나이로 病死하였다.

두시(杜詩)의 정리작업은 편년·분류·집주(集註)·평점(評點) 등의 각종 유형과 계통을 형성하며 발전하였으며, 두시에 대한 평설(評說)과 분석도 각종 관념과 학파를 형성하였다. 중국 당대 왕수(王洙, 997~1057)의 『두공부집(杜工部集)』 20권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두집(杜集)의 정본(定本)과 평주(評註)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판본이다. 한편 남송대에는 집일본(輯佚本)과 편찬본(編纂本)을 기초로 하여 편년·분류·집주·평점·연보·시화(詩話) 등이 대량으로 나타나

조차공(趙次公, ?～?), 채몽필(蔡夢弼, ?～?), 곽지달(郭知達, ?～?), 황희(黃希, ?～?), 황학(黃鶴, ?～?) 등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유진옹(劉辰翁, 1232～1297)의 평점본(評點本)은 두시학(杜詩學)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원대와 명대에는 선주(選註)와 평점을 중심으로 하여 조방(趙汸, 1319～1369), 단복(單復, ?～?), 호진형(胡震亨, ?～?) 등의 저술이 있으며, 두율(杜律)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시기이다. 명대 말기에서 청대까지는 두시가 집대성된 시기로 왕사석(王嗣奭, 1566～1648)의 『두억(杜臆)』을 비롯하여 전겸익(錢謙益, 1582～1664)의 『전주두시(箋註杜詩)』, 주학령(朱鶴齡, 1606～1683)의 『두공부집집주(杜工部集輯注)』, 포기룡(浦起龍, 1679～1762)의 『독두심해(讀杜心解)』, 침덕잠(沈德潛, 1673～1769)의 『두시우평(杜詩偶評)』, 양륜(楊倫, 1747～1803)의 『두시경전(杜詩鏡銓)』, 침단(沈檀, 1645～1730)의 『이두시화(李杜詩話)』,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의 『두시부기(杜詩附記)』 등의 저작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13년(1431)에 중국 송대의 노은(魯訔, 1100～1176)이 편차하고 채몽필(蔡夢弼, ?～?)이 회전(會箋)한 『두공부초당시전(杜工部草堂詩箋)』이 경상도 밀양에서 편년체의 두시집으로 간행되었고,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가 편차되고 甲辰字・丙子字・甲寅字・訓鍊都監字 등의 활자본과 복각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후에 원대 고숭란(高崇蘭, ?～?)의 『집천가주분류두시(集千家註分類杜詩)』의 비점(批點)과 여러 주석을 참고하고 새로이 편집하면서 『분류두공부시』(언해)의 저본으로서 참고되었다.

또한 우집(虞集, 1272～1348)의 『우주두율(虞註杜律)』, 조방(趙汸)의 『유선두시오언율(類選杜詩五言律)』, 범곽(范椁, 1272～1330)의 『두공부시범덕기비선(杜工部詩范德機批選)』, 단복(單復)의 『독두시우득(讀杜詩愚得)』, 유진옹(劉辰翁, 1232～1297)의 『수계선생비점두공부배율(須溪先生批點杜工部排律)』과 『수계선생비점두공부칠언율시(須溪先生批點杜工部七言律詩)』, 소보(邵寶, 1460～1527) 집주의 『두소릉선생시집주초(杜少陵先生詩集註抄)』 등이 간행되었다.

이같은 중국 자료들 외에 우리가 편찬한 자료도 적지 않다. 그 중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의 『찬주두시택풍당비해(纂註杜詩澤風堂批解)』는 편년으로 엮어 여러 간행본의 주석에 더하여 자신의 비해(批解)를 붙인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잠곡(潛谷) 김육(金堉, 1580～1658)은 이백(李白)과 한유(韓愈, 768～824)의 시를 함께 모아 구두점이나 토를 달지 않은 백문(白文)으로 『삼대가시전집(三大家詩全集)』을 간행하였고, 정조의 명에 의해 『두륙천선(杜陸千選)』 8권과 『두율분운(杜律分韻)』 5권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조사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성종 12년(1481)에 홍문관 전한(典翰) 류윤겸(柳允謙, 1420～?)・조위(曹偉, 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의침(義砧, ?～?)

등이 왕명을 받들어 여러 주석을 참정(參訂)한 한시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책이다. 乙亥字와 乙亥字 倂用 한글字로 처음 간행되었다.
표제는 '分類杜工部詩諺解'이고 권두제와 권미제는 '分類杜工部詩'이며 판심제는 '杜詩'이다. 판식(版式)의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21.8㎝ 가로 14.6㎝이며 계선이 있다. 반엽(半葉)의 행자수는 본문은 8행 17자이며 언해와 주문(註文)은 쌍행이다. 판심의 판구(版口)는 백구(白口)이고 어미(魚尾)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규격은 세로 28.0㎝ 세로 19.0㎝이다. 지질은 한지이며 장정은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의 선장으로 개장되어 있다.

夢附　　晝夜

조사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에는 「節序」에 해당하는 古詩와 律詩 모두 50편과 「晝夜」에 古詩 2首와 律詩 21首 그리고 「夢附」에 古詩 2首와 律詩 2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節序」에는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杜日兩篇」·「熟食日示宗文宗武」·「又示兩兒」·「小寒食舟中作(前寒食一日也)」·「寒食」·「淸明」·「淸明二首」·「哀江豆」·「麗人行」·「曲江二首」·「曲江對酒」·「曲江値雨」·「曲江陪鄭八丈南史飮」·「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端午日賜衣」·「牽牛織女」·「九日寄岑參」·「九日曲江」·「九日楊奉先會白水崔明府」·「雲安九日鄭十八携酒陪諸公宴」·「九日五首」·「九日諸人集于林」·「九日登梓州城」·「九日奉寄嚴大夫」·「巴嶺答杜二見憶(御史大夫嚴武)」·「九日」·「九日藍田崔氏莊」·「絶句」·「小至」·「至日遣興奉寄北省舊閣老兩院故人二首」·「冬至」·「臘日」·「杜位宅守歲」·「千秋節有感二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晝夜」에는 「今夕行」·「夜歸」·「朝二首」·「晩」·「反照」·「暝」·「向夕」·「薄

暮」·「日暮」·「日暮」·「夜二首」·「夜」·「中夜」·「中宵」·「不寐」·「倦夜」·「夜」·「東屯月夜」·「將曉二首」·「曉望」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夢」에는 「李白二首」·「歸夢」·「晝夢」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46장 B면 | 제22장 A면

다만, 권11의 내용 가운데 제22장 AB·제24장 AB·제46장 AB·제51장 B·제52장 AB·제53장 AB장·제54장 A 등은 결락된 상태로서 해당 부분은 다른 판본의 복사물로 보완하였다.

조사본에는 半齒音(ㅿ), 傍點, 牙音(ㆁ) 등이 사용되고 있어 표기법과 문법 및 구문의 구조면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체제는 대체로 杜詩原文 2구씩을 大文으로 수록하고 註釋文과 諺解는 쌍행의 小文으로 諺解 혹은 懸吐하여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주석문과 본문의 언해는 백권(白圈)으로 구분하였다. 두시의 원문과 주석은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부분적인 글자의 출입과 새로운 주석 내용이 첨가·수정한 경우도 확인된다.

조사본의 문화재적 가치는 무엇보다 앞부분 제1장부터 제8장까지의 존재이다. 초간본으로서 동일한 권차는 이미 지정된 보물 제1051-2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12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지정본의 권11에는 앞부분 8장이 결실된 상태이다. 초기 한글의 특징을 반영하는 이 책에서 한 장 한 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바 기지정본에서 결실된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제8장 B면 / 제9장 A면	보물 제1051-2호 권11 제9장 A면

○ 文獻資料

- 杜甫 著, 柳允謙 等奉命 諺解編次,『分類杜工部詩(諺解)』. 卷11. 乙亥字本.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成宗 12(1481) 推定].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所藏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옥영정・서정문)>.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지정사례

보물 제1051-1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3, (1990.09.20. 지정)
보물 제1051-2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12. (2001.08.03. 지정)
보물 제1051-3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21. (2004.05.07. 지정)
보물 제1051-4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19. (2011.11.01. 지정)

□

○ 현 상

조사대상 『分類杜工部詩[諺解]』는 성종 12(1481)년경 왕명을 받은 홍문관의 典翰 柳允謙 등이 杜甫의 시를 언해하고 편차하여, 을해자와 을해한글자로 성종 13(1482)년부터 성종 20(1489)년 사이에 간행한 책이다. 두보의 시에 대한 연구는

물론 간행시점인 15세기의 언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을해자 연구의 자료이기도 하다. 기 지정된 권11(보물 제1051-2호)에 결락된 책장(1-8)이 조사대상본에는 온전하게 남아있어 중요하다.

서지사항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 / 杜甫(唐) 著 ; 柳允謙(朝鮮) 等受命釋解.
金屬活字本(乙亥字,乙亥한글字). [成宗 20(1489)年 以前] 28.0 × 19.0㎝.
1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21.8 × 14.6㎝. 有界, 8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版心書名 : 杜詩.

ㅇ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본의 서명은 『分類杜工部詩』이다. 본서에는 한문 원문 외에 언해가 부가되어 있으므로, 한문본과 서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分類杜工部詩[諺解]』라고 표기한다. '번역두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杜詩諺解』라고 불러왔다. 『두시언해』는 최초의 국역 한시집이며, 국어국문학 연구의 중요한 문헌이다. 이는 唐나라의 시인 杜甫(712-770)의 시를 주제로 분류하고 한글로 번역한 시집이다.

저자 杜甫의 자는 子美이며, 호는 少陵이다. 두보는 생존연간에 명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사후 명성이 높아져 詩聖이라 불리고, 그의 시는 詩史라고 불리고 있다. 또 중국 최고의 현실주의 시인으로 그 영향이 지대하여 李白과는 "李杜"라 불린다. 소년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나, 몇 차례 응시에도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하였다. 현종이 그의 문재를 인정하여 등용하였으나, 安祿山의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755)된 지 1년 만에 탈출해 현종을 이어 즉위한 숙종의 행재소로 갔으므로 左拾遺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재상 房琯의 죄를 변론하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1년 뒤에 華州司功參軍으로 좌천되었다. 관군이 장안을 회복한 후 대기근을 만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거친 후 成都에 정착하였다. 성도 교외 浣花溪가에 草堂을 짓고 절도사인 嚴武의 막료로서 工部員外郞의 관직을 지내다가 엄무가 사망한 후 다시 방랑하였다. 대력 3(768)년에 배를 타고 낙양으로 가던 중 전란과 홍수에 막혀 대력 5(770)년 洞庭湖 근방에서 59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각지를 방랑하는 과정에 李白이나 高適 등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인간애를 바탕으로 광범한 사회상을 담고 있는 그의 시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憂國愛民의 격정이 담겨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당시대를 지나 안녹산의 반란을 계기로 전환기에 처한 당나라는 통치계급의 부패와 무능이 극심했다. 두보는 사회의 혼란에다 전란의 비참함이 더해져 난세에 시달리

는 백성의 수난을 목도했고, 개인적으로는 가난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이에 민생의 파탄과 생명과 가정의 위협을 고발하고 규탄하면서, 이를 승화시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평민적이며 인간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이백은 天上의 시인이라 하고, 두보는 地上의 시인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전래되고 있는 두보 시는 대략 1,470여 수이다. 두시의 정리작업은 編年 · 分類 · 集注 · 評點 등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북송 보원 2(1039)년 王洙가 편찬하고 가우 4(1059)년 王琪가 항주에서 간행한 『杜工部集』 20권이 현존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전존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宋元 간본의 복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선초에 송나라 魯訔이 편차하고 蔡夢弼이 會箋한 『杜工部草堂詩箋』이 세종 13(1431)년에 密陽에서 개간되었다. 이어 세종의 명으로 송나라 徐居仁이 편차한 『集千家注分類杜工部詩』의 編次와 원대의 高崇蘭이 편차한 『集千家注批點分類杜工部詩集』의 評點을 주로 참고로 하고, 여타 서적을 대조 교정하여 補註를 붙인 『纂註分類杜詩』를 편찬했는데, 이는 甲辰字 · 丙子字 · 甲寅字 · 訓鍊都監字로 여러 차례 간행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 杜詩의 언해는 세종연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성종연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간행되었다. 성종 12(1481)년경 왕명으로 柳允謙 · 柳休復 · 曺偉 · 義砧 등이 여러 주석을 參訂하고 한글로 번역했으며, 성종 후기에 간행될 수 있었다. 서명의 “杜工部詩”는 두보가 工部員外郞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이며, “分類”라 표현한 것은 송대의 『分門集注杜工部詩』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纂註分類杜詩』를 저본으로 두보의 시 1,647편에 주석을 달고 한글로 언해한 책이다. 권두에 있는 曺偉의 서문에는 世敎를 위해 본서를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선초부터 두시를 언해하고자 한 것은 유교적 내용으로 교훈적이고, 우국적인 정서가 담겨있어 국가적 사상 확립에 모범이 되기 때문이었다. 조사대상본은 조선 성종 13(1482)년 기록에 간행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러나 명확한 간행과 반사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成宗實錄』에 성종 20(1489)년 8월에 일본 사신에게 『杜詩』를 하사했다는 기록을 통해 성종 20(1489)년 8월 이전 을해자 중자와 소자 그리고 한글 활자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본의 표지는 개장되었다. 본문의 장22 · 24 · 46 · 54는 낙장되어 복사본으로 보충되어 있는데, 장54는 없고 장53이 중복으로 삽입되어 있다. 일부는 마멸되어 글자가 흐려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누습으로 인해 다소 변색되었으며, 헤진 흔적은 있지만 본문을 확인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본문의 체재는 대개 두시 원문을 2구씩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해 쌍행으로 주석과 언해를 단 방식이다. 주석문과 언해문 사이에는 권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

글에는 四聲의 傍點이 남아 있어 임란 이전의 국어현상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배접하면서 紙頭를 많이 잘라내었으므로 頭註가 잘려나간 곳이 있다.

ㅇ 문헌자료

『두시언해』 영인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2000. 김영일, 「초간본 『두시언해』 권12의 어학적 고찰」

김남이, 조선전기 杜詩 이해의 지평과 『杜詩諺解』 간행의 문학사적 의미. 동악어문학 58. 2012. 123-164.

ㅇ 기 타

1977년 12월 전 동국대학교 이병주 교수로부터 구입한 서적이다.

ㅇ 지정사례

보물 제1051-1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3. 경기도박물관.(1990.09.20.지정)

보물 제1051-2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12. 계명대도서관.(2001.08.03.지정)

보물 제1051-3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21. 청주고인쇄박물관.(2004.05.07.지정)

보물 제1051-4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7-19.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2011.11.01.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0-07-004

4. 경진년 연행도첩
(庚辰年 燕行圖帖)

가. 심의사항

‘경진년 연행도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경진년 연행도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8.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7.9.) 및 과학조사(’20.10.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0.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10.30.~11.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진년 연행도첩(庚辰年 燕行圖帖)

○ 소유자(관리자) : 명지대학교(명지대LG한국학자료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LG한국학자료관

○ 수　　량 : 1첩(21폭)

○ 규　　격 : 표지 52.9×31.9cm, 펼침면 전체 52.9×63.4cm, 화면 46.0×55.0cm

○ 재　　질 : 종이에 수묵채색

○ 형　　식 : 첩(帖)

○ 조성연대 : 1761년(영조 37)

그림 161. 《경진년 연행도첩》 중 <산해관도외>, 1761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1760년(영조 36) 11월 2일조 기사에 의하면, 영조는 경현당에서 정사 홍계희 이하 동지 삼사에게 현종 탄강(誕降) 120주년을 맞이하여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기거하던 곳이자 현종의 탄생지인 심관의 옛터를 그려오라고 친필로 지시하였다. 다시 제6폭(11면)의 <심관구지도> 도설 첫 부분에 '신은 조정을 떠나면서 폐하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날에 엎드려 심관의 옛터를 자세히 살피라는 명을 받들었습니다[臣於 陛辭之日伏承瀋 館舊址審察之 命].'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영조 어필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글씨는 완숙한 경지에 이른 영조 만년의 필치로 해서에 약간 행서 필의를 섞어 쓴 영조 서풍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친필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제목을 서사한 제명(題名)과 내용을 설명한 도설(圖說)은 안진경 서체를 본받은 당시 뛰어난 사자관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단정하고 웅건하며 중후한 필치로 전체를 꿰뚫으면서 서의(書儀)의 규범을 준수하고 용필과 결구에서 미묘한 변화를 나타낸 친필이다. 이는 당시 사자관의 서예 수준을 잘 나타내고 있어 서예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상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경진년 연행도첩(庚辰年 燕行圖帖)』은 영조 어필・그림・도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제작 목적과 시기가 분명하고 왕, 문인 관료, 도화서 화원, 사자관 등이 참여한 희귀한 서화첩으로 그림・글씨・장황은 당

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감상용 서화와는 달리 역사적, 미술사적, 서예사적, 공예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1. 《연행도첩(燕行圖帖)》은 경진동지사행(庚辰冬至使行)이 귀국한 1761년 제작된 것으로 영조의 어명을 받은 정사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찾아본 심양관 옛터와 북경의 문묘 및 이륜당 등 유교 사적, 산해관 일대를 수행화원 이필성(李必成, ?-?)이 그린 그림, 건물 안 위패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排班圖), 그림 관련 내용을 정리 기록한 발문(跋文)으로 장황된 서화첩임

2. 《연행도첩》은 경진년(庚辰年), 즉 1760년 11월 2일 출발해 1761년 4월 6일 한양으로 돌아온 경진동지사행의 결과를 영조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면서 영조 어필이 포함되고, 그림과 관련한 배반도 및 발문으로 그림의 이해를 충분히 돕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원 이필성의 화풍 및 18세기 중반 실경산수화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3. 본 화첩은 현재 <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가 널리 알려지면서 《심양관도첩(瀋陽館圖帖)》 또는 《연행화첩(燕行畵帖)》이라 명명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연행화첩의 지정도 있을 수 있고 경진동지사행(庚辰冬至使行)을 배경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경진년 연행도첩(庚辰年 燕行圖帖)》이라 제목을 명명할 필요가 있음

ㅇ (지정 가치 있음)

- 《庚辰年 燕行圖帖》은 1761년 洪啓禧(1703-1771)가 英祖(재위, 1724-1776)의 어명을 받아 庚辰冬至使行에서 심양관을 방문하여 그 일대를 도설과 그림으로 기록한 화첩이다. 홍계희 일행이 심양관을 찾았을 때 이미 옛 자취가 사라졌지만, 그들은 덕성문 내 동쪽 첫 번째 거리에 있는 찰원이 과거 심양관의 구지임을 파악했다. 따라서 이 화첩은 영조의 어명으로 당시 심양관의 풍광을 재현한 화첩이므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庚辰年 燕行圖帖》의 그림을 담당한 화원은 이필성으로 판단된다. 『북원록』에 의하면 화원 이필성은 折衝將軍의 직책으로 동지사행에 동참했고, 그 이전에서 궁중회사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이 화첩은 작가가 규명된 18세기 중반의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 《庚辰年 燕行圖帖》에 수록된 그림은 크게 산수를 중심으로 한 실경산수화와, 건물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기록한 궁궐도로 나눌 수 있다. 조선왕실의 궁궐도에서 목격되는 이동시점형 부감법과, 새로운 계화의 화법인 평행사선형 투시도법이 동시에 사용됐다. 또한 18세기 중반 궁중기록화에서만 볼 수 있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옥색이 사용되어 궁중회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 《庚辰年 燕行圖帖》은 제작 목적과 시기, 그림을 그린 화가 등이 분명하고, 작품 상태와 수준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시각물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보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본 화첩은 영조 36년(경진, 1760)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의 동지사행을 계기로 제작되었다. 사행단의 대표적 인물은 정사 洪啓禧(1703-1771), 부사 趙榮進(1703-1775), 서장관 李徽中(1715-?) 등이고, 화원으로 李必成이 파견되었다. 화첩의 제작 배경에 대해서는, 영조가 특별히 사행 여정 중에 살펴보고 그림으로 그려 올 것을 지시한 정황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화첩에 수록된 자료와 정확히 부합하여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화첩에 수록된 그림은 이필성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산해관외도〉를 제외하고는 주로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의 모습을 재현하기보다는, 구조와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제작한 圖形에 가깝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생략되거나 단순화되었다. 다시점을 적용하면서, 정연한 선묘와 채색을 구사하는 전형적인 계화 기법을 보여준다. 화원 이필성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의궤와 사행 등에 차출된 이력으로 보아, 본 화첩에 수록된 그림의 표현기법과 수준에 합당한 화가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화첩 마지막에 수록된 <산해관외도>는 부감시를 적용하여 산해관문을 중심으로 한 경관을 호쾌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18세기 중반 실경산수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기록화 이외에 이필성의 화가로서의 역량을 알려주는 산수화 작품으로서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본 화첩은 御覽을 목적으로 제작된 화첩으로서, 전승과정에서 개장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 궁중기록화의 면모를 보여주는 왕실 문화의 실체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

본 화첩은 동일한 종류의 다른 사례가 없고 유사 사례도 드문, 유일본으로서의 가치가 주목되며 조선후기 시대상과 정치, 외교, 문화 등의 양상을 증거하는 자료로서의 의의 또한 탁월하여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심양관도첩, 연행화첩 등 기존의 명칭은 본 화첩의 종합적인 면모와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새로운 지정명칭으로 “경진년 연행도첩”을 제안한다. “경진년 연행도첩”은 경진년(1760)에 있었던 동지사행이 화첩 제작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을 적시하고 있어, 화첩의 시대성과 역사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기존에 학계에서 통용하여 온 명칭인 ‘심양관도첩’의 경우, 화첩의 일부인 〈심관구지도〉를 대표로 내세운 것으로, 화첩의 전반적 내용과 면모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야기한다. 비록 ‘심양관도첩’이라는 명칭에는, 본 화첩을 발굴하고 미술사적인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는 연구사적 의의를 존중하고, 저간의 연구 성과를 함축하는 의미가 있으나, 이번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학술적으로 더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선행의 연구성과를 더욱 뜻깊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표제지가 마모되어 원제(原題)는 알 수 없고, 사방의 가장자리가 닳아서 청색 안료가 벗겨진 곳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해충에 의한 손상 구멍과 하단 중앙부의 훼손이 심하여 보존처리가 요구됨. 그러나 그림과 글씨의 보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고 서화첩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은 없음.

서화첩은 52.9×31.9cm 크기에 감색 종이로 장황한 앞표지와 뒤표지 안에 21폭(42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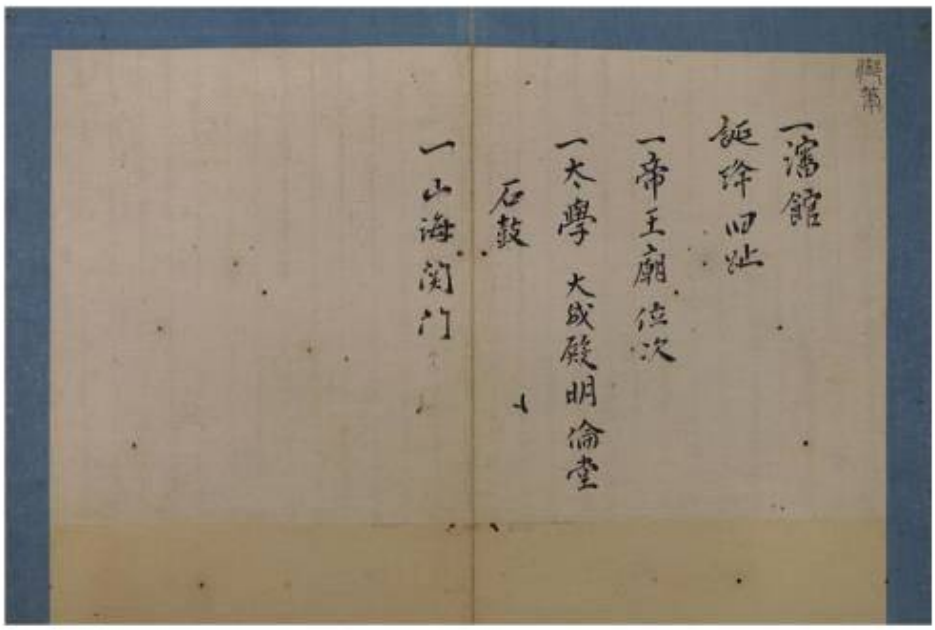
구성은 제1폭과 제2폭은 빈 화면이고 바탕 종이에 쪽빛을 칠한 흔적이 있으며, 제3폭은 5-6면에 영조가 쓴 어필이 있고, 제4폭은 빈 화면으로 31.9×27.7cm 크기의 종이를 잘라낸 흔적이 있음. 제5폭은 9-10면에 <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를 그렸고, 제6폭은 11-12면에 <심관구지도>에 관한 홍계희(洪啓禧, 1703-1771)의 도설(圖說)을 서사하였음. 제7폭은 13-14면에 <문묘도(文廟圖)>를 그렸고, 제8폭은 15-16면에 <이륜당도(彝倫堂圖)>를 그렸음. 제9폭은 17-18면에 <선사묘전내급동서무위차지도(先師廟殿內及東西廡位次之圖)>의 위차(位次)를 세로와 가로로 장방형과

편방형의 네모 칸 안에 1행의 해서로 적었고, 제10폭은 19-20면에 <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崇聖祠正位及配享位次之圖)>의 위차를 장방형과 편방형 안에 1행의 해서로 적었으며, 제11폭은 21-22면에 문묘의 구성과 문묘를 찾은 경위를 서사한 발문임. 제12폭은 23-24면에 <석고배치도(石鼓排置圖)>를 그렸고, 제13폭은 25면에만 <석고배치도>의 도설을 서사하였을 뿐 26면은 빈 화면임. 제14폭은 27-28면에 <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를 그렸고, 제15폭은 29-30면에 <역대제왕묘위차지도(歷代帝王廟位次之圖)>를 기록하였는데 상단에 제목을 가로글씨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1행을 해서로 썼고, 아래의 위차는 역관 변헌(邊憲)이 역대제왕묘 관리에게 얻어온 것을 첨부하였으며. 제16폭은 31-32에 <역대제왕묘도>의 도설을 서사하였음. 제17폭은 33-34면에 <산해관도(내)(山海關圖(內))>를 그렸고, 제18폭은 35-36면에 <산해관도(외)(山海關圖(外))>를 그렸으며, 제19폭은 37-38면에 <산해관도>의 도설을 서사하였음. 제20폭과 제21폭의 39-42면은 빈 화면임.

따라서 전체 구성은 영조 어필 이후 <심관구지도>와 도설, <문묘도>·<이륜당도>·<선사묘전내급동서무위차지도>·<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와 <문묘도>의 도설, <석고배치도>와 도설, <역대제왕묘도>·<역대제왕묘위차지도>와 도설, <산해관도> 내외와 도설 순으로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어서 이에 관한 도설을 첨부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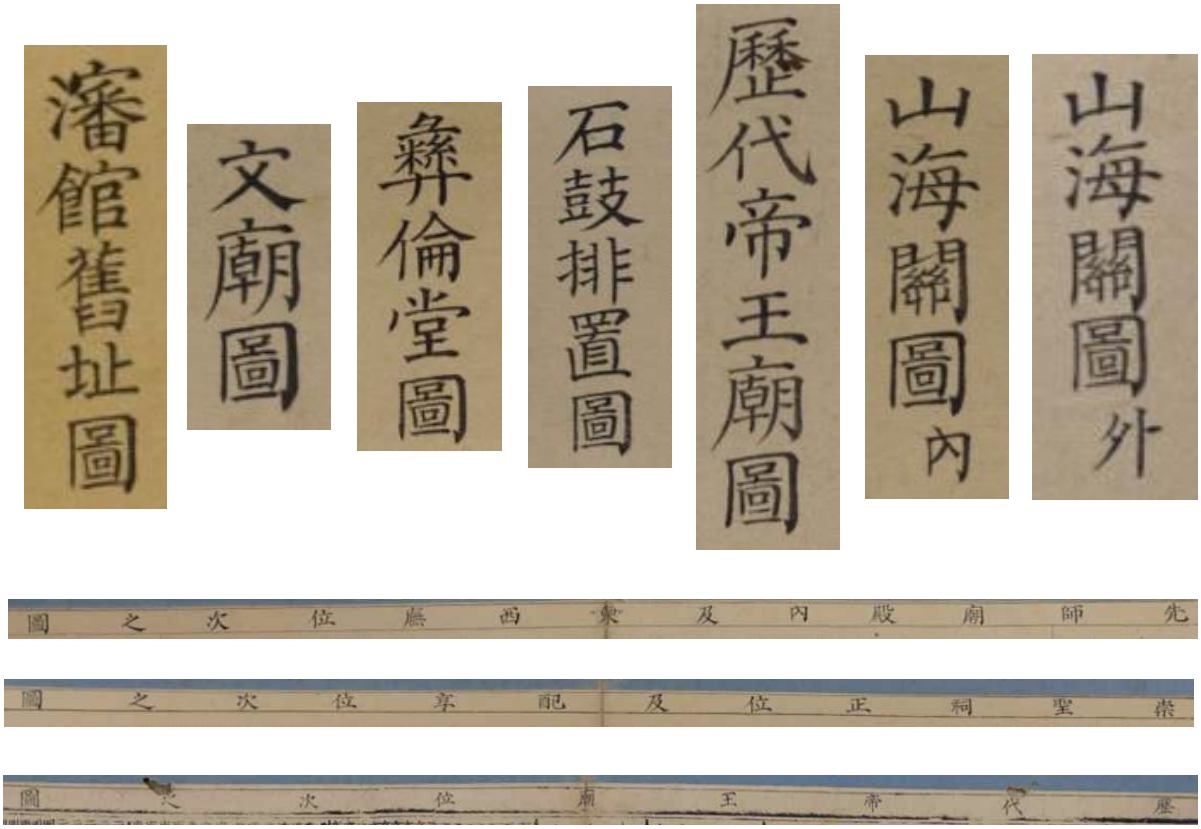
ㅇ 내용 및 특징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경진년연행도첩(庚辰年燕行圖帖)』은 영조 어필이 있으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어서 이에 관한 도설(圖說)을 써서 첨부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서예 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영조 어필, 그림의 제목을 쓴 제명(題名)과 그림을 설명한 도설(圖說) 세 종류이다.



〈영조 어필〉

먼저 영조(1694-1776, 재위 1724-1776) 어필은 영조 36년(1760) 66세에 사행(使行)이 출발하기 전에 중국에서 보아야 할 곳을 해서에 약간 행서 필의를 섞어 써서 준 것이다. 이는 바탕 위에 43.5×54.7cm 크기의 종이를 붙인 6행으로 5면에 5행, 6면에 1행이고, 내용은 一 심관(瀋館)의 탄강구지(誕降舊趾), 一 제왕묘위차(帝王廟位次), 一 태학(太學)의 대성전(大成殿)·명륜당(明倫堂)·석고(石鼓), 一 산해관문(山海關門) 등이다. 구지(舊址)를 '旧'라는 속자(俗字)와 '址'와 통용하는 '趾'로 쓴 것이 독특하고, '降'자의 '阝'과 '關門'은 행서로 썼다. 이 무렵 영조의 서풍은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고, 대부분 행초서를 위주로 썼으므로 운필이 이전보다 빠르면서 글자의 결구 또한 자유롭다. 가로획 기필의 말발굽 모양을 한 마제(馬蹄)는 방필(方筆)을 위주로 하여 약간 넓게 벌어진 특징을 나타내고, 파임은 송설체를 답습하여 조금 길게 처리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여기에 쓴 영조 어필은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유연하게 한 필치로 꿰뚫고 있다. 오른쪽 위의 모서리에 가는 필획의 전서로 '어필(御筆)'이라 쓴 두 글자는 먹색과 필치가 다르므로 영조가 쓴 것이 아니고 이후에 첨가한 것 같다.



제명(題名)

다음으로 제명은 제5폭(9면)의 <瀋館舊址圖>, 제7폭(13면)의 <文廟圖>, 제8폭(15면)의 <彝倫堂圖>, 제9폭(17-18면)의 <先師廟殿內及東西廡位次之圖>, 제10폭19-20면)의 <崇聖祠正位及配享位次之圖>, 제12폭(23면)의 <石鼓排置圖>, 제14폭(27면)의 <歷代帝王廟圖>, 제15폭(29-30면)의 <歷代帝王廟位次之圖>, 제17폭(33면)의 <山海關圖(內)>, 제18폭(36면)의 <山海關圖(外)> 등이다.

제명은 필획이 단정하고 장엄하며, 안정된 결구를 갖춘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변화를 나타내었다.

첫째, 용필에서 필획의 강조로 변화를 나타내었다.

가로획은 기필에서 말발굽 모양과 수필에서 누에머리와 같은 마제잠두(馬蹄蠶頭)의 형상을 분명히 하여 절제미를 갖추었고, 세로획은 일정한 굵기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필획을 조금 굵게 처리하여 잔잔한 가운데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圖·關'의 마지막 세로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날획에 속하는 파임은 안진경 서체의 특징인 연미(燕尾)를 운영하여 굳세고 강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둘째, 결구에서 자형의 크기를 조금 달리하여 변화를 나타내었다.

<瀋館舊址圖>에서 '瀋館'은 자형을 조금 크게 하고 '舊址圖'의 자형은 '瀋館'보다 조금 작게 하여 변화를 나타내었다. '歷代帝王廟圖'에서 '王'자를 상대적으로 다른

글자들보다 조금 작게 처리하여 획일적인 가운데 숨을 한 번 쉬는 여유와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변화는 판에 박히거나 새기는 듯한 단조로움을 피하고,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을 통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서사자의 역량을 잘 나타내었다.

셋째, 형식에서 서의(書儀)[11]를 통한 변화이다.

이는 <山海關圖>에서 '內・外'를 위의 글자에 비해 절반 정도의 크기로 서사한 것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예는 도설에 '臣'자를 절반 글자로 서사한 것과 같다.

끝으로 도설은 제6폭(11-12면)의 <심관구지도> 도설, 제11폭(21-22면)의 <문묘도> 도설, 제13폭(25면)의 <석고배치도> 도설, 제16폭(31-32면)의 <역대제왕묘도>・<역대제왕묘위차지도> 도설, 제19폭(37-38면)의 <산해관도> 도설 등이다.

<심관구지도> 도설은 46×55cm, <문묘도> 도설은 46.1×28cm, <석고배치도> 도설은 45.8×55cm, <역대제왕묘도>・<역대제왕묘위차지도> 도설은 46×55.1cm, <산해관도> 도설은 46×55.2cm이다. 이 중에서 <문묘도> 도설만 1면이고, 나머지는 모두 2면에다 서사하였다. 제13폭(25면)의 <석고배치도> 도설에 '한유・소식이 가(歌)로 읊은 것이다[韓愈蘇軾所歌咏者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는 당나라 한유(韓愈, 768-824)의 칠언고시「석고가(石鼓歌)」와 송나라 소식(蘇軾, 1037-1101)의 칠언고시「석고가(石鼓歌)」를 가리키는데, 중국에서 가(歌)의 형식으로 서예를 논한 논서시(論書詩)의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중에서 한유의「석고가」가 더욱 유명하고, 후세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12]

도설은 제명과 같이 한 사람이 서사하였으므로 서체・용필・자형・결구・필세・서풍 등에서 일맥상통함이 보이고, 서의(書儀)의 법도를 준수하였다. 서체는 안진경 서체를 위주로 썼으나 가로획과 세로획의 대비가 보이는 면에서 <안근례비(顔勤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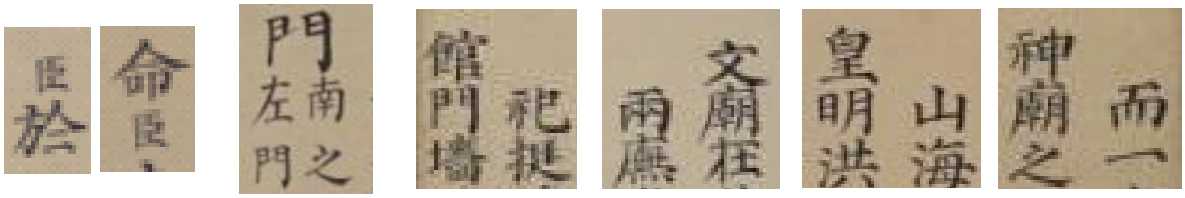
11) 서의(書儀)는 좁은 의미로 척독 서사의 행관(行款) 격식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 문자 서사의 각종 규범을 포괄한다. 전국시기 이후 왕조마다 명확한 율령(律令)・격식(格式)・서의(書儀)가 있어 전장제도를 이룬 것은 문화전통의 중요 내용을 체현한 것이다. 표(表)・장(狀)・전(箋)・계(啓)의 서의는 전적으로 공무의 왕래에 사용했고, 이 중에는 지방정권 각 기구 사이의 부하와 상관 또는 신하와 황제의 관계를 다룬 것도 있다. 서의는 서예의 장법・포국・형태에 영향을 주었고, 주로 서체(書體)・방위(方位)・평궐(平闕)・규격(規格)・행관(行款)・문헌(文獻)・재료(材料)・검인(鈐印) 등에서 체현하였다. 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말로 대두(擡頭)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글을 쓸 때 경의(敬意)를 표하는 글자를 딴 줄로 바꾸어 다른 줄보다 한 글자 올려 쓰는 것을 말하며, 만약 글의 중간일 때는 한 글자를 띄우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서의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서의가 대두보다 더욱 많은 내용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12) 한유의「석고가」는 칠언고시로 모두 66구절이다. 처음 4구절은 두보・이백과 같은 재능이 없어 감히 가(歌)를 지을 수 없다는 겸사(謙辭)의 말을 하였고, '周綱'에서 12구절은 석고(石鼓)의 내력이 오래되었음을 서술하였다. '公从'에서 10구절은 석고의 문자와 서체의 가치를 서술하였고, '陋儒'에서 6구절은『시경』에서 석고문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공자의 세심하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 '忆昔'에서 18구절은 석고의 발견 과정과 태학에 유치하는 것을 건의한 내용이고, '中朝'에서 10구절은 당국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석고가 없어질까 한탄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6구절은 유학을 숭상하는 시대에서 석고를 태학에 옮길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석고의 진귀함과 보호의 정성이 지극하였다. 문장의 장법은 정제되었고, 글과 뜻은 엄밀하며, 음운은 곱고 낭랑한 소리가 난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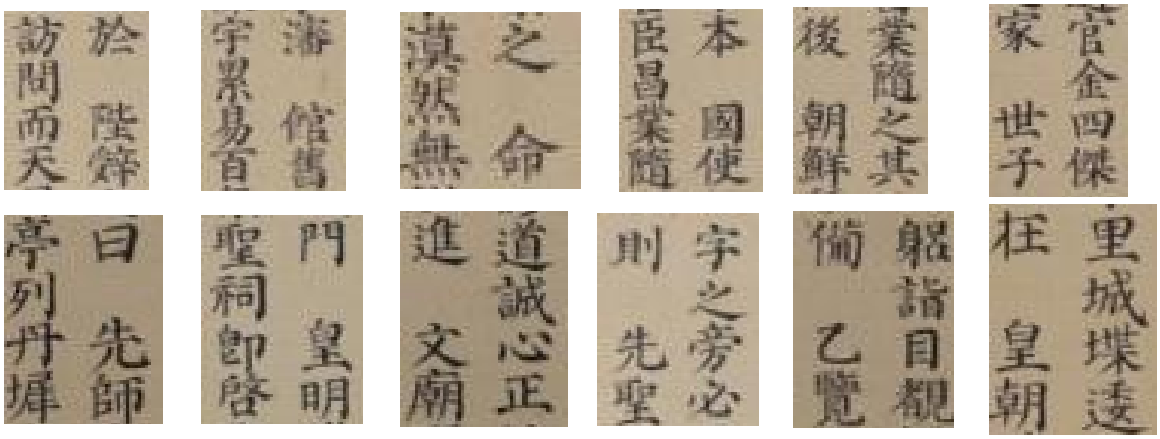
碑)>를 본받았고, 예스럽고 질박하며 단정하면서 너그럽고 풍만함은 <마고선단기(麻姑仙壇記)>를 본받았으며, 정방형의 자형과 주문(籀文)·전서의 필세와 서풍은 <안씨가묘비(顔氏家廟碑)>와 흡사하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고 전체적인 서체와 서풍은 안진경을 본받은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를 나누어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주요 특징을 서의(書儀)·용필(用筆)·결구(結構)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의(書儀)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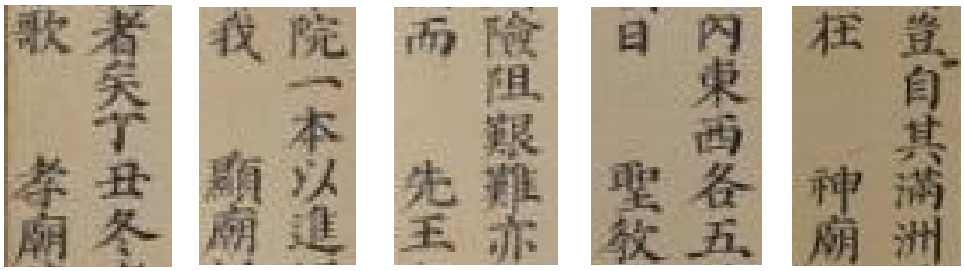
이는 '臣'자와 '南之左門'을 절반 글자로 서사하고, '陛·館·命·國·朝鮮·世子·先師·皇明·文廟·先聖·乙覽·皇朝' 등의 앞은 한 글자를 띄었으며, '孝廟·顯廟·先王·聖敎·皇明·神廟' 등의 앞은 두 글자를 띄었고, '館門·文廟·皇明·神廟' 등은 한 글자를 올리는 대두(擡頭)를 운용한 데에서 보인다. 이 중에서 같은 '皇明'이더라도 제11폭(21면)의 <문묘도> 도설 '戟門 皇明後'와 제16폭(31면)의 <역대제왕묘도>·<역대제왕묘위차지도> 도설 '周以前 皇明洪武六年'은 한 글자, '元太祖 皇明高皇帝'는 두 글자를 띄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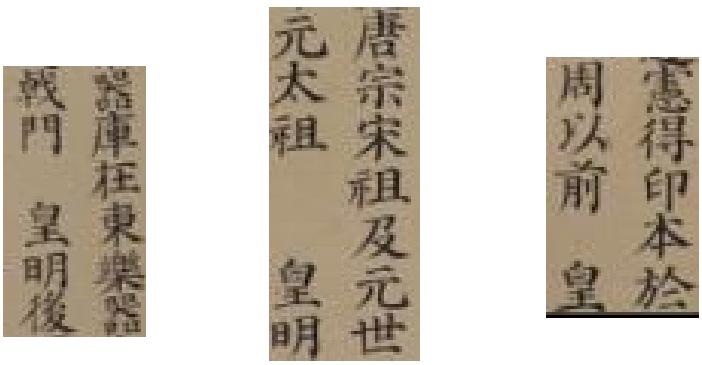
절반 글자 대두(擡頭)



한 글자 띄우기



두 글자 띄우기



‘皇明’의 한 글자와 두 글자 띄우기

둘째, 용필의 특징이다.

용필의 특징은 크게 가로획과 세로획, 가로획에서 세로획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세로획에서 가로획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절(轉折), 갈고리에 해당하는 적획(趯畫), 왼쪽으로 길게 삐치는 약획(掠畫), 오른쪽으로 길게 삐치는 날획(捺畫)의 파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독 '焉'자의 끝부분만 행서 필의로 서사한 것도 이채롭다.

가로획의 특징은 기필과 수필로 나눌 수 있다. 기필은 하나같이 필봉을 모나게 꺾어 들이는 절입법(切入法)을 운용하여 가볍고 상쾌하며 깨끗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수필은 필획이 끝나는 곳에서 붓을 가볍게 누른 다음 다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봉(回鋒)을 통해 누에머리와 같은 잠두(蠶頭)를 형성하여 강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세로획은 두 개 이상일 경우 전체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을 조금 굵게 하여 입체감이 나도록 하였고, '門・西・圖・國・祠・有'자 등 갈고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굵게 하여 강조의 의미와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일부 세로획을 굵게 하여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나는 변화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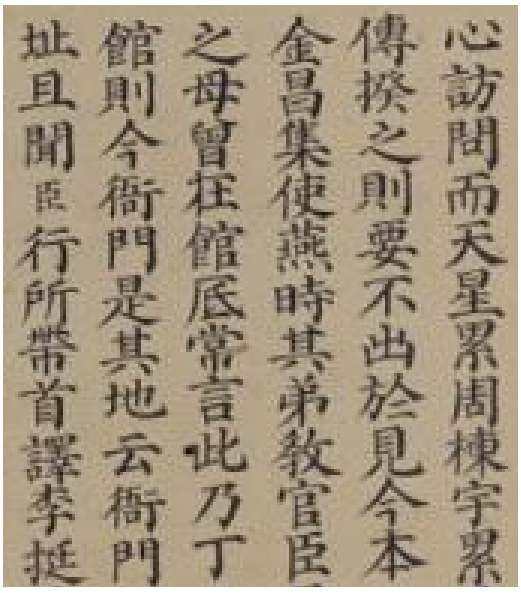
가로획에서 세로획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절'에서 '也・方'자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향해 기울어지는 것은 곧바로 모나게 꺾었고, '門・有'자 같은 경우는 내리긋는 필획의 안쪽은 곧바르나 바깥쪽 위 모서리는 45° 정도로 꺾은 각도를 보인 다음 내리그었다. 세로획에서 가로획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절'에 '也・見'자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내었고, 기타 'ㄴ'에 해당하는 곳은 조금 사이를 띄우면서 직선을 나타내었다.

적획은 대체로 안진경 서체를 본받아 세로의 노획(努畫) 필세를 유지하다가 필획 끝에서 왼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고 오른쪽은 45°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뒤 힘을 축적하여 탄성(彈性)으로 펄쩍 뛰어오르며 뾰족한 필봉을 나타내었는데, 대체로 노획과 90°를 유지하였다.

약획은 처음 시작에서 힘을 주어 길게 빼고 중간에서 다시 힘을 기울이며 필세를 유지하다가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쥐꼬리와 같은 서미(鼠尾)를 운용하여 가늘게 처리하였다. 날획에 해당하는 파임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구양순 필법에서 흔히 보이는 일파삼절(一波三折)법으로 처음 시작은 가볍게 붓을 대고 힘을 주며 나아가다가 중간에 이르러 더욱 힘을 주면서 붓털이 완전히 펴지게 한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필획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사선으로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안진경 필법에서 보이는 것으로 방법은 같으나 끝부분에 이르러 붓을 조금 들어 필획 아랫부분은 조금 공간이 남아있고 윗부분은 감싸면서 마치 제비 꼬리와 같은 연미(燕尾)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안진경 필법을 운용하였다.

셋째, 결구의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자간은 좁고 행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 종세(縱勢)의 필세를 나타내었으며, 필획 사이의 간가(間架)는 고르고 여유가 있어 관후(寬厚)한 안진경 서체를 연상시킨다. 결자(結字)의 중심이 구양순 서체와 같이 가운데의 중궁(中宮)에 있지 않고, 팔궁(八宮)을 가득 채우면서 퍼져 있는 것도 안진경 서체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다. 자형은 고르면서 정방형이나 편방형이 섞여 있어서 해서가 일반적으로 장방형을 이루는 것에 비해 다소 넓적한 느낌이 든다. 안진경과 동시대의 서호(徐浩, 703-782)는『논서』에서 “작은 것은 늘려 크게 하고, 큰 것은 오그려 작게 한다.”[13]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새로운 필법으로 안진경의 <안씨가묘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송나라 미불은 이를 옛날 법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며“크거나 작음은 각각 구분이 있으니, 한 동아리가 아니다. 서호는 안진경이 초청한 문객으로 서예의 운치는 장욱의 혈맥으로부터 나왔는데, 안진경에게 큰 글씨는 촉박하여 작게 하고, 작은 글씨는 펼쳐 크게 하라고 가르쳤으니, 옛날 법도가 아니다.”[14]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心訪問而天星累周棟宇累
傳揆之則要不出於見今本
金昌集使燕時其弟敎官臣
之母曾在館厎常言此乃丁
館則今衙門是其地云衙門
址且聞臣行所帶首譯李挺

제6폭(11면)의 <심관구지도> 도설을 예로 들면, ‘問・棟・傳・揆・燕’자 등은 정방형이고, ‘心・之・出・地・址’자 등은 편방형이며, ‘累・周・見・曾・所’자 등은 장방형이다. 사자관은 자형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하면서 이러한 정방형・편방형・장방형을 적절하게 안배하며, 판에 새기거나 천편일률적인 데에서 벗어나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제1행을 보면, 같은 크기로 서사하다가 ‘累・周’를 장방형으로 처리하여 획일적인 데에서 벗어났는데, 이러한 예는 제2행의 ‘見・今・本’, 제3행의 ‘官・臣’, 제4행의 ‘曾・在’ 등에서 보인다. 다시 위 글자가 필획이 많아 무거우면 아래 글자는 조금 작게 하여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제1행의 ‘棟宇’, 제6행의 ‘譯李’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결구에서 자형의 크기와 형태 변화로 미묘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장기간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안진경 서체를 본받는 것은 글씨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충신열사이고 인품이 뛰어나며, 글씨가 그 사람과 같다는 서여기인(書如其人)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비를 안진경 서체로 집자한 것도

13) 徐浩,『論書』:“小長令大, 大蹙令小.”
14) 米芾,『海嶽名言』:“大小各有分, 不一倫. 徐浩爲顔眞卿辟客, 書韻自張顚血脈來, 敎顔大字促令小, 小子展令大, 非古法也.”

이러한 연유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영조가 명한 것을 도화서 화원 이필성(李必成)이 그리고, 정사 홍계희(洪啓禧)의 도설을 사자관은 조맹부의 송설체로 서사하지 않고 안진경 서체를 본받아 서사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ㅇ 문헌자료

- 『승정원일기』 1760년(영조 36) 11월 2일조 기사
- 임기중, (2016년 6차 개정증보판) 『燕行錄叢刊』, 2016.
- 鄭恩主, 「1760년 庚辰冬至燕行과 《瀋陽館圖帖》」, 『明淸史硏究』 제25집, 明淸史學會 2006.
- 박은순, 「朝鮮後記 『瀋陽館圖』 畫帖과 西洋畫法」, 『미술자료』 58, 국립중앙박물관 1997.
- 곽노봉, 『서체』, 다운샘 2015.
- 곽노봉 『서예학의 이해』, 다운샘 2019.

ㅇ 기 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전 국회도서관장 강주진(姜周鎭, 1917-1994)이 이용희(李容熙, 1811-1878)의 후손으로부터 사들였고, 강주진 사후 1995년 현 소장처인 명지대학교가 문우서림 김영복 대표를 통해 사들였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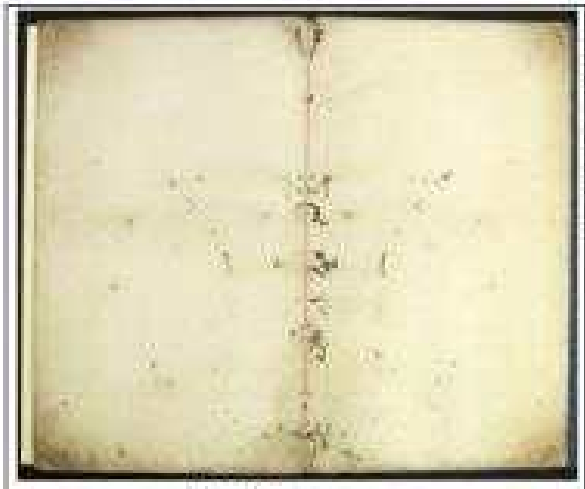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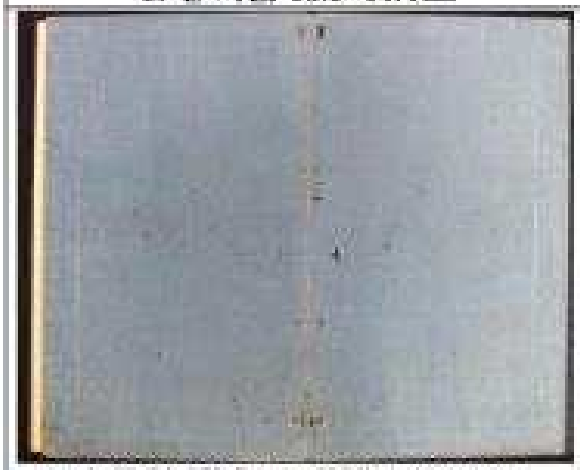
ㅇ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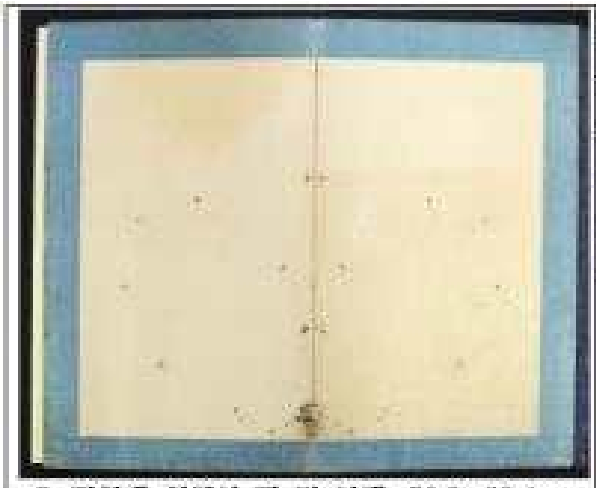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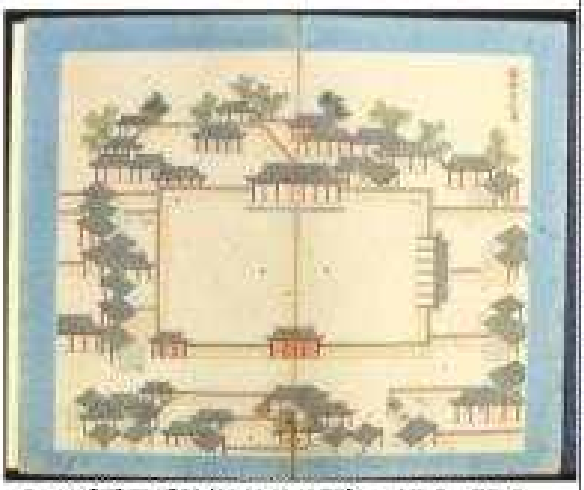
- 《연행도첩(燕行圖帖)》은 경진동지사행(庚辰冬至使行)이 귀국한 1761년 제작된 것으로, 영조의 어명을 받은 정사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찾아본 심양관 옛터를 비롯해 북경의 문묘와 이륜당 및 역대제왕묘 같은 유교 사적, 산해관 일대를 수행화원 이필성(李必成, ?-?)이 그린 그림, 건물 안 위패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排班圖), 그림 관련 내용을 정리 기록한 발문(跋文)으로 장황된 서화첩임
- 화첩의 구성을 각각의 이미지와 현상을 순서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지(앞), 52.9×31.9cm

1. 표지는 청록색 능화지로, 오랜 시간 전세(傳世)되는 과정에서 연화문의 요철이 뭉개져 희미해짐
2. 제첨(題簽) 크기는 20.0×4.1cm이며, 바탕이 마모되어 원래 제목의 유무(有無)를 확인할 수 없음
3. 열람으로 인해 화첩 모서리가 낡았으며, 바탕의 청록색이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어두울 뿐만 아니라 하단부가 손때로 인해 다른 곳보다 오염이 심한 편임

연화문, 표지 세부

<table>
<tr>
<td> 
2. 빈 화면, 52.9×63.4cm</td>
<td>1. 표지 다음 페이지는 빈 여백이며, 중앙의 절첩선 부분이 해충으로 인해 훼손된 곳들이 있음
2. 하단부의 오염은 보관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네 모서리의 오염이 심함</td>
</tr>
<tr>
<td> 
3. 빈 화면(담청색으로 칠함), 52.9×63.4cm</td>
<td>1. 바탕 종이 전체에 담청색이 칠해져 있으며, 그림이나 배접도, 발문의 회장(回裝) 부분에 칠한 색상과 동일함
2. 바탕 전체에 칠한 담청색 안료가 떨어져 나가면서 흐려진 곳들이 있음
3. 절접선을 중심으로 해충에 의해 좌우대칭으로 훼손된 곳이 있음</td>
</tr>
<tr>
<td>
4. 영조 어필, 52.9×63.4cm</td>
<td>1. 바탕 종이 위에 영조의 어필이 있는 별도 종이(43.5×54.7cm)를 붙여 장황함
2. 상단 오른쪽의 '어필(御筆)'은 전서체이며, 그 뒤에 영조가 해행서체로 一 濬哲 翼陵舊址/ 一 南玉麟位次/ 一 太學 大成殿 明倫堂 石鼓/ 一 山海關門ㅅㅅ이라 적음
3. 회장(回裝)은 별도의 다른 재료 대신 담청색으로 칠하였는데,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의 담청색 안료가 떨어져 희미한 곳들이 보임
4. 절접선 하단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된 곳들이 있음</td>
</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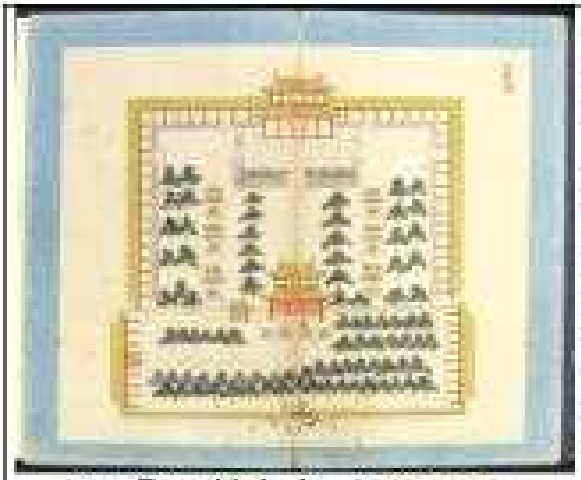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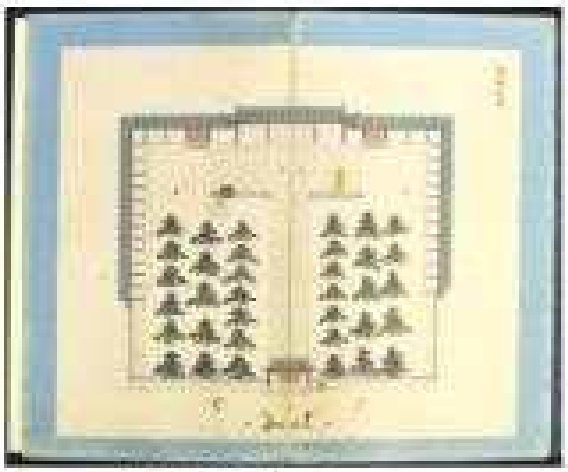
 5. 담청색 회장이 된 빈 여백, 52.9×63.4cm	1. 바탕 종이의 오른쪽 상단부가 세로 31.9cm, 가로 27.7cm 크기로 도삭(刀削)됨 2. 빈 여백의 바탕 종이에 회장 부분을 담청색으로 칠하였는데,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의 담청색 안료가 벗겨짐 3. 절접선의 하단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6. <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 46.0×55.0cm	1.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고, 수행화원 이필성이 그린 것임 2. 영조의 어명으로 현종이 태어난 심양관을 탐문한 결과, 당시 연행사가 머무는 찰원이 옛터임을 확인하고 그 모습을 그린 것임 3. 그림을 구획한 필선이 남아 있고, 담청색 회장 부분의 안료가 떨어져 바탕지가 보이는 곳들이 있음 5. 절접선의 하단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7. 심양관(瀋陽館) 발문(跋文), 46.0×55.0cm	1. 이 화첩의 제작배경과 <심관구지도>를 그리기 위해 옛터를 탐문한 과정을 정리 기록한 발문임 2. 글씨는 안진경(顔眞卿, 709-785) 서풍을 계승한 해서체로 '지(之)'자나 '승(承)'자 등의 오른쪽 삐침에서 연미형(燕尾形) 파책이 보임 3. 회장의 담청색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진 곳들이 있음 4. 절접선 중앙의 하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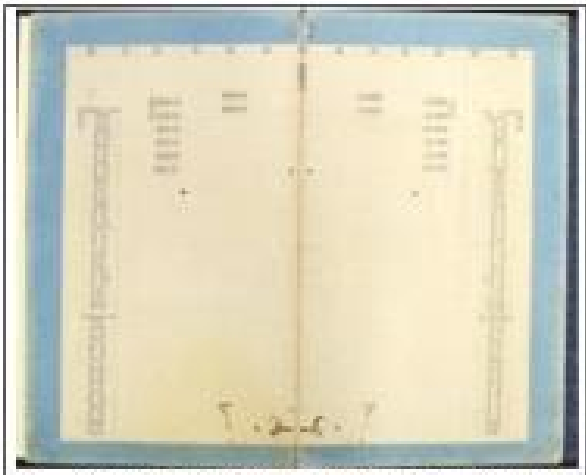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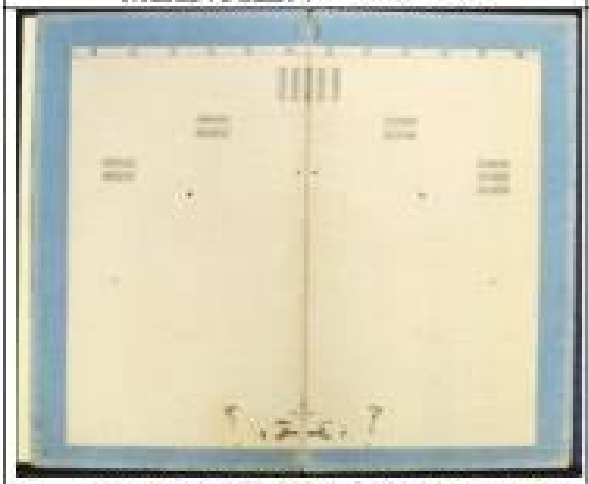
7. 심양관(瀋陽館)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

臣於 陛辭之日, 伏承瀋館舊址審察之命, 臣去來之路, 留心訪問, 而天星累周, 棟宇累易, 百年往事, 漠然無徵. 而以諸譯所傳揆之, 則要不出於見今本, 國使行所留察院之址也. 故相臣金昌集使燕時, 其弟敎官臣昌業隨之, 其『日錄』言"故通官金四傑之母, 曾在館底, 常言此乃丁丑後朝鮮質子所接之家, 世子館則今衙門是其地云." 衙門, 卽察院也, 此可見察院之爲其時舊址. 且聞臣行所帶首譯李挺嶋之言, 挺嶋曾祖同知翊臣, 與故郡守金孝純爲友壻, 孝純無子, 以挺嶋祖萬戶明錫爲侍養子, 奉其祀, 挺嶋有得之於家閒傳說者矣. 丁丑冬, 孝純因販賣入瀋留住 館門墻外, 夜寒不能寐, 偶發謳歌. 孝廟使人問之, 卽招至, 見其身手之好, 且聞其爲武種, 仍令留侍左右, 遂與八壯士之列. 挺嶋父宇芳爲譯舌, 孝純臨老每謂宇芳曰"汝於燕行, 必過瀋陽矣. 南門內東邊第一衖, 卽故瀋 館遺址, 汝其識之", 仍泣說當時事云. 卽今察院, 在德盛門南之左門內東邊第一衖, 以此推之, 察院之爲其時舊址益明矣. 聞察院之重修, 在十數年前, 見在屋制, 雖無關於故蹟, 而其坐地, 旣係舊館所在, 故謹畵察院一本以進. 仍伏念我 孝廟淹恤于斯, 險阻艱難, 亦旣備嘗, 我顯廟誕降于斯, 靈光休瑞, 若有不偶, 而先王之志事未遂, 人閒之歲月頻更. 顧臣等於百二十年之後, 乃以辛巳二月復過此地, 俯仰歔欷, 百感交集, 不知所以爲懷也.

신(臣)이 임금님을 뵈옵고 사행을 떠나던 날, 삼가 엎드려 심관(瀋館)의 옛터[舊址]를 자세히 살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신(臣)은 왕래하는 길에 유념하여 찾아가 물었습니다만 세월이 오래되고 건물도 여러 차례 바뀌고, 백여 년 전의 일이라 막연하여 징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역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행단이 머무는 찰원(察院)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 상신(相臣)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연경으로 사행갈 때 동생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자제교관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일록(日錄)』에 "옛 통관(通官) 김사걸(金四傑)의 어머니가 일찍이 이 관(館)에 살면서 항상 말하기를 '이곳이 바로 1637년(丁丑) 이후 조선의 볼모들이 거처하던 곳이며, 세자관(世子館)은 지금의 아문(衙門)이 있는 곳이다'라고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문이 곧 찰원이니, 이를 통해 찰원이 (심관)의 옛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臣) 사행단의 수역(首譯)인 이정희(李挺嶋)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희 증조부인 동지(同知) 이익신(李翊臣)과 옛 군수(郡守) 김효순(金孝純)은 동서[友壻]인데, 김효순이 아들이 없자 이정희의 조부인 만호(萬戶) 이명석(李明錫)을 양자로 삼아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이정희가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정축년 겨울 김효순이 장사를 하러 심양에 갔다가 관문(館門) 담장 밖에 머물렀을 때, 밤의 한기(寒氣)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연히 구가(謳歌)를 불렀는데 효묘(孝廟, 봉림대군)께서 사람을 시켜 물어보고 곧 불러들여 그의 신수(身手)가 좋음을 보시고 또 무종(武種)임을 들으시고는 발탁해 좌우에서 시위케 하니 드디어 팔장사(八壯士)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희의 아버지 이우방(李宇芳)은 역관이 되었으며, 김효순은 늙어 매번 이우방에게 "네가 연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심양을 지날 것이다. 남문(南門) 안 동쪽 첫 번째 골목이 곧 옛 심관 유지(遺址)이니, 너는 그것을 잘 기억해라."라고 말하며 울면서 당시의 일을 얘기하곤 했다는 것

입니다. 즉, 지금의 찰원은 덕성문(德盛門) 안 동쪽 첫 번째 골목에 있으니, 이로 미루어 찰원이 그 당시의 옛터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듣건대 찰원의 중수가 십수 년 전에 있었다고 하니,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屋制]은 비록 고적(古蹟)과 무관하지만, 그 위치는 옛 심관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찰원 1본을 그려서 바칩니다. 이에 삼가 엎드려 생각컨대, 우리 효묘(孝廟)께서 이곳에서 오래도록 우환을 겪으시며 위험과 어려움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고, 우리 현묘(顯廟)께서 이곳에서 탄강(誕降)하여 신령과 상서로움이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선왕께서 뜻하신 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인간 세상의 해와 달은 빈번히 바뀝니다. 돌아보건대 신(臣) 등은 백이십 년이 지난 1761(辛巳)년 2월 다시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부앙(俯仰)하며 탄식하니 만감이 교차하여 마음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table>
<tr>
<td> 
8. <문묘도(文廟圖)>, 45.8×55.0cm</td>
<td>1. 오른쪽 상단에 '문묘도(文廟圖)'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음
2. 북경의 안정문(安定門) 내 국자감 동쪽에 위치한 문묘의 경관, 즉 공자를 비롯해 제자들을 모신 공간을 이필성이 계화기법으로 그린 것임
3. 담청색 회공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의 안료가 떨어진 곳들이 있음
4. 결겹선 중앙의 하단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td>
</tr>
<tr>
<td> 
9. <이륜당도(彝倫堂圖)>, 46.0×55.1cm</td>
<td>1. 오른쪽 상단에 '이륜당도(彝倫堂圖)'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음
2. 이륜당은 중국 황제의 강학 공간으로 우리나라의 명륜당에 해당되며, 이필성이 그린 것임
3. 담청색 회공 부분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다수 떨어짐
4. 결겹선 중앙 하단의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td>
</tr>
</table>

<table>
<tr>
<td> 
10. 〈선사묘전내급동서위차지도(先師廟殿內及東西位次之圖)〉, 46.0×55.1cm</td>
<td>1. 선사묘전(先師廟殿), 즉 문묘의 정전 안에 공자를 중심으로 안자·증자와 증가·맹자 등이 각각 동서로 나뉘어 위패가 안치된 것을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排班圖)임
2. '선사묘전내급동서위차지도(先師廟殿內及東西位次之圖)'라는 제목이 세로 1cm의 공간에 해서체로 적혀 있음
3. 회장의 담청색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져 있음
4. 절접선 중앙 하단의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td>
</tr>
<tr>
<td> 
11. 〈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崇聖祀正位及配享位次之圖)〉, 46.1×55.2cm</td>
<td>1. 숭성사(崇聖祀)는 유교 성현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나라의 계성사(啓聖祠)에 해당되며, 제향하는 위패의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임
2. '숭성사사정위급배정위차지도(崇聖祀正位及配享位次之圖)'라는 제목이 세로 1cm의 공간에 해서체로 적혀 있음
3. 담청색 회장이 반복적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진 곳들이 있음
4. 절접선 중앙의 상단과 하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td>
</tr>
<tr>
<td>
12. 문묘(文廟) 발문, 46.1×55.2cm</td>
<td>1. 문묘의 정전인 선사묘전을 비롯해 이룬당, 숭성사의 위치와 구조, 내부의 제향되는 선현들이 조선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정리 기록한 발문임
2. 글씨는 안건경 서풍을 계승한 해서체임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져 있음
4. 절접선 중앙의 하단 좌우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td>
</tr>
</table>

12. 문묘(文廟)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

文廟, 在燕京安定門內國子監之東. 正殿七楹, 題曰'先師廟'. 東西兩廡各十九楹, 又祭器庫在東, 樂器庫在西. 碑亭列丹墀中, 前爲廟門, 卽列置石鼓之戟門. 皇明後歷科進士題名碑列廟門外, 旁爲持敬門, 殿後有崇聖祠, 卽啓聖廟也. 殿西北有彝倫堂, 卽明倫堂也. 堂左右有繩愆·博士二廳及率性·修道·誠心·正誼·崇志·廣業六堂. 文廟及彝倫堂之制, 依樣繪畵以進. 文廟殿內與東西廡位次及崇聖祠位次, 亦作圖幷附焉. 曾於我 國陞配六賢之時, 聞彼已先之矣. 今見殿內從享十哲外, 只以有子及朱子陞配, 而周·程·張·邵五賢, 則依舊在東西廡, 始知前聞之差爽也. 先聖五代之追封王爵幷享崇聖祠, 在雍正癸卯云. 周·程·張四賢, 尙在廡享, 而乃以其考配于崇聖祠, 蔡九峯旣稱先儒, 視四賢又有差等, 而西山亦與焉. 皆未可曉也. 學制享祀, 修擧頗勤. 然位版題字之旁, 必以淸書註之, 且奉籩豆而考筍簴者, 皆抹額·左衽之類, 則先聖先賢, 其肯顧饗於斯耶? 瞻望殿陛, 不覺長吁而已.

문묘(文廟)는 연경 안정문(安定門) 안쪽 국자감(國子監)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전(正殿)은 기둥이 7개[楹]이며 '선사묘(先師廟)'라고 제(題)하였습니다. 동서 양무(兩廡)는 각각 기둥이 19개입니다. 또한 제기고(祭器庫)는 동쪽에, 악기고(樂器庫)는 서쪽에 있습니다. 비정(碑亭)들은 단지(丹墀) 가운데에 줄지어 있습니다. 앞은 묘문(廟門)이니, 즉 석고(石鼓)들을 줄지어 배치한 극문(戟門)입니다. 명나라 이후 역과진사제명비(歷科進士題名碑)들이 묘문(廟門) 바깥에 줄지어 있습니다. 옆은 지경문(持敬門)이고, 전(殿) 뒤편으로 숭성사(崇聖祠)가 있으니, 즉 계성묘(啓聖廟)입니다. 전(殿)의 서북쪽에 이륜당(彝倫堂) 즉 명륜당(明倫堂)이 있습니다. 이륜당 좌우에는 승건청(繩愆廳)과 박사청(博士廳)의 2청 및 솔성당(率性堂)·수도당(修道堂)·성심당(誠心堂)·정의당(正誼堂)·숭지당(崇志堂)·광업당(廣業堂)의 6당(堂)이 있습니다. 문묘와 이륜당의 모습을 양식에 따라 그려 바칩니다. 문묘전 안과 동서 양무의 위차(位次) 및 숭성사의 위차 또한 그림을 그려서 함께 첨부합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육현(六賢)을 추숭해 배치할 때 중국인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전(殿) 내부를 살펴보니 십철(十哲)을 종향(從享)한 외에는 다만 유자(有子)와 주자(朱子)만을 추숭 배치하고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장재(張載)·소옹(邵雍)의 육현은 옛 그대로 동서무에 있어서 (선사묘)전에 배치했다고 들었던 것이 착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성(先聖)의 오대(五代)에게 왕작(王爵)을 추봉(追封)하고, 숭성사에 제향(祭享)한 것은 1723년(雍正 1, 癸卯)부터라고 합니다. 주돈이·정호·정이·장재의 사현(四賢)은 여전히 무(廡)에서 제향하지만 곧 그들의 고(考)를 숭성사에 배향(配享)하였고, 채구봉(蔡九峯)은 이미 선유(先儒)라 칭(稱)하였으나 사현(四賢)에 비해 차등이 있으며, 서산(西山) 역시 그러합니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학교 제도에서 향사(享祀)는 수거(修擧)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판(位版)의 제자(題字) 옆에는 반드시 청서(淸書)로 주석을 달았고, 변두(籩豆)를 받들고 순거(筍簴)를 살피는 자들은 모두 말액(抹額)과 좌임(左衽)의 류(類)이니 선성(先聖)과 선현들이 어찌 즐겨 고향(顧饗)하겠는지요? 전폐(殿陛)를 우러러보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길게 탄식이 나올 따름이었습니다.

13. 〈석고배치도(石鼓排置圖)〉, 46.0×55.2cm

1. 화면 오른쪽 상단에 '석고배치도(石鼓排置圖)'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음
2. 문묘의 극문(戟門) 안쪽에 단 위에 놓여 있는 석고 10개와 이들 근거로 음훈(音訓)을 고증한 내용을 검은색 돌에 새긴 것까지 그린 것이며, 검은색 돌의 하단에는 '음훈(音訓)'이라 적혀 있음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의 안료가 벗겨져 있음
4. 결접선 중앙 하단 좌우의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14. 석고(石鼓) 발문, 45.8×5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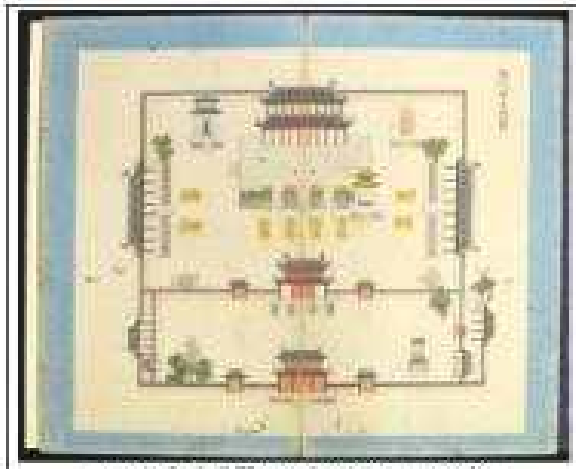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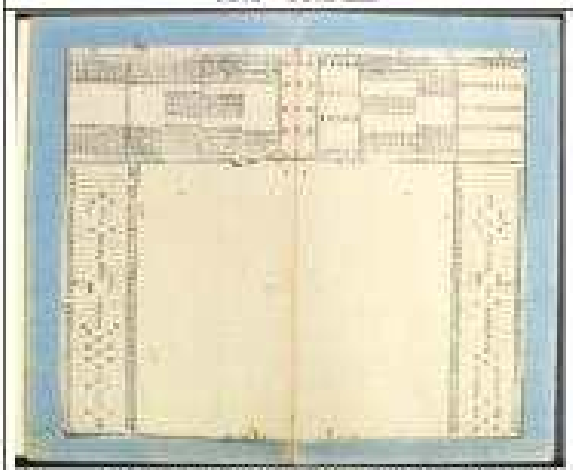
1. 석고(石鼓)의 연원과 전래 경위, 음훈(音訓)에 관한 내용을 정리 기록한 발문임
2. 글씨는 안진경의 서풍을 계승한 해서체임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져 있음
4. 결접선 중앙 하단의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14. 석고(石鼓)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

石鼓, 世傳爲周宣王大蒐時作也. 鼓凡十. 唐鄭餘慶運置縣學, 而亾其一, 宋皇祐閒得之民閒斷爲臼者而後十數乃全, 卽韓愈蘇軾所歌咏者也. 金人輦至燕京, 棄泥土中, 元虞集移置 文廟戟門之內, 東西各五. 潘迪·歐陽玄·黃溍等, 攷正音訓刻石, 幷列於鼓旁, 頃日 聖敎及此, 故臣躬詣目覩, 榻印一本以來, 從當粧潢以進, 而先寫其排置形止以備 乙覽. 此係姬周舊物, 閱歷灰劫, 轉輸遷移, 而猶能宛然獨存於二千餘年之後, 摩挲往蹟, 誠不勝金仙銅駝之感也.

석고(石鼓)는 세상에 전하기를 주(周)나라 선왕(宣王, 재위, B.C. 827-B.C. 782)이 사냥할 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고(鼓)는 모두 10개입니다. 당(唐)나라 정여경(鄭餘慶, 745-820)이 현학(縣學)에 옮겨 두었는데 그 중 1개를 망실하였습니다. 송(宋)나라 황우연간(皇祐 1049-1054)에 민간에서 잘라 절구로 만든 것을 찾으면서 10개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유(韓愈, 768-824)와 소식(蘇軾, 1037-1101)이 노래를 지어 읊은 것입니다. 금(金)나라 사람이 수레로 연경에 가져와 진흙에 버렸고, 원(元)나라 우집(虞集, 1272-1348)이 그것을 문묘 극문(戟門) 안에 옮겨 두니 동쪽과 서쪽에 각각 5개씩입니다. 반적(潘迪),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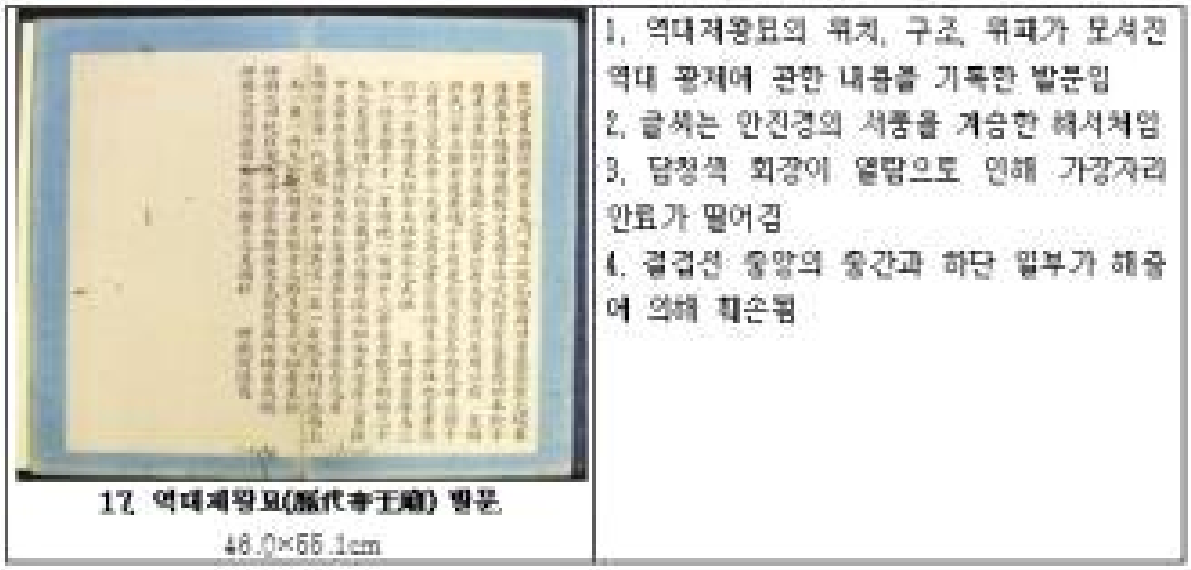
양현(歐陽玄, 1283-1358), 황진(黃溍, 1277-1357) 등이 음훈(音訓) 고정(攷正)한 것을 돌에 새겨 석고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최근에야 성교(聖敎)가 여기에 미쳤으므로 신(臣)이 몸소 나아가 목도하고 1본을 탁본하여 가져 왔습니다. 마땅히 장황(粧潢)하여 바쳐야 하겠으나 먼저 배치된 상태를 그려서 을람(乙覽)에 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희주(姬周)의 옛 물건으로 오랫 동안 열람하고 전수(轉輸)와 천이(遷移)를 하였으나 오히려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온전히 독존(獨存)할 수 있으니, 지난 자취를 상세히 살피며 진실로 금선(金仙)과 동타(銅駝)가 주는 감흥을 이길 수 없습니다.

<table>
<tr>
<td> 
15. <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 45.8×55.0cm</td>
<td>1.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음
2. 북경 부성문 안쪽에 위치한 역대제왕묘의 모습을 이뜰정이 계화기법으로 그림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훼손되어 있음
4. 절첩선 중앙 하단의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td>
</tr>
<tr>
<td> 
16. <역대제왕묘위차지도(歷代帝王廟位次之圖)>, 46.2×55.4cm</td>
<td>1. 역대제왕묘의 내부에 모셔진 역대 제왕들의 위패 순서를 인쇄한 목판본을 활용한 배반도임
2. '역대제왕묘위차지도(歷代帝王廟位次之圖)'라는 표제(標題)가 세로 1cm로 구획된 공간에 해서체로 적혀 있고, 나머지는 목판본임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짐
4. 절첩선 중앙 하단의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td>
</tr>
</table>

17. 역대제왕묘(歷代帝王廟)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

歷代帝王廟, 在燕京阜成門內. 正殿九楹, 扁曰'景德崇聖之殿', 東西廡各七楹. 謹繪廟制以進. 廟享位次, 則譯官邊憲得印本於守廟者以來, 故附其後. 廟之設, 肇於唐天寶, 而只及周以前. 皇明洪武六年, 立廟金陵, 嘉靖十年, 移建於燕京, 翌年親祀時止祭十六君, 乃三皇五帝, 三王,

漢之高光, 唐宗, 宋祖及元世祖也. 至康熙六十一年, 增遼太祖, 金太祖世宗, 元太祖, 皇明高皇帝, 爲二十一位. 至雍正十一年, 增祀一百四十三帝. 名臣配享, 則始三十九人, 至是增四十人. 位次載在印圖, 可按而知. 其次序, 三皇在中, 五帝在左, 夏商在右, 周在左, 漢唐在右, 宋遼金在左, 元及皇明在右. 每一代第一位在中, 而其次一左一右配享, 則以北爲上而一東一西. 凡於歷朝君臣取舍之際, 多有不可知者, 至於神廟之四紀在宥, 德溥功崇, 而獨漏焉. 豈自其滿洲時常仇視 神廟之征討故耶! 然此時廟享之見漏, 在神廟何損焉.



역대제왕묘(歷代帝王廟)는 연경 부성문(阜成門) 안에 있습니다. 정전(正殿)은 기둥이 9개[楹]이며, 편(扁)은 '경덕숭성지전(景德崇聖之殿)'이라 하였습니다. 동서 무는 각각 기둥이 7개입니다. 삼가 묘제를 그려 바칩니다. 묘향(廟享)의 위차(位次)는 역관 변헌(邊憲, 1707-?)이 묘(廟)를 지키는 자에게서 인본(印本)을 얻어 왔기에 그 뒤에 첨부합니다. 묘의 설립은 당나라 천보연간(天寶, 742-756)에 시작되어 주(周)나라 이전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명나라 1373년(洪武 6) 금릉(金陵)에 묘를 세웠고, 1531년(嘉靖 10)에 연경으로 이건(移建)하였습니다. 다음해에 황제가 직접 제사할 때 16군(君) 제사에 그쳤으니, 곧 삼황과 오제, 삼왕(三王), 그리고 한(漢)나라의 고종와 광무제, 당나라 태종, 송나라 태조 및 원나라 세조입니다. 1722년(康熙 61)에 이르러 요나라 태조와 금나라 태조와 세종, 원나라의 태조, 그리고 명나라 고황제(高皇帝)를 더하여 21위(位)가 되었습니다. 1733년(雍正 11)부터 143제(帝)로 늘려 제사하였습니다. 명신(名臣) 배향(配享)이 처음에는 39명이었으나, 이에 이르러 40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차는 인도(印圖)에 실려 있으며 그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황이 중앙에, 오제는 왼쪽에 있고 하(夏)·상(商)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周)는 왼쪽에 있고 한(漢)·당(唐)은 오른쪽에 있으며, 송(宋)·요(遼)·금(金)은 왼쪽에 있고 원(元)과 황명(皇明)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매번 1대(代)에서 제1위는 중앙에 있으며 그 다음부터는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배향하였으니, 북쪽을 위로 하여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배치한 것입니다. 무릇 역대 왕조의 군신(君臣) 취사(取捨)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48년간 인정(仁政)을 펼친 신묘(神廟)에 이르러서는 덕(德)이 광대하고 공(功)이 높았으나 혼자 누락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만주에 있을 때부터 신묘(神廟)가 정벌한 것을 항시 원수로 여긴 때문인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역대제왕묘의 제사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신묘(神廟)에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18. <산해관도(山海關圖)>, 46.0×55.3cm

1.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산해관도(山海關圖)'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음
2.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자리한 군사적 요충지인 산해관의 성곽 안쪽 모습을 수행화원 이필성이 그린 것임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져 있음
4. 절첩선 중앙의 중간과 하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19. <산해관도(山海關圖)>, 46.4×5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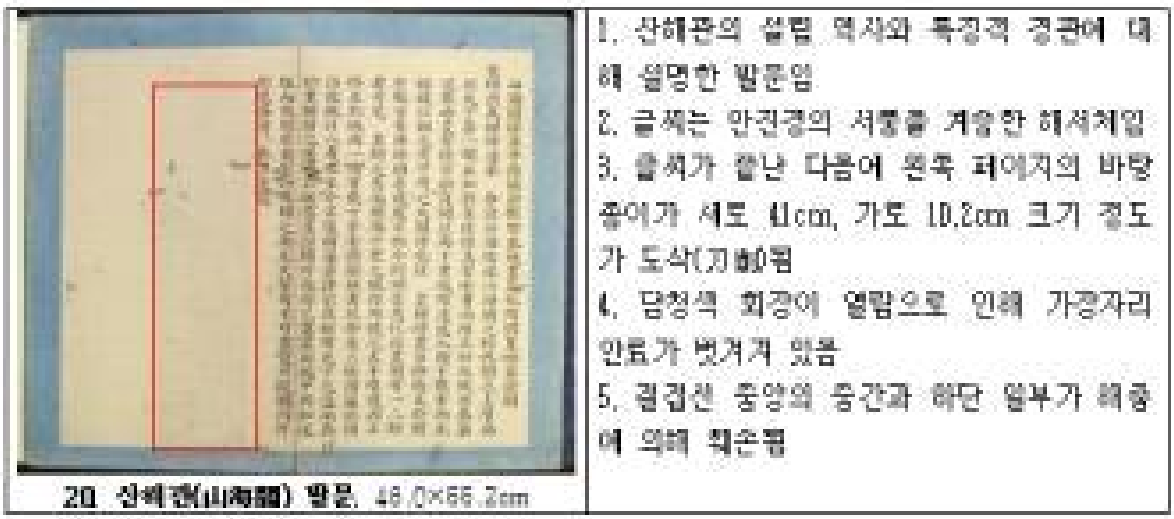
1. 화면의 왼쪽 상단에 '산해관도(山海關圖)'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음
2. 수행화원 이필성이 산해관 성벽의 남쪽 방면을 바깥에서 부감시로 포착해 그린 것이며, 왼쪽의 훼손된 성벽은 오삼계(吳三桂, 1612-1678)가 청군이 북경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무너뜨린 곳을 사생하듯 그대로 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함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훼손됨
4. 절첩선 중앙의 중단과 하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20. 산해관(山海關)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

山海關, 在永平府臨渝縣, 卽秦城盡處也. 隋開皇時築渝關, 皇明洪武初, 徐達承命設山海衛, 此山海關之始也. 關之上層, 扁以'天下第一關', 未知誰筆, 世傳爲李斯書, 而殊不知此城非秦築. 况秦時豈有楷字耶? 自關以南十里, 城堞逶迤, 入海十數步而止, 鎔鐵以錮之, 實中州之大關防也. 在皇朝時盡力修飭, 又於關外數百里, 羅絡烟臺, 戒嚴不弛. 今則烟臺崩圮殆盡, 閒有一二餘者, 可見皇朝之舊. 而關南十里之城, 自內視之, 太半壞毁而不修, 至於城南一角, 有數十步全體虧缺者, 此卽吳三桂請援於順治, 毁城引入者也. 至今不復補築. 若誇示其始有天下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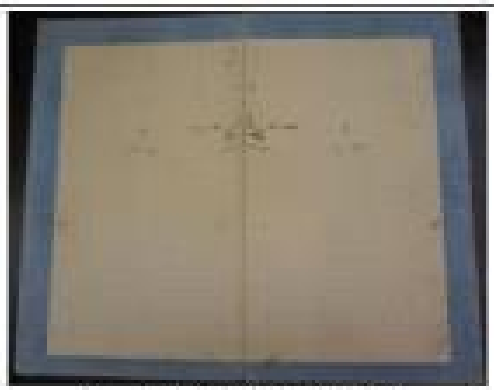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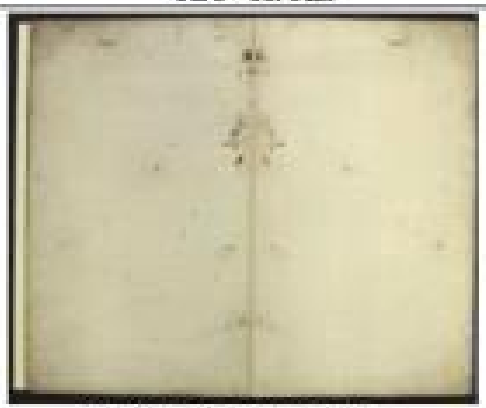
迹, 而其於重關防之道, 略不致意, 豈以關外爲自己窩窟, 而視中州如逆旅而然耶? 有未可知也. 關之南北大勢, 有不可盡寫, 只從關內外所見, 各繪一本以進焉.

산해관은(山海關)은 영평부(永平府) 임투현(臨渝縣)에 있으니, 즉 진성(秦城)이 다한 곳입니다. 수(隋)나라 개황연간(開皇, 581-600)에 투관(渝館)을 건립하였습니다. 명(明)나라 홍무연간(洪武, 1368-1398) 초에 서달(徐達, 1332-1385)이 황명을 받들어 산해위(山海衛)를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산해관의 시작입니다. 관(關) 꼭대기에는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는 편액이 있습니다. 누구 글씨인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사(李斯, B.C. 284?-B.C. 208)의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성(城)이 진(秦)나라가 건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진나라 때 어찌 해자체(楷字體)가 있었겠습니까? 관(關)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里)에 걸친 성첩(城堞)이 구불구불 이어져 바다로 수십 보(步) 들어가 그치고 용철(鎔鐵)로 그것을 견고하게 하였으니, 실로 중주(中州)의 대관방(大關防)입니다. 명나라[皇朝] 때 힘을 다하여 정비[修飭]하였습니다. 또한 관(關) 바깥 수백 리에 걸쳐 연대(烟臺)를 설치하여 경계를 엄하게 하니 해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연대가 거의 무너졌지만, 간간이 한두 개가 남아있어 명나라 당시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관(關) 남쪽 10리 성(城)은 안에서 보면 태반이 허물어지고 훼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았고, 성(城) 남쪽 한 모퉁이에 이르면 수십 보(步) 전체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삼계(吳三桂, 1612-1678)가 순치(順治)에게 구원을 청하며 성을 헐고 끌어들인 곳으로, 지금까지 다시 쌓지 않았으니 마치 처음 천하를 가지게 된 사적을 과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방(關防)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소략하여 뜻을 다하지 않은 것이니, 아마도 관외(關外)를 자기들의 영역[窩窟]이라 여기고, 중주(中州)는 여행자가 머무는 곳[逆旅]과 같이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關)의 남북에 걸친 모든 형세는 모두 그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관(關) 내외에서 본 바를 각각 1본씩 그려 바칩니다.



20 산해관(山海關) 발문, 48.0×66.2cm

- 《연행도첩》은 총 44면으로 어필 1점을 포함해 <심관구지도>·<문묘도>·<이륜당도>·<석고배치도>·<역대제왕묘도>·<산해관도내>·<산해관도외>의 그림 7점, 그림에 관한 경위나 내용을 기록한 발문[圖說] 5점, <선사묘전내급동서무위차지도>·<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역대제왕묘위차지도>처럼 위패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排班圖) 3점으로 총 16점임
- 전반적으로 화첩의 절접선을 중심으로 해충에 의해 일부가 훼손되었지만, 그림이나 글씨의 수준이 높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내용을 살피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21. 담청색 회장이 된 여백, 52.9×63.4cm	1. 흰 여백으로 회장한 담청색으로 칠함 2. 담청색 회장의 열탈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떨어져 나감 3. 절접선 중앙의 상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22. 흰 여백, 52.9×63.4cm	1. 첫 표지 직전 페이지로 흰 여백이며, 절접선의 상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2. 화면 전반에 오염이 보이며, 특히 네 모서리 부분이 심함
 23. 표제(위) 52.9×31.9cm	1. 겉면 표지도 청록색 능화지이며, 오랜 시간의 전세과정에서 연화문 요철이 뭉개져서 희미해진 상태임 2. 표지의 청록색이 손때로 인해 어두운 편이며, 특히 하단부의 오염이 다른 곳에 비해 심한 편임

ㅇ 내용 및 특징

- 《연행도첩》은 경진년(庚辰年), 즉 1760년 11월 2일 출발해 1761년 4월 6일 한양으로 돌아온 경진동지사행의 결과를 영조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면서 어필이 포함된 보기 드문 사례로 주목됨
- "一 瀋館 誕降舊址/ 一 帝王廟位次/ 一 太學 大成殿 明倫堂 石鼓/ 一 山海關門(內外)"라고 적은 **<영조 어필>(1점)**은 화첩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목차의 성격을 지니며, 다음에 배치된 그림과 발문[圖說]은 각각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됨
- **먼저 첫 번째 영역인 <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와 발문(2점)**은 영조의 어명을 받은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심양에서 효종이 볼모로 생활하고, 현종이 태어난 심양관에 대해 탐문한 결과 당시 우리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찰원이 그 옛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의 모습과 탐문 사실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것임. 이와 함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36년 11월 2일(壬寅)조의 연행사가 하직 인사를 올릴 때, 영조가 정사 홍계희에게 "玉華關出入舊門, 世子·大君舊館, 顯廟誕降舊館"이라고 적은 어필을 내리자 반드시 그림으로 그려오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은 발문과 함께 《연행화첩》의 제작배경을 알려줌[15]
- **두 번째 영역의 <문묘도(文廟圖)>·<이륜당도(彝倫堂圖)>와 배반도 <선사묘전내급동서위차지도(先師廟殿內及東西位次之圖)>·<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崇聖祀正位及配享位次之圖)> 및 발문(5점)**은 북경에 있는 대표적 유교 공간인 문묘의 정전과 이륜당의 당시 모습 및 그 위치, 그리고 정전인 선사묘전과 숭성사에서 배향하는 선현들의 위패 위치를 배반도로 상세히 전달함. 발문에서 우리나라 문묘는 6현을 제향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중국의 상황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는 내용도 포함됨.

  <문묘도>는 최남단 건축물인 선사문과 최북단에 위치한 숭성사를 생략하고, 공자와 제자들을 모시는 문묘의 정전(正殿) 즉 선사묘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표현함. 따라서 선사묘전의 기둥 7개 중 6개만 그렸을 뿐만 아니라 극문(戟門) 입구 익랑의 동서에 배치된 석고 10점과 '석고문음훈비'가 보이지 않고, 앞 마당의 비정(碑亭) 역시 9좌(座)이지만 6좌만 그리는 등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묘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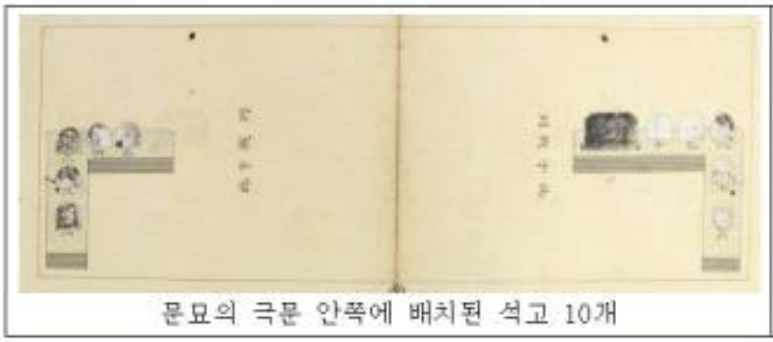
  <이륜당도>는 우리나라 명륜당에 해당하는 이륜당은 국자감 내에 위치한 황제의 강학 공간이며, 왼쪽에는 원대 국자감 제주(祭酒) 허형(許衡, 1209-1281)이 직접 심었다고 하는 홰나무[槐木]가 있고 오른쪽에는 해시계 일구(日晷)가 보임

15)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36년 11월 2일(壬寅)조. "庚辰十一月初二日辰時, 上御景賢堂. 冬至三使臣入侍時, 上使洪啓禧, 副使趙榮進, 書狀李徽中, 左承旨沈墩, 假注書金宅洙, 記事官李在簡·姜趾煥, 以次進伏. 上曰, 今番則使予聞河淸消息也. 啓禧曰, 弓角乃彼中禁物, 而不得已出來者也. 請以咨文後出來, 似好矣. 上曰, 應來之物外, 濫雜者則申飭焉. 上親筆書下玉華關出入舊門, 世子·大君舊館, 顯廟誕降舊館, 諭啓禧曰, 此數件須畫來也."

<선사묘전내급동서위차지도>는 문묘의 정전인 선사묘전 내부에 공자를 중심으로 안자·묵자와 증가·맹자 등의 위패가 동서로 모셔진 상황을 글자로 나타낸 것임

<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의 숭성사는 유교 성현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나라의 계성사(啓聖祠)에 해당되며, 제향되는 위패들의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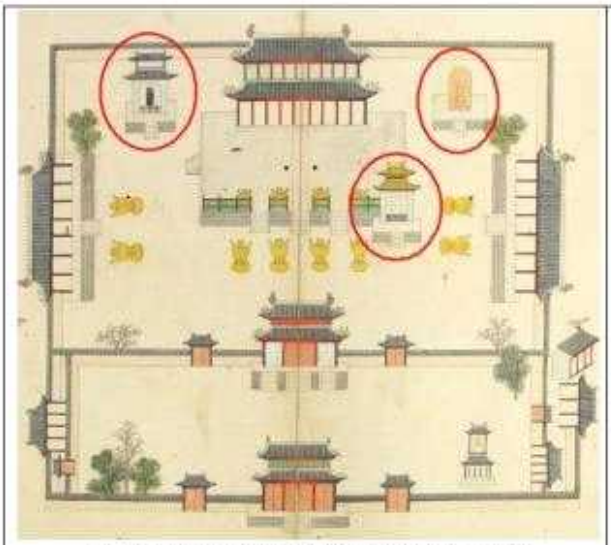
- **세 번째 <석고배치도(石鼓排置圖)>와 발문(2점)**은 문묘의 극문(戟門) 안쪽에 동서로 5개씩 나뉘어 안치된 석고와 10번째 석고 옆에 '음훈(音訓)'이라 새겨진 검은색 비석을 함께 그린 것임. '석고문음훈비(石鼓文音訓碑)'는 경진동지사행의 서장관 이휘중의 아들인 이상봉(李商鳳, 1733-1810)이 지은 『북원록(北轅錄)』에 의하면 원나라 학자 반적(潘迪) 등이 식별 가능한 석고문을 예자(隸字)로 적고 글자마다 음훈을 기록한 것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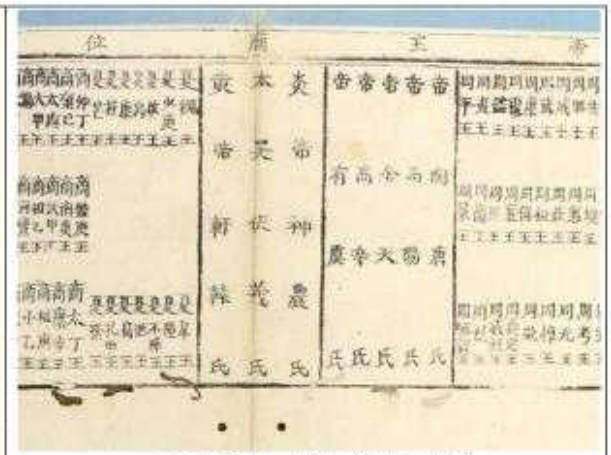
문묘의 극문 안쪽에 배치된 석고 10개

반적 등의 <석고문음훈비>

- **네 번째 <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와 배반도 <역대제왕묘위차지도(歷代帝王廟位次之圖)> 및 발문(3점)**은 역대제왕묘의 모습과 1373년 금릉에 세워진 묘가 1531년 북경으로 이건된 이후 배향하는 황제들이 늘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줌. 또한 건물 내부에 모셔진 역대제왕의 위패 위치를 나타낸 인쇄본은 역관 변헌(邊憲, 1707-?)이 중국인 묘지기에게 구해왔다는 것과 명나라 신종(神宗, 재위 1573-1620)의 위패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



<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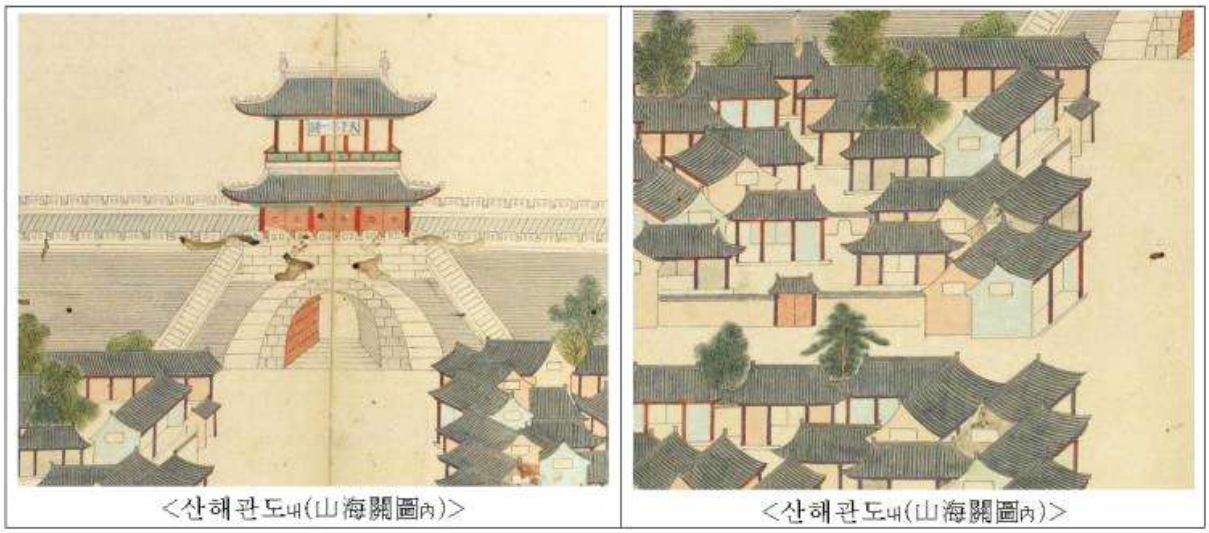


<역대제왕묘위차지도> 부분

<역대제왕묘도>에는 삼황오제와 역대 제왕의 위패를 모신 경덕숭성전(景德崇聖殿)을 중심으로 동서에 각각 동배전(東配殿, 역대 공신 40명 신위 봉안)과 서배전(西配殿, 옹정연간 이래의 공신 39명 신위 봉안)이 있고, 중앙을 가로지른 담장의 중앙에 위치한 경덕문(景德門)의 동서에 각문(角門)이 있으며, 화면의 동쪽 하단에는 제사 물품을 보관하는 신고(神庫)와 신주(神廚), 제례 희생물을 보관하는 재생정(宰牲亭)과 종루가 보임. 경덕숭정전 마당에는 청동향로 8기가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각을 중심으로 3기(基)의 비석이 있음. 동쪽에

비정(碑亭)이 없는 비석은 명나라 문인 왕립도(王立道, 1510-1547)가 가경제의 명을 받아 찬한 <신건역대제왕묘비(新建歷代帝王廟碑)>이며, 서쪽에 비정이 있는 것은 가정연간(嘉靖, 1521-1566)에 제작된 <무자비(無字碑)>이고, 동남쪽의 비정이 있는 비는 1733년 옹정제의 명으로 만한합문(滿漢合文)으로 새긴 <어제역대제왕묘문비(御製歷代帝王廟文碑)>임

- **다섯 번째 <산해관도내>·<산해관도외>와 발문(3점)**은 연행시 산해관의 실경을 기반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관을 그린 것이며, 산해관이 홍무연간(1368-1398) 황명을 받은 서달(徐達, 1332-1385)에 의해 시작된 이후 명나라 때 주요 군사시설로 연대(煙臺)가 설치되어 국경의 경계하는 주요 군사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여행자가 머무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함
<산해관도내>의 정면에 위치한 관문의 누각에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는 편액이 보이고, 성곽 내부에 즐비한 가옥으로 도시의 번성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주황색과 담청색, 회색의 미묘한 교차 사용으로 산뜻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 화원 이필성이 색채 방면에서 남다른 재능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추정됨



<산해관도내(山海關圖內)> <산해관도내(山海關圖內)>

<산해관도외>는 산해관의 성곽 남쪽 방면을 부감시(俯瞰視)로 포착한 것이며, 이때 왼쪽의 일부 성벽이 헐린 것은 오삼계(吳三桂, 1612-1678)가 청군이 북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성벽 일부를 헐어버렸던 사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임. 이로 보아 오른쪽의 험준한 산세를 청록색과 연두색으로 묘사한 부분도 실경에 기반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어 <산해관도외>는 18세기 중반의 실경산수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산해관도외(山海關圖外)> 부분 <산해관도외(山海關圖外)> 부분

- 이필성(李必成, ?-?)은 영조연간에 활동한 도화서 화원이며, 그의 행적은 1757년 인원왕후(숙종의 계비)와 정성왕후(영조의 비)의 국장도감에서 처음 확인됨. 1760년의 경진동지사행 이외에 1759년 사은주청겸삼절연공사행(謝恩奏請兼三節年貢使行)과 1765년 동지사행(冬至使行)의 수행화원으로, 1773년 부사군관(副使軍官)으로 북경을 네 차례나 다녀온 것으로 보아 그림 실력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1761년 《연행도첩》은 화원 이필성의 화풍을 알려주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음
- 《연행도첩》에 실린 그림 7점 가운데 <문묘도>·<이륜당도>·<석고배치도>·<역대제왕묘도>는 거의 부감시와 계화기법에 의존하고 특정 경물을 생략하여 간명하게 그렸으므로 이필성의 화풍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실경을 기반으로 한 <심관구지도>·<산해관도내>·<산해관도외>는 그의 실경산수화풍과 뛰어난 색채감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연행도첩》은 7점의 그림 이외에 전각 내부에 모셔진 위패의 위치를 나타낸 배반도 3점, 그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정리 기록한 발문 5점을 추가하여 그림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도 전례가 없는 형식임
- 1761년 완성된 《연행도첩》은 영조 어람을 목적으로 제작되면서 그의 어필이 포함되고, 화원 이필성이 그린 그림과 건물 내의 위패 위치를 나타낸 배반도 및 그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의 발문으로 그림의 이해를 충분히 돕는 특이한 형식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중반 실경산수화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첩임

ㅇ 문헌자료

- 『承政院日記』 영조 36년
- 李商鳳, 『北轅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韓國歷代書畵家事典』 下, 2011.
- 박은순, 「朝鮮後期 『瀋陽館圖』 畵帖과 西洋畵法」, 『美術資料』 58, 국립중앙박물관, 1997.
- 정은주, 「1760년 庚辰冬至燕行과 《瀋陽館圖帖》」, 『명청사연구』 25, 명청사학회, 2006.
- 김영죽, 「『북원록(北轅錄)』의 1760년 북경 기록: 자제군관과 동아시아 지식인 만남의 재구성」, 『대동문화연구』 90, 대동문화연구원, 2015.

ㅇ 기 타

- 전 국회도서관장 강주진(姜周鎭, 1917-1994)이 조선 말기 무신 이용희(李容熙, 1811-1878) 후손으로부터 구입 소장했다가, 강주진 사망 직후인 1995년 11월 7일 문우서림(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71)의 김영복 대표를 통해 현재 소장처인 명지대학교에서 구입함

□

Ⅰ. 현 상

ㅇ 본 작품은 종이에 수묵과 채색으로 완성된 화첩이다. 소장처의 유물 보관 내역에 따르면, 1995년 11월 명지대학교 LG 연암문고가 문우서림에서 구입했다. 화첩의 크기는 앞표지를 기준으로 세로 52.9cm, 가로 31.9cm이다. 각 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앞표지 : 크기는 세로 52.9cm, 가로 31.9cm이다.
  감색 종이로 장황된 표지는 일부 박락과 해충의 피해를 입은 상태다. 표지에 표제는 생략된 채 제첨 자리만 남아 있다. 제첨 부분의 크기는 길이 20cm, 폭 4.1cm다.
- 제1폭(1-2면) : 빈 화면이다. 절첩 부분에 대칭으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보이고, 가장자리에 얼룩이 보이는 등 일부 오염의 흔적이 있다.
- 제2폭(3-4면) : 빈 화면이다. 바탕 종이에 쪽빛을 칠한 흔적이 있다. 해충의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
- 제3폭(5-6면) : 바탕 위에 영조의 어필이 적힌 종이(43.5×54.7cm)를 붙였다. 상단 우측에 전서체로 '御筆'이, 해서체로 瀋館의 誕降旧址 / 帝王廟位次 / 太學의 大成殿, 明倫堂, 石鼓 / 山海關門(內外)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 제4폭(7-8면) : 빈 화면이다. 세로 31.9cm, 가로 27.7cm 크기의 종이를 잘라낸 흔적이 있다.
- 제5폭(9-10면) : <瀋館舊址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cm다. 그림 가장자리를 검은 필선으로 구획했고, 그림 주변에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6폭(11-12면) : 洪啓禧(1703-1771) 일행이 심양관 舊址를 찾은 경위 등 필사한 발문이다. 모든 문장은 해서체로 적혀 있다. 필사된 화면은 세로 46cm, 가로 55cm이며,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한 글자의 크기는 '國'을 기준으로 할 때 1.8×1.5cm이다.
- 제7폭(13-14면) : <文廟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5.5cm, 가로 55cm이고, 화면 가장자리의 검은 필선이 생략됐으며,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8폭(15-16면) : <彝輪堂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1cm이고, 화면 가장자리의 검은 필선이 생략됐으며,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9폭(17-18면) : <先師廟殿內及東西廡位次之圖>다. 각각의 위차가 직사각형 안에 해서체로 적혀 나열된 도설이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1cm이고, 제재의 높이는 1cm다. 화면 가장자리는 검은 필선으로 구획됐다. 위차 주변은 쪽빛 냉은지로 둘렀다. 화면 하단에 대칭으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다.
- 제10폭(19-20면) : <崇聖師祠正位及配享位次之圖>다. 각각의 위차가 직사각형 안에 해서체로 적혀서 나열된 도설이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1cm, 가로 55.2cm이고, 제재의 높이는 0.9cm다. 화면 가장자리가 검은 필선으로 구획됐다. 위차 주변은 쪽빛 냉은지로 둘렀다. 화면 하단에 대칭으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다.
- 제11폭(21-22면) : 문묘의 구성 및 문묘를 찾은 경위를 필사한 발문이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1cm, 가로 55.2cm이다. 모든 글자는 해서체로 적혀있다. 안씨 가묘비체가 활용됐다. 필사된 화면 주변에는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화면 하단에 대칭으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다.
- 제12폭(23-24면) : <石鼓配置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1cm이고, 화면 가장자리의 검은 필선이 생략됐으며,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13폭(25-26면) : 석고와 그 문장에 관한 내용을 필사한 발문이다. 그림 크기는 세로 45.8cm, 가로 55cm이다. 모든 글자는 해서체로 적혀있다. 안

씨 가묘비체가 활용됐다. 필사된 화면 주변에는 쪽빛 냉은지가 둘러져 있다. 화면 하단에 대칭으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다.

- 제14폭(27-28면) : <歷代帝王廟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5.8cm, 가로 55cm이고, 화면 가장자리의 검은 필선이 생략됐으며,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15폭(29-30면) : <歷代帝王廟位次之圖>다. 화면 상단의 제재는 필사됐으나 나머지 위차는 모두 목판으로 찍은 도설이다. 모든 글씨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5.8cm, 가로 55cm이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16폭(31-32면) : 역대제왕묘도에 관한 내용을 적은 발문이다. 모든 글씨는 해서체로 적혀 있는데, 문장의 마지막 글자인 '焉'자만 행서체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1cm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17폭(33-34면) : <山海關圖(內)>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3cm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18폭(35-36면) : <山海關圖(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4cm, 가로 55.4cm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19폭(37-38면) : 산해관과 산해관도에 관한 내용을 적은 발문이다. 모든 글씨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2cm다. 좌측 화면에 길이 41cm, 폭 10.2cm 크기로 바탕지를 오려낸 자국이 있다. 가지런한 필사를 위해 바탕이 표시한 제선(못자국)이 남아 있는데, 제선 한 칸의 폭은 2.8cm이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곳곳에 해충의 피해 흔적이 있다.
- 제20폭(39-40면) : 빈 화면이다. 크기는 세로 45.9cm, 가로 55cm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21폭(41-42면) : 빈 화면이다.
- 뒷표지

Ⅱ. 조사 내용

○ 《庚辰年 燕行圖帖》의 구성

1. 1폭의 어필 : 영조가 사신들에게 써준 목록
2. 5폭의 발문 : 화첩의 제작 경위 및 각 그림에 대한 부언 설명(별첨 참조)
3. 7폭의 그림 :

① <瀋館舊址圖>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일행이 머물렀던 심관구지이자 1641년 2월 4일 심

양관에서 태어난 현종의 탄강구지를 그린 그림이다. 1684년에 간행된『盛京通志』에 따르면 심양관의 대문은 3칸으로 남향이고 문을 들어서면 5칸의 정방과 동서 양측에 5칸씩의 廂房이 있었다. 1736년에 찬수된『盛京通志』에 따르면, 이 무렵에는 이미 방 6칸이 무너졌다. 선학의 연구는 이 그림에 표현된 심관구지가 심양관이 아닌 찰원의 모습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文廟圖>

문묘를 그린 장면이다. 제11폭(21-22면)의 발문에는 문묘의 위치, 구조에 관한 설명이적혀 있다. 그림에서는 최남단의 선사문과 최북단의 숭성사가 생략됐다. 묘문을 들어서면 동쪽의 神廚, 宰特亭, 井亭과 서쪽의 神庫, 致齋所, 國子監과 持敬門이 칸수로 구분되어 있다. 선사묘는 정면 7칸 구조로 중층 처마가 드리워진 중국 최고급의 廡殿亭 형식의 건물이다. 선사묘 양 옆으로 동무와 서무가 배치됐고, 그 앞에 나무가 늘어섰으며, 비정이 각각 3좌씩 세워졌다. 조선시대 궁궐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동시점이 활용됐다. 이동시점이란 전각의 향배와 방위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사른 시점을 혼용한 표현 방식이다. 특히 이는 부감시점과 병용된다. 선사묘의 황색 지붕 기와, 적색의 2층 목구조, 녹색의 난간이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 비정 속에 배치된 비석에는 호분이 사용됐다.

③ <彝輪堂圖>

국자감 내부에 위치한 이륜당을 그린 장면이다. 제11폭(21-22면)의 발문에는 이륜당의 배치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륜당은 본래 황제의 강학처였다. 그러나 이륜당 앞에 벽옹이 생긴 이후부터 장서를 보관하는 곳으로 기능했다. 앞서 언급한 이동시점형 궁궐도 양식이 활용됐다. 주조색인 군청이 전나무의 녹색과 어우러져 담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④ <石鼓配置圖>

문묘의 묘문 좌우의 문 앞에 戟門 동서에 각각 5점 씩 총 10점의 주대 석고가 배열됐고, 그 동쪽 끝에 국자감 司業이었던 惸山 潘迪 석고문음훈비를 도해했다. 기록에 따르면 석고의 높이 3척, 직경 2척 정도의 북처럼 생긴 돌이며 빛깔은 담흑색인데 이리저리 깎여 얼룩이 남아져 있다. 그림에도 이러한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제13폭 발문에는 사신 일행이 석고에 새겨진 음훈을 직접 눈으로 본 뒤, 1본을 탑본하여 귀국해서

장황하여 바쳤고, 그 배치형을 그려왔다고 기록되어있는 데 이 그림이 그 배치본에 해당된다.

⑤ <歷代帝王廟圖>

연경 장성문 안에 위치한 역대제왕묘의 正殿을 그린 것이다. 당시 역대제왕묘의 정전은 九殿이었고, 동서의 전각은 각각 7楹이었다. 다소 많은 전각과 향로 내외정을 조선시대 궁궐화에서 쉽게 목격되는 이동시점형 부감법으로 표현했다. 정돈된 구도에 주색, 대저, 등황, 백록, 청록, 연백 등의 색상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화면에 생동감을 더했다. 제16폭에 역대제왕묘의 구조가 자세하게 적혀 있다.

⑥ <山海關圖(內)>

중국 만리장성 동쪽 관문인 산해관성 내외에서 바라본 경관을 표현한 장면으로, 심양관과 산해관을 방문하지 못한 영조에게 그곳의 경관을 알려주기 위해 포함됐다. 화첩 발문에 “산해관 남북의 대세를 다 그릴 수 없어 산해관 안과 밖에서 본 광경을 각각 한 본씩 그려 바쳤다”고 적혀 있다. 산해관내 경관은 화면 2/3정도까지 가득 채워져 있다. 특히 빽빽하게 들어선 가옥들은 평행사선형 투시도법으로 표현됐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록색의 나무들이 배치되어 거리감을 부여하고 있다. 누각의 현판에는 “天下第一門”이라고 적혀있다.

⑦ <山海關圖(外)>

산해 관문과 성벽을 관문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렸다. 동쪽 성류 옆에 부서진 채 방치된 성벽이 있는데, 발문에 “관의 남으로 10리의 성 안에서 그것을 보면 태반이 훼손됐으나 수리하지 않았고 성 남쪽 한 편에 이르면 수 십보 전체가 훼손된 것이 있다. 이는 吳三桂(1612-1678)가 순치 황제에게 구원을 청하여 성을 헐고 들어간 것인데 지금까지 다시 보축하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관문과 성곽의 사실적인 표현과 달리 성문 앞의 정경은 다소 생략됐다. 물가를 따라 수양버들이 연이에 표현되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낸 반면, 관문은 웅장하게 표현되어 물가 표현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건물 묘사에서 서양화법이 일부 도입되어 명암과 입체감이 드러난다.

4. 3폭의 도설 :

① <先師廟殿內及東西位次之圖>

선사묘 내부에 향사된 신위를 표시한 도설이다. 먼저 '至聖先師孔子之位'라는 공자의 신위가 주향했고, 안회 자사 증삼 맹자 등 사배가 배향했으며, 동무과 서무에 성현 12철이 종향했다.

② <崇聖師社正位及配享位次之圖>

1530년 공자 오대 선조의 가묘로 건립된 숭성사의 전당 내부를 도해한 도설이다.

③ <歷代帝王廟位次之圖>

역대 제왕묘의 정전인 경덕숭성전 7실에 중국의 역대 제왕과 동서배전에 공신의 신주 순서를 도면으로 기록한 도설이다.

○《庚辰年 燕行圖帖》의 제작 배경 및 사료적 가치

홍계희를 정사로 한 경진동지사절단이 영조에게 그려 바친 화첩이다. 이 화첩이 제작된 경위는『승정원일기』영조 36년 11월 2일조에 적혀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760년 11월 영조는 경현당에서 정사 홍계희 이하 동지 삼사를 인견하여 심양의 조선관 출입을 지시하면서 소현세자와 봉림 대군이 기거하던 구관, 현종이 탄강한 구관 등을 그려오라고 친필로 하명했다.

병자호란 이후 17세기 초, 조선과 청의 민감한 대외 관계 속에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머물던 심양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청이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삼학사 이하의 관원 180명을 인질로 삼아 청의 수도 심양으로 압송했고, 이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일행이 만 8년간 심양 조선관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현종은 봉림대군이 당시 유폐됐던 심양관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영조에게 심양관은 효종과 현종 양대 선조가 겪은 고난과 청에 대한 모욕감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영조는 현종 탄강 1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홍계희에게 심양관 방문을 지시한 것이다.

홍계희 일행이 심양관을 찾았을 때 이미 옛 자취는 사라졌고 당시 덕성문 내 동쪽 첫 번째 거리에 있는 찰원이 과거 심양관의 구지임을 파악했다. 이미 오래 전에 찰원의 중수가 마무리되어 과거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홍계희 일행은 변함없는 위치에 중수된 찰원의 모습을 그려 영조의 뜻에 부응했던 것이다.

『北轅錄』에 의하면 홍계희 일행은 1761년 2월 29일에 심양에 들어가 찰원을 지났다. 화첩에도 현종이 탄강한 지 120년 후인 1761년 2월 심양관 옛터를 다시 찾았다는 내용이 있어『북원록』의 기록을 뒷받침할뿐더러 이 화첩의 제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 《庚辰年 燕行圖帖》 그림의 필자

이 화첩에 수록된 그림의 필자는 화원 이필성으로 판단된다. 『북원록』에 의하면 화원 이필성은 折衝將軍의 직책으로 동지사행에 동참했다. 절충장군은 정3품의 당상관 서반직인데 화원에게는 이례적으로 부여된 직책이었다. 그는 1757년 인원왕후와 정성왕후의 국장도감의궤에도 참여했고, 1759년과 1762년 영조 정순왕후와 정조 효의왕후의 가례도감의궤 제작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 화첩을 그린 화원은 홍계희 동지사 일행이 연행 시 대동했던 이필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庚辰年 燕行圖帖》의 미술사적 의의

이 화첩에 수록된 그림은 크게 산수를 중심으로 한 실경산수화와, 건물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기록한 궁궐도로 나눌 수 있다. 조선왕실의 궁궐도에서 목격되는 이동시점형 부감법과, 새로운 계화의 화법인 평행사선형 투시도법이 동시에 사용됐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서양 원근투시도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형한 방식이다. 채색 사용에 있어서도 18세기 중반 궁중기록화에서만 볼 수 있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옥색이 사용되어 궁중회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현 학계에서 유통되는 이 화첩의 작품명은 《瀋陽館圖帖》, 《燕行圖帖》 등 다양하다. 《瀋陽館圖帖》의 경우, 심양관 장면이 <瀋館舊址圖> 한 폭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燕行圖帖》의 경우, 타 연행도첩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첩은 경진 동지사행에 관한 시각적 기록이므로, 《庚辰年 燕行圖帖》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별첨_ 화첩에 수록된 발문과 번역문

· 제6폭(11-12면)

臣於 陛辭之日, 伏承瀋 館舊址審察之 命, 臣去來之路, 留心訪問, 而天星累周, 棟宇累易, 百年往事, 漠然無徵. 而以諸譯所傳揆之, 則要不出於見今本國使行所留察院之址也. 故相臣金昌集使燕時, 其弟敎官臣昌業隨之, 其『日錄』言“故通官金四傑之母, 曾在館底, 常言此乃丁丑後 朝鮮質子所接之家, 世子館則今衙門是其地云.” 衙門, 卽察院也, 此可見察院之爲其時舊址. 且聞臣行所帶首譯李挺熽之言, 挺熽曾祖同知翊臣, 與故郡守金孝純爲友壻, 孝純無子, 以挺熽祖萬戶明錫爲侍養子, 奉其祀, 挺熽有得之於家閒傳說者矣. 丁丑冬, 孝純因販賣入瀋留住 館門墻外, 夜寒不能寐, 偶發謳歌. 孝廟使人問之, 卽招至, 見其身手之好, 且聞其爲武種, 仍令留侍左右, 遂與八壯士之列. 挺熽父宇芳爲

譯舌, 孝純臨老每謂宇芳曰“汝於燕行, 必過瀋陽矣. 南門內東邊第一衖, 卽故瀋館遺址, 汝其識之”, 仍泣說當時事云. 卽今察院, 在德盛門<南之左門>內東邊第一衖, 以此推之, 察院之爲其時舊址益明矣. 聞察院之重修, 在十數年前, 見在屋制, 雖無關於故蹟, 而其坐地, 旣係舊　館所在, 故謹畵察院一本以進. 仍伏念我 孝廟淹恤于斯, 險阻艱難, 亦旣備嘗, 我　顯廟誕降于斯, 靈光休瑞, 若有不偶, 而　先王之志事未遂, 人閒之歲月頻更. 顧臣等於百二十年之後, 乃以辛巳二月復過此地, 俯仰歔欷, 百感交集, 不知所以爲懷也.

臣이 임금님을 뵈옵고 조정을 떠나 使行을 가던 날에 엎드려 삼가 瀋館의 舊址를 자세히 살피라는 命을 받들었습니다. 臣은 왕래하는 길에 유념하여 찾아가서 물었습니다만 세월이 오래되어 건물도 누차 바뀌었고, 백 여 년 전의 일이라 漠然하여 徵驗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譯官들이 전하는 바로 살펴보면, 요컨대 현재 本國의 使行이 머무는 察院의 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옛 相臣 金昌集(1648-1722)이 燕京으로 使行을 갔을 때 그의 아우 金昌業(1658-1721)이 子弟敎官으로 수행하였는데, 그『日錄』에 “ 옛 通官 金四傑의 어미가 일찍이 이 館에 살면서 늘 말하기를 ‘이곳이 곧 丁丑(1637년) 후 조선의 인질들이 거처하던 곳이며, 世子館은 지금의 衙門이 그곳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衙門은 곧 察院이니, 이를 통해 察院이 그 당시(심관)의 舊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臣 使行의 首譯인 李挺熹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李挺熹의 증조부인 同知 李翊臣과 옛 郡守 金孝純은 友壻로서, 金孝順이 아들이 없자 李挺熹의 祖父인 萬戶 李明錫을 侍養子로 삼아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李挺熹는 그 집안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즉 丁丑年 겨울 金孝純이 장사 차 瀋陽에 들어가 館門 담장 밖에서 머물렀을 때, 밤의 寒氣로 잠을 이룰 수 없어 우연히 謳歌를 불렀는데 孝廟께서 사람을 시켜 물어보시고 곧 불러들여 그가 身手가 좋음을 보시고 또 그가 武種임을 들으시고는 발탁해 좌우에서 侍衛하게 하니 드디어 八壯士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李挺熹의 아버지 李宇芳은 譯官이 되었는데, 金孝純은 늙었을 때 매양 李宇芳에게 “네가 燕行을 할 때에는 반드시 瀋陽을 지날 것이다. 南門 안 동쪽 첫 번째 골목이 곧 옛 瀋館 遺址이니, 너는 그것을 잘 기억하도록 해라.”라고 말하고서 곧 울면서 당시의 일을 얘기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察院은 德盛門 안 동쪽 첫 번째 골목에 있으니, 이로서 미루어 보건대, 察院이 그 당시의 舊址였음은 더욱 분명한 것입니다.

듣건대 察院의 重修가 십 수 년 전에 있었다고 하니,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屋制]은 비록 古蹟과는 무관하나, 그 위치는 옛 館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察院 한 本을 그려서 바칩니다. 이에 엎드려 삼가 생각건대, 우리 孝廟께서 이곳에서 오래도록 憂患을 겪으셨고 險阻와 艱難을 또한 이미 남김없이 다 받으셨으니, 우리 顯廟께서 이곳에서 誕降하셔서 靈光과 休瑞가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先王께서 뜻하신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간 세상의 해와 달은 빈번히 바뀌었습니다. 돌아보건대 臣 등은 백 이십 년 후 곧 辛巳(1761)년 2월 다시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俯仰하며 탄식하니 萬感이 교차하여 마음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 제11폭(21-22면)

文廟, 在燕京安定門內國子監之東. 正殿七楹, 題曰 '先師廟'. 東·西兩廡, 各十九楹, 又祭器庫在東, 樂器庫在西. 碑亭列丹墀中, 前爲廟門, 卽列置石鼓之戟門. 皇明後歷科進士題名碑列廟門外, 旁爲持敬門, 殿後有崇聖祠, 卽啓聖廟也.

殿西北有彝倫堂, 卽明倫堂也. 堂左右有繩愆·博士二廳及率性·修道·誠心·正誼·崇志·廣業六堂. 文廟及彝倫堂之制, 依樣繪畵以進. 文廟殿內與東·西廡位次及崇聖祠位次, 亦作圖幷附焉.

曾於我 國陞配六賢之時, 聞彼已先之矣. 今見殿內從享十哲外, 只以有子及朱子陞配, 而周·程·張·邵五賢, 則依舊在東·西廡, 始知前聞之差爽也. 先聖五代之追封王爵幷享崇聖祠, 在雍正癸卯云. 周·程·張四賢, 尙在廡享, 而乃以其考配于崇聖祠, 蔡九峯旣稱先儒, 視四賢又有差等, 而西山亦與焉. 皆未可曉也. 學制享祀, 修擧頗勤. 然位版題字之旁, 必以淸書註之, 且奉籩豆而考笥簨者, 皆抹額·左衽之類, 則 先聖先賢, 其肯顧饗於斯耶? 瞻望殿陛, 不覺長吁而已.

文廟는 燕京 安定門 안 國子監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正殿은 7楹으로서 題하여 '先師廟'라고 하였습니다. 東·西 兩廡는 각각 19楹입니다. 또한 祭器庫가 동쪽에 있고, 樂器庫가 서쪽에 있습니다. 碑亭들은 丹墀 가운데에 줄지어 있습니다. 앞은 廟門이니, 즉 石鼓들을 줄지어 배치한 戟門입니다. 皇明 以後 歷科進士題名碑들이 廟門의 바깥에 줄지어 있습니다. 옆은 持敬門이고, 殿 뒤편으로 崇聖祠가 있으니, 즉 啓聖廟입니다. 殿의 서북쪽에 彝倫堂 즉 明倫堂이 있습니다. 堂의 좌우에는 繩愆廳과 博士廳의 二廳 및 率性堂·修道堂·誠心堂·正誼堂·崇志堂·廣業堂의 6堂이 있습니다. 文廟와 彝倫堂의 생김새는 양식에 따라 그려서 바칩니다. 文廟殿 안과 東·西 兩廡의

位次 및 崇聖祠의 位次 또한 圖를 그려서 함께 첨부합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六賢을 陞拜할 때 그들이 이미 앞서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殿 내부를 살펴보니 十哲을 從享한 외에는 다만 有子와 朱子만을 陞拜하고 周敦頤·程顥·程頤·張載·邵雍의 五賢은 옛 그대로 東·西廡에 두고 있어서, 비로소 전에 들었던 것이 착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先聖의 五代에게 王爵을 追封하고 아울러 崇聖祠에 祭享한 것은 雍正 癸卯(1723)年에서라고 합니다. 周敦頤·程顥·程頤·張載의 四賢은 여전히 廡에서 祭享하지만 곧 그들의 考를 崇聖祠에 配享하고 있었고, 蔡九峯은 이미 先儒라 稱하고 있으나 四賢에 비하면 또한 差等이 있는데 西山이 또한 거기에 들었습니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學校의 제도에서 享祀함에는 修擧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位版의 題字의 옆에는 반드시 淸書로 주석을 달았고, 또한 籩豆를 받들고 筍簴를 살피는 자들은 모두 抹額과 左衽의 類이니 先聖과 先賢들이 이에 즐겨 顧饗하겠는지요? 殿陛를 우러러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길게 탄식이 나올 따름이었습니다.

· 제13폭(25-26면)

石鼓, 世傳爲周宣王大蒐時作也. 鼓凡十. 唐鄭餘慶運置縣學, 而亾其一, 宋皇祐閒得之民閒斷爲臼者而後十數乃全, 卽韓愈蘇軾所歌咏者也. 金人輦至燕京, 棄泥土中, 元虞集移置 文廟戟門之內, 東西各五. 潘迪·歐陽玄·黃溍等, 攷正音訓刻石, 幷列於鼓旁, 頃日 聖敎及此, 故臣躬詣目覩, 榻印一本以來, 從當粧潢以進, 而先寫其排置形止以備 乙覽. 此係姬周舊物, 閱歷灰劫, 轉輸遷移, 而猶能宛然獨存於二千餘年之後, 摩挲往蹟, 誠不勝金仙銅駝之感也.

石鼓는 세상에서 전하기를 周나라 宣王(재위, B.C. 827-B.C. 782)이 大蒐할 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鼓는 모두 10개입니다. 唐나라 鄭餘慶(745-820)이 縣學에 옮겨두었는데 그 중 한 개를 亡失하였습니다. 宋나라 皇祐(1049-1054) 연간에 民間에서 잘라서 臼로 만든 것에서 그것을 얻었으니, 그런 후에 十數가 곧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韓愈(768-824)와 蘇軾(1037-1101)이 노래지어 읊은 바의 것입니다. 金나라 사람이 수레로 燕京에 가져와서 泥土 중에 버렸는데, 元나라 虞集(1272-1348)이 그것을 文廟戟門의 안에 옮겨 두었으니 동쪽과 서쪽에 각각 다섯 개씩입니다. 潘迪, 歐陽玄(1283-1358), 黃溍(1277-1357) 등이 音訓을 攷正한 것을 돌에 새겨 石鼓들 옆에 함께 배열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聖敎가 여기에 미쳤으므로, 臣이 몸소 나아가 目睹하고 한 本을 탁본[榻印]하여 가져 왔습니다. 마땅히

粧潢하여 바쳐야 하여야 하겠으나 먼저 配置한 形止를 그려서 乙覽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姬周의 옛 물건으로서, 灰劫과 轉輸와 遷移를 閱歷하였으나 오히려 이 천 년이 흐른 뒤에도 宛然히 獨存할 수 있었으니, 지난 자취를 어루만짐에 진실로 金仙과 銅駝이 주는 감흥을 이기지 못합니다.

· 제16폭(31-32면)

歷代帝王廟, 在燕京阜成門內. 正殿九楹, 扁曰'景德崇聖之殿', 東·西廡各七楹.

謹繪廟制以進. 廟享位次, 則譯官邊憲得印本於守廟者以來, 故附其後.

廟之設, 肇於唐天寶, 而只及周以前. 皇明洪武六年, 立廟金陵, 嘉靖十年, 移建於燕京, 翌年親祀時止祭十六君, 乃三皇五帝, 三王, 漢之高·光, 唐宗, 宋祖及元世祖也. 至康熙六十一年, 增遼太祖, 金太祖·世宗, 元太祖, 皇明高皇帝, 爲二十一位. 至雍正十一年, 增祀一百四十三帝. 名臣配享, 則始三十九人, 至是增四十人. 位次載在印圖, 可按而知.

其次序, 三皇在中, 五帝在左, 夏·商在右, 周在左, 漢·唐在右, 宋·遼·金在左, 元及 皇明在右. 每一代第一位在中, 而其次一左一右配享, 則以北爲上而一東一西. 凡於歷朝君臣取舍之際, 多有不可知者, 至於 神廟之四紀在宥, 德溥功崇, 而獨漏焉. 豈自其滿洲時常仇視 神廟之征討故耶! 然此時廟享之見漏, 在神廟何損焉.

歷代帝王廟는 燕京 阜成門 안에 있습니다. 正殿은 9楹인데 扁하여 '景德崇聖之殿'이라고 하였습니다. 東·西廡는 각각 기둥이 일곱 개입니다. 삼가 廟制를 그려서 바칩니다. 廟享의 位次는 譯官 邊憲(1707-?)이 廟를 지키는 자에게서 印本을 얻어서 가져 왔기에 그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廟의 설립은 唐나라 天寶(742-756) 연간에 시작되었는데 다만 周나라 이전에만 미쳤습니다. 皇明 洪武 6년(1373년)에 金陵에 廟를 세웠고, 嘉靖 10년(1531년)에 燕京으로 移建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에 황제가 친히 祭祀할 때 16君을 제사하는데 그쳤으니, 곧 三皇과 五帝, 三王, 그리고 漢나라의 高祖와 光武帝, 唐나라 太宗, 宋나라 太祖 및 元나라 世祖입니다. 康熙 61년(1722년)에 이르러 遼나라 太祖와 金나라의 太祖와 世宗, 元나라의 太祖, 그리고 皇明 高皇帝를 더하여 21位가 되었습니다. 雍正 11년(1733년)에 143帝를 增祀하였습니다. 名臣을 配享한 것은 처음에는 39人이었는데 이에 이르러서 40人을 더하였습니다. 位次는 印圖에 실려 있으므로 그 次序를 살펴보아 알 수 있습니다. 三皇이 중앙에 있으며, 五帝는 왼쪽에 있고 夏·商은 오른쪽에 있으며, 周는 왼쪽에 있고 漢·唐은 오른쪽에 있으며, 宋·遼·金은 왼쪽에 있고

元과 皇明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每 一代에서 第一位는 중앙에 있으며 그 다음부터는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配享하였으니, 북쪽을 上으로 하여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배치한 것입니다. 무릇 歷朝의 君臣을 取捨함에 있어서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48년간 仁政을 펼쳤던 神廟에 이르러서는 德이 광대하고 功이 높았으나 유독 누락시켰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滿洲에 있을 때부터 神廟가 征討하였던 것을 항상 仇視한 때문인 것 이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廟享이 누락되었다 한들 神廟에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 제19폭(37-38면)

山海關, 在永平府臨渝縣, 卽秦城盡處也. 隋開皇時築渝關, 皇明洪武初, 徐達承 命設山海衛, 此山海關之始也. 關之上層, 扁以'天下第一關', 未知誰筆, 世傳爲李斯書, 而殊不知此城非秦築. 况秦時豈有楷字耶? 自關以南十里, 城堞逶迤, 入海十數步而止, 鎔鐵以錮之, 實中州之大關防也. 在 皇朝時盡力修飭, 又於關外數百里, 羅絡烟臺, 戒嚴不弛. 今則烟臺崩圮殆盡, 閒有一二餘者, 可見皇朝之舊. 而關南十里之城, 自內視之, 太半壞毁而不修, 至於城南一角, 有數十步全體虧缺者, 此卽吳三桂請援於順治, 毁城引入者也. 至今不復補築. 若誇示其始有天下之迹, 而其於重關防之道, 略不致意, 豈以關外爲自己窩窟, 而視中州如逆旅而然耶? 有未可知也. 關之南北大勢, 有不可盡寫, 只從關內外所見, 各繪一本以進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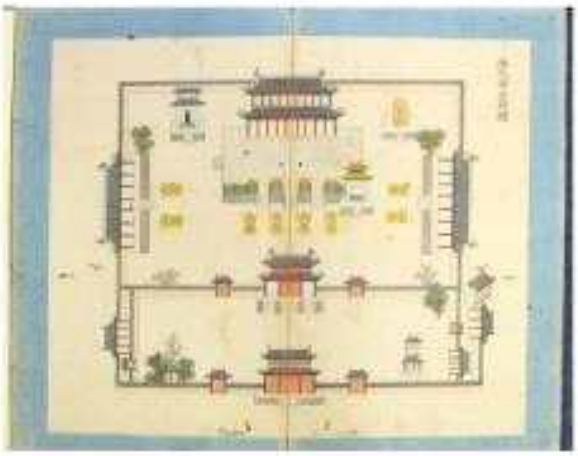
山海關은 永平府 臨渝縣에 있으니, 곧 秦城이 다한 곳입니다. 隋나라 開皇(581-600) 때에 渝館을 건축하였습니다. 皇明 洪武(1368-1398) 初에 徐達(1332-1385)이 命을 받들어 山海衛를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山海關의 시작입니다. 關의 上層에 '天下第一關'이라 扁額하였습니다. 누구의 글씨인지 알지 못하나 세상에서는 李斯(B.C. 284?-B.C. 208)의 글씨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城이 秦나라가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秦나라 때에 어찌 楷字體가 있었겠습니까? 關으로부터 南쪽으로 10里에 걸쳐 城堞이 구불구불 이어져서 바다로 數十步 들어가 그쳤으며, 鎔鐵로써 그것을 견고하게 하였으니, 실로 中州의 大關防입니다. 皇朝 때에는 힘을 다하여 修飭하였으며, 또한 關 바깥 數百里에 걸쳐 烟臺를 羅絡함으로써 경계를 엄하게 하여 해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烟臺가 거의 다 崩圮하였고 간간이 한두 개 남은 것이 있어 皇朝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關 남쪽 十里의 城은 안으로부터 보면 태반이 허물어지고 훼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았고, 城 남쪽 한 모퉁이에 이르면

數十步 전체가 虧缺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吳三桂(1612-1678)가 順治에게 구원을 청하여 城을 헐고 끌어 들인 곳인데 지금까지 다시 補築하지 않았으니 마치 그 처음 천하를 가지게 된 사적을 과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關防을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소략하여 뜻을 다하지 않은 것이니, 아마도 關外를 자기들의 窩窟로 여기고, 中州는 逆旅와 같이 보아서 그런 것인지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關의 南北 大勢는 다 그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關의 內·外로부터 본 바를 각각 한 本씩 그려서 바칩니다.

Ⅳ. 참고문헌 및 도판

- 『승정원일기』
- 박은순, 「朝鮮後期 『瀋陽館圖』 畵帖과 西洋畵法」, 『미술자료』58, 국립중앙박물관, 1997
- 정은주, 「1760년 庚辰冬至燕行과 《瀋陽館圖帖》」, 『명청사연구』25, 명청사학회, 2006

<도 1> 영조 어필



<도 2> 역대제왕묘도

<도 3> 산해관도 내

<도 4> 산해관도 외

□

ㅇ 현　　상

1760~1761년의 동지사행과 관련하여, 사행 여정에 포함된 장소 중 영조가 친히 그려오라 지시한 곳의 그림과 관련 자료 및 기록을 모은 화첩. 표지와 앞뒤 면지를 제외한 내지 17면[영조 어필 1면, 어필 다음의 빈 면이 1면, 그림 7면, 배반도 3면, 그림과 관련된 글 5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질은 전체 종이로, 어필부터 다음의 빈 면을 포함하여 마지막 글까지 내지 17면은 청색으로 회장을 둘러 장황하였다. 회장을 제외한 각 면의 크기는 화면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략 가로 55㎝, 세로 46㎝ 내외이다. 앞표지의 면지는 전체 청색이며, 뒷표지의 면지는 흰 면이다. 표지는 전체적으로 연화능화문이 압출된 두꺼운 진녹색 장지이다. 앞표지 좌상단에 제첨이 있는데, 마모되어 거의 보이지 않으나 글씨의 흔적이 있다. 표지 우하단에 종이를 붙였다 떼어낸 흔적이 있으며, 남아 있는 아래쪽 종이 자국에 도장 일부가 찍혀져 있으나 인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화첩은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화첩 여러 면을 관통하여 좀먹은 자국이 여러 군데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화첩 전반부는 주로 중앙 하단부, 화첩 후반부는 주로 중앙 상단부의 그림과 글씨 일부에 결손이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표지는 가장자리와 모서리에 충식과 마모로 인한 결손이 약간 있다.

충식 이외에 화첩 하단변에 습해가 있으며, 청색 회장지 외변을 따라 약 0.7㎜ 정도의 일정한 폭으로 색바램이 있고, 약간의 마모가 있다. 뒤표지의 면지 네 귀퉁이에 손때가 심하며, 어필면의 제목과 마지막 행, 심관구지도의 제목 옆에 연필 글씨가 있다. 어필 다음의 빈 면 우측 하부에 가로 27.5㎝, 세로 31.5㎝ 정도로 바탕 종이를 오려낸 자국이 있고, 내지 마지막 면 글의 끝행 바로 왼쪽에 폭 10㎝ 정도로 길게 오려낸 자국이 있다. 연유는 알 수 없다. 이외에는 큰 오염이나 가필, 가채로 인한 훼손이 거의 없으며, 당시의 장황을 개장하지 않아 화첩 전체적으로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ㅇ 내용 및 특징

1) 영조어필: '一 瀋館 誕降舊址, 一 帝王廟位次, 一 太學 大成殿明倫堂 石鼓, 一 山海關門'이라 적혀 있다. 목록 형식의 이 글은 『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11월 2일(壬寅)의 기록에 의해, 영조가 직접 써서 사행단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영조가 동지정사 洪啓禧(1703-1771)에게 이 글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오도록 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행단은 영조의 명을 받들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화첩으로 꾸미면서, 이 일의 시행에 근거가 된 영조의 글을 첫머리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화첩 크기에

맞추기 위해, 종이 아래에 별지를 대어 화면을 늘여 배접하였다. 화면 우상단 귀퉁이에 쓴 '御筆' 글씨는 화첩을 꾸밀 때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빈 면: 다른 면과 같이 청색 회장지를 둘렀으나 아무 내용이 없는 빈 면이다. 비워 둔 이유는 알 수 없다.

3) 瀋館舊址圖: 심양관은 주지하듯이 병자호란으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 황실에 볼모로 가 1637년부터 1645년 2월까지 거했던 곳이었다. 훗날 효종이 된 봉림대군의 장자 현종이 심양관에서 태어났기에, 이듬해 현종 탄강 120주년(1761)을 앞둔 영조는 경진년(1760) 冬至使 일행을 불러 '玉華館 出入舊門', '世子大君舊館', '顯廟誕降舊館'이라고 상세히 지시하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했다(『승정원일기』). 사신들이 심양에 도착하여 찾아갔을 때 심양관은 이미 없어진 후였기에, 그 자리에 새로 세워진 察院을 심양관 대신 그린 것이 이 그림이다. 우측변 상단에 '瀋館舊址圖'라고 제목을 적었다. 그림은 찰원의 전체 모습과 주변의 도로, 가옥들을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려졌다. 정면 7칸의 계단이 있는 건물과 우측 정면 6칸의 건물을 사각형으로 둘러싼 담장과 대문, 좌측 모퉁이에 있는 또 하나의 문이 찰원의 주요 건물인 듯하다. 본관 건물과 대문, 대문이 있는 담장은 정면이나, 우측 건물과 내부 담장은 바깥으로 눕혀진 것처럼 그려졌다. 기타 주변의 건물은 정면 또는 좌·우측사면으로 그려져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건물의 생김새가 비교적 일정하고 배치가 정연하며, 필선이 곧고 흐트러짐이 없는 단정한 界畫의 필치를 보여준다. 지붕은 먹으로 엷게 칠하고 기왓골을 가지런하게 넣었으며, 기둥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벽면은 담홍, 담록으로 연하게 담채하였다. 찰원의 대문은 적갈색으로 채색하여 두드러진다.

4) 글: 앞면의 〈심관구지도〉에 대한 일종의 보고문이다. 글 첫머리에 '臣'을 쓴 것으로 보아 화첩의 열람자는 영조였음이 분명하다. 이로써 이 화첩은 어명에 대한 일종의 결과 보고로서 제작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조 어필에 적힌 목록은 심관 탄강구지, 즉 심양관에 있던 현종의 탄생 장소였다. 그러나 심양 현지에 가보니 옛 건물은 이미 없어졌기에, 같은 위치에 세워진 찰원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당시의 찰원이 옛 심관 자리임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글의 상당 부분은 여러 근거를 들어 이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었다. 또한 현재 찰원의 건물 구조는 옛 자취와는 무관하며 다만 그 위치가 심관의 소재와 연관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의 제목에 영조의 목록과는 달리 '탄강'을 쓰지 못하고 그저 심관 구지, 즉 심관의 옛터라고 붙인 이유가 될 것이다.

5) 文廟圖: 북경에 있는 공자의 사당인 文廟(先師廟)를 그린 그림이다. 문묘는 전체 공간구조로 볼 때 남쪽의 先師門으로 들어가 廟門을 통해 正殿(大成殿)에 이르

도록 건축되었다. 정전 북쪽에는 공자의 선조를 모신 崇聖祠가 있다. 國子監의 동쪽에 위치한 문묘는 선사문 안 서쪽의 持敬門을 통해 국자감과 이어진다. 그림에서는 지경문에서 들어와 위로 꺾여 묘문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하였고, 남쪽의 선사문은 생략한 채 담장만을 그리고 문 안 공간을 침엽수로 무성하게 채웠다. 정전으로 들어가는 묘문은 중층의 매우 화려한 문으로 문 양측 翼廊에 石鼓가 배열되어 있으나 그림에서는 생략하였다. 묘문 안 정전 앞마당에는 좌우로 碑亭이 늘어서 있고 비정 양옆으로 침엽수를 정연하게 그려 넣었다. 월대 위에 세운 정전은 중층 건물에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이다. 문묘를 설명하는 제9면의 글에 적은 '先師廟' 현판일 것이다. 정전의 양옆으로 회랑처럼 이어진 건물은 東西 兩廡로 유교의 先賢, 先儒를 배향하는 공간이다. 글에는 이외에도 동쪽 祭器庫, 서쪽 樂器庫, 묘문 밖 歷科進士題名碑, 정전 뒷편의 숭성사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다. 문묘 정전과 동서 양무에 모신 인물들은 따로 排班圖 형식으로 도해하여 수록하였다. 그림은 문헌의 圖說 등에 그려지는 전형적인 건물 그림의 형식을 따라 간결하면서도 정연하게 그려졌으나, 동서편 건물을 바깥으로 눕혀 표현하였고, 묘문 담장 양끝과 동서 양무의 지붕이 이어지는 곳 등은 실제 공간 구조와 무관하게 관념적,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등 현장 기록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간을 시각적으로 정확히 재현하려는 의도는 거의 없다. 기록에는 정전의 건물 규모를 7楹(칸에 해당)으로, 동서 양무를 19영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림과는 맞지 않는다. 지붕은 모두 중국의 중요한 건축에 사용하는 황색 기와를 올렸다.

6) 彝倫堂圖: 彝倫堂(明倫堂)은 국자감에 속한 건물로 황제의 강학처였다. 문묘 정전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1784년 璧雍을 지으면서 이륜당이 장서 공간으로 바뀐 이후의 국자감 그림에는 벽옹이 중심적으로 나타나지만, 1761년 당시 국자감의 대표 건물로서 화첩에 수록된 듯하다. 제9면의 기록에는 이륜당에 인접한 繩愆廳, 博士廳 및 率性堂·修道堂·誠心堂·正誼堂·崇志堂·廣業堂 등도 거론되어 있으나 그림에는 이륜당에 이어지는 회랑 같은 모습으로 뭉뚱그려서 간략하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남쪽 담장에는 문(현재의 太學門으로 추정)을 그렸고 앞마당을 침엽수로 정연하게 채웠으며, 이륜당 앞 낮은 臺의 동남 모서리에는 해시계 1기를, 반대편 대 아래에는 고목 한 그루를 그렸다. 건물의 표현 방식은 문묘도와 유사하며 지붕은 연청색으로 문묘의 건물과는 차별된다.

7) 先師廟殿內及東西廡位次之圖: 문묘 정전인 선사묘 안에 모신 위패의 위치와 동서 양무에 모신 선현의 배열 순서와 위치를 문자로 표현한 일종의 배반도이다. 화면 전체에 사각형 윤곽을 그리고 상단에 칸을 마련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거의 등간격으로 띄어 썼다. 배반도 표제를 쓰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표제 아래 정중앙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 좁고 긴 사각형을 세로로 구획하고 '先聖孔子

之位'라고 썼다. 사각형 구획을 여백 없이 채웠다. 그 아래 열 우측에는 '復聖顔子之位', '述聖子思子之位', 좌측에는 '宗聖曾子之位', '亞聖孟子之位'를 세로로 쓴 사각형을 옆으로 눕혀 위아래로 배치하였다. 그 좌우 열은 선현들의 자리인데, 우측은 우변을 위로 하여 '殿內東從享'이라 좌에서 우로 눕혀 쓰고, 각각 '先賢閔子之位', '先賢冉子之位', '先賢端子之位', '先賢仲子之位', '先賢卜子之位', '先賢有子之位'를 쓴 사각형을 위아래로 배치하였다. 반대편은 좌변을 위로 하여 오른쪽 면과 대칭을 이루도록 '殿內西從享'을 우에서 좌로 쓰고 先賢 冉子, 宰子, 冉子, 言子, 顓孫子, 朱子의 位를 쓴 사각형을 위아래로 배치하였다. 그 좌우로는 선을 그어 공간을 분리한 다음 오른쪽 면에는 東廡從享 '先賢蘧 瑗之位' 다음 38위와 '先賢公羊高之位' 다음 22위를 칸을 쳐서 우변을 위로 하여 세로로 적었고, 왼쪽 면에는 西廡從享 '先賢林 放之位' 다음 37위와 '先賢穀梁赤之位' 다음 22위를 칸을 쳐서 좌변을 위로 하여 세로로 적었다. 정중앙 '先聖孔子之位'를 제외한 위패는 모두 동서향으로 안치였음을 알 수 있다.

8) 崇聖祠正位及配享位次之圖: 선사묘 북쪽에 있는 공자 선조의 사당 崇聖祠에 모신 인물의 배치와 배향된 先賢과 先儒의 위차를 알려주는 배반도이다. 앞면과 같은 형식으로, 사각의 화면을 구획하고 상단에 칸을 쳐서 표제를 쓰고, 각 위를 좁고 긴 사각형 안에 여백없이 써 넣었다. 정중앙에 위치한 5대조 '昌聖王佰夏公之位', '裕聖王斯父公之位', '肇聖王木公金父之位', '詒聖王防叔公之位', '啓聖王叔梁公之位' 다섯 위만 세로로 정서하고, 아래 좌우의 선현과 선유의 위는 좌우변을 위로 하여 세로로 적었다. 선유의 위는 선현 아래 열에 좌우로 배치하여 위계가 드러난다. 오른면은 '先賢顔子之位', '先賢孔氏之位', '先儒周氏之位', '先儒朱氏之位', '先儒蔡氏之位' 등 다섯 위이고, 왼면은 '先賢曾氏之位', '先賢孟氏之位', '先儒張氏之位', '先儒程氏之位' 등 네 위이다.

9) 글: 〈문묘도〉와 〈이륜당도〉 및 위차도 2점을 설명하는 글이다. 북경 安定門 안 국자감 동쪽에 위치한 문묘(선사묘)와 숭성사(啓聖廟), 숭성사 서북쪽에 있는 이륜당(명륜당)의 위치 관계와 건물 구성을 밝히고 있다. 봉안한 인물들의 위차는 도해하여 첨부하였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향사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와 다른 청나라의 방식에 의문을 피력하는 등 유학자로서의 관심이 드러난다.

10) 石鼓配置圖: 문묘의 묘문 좌우 戟門 동서에 각 5점씩 배치된 周代의 석고와 동쪽 끝에 있는 潘迪[원 至元(1264-1294) 연간에 국자감 司業과 集賢學士를 지냄], 歐陽玄(1037-1101), 黃溍(1277-1357) 등이 석고문을 교정한 音訓碑를 그린 그림이다. 화면 중앙에 가로로 긴 사각형을 구획하고, 좌우 아래로 치우쳐 ㄱ 모양의 단을 배치하고 그 위에 놓인 석고를 그렸다. 왼쪽 면의 석고에는 맨 아래 석고에서 시작하여 一부터 五까지, 오른쪽 면의 석고에는 마찬가지로 六부터 十까지 숫자를

붙였다. 오른쪽 화면에는 마지막 석고 옆에 碑를 그리고, 아래에 '音訓'이라고 적었다. 석고를 놓은 양쪽 단 앞에는 의장용 창[戟]이 늘어서 있었던 듯하나 그리지는 않고 '列戟于此'라고 써서 표시하였다. 석고의 모양은 오른쪽 단 맨 아래 석고(六)만 뚫린 면을 위쪽으로 두었고, 나머지 9기의 석고는 覆鉢形으로 그렸다. 음훈비는 기단 위에 윗면을 모죽임한 낮은 사각형의 비신을 갖추었고 검은 빛의 얼룩덜룩한 표면을 표현했다. 석고는 흰 바탕에 검은 얼룩이 있는 모습이다. 석고가 놓인 단은 정면 부감으로 측면에 가로줄을 등간격으로 넣고 먹으로 엷게 칠하였다.
11) 글: 석고와 그것이 문묘에 옮겨지고 음훈비가 세워진 내력을 설명한 글이다. 영조의 명에 따라 현장에 와서 보고 음훈비를 탁본하였는데 탁본을 장황하여 바치기 전에 우선 화첩에 배치도를 수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12) 歷代帝王廟圖: 북경에 있는 삼황오제를 비롯한 중국 역대 제왕을 향사하는 사당을 그린 그림이다. 북경의 역대제왕묘는 1531년에 짓기 시작하여 1532년에 완성되었고, 이후에도 증축과 추가 제향이 이루어졌다. 그림에는 정전인 景德崇聖殿과 月臺, 景德門, 廟門이 중앙에 정면 남북축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면 9칸의 중층 건물인 숭성전의 서쪽에는 가정 초년에 세운 無字碑와 碑亭이 있고, 동쪽에는 명대 王立道가 가정제의 명으로 찬한 新建歷代帝王廟碑가 비정 없이 세워져 있다. 월대 동남쪽의 비정에는 1733년에 건립된 歷代帝王廟文碑가 있다. 월대 남쪽에는 난간이 있고 난간 안쪽과 월대 아래에 瘞爐가 4기씩 놓여 있다. 월대 좌우의, 동서로 마주 보고 옆으로 누워 있는 정면 7칸의 단층 건물은 東西配殿으로, 동배전에 40인, 서배전에 39인의 역대제왕의 공신을 陪祀하는 건물이다. 동서배전 앞에도 瘞爐가 2기씩 놓여 있다. 묘문과 경덕문 사이 공간 동남쪽에는 종루가 있고, 좌우 담장 밖으로는 제사를 위한 부속 건물이 있는데, 현재의 건물 배치로 미루어 보아 동쪽에는 神庫, 神廚, 宰牲亭 등이, 서쪽에는 樂舞執事房 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쪽 담장 문 옆의 건물은 실수로 담장 안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동쪽 건물군 맨 위에 있는 神庫로 추정되는 건물은 화면에서 유일하게 측사면으로 그려져 있다.
13) 歷代帝王廟位次之圖: 숭정전의 역대제왕과 동서배전의 공신의 신위 배열을 보여주는 일종의 배반도이다. 필사본인 앞서의 배반도와 달리 목판인쇄본이다. 다음에 수록된 글에 의하면, 사행단의 역관 邊憲이 묘를 지키는 자에게 얻은 印本을 첨부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부합한다. 앞서의 배반도와 같이 화면 전체에 사각을 구획하고 맨 위에 좁게 칸을 내어 왼쪽에서 오른쪽 등간격으로 제목 글자를 배치했다. 제왕의 신주는 모두 165위로 중앙에 삼황, 바로 우측에 오제의 칸을 마련했고 그 옆에 왕대별로 칸을 두어 제왕의 묘호를 기록하였다. 삼황 옆으로 夏 14위와 商 26위가 한 칸에, 그 좌측으로 漢 21위와 唐 15위가 한 칸에, 마지막 칸에 元 11위와 明 13위가 기록되어 있다. 오제 옆으로는 周 32위와 宋 14위가 한 칸

에, 마지막 칸에 遼 6위와 金 5위가 기록되어 있다. 상단 제왕의 칸 좌우 양끝 아래에 옆으로 칸을 치고 배향공신을 좌우변을 위로 하여 세로로 적었다. 동배전은 40위, 서배전은 39위이다.
14) 글: 역대제왕묘의 숭성전(9영)과 동서배전(각7영)의 건물 규모를 적고, 건물의 배치는 그림으로, 신위의 위차는 인본을 첨부하여 역대제왕의 묘제를 해설하였음을 적었다. 묘의 건립과 향사하는 제왕이 추가된 내력 등을 밝히고 있고, 인본에 보이는 왕대를 좌우로 나누어 해설하였고, 각 왕대별로 신위가 좌우 순서로 배열된 것은 북쪽을 윗자리로 하여 동서의 차례임을 밝혔다. 앞장에 수록한 위차지도의 배열과 같으나, 위차지도에는 165위의 제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글에는 옹정 11년(1733) 본래 있던 21위에 143위가 추가되어 모두 164위라고 한 점은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명 神宗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역시 崇明 의식의 일단으로 여겨진다.
15) 山海關圖(內): 산해관 성 안의 경관을 그렸다. 문루에 '天下第一關' 현판이 그려져 있다. 성문으로 난 직선 대로와 갈래진 길로 주위의 건물을 빼곡하게 채워 넣었다. 실제 경관을 재현했다기보다는 건물이 밀집된 모습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건물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형태에도 불구하고 정면과 측사면의 두 시점을 섞어서 배치하고 군데군데 수목을 넣어 단조롭지 않고 리듬감이 느껴진다.
16) 山海關圖(外): 산해관 외성과 대강의 경관을 조감하였다. 평원 시점의 다른 그림과는 달리 부감시의 전경에서 오는 호방한 원근감과 공간감이 뚜렷하다. 제17면의 글에서 '산해관의 남북 대세는 다 그릴 수가 없고 관의 내외에서 본 바를 한 본씩 그린다'라고 쓴 대로 상세한 지세와 경물보다는 대략의 인상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7면의 글에서 吳三桂(1615-1681)가 북경의 李自成을 치기 위해 順治帝에게 求請하였던 일을 거론하고, 그림에서도 이 때 헐린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왼쪽 화면의 성벽 중간에 표현하는 등 당시 관료들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성첩과 문루, 기타 건물들은 정연한 필치로 차분하게 묘사하였고 산세와 수목은 청색과 녹색 위주의 담채로 청신하게 표현하였다.
17) 글: 산해관의 역사와 형상을 간단히 기록하였다. 關防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명대에 잘 관리되던 것이 청조 이후 훼손되고 방치된 모습을 지적한 내용에서 명과 청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본 화첩은 영조가 지시한 장소의 그림과 관련 자료, 이를 설명하는 글이 하나의 항목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영조의 지시 내용은 화첩의 맨 앞에 실린 메모 형식의 어필이다. 모두 4항목으로 1) 심양의 현종 탄생 장소, 2) 북경의 역대제왕묘, 3) 국자감과 문묘의 대성전, 명륜당, 석고, 4) 하북성의 산해관이 대상이다. 영조가 지시

한 항목을 각 화면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항목은 제3~4면 심관구지도와 글이다. 두 번째 항목은 역대제왕묘와 관련된 제12~14면에 해당하는데, 세 번째 항목인 국자감과 문묘 다음에 수록되어 순서가 달라졌다. 세 번째 항목은 문묘도와 이륜당도 관련인 제5~9면과 석고배치도 관련인 제10~11면에 해당하는데, 목록과는 달리 한 항목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마지막 네 번째 산해관 항목은 제15~17면이다.

안건번호 동산 2020-07-005

5.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가. 심의사항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장으로부터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결과로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2.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8.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0.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10.30.～11.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1호(1979.1.25.)

○ 명　　칭 :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원북길 313, 봉암사

○ 수　　량 : 1좌

○ 규　　격 : 상 높이 539.6cm, 무릎 폭 502.6cm

○ 재　　질 : 화강암/ 마애

○ 형　　식 : 용화수(龍華樹) 가지를 들고 있는 마애미륵여래

○ 조성연대 : 1663년(현종 4)

○ 주 관 자 : 환적당 의천(幻寂堂 義天)

○ 지정구역 : 19.89㎡(보호구역 : 301.47㎡)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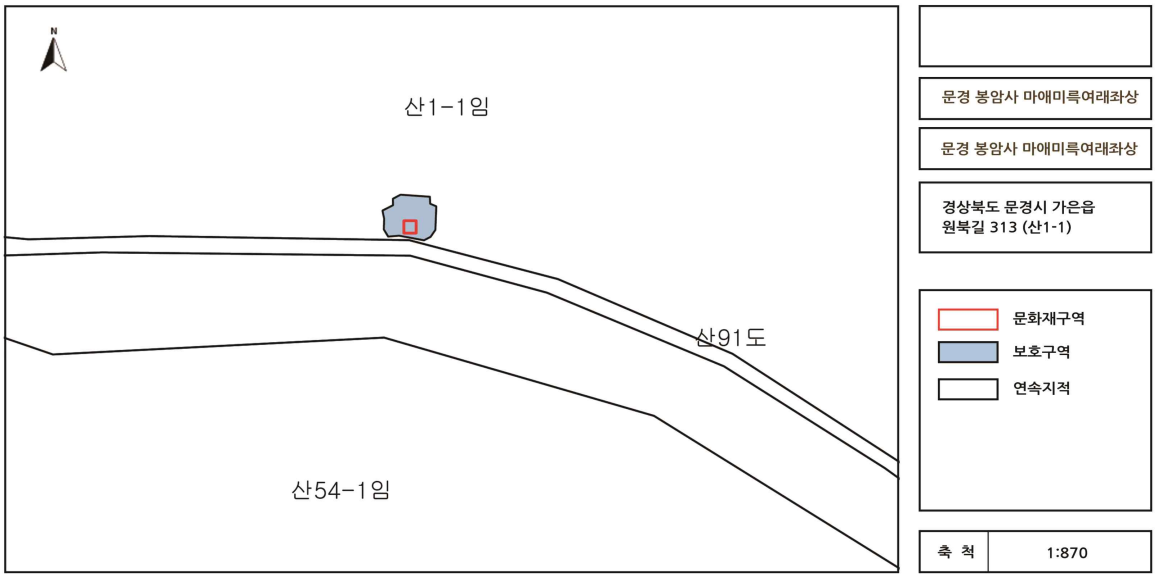
○ 지정구역 면적 : 19.89㎡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임야	14,224,846	19.89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계				**19.89**				

○ 보호구역 면적 : 301.47㎡

연번	소재지 /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임야	14,224,846	301.47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계				**301.47**			

○ 지정도면 :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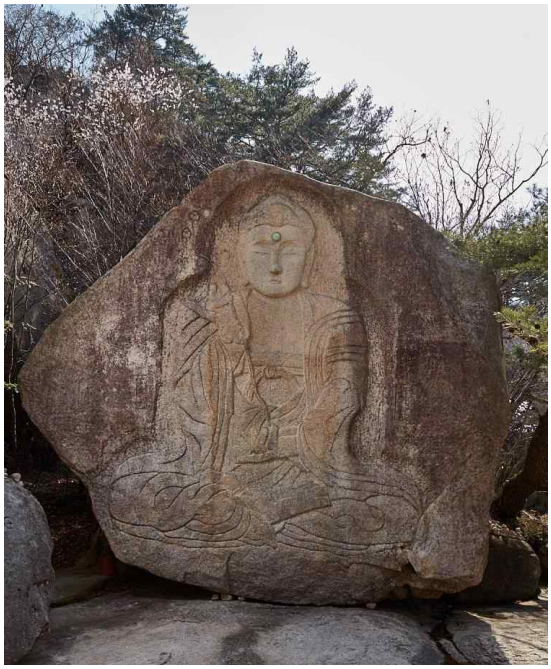


그림 221.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참고) 문경 봉암사마애미륵여래좌상 3차원 스캔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문경 봉암사의 마애미륵여래좌상은 1663년에 제작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마애불이다. 문자 자료를 통해 1663년에 환적당 의천이 발원하여 마애미륵여래좌상을 완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 자료이다. 그의 제자인 풍계 명찰(楓溪 明察, 1640-1708)의 행장을 통해 “60세에 경상도 문경현 희양산 봉암사로 가서 지냈고, 61세에는 봉암사의 서쪽 백운대에 미륵상을 조각하고 사적비를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적당 의천은 60세되던 1662년부터 61세까지 문경 봉암사에 머물면서 봉암사 백운대에 높이 5m가 넘는 미륵불좌상을 조성하고 사적비를 세웠다. 마애미륵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는 백운대는 신라 말 최치원이 노닐던 곳이기도 한데, 의천은 바로 그 아래에 환적암을 세우고 지내기도 했다.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흥미롭게도 봉암사 마애불은 같은 시기 괘불과 매우 닮았다. 이런 이유로 봉암사 마애불은 괘불을 모본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괘불을 대신하여 야외법회를 위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봉암사 마애불은 괘불처럼 행사 때마다 걸어 사용한 후 다시 말아 보관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며, ‘돌’의 내구성으로 조성하고 나면 그 무엇보다도 오래 지속된다는 큰 장점

이 있다. 실제로 봉암사 마애불 앞의 너른 공간에서 야외법회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봉암사 마애불은 조계종 특별선원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작품의 완성도도 뛰어나 조선 후기 작품 양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봉암사 마애불은 기록에 의해 환적당 의천에 의해 1663년에 미륵불로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마애불의 절대편년자료 및 도상적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이러한 마애불이 조성되는 정황 및 계기를 이 문헌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마애불이 있으나 대부분 명확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 우리나라 조각사 연구사에 있어 드문 사례로서 주목된다. 특히 민간의 출입이 비교적 제한된 깊은 계곡의 계류 옆에 조성되어 이러한 자리를 찾아 수행하던 당시 선승들의 전통을 엿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그 풍광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매우 드문 경우라 하겠다. 옥천암 마애불, 삼천사 마애불이 이처럼 계류 바로 옆에 조성된 마애불의 사례이지만,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변형된 것에 비해 봉암사 마애불은 원래의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소중하다.

더불어 이 마애불은 조성기법이 뛰어나 마애불의 비례, 세부표현, 착의형식 등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앳된 얼굴의 이목구비 표현은 이후 내소사 괘불탱(1700년작)을 예견하는 듯하고, 정교하게 꽃줄기를 잡은 손의 묘사 등은 17세기 괘불탱에서 유행한 꽃을 들고 있는 불·보살의 표현을 마애불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어서 그 유기적 연관성 또한 주목된다.

서울 봉천동 마애미륵불, 1630년

안양 삼막사 마애치성광여래삼존불, 1763년

봉암사 마애불은 이보다 조금 앞서 1630년 서울 관악산 봉천동 마애미륵불의 전통을 계승한 것인데, 봉천동 마애미륵불이 미륵불로서의 특별한 도상적 특징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비해, 봉암사 마애불은 용화가지를 들고 있고, 보다 입체적인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후 100년 뒤인 1763년 안양 삼막사에 조성된 치성광마애삼존불은 봉암사 마애불보다 더 도식적이고 경직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16세기와 17세기의 양식적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나아가 통도사 지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은 19세기에 조성된 조선시대의 마애불인데, 오히려 다시금 16세기 봉암사 마애불에 더 가까운 양식으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마애불 조성에 일종의 모범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에는 전대에 비해 손꼽을 정도로 마애불상의 수가 적다. 그것은 수행환경이 변경된 탓도 있겠으나 크고 거친 바위표면을 다듬어 불상을 새기는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규모 면에서나 조형 면에서나 조선시대 마애불 중 수작으로 손꼽힌다. 이 마애미륵여래좌상은 고려시대 작품으로 여겨질 만큼 불상이 갖고 있는 세부표현에 있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이 작품이 단순히 불교조각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었기 때문일 것이며, 불화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서 보면 조선후기 17세기 불화와 연관성이 더욱 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마애미륵여래좌상은 조각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목각탱)과 마찬가지로 불화승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의 마애조각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애미륵여래좌상의 얼굴은 높게 돋을새김하여 입체화시키고, 신체로 내려오면서 점차 얕게 조각하여 上高下低의 전통적인 마애불 조성 기법을 따르고 있다. 상호의 세부표현과 옷 주름은 불화를 보는 듯 회화성 짙은 묘사력을 선보인다. 이는 마애불상의 기본 설계도가 되는 草를 당시 뛰어난 불화승이 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화승과의 교류는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의 보조화원으로 참여한 道祐, 여수 흥국사 영산회상도를 그린 天信 등의 예에서 보듯이 당시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만남이자 조합이었으며, 조각승과 불화승의 합작에 의해서 이 마애불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미술사적 의의를 지닌다.

봉암사 마애불상은 평생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으로 전념한 조선후기 고승 환적당 의천이 자신의 믿고 의지했던 미륵불을 발원, 조성한 역사적인 불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자료를 통해 제작주체는 물론 1663년이라는 제작시기, 미륵불이라는 존상 명칭까지 분명히 알 수 있어 조선 후기 마애불 연구뿐만 아니라 미륵불상의 도상 연구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자료이다. 특히 이 마애미륵여래좌상이 결한 龍華手印은 고려시대 이후 미륵의 중요 도상으로 정립되어 온 바, 이러한 미륵도상의 전통이 조선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이 불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크다. 따라서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위와 같은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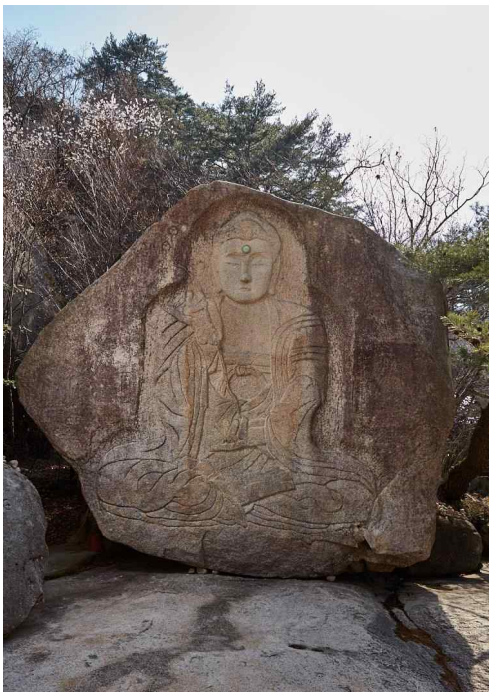
조사보고서

□

○ 현　　상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봉암사 경내 입구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500여m가량 이동하면 만나게 되는 옥석대(백운대라고도 한다)에 있다(도1). 예부터 이곳을 백운대라 불렀으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봉암사 마애불의 제작자는 백

운대에 있는 커다란 암벽면을 최대한 활용해 화면 가득 마애불좌상을 새겼다. 5m가 넘은 불좌상의 주변을 7-10cm 가량 파들어가 광배로 삼았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배모양[舟形] 혹은 키 모양이라고 부르는 광배이다. 광배 안쪽에는 선각으로 또 하나의 광배를 새겨 광배를 이중으로 표현했다.



<도1> 봉암사 마애미륵보살좌상

<도226>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당당한 신체에 꽃을 든 미륵불

<도3> 용화가지

연화좌 위에 가부좌를 튼 마애불좌상은 근엄한 얼굴에 당당한 신체가 특징이다. 특히 넓은 어깨를 직각으로 표현한 것은 이 마애불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삼도(三道)는 목이 아니라 가슴 쪽으로 내려 새겼는데, 이는 목이 짧아 삼도를 새길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계는 위로 솟았으며, 머리카락 중앙에는 반달 모양의 큼직한 중심계주가 있다. 이마 위 발제선이 굴곡져 있는 것도 이 시기 불화에는 있지만 불교조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입과 코는 작지만, 눈은 상대적으로 크다. 귀의 표현도 흥미로운데 귀의 구멍을 구슬처럼 동글동글하게 조각했다. 미간 백호는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 사진에는 홈으로만 파둔 것으로 봐서 후대에 새로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도 2 일제강점기 사진 참조).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봉암사 마애불좌상의 이러한 특징은 같은 시기 괘불과 형식 및 양식을 공유하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양손으로 작은 꽃가지를 쥐고 있는 점도 특별하다. 왼손바닥으로 꽃가지의 끝을 받치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엄지와 중지,약지를 맞대 꽃가지를 쥐었다. 쥐고 있는 꽃가지에는 꽃이 두 송이만 피었는데, 마애불의 크기에 비해 작다(도 3).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꽃가지를 쥐고 있어 지금까지는 보살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몸에 가사를 걸쳤고, 머리에는 보관(寶冠)을 쓰지 않았으며, 육계와 중심계주가 분명하여 보살이 아니라 불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또 양손으로 쥔 꽃가지는 미래불인 미륵불과 관련있는 용화나무의 꽃가지로 볼 수 있다. 봉암사 마애불상과 마찬가지로 보살형이 아닌 불상형이면서 용화가지를 쥔 예는 고려시대에 청원 운룡사 석불좌상을 비롯해 몇몇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수량이 많지 않다. 조선시대의 대표 예는 1630년 관악산의 마애미륵불상과 바로 이 봉암사 마애미륵불좌상이 있다. 특히 봉암사 마애불보다 30여 년 앞서 조각한 관악산 미륵불좌상은 봉암사 마애불과 마찬가지로 용화가지를 쥐었고, 명문에 “彌勒尊像 崇禎三年庚午四月日 大施主朴山會兩主”라고 음각되어 있어 ‘불상형이면서 꽃가지를 든’ 이러한 유형이 ‘미륵불’을 의도한 것임을 입증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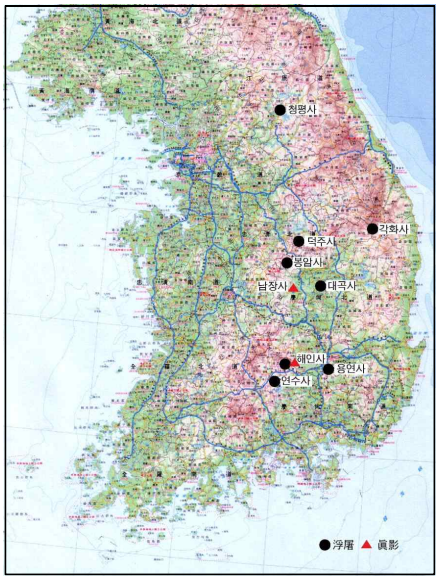
ㅇ 내용 및 특징

▌봉암사와 환적당 의천(1603-1690)

봉암사는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면 원북리 희양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말사이다. 864년 즉 경문왕 4년에 현계산 안락사(安樂寺)의 주지를 맡고 있던 지증도헌(智證道憲, 824-882)에게 거사 심충(沈忠)이 제자로 칭하면서 희양산에 절 짓기를 청하므로, 881년에 왕이 승통 후공(後恭)과 숙정사(肅正史) 배율문(裵律文)을 보내 절의 경계를 정하게 하고 봉암사라 한 것이 시작이다. 935년 고려 태조 18년에 정진긍양(靜眞兢讓, 878-956)이 중창하여 희양산문으로 번창했다. 이후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이 1431년에 절을 중수하였고, 1674년에 소실된 것을 1703년 다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봉암사 마애불은 1674년에 봉암사가 소실되었을 때도 온전히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경내에 있기는 하지만 중심사역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봉암사 마애불은 환적당 의천(1603-1690)이 60세부터 61세까지 햇수로 2년간 봉암사에 머물면서 조성한 것이다.**

환적당은 1630년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여 88세 되던 1690년에 해인사 백련암에서 입적했다. 평생을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에 전념한 선승으로, 청허휴정의 손법손이며, 서산대사의 법맥을 이은 조선 후기의 고승이다. 환적당이 봉암사에서 처음 수행한 것은 60세(1662년)부터 61세까지로 행장에 의하면 백운대에 바로 이 마애미륵여래좌상을 조성하고, 사적비를 세웠으며 환적암을 지었다. 환적당 의천은 64세에도 봉암사에서 수행하는데, 당시는 시왕증사(十王證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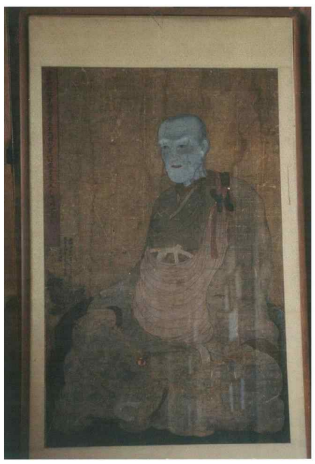
의 소임을 맡았다. 봉암사에 봉안된 환적당의 승탑은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3호로 지정돼 있으며(도5와 6), 935년 봉암사를 중창한 정진긍양 승탑(보물 제171호), 1431년 봉암사를 중수한 함허득통 승탑(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4호)과 함께 있다.



<도4> 환적당 승탑과 진영 봉안 사찰

<도5> 봉암사 환적당 승탑

<도6> 환적당 승탑 幻寂堂銘


<도7> 환적당 의천 진영 (해인사 소장)

환적당 승탑은 그의 행장에 의하면 모두 8곳에 건립되었다고 한다(도4). 행장에는 모두 8곳으로 적었지만, 최근 칠곡 대흥사에 또 1기의 승탑이 있음이 알려져 모두 9기의 승탑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춘천 청평사, 문경 봉암사, 제천 덕주사, 합천 해인사, 대구 용연사, 거창 연수사, 봉화 각화사, 의성 대곡사, 그리고 칠곡 대흥사이다(8곳 승탑의 위치는 그림 참조). 한국에서 분사리하여 승탑을 건립하는 일은 고려말 태고보우와 나옹혜근부터 성행하는데, 9곳에 분사리한 환적당 승탑이 현재까지 알려진 분사리 승탑 가운데 가장 많은 예이다.

환적당 진영은 2점이 알려져 있었다. 해인사 백련암과 상주 남장사이다. 해인사 백련암은 환적당이 입적한 사찰이고, 상주 남장사는 42세인 1644년에 동안거를 지낸 사찰이다. 해인사 백련암의 진영은 1990년 무렵 도난당했으나 최근 되찾았다(도7 참조). 남장사 진영은 도난 후 찾지못하여 현재 모사한 진영을 봉안하고 있다.

▌환적당 의천(1603-1690)과 봉암사 마애미륵불좌상

봉암사 마애미륵불좌상은 환적당 의천이 61세되던 해인 1663년에 제작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풍계집』, 「환적당대사행장(幻寂堂大師行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풍계 명찰(楓溪 明察, 1640-1708)은 환적당 의천의 제자로 그가 지은 「환적당대사행장」을 통해 환적당의 법맥과 마애미륵불좌상 조성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문헌 1) 『楓溪集』, 「幻寂堂大師行狀」, 1711년

"…年六十六壬寅秋 來住慶尙道聞慶縣義陽山鳳岩寺過冬 明年癸卯春 寺之西里許白雲臺 乃崔孤雲所嘗遊賞處也 川明石白 怪石嵂嵂 川邊有天削立石五丈許 顯刻彌勒像 因立記事碑文 文乃驪興閔判書所撰也 碑下建幻寂庵 因過夏…"

"나이 60세 임인(壬寅)년 1662년 가을. 경상도 문경현 희양산 봉암사에 와 살면서 겨울을 지냈다. 이듬해 계묘(癸卯)년 1663년 봄. 봉암사 서쪽 1리쯤 되는 곳에 있는 백운대는 곧 최치원이 유람하고 감상하던 곳이다. 물이 맑고 돌이 희며 기이한 암석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물가에 자연적으로 깎인 다섯 발쯤 되는 입석(立石)이 있어서 미륵상을 새기고** 이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으니, 비문은 곧 여흥(驪興) 민판서가 지은 것이다. 비석 아래에 환적암(幻寂庵)을 건립하고 그대로 여름을 지냈다."

(관련 문헌 2) 『新羅國曦陽山鳳巖寺古今事蹟目錄』, 「白雲臺彌勒碑銘」

"…俾作終老之期 謀建方丈之室 以師景行倘來之佛 歸心彌勒之尊 鑱慳奏功 是謂一佛 出世毫光 現相已見 衆生捧頭…"

"이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작은 암자를 짓기로 하였다. 훌륭한 미래불을 스승삼아서 미륵존자에게로 마음을 돌렸다. **딱딱한 돌을 파서 완공을 하니, 한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 빛난다고 하였다**. 드러난 형상을 보고 나서는 중생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같은 시기 괘불과 형식 및 양식 공유!

봉암사 마애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같은 시기 괘불을 모본으로 삼았다는 점이다(도8). 17세기 괘불은 방형 얼굴에 각진 어깨를 지닌 체구, 두 장의 가사를 걸친 이중 가사가 특징이며, 굴곡진 발제선(도9), 구슬처럼 동글동글하게 표현한 귓구멍(도11)도 특징이다.

<도8>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과 안동 봉정사 괘불 비교

<도9> (사진 왼쪽부터) 마애불, 괘불, 불상의 발제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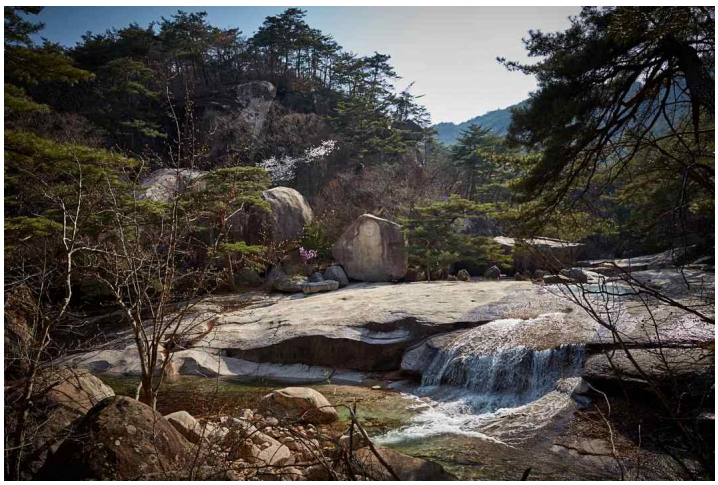
<도10> 마애불과 괘불의 착의형식 비교

<도11> 귀 비교

가슴 아래 띠매듭이 보이는데 이 역시 같은 시기 불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도10). 특히 괘불은 야외에 내걸었을 때 괴체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불상의 어깨를 넓고 각지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봉암사 마애불이 그러하다. 비록 봉암사 마애불보다는 제작 시기가 늦지만, 1705년 예천 용문사 괘불, 1710년 안동 봉정사 괘불 등 문경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같은 권역의 괘불과 비교해 보면 봉암사 마애불이 같은 시기 괘불을 모본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130여 점의 괘불화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1622년 제작 보물 제1279호 나주 죽림사 괘불이다. 대부분이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인데, 특히

이 시기에 야회법회가 늘어나고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와 같은 재의식이 성행한 것과 관련이 깊다. 잘 알려진 것처럼 괘불은 전각 내부에서 치를 수 없는 큰 규모의 야외행사를 위한 불화이다. 특히 1600년부터 1700년까지 야외법회가 자주 개최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 강력한 억불정책을 썼던 조선 전기와 달리 공공연한 법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돌아간 부모·형제, 친척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망자 천도의례를 빈번히 개최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도12>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전경

봉암사의 마애불은 괘불을 대신하여 야외법회를 위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높다(도12). 봉암사 마애불은 불상 높이만 540cm로 괘불에 버금가는 크기이다. 봉암사 마애불은 괘불처럼 행사 때마다 걸어 사용한 후 다시 말아 보관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며, '돌'의 내구성으로 조성하고 나면 그 무엇보다도 오래 지속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봉암사 마애불 앞의 너른 공간에서 야외법회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봉암사의 사세로 미뤄보면 의천스님을 도와 커다란 마애불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능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 이후 수많은 사찰이 복구되고, 불화가 다수 제작되면서 화승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당시 화승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빠짐없이 동원되어 국가적인 각종 공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의천스님의 영향력 정도면 이 거대한 마애불을 조성하기 위한 화승을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ㅇ 참고문헌

權相老 編,『韓國寺刹全書』上,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9.
楓溪明察, 「幻寂堂大師行狀」, 『楓溪集』 卷下, 『韓國佛敎全書』 9.
김풍기, 「淸平寺 幻寂堂 浮屠에 대한 一考察」,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硏究所, 『강원문화연구』 11, 1992.
손영문, 「高麗時代 龍華手印 彌勒圖像의 硏究」, 『미술사학연구』 252, 한국미술사학회 20, 06.12.
한기문, 「고려시대 봉암사와 희양산파의 추이」, 『불교연구』 34, 한국불교연구원, 201.
홍병화·김성우,「희양산 봉암사 극락전의 연구」, 『건축역사연구』 16-5, 한국건축

역사학회, 2007.
홍성익, 「조선후기 환적당 팔분사리 부도에 관한 연구」, 『박물관지』 13,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6.

□

ㅇ 현　　상

이 마애불은 봉암사 경내 앞을 흐르는 계류인 양산천을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략 500m의 위치에 있는 백운대의 남쪽 바위에 새겨져 있다. 백운대는 양산천을 끼고 넓은 너럭바위가 층단을 이루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듯한 절경에 위치한 곳으로 일찍부터 많은 시인묵객이 찾아 풍광을 감상하던 장소로 전해진다. 이러한 백운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는 정면이 평평한 독립된 바위면에 마애불을 새겼는데, 북향에 가깝기 때문에 좋은 햇살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이처럼 북향은 불상을 조성하기에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 바위가 백운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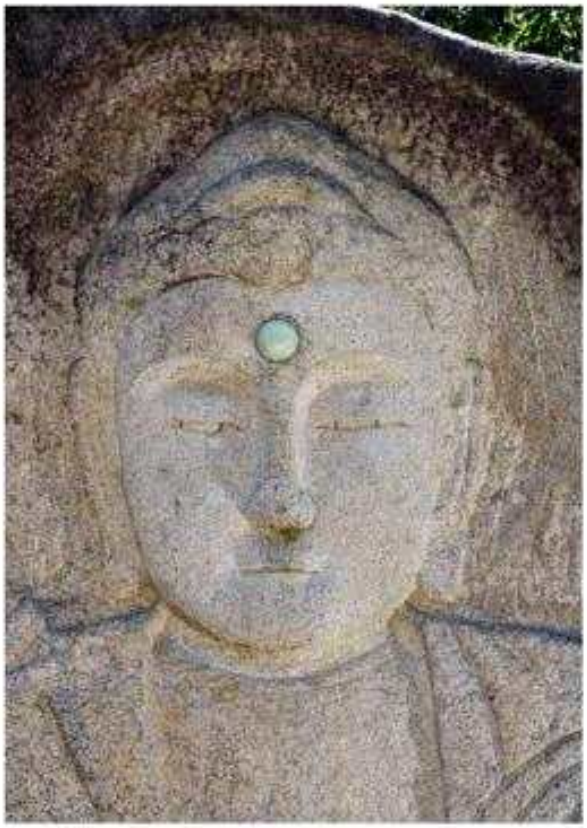
봉암사 마애불 정경

봉암사 마애불 전경

봉암사 마애불 불두 세부

불상을 새기기 가장 적합한 바위이고, 또한 불상을 새긴 뒤 그 앞에서 예불 등의 종교의례를 하기에 적합한 위치이며, 나아가 새겨야할 불상의 존명이 미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방불에서 종종 북쪽에 배치되는 미륵불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북향의 바위를 무리없이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마애불 앞의 너럭바위에는 작은 홈이 패어있는데, 그 주변의 바위는 속이 비어있어 두드리면 목탁처럼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있다. 마치 밀양 만어사의 바위들이 두드리면 종소리가 난다는『삼국유사』의 기록과 실제의 현상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흥미롭다.

이 마애불은 현재 명칭이 보살로 되어 있으나, 아마도 꽃가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추정되며, 원래는 불상으로 조성되었음이 도상적으로도, 그리고 사찰에 전해지는 기록으로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불두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언뜻 머리카락 부분이 나발이 표현되지 않은 소발처럼 보이지만, 중간계주 및 발제선의 중간을 보면 둥글둥글한 윤곽선이 분명히 보이고, 그 안쪽으로도 분명하게 나발을 표현하기 위해 선각을 새겨넣은 것이 보인다. 육계는 삼각형에 가깝게 솟아있으나 가운데 둥근 중간계주가 자리잡고 있어 그다지 날카롭게 솟은 느낌을 들지 않는다. 미간에는 상당히 큰 백호가 박혀 있는데, 1935년대의 사진에는 이 백호 자리에 큰 구멍만 있는 것으로 보아 근대기에 새롭게 조성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봉암사 마애불 본두 세부

내소사 괘불탱 본두 부분 세부

그러나 실제로도 지금과 같은 지름의 백호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지금처럼 완연하게 반구형으로 솟은 형태였는지, 재질도 이와 같았는지는 알 수 없다.

마애불의 불안(佛顔)은 언뜻 그늘이 드리워졌을 때는 단순하고 도식화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이목구비가 매우 뚜렷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정교함을 갖추고 있다. 정면을 응시하는 듯한 부리부리한 눈 안에는 눈동자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 생동감이 있다. 코는 콧등의 위쪽, 즉 미간 사이가 더 넓고, 아래쪽 콧볼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듯한 다소 특이한 윤곽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는 콧등의 위와 아래가 거의 같은 깊이이지만, 앞에서 볼 때는 아래쪽으로 올수록 더 높게 솟은 느낌이 드는 것도 독특한 기법이라 하겠다. 눈썹에서 눈두덩에 이르는 공간은 깊이 파서 아래서 올려다 볼 때 눈의 윤곽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입술은 콧볼의 너비 정도와 유사한 좁은 길이를 지녀 작아보이기도 하지만, 대신 입술에 힘을 주고 입을 꼭 다문 듯한 힘 있는 표정이 느껴지게도 한다. 두 귀는 귓불의 접힌 모습을 얕은 부조임에도 입체감 있게 묘사했는데, 귓불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윤곽선이 겹쳐지도록 정교하게 표현한 것이다. 얼굴의 윤곽선은 계란형으로 원만하다. 전반적으로 젊거나 혹은 앳된 인상을 주는 얼굴이어서 유려한 인상을 풍긴다. 1700년에 그려진 내소사 괘불탱의 얼굴 묘사와의 유사성도 엿보인다.

봉암사 마애불 상체

봉암사 마애불 용화가지 세부

착의법은 통견에 가슴 아래로 내의와 이를 묶은 띠매듭이 묘사된 일반적인 여래의 착의법이다. 옷주름은 주요한 옷자락의 흐름을 2~3조의 굵은 선으로 간략하게 묘사했지만, 그 선이 깊고 유기적으로 전체가 이어지는 듯하여 자연스럽고 입체적으로 느껴진다. 그러한 가운데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손바닥을 바깥으로 하고, 왼손은 아랫배 앞에서 들어 손바닥을 위로 하여 그 두 손으로 꽃가지를 들고 있다. 꽃가지의 줄기는 직선에 가까우나 상하 끝단에서 약간씩 구부러지는 형태이고, 꽃은 만개한 형태가 아니라 아직 피지 않은 작은 두 개의 봉오리로 묘사되어 있다. 이 꽃은 뒤에 언급하겠지만 마애불이 미륵불로서 조성된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용화꽃으로 볼 수 있다. 표현 자체는 연꽃 봉오리와 차이는 없으나 염화미소를 의미하는 장면에서 연꽃은 주로 만개한 상태로 표현되거나 혹은 봉오리 자체가 매우 크게 묘사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이것이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줄기를 약간 짧게하고, 작은 봉오리 두 개 대신 하나의 큰 봉오리를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연꽃과 차별화하기 위한 용도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아직 완전히 필 준비가 되지 않은

봉암사 마애불 왼팔의 착의상태 및 화엄사 괘불탱(1653년) 본존불 왼팔의 착의상태 비교

봉오리를 묘사하여 미륵불의 미래적·잠재적 성격을 드러낸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된다.

양쪽 팔뚝을 덮은 가사의 묘사는 일반적인 통견식 착의의 불좌상의 소매 표현과 조금 차이가 있다. 오른쪽 팔은 장삼의 소매로 덮여있고, 어깨 위를 가사가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형식이어서 일반적인 불상 착의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왼쪽 어깨와 팔은 보통 전체적으로 가사로 덮여있는데 반해, 봉암사 마애불은 마치 오른쪽 어깨처럼 어깨를 덮은 가사와 그 아래 장삼의 소매가 구분되듯이 묘사되어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특히 장삼에 덮인 왼팔 팔뚝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이 묘사되어 가사가 얇게 느껴진다. 또한 좌우 소매가 허리 높이에서 몸 안으로 휘어들어감으로 인해 불상의 허리가 잘록해보이는 효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은 주로 조선시대 불화의 여래 착의법에서 자주 발견되는 형식이다.

꽃가지를 들고 있는 손의 손가락 표현도 매우 섬세하다. 꽃가지만 없으면 마치 하품중생인과 닮은 손의 자세와 손가락의 구부러진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랫배 앞의 왼손은 손가락이 다소 어색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손가락 중에 가장 아래쪽에 길게 뻗고 있는 손가락이 가장 바깥쪽의 엄지손가락이어야 할 위치인데

봉암사 마애불 왼손 손가락의 방향배치 및 마곡사 괘불탱 오른손 손가락의 방향배치 비교

짧게 묘사되어야할 손가락이 이처럼 길게 묘사되어 언뜻 검지손가락처럼 길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구부러진 짧은 손가락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손톱이 다른 손가락들과는 반대 위치에 놓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손가락들과 마찬가지로 왼쪽방향에 손톱이 있어 역시 엄지손가락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모델링은 조각가의 기량 부족으로 원인을 돌리기 쉽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조선시대의 이처럼 꽃가지를 든 괘불탱화의 꽃을 받친 쪽 손의 손가락이 이와 같이 표현된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이 불화에서는 일반적이었고, 이 마애불의 초를 잡은 사람이 화승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한편 왼손 손등 아래로 꽃가지의 끝단으로 보이는 줄기가 튀어나와 있어서 왼손바닥으로 줄기를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괘불탱의 경우 손바닥으로 받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수도사 괘불탱은 봉암사 마애불처럼 줄기가 손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고려시대의 관촉사 은진미륵의 경우는 손가락의 위치가 사실적으로 정상적인 배치를 보이고 있어 고려와 조선의 표현기법의 차이가 흥미롭다.

가부좌한 하체는 오른발을 위에 얹어 오른발 발바닥이 위로 드러나 보인다. 하체를 감싼 옷주름은 아래쪽에 하의가 일부 보이고, 그 위를 장삼의 소매 및 가사가 덮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간략한 음각선이지만 음각선이 평행선을 그리지 않고 구불거리는 묘사가 있어 변화를 주었고 간략한데도 단순하지 않고 유려한 느낌이 든다.

봉암사 마애불 하체 반측면

봉암사 마애불 바위 측면

광배는 별도로 표현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상을 새기기 위해 마애불 주변을 깊게 파내면서 자연스럽게 불신에 밀착된 두광과 신광처럼 보이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바위면을 파낼 때 생긴 정자국이 마치 화염문의 불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마애불 아래로 별도의 대좌는 묘사되지 않았다. 마애불의 양쪽 팔굽 높이고 네모난 칸을 만들고 음각으로 내용을 새진 마애전패가 위치한다. 그밖에 주변에 이 마애불을 보호하기 위해 전각을 세웠음직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아 이처럼 노출된 상태로 오랜 기간 전해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독의 바위이고, 바위 윗면이 좌우로 경사졌기 때문에 빗물이 좌우로 흘러내리고 전면으로는 많은 양의 빗물이 흐를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더구나 전면이 약간 앞으로 기운데다가 마애불 주변의 광배처럼 파놓은 부분이 마치 도랑 같은 역할을 하여 빗물 등이 마애불의 좌우로 흘러나가게 함으로써 전각이 없어도 장기간 마애불의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비록 하체 부분은 빗물이 오랜 세월 흘렀던 흔적이 있지만, 상체, 특히 얼굴 부분은 빗물이 흐르지 않아 보존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봉암사 마애불 전면부 바위 상태

봉암사 마애불 주변 숲 및 계류 원경

ㅇ 내용 및 특징

우선 이 마애불은 양산천이라는 계류 가의 너럭바위 위에 위치하여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마치 하생한 미륵불이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을 하는 장면인 것처럼 바위 주변은 잘 자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마애불의 주변환경은 아마도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삼천사 마애여래좌상 등도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옥천암은 그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원래의 풍광을 많이 변모되었고, 삼천사 마애불도 그 앞의 공간의 지면을 높이 돋워 계류가의 마애불이라는 주변 맥락을 상실한 반면, 봉암사 마애불은 원래의 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마애불들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관불이나 보살로서 꽃을 든 존상은 많이 발견되는 반면, 불상으로서 꽃을 들고 있는 도상은 그리 많지 않고, 또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존명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 마애불은 기록에 의해 미륵을 조성한 곳이 분명하여 절대적인 기준작이 되고 있다. 즉, 환적당 의천(幻寂堂 義天)의 제자인 풍계(楓溪, 1640~1708)가 지은 『환적당대사행장』에 의해 환적당이 1663년 봉암사에 머물다가 봉암사 서쪽에 미륵상으로서 마애불을 조성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마애불이 1663년 조성되었다는 절대연대와 미륵불이라는 존명이 밝혀져 도상적으로도 분명한 기준작이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원 미륵

리사지의 석불입상 등 꽃을 든 부처의 도상이 미륵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하는데 단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마애불은 조선시대 마애불 중에서도 예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다. 앳된 얼굴은 1700년에 그려진 내소사 괘불탱의 이국적이고 앳된 본존불의 얼굴로 계승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옷자락 처리에 있어 왼팔을 덮고 있는 소매의 표현과 왼손 손가락의 표현이 일반적인 조선시대 불상조각상의 묘사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조선시대 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러한 마애불의 초를 기본적으로 화승이 잡았음을 추정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덕분에 조각이면서도 회화적으로 유려하고 섬세한 마애불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ㅇ 문헌자료

…年六十六壬寅秋 來住慶尙道聞慶縣義陽山鳳岩寺過冬 明年癸卯春 寺之西里許白雲臺 乃崔孤雲所嘗遊賞處也 川明石白 怪石嵂嵂 川邊有天削立石五丈許 顯刻彌勒像 因立記事碑文 文乃驪興閔判書所撰也 碑下建幻寂庵 因過夏…

『楓溪集』<幻寂堂大師行狀>

[“나이 60세 임인(壬寅)년 1662년 가을. 경상도 문경현 희양산 봉암사에 와 살면서 겨울을 지냈다. 이듬해 계묘(癸卯)년 1663년 봄. 봉암사 서쪽 1리쯤 되는 곳에 있는 백운대는 곧 최치원이 유람하고 감상하던 곳이다. 물이 맑고 돌이 희며 기이한 암석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물가에 자연적으로 깎인 다섯 발쯤 되는 입석(立石)이 있어서 미륵상을 새기고 이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으니, 비문은 곧 여흥(驪興) 민판서가 지은 것이다. 비석 아래에 환적암(幻寂庵)을 건립하고 그대로 여름을 지냈다.”

『풍계집』<환적당대사행장>]

…俾作終老之期 謀建方丈之室 以師景行倘來之佛 歸心彌勒之尊 鑱慳奏功是謂一佛出世毫光 現相已見 衆生捧頭…

『新羅國曦陽山鳳巖寺古今事蹟目錄』<白雲臺彌勒碑銘>

[“이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작은 암자를 짓기로 하였다. 훌륭한 미래불을 스승 삼아서 미륵존자에게로 마음을 돌렸다. 딱딱한 돌을 파서 완공을 하니, 한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 빛난다고 하였다. 드러난 형상을 보고 나서는 중생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신라국희양산봉암사고금사적목록』 <白雲臺彌勒碑銘>]

□

ㅇ 내용 및 특징

봉암사는 구산선문 중 하나인 曦陽山門의 宗刹로서, 879년(헌강왕 5)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智證大師 智詵이 창건하고, 935년(태조 18) 靜眞大師 兢讓이 중창하였다. 조선 1431년(세종 13)에 己和가 중수하였고, 1674년(현종 15) 화재로 소실된 뒤 信和가 중건하였다. 1907에도 가람이 소실되어 1915년에 世旭이 다시 퇴락한 당우를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禪刹이다.

봉암사 경내에서 계곡을 따라 10여분 정도 올라가면 “백운대(白雲臺)”라고 불리는 너른 바위골이 나타나는데, 마애보살좌상은 이곳 화강암 바위면에 동북 방향으로 양각되어 있다. 보살좌상은 높이가 539.6cm, 너비가 502.6cm 정도이며 머리 주변을 깊게 파서 광배 형상을 만들고, 위는 깊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얕은 부조로 처리했다. 불상의 양측에는 王室三殿下에 대한 축원문을 음각해 놓았다.

머리는 소발(素髮)이고 육계와 머리의 경계지점에 송편 모양의 큼직한 중앙계주(髻珠)를 도드라지게 새겨 넣었다. 둥글고 갸름한 얼굴에 오똑한 콧날, 세상을 굽어보는 부드러운 눈매, 단정히 다문 입 등이 잘 조화를 이루며 호남형의 인상을 준다. 버들잎처럼 휘어진 양 눈썹 사이에는 옥색의 둥근 백호(白毫)가 박혀 있다. 이 백호는 일제강점기의 사진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후대 어느 시점에 새로 해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머리와 육계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으며, 발제선의 중앙에는 쌍방울모양으로 맺힌 애교머리를 표현하였다. 귀는 이륜과 귓불로 이어지는 몇 부분에 곡을 주어 전체적으로 길쭉한 3자 형태를 띠며, 귓구멍은 동글동글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군의와 이를 묶은 띠 매듭과 팔자로 드리운 띠자락이 표현되었다. 왼쪽 어깨로 넘겨진 대의는 어깨부근에서 부채꼴 모양을 형성하였고, 팔꿈치 부근에는 ‘Ω’형 주름잡았다. 무릎을 덮어 내린 대의자락도 바람을 불어넣은 듯 품을 넉넉하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특징 있는 세부표현은 17세기에 제작된 불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소이지만, 나주 죽림사 세존괘불탱(1622)을 비롯하여 구례 화엄사 영산회괘불탱(1653년), 하동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1688년), 여수 흥국사 영산회상도(1693년) 등 17세기 전반기 불화에서부터 등장하여 18세기 이후의 불화까지로 이어지는 불화적인 표현요소이다.

목에는 삼도(三道)를 옅게 표현했고 양쪽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通肩)이며, 주름은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걸친 군의와 이를 묶은 띠 매듭이 표현되었고, 주름은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며 절제감 있게 조각했다. 앉은 모습은 길상좌이며, 노출된 오른발은 불상의 크기와 넓은 무릎에 폭에 비해 작은 편이다. 대좌는 마멸이 심해 불분명하나 단판연화좌(單瓣蓮花座)로 판단하고 있으며, 육안

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 마애불은 전체적으로 얼굴은 작고 신체는 늠름하고 무릎 폭은 넓고 풍성하게 처리하여 안정감 있는 비례 속에 장대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입체성을 강조한 얼굴은 磨研을 통해 부드럽고 온화한 부처의 본성을 강조하였고, 신체는 선묘 위주의 감각적인 표현기법을 통해 노천에 나투신 부처의 형상도 의도하였다.

이 불상에서 도상적으로 주목되는 점은 수인이다. 불상은 두 손으로 긴 다발형의 꽃가지 받쳐 쥐고 있는 모양이다. 오른손은 어깨 앞에서 꽃가지의 상단부를 쥐었고, 왼손은 배 부근에 두어 꽃가지의 하단부를 받치고 있다. 통상적으로 꽃을 지물로 취할 수 있는 여래는 석가여래와 미륵여래 중 하나로 판단되는데, 풍계가 지은 「환적당의천 행장」에 의해 환적당 의천이 발원·조성한 미륵여래로 확인된다.

미륵불은 석가여래를 이어 56억 7천만년 뒤 이 땅에 하생하여 석가여래가 구제하지 못한 인연중생들을 세 번의 설법을 통해 모두 구제한다는 부처이다. 미륵은 하생하기 전 도솔천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이므로, 신앙적 구조는 상생과 하생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륵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널리 신앙되고 있는 불교의 대표적인 신앙 중 하나로 불상 등 예배존상으로도 많이 조성되었다. 보통 불상으로 조성될 때는 보살형과 여래형, 그리고 두 도상이 혼합된 복합형으로 표현된다.

봉암사 미륵불은 여래형으로 표현되었으며, 다발형 꽃가지를 지물로 취한 용화수인 미륵불의 도상적 특징을 보인다. 용화수인(龍華手印)의 용화라는 말은, 석가모니불의 입멸 후 56억 7천만 년이 경과하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교화를 마치고 이 세상의 용화수 아래에 내려와 석가모니불이 구제하지 못한 중생들을 세 번의 설법을 통해 모두 구제한다는 말에서 유래한다. 봉암사 미륵불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다발형 용화수인 미륵도상은 인도 팔라기 미륵도상의 영향을 받아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전기 크게 유행한 미륵도상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그 전통은 조선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 불상과 불화의 대표적인 용화수인 미륵상은 서울 봉천동 마애미륵여래좌상(1630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탱(1627년), 청양 장곡사 미륵불괘불탱(1673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이 마애불은 그동안 고려 초기 뛰어난 마애불로 인식되어 오기도 했다. 하지만 幻寂堂 義天(1603-1690)[16]의 행장이 확인되면서 1663년에 그가 발원·조성한

16) 환적당 의천은 자가 지경(智鏡) 호가 환적(幻寂)이고, 속성은 문씨로 선산(善山) 사람이다. 11세 때 속리산 복천사(福泉寺)의 진정당(塵靜堂) 탁린선사(琢璘禪師)를 따라 출가했고, 14세 때 금강산 정양사(正陽寺)로 서산대사의 제자인 편양당(鞭羊堂) 언기(彦機)를 찾아간다. 1년 후 속리산으로 돌아와 16세 때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남쪽 합천 해인사부터 북쪽 함경도 안변(安邊)의 석왕사(釋王寺)까지 수많은 명산대찰을 유력하다가 말년에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오대산 진여원, 환적암, 신성암 등이었고, 그 다음은 처음 출가했던 속리산 삼존동과 견성암이었으며, 기타 해인사(7년), 동화사(5년),

미륵불임이 분명해졌다.

도465.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도 466 봉암사 미륵여래의 얼굴

도 467 서울 봉천동 마애미륵여래좌상, 1630

도 468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의 본존, 1653년

도 469 여수 흥국사 후불탱의 본존, 1693년

즉 환적당(幻寂堂) 의천(義天)의 제자인 풍계(楓溪) 明察(1640-1798)이 지은 「환적당대사행장」에 의하면, 이 마애불은 1663년(현종 4) 환적당이 60세 가을부터

청량산(5년), 청평사(약4년), 금강산(4년) 등에 비교적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여러 사찰을 유력했던 만큼 여러 곳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특히 재령 장수산, 안변설봉산, 강원도 오대산, 문경 희양산 등 4곳에 환적암(幻寂庵)을 세운 것이 유명하며, 사후에도 합천 해인사를 비롯해 문경 봉암사, 춘천 청평사, 월악산 덕주사, 대구 용연사, 태백산 각화사, 거창 연수사, 인동 대곡사 등 8곳에 사리를 나누어 탑을 세웠다. 김풍기, 「淸平寺 幻寂堂 浮屠에 대한 一考察」, 『강원문화연구』 11(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2), 94-97쪽 참조

61세 여름까지 이곳 봉암사 약 1년간 머무르고 있을 당시 자신의 願佛인 彌勒佛을 조각하고, 관련 사실을 후대에 판서를 역임한 閔黯(1636-1694)이 비문을 지어 비석을 세웠고, 자신은 碑 아래에 幻寂庵이라는 암자를 짓고 그 해 여름을 보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이 60세 임인(壬寅)년 1662년 가을. 경상도 문경현 희양산 봉암사에 와 살면서 겨울을 지냈다. 이듬해 계묘(癸卯)년 1663년 봄. 봉암사 서쪽 1리쯤 되는 곳에 있는 백운대는 곧 최치원이 유람하고 감상하던 곳이다. 물이 맑고 돌이 희며 기이한 암석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물가에 자연적으로 깎인 다섯 발쯤 되는 입석(立石)이 있어서 미륵상을 새기고 이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으니, 비문은 곧 여흥(驪興) 민판서가 지은 것이다. 비석 아래에 환적암(幻寂庵)을 건립하고 그대로 여름을 지냈다."(… 年六十六壬寅秋 來住慶尙道聞慶縣 羲陽山鳳岩寺過冬 明年癸卯春 寺之西里許白雲臺 乃崔孤雲所嘗遊賞處也 川明石白 恠石嵂嵂 川邊有天削立石五丈許 顯刻彌勒像 因立記事碑文 文乃驪興閔判書所撰也 碑下建幻寂庵 因過夏 …)『풍계집』, 「幻寂堂大師行狀」12)

다음으로는 현재 봉암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라국희양산봉암사고금사적목록』에 수록된 「백운대미륵비명」의 기록인데, 내용은 환적당 행적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유사하나 행장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주는 내용이다.

> "이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작은 암자를 짓기로 하였다. 훌륭한 미래불을 스승 삼아서 미륵존자에게로 마음을 돌렸다. 딱딱한 돌을 파서 완공을 하니, 한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 빛난다고 하였다. 드러난 형상을 보고 나서는 중생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俾作終老之期 謀建方丈之室 以師景行倘來之佛 歸心彌勒之尊 鑱慳奏功 是謂一佛出世毫光 現相己見 衆生捧頭 …)『신라국희양산봉암사고금사적목록』, 「白雲臺彌勒碑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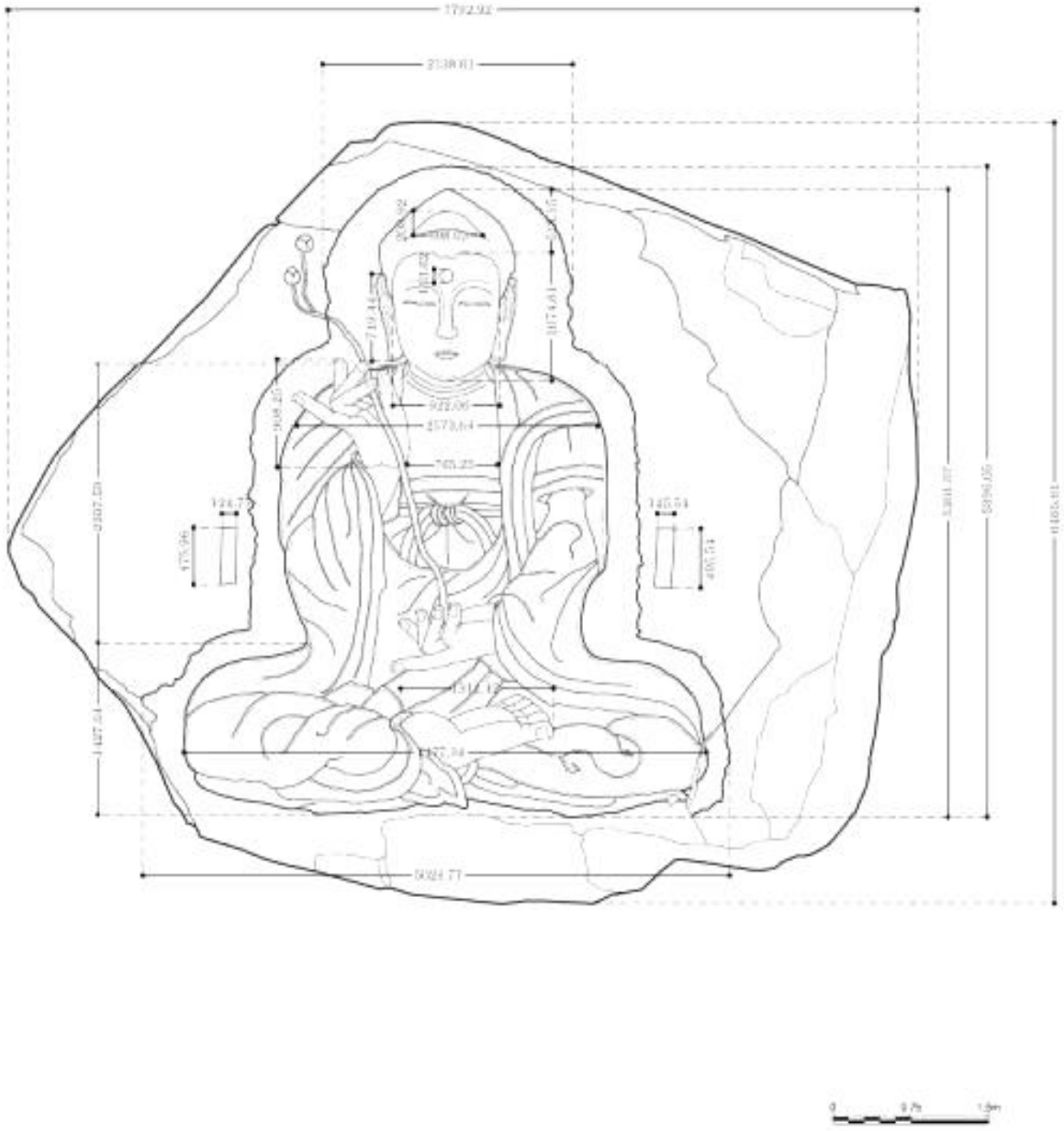


그림 243.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실측도

ㅇ 참고문헌

金和英, 「鳳巖寺 磨崖佛坐像」,『美術史學硏究』56·57, 한국미술사학회, 1965.

金豊起, 「淸平寺 幻寂堂 浮屠에 대한 一考察」,『강원문화연구』11,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2.

손영문,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도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252, 한국미술사학회, 2006.

안건번호 동산 2020-07-006

6. ‘미륵원’명 청동북
(‘彌勒院’銘 金鼓)

가. 심의사항

‘미륵원명 청동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미륵원명 청동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24.)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5.27.) 및 과학조사(’20.5.27./6.1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0.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10.30.～11.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미륵원’명 청동북(‘彌勒院’銘 金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등구사

○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촉동길 7-40, 등구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지름 53.2cm. 당좌 구경 8.8cm.
앞면 내구경 22.4cm. 중구경 35.7cm. 외구경 52.2cm.
앞면 당좌 지름 8.8cm. 뒷면 내경 40.7cm. 측면폭 10.5cm.
두께 : 고면 4.3mm, 측면 4.7mm, 구연부면 4.8mm.

○ 재　　질 : 청동(구리 78% : 주석 13% : 납 8%의 3원계 합금)

○ 형　　식 : 반자형 금고

○ 조성연대 : 1190년(고려 명종 20)

그림 244. ‘미륵원’명 청동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미륵원명 청동북은 12세기 후반의 귀중한 기년명 불교공예품으로서, 동시대의 청동북 중에서도 비교적 큰 크기와 뛰어난 조형성, 그리고 우수한 주조기법 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현재 고려시대의 청동북은 기년명을 가진 12세기의 작품들이 많지 않으며, 13세기의 예들도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청동북은 기지정된 보물 청동북들보다 훨씬 우수한 양식과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확실한 제작 연대와 명칭, 발원자와 사찰명 등이 남아 있는 귀중한 작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전면을 굵은 동심원으로 3부분으로 구획하고, 당좌구와 내구에는 연씨와 연꽃, 외구의 공간에는 역동적인 넝쿨무늬를 배열하여 단조롭지 않은 구성력을 보인다. 이러한 구획은 이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제작된 ‘大定 19년(1179)명 금고’의 형태미를 계승하면서도 연씨의 개수와 배열방식, 그리고 中區를 여백으로 처리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동시기의 미적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작가의 새로운 창작 의지도 가미한 金鼓로서 예술성도 우수하다.

국내 현존 고려시대 금고의 수는 약 50여점 헤아려지고, 12세기 이전에 제작된 금고의 대부분은 지름이 30~40cm정도이다. 이 금고의 지름이 51.5cm로 이 시기

다른 金鼓에 비해 단연 돋보인다 하겠다.

이 금고는 측면 음각명문을 통해 明昌 2년 庚戌年(1190) 彌勒院에 걸기 위해 제작된 한 기년명 金鼓로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미륵원은 인제원의 후신으로, 고려시대 잠깐 운영되는 동안 사용되었던 명칭으로 판단되며, 1530년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될 당시에는 다시 원래의 명칭인 인제원으로 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청동북을 통해, 잠깐동안이지만 공주 차현(차령) 인근에 존속했던 '미륵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명문에서 분명히 이 금고를 '반자'라는 사용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뒷면에 공명구를 설치한 형태를 '반자'라고 불렀던 사례와도 맥락이 일치하므로, 고려시대 金鼓史에서 중요시 다루어야할 학술적 자료임에 틀림없다. 위와 같은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미륵원'명 청동북은 고려시대 1191년 혹은 1190년 12세기 후반의 기년명 자료로서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어 보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명문에는 연호와 간지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명창 2년 경술"이라는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 청동북을 희소한 단어인 '鉦子'로 기록한 점, '미륵원'이라는 사용처, 무게, 동량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려시대 청동북 연구에서 귀중한 기준작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이 청동북은 고려시대 주물 제작 기술을 잘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큰 작품이다. 이 청동북의 전체적인 만듬새는 다소 거친 면이 있지만, 쇳물을 붓는 주입구와 주출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형지의 크기와 위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땜을 통해 보수하는 등 고려시대 청동북의 제작 양상을 파악하기에 좋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 불교공예품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미륵원명 청동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고려시대 불교 공예품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ㅇ 형　　식

이 금속공예품은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이자 범음구(梵音具)인 청동제 금고(金鼓)로서, 금구, 반자, 청동북, 쇠북 등으로 불리운다. 현존하는 청동북들은 공명구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세 가지 형식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이중에서 미륵원명 청동북은 뒷면이 뚫려 있는 형식에 속한다(도 1, 2).

이 청동북은 앞면은 중앙의 연꽃 무늬를 중심으로 3단으로 나누어 문양을 배치했는데, 내구에는 연꽃을 양각선으로 새기고, 중구에는 문양이 없다. 외구에는 구름같은 당초문을 양각으로 새겼다. 뉴는 3군데에 있으며, 뒷면 구연부를 따라 가면서 음각의 명문 44자를 새겨 놓았다. 뒷면에는 공명구가 상당히 넓고 크게 뚫려 있다.

도 1. 미륵원명 청동북 앞면.

도 2. 미륵원명 청동북 뒷면.

ㅇ 조성연대

측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고려시대 명창(明昌) 2년 경술 11월에 제작된 것이 확인된다. 명창 2년은 고려 명종 21년으로, 서기 1191년에 해당하므로, 12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ㅇ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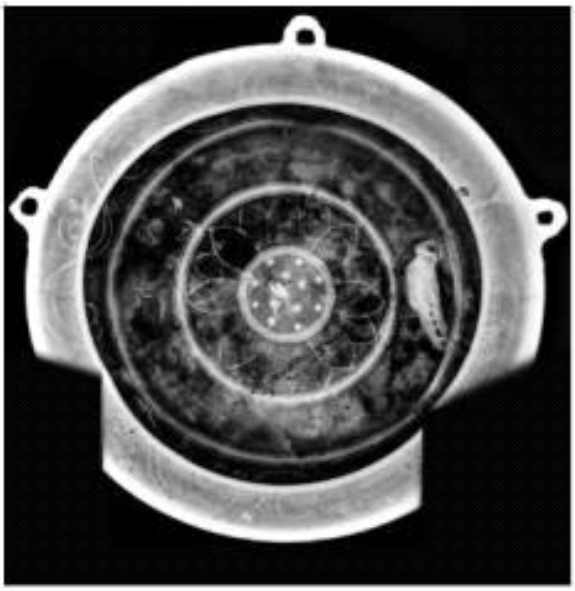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녹청색으로 부식된 상태인데, 육안으로 보면 앞면의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뒷면 내부는 부식이 심한 편이다.

X-ray 조사에 의하면, 주조품의 특징인 주조 기포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우측 고리 부근에서는 주조 결함으로 인한 구멍도 확인되었다. 또한 X-ray 사진에서 보면 중앙부 우측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밝게 찍힌 부분들이 보이는데(도 3), 이 부분들은 성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납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 즉, 이 부분들은 제작 과정이나 사용 중에 발생한 결함들을 납 성분의 땜질로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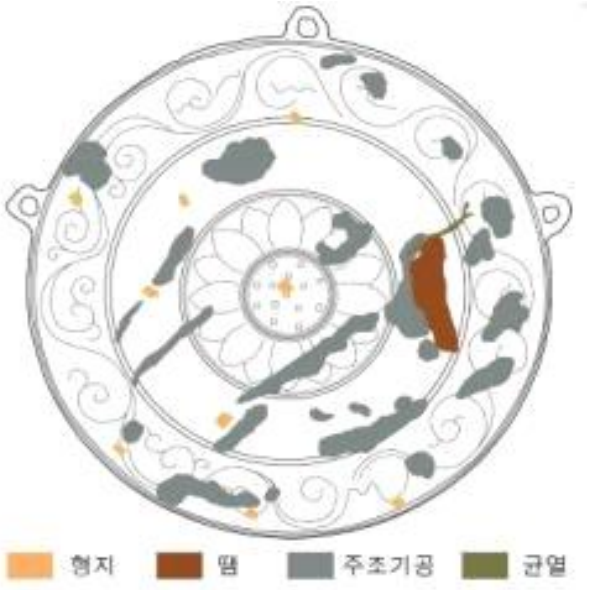
한편 윗면 중앙부를 비롯하여 9개소에서 방형의 형지(型持) 흔적이 확인되는데(도 4), 역시 형지들도 본체에 비해 납성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ㅇ 내용 및 특징

이 청동북은 3개의 뉴를 가진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청동북으로, 사찰에서 사용하는 불교 의례용 범음구이다. 내구에는 16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당좌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당좌 안에는 14개의 연과(蓮顆)가 양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표면



도 3. 미륵원명 금고의 X-ray 사진.



도 4. 미륵원명 금고의 형지 및 땜 부분 분석 (국립문화재연구소)

이 다소 마모되어 녹아래의 원래 금속 색이 드러나 보인다(도 5) 연꽃잎의 조각은 얕

게 도드라진 양각으로 표현되었는데, 꽃잎들의 배치가 균형감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

도 5. 당좌와 내구의 연꽃.

중구에는 별다른 문양이 없고, 내구, 중구, 외구의 구획은 3조의 굵은 양각선으로 이루어진 동심원으로 구획하였다. 외구에는 역시 얕게 도드라진 선으로 유려한 당초문을 표현했는데, 자유롭고 활달하면서도 우아한 양식을 보여준다(도 6).

도 6. 외구의 당초문 세부.

뒷면 구연부에 음각으로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원래 이 청동북은 충남 공주(公州) 에 있던 인제원에 있던 것으로 나중에 인제원(仁濟院)이 미륵원으로 이름을

도 7. 명문 세부.

고쳤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 공주의 인제원, 혹은 미륵원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명문은 축조기법으로 새겼고, 글씨체는 상당히 유려한 편이다(도 7).

이 청동북은 12세기의 청동북들 중에서 비교적 큰 크기의 대형 청동북이며, 문양의 조각 솜씨가 좋고 형지 및 주조 후 수리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청동기의 제작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국에서 청동북은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경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기년명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9세기경부터 12세기까지의 기년명 청동북은 십여점에 불과하며, 행방불명된 작품들도 여러 점이 있다. 그중에서 현재 약 3점 정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13세기의 청동북 중에서도 역시 3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륵원명 청동북은 12세기 후반의 기년명을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12세기의 청동북들 중에서는 비교적 대형에 속하며, 문양의 선조 양식도 상당히 뛰어난 편으로서 중요한 작품이다.

ㅇ 문헌자료

구연부 측면에 다음과 같은 44자의 명문이 있다.

“明昌二年庚戌十一月日公州土車懸用仁濟院改號弥勒院顯排鉼子壹入重肆拾三斤捌兩印　棟梁道人孝安”.

내용은 “명창 2년 경술 11월일에 공주 土車懸에 있는 인제원을 미륵원으로 고쳐부르고 鉼子를 사용했으며, 무게는 43근 8량이다. 동량은 도인 효안이다.”라는 것으로, 효안이라는 인명과 사찰 명, 그리고 “鉼子”라는 명칭이 나와서 주목된다.

ㅇ 기　　타

이 청동북은 서울 종로 소재의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으로, 이후 재미교포인 소 스캇에게 양도되었었다. 이후 2017년 11월 소 스캇이 등구사의 주지 스님인 인담스님께 기증해서 등구사에 소장되었다고 한다.

□

ㅇ 내용 및 특징

미륵원명 금고의 출토지와 입수 경위는 미상이다. 원래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작품이었는데, 이후 재미교포인 소스캇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해인사 말사인 함양 등구사에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이 금고가 어떻게 발견되어 불교미술박물관에 입수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금고의 측면에 있는 명문에 의해, 처음 봉안된 곳은 충청남도 공주 미륵원에 봉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금고의 상태는 제작당시의 주물 흠과 오랜 세월을 견뎌 온 청동녹, 그리고 제작 당시 주물 결함 또는 사용하다 고친 흔적으로 추정되는 흐적을 제외하면 금고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금고는 금구, 또는 반자로 불렀는데 뒷면이 일반적으로 명문을 통해 뒤가 뚫린 것은 반자, 앞 뒤면이 다 막힌 것은 금구라고 알려져 있다. 미륵원명 금고는 이른바 뒷면이 크게 열려 있는 반자형 금고이다. 전면과 후면은 편평한 편이며, 측면은 불룩하게 둥글려 전체적으로 납작한 북모양이다. 鼓面은 撞座區, 內區, 中區, 外區로 구획하였다. 구획선은 중간에 굵은 융기선을 두고 그 좌우에는 가는 곁 선을 돌린 3중선의 형태이다. 동심원을 이용하여 3-4개의 구획으로 나누는 구획방식은 통일신라시대 금고인 '함통 6년명 청동북'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금고 및 조선시대 금고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당나라 義淨三藏이 703년에 번역한 『金剛明最勝王經』卷3 '夢見金鼓懺悔品'에 설하고 있는 내용을 형상화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경전에는 "이때 信相菩薩이 그 날 밤 꿈에 금고를 보았는데 크기가 장대하고 밝음이 널리 비치어 햇빛에 비유되었다. 다시 광명 가운데에 十方 無邊諸佛이 보이고 世尊이 寶樹 아래의 琉璃座에 무량한 百千眷屬에 둘러싸여 앉았는데, 그 소리는 懺悔偈頌의 연설과 같더라"라고 설하고 있다. 즉 金鼓는 이른바 태양의 빛과 관련된 것으로, 부처님의 眞理光明이 十方法界로 퍼져 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좌구에는 연씨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연씨는 중심에 하나, 그것을 둘러싸고 다섯, 다시 그것을 둘러싸고 8개를 두어 모두 14개의 연씨를 표현하였다. 그 주위에 내구에는 펜촉모양으로 끝이 뾰족한 연잎을 돌렸다. 내구에는 아무런 문양을 새기지 않았다. 외구에는 'S'자형으로 역동적으로 뻗어가는 넝쿨무늬늘 시문하였다. 금고의 당좌구부터 외구까지 화려한 문양은 아니지만 내구에 연꽃을, 외구에 넝쿨무늬를 넣어 화려하지도 단조롭지 않게 금고를 장식하였다. 특히 이곳에서 표현된 끝이 뾰족한 8엽의 연꽃과 S자형으로 연결된 넝쿨무늬는 大定 19年銘 청동북(국립중앙박물관, 지름 42.5cm) 등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금고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이 금고 역시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측면의 중앙에는 3줄의 융기선대로 양분하고, 융기선대 위 세 곳에 고리를 달았다. 고리 모양은 능을 준 꽃모양이며, 중앙과 양 어깨부분에 달았다. 중앙 고리와

향 좌측 고리 사이 두 곳에는 주물구의 흔적이 남아 있고, 중구와 입술부분에는 내틀과 외틀을 고정했던 방형의 틀잡이 자국이 관찰된다. 고면(鼓面)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고, 측면의 둥글렸다. 입술은 짧아 입(공명구)이 크게 열려있는 상태이며, 입술은 밖으로 벌어진 모습이다. 입술의 끝은 굵은 선을 돌려 마감하였다. 입술부분에는 44자의 음각 명문을 축조기법으로 새겼다. 글씨는 반듯한 해서체의 서풍이며, 고려시대 금고의 명문은 대개 측면부에 많이 새겨지나 입술 부분에 새겨져 있어 주목되는 사례이다. 새겨진 명문은 아래와 같고, 한 두 글자에서 대한 해석과 판독에서 이견이 있다.

明昌二年庚戌十一月日公州土車懸用仁濟院改號弥勒院懸排鉼子壹入重肆拾參斤捌両印 棟梁道人孝安

① 허흥식 역 : 明昌 경술년 11월 모일 公州 土車縣 땅에 있는 仁濟院의 이름을 弥勒院으로 바꾸고, 鉼子 하나를 걸었다. 무게는 43근 8량이 들어갔다. 棟梁은 道人 孝安이다.

② 채웅석 역 : 明昌 2년 庚戌 11월 일 公州땅 …(해석불명)… 仁濟院을 弥勒院이라고 이름 바꾸고, 鉼子 하나를 걸었습니다. 무게는 43근 8량이 들어갔습니다. 끝. 棟梁은 道人 孝安입니다.

③ 문경호 역 : 명창 2년 경술 11월 일 공주땅 車懸(車峴=차령) 꼭대기에 있는 인제원을 미륵원으로 바꾸고, 반자 하나를 걸었다. 무게는 43근 8량이 들어갔다. 동량은 효안이다.

금고의 명문은 제작시기, 봉안처, 무게, 제작자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명문에 표기된 明昌은 金나라 章宗(完顔璟, 재위 1189-1208)의 연호로, 명창 2년은 고려 명종 21년 1191년에 해당하며, 庚戌은 이보다 한해 앞선 1190년에 해당한다. 대개 연호와 간지가 맞지 않을 때는 간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190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금고를 걸었던 곳은 미륵원으로, 금고를 걸 당시 인제원에서 미륵원으로 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금고의 무게는 48근 8량이며, 제작에 관여한 棟梁은 孝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금고를 처음 걸었던 미륵원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지만, 미륵원으로 이름을 고치기 부르기 전 사용했던 '인제원'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우선 1530년에 편찬된『新增東國輿地勝覽』권17, 충청도 공주목 역원조에는 "인제원 주 북쪽 52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仁儲院, 仁智院 등으로 조사되어 있지만, 조선 후기 『公山誌』등 여러 읍지를 통해 원래는 인제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棟梁은 사중에서 재주와 덕이 뛰어난 대덕으로 특정 불사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자 분향수도하는 승려를 일컫는 말인데, 고려시대 불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책이자 용례이다.

대개 쟁점은 연호 다음에 나오는 지명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문경호는 논문에서 허흥식이 해석한 '공주땅 토거현(公州土車縣)'은 현재까지의 기록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지명이라는 데 착안하여, 채웅석의 '공주땅(公州土) 모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車懸'은 '車峴(차령)'으로 해석하고, 같은 한자음을 음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해석은 현재 차령고개 부근에 인제원의 지명이 남아 있는 것과도 맥락이 통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인제원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공주에서 천안으로 넘어가는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뒷말의 절터로 생각되는데, 그곳에는 현재까지도 仁儲院, 仁智院 등의 지명이 남아 있고, 지역주민들은 차령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인제원 고개, 원터 고개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인제원은 명종 19년 미륵원으로 개명되어 한동안 부르다가 이후 어느 시점에 다시 인제원으로 고쳐 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 1 미륵원명 청동북(1191년)

도 2 미륵원명 청동북 배면

도 3 구연부 명문 1 도 4 구연부 명문 2 도 5 구연부 명문3 도 6 구연부 명문4

도 7 대정 19년(1179년)명 청동북 도 8 北禪院寺銘 청동북, 호암미술관, 1218년

○ **참고문헌**

최응천, 「高麗時代 靑銅金鼓의 硏究」,『불교미술』9,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8

문경호, 「公州 彌勒院 飯子의 銘文과 奉安處에 대한 재고찰」,『지방사와 지방문화』 21권1호, 역사문화학회, 2018

□

ㅇ 형　　식

<미륵원명 청동북>은 사찰의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의 한 종류로, 범종(梵鍾), 목어(木魚), 운판(雲板) 등과 함께 사찰 의식 때 범음을 내는 범음구(梵音具)이다. 청동북은 금고(金鼓), 금구(禁口), 반자(盤子), 쇠북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공양(供養)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을 때 주로 사용한다. 절의 건물 안팎에 간단하게 만든 나무기둥[架]에 걸어놓거나 처마 밑에 달아 당목(撞木)으로 치면 독특한 고음(高音)이 울린다.

도 2. 앞면(고면)

도 3. 뒷면

도 4. 측면

청동북은 공명구(共鳴口)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청동북의 뒷면을 넓게 뚫어 구연을 좁게 만든 형식과 둘째는 구연이 확장되어 공명구가 좁아지는 형식, 셋째는 앞뒷면이 모두 막혀 측면에 공명구를 뚫은 형식이다. <미륵원명 청동북>은 첫 번째 형식으로, 고려시대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제작된 일반적인 형식이다. 이를 반자(盤子, 飯子, 半子, 判子, 般子)라고도 한다.[17]

<미륵원명 청동북>은 앞면인 고면(鼓面)에는 굵고 가는 동심원(同心圓)을 둘러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가장 중앙에 당좌구(撞座區)를 배치하고, 그 옆에 내구(內區), 중구(中區), 외구(外區)가 둘러 있다. 당좌구에는 볼록한 연과(蓮顆)를 1개, 5개, 8개가 에워싸는 형태로 배치하였다. 내구에는 8개의 단판연판문이 자리하며,

17) 청동북을 음식 반을 사용한 '飯子'로 표기한 것은 금고의 용도 가운데 공양 시간을 알릴 때 사용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黃壽永, 「新羅·高麗 在銘 禁求考」, 『海圓黃義敦先生古稀記念私學論叢』, 1960, pp. 365~380.

연잎과 연잎 사이에도 잎을 묘사하였다. 중구에는 문양이 없으며, 외구에는 자유로운 당초문을 장식하였다. 뒷면에는 공명구가 넓고 크게 뚫려 구연이 13㎝ 정도이다. 측면 중앙에는 굵고 가는 세 줄의 융기문이 둘러져 있고, 3개의 고리가 위쪽과 양쪽 측면에 간격을 이루며 달려 있다. 고리의 모양은 살짝 굴곡이 진 삼엽형이다

ㅇ 조성연대

이 청동북은 명문이 있어 조성연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은 청동북의 측면에 많이 새기는데, <미륵원명 청동북>은 뒷면의 구연에 있어 눈길을 끈다. 명문은 <도5>와 같이 1행으로 새겼는데, ①의 자리에 “明昌二年庚戌十一月日公州土車懸用仁濟院改號弥勒院懸排鉼子壹入重肆拾參斤捌兩印”이라 쓰고, 14.2㎝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어서 ②의 자리에 “棟梁道人孝安”라고 적어 두었다. 명문은 해서체로 총 44자를 새겼는데, 끌로 여러 번 쪼아서 단정하게 음각하였다.

고려시대 청동북은 대개 연호(年號)나 간지(干支)를 먼저 밝히고 월과 일의 순서로 기록한다. 하지만 11~13세기 청동북은 대부분 월(月)까지만 기록하고 날짜 없이 日만 표기한 경우가 많고, 14세기 이후에는 날짜까지 기록하여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륵원명 청동북> 역시 금나라 연호인 명창(明昌) 2년을 먼저 쓰고, 간지인 경술(庚戌)을 이어 쓴 후 11월까지 적었다. 날짜(日)는 생략하여 12세기 후반의 시대적 특징이 있는 명문임을 알 수 있다.

명문 중 연호와 간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은 주목된다. 명창 2년(1191년)의 간지는 ‘신해(辛亥)’이며, 경술년은 명창 1년으로 1190년에 해당한다. 고려시대 금고 중 간지와 연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간지명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청동북의 제작 연대를 1190년으로 올려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18]

금나라 연호	간지	서기
명창(明昌) 1년	경술(庚戌)	1190년
명창(明昌) 2년	신해(辛亥)	1191년

명문에서 “土車懸用”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주(公州)’라는 지역명에 이어서 ‘토거현(土車懸)’이 적혀 있어

18) 삼성 리움 소장의 경선사명 청동북(보물 제2008호)은 “貞祐二年 戊寅七月日”이라고 조성연대가 적혀 있으나, 연호와 간지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정우 2년(1214년)의 간지는 갑술(甲戌)이며, 무인년은 1218년으로 흥정(興定) 2년에 해당한다.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p. 65.

“공주 토거현에 있는 인제원이 미륵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이 반자를 걸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懸’은 ‘걸다’는 의미로 고을을 뜻하는 ‘縣’과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고, 특히 명문의 후반에서도 ‘懸排鉢子’ 즉 반자를 걸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懸’을 ‘걸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명문을 다시 해석해보면, 토거(土車)를 ‘흙을 운반하는 수레’로 이해하여 “土車懸用”를 “(반자를) 토거에 달아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19] 따라서 명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명창(明昌) 2년 경술년 11월 (반자를) 공주(公州) 토거(土車)에 걸어서 사용하다가 인제원(仁濟院)이 미륵원(弥勒院)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 반자(鉢子)를 걸었다. 반자 1개의 무게는 43근 8량이고, 중심이 된 동량도인(棟梁道人)은 효안(孝安)”**이다. 명문에 청동북을 제작한 연도, 소장처, 무게, 동량을 기록하였다. 특히 청동북을 ‘鉢子’라 표기하였는데, 고려시대 청동북의 명문 중 ‘鉢子’라 3건으로 드문 예에 속한다.[20]

도 479. 명문의 위치

도 480. 명문 세부

도 481. 명문의 세부

ㅇ 현　　상

이 청동북은 쇳물을 틀에 부어서 만드는 주조기법에 의해 제작되었다. 측면에 사각형의 돌출된 부분이 2곳 있는데, 하나는 쇳물을 붓는 주입구이고, 하나는 주출구이다. 주출구는 쇳물이 차오르면서 공기가 빠질 수 있는 공기구멍 역할을 한다. 이 주입구와 주출구는 측면의 정중앙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청동북의 틀인 내형

19) 조선 후기의 문신 서영보(徐榮輔)의 시문집인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第2冊 序, 送展翁赴燕序에서 ‘東土車何異’이라는 구절에서 ‘土車’를 수레로 해석하여 “땅에서 수레 타는 것과 뭐가 다르랴”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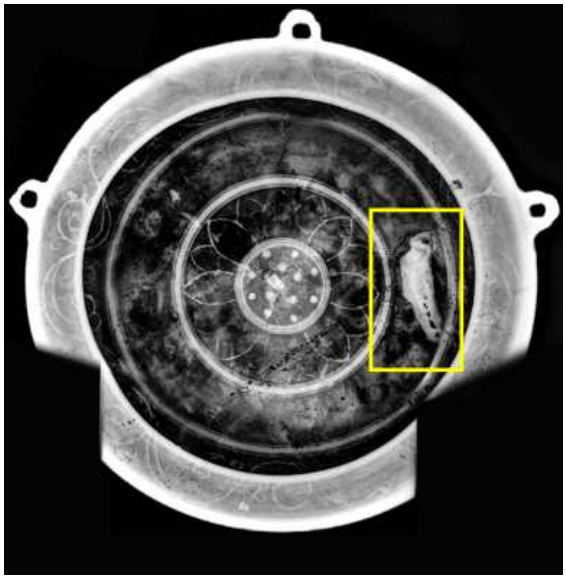
20) 최응천, 「고려시대 금고의 특성과 명문 고찰」, 『보조사상』 49, 2017, p. 134. <표 1> 고려시대 금고의 명칭과 수량 참고.

(內型)과 외형((外型)이 맞붙는 지점이다. 내형과 외형이 만나는 이 지점에 주입구와 주출구를 만들고, 또, 그 지점에 융기선으로 둘렀다. 이는 완성 후 주입구와 주출구가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청동북의 표면에는 여러 곳에 미세하게 파인 흔적이 있는데, 이는 기포자국이다. 쇳물을 부을 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공기들로 인해 자국이다.

도 255. 주입구와 주출구

도 256. 반자 측면의 기포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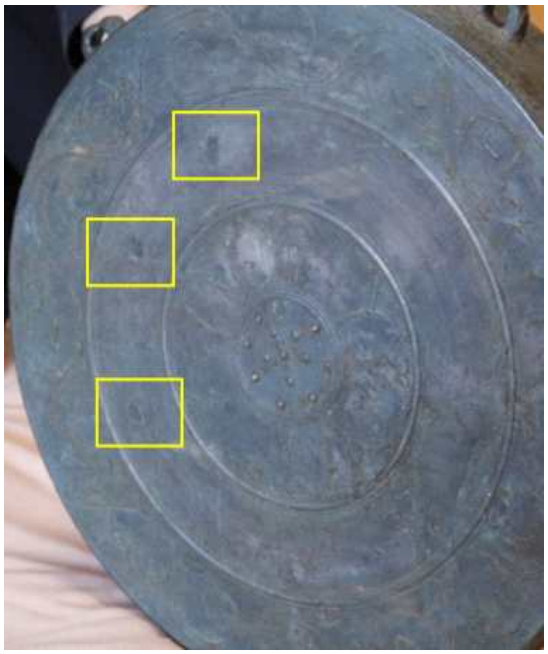
도 257. 방사선 투과 사진에 나타난 땜 부분

도 258. 고면의 땜 한 부분

앞면인 고면의 중앙 우측부에 가로 12㎝, 세로 3.8㎝ 정도의 땜을 한 흔적이 크게 남아 있다. 이 부분은 과학 성분 분석에 따르면 바탕체에 비해 납과 주석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며 앞면 내외부면의 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이를 땜질하여 보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고면의 지름이 52㎝인 이 청동북은 대형 사이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쇳물을 주입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안으로도 청동북의 앞뒷면에 형지(型持)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형지는 청동제품을 제작할 때 내형(內型)을 고정시키고, 내형과 외형(外型)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앞면인 고면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약 1㎝ 가량인 사각형의 형지가 4개, 뒷면 구연부면에도 4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지들은 9~11㎝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청동북의 내외부 모서리에는 날카로운 칼로 긁은 듯한 흔적이 있는데, 이는 제작이 완성된 후 줄로 갈아낸 흔적이다. 그리고 청동북의 일부에 파손된 흔적이 남아 있는데, 고면의 땜질한 부분, 뒷면 명문의 '孝安' 옆 구연부는 깊게 파여져 있고, 측면 고리 옆에는 작은 구멍도 있다. <미륵원명 청동북>은 전체적으로 완형을 갖추고 있으며, 큰 손상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공명 안쪽에 푸른 녹과 함께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추후 보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 259. 청동북 앞면의 형지 자국

도 260. 구연부의 형지 자국

도 261. 줄질한 흔적

도 262. 훼손 된 부분 : 앞면

도 263. 훼손 된 부분 : 구연부

도 264. 측면의 구멍

○ 내용 및 특징 : 현재 제작 연도가 확인된 청동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은 통일신라 경문왕 5년인 865년에 제작된 <함통6년명 청동북(咸通六年銘 靑銅金鼓)>이며, 고려시대 청동북은 국내외에 84여 점이 확인된다. <미륵원명 청동북>은 고면의 지름이 52㎝으로, 고려시대 청동북은 대체로 크기가 30~4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 청동북 중 고면의 지름이 50㎝ 이상 되는 대형의 청동북은 12점 뿐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21]

○ 문헌자료

명문에 기록된 '인제원'과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주목된다. 권17, 공주목(公州牧) 역원조(驛院條)에 따르면 인제원(仁濟院)은 주 북쪽 52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2] 인제원(미륵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　　타

<미륵원명 청동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이다. 이후 재미교포인 소스캇에게 양도되었다가 등구사 주지인 인담 스님에게 기증되었다고 한다. 소스캇은 유물의 원래 소재지와 가까운 사찰에 기증하기를 권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2017년 11월 해인사에서 재무소임을 맡아 계시던 인담 스님에게 기증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등구사에 소장되어 있다.

21) 고려시대 청동북 중 50㎝ 이상의 대형 사이즈는 미륵원명 청동북을 포함하여 모두 12점이다. 이하연, 「고려시대 간지명 금고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 159~162.

2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7, 忠淸道, 公州牧 驛院, "仁濟院 在州北五十二里"

안건번호 동산 2020-07-007

7. 말모이 원고(말모이 原稿)

가. 심의사항

‘말모이 원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 언론 등으로부터 독립운동사료 포함 근대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재평가 요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재 278건을 자문회의(’19.7.15./9.5.) 및 본 위원회 제7차 소위원회(’19.11.14.)에서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말모이 원고’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검토된 문화재 9건을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본 위원회 제6차·제7차 회의(’19.10.10./ ’19.12.12.)에 경과를 보고하였음.

○ 이에,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말모이 원고’에 대해 관계전문가 조사(’20.7.2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0.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10.30.~11.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지정조사 대상 선정 기준	•(시기) 19세기~일제강점기 •(주체) 단체 위주 •(대상) 한글, 태극기 등 대한민국 역사상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문화재
선정대상 (총9건)	① 데니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제382호), ② 김구 서명문 태극기(제388호), ③ 불원복 태극기(제394호), ④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458호), ⑤ 말모이 원고(523호), ⑥ 조선말 큰사전 원고(524-1호), ⑦ 조선말 큰사전 원고(524-2호), ⑧ 윤동주 친필 원고(712호), ⑨ 이봉창 의사 선서문(745-1호)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2012.12.24.)

○ 명　　칭 : 말모이 원고(말모이 原稿)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 수　　량 : 1책(표지 제외 114장)
○ 규　　격 : 원고지 판광 18.4×13.5, 전체 23.7×17.2(cm)
○ 재　　질 : 종이(미농지)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선장본(6침), 원고지
○ 조성연대 : 1914년 경
○ 제 작 자 :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 주관으로 한글학자 주시경(周時經) 등이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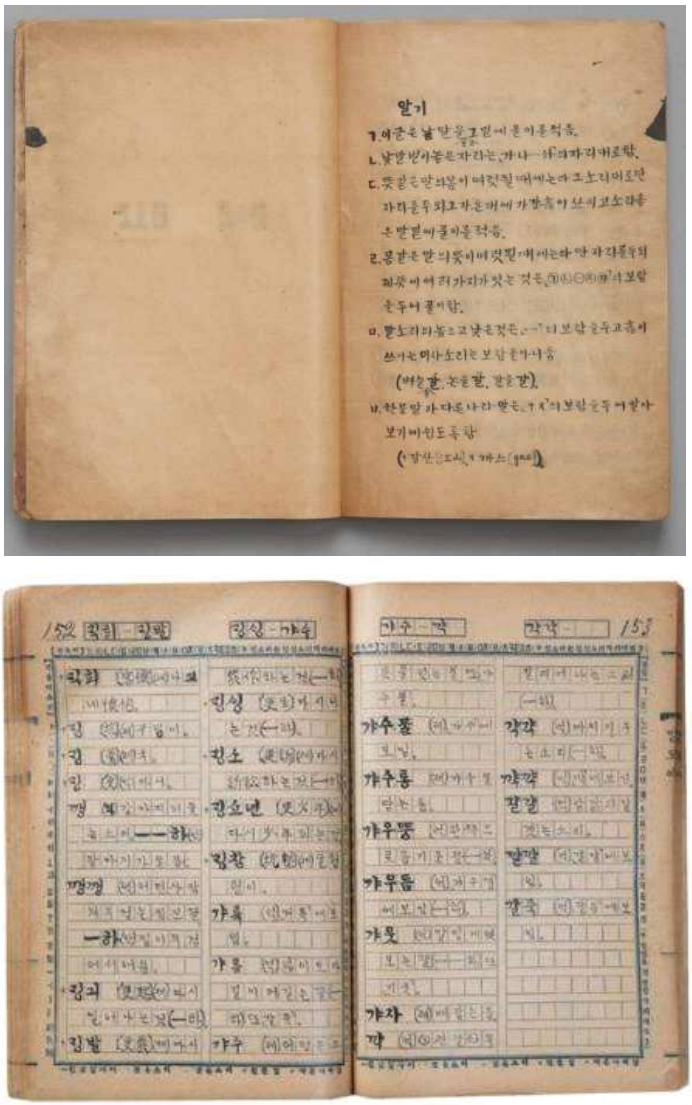


그림 266. 말모이 원고(위: 일러두기/ 아래: 본문)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인 『말모이 원고』는 2012년 12월 24일에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가 되었다. 이번에 지정문화재 승격대상에 포함되어 지정가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 바, 그 가치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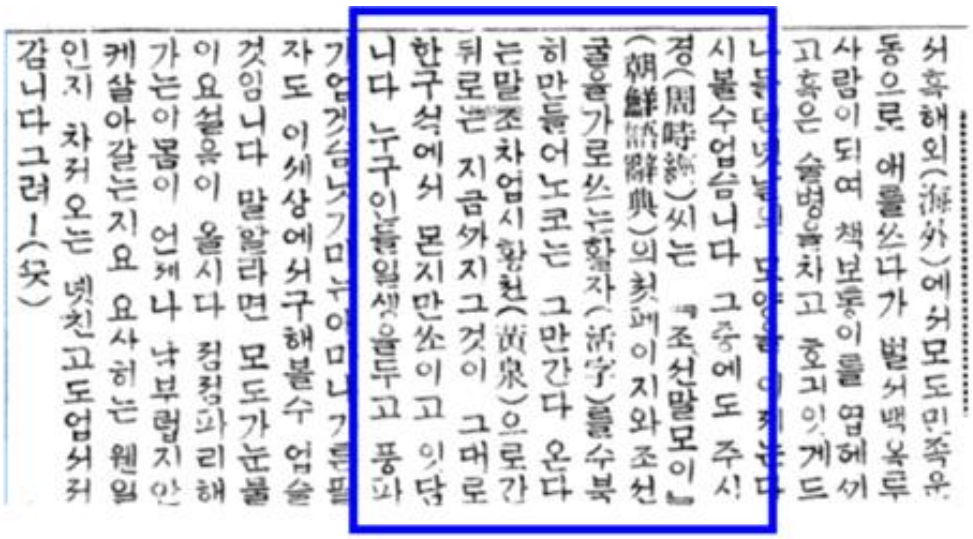
『말모이 원고』는 개화기 이후 국어학자들의 스승인 주시경과 제자들이 민족의 자각심과 우리말의 우수성을 보이고 알리기 위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국어사전 원고이다. 더욱이 국가의 운명이 암울하였던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경에 이 원고를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먼저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시경의 사망과 여러 내외적인 이유로 이 원고의 완성여부는 불명한데다 현전하는 원고로는 이 한 책이 유일하다. 당시 편찬 완성된 『말모이원고』가 얼마나 되는 분량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원고가 미농지계통의 고급종이로 만든 『말모이』 전용원고지에 필사된 점을 볼 때, 상당부분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쉽지만 이 한 책이라도 전하여 당시 국어사전 편찬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선각자들의 노력이 이후 발행된 방대한 『조선말 큰사전』의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인 『말모이원고』는 발행은 되지 못하였지만 후일 우리말 사전의 편찬과 발행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표제항과 뜻풀이 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말모이 원고』는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항구히 보전하여야 할 문화재로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말모이원고』는 자료 자체에는 조성연대나 작성자의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고 잔존본이 극히 일부인 점, 제작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어사적 가치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는 분명하다. 즉『말모이 원고』는 주시경(1879-1914)을 중심으로 김두봉(1889-1960), 권덕규(1890-1950), 이규영(1890-1920)등이 편찬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간행을 위한 시도의 산물이며 “말모이”라는 표기는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26.1.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도 등장하고 있어 (주시경(周時經) 씨는 『조선말모이』(朝鮮語辭典)

의 첫페이지와 조선글을 가로쓰는 활자(活字)를 수북히 만들어 노코는 그만간다 온다는 말조차업시 황천(黃泉)으로 간 뒤로는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한구석에서 몬지만쏘이고 잇담니다) 적어도 1926년 이전에 사전 편찬을 위한 초기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26년 1월 2일자]

따라서 우리말 사전의 출간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라는 점은 명백하며 우리나라 초기 사전 제작의 모습을 담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말모이 原稿』는 일제강점기에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이다. 이 같은 역사적인 가치와 함께 국어학 연구의 중요 자료라는 점에서 2012년 12월 24일에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가 되었다.

조사본은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대에 검열과 출판을 위하여 전용 원고지를 제작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인 1909년에 '국문연구소' 주관으로 제정되었던 최초의 국문(國文) 표기 통일안인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이 1910년 식민지화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대신에 조선총독부에서 작성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이 시행되었으나, '말모이 원고'에는 [국문연구의정안]에서 제정한 철자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사본은 [1914]년경에 편찬을 위한 과정 중에 주시경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여러 내·외적인 이유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의 전체적인 수량

과 완성 여부 등이 상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전하는 원고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한편, 조사본의 체제는 '알기'· '본문'· '찾기'·'자획찾기'로 되어 있고, 본문은 'ㄱ' 닷소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어(新語), 가택수색(家宅搜索), 감리서(監理署), 조약(條約), 개교식(開校式), 개화당(開化黨)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1,400여개 단어를 체계적으로 수록해놓았다. 아울러 표제항과 뜻풀이 말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곧 근대 시기를 반영하는 '우리말 사전'으로서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으나, 우리말 사전의 편찬과 발행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조사본 『말모이 原稿』는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전, 관리하고 연구할 문화재로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국어사전은 그 나라의 학문의 총결산이며 그 나라의 문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왜냐 하면 언어와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협동하고 협동을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전달받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사 전달의 기본 요소는 어휘이고 그 어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은 것이 곧 국어사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를 문화의 한 요소로 인식한다면 언어의 단위 중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요소가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를 언어의 기본단위로 하여 편찬된 것은 곧 그 나라의 국어사전이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과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서로가 사용하는 어휘는 곧 의미전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어휘가 다르거나 그 어휘의 의미나 용법이 다르다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사람들은 그가 처해 있는 지역, 시대, 연령,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지역 출신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없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어휘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모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배열하고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은 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사전을 찾으면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찾으려고 하는 어휘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어휘가 등재되어 있는 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의 보물 특호라고 할 수 있고 한글은 유형문화재의 보물 특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글'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

하여 이들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한국어'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 무형적인 '한국어'를 유형적이고 한정된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것 중의 하나가 '한국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사전'은 매우 중요한 문화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어사전'은 그 이름으로 간행된 '책'의 형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사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사전 편찬이 이루어져 온 것은 19세기말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역사전(對譯辭典) 형식으로 출판되어 왔다. 한국어에 대한 단일어사전으로 출판된 것은 1938년에 출판된 문세영 편찬 「조선어사전」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국어사전을 편찬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편찬된 원고는 남아 있으나 출판되지 않아 원고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것이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말모이'이며,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사전' 원고이다. 전자는 조선광문회에서, 후자는 계명구락부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가 곧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말모이'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로 '말모이'는 무형적인 한국어를 유형적인 한국어로 바꾼 최초의 한국어 문화재이다.

둘째로 '말모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편찬의 중요한 흔적이다.

셋째로 '말모이'는 20세기 초기의 한국어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넷째로 '말모이'는 그 당시의 한국어 문법 인식을 보이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섯째로 '말모이'는 그 이후에 등장할 많은 한국어사전 편찬의 모형을 제시하여 국어사전 편찬의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큰 의미를 지닌 '말모이'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길이 보존하고 그 가치를 늘 되새기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ㅇ (지정 가치 있음)

'말모이 원고'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편찬한 국어사전의 원고이다. 사전으로 간행되지 못한 원고의 일부이지만,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국어사전의 모형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 갑오개혁 이후 이루어진 어문규범화 사업의 성과를 수렴하였다는 점, 일제강점기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만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한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모이 원고'는 대한제국 국문연구소의 규범안을 잇고, 조선총독부의 조

선어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우리말 사전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

조선총독부는 한일병합 후 1911년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사전](1920년 간행) 편찬사업을 시작하였고, 1912년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일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조선어정책이 본격화됨을 의미했는데, [말모이] 편찬사업은 이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공식화한 조선어철자법은 대한제국의 국문연구소에서 제시했던 형태주의 철자법이 아닌 음소주의 철자법이었고, 이는 총독부에서 편찬하는 [조선어사전]에 반영되었다. 국문연구소의 규범 연구를 주도했던 주시경은 이에 대응하여 형태주의 철자법의 공식화 방안을 모색했고 이를 [말모이] 편찬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국문연구소의 규범안을 관철시키려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데, 이러한 정신은 조선어학회가 국문연구소의 규범안에 기초한 한글맞춤법을 만들고, 이를 적용한 [조선말 큰사전] 편찬에 나서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시경을 비롯한 국문연구소 위원들은 [국문연구의정안]을 완성하면서 하나같이 국어사전의 편찬이 국어규범화사업을 완결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말모이 원고'는 갑오개혁 이후 줄기차게 진행되어 온 어문규범화 사업을 이어받아 이를 완결지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정책에 맞선 민족어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원고는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국어사전의 모형을 처음 제시한 성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출범 당시 발표된 '조선어사전편찬회 취지서'에서는 [말모이]가 우리말 사전의 효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 조선어사전편찬회 취지서(1929.10.31.)

距今 十七八年前(1911-1912)에 朝鮮光文會에서 故 周時經 氏를 중심으로 하여서 朝鮮語辭典 編纂을 着手한 바이 있으니, 이것이 朝鮮人으로서는 辭典編纂을 착수한 嚆矢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업은 마침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말게 되었으며...

당시 '말모이 원고'는 산실된 상태였지만,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는 이 원고를 만들었던 이들의 정신과 사전편찬의 원칙은 공유하고 있었으니([말모이] 편찬에 참여했던 권덕규는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인이자 편찬위원이었다.), [말모이]를 편찬했

던 경험은 결국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말모이] 편찬은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첫 시도였음에도, 현대 국어사전의 체제와 내용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리말 사전 기술의 틀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말모이 원고'는 근대 초기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사전편찬 역량을 보여주는 실증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말모이 원고'의 수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말모이 원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말 뜻풀이의 방식과 수준이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던 [조선어사전]을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은 우리말 표제어를 일본어로 풀이한 대역사전이지만, 우리말 풀이를 먼저 한 후에 이를 번역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 사전편찬사업이 우리말 사전편찬의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말모이 원고'의 풀이와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 원고'에 나타난 풀이를 비교해 보면, 조선총독부의 사전편찬사업이 우리말 사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 ㄱ. 주격조사 '가'의 풀이
[말모이] 가 (심) 어느 임을 다만임이 되게 하는 홀소리 밑에 쓰는 토(배— 뜨)。
[조선어사전] 가『助』終聲을 不附한 名詞를 主格으로 하야 表할 時에 用하는 語. (例)"새가 난다" "비가 온다"

ㄴ. '가락지'의 풀이
[말모이] 가락지 (제) 손가락에 끼는 노르개。
[조선어사전] 가락지『名』婦女手指에 貫抽하는 雙環의 稱.(金銀珠玉類로 彫飾한 者).(指環)

ㄷ. '가르치다'의 풀이
[말모이] 가르치 (밖)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줌。또「가라치」
가르치 (밖) ㉠ 손으로 어느 쪽을 안하아 이끌는 일。 ㉡ 무엇을 들어 말함 (누구를 —어 말이냐)。
[조선어사전] 가르치다(가르쳐/가르친)『活』(一) 敎訓의 稱. (二) 指示의 稱.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두 사전 원고의 풀이를 보면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사전의 원형을 누가 제시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진다. 이런 점에서 '말모이 원고'는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이룬 최초의 국어사적 성취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ㅇ (지정 가치 있음)

‘말모이 원고’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서지적 측면, 내용적 측면, 편찬 목적의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드러나며, 이 기준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야 한다.

첫째, ‘말모이 원고’는 현존 근대 국어사 문헌 자료 중에서, 유일한 국어사전 출판을 위한 ‘원고(原稿)’이다. 둘째, ‘말모이 원고’는 현재 국어사전이 갖추어야 할 체제적 완비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학 분야의 독보적인 자료이다. 셋째, ‘말모이 원고’는 단순한 사전 출판용 원고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말모이 원고’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말모이 원고’는 현존 근대 국어사 문헌 자료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어사전 출판을 위한 ‘원고(原稿)’이다. 이로 인해 1910년대 근대 문헌 자료가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출판을 위해서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전 검열을 거친 뒤에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원고는 대부분 자체 원고지를 제작하여, 내용을 직접 필사했다. ‘말모이 원고’는 근대 문헌 자료가 보여주는 서지적인 특성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처음부터 출판을 목표로 했고, 사전 검열을 위해 제작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 ‘말모이 원고’는 국어사전이 갖추어야 할 체제적 완비, 어휘 수록의 특성과 방향, 가나다순에 의거한 체계적 원칙을 지니고 있다. 이 자료는 ‘알기, 본문, 찾기, 자획찾기’로 되어 있다. 본문은 ‘ㄱ’ 닷소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어(新語), 가택수색(家宅搜索), 감리서(監理署), 조약(條約), 개교식(開校式), 개화당(開化黨)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1,400여개 단어를 체계적으로 수록해놓았다. 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말모이 원고’는 출간을 계획한 사전(事典)의 제1권의 원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우리말 사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자료는 근대 시기 ‘한국어사전’ 편찬의 출발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말모이 원고’는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은 ‘한글’ 사용의 확대를 위해서 1909년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규정은 시행되지 못했다. 대신에 조선총독부에서 작성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이 시행되었다.

말모이 원고는 이러한 조선총독부 정책과 달리 ‘국문연구의정안’에서 제정한 철자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말모이 원고’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서 사전 편찬을 시도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말모이 원고’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문양이 찍힌 황색 표지의 6침 선장본 형식이다. 책등의 상하는 천으로 포각(包角)되어 있다. 그러나 가로쓰기 형식이므로 내용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개 열람하는 방식이다. 앞표지에는 광복이후 적은 것으로 보이는 “말모이 卽 사전”이라는 세로쓰기의 펜글씨가 있다. 앞표지 오른쪽 부분은 위에서 아래까지 일정부분 결락이 있으나 본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정도이며, 뒤표지는 온전하다. 면지 오른쪽 아래에는 전 소장자의 장서인인 「이병근」이라는 소형의 원형 인장이 찍혀 있다. 표제지에는 원래의 서명을 오려낸 뒤에 그 부분을 『ㅁㅏㄹ　ㅁㅗㅣ』라고 찍은 제첨을 붙여 놓았다. 언제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책을 완성하던 같은 시기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말모이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편찬을 시도한 국어사전 원고이다. 이 사업은 1910년 10월에 창설된 조선광문회에서 1911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찬은 주시경,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의 국어학자들이 맡았다. 그러나 1914년에 주도자인 주시경의 사망과 연이어서 일어난 김두봉의 망명, 이규영의 사망 등으로 인해 『말모이』 사전의 편찬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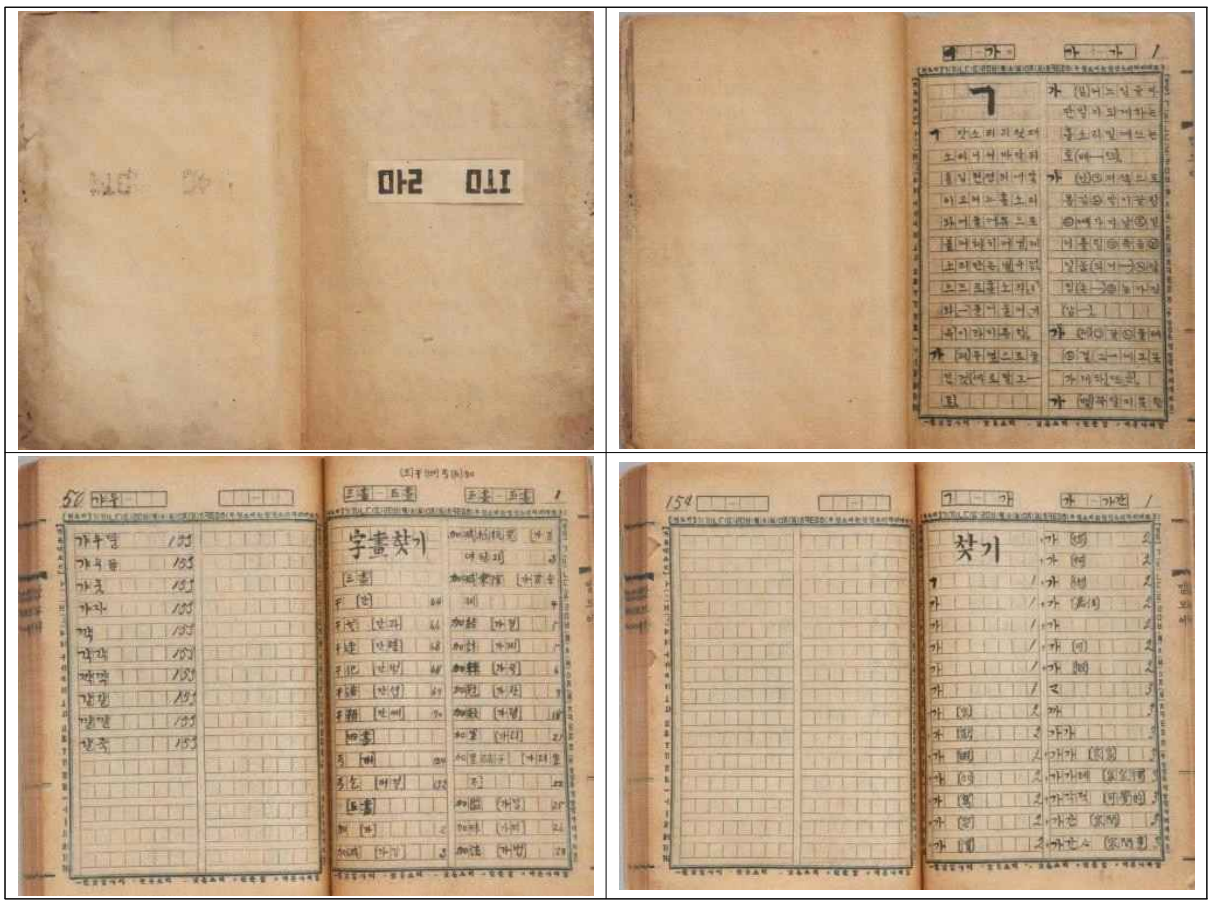
데 그때까지 편찬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하다.

이후 그 원고들이 어떻게 산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그 중에서 한 책이 전하는데 바로 이 원고이다. 범례와 어법용어 및 전문용어의 약호가 포함된 "알기" 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말모이원고』 중의 첫 째 권으로 추정된다. 1장(2면)으로 된 "알기"는 전용원고지가 아닌 일반 종이에 쓰여 져 있다. 수록된 단어는 'ㄱ'부터 '걀죽'까지 모두 153면에 걸쳐 있다. 본문이 끝난 뒤에는 표제어에 대한 색인인 "찾기"가 모두 50면, 표제 및 본문 속의 한자어들에 대한 획수 색인인 "字劃찾기"가 모두 26면에 걸쳐 있다.

『말모이원고』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전용원고지에 붓으로 쓰여져 있다는 점이다. 전용원고지는 미농지에 푸른색으로 인쇄되었는데, 한 장에 동일한 원고를 두 면을 찍어 반접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사주쌍변 형식과 상내향어미와 말모이라는 판심제도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고문헌의 판식과 비슷해 보인다. 가로쓰기의 2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은 8자 15행이므로 한 면당 240자 원고지인 셈이다. 수록된 표제어는 크고 굵은 글씨, 해설은 작고 가는 글씨인데 먹으로 써 놓았다. 혹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추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부첨지에다 보충하여 당해 단어 위에다 붙여 놓았다.

<사진1> 말모이 원고 표지(좌:앞표지, 우:뒤표지)

<사진2> (標題면, 본문 첫면, 찾기면, 字劃찾기면. 좌상부터 시계방향)



광곽 윗부분에는 ‘첫소리’라는 명칭과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광곽 아래에는 “-한낮말사이 · 높은 소리 .. 낮은 소리 + 한문말 × 다른나라말” 등의 부호 사용 표시가 있는데, 단어의 왼쪽에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광곽 왼쪽에는 ‘가온데소리’라는 명칭과 “ㅏ (·) ㅐ (·ㅣ)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ㅚ ㅛ ㅜ ㅟ ㅠ ㅞ ㅡ ㅢ ㅣ ㅘ ㅙ ㅝ ㅞ”가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광곽 오른쪽에는 ‘받힘’이라는 명칭 아래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ㅐ ㅈ (ㅉ) ㅊ ㅋ ㅌ ㅍ ㅎ”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ㅇ 문헌자료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2019.

최경봉,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 제24권 제3호 (2014년 가을)

『등록조사보고서』(말모이 원고), 2012.

ㅇ 기　　타

한글박물관에서는 이병근 교수로부터 입수하였고, 이 교수는 1967년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사는 석씨 성을 가진 할머니에게서 입수하였다고 함.

□

ㅇ 현　　상

서지목록기술

말모이원고 / 저자미상. -- 筆寫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책 ; 23.8 × 17.3㎝

원고지에 정서

내용 : ‘알기’, ‘본문’, ‘찾기’, ‘字劃찾기’

조사본 『말모이원고』는 필사본 원고로서 표지에 볼펜으로 ‘말모이 卽 사전’이 세로쓰기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다. 내지에는 별지에 “ㅁㅏㄹㅁㅗㅣ”로 가로로 풀어서 붙인 제목이 있고 이 별지 안쪽을 열면 정교하게 잘라진 흔적도 있다. 전통 방식인 선장본의 형태로 제책되었으나 좌철(左綴)이며 앞표지 일부에 손상된 부분이 있으나 자료의 전반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범례에 해당하는 ‘알기’는 선이 없는 백지에 기록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판심에 “말모이”가 인쇄된 1단이 8획 15행으로 된 2단 240자 원고지에 정서한 원고이다. 원고지는 고서의 판식처럼 상하향흑어미를 넣고 판심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말모이’라 인쇄하였다.또한 광곽의 상하, 좌우에 첫소리로 쓰이는 자음자, 받침으로 쓰이는 자음자, 가운뎃 소리로 쓰이는 모음자 등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어 원고지가 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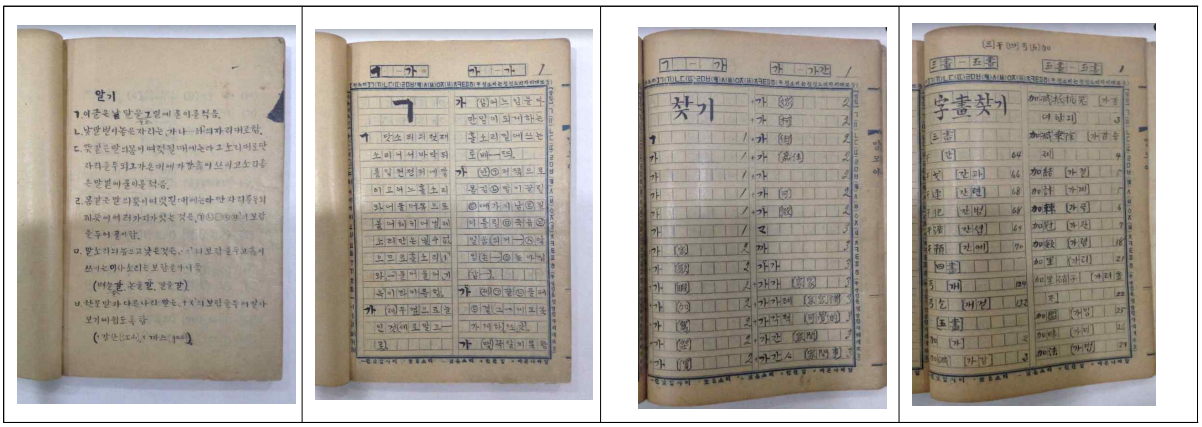
[말모이원고 외형]

○ 내용 및 특징

원고의 구성은 ‘알기’, ‘본문’, ‘찾기’, ‘字劃찾기’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알기’는 모두 2쪽, ‘본문’은 ‘ㄱ ’ 부터 ‘걀죽’ 까지 모두 153쪽, ‘찾기’ 50쪽, ‘자획찾기’ 2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각 항목의 표제어는 진하게 표기되어 있고 괄호 속에 품사를 제시한 후 해당 항목의 풀이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표제 항목이 한자인 경우에는 표제 항목 뒤에 괄호 속에 한자 표기를 하였다. 본문이 끝나면 바로 표제 항목의 색인어를 수록한 ‘본문’이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한자어들의 획수 색인인 ‘자획찾기’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본문을 기술한 용지에는 광곽 상단에는 [첫소리]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두 첫소리는 첫첫소리자리대로둠”이 인쇄되어 있고 광곽 하단에는 “-한낮말사이 · 높은소리 .. 낮은 소리 + 한문말 × 다른나라말” 이 부호와 설명으로 인쇄되어 있다. 광곽 왼쪽에는 [가온데소리]ㅏ (·) ㅐ (·ㅣ)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ㅚ ㅛ ㅜ ㅟ ㅠ ㅖ ㅡ ㅢ ㅣ ㅘ ㅙ ㅝ ㅞ가 인쇄되어 있으며 광곽 오른쪽에는 [받힘]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ㅐ ㅈ (ㅉ) ㅊ ㅋ ㅌ ㅍ ㅎ이 인쇄되어 있다.

이 원고에 대해서는 조선광문회에서 주시경(1876-1914)과 그의 제자 김두봉(1889-1960?), 이규영(1890-1920), 권덕규(1891-1950) 등이 1911년~1913년 사이에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1916년 무렵 사전 원고가 마무리되었으나 주시경의 사망과 1919년 김두봉의 상하이 망명 등으로 출판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고 1916년 4월 신문관에서 펴낸 『조선말본』(김두봉)의 판권지 뒤에 표제항 5만 가량을 수록한 『사전(辭典)』(조선광문회 편찬)이 발행될 것이라는 광고가 수록되어 있어 이 『사전』이 『말모이』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말모이』나 조선광문회의 『사전』 원고의 내용은 계명구락부에서 작성한 『조선어 사전』 카드(1932)로 흡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23].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부분으로는 이 원고의 작성 목적이나 작성 시기 등을 확인할 만한 근거는 없다. 또한 사전의 초기 부분인 ‘ㄱ’ 부터 ‘걀죽’까지만 수록되어 있어 이것이 미완성 원고인지 완질의 영본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23) 국립한글박물관, 말모이원고 해제, 2012 등록문화재 조사보고서



[말모이원고 본문의 구성]

○ 소장경위

해당 자료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병근 소장본이었으나 2014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매입하여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이병근 교수는 1960년대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사는 석씨 성을 가진 할머니로부터 자료를 입수했다고 알려져 있다.

○ 참고자료

국립한글박물관. 말모이원고 해제
문화재청(2012). 등록문화재 조사보고서
김민수(1983).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 13집. 1-34
이병근(1977).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 언어 2(1). 67-84
최경봉(2014).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 24(3)
최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

○ 書誌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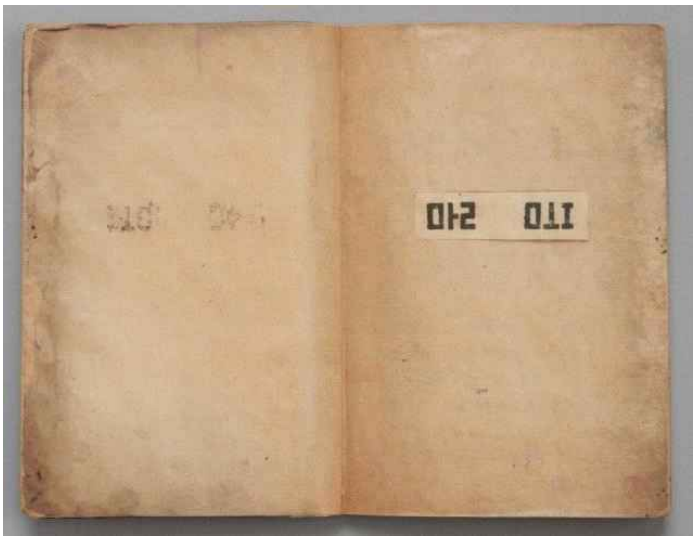
말모이원고 / 저자미상. -- 筆寫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책 ; 23.8 × 17.3 ㎝
원고지에 정서
내용 : ‘알기’, ‘본문’, ‘찾기’, ‘字劃찾기’

○ 현　　상

‘말모이 원고’는 2014년 한글박물관에서 구입하여 보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소유자는 1967년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사는 석씨 성을 가진 할머니에

게서 입수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색으로 인쇄된 원고지에 붓글씨로 쓴 원고이다. 원고는 가로쓰기의 2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이 8자 15행으로 되어 있는 240자 원고지이다. 판심 서명이 '말모이'로 인쇄된 말모이를 편찬하기 위한 전용지임을 알 수 있다.

표지는 문양이 찍힌 황색 표지를 사용하였으며 6침으로 선장하였다. 책등의 상하는 천으로 포각(包角)되어 있다. 앞표지에는 광복이후 적은 것으로 보이는 "말모이 卽 사전"이라는 세로쓰기의 펜글씨가 있다. 표제지에는 원래의 서명을 오려낸 뒤에 그 부분을 『ㅁㅏㄹ ㅁㅗㅣ』라고 찍은 제첨을 붙여 놓았다. 보존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말모이'는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다. 이 사업을 주관했던 조선광문회는 '수사(修史)'와 '이언(理言)'과 '입학(立學)'을 설립 취지로 내세운 민족 계몽운동단체이다. '이언(理言)'은 '사전편찬'과 '문법정리'에 해당하는데, 조선광문회에서는 이언(理言)의 사업으로 '신자전(新字典)'과 '말모이'를 편찬하고자 한 것이다.

'말모이' 편찬을 주도했던 인물은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을 중심으로 김두봉(金枓奉, 1889~미상)·권덕규(權悳奎, 1890~1950)·이규영(李奎榮, 1890~1920) 등이다.

주시경의 본관은 상주(尙州)이며 황해도 봉산 출생이다. 처음 이름은 상호(相鎬)이며 한힌샘·백천(白泉)으로 불렀다. 신학문에 눈을 뜨며 1894년 9월 배재학당(培材學堂)에 입학하였고, 1896년 4월에는『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徐載弼)에게 발탁되어 독립신문사 회계사무 겸 교보원(校補員)이 되었다. 순한글 신문제작을

하면서 표기 통일을 해결하기 위한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재필이 주도하는 배재학당협성회·독립협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제국신문』 기재(記載), 영국선교사 스크랜턴(Scranton, W. B.)의 한어교사, 상동청년학원(尙洞靑年學院) 강사 등을 지냈다. 그의 활동은 계몽운동·국어운동·국어연구로 나누어지는데, 계몽운동은 배재학당협성회 전적(典籍)과 찬술원, 독립협회 위원, 『가정잡지』 교보원, 서우학회 협찬원, 대한협회 교육부원, 보중친목회 제술원(製述員) 등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이었다. 이에 관한 논저는 『가정잡지』와 『월남망국imagefont』(1907), 『보중친목회보』 등에 나타나 있다.

국어운동은 특히 한어개인교사, 상동사립학숙 국어문법과 병설, 상동청년학원 교사 및 국어야학과 설치, 국어강습소 및 조선어강습원 개설 등에서 심혈을 기울였다. 경술국치 후에는 숙명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무릇 9개교에서 가르치는 한편, 일요일에는 조선어강습원에서 수많은 후진을 깨우치기에 '주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동분서주하며 정열을 불태웠다.

국어연구는 국문동식회를 비롯한 학교내 국어연구회 연구원 및 제술원, 학부 국문연구소 주임위원(奏任委員), 국어강습소 졸업생과 설립한 국어연구학회, 조선광문회 사전편찬 등의 활동 등이 있다. 국어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말을 핵심으로 한 국어문법의 체계화였다. 주된 업적은 필사본 『국문문법』(1905), 유인본 『대한국어문법』 (國文講義, 1906), 국문연구소 유인본 「국문연구안」(1907~1908), 『국어문전음학』(1908), 필사본 『말』(1908년경), 국문연구소 필사본 『국문연구』(1909), 유인본 『고등국어문전』(1909년경) 등이며, 학문적 축적을 거쳐 대표적 저술인 『국어문법』(1910)을 이룩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새받침에 의한 표의주의적 철자법, 한자폐지와 한자어의 순화, 한글의 풀어쓰기 등 급진적인 어문혁명을 부르짖었다. 황무지에서 국어학을 개척한 인물이며 학교와 강습소에서 길러낸 최현배(崔鉉培)·신명균(申明均)·김두봉(金枓奉)·권덕규(權悳奎)·정열모(鄭烈模)·이규영(李奎榮)·장지영(張志暎)·정국채(鄭國采)·김원우(金元祐)·안동수(安東洙) 등 많은 후진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국어학계의 큰인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김두봉의 본관은 김해이며 호는 백연(白淵)으로 경남 동래군 출생이다. 1913년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에 가입하였으며 이듬해에 배재학교를 중퇴하였다. 당시 최남선(崔南善)이 주재하고 있던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 참여하여 소년잡지 『청춘』을 편집하는 일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조완구(趙琬九)와 함께 민족종교인 대종교(大倧敎)에 관계하였다.

특히 주시경의 수제자로서 한글 연구에 몰두하여 광문사(光文社)에서 발행한 『조선어문전(朝鮮語文典)』 편찬 사업과 '말모이' 편찬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한

글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1914년 주시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모이' 편찬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한위건(韓偉健) 등과 함께 서울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해 4월 신의주를 거쳐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 상해에서는 신채호(申采浩)가 주필로 있던 순한문신문인 『신대한신문(新大韓新聞)』의 편집을 맡아 일하였고, 김규식(金奎植) 등의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에 가담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창기에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내는 등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1922년 상해의 새글집사에서 30여 만의 우리말 단어를 수록한 『깁더조선말본(精解朝鮮語文典)』을 출판하면서 국어 연구를 위한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1920년에 이동휘(李東輝)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이후 고려공산당 총무국의 간부, 1935년 김원봉(金元鳳)과 한국민족혁명당(1937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칭)을 결성하여 중앙집행위원, 1942년 옌안[延安]에서 독립동맹을 결성, 주석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국내의 건국동맹 등과 대일연합전선 형성을 위하여 연락하던 중 광복을 맞아 1945년 12월 독립동맹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후 김일성대학 총장, 북조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국통일전선의장단 의장 등을 역임하였으나, 1958년 3월 제1차 공산당대표자대회에서 반혁명종파분자로 공격받아 축출되었다. 그 뒤 1960년 지방협동농장에서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권덕규는 경기도 김포 출생으로 호는 애류(崖溜)이다. 1913년 서울 휘문의숙(徽文義塾)을 졸업하고 모교와 중앙학교·중동학교에서 국어 및 국사를 가르쳤다. 주시경(周時經)의 뒤를 잇는 몇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1921년 12월 3일 조선어연구회(朝鮮語研究會) 창립에 참여하였다. 『조선어큰 사전』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932년 12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원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규영은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호는 검돌이다.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에서 배우고, 1911년 서북협성학교 후신인 오성학교(五星學校)를 졸업하였다. 이어 여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교편을 잡고 조선어 및 조선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912년 여름에 조선어강습원에서 주시경에게 배웠고, 한때 경상북도 안동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3년 9월에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주시경 주재의 조선어자전 편찬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김두봉(金枓奉)·권덕규(權悳奎)와 함께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주요 저서 가운데 유고는 1912~1913년경 비망록 『온갖것』, 1913년경 초고 『말듬』, 1907~1917년 필사 『한글모죽보기』, 1916~1919년 필사 『한글적새』 6권, 1918~1919년 교안 『읽어리가르침』, 1920년 7월 『현금 조선문전』(新文舘) 등이 전한다. 『온갖것』에는 희귀한 자료가 기록되었고, 『한글모죽보기』는 1907~1917년의 국어운동사 자료로서 귀중하다. 특히, 『한글적새』는 미

완성본이나 구조언어학적 자료집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조사본 『'말모이' 原稿』는 편찬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가로쓰기의 2단으로 되어 있는 240자 원고지에 붓글씨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1권으로 묶여 있는데, 표지에는 세로쓰기로 쓰인 '말모이 卽 사전'이 볼펜으로 적혀 있고, 내지에 'ㅁㅏㄹ ㅁㅗㅣ'란 가로 풀어쓰기로 쓰인 제목이 나온다. 표지에 볼펜으로 적은 글씨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ㅁㅏㄹ ㅁㅗㅣ'는 별도의 종이에 활자로 찍은 후 '말모이 원고'에 붙인 것인데, 이를 보면 모아쓰기로 된 원제목(말모이)을 풀어쓰기로 바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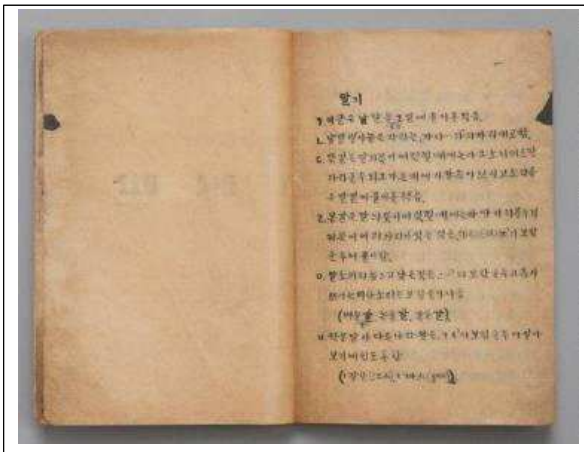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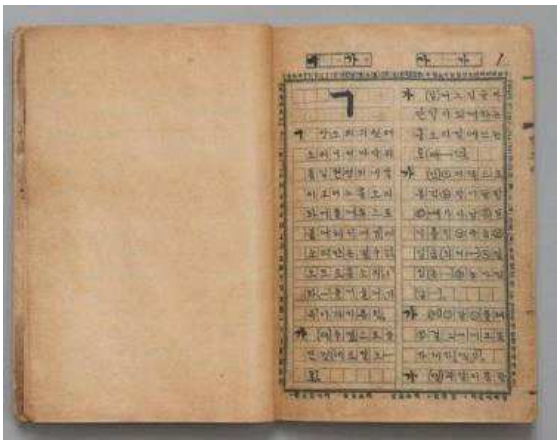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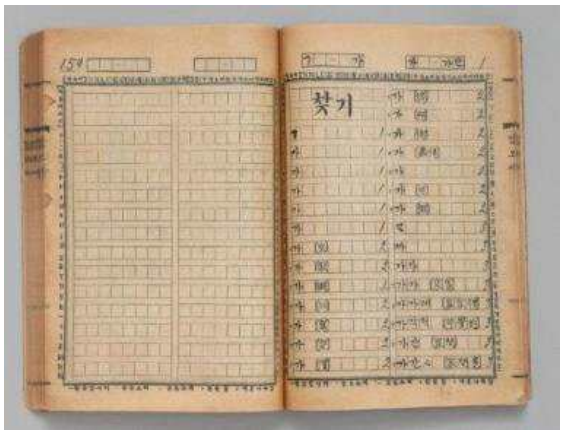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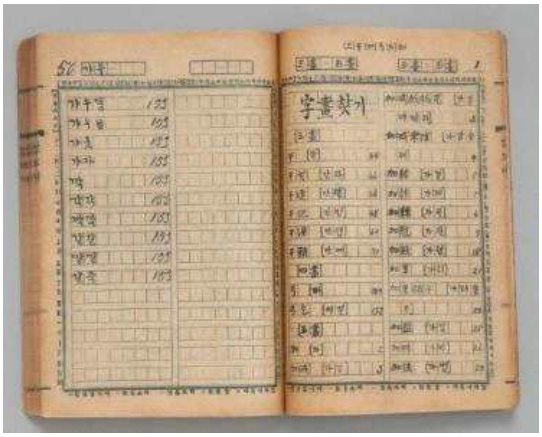
원고지의 판심에는 책 제목인 '말모이'가 인쇄되어 있고, 표제어의 배열 순서와 부호 표기가 인쇄되어 있다. 원고지 위쪽에는 '【첫소리】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가 인쇄되어 있고 그 위에 2단의 각 단별로 첫 올림말과 끝 올림말이 표시되어 있다. 왼쪽에는 '【가온대소리】 ㅏ (ㆍ) ㅐ (ㆍㅣ)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ㅚ ㅛ ㅜ ㅟ ㅠ ㅖ ㅡ ㅢ ㅣ ㅘ ㅙ ㅝ ㅞ'가, 오른쪽에는 '【받힘】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ㅐ ㅈ (ㅉ) ㅊ ㅋ ㅌ ㅍ ㅎ'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호 표기 '- 한낱말사이, · 높은소리, ·· 낮은소리, + 한문말 X 다른나라말'가 인쇄되어 있다.

원고는 '알기(2쪽), 본문(153쪽), 찾기(50쪽), 자획찾기(26쪽)'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알기'가 처음 나오고 본문의 올림말이 'ㄱ'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원고본이 '말모이 원고'의 첫째 권임을 알 수 있다.

'알기'에는 ㄱ-ㅂ까지 6개 항목의 범례, 24개의 문법용어와 그 약호, 19개의 전문분야와 그 약호가 제시되어 있다. 범례에서는 (ㄱ)사전의 기술 원칙, (ㄴ)올림말의 배열 순서, (ㄷ)유의어의 배열 및 그 풀이, (ㄹ)동음어와 다의어의 배열 및 그 풀이, (ㅁ)말소리의 높낮이 표시방법, (ㅂ)한자어 및 외래어의 표시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본문'에는 'ㄱ-걀쭉'까지의 1,400여 개의 올림말이 제시되어 있다. 기술 방식은 각 올림말의 오른편에 '문법정보(품사), 전문분야, 뜻풀이, 용례' 등의 순서로 사전의 미시 정보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말모이 원고'의 편찬자들이 사전에서 갖춰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찾기'는 표제어 색인에 해당하고, '자획찾기'는 올림말 및 본문 속의 한자어 색인이다.

<table>
<tr><td>  </td><td>  </td></tr>
<tr><td>알기</td><td>본문 ‘ㄱ’</td></tr>
<tr><td>  </td><td>  </td></tr>
<tr><td>찾기</td><td>자획찾기</td></tr>
</table>

조사본 『말모이 原稿』는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대에 검열과 출판을 위하여 전용 원고지를 제작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인 1909년에 ‘국문연구소’ 주관으로 제정되었던 최초의 국문(國文) 표기 통일안인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이1910년 식민지화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대신에 조선총독부에서 작성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이 시행되었으나, ‘말모이 원고’에는 [국문연구의정안]에서 제정한 철자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ㅇ 문헌자료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2019.
최경봉,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 제24권 제3호

(2014년 가을)
『등록조사보고서』(말모이 원고), 2012.

□

ㅇ 현　　상

표지는 6침 장정의 한장(韓裝)이지만 제첨이나 책제목은 없다. '말모이 卽 사전'이라는 내용이 세로로 연필로 쓰이어 있으나 이것은 후대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내지(內紙)에는 'ㅁㅏㄹ ㅁㅗㅣ'처럼 '말모이'를 풀어쓰기로 하여 썼는데, 이것은 양지에 석판으로 인쇄된 것이다.

앞에 '알기'(오늘날의 '일러두기'에 해당)에 6 항목이 세필의 붓으로 쓴 내용이 있다. 그 순서를 오늘날처럼 '1,2,3,4,5,' 등으로 하지 않고 'ㄱ ㄴ ㄷ ㄹ ㅁ ㅂ'으로 하였다. 2쪽에 걸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올림말에 풀이말을 쓴다.
ㄴ. 울림말의 순서는 '가나・・・・'의 순서대로 한다.
ㄷ. 유의어의 배열 방식과 뜻풀이할 곳
ㄹ.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의 배열 방식과 그 풀이 방식
ㅁ. 음의 고저 표시 방식
ㅂ. 한자어와 외래어의 표시방법

그리고 그 뒷면에 약호(略號)에 대한 예시가 있다.

이어서 ㄱ부터 올림말에 대한 뜻풀이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ㄱ'부터 '걀죽'까지 이어진다. 모두 153쪽이다.

뒤를 이어서 '찾기'가 시작된다. 'ㄱ'부터 '걀죽'까지 모두 50쪽이 이어지고 그 뒤에 '字畫찾기'가 '三畫'의 '干'의 '干戈'[간과]부터 시작하여 二十四畫의 '鑑'의 '鑑定'에 이르기까지 26쪽이 있다.

이 원고의 체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순서	내용(1)	내용(2)	분량	분량정리
1	표지	표지	1장	4장
2		마ㄹㅁㅗㅣ (속표지)	1장	
3	일러두기	알기	1장	
4		백지	1장	
5	본문	올림말 - 뜻풀이	154쪽	230쪽
6	부록	찾기	50쪽	
7		字畫찾기	26쪽	
8	뒷표지	뒷표지	1장	1장
	총계		5장 230쪽	

240자 원고지에 쓰이었는데, 120자 모눈 종이가 좌우 2단으로 나뉘어 있는 240자 원고지이다. 모두 연활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잉크색은 청색이다. 원고지의 판심어미는 상흑어미(上黑魚尾)이고 판심제(版心題)는 '말모이'이다. 사주쌍변 형식을 취해 원고지를 만든 것이다. 이 원고지는 '말모이'를 편찬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쇄한 전용 원고지임을 알 수 있다.

원고지 상단, 하단, 좌측, 우측의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치	내용	상세 내용 및 배열순서
상단	첫소리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두 첫소리는 첫첫소리 자리대로 둠)'
하단	높낮이, 한자어 외래어 표시	- 한낮말사이 · 높은 소리 ·· 낮은소리 + 한문말 x 다른나라말
좌측	가온대소리	ㅏ (ㆍ) ㅐ(ㆍㅣ)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ㅛ ㅜ ㅟ ㅠ ㅖ ㅡ ㅢ ㅣ ㅘ ㅙ ㅝ ㅞ
우측	받힘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ㅐ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본문은 ㄱ 계열에 'ㄱ'부터 시작하여 '걀죽'까지 이어진다. 올림말은 크고 붉은 글씨로 썼는데, 첫칸을 비우지 않고 썼으며, 풀이말은 이보다 작은 글씨로 첫칸을 들여 썼다. 옛 한글 문헌의 편집양식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원고지 상단의 좌우에는 그 단에 쓰이어 있는 표제어의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네모 칸 안에 써서 놓았다. 오늘날 사전의 형식과 마찬가지이다. 원고지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그 원고지의 쪽수를 적도록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쪽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써 놓았다. 'ㄱ'부터 '걀죽'까지 1,370개 정도의 표제항이 있다.
수정할 부분은 고쳐 쓰거나 또는 첩지를 붙여서 써 놓고 이를 다시 원고에 반영

하여 놓았다.
‘찾기’는 표제항과 한자가 있는 표제항은 그 한자를 써 놓았고 맨 오른쪽에 그 항목이 실려 있는 쪽수를 제시하여 놓았다. 그 편집형식은 앞에서 언급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모두 50쪽이다.
‘字畫찾기’는 한자 및 한자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붙인 한자 색인이다. 三畫의 ‘干’이 있고 그 아래에 간과(干戈) 간련(干連)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의 19획에 ‘覺’ ‘鑑’의 ‘鑑定’까지 이어진다.

ㅇ 내용 및 특징

1. 말모이 원고 소장자

말모이 원고 소장자는 원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병근 교수(현재는 명예교수)이었다. 그러다가 국립한글박물관 개관과 함께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병근 교수는 이 자료를 지역 답사 중인 1969년 6월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사는 석씨 성을 가진 할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석씨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도 학자였다고 하는데, 남편의 성함은 추명호(秋明鎬)라고 하였다. 그러나 추명호가 직접 쓴 원고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왜냐 하면 국어학자로서 ‘추명호’라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말모이’의 명칭

‘말모이’란 이름은 오늘날의 ‘사전’의 의미이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이란 단어가 거의 쓰이지 않던 때였다. 이 당시에는 소위 ‘회어’(會語)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쓰이었다. ‘말모이’는 이 ‘회어’(會語)의 우리말 번역인데, ‘말모이’라고 하는 단어도 1910년대에 일반에서 쓰이지 않던 어휘이다. ‘말’에다가 ‘모으다’의 명사형으로 ‘모- + -이(명사형 접미사)’를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곧 ‘말을 모은 것’이란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에는 전자 자료인 corpus를 ‘말모둠, 말뭉치’라고 하는데, 이 번역도 ‘말모이’에서 얻은 영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말모이’란 어휘를 창안해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이처럼 ‘사전’ 대신에 ‘말모이’란 어휘를 쓴 것은 이 당시에 국어에서는 ‘사전’이란 단어는 잘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전’이란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07년대로 보인다. 1907년에 황성신문에 실린 국문연구회 취지서에 ‘國之字典 辭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나라의 자전’을 ‘사전’이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國文硏究會趣旨書

文字ᄂᆞᆫ 言語의 符號라 符號가 無准ᄒᆞ면 言語가 無規ᄒᆞ야 以至凡百行動에 記事論事가 悉皆差誤ᄒᆞ야 使人摹捉無所ᄒᆞ리니 由此觀之면 文字之於生民에 關係誠大哉로다 我世宗大王이 深察此理ᄒᆞ시고 始制訓民正音二十八字ᄒᆞ야 頒行中外ᄒᆞ시니 大聖人의 裕後 啓蒙ᄒᆞ신 至意가 東土四千年에 創有ᄒᆞ신 弘業이어ᄂᆞᆯ 噫라 世遠敎弛ᄒᆞ야 後之學者가 不思對揚ᄒᆞ고 一任拋棄 故로 御製二十八字中에 此ㅇㅿㆆ 三字初聲은 失傳已久ᄒᆞ야 摸擬不得ᄒᆞ고 現用反切一百五十一字에도 疊音이 爲三十六字ᄒᆞ니 曷勝悚嘆이리오 今我國民의 言語文字가 每多歧異ᄒᆞ야 天을 하ᄂᆞᆯ이라도 ᄒᆞ며 ᄒᆞ늘이라도 ᄒᆞ며 ᄒᆞ눌이라도 ᄒᆞ야 無一定規例 故로 凡屬言語의 動輒如右者가 十之五六이라 由是로 國語가 無准ᄒᆞ고 國文이 無法ᄒᆞ니 雖欲使吾人으로 入於文明之域이나 其可得乎아 有自國之字典 辭典 然後에야 可以敎國民이오 國民을 以自國文字로 敎導之 然後에야 可望其自國精紳을 注于其腦也라 欲做此等事業인ᄃᆡᆫ 不得不 先究國文之源流 故로 廼與同志로 發起意見ᄒᆞ야 欲糾合高明ᄒᆞ야 組織國文硏究會ᄒᆞ오니 有志君子ᄂᆞᆫ 幸勿以人棄言ᄒᆞ시고 惠然賜臨ᄒᆞ야 協同贊成ᄒᆞ심을 盥手頂祝ᄒᆞ나이다 發起人 池錫永 趙經九 李炳勗 趙琬九 金明秀 <『황성신문』 1907년 1월 12일>

'사전'이 일반화된 것은 1920년대로 보인다. 각 언론에 '사전'이란 어휘가 쓰이기 시작한 것이 1920년대이기 때문이다.

十年만에 錦衣還鄕, 서서국 철학박사 李灌鎔씨 십칠일밤에 경성에 도라와
獨逸辭典에 朝鮮文發音表, 백림잇는 金重世씨의 활동, 리관용박사의 독일 이야기 <동아일보 1923년 2월 19일>

우리나라에서 '사전'이란 이름을 가지고 출판된 최초의 사전은 심의린이 편찬하여 1925년에 출판된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과 문세영이 편찬하여 1938년에 간행한 『조선어사전』이다. 표지에 '辭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 이전에 나온 모든 사전은 대부분이 '字典'으로 나와 있다.

〈심의린 : 조선어사전(1925년)〉

〈문세영 : 조선어사전(1938년)〉

〈한불자전(1880년)〉

〈한영자전(1890년)〉

〈법한자전(1893-1912)〉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이란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회어'(會語)라고 하였고, 이 한자를 풀어 나중에 '말모이'란 말로 사용되었다.

〈國漢會語(1895년)〉

〈말모이〉

‘사전’(辭典)이란 말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주로 ‘사전’(辭典)을 사용하지 않고 ‘사전’(詞典)을 더 많이 사용한다.

가끔 ‘사전(辭典)’을 ‘자전(字典)’과 혼동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사전의 하나로 알려진 책 중에 ‘한불즈뎐’이라고 하는 ‘한국어-불어’ 대역사전이 있는데, 여기에 ‘자전’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 이것은 잘못 쓴 것이다. ‘사전’은 언어에 관한 것이고 ‘자전’은 문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외국인이 편찬한 대역사전에 ‘자전’이란 제목이 붙어 있어서 ‘자전’이 ‘사전’과 동일한 의미일 것으로 알기도 하지만 ‘자전’과 ‘사전’은 다른 의미다. 외국인이 ‘한글’로 썼다는 점에서 ‘자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어사전’은 있지만 ‘국어자전’은 있을 수 없다. 문자라고 하여도 ‘한글 자전’은 없다. 대신 ‘중국어사전’은 있지만 ‘중국어자전’은 없다. 대신 ‘한자 사전’도 있지만 ‘한자 자전’도 있다.
그래서 말모이 편찬자들은 이 사전의 명칭을 ‘말모이’라고 한 것이다.

3. 말모이의 ‘알림’의 순서 적기

이 말모이가 국어학자가 편찬한 원고라는 사실은 이 말모이 원고의 ‘알림’에서도 볼 수 있다. ‘알림’에는

ㄱ. 이 글은 낱말을 보고 그 밑에 풀이를 적음

ㄴ. 낯말 벌이 놓은 자리는 '가나・・・하'의 자리대로 함

과 같이 그 순서를 오늘날처럼 '1, 2, 3, 4, 5'로 하지 않고 'ㄱ, ㄴ, ㄷ, ㄹ, ㅁ, ㅂ'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900년대에 국어학자들이 흔히 쓰던 서술 방식이었다. 그만큼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어학자 김두봉(金枓奉)이 지은 김구 선생의 부인 최준례(崔遵禮) 여사의 무덤에 있는 비석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쓰이어 있다.

<사진의 왼쪽부터 아들 김신,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곽낙원, 아들 김인>

ㄹㄴㄴㄴ해 ㄷ달 ㅊㅈ날 남
대한민국 ㅂ해 ㄱ달 ㄱ날 죽음
최 준례 묻엄
남편 김구 세움

여기의 'ㄹㄴㄴㄴ 해 ㄷ달 ㅊㅈ날 남'은 '4222년(1889년) 3월 10월 19일 남'을. 그리고 '대한민국 ㅂ해 ㄱ달 ㄱ날 죽음'은 '대한민국 6년(1924년) 1월 1일 죽음'이란 의미이다. 이처럼 그 당시의 국어학자들은 숫자를 한글 자모로 쓰곤 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 말모이 원고는 국어학자가 쓴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말모이를 주도적으로 편찬하려고 하였던 김두봉이 남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김두봉의 친필 글씨체를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다.

4. 말모이 원고지의 한글 서체 문제

말모이 원고지에는 판심 부분의 '말모이'를 비롯하여 죄우 상하에 여러 가지 한글이 인쇄되어 있다. 이 '말모이'가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하려고 하였다는 많은 증거가 있으나 이 원고지에 쓰인 한글 서체로도 이 원고지가 조선광문회에서 만든 것임이 들어난다. 조선광문회의 출판물은 대부분 육당 최남선이 창설한 출판사인

‘신문관(新文館)’에서 인쇄하였는데, 이 원고지의 한글 서체가 신문관의 인쇄 서체와 동일하여 이 원고지가 조선광문회에서 만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신문관 인쇄의 ‘옥루몽의’ ‘문’과 ‘말>

<말모이 원고지의 ‘문’과 ‘말’>

특히 ‘문’자를 보면 매우 특징적인 서체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말모이’는 조선광문회에서 주관하여 편찬하려고 하였던 국어사전 원고임을 알 수 있다.

5. 말모이 편찬의 미완성

말모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편찬을 시도한 현대적인 국어사전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표제어로 하여 편찬된 사전들은 초기에는 모두 대역사전(對譯辭典)이다. 그 대역사전들은 모두 19세기말에 등장하는데, 거의 모두가 외국인이 편찬한 것이다. 최초의 대역사전은 조로사전(1874년), 한불자전(1880년) 등이다.
그 한국어를 표제어로 하거나 한국어를 풀이말로 한 대역사전들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종류	편저자	사전명	편찬 연도	표제어수
한국어 - 한자	이준영, 정현, 이기영, 이명선, 강진희	국한회어	1895년	약 27,000 개
한국어-프랑스어	Félix-Clair Ridel	Dictionaire Coréen - Francais(한불ᄌᆞ뎐)	1880년	약 27,000 개
한국어-영어	H.G.Underwood	A Concise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영한 한영자전)	1890년	

	J.Scott	Introduction, English-Corean Dictionary(영한사전)	1891년	
한국어-일본어	趙義淵 井田勤衛	日韓 韓日 言語集	1910년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	1920년	58,639 개 한자어 40,734개 언문어17,178 개 이두 727 개
	조선어연구회	鮮和新辭典	1942년	
영어-한국어	James S. Gale	A Korean-English Dictionary (한영자전)	1897년	약 34,000 개
	George H. Jones	An English-Korean Dictionary (영한자전)	1914년	
	J.W.Hodge	Corean words and phrases	1897년	약 240 개
러시아어-한국어	푸칠로	露朝辭典	1874년	약 4,000 개
	마샤노프	試篇露韓小辭典	1904년	
프랑스어-한국어	C h a r l e s Allévêque	Petit Dictionaire Français-Coréen (法韓字典)	1901년	

라틴어-한국어		Parvum Vocabularium Lation-Coreanum ad usum studiosae (羅韓小辭典)	1891년	
일본어-한국어	趙義淵 井田勤衛	日韓 韓日 言語集	1910년	
	日語雜誌社	日韓 會話辭典	1906년	
	船岡獻治	鮮譯 國語大辭典	1919년	약 6,300 개

이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어를 표제어로 하여 만든 대역사전은 국한회어(國韓會語)가 최초이다. 그러나 국어사전 중에서 단일어 사전으로 최초인 것은 비록 출판되지 않은 원고의 일부만 남아 있지만, '말모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어 사전으로 국어사전 중에서 중요한 사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편찬자	사전명	편찬연도	표제어수
조선광문회(주시경,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 등)	말모이	1911년-	'ㄱ-갈죽' 부분만 원고로 남아 있음
심의린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1925년	6,106 개 최초의 국어학습사전
계명구락부(최남선, 정	조선어사전	1927년	'마름질- 봐꿍'부분만 원고 형

인보, 이윤재, 임규, 변영로, 양건식 등)			태로 남아 있음
문세영	조선어사전	1938년	약 89,000 개
이윤재	표준조선어사전	1947년	
조선어학회	조선어큰 사전	1947년	164,125 개
문세영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	1949년	
신기철・신영철	표준국어사전	1958	
이희승	국어대사전	1961년	약 230,000 개
신기철, 신영철	새우리말큰 사전	1974년	약 310,000 개
이희승	국어대사전(수정증보판)	1982년	
금성사(김민수, 고영근, 임홍빈, 이승재)	국어대사전	1996년	약 300,000 개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년	509,076 개
한글학회	우리말큰 사전	1991년	약 450,000 개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1998년	약 50,000 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년	약 390,000 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사전(6권)	1961년-1962년	187,000 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992년	약 330,000 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06년	약 400,000 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 최초의 국어사전은 '말모이'이다. 이 말모이는 최남선(崔南善)·박은식(朴殷植) 등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선양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주시경(周時經)·김두봉(金枓奉)·권덕규(權悳奎)·이규영(李奎榮) 등의 국어학자들이 민족주의적인 애국계몽의 수단으로 편찬하려 했던 원고이다.

말모이는 조선광문회에서 1911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를 편찬하게 하여 편찬된 사전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출판되지 못하고 원고,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는 사전이다.

말모이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주시경(周時經), 김두봉(金枓奉), 이규영(李奎榮), 권덕규(權悳奎) 등 모두 4명이었다. 1914년에 주시경이 세상을 떠나자, 1916년에는 이 말모이의 바탕이 되는 문법책으로 김두봉이 『조선말본』을 간행하기도 하였으나 그가 상해로 망명하고, 이규영이 작고함으로써 말모이의 편찬은 완성 단계에서 멈추어졌고 그 원고조차 산실되어 현재는 그 첫째권으로 보이는 'ㄱ-걀죽'까지의 표제항이 있는 한 권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원고는 1927년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 하면 동아일보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 기사제목 : 朝鮮語辭典 編纂 -시내 인사동 계명구락부에서-
> 시내 인사동(仁寺洞)에 잇는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에서는 전자에 긔관잡지 계명(啓明)으로서 조선 고뎐(古典) 연구에 힘써 오든 바 이번에 다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을 편찬키로 하고 최남선(崔南善) 씨를 수뇌로 뎡인보(鄭寅普) 리윤재(李允宰) 림규(林圭) 변영로(卞榮魯) 량건식(梁建植) 등 각 방면의 권위를 망라하야 작일부터 위선 어휘(語彙) 모집에 착수하엿다는데 지금까지 위선 약 일만오천원의 경비를 예산하는 바 대부분 동 구락부원의 출자가 될 터이라 하며 편찬에는 이전 조선광문회(光文會)에서 모아 둔 것을 긔초로 시작하리라더라
> <동아일보 1927년 6월 6일>

계명구락부에서 최남선이 주동이 되어 다시 조선어사전 편찬을 시도하였는데, 이전의 조선광문회에서 모아 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6. 말모이의 편찬 목적

말모이의 편찬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1927년에 '말모이'를 편찬하려고 했던 육당 최남선이 주축이 되어 다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려고 하였을 때의 목적이 들어나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말모이의 편찬 목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기사 제목 : 朝鮮語辭典 編纂의 計劃
> 내용 :
> 一
> 啓明俱樂部에서는 今番에 六堂 崔南善氏의 主宰下에 朝鮮語辭典 編纂의 計劃을 세웟다. 그는 매우 適當한 事業인 줄을 안다. 啓明俱樂部는 朝鮮의 知識分子를 만히 網羅하여 잇스니 어느 意味에 잇서서 現下 朝鮮에 잇서서의 知識의 淵叢이라 할 수 잇고 또 그 會員 中에는 相當한 資力을 가진 이가 만히 잇스니 文化事業에 貢獻할 可能性이 充分히 잇다고 하겟다 이 團體에서 計劃된 이 事業에 對하여는 우리는 그것이 잘 有終의 美를 이룰 것을 밋는 바이다.
> 二

天地自然의 聲이 잇슨 즉 天地自然의 文이 잇는 것이니 우리 朝鮮文의 發達도 또한 天地自然의 理에 依하야 된 것이다. 그러나 過去에는 여러 가지 事情으로 因하야 朝鮮文의 發達이 매우 遲遲한 바가 잇섯고 싸라서 朝鮮語를 朝鮮文으로 써서 記錄해 둔 것이 적엇섯다. 語와 文은 서로 因果關係를 지어서 發達되는 것이니 文으로 因하야 語가 더욱 發達되고 語에 依하야 文이 더욱 整理 向上되는 것이다. 오늘날 獨逸國民이 쓰는 完全한 獨逸語는 十六世紀의 初葉에 잇서서의 宗敎 改革者인 '루텔'이 聖經을 獨逸語로 飜譯함에서 由來한 것이다. 이와 갓치 생각하여 보면 말의 標準되는 文이 잇서서 그것이 弘布됨에 딸어서 말이 圓滿한 發達을 보게 되는 것이니 一定한 標準이 업스면 만히 그 散逸을 보게 되야 그 正體를 維持하기에 매우 困難을 感할 수도 업지 아니할 것이다.

三

이러한 意味에 잇서서 오늘날싸지에 朝鮮語의 完全한 倉庫가 업다는 것은 朝鮮語의 守護者 되는 朝鮮人을 爲하야 퍽 不名譽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업다. 지금싸지에 된 朝鮮語에 關한 辭典이라고 하면 米國人의 編纂에 依한 韓英字典이 잇고 朝鮮總督府에서 편찬한 것이 잇스나 그들이 다 不完全하고 朝鮮語感을 가지지 못하고 朝鮮語의 知識이 深奧하지못한 이들의 事業이요 또 그 事業 自體로 말하더라도 一時的으로 알고 한 것인 故로 퍽 不充分한 것들이니 그것이 將來의 辭典編纂에 對한 有力한 參考材料는 될 수 잇겟지마는 그것들로써 朝鮮語의 把持者로 볼 수는 업는 것이니 不可不 大規模의 朝鮮語辭典의 編纂을 要求하게 되엇다. 우리는 勿論 外語를 만히 배울 必要를 늣긴다. 그뿐만 아니라 世界語가 만히 流行되기도 바란다. 그러나 어느 民族이던지 自語만은 維持하여야 할 것이니 그로 因하여서만 科學이며 文學 等의 自由로운 發達을 보게 될 것이다.

1927년 6월 9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도록 한다.

四

우리는 國粹主義를 排斥한다. 그러나 自語에 依하야 서로 團合되고 서로 人類文化에 貢獻할 民族精神을 이저버릴 수 업겟고 또 이저 버려서도 아니 되겟다. 이러한 意味에 잇서서 우리는 또 朝鮮人에 依한 朝鮮語辭典을 朝鮮民族精神의 守護者로도 보고 십흐다. 어느 點으로 보던지 今番에 斯界의 權威를 網羅하야 編纂을 計劃한 朝鮮語辭典이 速히 完成되기를 바래며 또 우리 同胞가 다 이 事業의 進行에 對하야 모든 方面으로부터 聲援와 助力을 앗기지 아니할 것을 確實히 밋는 바이다.

이 기사의 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외국인이 조선어사전을 편찬하였어도 조선어감(朝鮮語感)을 지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우리나라 사전 편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927년에 계명구락부에서 계획했던 사전편찬도 무위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1929년 11월 2일자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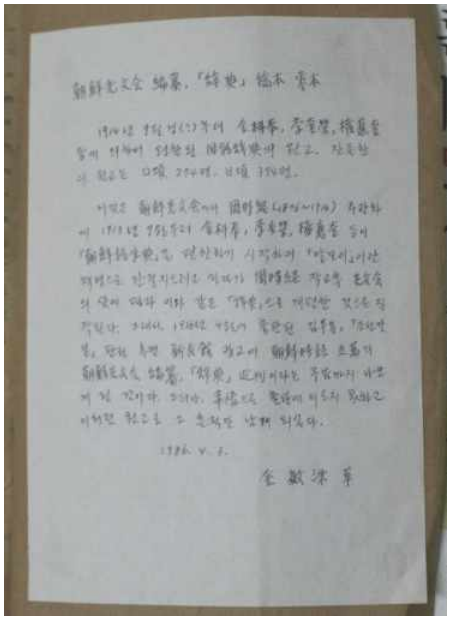
> 기사 제목 : 朝鮮語辭典 編纂會의 創立
> 우리 힘으로 朝鮮語辭典을 編纂하려 한 努力이 從來 업든 바는 아니니 朝鮮光文會, 啓明俱樂部 等은 各各 그 事業을 進行하얏다. 그러나 不幸히 兩者가 다 經費 其他의 原因으로 完成을 보지 못하고 말앗다.

이 내용으로 보아 조선광문회에서 계획했던 조선어사전 편찬 계획, 즉 '말모이' 편찬 사업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 편찬 원고가 마무리되었다면 출판이 가능했을 것이지만 출판이 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말모이 원고는 책임을 맡은 어느 국어학자가 자기가 담당한 부분을 완성시킨 원고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통해 현재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사전 편찬 원고가 바로 계명구락부에서 편찬을 시도했던 조선어사전 편찬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어사전 원고임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육당 문고에 소장되어 있고, '말모이' 원고와는 다른 또 하나의 원고가 있어서, 이 원고가 '말모이' 편찬 원고의 하나라고 추정하였던 것이 사실은 계명구락부에서 추진하였던 원고의 일부라는 사실도 알게 된 것이다.

김민수 교수는 이 원고가 '말모이' 원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이 원고의 앞에 김민수 교수가 초(草)해 놓은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朝鮮光文會 編纂, 『辭典』稿本 零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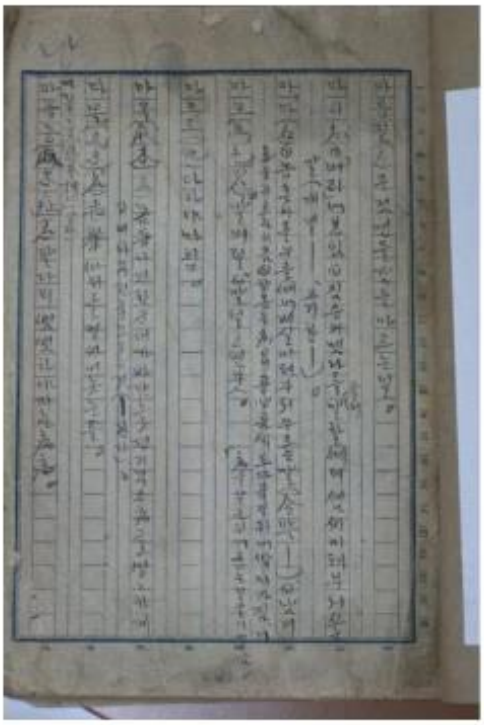
1914년 9월경(?)부터 金枓奉, 李奎榮, 權悳奎 등에 의하여 편찬된 國語辭典의 원고, 잔존한 이 원고는 ㅁ 項 274면, ㅂ 항 394면.

이것은 朝鮮光文會에서 周時經(1876-1914) 주관 하에 1913년 9월부터 金枓奉, 李奎榮, 權悳奎 등이 『朝鮮語辭典』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말모이』이란 책명으로 완결지으려고 하다가 周時經 작고 후 光文會의 뜻에 따라 이와 같은 『辭典』으로 개편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1916년 4월에 출판된 김두봉 『조선말본』 판권 후면 新文館 광고에 朝鮮語法 五萬의 朝鮮光文會 編纂 『辭典』近刊이라는 豫告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事情으로 출판에 이르지 못하고 이처럼 원고로 그 흔적만 남게 되었다.

1986.4.1.

金敏洙 草

고려대학교 소장 조선어사전 원고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말모이 사전의 본문 내용

(1) 올림말

말모이는 올림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명사 : 곡용형이 없이 체언 형태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오랜 전부터의 전통이었다. (예: 가가, 가가례, 가간 등)

② 용언은 어미 '-다'를 붙인 활용형을 제시하지 않고 어간형만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어간형의 끝부분에 '-'을 붙이는 방식(예: '가파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형식은 지금까지의 어느 사전에도 보이지 않던 방식이었다. (예: 가파르, 깎, 간간하 등)

③ 부사형은 파생형 그대로 표제어로 삼고 있다. (예: 간대로, 간들 등)

④ 한자어는 표재항을 한글로 쓰고 [ ] 안에 한자를 제시하고 있다. (예: 간신[奸臣]. 간장[肝腸] 등)

(2) 문법 내용 및 용어

문법 내용을 제시하기 위하여 1음절의 약어로 ( ) 안에 표시하여 놓았다. 그 약어는 '알기'에 제시한 그대로 하였다. '제, 넛, 억, 언, 드, 안, 밖, 엇, 입, 웁, 업, 심,

맺, 둠, 갈, 손, 깁, 잇, 둘, 때, 높, 솔, 홀소리, 닷소리'의 24개(약어는 22개)의 문법 용어들은 이 당시, 특히 주시경 선생의 문법 용어들을 줄여서 쓴 것이어서, 이 당시의 문법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3) 풀이말

① 표제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는데, 고유어의 풀이말은 가능한 한 고유어로 쓰고(물론 한자어가 있을 경우에는 한자를 쓰고), 한자어에는 한자를 섞어 쓴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자어도 고유어로 풀이한 경우도 많은 편이다.

> 까 (밖) ㉠ 껍질을 벗김 ㉡ 남이 잘못 너김을 밝힘(뒤를 -)
> 가감뎌항긔[加減抵抗器] (제) 電路에 揷入하아 電流를 加減하는 그릇이니 한 櫝 속에 洋銀줄이나 또 다른 쇠붙이로서 一定한 電氣의 抵抗을 알맞게 걷으며 石板으로 짓은 뚝게에는 數十介 의 接觸點을 排列하고 그 한 끝을 電路 한 끝에 連結하고 接觸片에서 電路 다른 끝에 連結하면서 任意로 接觸點에 觸하아 回轉하게 한 裝置니 抵抗을 加減하고 電路에 流하는 電流의 强弱을 加減함 [그림]

② 풀이말을 기술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③ 사전에는 그림을 넣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풀이말의 끝에 [그림]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판할 경우에 그림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④ 뜻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 ㉡ 의 번호를 붙여 기술하고 있다.

(4) 부록

부록으로 '찾기'(오늘날의 '색인')와 '字畫찾기'가 있는데, 이 방식은 국어사전의 방식이 아니라 한자 자전의 방식이다. 한글이 소리글자[表音文字]이기 때문에 색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데 비해 한자 자전은 뜻글자[表意文字]이어서 '찾기'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유행처럼 번져 간행되었던 한자 자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ㅇ 문헌자료

김민수(1986), 周時經 硏究(증보판), 탑출판사.
이병근(1977), 最初의 國語辭典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67~84.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최경봉(2014),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 24-3, 국립국어원.

홍윤표(1986), 最初의 國語辭典『國漢會語』에 대하여, 白旻全在昊博士華甲紀念 國語學論叢, pp.633-656.

□

ㅇ 조성연대 : 1914년 경. [말모이] 편찬에 관여한 이들이 남긴 기록을 볼 때, 조선광문회가 설립된 후 그 이듬해인 1911년부터 주시경과 김두봉의 주도로 사전편찬 사업이 시작되었고, 1913년경 문법 체계를 세우며 사전의 체계가 잡혔고(인용1), 이후 이규영과 권덕규가 참여하면서(인용2) 원고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남선이 [신자전](1915) 서문(인용 4)에서 출간 예고한 우리말사전(我語小典)의 제목이 [조선말본](1916)의 광고(인용 5)에서 '말모이'가 아닌 '辭典'이 된 걸 보면, '말모이 원고'의 작성 후 모종의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신문관 회고담(인용 6)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보면, 이 원고는 주시경이 사망(1914.7.27.)하기 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이 글은 [말모이]에 쓰랴고 그러께(1913) 여름에 열물앞, 무원어른 시골집에서 만들엇던것인데 지난(1914) 가을붙어 이를 좀 더 다스리어 이제에 마친 것이니라." (김두봉, [조선말본], 1916)

2) "네즘 두온 네열 여섯해 아홉달(단기 4246년 9월. 서기로는 1913년 9월)에 朝鮮光文會 朝鮮語字典 編纂하는데 일을 본 뒤에 보고 들은바를 가리어 적음." (이규영, [온갖것], 1913)

3) "朝鮮光文會가 設立되매 朝鮮語文에 關한 文書校正과 辭典編纂의 指導에 致力하며……." (周時經先生歷史, [청춘], 1914.10./필자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권덕규로 추정됨)

4) "未久에 踵出할 我語小典과 我文小法 等이 다 其一이라." (崔南善, [新字典] 敍, 1915)

5) [辭典] 朝鮮光文會 編纂 近刊 /朝鮮時語 五萬의 標準을 定하고 意義를 譯한 것이니 朝鮮有語以後에 初有한 大著라. 우리의 精神的 血液이 從此로 一段의 生機를 加得할지니라(김두봉의 [조선말본] 뒤편의 신문관 광고)

6) "주시경(周時經) 씨는 『조선말모이』(조선어사전)의 첫페이지와 조선글을 가로쓰는 활자(活字)를 수북히 만들어 노코는 그만 간다 온다는 말조차 업시 황천(黃泉)으로 간 뒤로는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한구석에서 몬지만 쏘이고 잇담니다." (十九 星霜을 閱歷한 黃金町 新文館, [동아일보], 1926.1.2.)

ㅇ 현 상

'말모이 원고'는 [말모이] 편찬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가로쓰기의 2단으로 되어 있는 240자 원고지에 붓글씨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1권으로 묶여 있는데, 표지에는 세로쓰기로 쓰인 '말모이 卽 사전'이 볼펜으로 적혀 있고, 내지에 'ㅁㅏㄹ ㅁㅗㅣ'란 가로풀어쓰기로 쓰인 제목이 나온다. 표지에 볼펜으로 적은 글씨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ㅁㅏㄹ ㅁㅗㅣ'는 별도의 종이에 활자로 찍은 후 '말모이 원고'에 붙인 것인데, 이를 보면 모아쓰기로 된 원제목(말모이)을 풀어쓰기로 바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풀어쓴 자모의 형태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 모음을 나타내는 'I'의 형태이다. 주시경은 풀어쓰기 자모의 형태를 다양하게 모색했는데, 일직선 형태의 'ㅣ'를 변형시킨

‘I’ 형태의 경우 공식 출판물로는 [말의 소리](1914)에 필사의 형태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런 사실을 앞의 인용 6)과 연결지어 보면, 제목에 쓰인 풀어쓰기 활자는 [말의 소리](1914) 이후 그리고 주시경 사망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원고지의 판심에는 책 제목인 ‘말모이’가 인쇄되어 있어 이 원고지가 [말모이]를 편찬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지에는 표제어의 배열 순서와 부호 표기가 인쇄되어 있다. 원고지 위쪽에는 ‘【첫소리】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가 인쇄되어 있고 그 위에 2단의 각 단별로 첫 올림말과 끝 올림말이 표시되어 있다. 왼쪽에는 ‘【가온대소리】 ㅏ (ㆍ) ㅐ (ㆍㅣ)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ㅚ ㅛ ㅜ ㅟ ㅠ ㅞ ㅡ ㅢ ㅣ ㅘ ㅙ ㅝ ㅞ’가, 오른쪽에는 ‘【받힘】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ㅐ ㅈ (ㅉ) ㅊ ㅋ ㅌ ㅍ ㅎ’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호 표기 ‘- 한낱말사이, · 높은소리, ·· 낮은소리, + 한문말 X 다른나라말’가 인쇄되어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1. 조선광문회와 [말모이]

[말모이] 편찬사업을 벌인 조선광문회는 ‘수사(修史)’와 ‘이언(理言)’과 ‘입학(立學)’을 설립 취지로 내세운 민족 계몽운동 단체다. 이중 ‘이언(理言)’은 ‘사전편찬’과 ‘문법정리’에 해당하는데, 광문회에서는 이언(理言)의 사업으로 [신자전(新字典)]과 [말모이]를 편찬하게 된 것이다. 이때 [신자전]과 [말모이] 편찬은 연동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말모이] 편찬을 주도했던 주시경과 김두봉은 [신자전] 편찬에서 국문 훈석을 담당하였다.

7) “我의 言語와 關繫가 深切한 語文의 對譯辭書를 作成함은 辭典計劃의 一要件이 되니 (중략) 朝鮮訓釋에 對하야는 故한힌샘 周時經 白淵 金枓奉 兩氏의 用心이 頗勤하얏스며” (崔南善, [新字典] 敍, 1915)

다만, [신자전] 편찬이 최남선의 주도로 이루어진 반면, [말모이] 편찬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모이]에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어문관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어문관은 ‘말모이 원고’에 나타난 국문 표기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말모이 원고’의 표기법

주시경은 대한제국의 국문연구 기관인 ‘국문연구소’(1907-1909)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최초의 ‘국가 어문규범안’이라 할 수 있는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1909)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문연구의정안]이 시행

되지 못한 채 한일병합이 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을 공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경은 '말모이 원고'에 국문연구소의 철자법을 적용함으로써 [말모이]의 편찬이 대한제국의 어문규범화 사업을 이어 완성하는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국문연구소의 철자법은 형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받침에서 소리로 실현되지 않지만 형태 구분에 역할을 하는 자모(ㅈ ㅊ ㅋ ㅌ ㅍ ㅎ 등과 겹받침)를 받침 표기로 쓰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형태주의 표기법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기원칙이 되어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3. '말모이 원고'의 체제

이 원고는 '알기(2쪽), 본문(153쪽), 찾기(50쪽), 자획찾기(26쪽)'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알기'가 처음 나오고 본문의 올림말이 'ㄱ'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원고본이 '말모이 원고'의 첫째 권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찾기와 자획찾기가 뒤에 포함된 것은 독특하다. 이를 보면 원고 작성 시 본문과 찾기를 함께 작성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말모이 원고'가 본격적으로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 샘플로 작성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알기'에는 ㄱ-ㅂ까지 6개 항목의 범례, 24개의 문법용어와 그 약호, 19개의 전문분야와 그 약호가 제시되어 있다. 범례에서는 (ㄱ)사전의 기술 원칙, (ㄴ)올림말의 배열 순서, (ㄷ)유의어의 배열 및 그 풀이, (ㄹ)동음어와 다의어의 배열 및 그 풀이, (ㅁ)말소리의 높낮이 표시방법, (ㅂ)한자어 및 외래어의 표시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본문'에는 'ㄱ-걀쭉'까지의 1,400여 개의 올림말이 제시되어 있다. 기술 방식은 각 올림말의 오른편에 '문법정보(품사), 전문분야, 뜻풀이, 용례' 등의 순서로 사전의 미시 정보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말모이 원고'의 편찬자들이 사전에서 갖춰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찾기'는 표제어 색인에 해당하고, '자획찾기'는 올림말 및 본문 속의 한자어 색인이다.

4. '말모이 원고'의 문법 용어

'말모이 원고'에 나타난 문법 용어는 독특한 것인데, 여기에 나온 24개의 문법 용어는 주시경의 문법 용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용어 자체가 당시에도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알기'에서는 문법 용어 오른편에 한자어 문법용어와 대응시키거나 대응 한자어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문법 용어 중 '닷소리'와 '홀소리' 2개를 제외한 22개 문법 용어의 경우, 모든 문

법형태소를 단어로 보고 각 문법형태소에 품사명을 부여한 주시경 학설의 원칙에 따르되, 주시경의 기존 품사 체계에 비해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원고의 '알기'에는 문법 용어가 단순 나열되어 있어서 그 문법 체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말모이] 편찬에 참여했던 이규영의 비방록인 [온갖것](1913)에서는 22개의 문법 용어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원고에 나온 22개의 품사 명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후 문법에서 계승되지 않았다. 다만 이 원고에 제시된 세분화한 문법 용어는 이전의 문법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정밀한 문법 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어문법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또한 자음과 모음이라는 명칭을 '닷소리'와 '홀소리'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시경이 [국어문법](1910)의 개정판으로 낸 [조선어문법](1913)에 처음 나온 용어이다([국어문법]에서의 '읏듬소리'와 '붙음소리'를 대신한 용어). 주시경 사후에 나온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에서는 '자음'을 나타내는 용어가 '닿소리'로 바뀐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1913년에 [말모이]의 체계를 잡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을 거치며 원고의 체계를 잡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원고에서 제시한 문법 용어가 이후 주시경 학파의 문법 연구에서 일부만 채택되거나 일부 용어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은 1914년에 이 원고를 조성한 이후 이에 대한 일정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5. '말모이 원고'의 올림말과 뜻풀이

올림말의 형태, 뜻풀이할 올림말의 선택, 올림말에 따라 세운 뜻풀이의 원칙 등이 특징적이다. 이는 '말모이 원고'의 편찬자들이 사전의 편찬 원칙을 정교하게 세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말모이 원고'가 첫 번째 국어사전이면서 우수한 국어사전이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올림말 중 용언 올림말은 기본형 종결어미인 '-다'를 생략한 형태인데, 이는 현재 문법과 달리 이를 '맺'이라는 품사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시경 문법의 한 특징인데 주시경은 어미와 조사를 모두 '토'로 분류하면서 단어로 봤다. 이런 점에서 '말모이 원고'는 문법적 분류 원칙을 세운 후 이를 사전 기술에 정확하게 적용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뜻풀이할 올림말을 선택하는 원칙은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을 연상시킨다. '말모이 원고'의 '알기'에는 유의어의 경우는 "가장 흔히 쓰이고 소리 좋은 말" 밑에 풀이를 적는다'는 원칙을 나와 있는데, "가장 흔히 쓰이고 소리 좋은 말"을 정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표준어를 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가얌이'와 '개미', '가야금'과 '가야고'를 사전에 올리면서 이중 '개미'와 '가야고'에서 선택해 뜻풀이를 한 것을 보면, '말모이 원고'의 편찬자들은 통용되는 말을 최대한 수집해 등재함과

동시에 표준적인 어형을 제시하여 통일적인 언어생활을 유도한다는 편찬 원칙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말모이 원고' 편찬자들은 어휘 유형에 따라 뜻풀이의 원칙을 따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유어의 뜻풀이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인용 10), 한자어의 뜻풀이에서는 경우에 따라 한자를 사용하였고(인용 9), 일반어의 뜻풀이는 국문 문체를 사용하는 데 반해(인용 9, 10), 전문어의 뜻풀이는 국한혼용문체를 사용하였다(인용 8).

8) 가독상속인[家督相續人] (제) [法]家督을 繼承하는 人이니 被相續人의 家族된 直系卑屬에 對하아 相續人되는 것은 寸數가 다른 사이에는 가깝은 者를 하고 寸數가 같은 사이에는 男을 하고 寸數가 같은 男 又는 女 사이에는 嫡子로 하고 … (하략) …

9) 강ᄉᆞ[講師](제) 學術을 講義하는 스승

10) 깜벅 (억) ㉠눈을 뜨엇다가 감앗다가 하는 것. ㉡불이 죽으랴고 높앗다가 낮앗다가 하는 것.

이러한 뜻풀이 방식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차이, 전문어와 일상어의 차이를 편찬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풀이 방식을 달리하는 원칙을 세웠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어에 대한 뜻풀이의 문체가 두드러졌던 것은 당시 교과서가 국한혼용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말모이 원고'의 용례 '말모이 원고'에 압축된 형태로 해당 올림말의 쓰임을 보여주는 용례가 포함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사전의 용도에 대한 편찬자들의 인식이 높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1938년에 출판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서 용례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ㅇ 문헌자료

김민수(1986), ≪周時經 硏究≫(증보판), 탑출판사.

김민수(1980), ≪新國語學史≫, 일조각.

이병근(1977), 最初의 國語辭典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67~84쪽.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최경봉(2014),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24-3, 국립국어원.

□

ㅇ 조성연대

‘말모이 원고’는 현존하는 자료 자체만으로 정확한 제작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된 각종 관련 기록을 통해서, ‘말모이 원고’의 대략적인 제작 연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 “네즘 두온 네열 여섯해 아홉달(단기 4246년 9월. 서기로는 1913년 9월)에 朝鮮光文會 朝鮮語字典 編纂하는데 일을 본 뒤에 보고 들은바를 가리어 적음.” (이규영, [온갖것], 1913)
(2) “朝鮮光文會가 設立되매 朝鮮語文에 關한 文書校正과 辭典編纂의 指導에 致力하며…….” (周時經先生歷史, [청춘], 1914)
(3) “未久에 踵出할 我語小典과 我文小法 等이 다 其一이라.” (崔南善, [新字典] 敍, 1915)
(4) “이 글은 [말모이]에 쓰랴고 그러께(1913) 여름에 열물앞, 무원어른 시골집에서 만들엇던것인데 지난(1914) 가을붙어 이를 좀 더 다스리어 이제에 마친 것이니라.” (김두봉, [조선말본], 1916)
(5) “주시경(周時經) 씨는 『조선말모이』(조선어사전)의 첫페이지와 조선글을 가로쓰는 활자(活字)를 수북히 만들어 노코는 그만 간다 온다는 말조차 업시 황천(黃泉)으로 간 뒤로는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한구석에서 몬지만 쏘이고 잇담니다.” (十九 星霜을 閱歷한 黃金町 新文館, [동아일보], 1926.1.2.)

(1)의 기록을 통해서, 조선광문회에서 주관하여 국어사전[조선어자전] 편찬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5)를 통해서 조선광문회에서 간행되는 사전이 주시경과 김두봉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사전의 전체 체제와 내용이 기획/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업 과정에서 이규영과 권덕규가 참여하여, 사전 편찬 작업이 본격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편찬 과정에서, ‘말모이 원고’가 거의 완성될 시점에서, 이 사업의 핵심 책임자였던 주시경 선생이 1914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말모이 원고’의 기반을 둔 사전 편찬 작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이 원고는 1926년대까지 방치되었고 원래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말모이 원고’ 관련 기록을 보면, 현재 남은 ‘말모이 원고’는 적어도 1913년부터 1914년 사이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ㅇ 현　　상

‘말모이 원고’는 [말모이] 사전 편찬을 위해서, 전용(專用) 원고지에 작성된 원고

(原稿)를 말한다. 현재 남아있는 원고는 전체 1책으로, 표지에 '말모이 卽 사전', 내지에 'ㅁㅏㄹ ㅁㅗㅣ'란 제목이 적혀있다. 표지의 제목은 후대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이고, 원래 명칭이 내지에 적인 '말모이'로 보인다.

전용 원고지의 판심제(版心題)는 '말모이'로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다면 사전에 사전의 제목을 [말모이]로 정했음을 알 수 있다. '말모이 원고'는 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만든 원고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사전에서 볼 수 있는 표제어의 배열순서와 부호 표기를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원고지 위쪽에는 '첫소리', 왼쪽에는 '가온대소리', 오른쪽에는 '받힘', 그리고 아래쪽에는 각종 부호 표기, 예를 들자면 높은/낮은 소리 등이 인쇄되어 있다. 이런 외형적 상태를 볼 때, 이 자료는 사전 출간을 위해서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1) '말모이 원고'의 서지적 특징: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대에 검열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출판 원고는 사전 승인을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부터 받아야했다. 이때 각 출판사에서는 검열용 원고(原稿)를 제출한다. 현존하는 자료를 보면 조선광문회나 신문관, 그리고 회동서관 등에서는 자체 원고지를 만든 뒤에, 출판사명(出版社名)을 기재하거나 '작품명'을 기입한 것들이 많다. '말모이 원고'는 전용 원고지에다가 해당사항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출판을 목표로 했고, 동시에 검열을 위해 제작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말모이 원고'의 형태적 특징(표기법): 대한제국 시기에 최초의 국문(國文) 표기 통일안이 '국문연구소' 주관으로 1909년 제정되었다. 그 안이 바로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이다. 그러나 이 통일안은 식민지가 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대신에 조선총독부에서 작성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현재 '말모이 원고'를 보면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이 아닌 국문연구의정안에서 제정한 철자법을 따르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말모이 원고'를 작성했던 사람들의 언어관, 민족관, 표기법에 의거한 제작 시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말모이 원고'의 전체 체제: '말모이 원고'는 '알기(2쪽), 본문(153쪽), 찾기(50쪽), 자획찾기(26쪽)'으로 되어 있다. '알기'는 현재의 '일러두기'와 같은 것이다. 알기에는 각종 범례, 문법용어, 원고 작성 과정에서의 약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범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범례에서는 (ㄱ) 사전의 기술 원칙, (ㄴ)올림말의 배열 순서, (ㄷ)유의어의 배열 및 그 풀이, (ㄹ)동음어와 다의어의 배열 및 그 풀이, (ㅁ) 말소리의 높낮이 표시방법, (ㅂ)한자어 및 외래어의 표시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후에 본문은 'ㄱ' 닷소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1,400여개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말모이 원고'는 출간을 계획한 사전(事

典)의 제1권의 원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말모이 원고'에 수록된 단어: '말모이 원고'에는 1,400여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단어들을 보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어(新語)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가택수색(家宅搜索), 감리서(監理署), 조약(條約), 개교식(開校式), 개화당(開化黨)과 같은 것들이다. '조약'이란 단어는 근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개화당은 1874년(고종 11년) 무렵 김옥균(金玉均), 박영교(朴泳敎),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말모이 원고'에 수록된 단어를 보면 당대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신어들이다. 이 단어를 통해서 '말모이 원고'의 제작 상한시기를 살펴볼 수 있다.

ㅇ 문헌자료

이병근(1977), 最初의 國語辭典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2-1.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최경봉(2014),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24-3.
박용규(2016),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역사적 의미≫, 기록인V35.
최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제2판)≫, 책과함께.

안건번호 동산 2020-07-008

8. 조선말 큰사전 원고
(朝鮮말 큰辭典 原稿)

가. 심의사항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 언론 등으로부터 독립운동사료 포함 근대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재평가 요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재 278건을 자문회의(’19.7.15./9.5.) 및 본 위원회 제7차 소위원회(’19.11.14.)에서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말모이 원고’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검토된 문화재 9건을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본 위원회 제6차·제7차 회의(’19.10.10./ ’19.12.12.)에 경과를 보고하였음.

○ 이에,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 대해 관계전문가 조사(’20.8.18./8.26./9.3.)를 실시하고 미공개 원고를 추가로 조사해(’20.9.7.)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20.10.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10.30.~11.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지정조사 대상 선정 기준	•(시기) 19세기~일제강점기 •(주체) 단체 위주 •(대상) 한글, 태극기 등 대한민국 역사상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문화재
선정대상 (총9건)	① 데니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제382호), ② 김구 서명문 태극기(제388호), ③ 불원복 태극기(제394호), ④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458호), ⑤ 말모이 원고(523호), ⑥ 조선말 큰사전 원고(524-1호), ⑦ 조선말 큰사전 원고(524-2호), ⑧ 윤동주 친필 원고(712호), ⑨ 이봉창 의사 선서문(745-1호)

다. 주요내용

등록사항 (등록일자)	명칭	수량	규격 (cm)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비고
국가등록 문화재 제524-1호 ('12.12.24.)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8책 (2,204장)	27.0 × 19.3 등	(사)한글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사)한글학회	국가지정 기록물 제4호 ('08.11.3.)
국가등록 문화재 제524-2호 ('12.12.24.)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5책 (1,314장)	27.5× 19.6 등	국유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독립기념관	국가지정 기록물 제4호 ('08.11.3.) **(*1985년 한글학회에서 기증)**
미등록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1책 (51장)	26.9 × 19.7	김**・김**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 3길 27, 동숭학술재단	

○ 재　　질 : 종이(양지)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가철(假綴, 검정 실끈으로 가철)
○ 조성연대 : 1929～1942년 경
○ 제 작 자 :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전신)

◈ 지정대상 목록 : 총14책

소장처	연번	권수 표시	항목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 표기	장수 (표지포함)	책 크기	비고
한글 학회 (8책)	1	제3권	1447 -1505	붇다 - 빛다	0011 -0313	274장	27.0 x 19.3	제3권 연필표기
	2	제4권	1890 -1961	시 - 싶	1 -315	318장	27.0 x 19.5	51쪽 2장
	3	권수표시 없음	2253 -2269	외 - 우측통행	1095-1 429	188장	28.0 x 20.4	
	4	제5권	2666 -2712	절용 -제밑	0360 -0639	201장	27.1 x 19.9	
	5	제5권 5의 7	2803 -2848, 1273 -1472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0640 -0882	199장	27.2 x 19.8	
	6	제6권 (6의1)	3125 -3199	ㅌ - 팀파니	1347 -1746	317장	26.8 x 19.5	
	7	제6권 (6의2)	3199 -3298	ㅍ - 핑핑히	1747 -2306	452장	27.0 x 19.1	
	8	제6권	3372 -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증]	241 -393	255장	26.8 x 19.7	
독립 기념관	1	5의 1	1 -240	ㅈ -잡제	0011 -0359	249장	27.5 x 19.6	

(5책)	2	5의 8	1473의 1 -1667	찌그러지다 -진도바리	0883 -1117	200장	27.5 x 19.8	
	3	5의 11	201 -399	척사윤음 -청찰	1118 -1346	201장	27.3 x 20.1	
	4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 -옇다	0704 -1094	334장	27.5 x 19.8	80쪽 2장 236쪽 2장 이면 표기 757,794 889,906 951
	5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0007-0 425	330장	27.4 x 20.1	
개인 소장 (1책)	1	범례, ㄱ	표시 없음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上 中下)	없음	51장	26.9 x 19.7	

※수량(張數) 기준: 표지포함/ 첨지 제외(원고지 1장 정도 분량은 장수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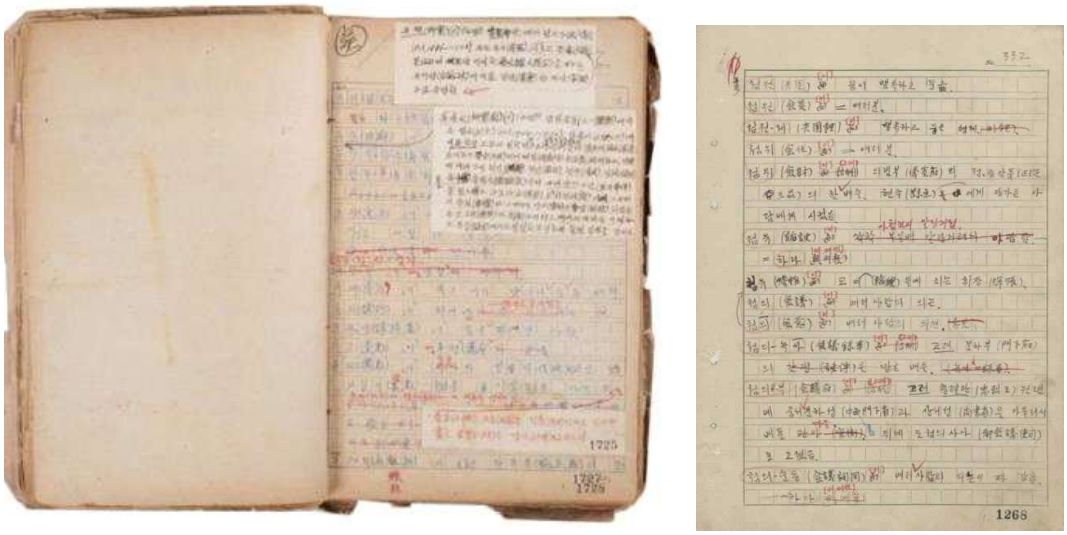


그림529. 조선말 큰사전 원고

(참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바탕으로 간행된 『조선말 큰사전』 1·2권 (1947~1949)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말 사전의 편찬과 발행은 지난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선어 학회에서는 1929년에 우리말 사전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고, 거의 발행을 앞둔 시기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모든 것이 수포(水泡)가 되어버린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천만 다행으로 해방직후에 이 원고를 발견하여 한글학회에서는 차례대로 『조선말 큰사전』(큰 사전)을 6책으로 완간하게 되었다. 곧 이 원고를 바탕으로 1947년 10월 9일에 1권을 발행한 이후 2권은 1949년 5월 5일, 3권은 1950년 6월 1일, 4권은 1957년 8월 30일, 5권은 1957년 6월 30일, 6권은 1957년 10월 9일 등 모두 6권으로 발행되었던 것이다. 이때 1-2권은 『조선말 큰사전』, 3-6권은 『큰 사전』이라는 이름이었다.

이 원고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말을 아끼는 선각자들이 일제의 조선어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을 보존하고 아끼려는 충정에서 편찬 완성한 것이다. 또한 최초로 발행된 우리말 사전의 원고이자 민족운동의 산 증거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항구히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사전의 원고로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사전 편찬 작업이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고 해방 후 발견한 원고를 토대로 사전을 편찬했다는 역사적 가치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사 자료 중 전사본은 제외하고 1940-1942년 사이에 작성된 원고 13책 (한글학회 소장본 8책 및 독립기념관 소장본 5책)과 내용에 있어 유일성이 있는 개인 소장본 1책을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 및 보존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었던 '조선말 큰사전'을 간행하기 위한 원고이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총독부에 압수되었고, 이후에 행방을 모르다가 해방 이후에 극적으로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1929년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이후 1931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를 거쳐 1949년 한글학회에까지 계승되었던 '조선말 큰사전' 간행은 1957년에서야 비로소 완료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말 큰사전 원고』

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준다.

또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제시된 '어휘, 어휘의 수록 순서, 철자,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문법 형태의 표시, 해석의 방식,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항목, 그리고 이에 의거한 어휘 항목의 선정, 어휘의 용례, 관련어, 옛말 등의 표시 등의 다양한 사전의 기술 방식은 사전학의 전범(典範)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사전은 1900년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반어만이 아니라 전문어, 제도어, 옛말, 이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학문적 자료 가치가 높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국어사전은 그 나라의 학문의 총결산이며 그 나라의 문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왜냐 하면 언어와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협동하고 협동을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전달받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사 전달의 기본 요소는 어휘이고 그 어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은 것이 곧 국어사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는 문화의 한 요소이며, 언어 단위 중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요소가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를 언어의 기본단위로 하여 편찬된 그 나라의 국어사전은 곧 그 나라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과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서로가 사용하는 어휘는 곧 의미전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어휘가 다르거나 그 어휘의 의미나 용법이 다르다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사람들은 그가 처해 있는 지역, 시대, 연령,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지역 출신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없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여서,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어휘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모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배열하고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은 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사전을 찾으면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찾으려고 하는 어휘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어휘가 등재되어 있는 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의 보물 특호라고 할 수 있고 한글은 유형문화재의 보물 특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글'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이들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한국어'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 무형적인 '한국어'를 유형적이고 한정된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것 중의 하

나가 '한국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사전'은 매우 중요한 문화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어사전'은 그 이름으로 간행된 '책'의 형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사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사전 편찬이 이루어져 온 것은 19세기말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역사전(對譯辭典) 형식으로 출판되어 왔다. 한국어에 대한 단일어사전으로 출판된 것은 1938년에 출판된 문세영 편찬 「조선어사전」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국어사전을 편찬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편찬된 원고는 남아 있으나 출판되지 않아 원고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것이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말모이'이며,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사전' 원고이다. 전자는 조선광문회에서, 후자는 계명구락부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계획되고 편찬되고 간행이 된 국어사전은 전술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과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조선말큰사전이다.

최초의 국어사전이라고 하는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도 책은 남아 있지만, 그 사전을 간행하였던 기초가 되는 원고는 남아 있지 않다. 비록 문세영 사전은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희귀성이 없어서 보물로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어사전 편찬회에서 편찬을 시작하여 조선어학회를 거쳐 한글학회에 이르기까지 편찬해 왔던 조선말큰사전도 이미 책으로 출판되어서 그 희귀성의 부족으로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작성된 원고가 남아 있어서, 이 원고들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조선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되었던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무형적인 한국어를 유형적인 한국어로 바꾼 최초의 한국어 문화재이다.

둘째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국어사전의 원고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셋째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20세기 초기부터 중기까지의 한국어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넷째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의 문화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록이다.

다섯째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그 이후에 등장할 많은 한국어사전 편찬의 모형을 제시하여 국어사전 편찬의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큰 의미를 지닌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길이 보존하고 그 가치를 늘 되새기는 일이 중요하다.

ㅇ (지정 가치 있음)

1940~1942년 조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 민족문화운동의 최대 성과물이자 해방 이후 국어 정립의 기반이 되었던 국어사전의 원고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편찬작업의 결과물인 이 원고에는 해방 이후 12년에 걸쳐 진행된 수정 작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해방 전후기 언어 상황 및 사전 편찬 원칙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아래에서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가치를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로 나누어 기술하며, 이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해야 할 근거를 정리하였다.

1. 역사적 가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에 민족어를 규범화하고 민족어 대사전을 편찬한 사례가 우리 민족 외에는 없었다는 점,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자마자 민족어 교과서를 편찬해 학교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췄던 사례가 우리 민족 외에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 우리말 연구와 민족문화운동의 결정체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독립을 준비했던 뚜렷한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 맥락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이 원고는 일제강점기 전 민족적 호응을 받으며 진행된 사전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29년 10월 31일, 좌우를 망라한 사회운동가, 종교인, 교육자, 어문학자, 출판인, 자본가 등 각 분야의 명망가 108인이 발기하여 조선어사전편찬회를 결성하면서 사전편찬 사업이 시작되었다.

조선어사전편찬회 위원(괄호 속 인물은 1931년에 증원된 위원)
권덕규, 김법린, (김병규), (김상호), (김윤경), (김철두), 로기정, (명도석), 박승빈, 방정환, (백남준), 신명균, 안재홍, 유억겸, (윤병호), 이광수, 이극로, (이만규), 이병기, 이상춘, (이순탁), 이시목, (이우식), 이윤재, 이중건, (이형재), (이희승), 장지영, 정열모, 정인보, (조만식), 주요한, 최두선, 최현배

사전편찬에 앞서 대중적 조직으로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결성한 것은 이 사업이 전 민족적 사업임을 공식화하고, 이 사업의 결과물인 사전이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말 사용의 지침을 제시할 것임을 보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밟아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전편찬사업은 국어사전편찬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문화운동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 민족문화운동사의 성과와 의의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 이루어진 우리말 규범화 사업의 출발점이자 결과물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주축이던 조선어학회는 사전편찬의 한 과정으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완성하였다. 조선어학회는 어문규범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철자법 제정위원과 표준어 사정위원을 폭넓게 선정하고,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는 철저하게 공론화 과정을 밟은 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처럼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어를 규범화하는 사업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진행한 덕에, 식민 체제에서 그 위상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말은 민족공동체의 공용어로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화사업이 모두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수렴한 결과물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도 우리말 규범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이루어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문화운동으로 진행된 독립운동의 찬란한 성과물이자,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독립을 준비했던 뚜렷한 증거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일본 경찰은 우리말 사전 원고를 완성한 조선어학회를 “학술단체를 가장하여 국체(國體) 변혁을 도모한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하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증거물로 삼아 조선어학회 관계자들을 내란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일본 법원은 “어문운동은 문화적 민족운동임과 동시에 심모원려(深謀遠慮)를 함축하는 민족독립운동”이라 규정하며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 내용은 심증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것이었지만 민족어를 규범화하여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독립국가를 준비하는 일임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사전편찬을 위한 어문정리가 치밀하게 이루어진 덕분에, 우리는 독립이 되자마자 우리말 교과서를 편찬하여 학교 교육을 할 수 있었고, 공공언어에서의 우리말 쓰기도 큰 무리 없이 정착시킬 수 있었다.

2. 학술적 가치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어학 및 근대 문화사 관련 자료로서도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1)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해방 전후기 언어 상황 및 언어 의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1929년부터 1942년에 걸쳐 진행된 편찬작업의 결과물인 이 원고에는 해방 이후 12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정 작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며 달라진 수정의 흔적은 언어 사용 양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언어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붙임1>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이 원고에는 전문 분야의 분류체계가 제시되어 있고 다양한 전문어의 정의가 담겨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의 전문 영역 체계와 전문어에 대한 인식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특히 전문어에 대한 이 원고의 일차 기술 내용을 해방 후 수정한 내용 그리고 출판된 사전에서의 기술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영역의 체계 변화나 전문어 정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도 이 원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원고는 우리말 어휘를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평정(評定)한 후, 이것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기원을 분석한 성과를 일차적으로 담은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 원고의 편찬자들은 문헌 자료를 통해 어휘를 수집하는 한편, 전국 각지의 지식인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방언, 신어, 외래어, 은어, 곁말, 관용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말들을 최대한 올림말로 등록하는 한편, 수집한 어휘를 평정하여 이를 표준어와 비표준어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편찬자들이 우리말 어휘의 총량을 담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해야 하는 사전의 역할을 특별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 원고의 자료는 원고 작성 단계에서의 공통어 인식과 규범 인식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또한 이 원고의 편찬자들은 수집한 말들의 형태와 의미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어원을 추적하여 사전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의미의 어휘를 면밀히 대조하여 그 의미 차이를 사전의 뜻풀이에 반영하였다. 이 원고에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진 언어 분석 및 의미 풀이의 내용과 해방 이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뜻풀이 수정 작업의 결과가 함께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 원고는 우리말 연구 역량과 사전편찬 역량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상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가치를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과이자, 국어의 정립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실체이며, 국어학과 한국 문화사의 연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원고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국가지정문

화재(보물)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그 의의를 널리 알리고, 이를 보존·관리하여 해당 분야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선말 큰사전원고'는 일제강점기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키겠다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보여준 독립운동의 산물이다. 또한 '조선말큰원고'는 해방 이후에는 간행된 언어/문화 부분 출판물에서 제일 먼저 출간되어 당대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준 기념비적 자료이다.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두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국어사전 편찬 과정의 나침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료적 가치, 학문적 가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원고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사유가 충분하다.

(1)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어학회에서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조선말 큰사전 원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 후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총독부에 압수되었고, 이후에 행방을 모르다가 해방 이후에 극적으로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이처럼 역사적 기록이 분명하고, 실본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이유는 분명하다.

(2) 학문적 가치: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범례'는 사전 편찬을 위해서 얼마나 과학적인 접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범례에 제시된 '어휘, 어휘의 수록 순서, 철자,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문법 형태의 표시, 해석의 방식,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항목, 그리고 이에 의거한 어휘 항목의 선정, 어휘의 용례, 관련어, 옛말 등의 표시 등의 다양한 사전의 기술 방식은 사전학의 전범(典範)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사전은 1900년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반어만이 아니라 전문어, 제도어, 옛말, 이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학문적 자료 가치가 높다. 따라서 이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이유가 분명하다.

(3) 교육용 가치: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 조선총독부의 탄압, 해방 이후의 다시 찾게 된 우리말의 본보기로서의 의미, 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선말 큰사전 원고'이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차치하고 현재 중등교육과정에서 우리말의 역사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고 있다. 이러한 대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이유가 분명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현재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김민수(金敏洙) 유족 소유 등 세 곳에 산재되어 있다. 한글학회 소장본은 검정색 철끈으로 구멍을 뚫어 두 군데 또는 한 군데를 매어놓은 가철본이다.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한글학회에서 기증한 것인데, 외형상으로는 한글학회 소장본과 거의 동일하다. 김민수 유족 소장본은 범례(22장)과 "ㄱ"의 앞부분(29장)으로 검정색 철끈으로 구멍을 뚫어 한 군데를 매어놓은 가철본이다.

가철본의 앞표지에는 첫 번째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를 적어 놓았다. 원고는 조선어 학회 전용원고지에 필사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다. 원고지가 고급지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더욱이 발행을 앞두고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색의 펜을 사용한데다 별도의 원고지나 부첨지를 붙여 놓은 곳이 적지 않아 혼란스럽고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한글학회 소장본 12책은 등록문화재 제524-1호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그 중 4책('우층-웡웡', '유-윷판', '으-읫만이', 'ㅎ-허리')은 해방이후의 전사본임이 밝혀졌다. 이 전사본 4책은 원본의 복제본인 셈인데, 이 중에는 현재 남아있는 원본과 중복된 내용도 있다. 더욱이 전사본의 문제를 떠나 일제강점기 때 편찬된 것으로 이해되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 대한민국 건국이후의 필사본을 함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지정대상에서는 원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전사본 4책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지정대상은 한글학회 소장본 8책, 독립기념관 소장본 5책 그리고 김민수 유족 소장본 1책 등 모두 14책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선말 큰사전』의 편찬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29년 10월 31일(음력 9월 29일)이었다. 처음 108인의 발기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한 뒤 이극로가 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준비위원들이 마련한 규약을 통과시키고, 조선 민족의 총

력으로 조선어사전을 편찬할 것을 결의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1940년 3월 12일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과 삭제 등을 조건으로 출판 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1942년 10월 1일에 발생한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이 사업은 중단되어 버렸다. 해방 이후인 1945년 9월 8일에야 정인승, 이극로, 김병제, 이중화, 정태진, 이강로, 신영철 등 7명이 편찬원으로 참가하면서 194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선말 큰사전』의 첫째 권의 발행을 보게 된 것이다. 이후 모두 6권으로 발행되는데, 그 원고는 일제강점기 때 완성한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바탕이 되었다.

현재 『조선말 큰사전 원고』 중에서 공개된 것으로는 한글학회 12책, 독립기념관 5책, 김민수 유족 1책 등 모두 18책이 있다. 독립기념관 소장의 5책은 한글학회 이사장이었던 허웅 박사가 독립기념관에 양도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한글학회 소장본 중에는 전사본 4책이 있어서 이를 제외한 8책, 독립기념관 5책, 김민수 유족 1책 등 14책이 『조선말 큰사전』의 오리지널 원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각 책은 일정한 기준을 따라 분책한 것이 아니고, 교정을 끝낸 이후 적당히 모아 가철하였기 때문에 분량이 일정하지가 않다.

한편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원고 중에는 전사본이 있다. 이에 대해 정재환은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에서 “(한글)학회는 난리통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사전 원고는 무사했다. 9·28 서울 수복 후 학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큰 사전 원고를 한 권 더 베껴놓았고, 1·4후퇴 때 새 원고는 최현배가 부산으로 가져가고, 원본은 유제한이 천안 고향집에 보관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사본이 탄생하게 된 경위는 6.25전쟁 때 보존을 위해 부본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표1> 한글학회 소장본의 각 책별 표제어 수록범위와 지정대상여부

구분	권수 표시	표제어 수록범위	지정대상 여부
1	제3권	붇다 – 빟다	○
2	제4권	시 – 싶	○
3	제4권	외 – 우측통행	○
4	제4권	우충 – 웡웡	×(전사본)
5	제4권	유 – 윷판	×(전사본)
6	제4권	으 – 읫만이	×(전사본)
7	제5권	절용 – 제밑	○
8	제5권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
9	제6권(6의1)	ㅌ – 팀파니	○
10	제6권(6의2)	ㅍ – 핑핑히	○
11	제6권	핸드오르간 – 현훈증	○
12	제6권 여벌	ㅎ – 허리	×(전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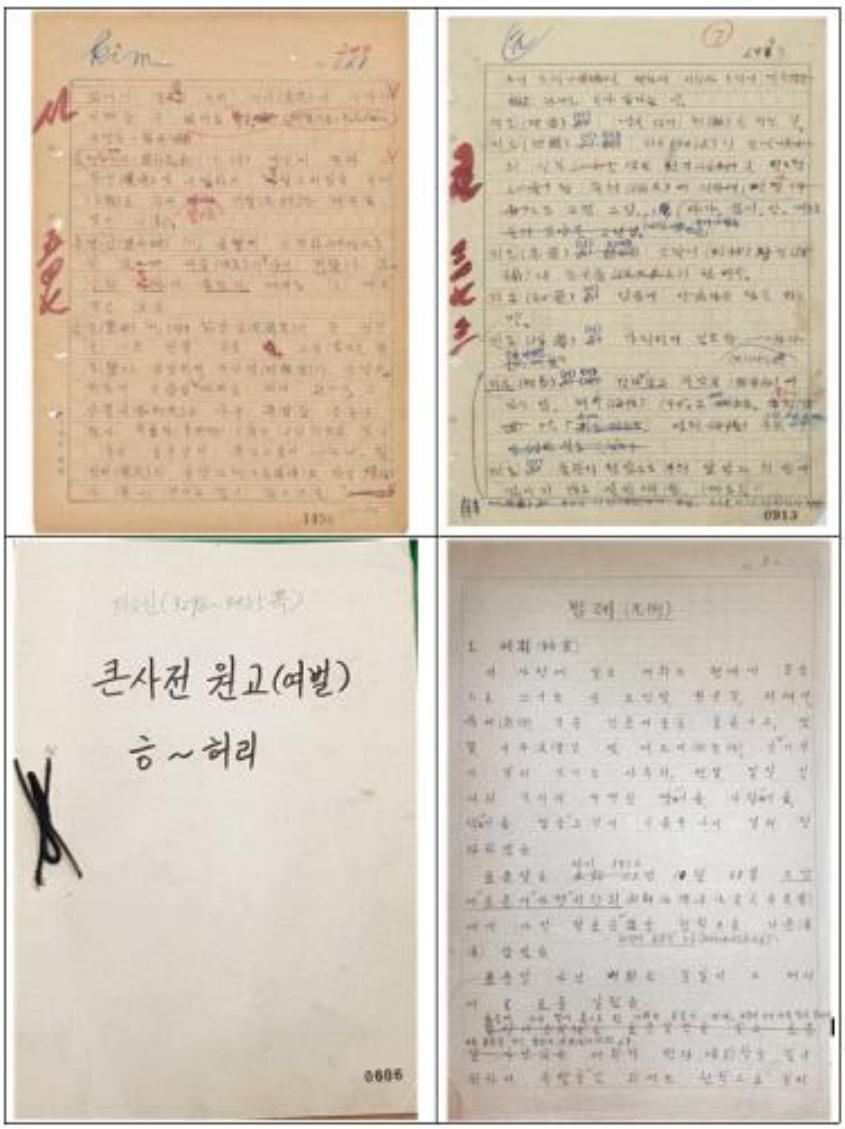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소장본 5책도 한글학회에서 기증한 것이므로 지질이나 교정 그리고 가철된 형식은 동일하다. 양 기관의 원고 17책은 2008년에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로 지정되었다.

<표2> 독립기념관 소장본의 각 책별 표제어 수록범위와 지정대상여부

구분	권수 표시	표제어 수록범위	지정대상 여부
1	5의 1	ㅈ - 잡제	○
2	5의 8	찌그러지다 - 진도바리	○
3	5의 11	척사윤음 - 청찰	○
4	없음	여 - 옇다	○
5	없음	ㅎ - 핸드백	○

김민수 유족 소장본은 큰 사전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던 고인이 보관한 범례(22장)와 “ㄱ”의 앞부분(29장)이다. 범례는 사전 편찬과 이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고, “ㄱ”의 앞부분도 유일한 원고이다.

<사진1>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김민수 유족 소장본과 제외된 전사본 1책의 표지 (좌상부터 시계방향)



ㅇ 문헌자료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2019.

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리의도,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해제.

『등록조사보고서』(조선말 큰사전 원고), 2012.

ㅇ 기 타

이 원고는 일제에 압수되었다가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8일에 경성역 조선통운 화물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재판 증빙자료로 경성고등법원에 보내졌던 것인데, 그

때까지 창고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당시 발견된 원고는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에서 나누어 소장하고 있고, 범례가 포함된 김민수 유족 소장의 한 책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최경봉 교수에 의해 발굴되어 공개되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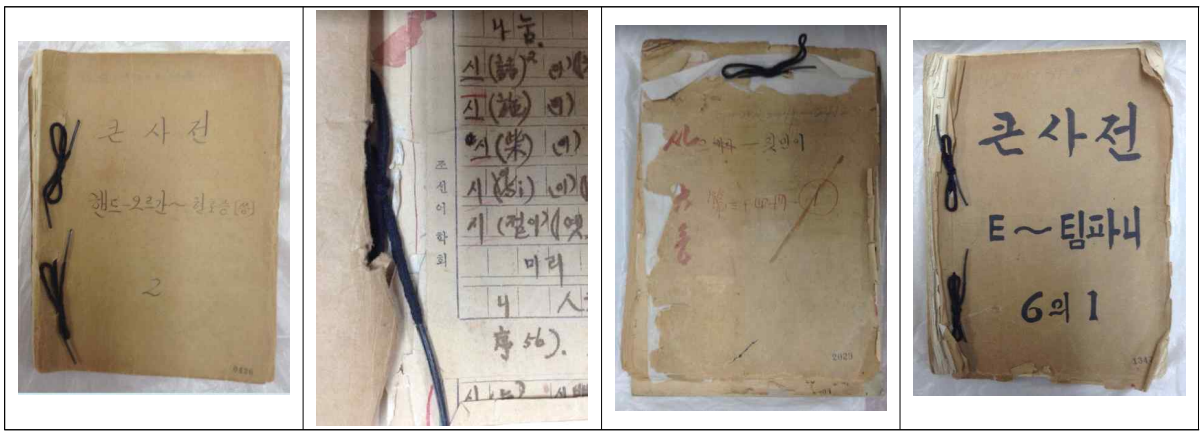
○ 현　　상

서지목록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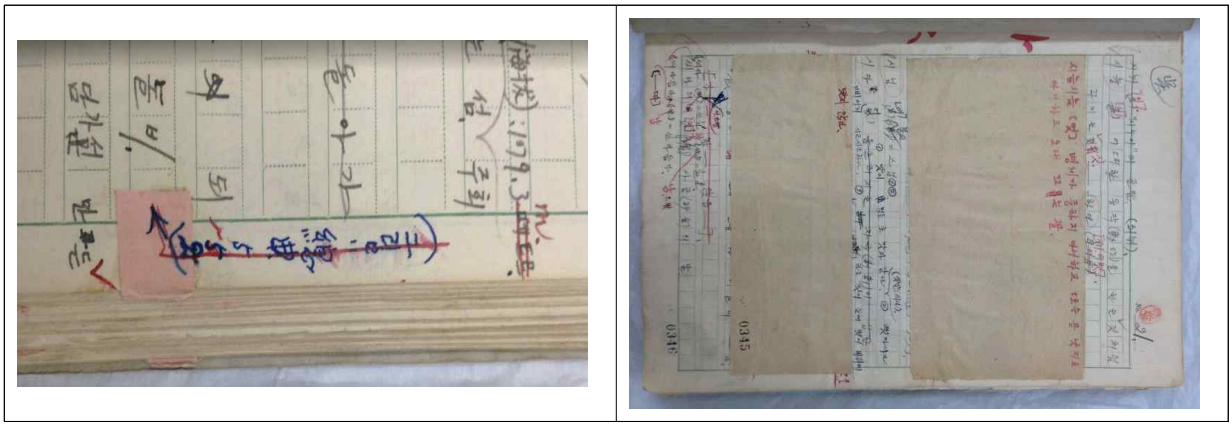
조선말큰사전 원고 / 저자미상. -- 필사본. -- [조선어학회]

1책 ; 27.0 × 19.3 ㎝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현재 한글학회에 12책, 독립기념관에 5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故 김민수 유족이 1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한글학회 소장본과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2008년 11월 3일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24일에는 등록문화재 제524-1호와 제524-2호로 지정되었다. 표지는 황색으로 된 다양한 지질과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용 철끈을 사용하여 제책하였다. 2008년 국가지정기록물로 등록된 이후 국가기록원에서 중성보존상자를 제작. 제공하여 현재 한글학회본과 독립기념관본 모두 각 책별로 중성보존상자에 보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본 2책은 보존처리가 완료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훼손의 상태는 심한 편이다. 특히 원고의 보관 과정에서 다수의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가 부착되어 있고 접착식 메모지 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잉크 상태로 보아 수년 전까지도 추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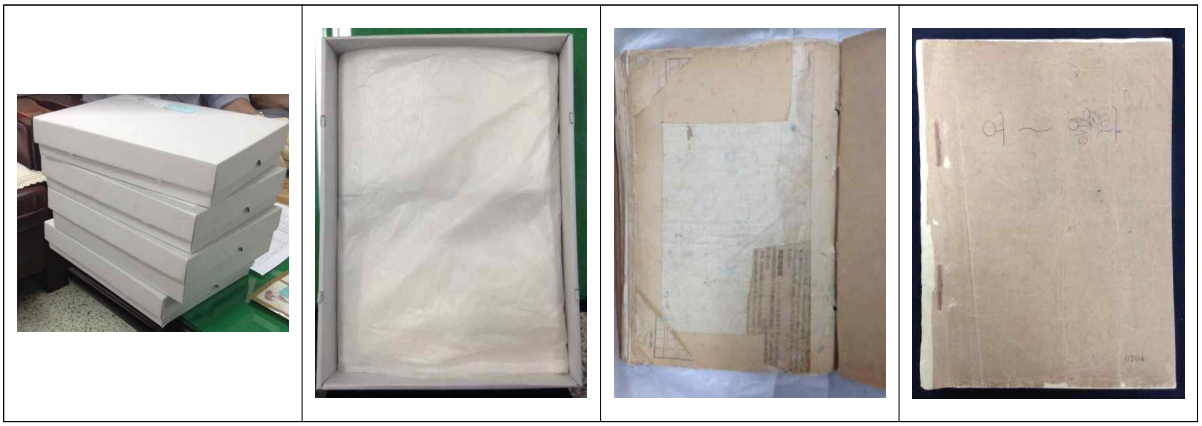


[표지 및 조선어 학회 원고지, 제책 상태]



[접착식 메모지 및 부첨지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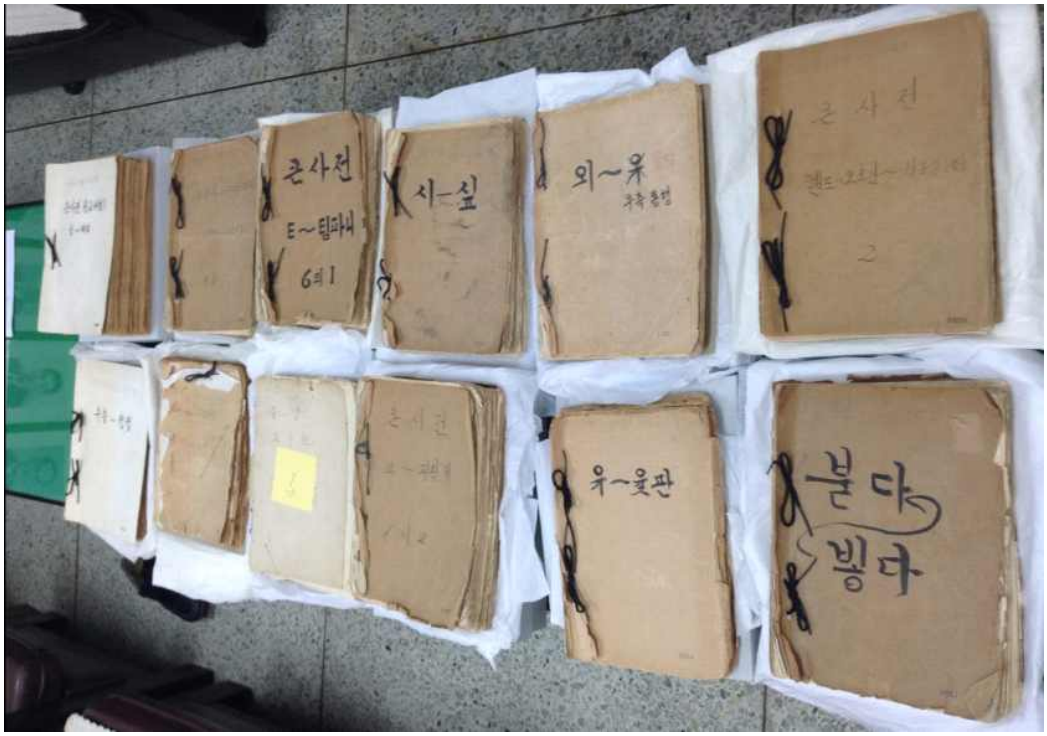
본문은 400자 원고지에 필사된 원고의 형태이며 일부에는 '조선어 학회'가 인쇄되어 있다. 본문은 연필과 볼펜으로 작성되었고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수차례에 걸쳐 교정한 흔적이 있고 다양한 지질의 종이를 덧대어 내용을 보충하고 부가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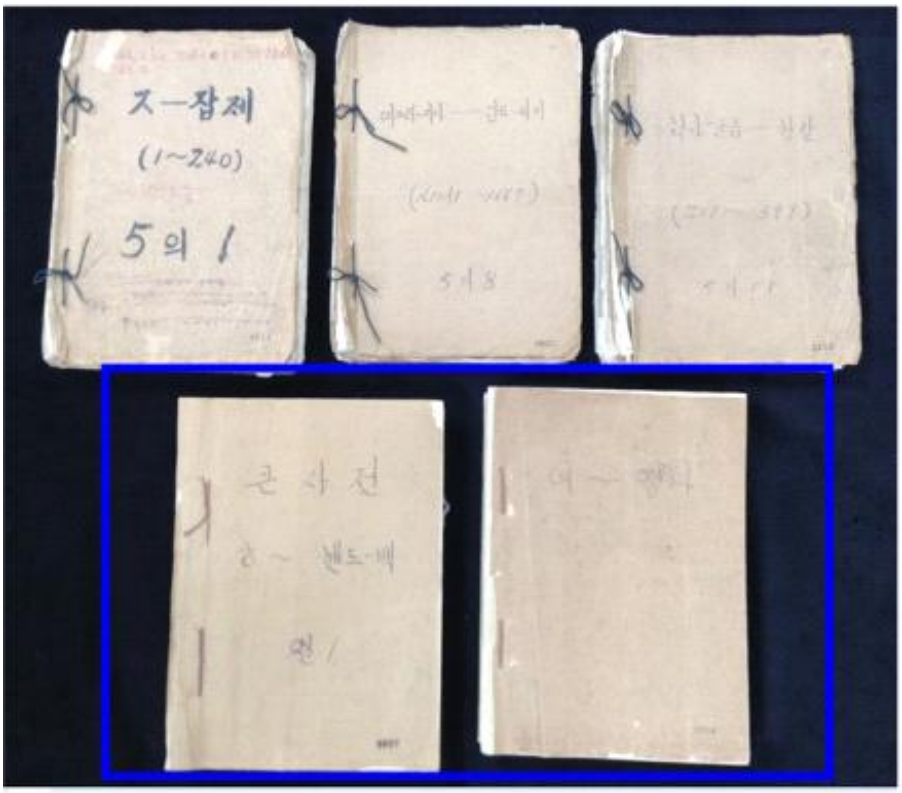


[자료 보관 상태]
[한글학회 소장본 12책]

[독립기념관 소장본, 2책은 보존처리 완료]

조사대상 자료의 세부적인 형태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큰사전
E~텔파네
6의 1
시~실
외~유
우~웃관
불다
빙다


ㅈ~잡제
(1~240)
5의 1
큰사전
ㄷ~ 덴도-메
권 1

[조선말 큰사전 원고 형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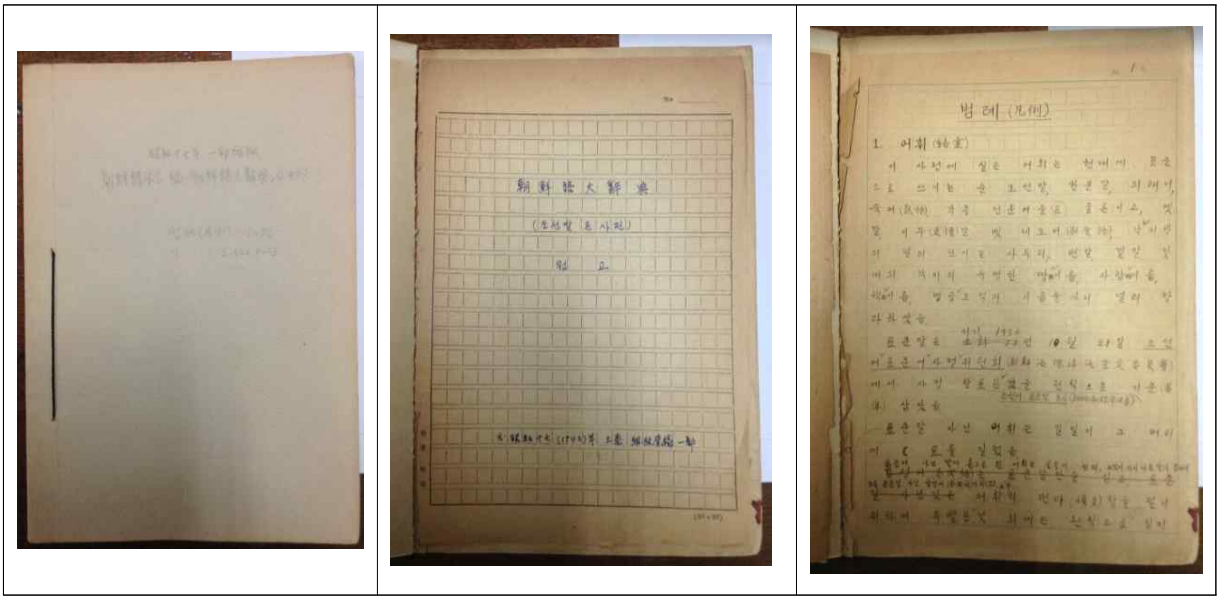
소장처	순서	권수 표시	항목 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표기	장수(표지포함)	책크기	비고
한글 학회	**1**	**제3권**	**1447-1505**	**붇다 - 빛다**	**0011-0313**	**274장**	**27.0 x 19.3**	제3권 연필표기
	2	**제4권**	**1890-1961**	**시 - 싶**	**1-315**	**318장**	**27.0 x 19.5**	51쪽 2장
	3	**권수표시 없음**	**2253-2269**	**외 - 우측통행**	**1095-1429**	**188장**	**28.0 x 20.4**	
	4	권수표시 없음	2299-2339	우층 - 윙윙	188-366	182장	25.6 x 18.8	전사본
	5	권수표시 없음	2339-2379	유 - 윷판	1699-2028	160장	26.1 x 18.3	전사본
	6	권수표시 없음	2379-2412	으 - 읫만이	1-135	137장	25.9 x 18.4	전사본, 88쪽 누락
	7	**제5권**	**2666-2712**	**절용-제밑**	**0360-0639**	**201장**	**27.1 x 19.9**	
	8	**제5권 5의 7**	**2803-2848, 1273-1472**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0640-0882**	**199장**	**27.2 x 19.8**	
	9	**제6권 (6의1)**	**3125-3199**	**ㅌ - 팀파니**	**1347-1746**	**317장**	**26.8 x 19.5**	
	10	**제6권 (6의2)**	**3199-3298**	**ㅍ - 핑핑히**	**1747-2306**	**452장**	**27.0 x 19.1**	
	11	**제6권**	**3372-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쯩]**	**241-393**	**255장**	**26.8 x 19.7**	
	12	여벌	3298-3385	ㅎ - 허리(큰사전원고 (여벌))	0606-1038	431장	26.7 x 19.0	전사본
독립 기념관	1	**5의 1**	**1-240**	**ㅈ-잡제**	**0011-0359**	**249장**	**27.5 x 19.6**	
	2	**5의 8**	**1473의 1-1667**	**찌그러지다-진도바리**	**0883-1117**	**200장**	**27.5 x 19.8**	
	3	**5의 11**	**201-399**	**척사윤음-청찰**	**1118-1346**	**201장**	**27.3 x 20.1**	
	4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영다**	**0704-1094**	**334장**	**27.5 x 19.8**	80쪽 2장, 236쪽 2장, 이면 표기 757, 794, 889, 906, 951 보존처리
	5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0007-0425**	**330장**	**27.4 x 20.1**	보존처리
개인 소장	1	**범례, ㄱ**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上中下)		**51장**	**26.9 x 19.7**	

*보라색 표시가 지정대상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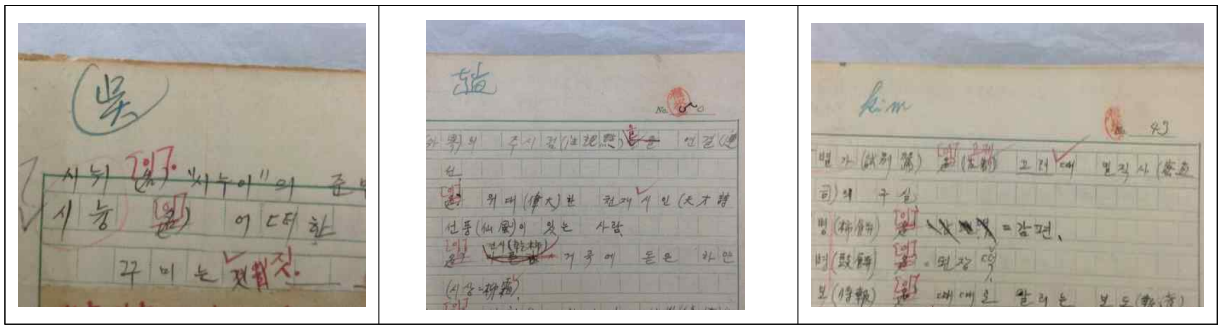
조사본『조선말 큰사전 원고』는『조선말 큰사전』의 간행을 위하여 작성된 원본 필사 원고이다.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우리말 사전의 편찬 작업을 시작한 이래로 1936년 조선어학회가 이를 이어 받아 편찬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편찬 작업이 중지되었고 편찬 작업의 중요 기록인 원고가 해방 이후 1945년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어 이를 토대로 1947년과 1949년 제1권과 2권이『조선말큰사전』이라는 표제로 간행되고 이후 1950년 제3권, 1957년 제4권-6권이『큰사전』이라는 표제로 간행된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에서 보관하다가 1985년 이 중 5책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여 소장처가 나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 중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최경봉 교수에 의하여 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김민수 교수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1책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은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단을 바꿔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上中下), 하단에 '범례(凡例) 1-22' 다시 단을 바꿔 'ㄱ · · · 2, 5-6, 8-33'이라고 되어 있다. 본문에는 '한글 학회'가 인쇄되어 있는 400자 원고지에 '朝鮮語大辭典 (조선말 큰사전) 원고 ※ 昭和十七(1942)年 上卷 組版原稿 一部'라고 필사되어 있다. 다음 장에는 '범례(凡例)'가 1. 어휘(語彙), 2. 어휘 벌린 순서, 3. 철자, 4. 발음의 표시, 5. 어원(語源)의 표시, 6. 문법 형태(形態)의 표시, 7. 해석의 방식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 '전문어 표시의 부호'와 '외래어 표시의 부호'가 있고 '가거지지(可居之地)'로부터 '감각론(感覺論)'까지 사전 편찬 원고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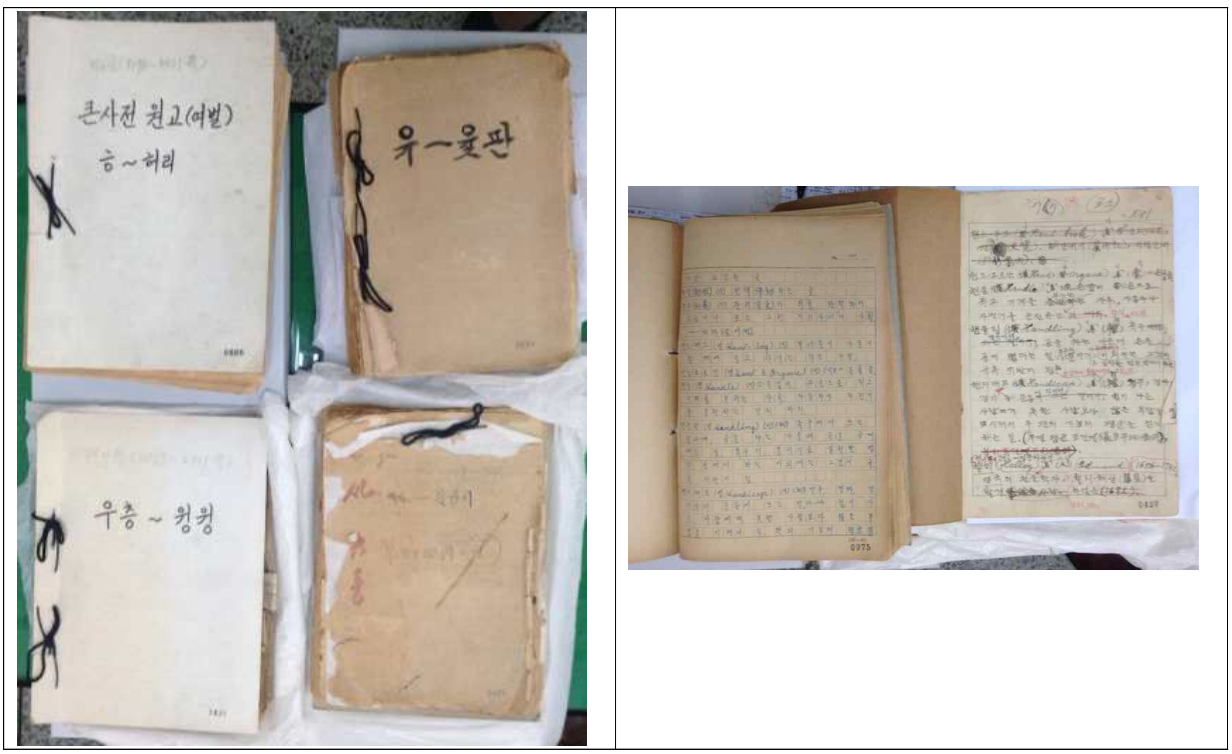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 1책]

특히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의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원고의 상단에는 작업의 참여자들이 서명(김민수 등) 혹은 도장을 날인(권승욱)하여 표기한 것이 확인된다.



[참여자 확인 서명 및 날인]

한편 한글학회 소장본 중에는 기존 원고를 토대로 전사한 원고본 4책이 확인된다. '우층-윙윙', '유-윷판', '으-읫만이', '여벌(ㅎ-허리)' 4책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 그림은 원본과 전사본의 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전사본 4책 및 원본 비교]

1945년 발견 당시의 기록을 보면 ‘26,500여장 52책’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의 수량을 보면 4천여 장이며 전사본을 제외하고는 3,568장으로 발견 당시 수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57년 사전 발간 이후 상당량의 원고가 폐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52책도 이후 사전 간행 이후 현재와 같이 편의에 의해 제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등록문화재 지정 당시 지정조사보고서에 수량을 26,500여장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이는 오류이다.

○ 소장경위

해당 자료는 해방후 1945년 9월 8일 경성역 조선통운 화물 창고에서 발견되어 이후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故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 1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참고자료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해제
문화재청(2012). 등록문화재 조사보고서
최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

書誌事項

조선말큰사전 원고 / 저자미상. -- 필사본. -- [조선어학회]
1책 ; 27.0 × 19.3 ㎝

ㅇ 현　　상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에 압수되었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8일에 경성역 조선통운 화물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재판 증빙자료로 경성고등법원에 보내졌던 것인데, 그때까지 창고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김민수(金敏洙)유족 소유 등 세 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 중 한글학회 소장본과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2008년 11월 3일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24일에는 등록문화재 제524-1호와 제524-2호로 지정되었다. 표지는 황색으로 된 다양한 지질과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용 철끈을 사용하여 제책한 가철본으로 앞표지에는 첫 번째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를 적어 놓았다.

원고는 조선어 학회 전용원고지에 필사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

으며, 본문 전체에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여러 색의 필기구 자국과 함께 별도의 원고지나 부첨지가 붙여진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좋지 않다. 독립기념관본 2책은 보존처리가 완료되었으나 대다수의 원고가 보관 과정에서 접착식 메모지 등이 많이 부착되었고, 그 위에 잉크를 사용한 기록 등 다양한 양상이 혼재된 상태이다. 보관을 위한 안정화 조치가 요구된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선말 큰사전』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가 중심이 되어 만들고자 했던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을 지칭한다. 조선어연구회는 장지영(張志暎,1887~1976)·김윤경(金允經,1894~1969)·이윤재(李允宰,1888~1943)·이극로(李克魯, 1893~1978)·최현배(崔鉉培,1894~1970)·이병기(李秉岐, 1891~1968) 등을 회원으로 하여 연구발표회와 강연회를 갖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한편, 1927년 2월부터 기관지인 『한글』을 발간했다. 또한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에 착수했

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출판하지 못했다. 1931년 학회 이름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로 바꾸고,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다. 이후 1942년 10월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朝鮮語學會事件)>으로 회원 30여 명이 일제에 의해 검거, 투옥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인 1949년 한글학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어사전'의 편찬을 위하여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조선어사전 편찬위원회'를 두고 신명균(申明均,1889~1941)·이극로·이윤재·이중화(李重華,1881~미상)·최현배(崔鉉培) 등 5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이극로·이윤재·한징(韓澄, 1886~1944)·이용기·김선기(金善琪) 등 5명을 편찬원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1936년에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선어학회'에 통합된 뒤에는 전임 집필위원으로 이극로·이윤재·정인승(鄭寅承)·한징· 이중화 등 5명이 선입되고, 권승욱·권덕규(權悳奎)·정태진(丁泰鎭) 등 3명이 증원되었다. 1945년 9월 8일에는 정인승·이극로·김병제(金炳濟)·이중화·정태진·이강로(李江魯)·신영철 등 7명이 편찬원으로 참가하였고, 1956년 4월부터는 정인승·권승욱·유제한(柳濟漢)·이강로· 김민수(金敏洙) 등 5명이 집필을 하고, 한종수·이승화·정재도 등 3명이 교정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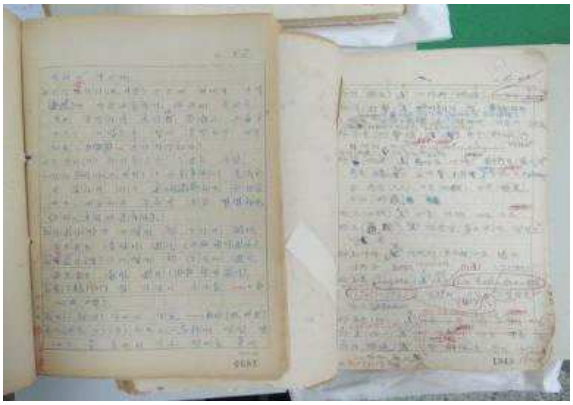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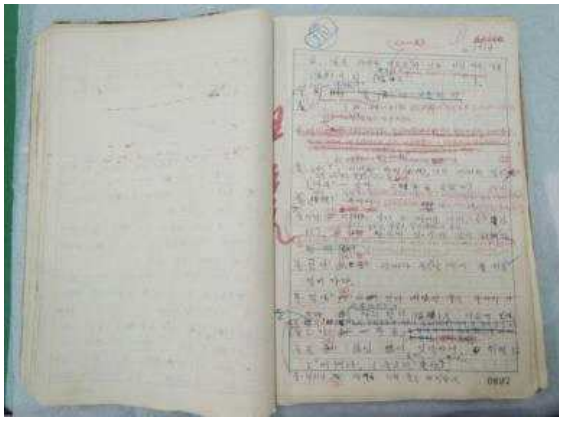
『조선말 큰사전』은 1권과 2권의 책명 만이 '조선말 큰사전'이고 지은이도 조선어학회였으나,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개칭되면서 3권부터 각 권 및 판차가 달라졌다. 지은이도 한글학회로 바뀌고 책명도 『큰 사전』이 되었다. 각 권의 발행일은 1권이 1947년 10월 9일, 2권이 1949년 5월 5일. 3권이 1950년 6월 1일, 4권이 1957년 8월30일, 5권이 1957년 6월 30일, 6권이 1957년 10월 9일이다.

조사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에 해당하는 한글학회 소장본 12책 및 국가등록문화재 제524-2호인 독립기념관 소장본 5책 그리고 미등록된 김민수 유족 소장본 1책이다. 각 책은 일정한 기준을 따라 분책한 것이 아니고, 교정을 끝낸 이후 적당히 모아 가철하였기 때문에 분량이 일정하지가 않다. 우선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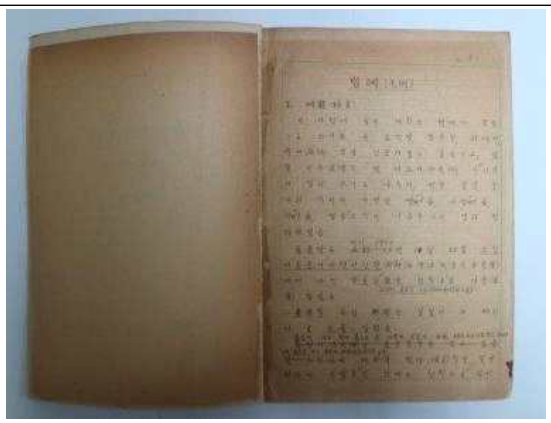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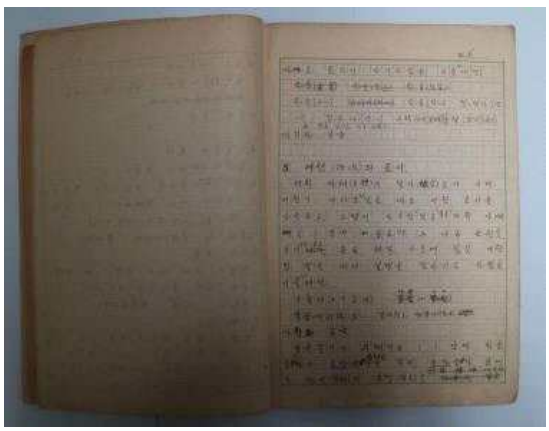
소장처		권수 표시	항목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 표기	장수(표지포함)	책크기	비고
한글학회	**1**	**제3권**	**1447 -1505**	**붇다 - 빛다**	**0011 -0313**	**274장**	**27.0 x 19.3**	제3권 연필표기
	2	**제4권**	**1890 -1961**	**시 - 싶**	**1 -315**	**318장**	**27.0 x 19.5**	51쪽 2장
	3	**권수표시 없음**	**2253 -2269**	**외 - 우측통행**	**1095-1 429**	**188장**	**28.0 x 20.4**	
	4	권수표시 없음	2299 -2339	우층 - 윙윙	188 -366	182장	25.6 x 18.8	전사본
	5	권수표시 없음	2339 -2379	유 - 윷판	1699 -2028	160장	26.1 x 18.3	전사본
	6	권수표시 없음	2379 -2412	으 - 읫만이	1 -135	137장	25.9 x 18.4	전사본, 88쪽 누락
	7	**제5권**	**2666 -2712**	**절용 -제밑**	**0360 -0639**	**201장**	**27.1 x 19.9**	

소장처		권수 표시	항목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 표기	장수(표지포함)	책크기	비고
	8	**제5권 5의 7**	**2803 -2848, 1273 -1472**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0640 -0882**	**199장**	**27.2 x 19.8**	
	9	**제6권 (6의1)**	**3125 -3199**	**ㅌ - 팀파니**	**1347 -1746**	**317장**	**26.8 x 19.5**	
	10	**제6권 (6의2)**	**3199 -3298**	**ㅍ - 핑핑히**	**1747 -2306**	**452장**	**27.0 x 19.1**	
	11	**제6권**	**3372 -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증]**	**241 -393**	**255장**	**26.8 x 19.7**	
	12	여벌	3298 -3385	ㅎ - 허리(큰사전원고)	0606 -1038	431장	26.7 x 19.0	전사본
독립기념관	1	**5의 1**	**1 -240**	**ㅈ -잡제**	**0011 -0359**	**249장**	**27.5 x 19.6**	
	2	**5의 8**	**1473의 1 -1667**	**찌그러지다 -진도바리**	**0883 -1117**	**200장**	**27.5 x 19.8**	
	3	**5의 11**	**201 -399**	**척사윤음 -청찰**	**1118 -1346**	**201장**	**27.3 x 20.1**	
	4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 -옇다**	**0704 -1094**	**334장**	**27.5 x 19.8**	80쪽 2장 236쪽 2장 이면 표기 757,794 889,906 951 보존처리
	5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0007-0425**	**330장**	**27.4 x 20.1**	보존처리
개인소장	1	**범례, ㄱ**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上中下)		**51장**	**26.9 x 19.7**	

조사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400자 원고지에다가 항목별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조선어 학회 전용원고지와 일반 원고지의 두 유형이 혼재하고 있다. 권의 표지에는 해당 권에 수록한 표제어가 쓰여 있다. 그리고 본문에는 항목별 기술 내용 이외에 해당 사항의 증보를 위한 '부첨지(附籤紙)' 및 기타 교정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도 남아 있으며, 본문 전체에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삭제된 내용 등이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으로 기록된 상태이다.

	
한글학회 전용 원고지 / 일반 원고지	교정 양상

한편 고 김민수 교수의 소장본 권1의 ‘범례’를 통해서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기획했던 사전의 체제, 특징 등을 볼 수 있다. 범례는 ‘어휘, 어휘의 벌린 순서, 철자,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문법 형태의 표시, 해석의 방식,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등 9개 항으로 작성되어 있다. 범례를 통해서 어휘 항목의 선정, 어휘의 용례, 관련어, 옛말 등의 표시 등의 다양한 사전의 기술 방식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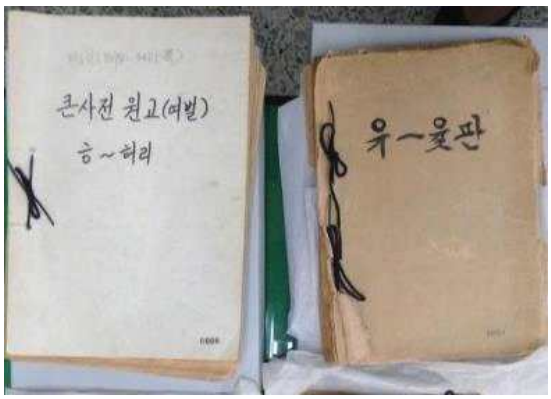
	
범례 / 어휘	범례 / 어원

한편 조사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제작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 무렵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 이후에 자료 보관을 위해 ‘여벌’로 작성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 14책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된 뒤로, 1939년 말경에 원고가 마무리되어, 출간을 위해 조선총

독부에 원고가 제출되었고, 1940년 3월에는 원고 일부의 수정을 전제로 검열에 통과하였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원고는 조선총독부에서 사건을 위합 압류용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1940년 이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글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4책('우층-윙윙', '유-윷판', '으-윗만이', 'ㅎ-허리')은 해방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고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여벌'의 원고는 자료 편찬 과정과 변모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원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ㅎ- 허리 / 유 - 윷판	우층 – 윙윙 / 으 - 윗만이

전사본에 대해서는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에서 "(한글)학회는 난리 통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사전 원고는 무사했다. 9·28 서울 수복 후 학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큰 사전 원고를 한 권 더 베껴놓았고, 1·4후퇴 때 새 원고는 최현배가 부산으로 가져가고, 원본은 유제한이 천안 고향집에 보관하였다."(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2012)고 이해되고 있다.

ㅇ 문헌자료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2019.

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리의도,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해제.

『등록조사보고서』(조선말 큰사전 원고), 2012.

□

ㅇ 조성연대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큰사전 원고는 이 사전이 1929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고, 1957년에 마지막 권이 간행되었으므로, 1929년부터 1957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것이지만, 실제로 이 긴 시간은 자료 조사로부터 카드 작성을 거쳐 초벌로 원고를 쓰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어서 1929년 - 1957년 사이가 원고를 작성한 해는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어사전 작업은 1939년부터 원고 전체의 체계를 잡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3분의 1을 조선총독부에 검열용으로 제출하였으며, 1940년 3월에는 출판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42년 9월에는 대부분의 어휘 카드에 대한 초벌풀이를 끝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풀이를 끝낸 어휘가 약 16만개이고 완료되지 않은 것이 약 5천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원고 집필은 주로 1939년부터 1942년 9월 사이의 약 3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원고는 1939년-1942년 사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원고는 1942년에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1945년에 다시 찾게 된 것이어서 그 하한선이 1942년임이 틀림없다.

ㅇ 현 상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1929년 조선어사전 편찬회에서 편찬하기 시작한 사업을 1936년 4월 1일에 조선어학회가 넘겨 받아 작업한 원고이다. 이 원고는 일본 경찰이 1942년 소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조선어학회의 임원, 회원, 사전편찬원, 관련 인사등을 구속하거나 입건하여 '국사범'으로 함흥 감옥에 투옥시키면서 함께 압수하였던 것이다. 이 원고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후, 1945년 9월 8일 경성역(지금의 서울역) 운송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일본 검찰이 조선어학회의 모든 문서와 함께 증거물로 함흥까지 가져갔던 것으로 회원들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증빙자료로 경성 고등법원으로 이송했던 것인데, 전쟁 말기이어서 그대로 창고에 버려 두었던 것을 찾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된 원고는 다행스럽게도 사전 편찬 원고의 전체였다. 전체가 26,500여장의 원고로 모두 52책으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한글학회에서 보관하고 관리해 왔던 것인데, 한글학회 허웅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에 일부 양도함으로써 현재 이 원고는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한글학회에는 12책이 소장되어 있고 독립기념관에는 5책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1956년에 이 조선어사전 편찬의 마지막 작업에 참여했던 김민수 교수가 한글학회에서 사전편찬 원고 중 일부인 '범례' 부분을 가져 와 검토하고 이

용한 후에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조선어사전 편찬을 위해 사용하였던 원고는 세 곳에 분산되어 소장되게 된 것이다.

<한글학회 소장본>

한글학회 소장본은 모두 12책인데, 400자 원고지에 쓰이어 있다. 갈색의 두터운 종이로 표지를 만들어 놓았고 표지에는 원고의 시작되는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가 쓰이어 있다. 즉 '붇다-빟다, 시-싶, 외-유, 우층-윙윙' 등으로 쓰이어 있다.
본문은 검은색 펜으로 쓰이어 있는데 곳곳에 검은 색 펜과 붉은 색 펜으로 수정한 부분이 보인다. 어느 쪽에는 종이를 오려서 내용을 쓴 후 붙인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 각 책의 원고지 매수는 일정하지 않다.
그 책에 따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순서	책수 표시	항목 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쪽수 (기존)	연번표기	장수 (표지 포함)	책크기	비고
1	제3책	1447-1505	붇다 - 빟다	303쪽	0011-0313	274장	27.0 x 19.3	제3권 연필 표기, 4침
2	책수표시 없음제4책 (1890-1961쪽)	1890-1961	시 - 싶	390쪽	1-315	318장	27.0 x 19.5	51쪽 2장
3	책수표시 없음	2253-2269	외 - 우측통행	372쪽	1095-1429	188장	28.0 x 20.4	
4	책수표시 없음	2299-2339	우층 - 윙윙	284쪽	188-366	182장	25.6 x 18.8	
5	책수표시 없음	2339-2379	유 - 윷판		1699-2028	160장	26.1 x 18.3	
6	책수표시 없음	2379-2412	으 - 읫만이		1-135	137장	25.9 x 18.4	88쪽 누락 / 위넘김
7	제5책	2666-2712	절용-제밑		0360-0639	201장	27.1 x 19.9	
8	책수표시 없음 제5책 5의 7	2803-2848, 1273-1472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0640-0882	199장	27.2 x 19.8	
9	제6책 (6의1)	3125-3199	ㅌ - 팀파니		1347-1746	317장	26.8 x 19.5	
10	제6책 (6의2)	3199-3298	ㅍ - 핑핑히		1747-2306	452장	27.0 x 19.1	상단 붉은 색펜 449 표기 실제와 차이
11	책수표시 없음 제6책	3372-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쯩]	180쪽	241-393	255장	26.8 x 19.7	
12	여벌	3298-3385	ㅎ - 허리(큰사전원고 (여벌))	433쪽	0606-1038	431장	26.7 x 19.0	

이 중에서 12 부분은 '여벌'이라는 표시까지 한 것이어서 해당 원고를 다시 필사하여 복제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벌'이라고 해서 이 자료의 가치가 손상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여벌'이라고 해도 원본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원본은 보이지 않고 이것들만 보이기 때문이다.

<독립기념관 소장본>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모두 5책인데, 한글학회 소장본과 동일하게 400자 원고지에 쓰이어 있다. 거의 대부분이 한글학회 소장본과 그 형태가 동일하다. 단지 내용만 다를 뿐이다.
그 책에 따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책수 표시	항목 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쪽수 (기존)	연번표기	장수 (표지 포함)	책크기	비고
1	5의 1	1-240	ㅈ-잡제	347쪽	0011-0359	249장	27.5 x 19.6	
2	5의 8	1 4 7 3 의 1-1667	찌그러지다-진도바리	235쪽	0883-1117	200장	27.5 x 19.8	
3	5의 11	201-399	척사윤음-청찰	228쪽	1118-1346	201장	27.3 x 20.1	
4	책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옇다	391쪽	0704-1094	334장	27.5 x 19.8	80쪽 2장, 236쪽 2장, 이면 표기 757, 794, 889, 906, 951
5	책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418쪽	0007-0425	330장	27.4 x 20.1	

<故 김민수 교수 소장본>

고 김민수 교수 소장본은 백지의 표지에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上中下) 범례(凡例) 1-22 ㄱ ・ ・ ・ 2, 5-6, 8-33'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는 400자 원고지에 '朝鮮語大辭典 (조선말 큰사전) 원고 ※ 昭和十七(1942)年 上卷 組版原稿 一部'라고 쓰이어 있다. 다음 장에는 '범례(凡例)'라고 하고, 그 뒤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1. 어휘(語彙)
2. 어휘 벌린 순서
3. 철자
4. 발음의 표시

5. 어원(語源)의 표시
6. 문법 형태(形態)의 표시
7. 해석의 방식
그리고 이 뒤에 '전문어 표시의 부호'와 '외래어 표시의 부호'가 있고 이어서 '가거지지(可居之地)'로부터 '감각론(感覺論)'까지의 사전편찬 원고가 있다.
범례가 1-22장, 그리고 ㄱ 부분은 5쪽에서부터 30쪽까지, 그리고 다시 1-2쪽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범례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내용을 1. 어휘 부분만 보도록 한다. 특히 이 원고에서 수정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다.

1. 어휘 이 사전에 실은 어휘는 현대에 표준으로 쓰이는 순 조선말, 한문말, 외래어, 숙어(熟語), 각종 전문어들은 물론이요, 옛말, 이두(吏讀)말, 옛 제도어(制度語), 각 지방의 널리 쓰이는 사투리, 변말, 곁말, 및 내외 각지의 유명한 땅 이름, 사람 이름, 책 이름, 명승 고적의 이름들까지 널리 망라하였음. 표준말은 서기 1936년 10월 28일 조선어 표준어 사정 위원회(朝鮮語標準語査定委員會)에서 사정 발표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朝鮮語標準語集)을 원칙으로 기준(基準) 삼았음. 표준말 아닌 어휘는 일일이 그 머리에 ≪ 표를 질렀음 표준어 아닌 말에 홑으로 된 어휘는 일일이 싣되, 그것이 다시 다른 말과 겹쳐서 도로 표준말 아닌 합성어(合成語)가 되는 것은 어휘수의 번다(煩多)함을 덜기 위하여 특별한 것 외에는 원칙으로 싣지 아니하였음. 이를테면: 개고리(=개구리), 다리다(=당기다) 등은 싣되, 개고리밥(=개구리밥), 개고리참외(=개구리참외), 잡아다리다(=잡아당기다), 긁어다리다(=긁어당기다) 따위는 다 싣지 아니하였음. 고유명사(固有名詞)는 밑줄을 그어 표하였음.

이것은 출판된 사전의 범례와 거의 같다. 단지 이것에 각각 1, 2, 3, 4, 5, 6처럼 번호를 붙였을 뿐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한 부분이 더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새 생활 각 부문에 관한 새말(新語), 새 술어(新術語)들은 그 제정 또는 실용의 상황을 따라, 이를 전부 한데 모아, 끝 책에 붙이기로 하였음

이 부분은 출판에 임해서 보충해 넣은 부분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원고는 인쇄 단계로 넘어간 원고가 아니라 최종 원고의 바로 직전의 원고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 부분에 '組版原稿 一部'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원고는 범례 22장, 그리고 ㄱ 의 일부 29장으로 되어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1. 조선말 사전 편찬의 시작

조선말 큰사전은 1929년 10월 31일 한글날 기념식을 마친 후 각 방면의 유명 인사들이 서울 수표정에 있는 조선교육협회에서 모여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회를 조직함으로써 그 편찬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29년 11월 2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알 수 있다. 그 기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사 제목 : 社會 各界 有志 網羅 朝鮮語辭典 編纂會 (한글 창제 사백팔십년 긔념일에 쓧깁흔 우리말사뎐 편찬회를 창립

한글은 세종대왕(世宗大王)쎄서 창제하사 벌써 사백팔십삼년이나 지내게 되매 저간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정리가 일층 더 한글의 참된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 참으로 세계뎍으로 자랑거리가 되어 잇스나 아즉도 그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한 통일에 들어가지 못할쑨 아니라 말에 잇서서도 역시 학리뎍(學理的) 정리와 전국뎍 통일이 없서 일반은 항상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야 어씨|한든지 속히 완전한 조선어사뎐(朝鮮語辭典)을 제뎡할 필요가 잇다고 얼마 전 사회 각 방면의 인사를 망라한 유진태(兪鎭泰)씨 등 일백팔명의발긔로 조선어사뎐편찬회발긔회(朝鮮語辭典編纂會發起會)를 조직하야 한글 긔념일인 지난 삼십일일 오후 일곱시 시내 조선교육협회 안에서 한글 긔념식을 마치 뒤에 즉시 발긔회 총회를 열고 여러 가지로 토의한 결과 결국 조선어사뎐편찬회를 창립하얏는데 발긔인은 알에와 갓다더라

兪鎭泰 李昇薰 尹致昊 李鍾麟 南宮薰 崔麟 許憲 宋鎭禹 申錫雨 安熙濟
朴勝彬 兪億兼 金活蘭 李容卨 金仁泳 蔡弼近 金法麟 白麟濟 崔奎東 趙東植
鄭大鉉 李潤柱 崔斗善 金麗植 金美理士 白南薰 張膺震 金東雲 安在鴻 李萬珪
金昶濟 李世楨 朴熙道 安在鴻 李相協 閔泰瑗 朱耀翰 韓基岳 李時穆 洪命憙
鄭寅普 李灌鎔 李敦化 黃尙奎 曹晩植 金起전 趙基琰 丁七星 兪珏卿 鄭仁果

金昌俊 金禹鉉 朴漢永 金枓奉 權悳奎 崔鉉培 申明均 李常春 金允經 張志暎
李奎昉 李秉岐 鄭烈模 李允宰 洪起文 李鐸 姜邁 金智煥 車相瓚 李晟煥
方定煥 權相老 朴淵瑞 柳瀅基 全弼淳 金永鎭 白樂濬 李順鐸 白南奎 安一英
尹治衡 李光洙 梁柱東 廉想涉 卞榮魯 玄鎭健 李益相 李殷相 崔象德 田榮澤
池錫永 林圭 沈友燮 李祐植 閔大植 金季洙 張斗鉉 金性洙 張鉉軾 洪淳泌
魯基禎 白寬洙 金秉圭 尹炳浩 李瀅宰 李重乾 李克魯

委員選擧後 規約 等 通過
별항 = 조선어사뎐편찬회가 창립됨에 쌀하 즉석에서 규약(規約) 수개 됴를 통과하고 계속하야 위원 선거와 부서를 작뎡하얏다는데 씨명은 알에와 갓다더라
委員 = 安在鴻 朱耀翰 李時穆 鄭寅普 權悳奎 崔鉉培 張志暎 李常春 李秉岐 鄭烈模 兪億兼 朴勝彬 崔斗善 李光洙 方定煥 金法麟 魯基禎 李重乾 申明均 李允宰 李克魯
部署 = 委員長 李克魯 常務 李重乾(經理) 李克魯(編輯) 崔鉉培(研究) 申明均(調査) 鄭寅普(敎養) 李允宰(出版)
<동아일보 1929년 11월 2일>

이 기사에 의하면 조선어사전 편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발기일 : 1929년 10월 31일
② 발기 장소 : 수표정 조선교육협회 사무실
③ 발기인 : 유진태를 비롯한 108인(기사에는 발기인이 108명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107명이어서 한 사람이 빠져 있다)
④ 위원 : 안재홍 등 21명
⑤ 위원장 : 이극로
⑥ 부서 : 경리, 편집, 연구, 조사, 교양, 출판

2. 조선어사전 편찬과정

편찬사무소는 京城 水標町에 있는 朝鮮敎育協會 내에 두었는데 이 사무소는 후에 花洞 一二九번지로 옮겼다. 1930년 1월 6일부터 편찬사무를 개시하고 이극로, 김선기, 한징, 이용기, 이윤재가 분담 집필하였다.
1931년 1월 6일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1년 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규약을 수정한 후 이 새 규약에 따라 위원 13명을 증원하고 조선어사전편찬회 회장으로 이우식을 선출하게 된다.

● 회장 : 이우식
● 증원된 위원 : 김병규, 김상호, 김윤경, 김철두, 명도석, 백낙준, 윤병호, 이만규, 이순덕, 이우식, 이형재, 이희승
● 간사 : 이극로(간사장) 이중건 신명균 최현배 이윤재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바로 한글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 어법 및 표준어 등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편찬 작업은 약간 뒤로 미루고 이 작업을 하게 되어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사전 편찬 업무도 한글학회로 이관하게 된다.

본격적인 편찬사업을 하게 된 시기는 조선어학회가 편찬 사업을 전적으로 넘겨받은 1936년 4월 1일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1937년 6월에는 편찬 전임 집필위원을 보충하기까지 하게 된다.
이 사전의 편찬을 위하여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를 두고 신명균(申明均)·이극로(李克魯)·이윤재(李允宰)·이중화(李重華)·최현배(崔鉉培) 등 5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극로·이윤재·한징(韓澄)·이용기·김선기(金善琪) 등 5명을 편찬원으로 선정하였다.

1936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선어학회에 통합된 뒤, 전임 집필위원으로 이극로·이윤재·정인승(鄭寅承)·한징·이중화 등 5명이 선임되고, 권승욱·권덕규(權悳奎)·정태진(丁泰鎭) 등 3명이 증원되었다.

1945년 9월 8일 정인승·이극로·김병제(金炳濟)·이중화·정태진·이강로(李江魯)·신영철 등 7명이 편찬원으로 참가하였고, 1956년 4월부터는 정인승·권승욱·유제한(柳濟漢)·이강로·김민수(金敏洙) 등 5명이 집필을 하고, 한종수·이승화·정재도 등 3명이 교정을 맡았다.

어휘 수집은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 만든 약간의 어휘 카드, 약 7만 어휘를 간략히 주석한 이상춘(李常春)의 기증원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선어사전≫(1920), 게일(Gale,J.S.)의 ≪한영자전≫(1897) 및 당시의 간행물에 의존하였으며, 사투리는 ≪한글≫ 독자와 방학 동안 귀향하는 학생들에 의하여 수집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을 주도하였던 학자들이 검거되었다. 함경도 함흥재판소는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은 민족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최종판결하여 1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윤재와 한징은 심한 고문으로 옥사하기도 했다.

3. 조선말 큰사전의 간행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47년 한글날을 기하여 조선말큰사전 첫째권을 간행하게 된다.

물론 이 사전의 간행은 이 원고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947년에 1권과 2권은 『조선말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3권부터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학회의 이름이 조선어학회에서 한글학회로 바뀐 것이 그 이유다. 연활자본의 B5판으로 6권으로 간행되었는데 본문은 3,672면, 기타 132면, 총 3,804면으로 을유문화사에서 간행하였다. 순우리말·한자말·외래어·관용어·사투리·은어(변말)·곁말을 비롯하여 고유명사·전문어·제도어·고어(옛말)·이두 등 총 16만 4125어휘를 수집하여 국어로 뜻풀이하였다.

이 사전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어 작업에 들어간 지 28년 만인 1957년 10월 9일 완간되었다.

4. 조선말 큰사전의 원고

조선어학회 사전 증거물로 일제에 압수당했던 원고 2만 6500여장의 52책이었고 이것이 1945년 9월에 서울역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남아 있는 조선말큰사전 원고이다. 현재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 고 김민수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원고는 모두 18책이어서 나머지 34책의 행방은 알 수 없다. 그 일실(逸失)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안타까울 뿐이다.

5.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성격

조선말사전의 원고와 출판된 조선말큰사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에 쓰인 내용과 출판된 사전을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원고가 초고인지, 출판된 원고인지, 아니면 어느 단계의 원고인지를 알아 보려면 이 원고들과 출판된 사전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전수작업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책마다 주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임의적으로 2개씩만 선택하여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한글학회 소장본>

(1) 분다 -빟다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분다	제 ㄷ벗. 물건이 물에 젖어서 부	[제. ㄷ벗] 물건이 물에 젖어서	동일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피가 커지다. 수효가 늘어 가다.	부피가 커지다. 수효가 늘어가다.	
불	(이) ① 물질(物質)이 산소(酸素)와 화합하여 열(熱)이 일어나며 환한 빛과 한가지로 타는 현상(現狀). ② 뜨겁게 달거나 타서 빨갛게 된 물체 ③ 쇠와 돌이 몹시 부딪거나 또는 나무끼리 세게 문질러질 때에 일어나는 광과 열 ④ 전기(電氣)의 빛. ⑤ 열정(熱情)이나 탐욕(貪慾)이 타다싶이 하여 치미는 현상 (옛말 : 블) 불에 탄 개 가죽 (마디) 잎이 늘어 가지는 점점 조기라 들기만 함을 가리키는 말. 불에 놀란 놈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 (마디) 몹시 혼이 난 일은 그외 비슷한 것만 보아도 겁을 낸다는 말.	(이) ① 물질(物質)이 산소(酸素)와 화합하여 열(熱)이 일어나며 환한 빛과 한가지로 타는 현상(現狀). ② 뜨겁게 달거나 타서 빨갛게 된 물체 ③ 쇠와 돌이 몹시 부딪거나 또는 나무끼리 세게 문질러질 때에 일어나는 광과 열 ④ 전기(電氣)의 빛. ⑤ 열정(熱情)이나 탐욕(貪慾)이 타다시피 하여 치미는 현상 (옛말 : 블) 불에 탄 개 가죽 (마디) 잎이 늘어 가지는 점점 조기라 들기만 함을 가리키는 말. 불에 놀란 놈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 (마디) 몹시 혼이 난 사람은 그에 비슷한 것만 보아도 겁을 낸다는 말.	‘타다싶이’를 ‘타다시피’로 바꿈 ‘몹시 혼이 난 일은그외’를 ‘무엇에 몹시 혼이 난 사람은그에’로 수정

(2) 시-싶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시(市)	(이)([법]) 시가지(市街地)를 중심으로한 자치 단체(自治團體)	(이)([법]) 시가지(市街地)를 중심으로한 자치 단체(自治團體)	동일
시(詩)	(이) (문) 자연(自然)과 인생(人生)에 대한 감흥(感興) 상상(想像) 따위를 아름다운 형식으로 표현한 글. 서사시(敍事詩) 서정시(敍情詩) 극시(劇詩)ㅇ늬 세 가지로 나눔	(이) (문) 자연(自然)과 인생(人生)에 대한 감흥(感興) 상상(想像) 따위를 아름다운 형식으로 표현한 글. 서사시(敍事詩) 서정시(敍情詩) 극시(劇詩)ㅇ늬 세 가지로 나눔	동일

(3) 외-우측통행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외1	(이) 한글의 홀소리 글자 ‘ㅚ’의 이름.	(이) 한글의 홀소리 글자 ‘ㅚ’의 이름.	동일
외(椳)	(이)(건) 벽을 치려고 댓가지나 수숫대나 싸리나 잡몹(雜木) 따위를 종횡(縱橫)으로 얽은 것. 이것에 흙을 붙여 바르면 벽이 됨.	(이)(건) 벽을 치려고 댓가지나 수숫대나 싸리나 잡목(雜木) 따위를 종횡(縱橫)으로 얽은 것. 이것에 흙을 붙여 바르면 벽이 됨.	‘잡몹’의 오자를 ‘잡목’으로 바로잡음

(4) 우층 -웡웡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우치(疣痔)	(이) ((의)) 피가 나오는 치질. (혈치=血痔)	(이) ((의)) 피가 나오는 치질. (혈치=血痔)	동일
우케	찧기 위하여 말리는 벼	찧기 위하여 말리는 벼	동일

(5) 유-윷판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유(類)1	(이) ① =무리 ②‘‘종류(種類)”의 준말	유(類) (이) ① =무리1 ②“종류(種類)”의 준말. ③ ((생)) 생물 분류상(分類上)의 단위. 강(綱)의 아래요, 과(科)의 위	원고의 유(類)1과 유(類)2를 하나로 통합하고 풀이를 달리함
유(類)2	『발』 종류의 뜻을 나타내는 말. [곤충-=昆蟲類. 경골-=硬骨類]		

(6) 의 - 읫만이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으그러뜨리다	(남) 물건의 거죽을 으끄러지게 하다.(으그러떠리다. 으르러터리다, 어그러트리다. 윽을어떠리다 (“으끄러뜨리다”의 센말)	남) 물건의 거죽을 으끄러지게 하다.(으그러떠리다. 으르러터리다, 어그러트리다. 윽을어떠리다 (“으끄러뜨리다”의 센말)	동일
으그르르	(엊) 먹은 음식이나 마신 물 따위가 목구멍으로 끓어 오로는 소리	(엊) 먹은 음식이나 마신 물 따위가 목구멍으로 끓어 오로는 소리	동일

(7) 절용 -제밑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절용(節用)	(이) 아끼어서 씀. 씀씀이를 적게 들임. -=하다 (남, 여벗)	(이) 아끼어서 씀. 씀씀이를 적게 들임. -=하다 (남, 여벗)	동일
절음	(이) 마소의 다리를 저는 병	(이) 마소의 다리를 저는 병	동일

(8) 주청사 -찌그러뜨리다

(생략)

(9) ㅌ - 팀파니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ㅌ [티읕]	① 한글 자모(字母)의 열 두째 글자. ②(어학) 닿소리의 하나. 목젖으로 콧길을 막고 혀끝을 윗잇몸에 대어 입길을 막았다가 목청을 갈아 숨을	① 한글 자모(字母)의 열 두째 글자. ②(어학) 닿소리의 하나. 목젖으로 콧길을 막고 혀끝을 윗잇몸에 대어 입길을 막았다가 목청을 갈아 숨을 불	동일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불어 내면서 혀끝의 막음을 터뜨리어 내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치는 경우는 혀끝을 떼지 아니하여 “ㄷ”과 같게 됨	어 내면서 혀끝의 막음을 터뜨리어 내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치는 경우는 혀끝을 떼지 아니하여 “ㄷ”과 같게 됨	
타개(打開)	(이) 얼크러지거나 박힌 일을 잘 처리하여 나갈 길을 엶. -하다 ‘남, 여벗’	(이) 얼크러지거나 박힌 일을 잘 처리하여 나갈 길을 엶. -하다 ‘남, 여벗’	동일

(10) ㅍ - 핑핑히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ㅍ [피읖]	① 한글 자모(字母)의 열 세째 글자. ②(어학) 닿소리의 하나. 목젖으로 콧길을 막고 두 입술로 입길을 막막았다가 목청을 갈아 숨을 불어 내면서 입술의 막음을 터뜨리어 내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칠 때는 입술을 떼지 아니하여 ㅂ과 같게 됨	① 한글 자모(字母)의 열 세째 글자. ②(어학) 닿소리의 하나. 목젖으로 콧길을 막고 두 입술로 입길을 막막았다가 목청을 갈아 숨을 불어 내면서 입술의 막음을 터뜨리어 내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칠 때는 입술을 떼지 아니하여 ㅂ과 같게 됨	동일
파가(罷家)	(이) 살림살이를 작파함. -하다 ‘제, 여벗’	(이) 살림살이를 작파함. -하다 ‘제, 여벗’	동일

(11) 핸드 오르간 - 현훈증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핸들(영handle)	(이) ① 손잡이 ② 손으로 쥐고 기계를 부리는 자루.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장치 따위	(이) ① 손잡이 ② 손으로 쥐고 기계를 부리는 자루.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장치 따위	동일
핸들링(영handling)	(이)(체) 축구 경기에서 공을 차는 가운데 손을 공에 대는 일. 축구의 문지기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하는 이외에는 그것이 규칙 위반이 됨.	(이)(체) 축구 경기에서 공을 차는 가운데 손을 공에 대는 일. 축구의 문지기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하는 이외에는 그것이 규칙 위반이 됨. (준말 : 핸드 =hand)	‘규측’을 ‘규칙’으로 바꾸고, (준말 : 핸 드 =hand)이 첨가됨

(12) ㆆ -허리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ㆅ(쌍히읗)	((옛)) 혀뿌리가 목젖의 앞쪽에 거의 닿을 듯할 때에 내쉬는 숨으로 그 자리를 갈아 내는 소리, 곧 ㄱ 소리의 자리를 마찰함. [ᄒᆞᆰ(訓①:預 21).	((옛)) 혀뿌리로 목젖의 앞쪽을 거의 마주 대면서 내쉬는 숨으로 그 자리를 갈아 내는 소리, 곧 “ㄱ” 소리 나는 자리를 약간 터놓고 세게 마찰함.	동일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훃(訓;例홍/7]		
ㅎ 건 대 [컨-)	[준} “하건대”의 준말		‘ㅎ 건 대’ 항목은 삭제됨.

<독립기념관 소장본>

(1) ㅈ - 잡제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ㅈ (지읒)	① 한글 자모(字母)의 아홉째 글자. ② (어학) 닿소리의 하나. 혓몸을 입천장에 붙였다가 터뜨릴 때에 나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치는 경우는 혀를 입천장에 붙이기만 함.	① 한글 자모(字母)의 아홉째 글자. ② (어학) 닿소리의 하나. 혓몸을 입천장에 붙였다가 터뜨릴 때에 나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치는 경우는 혀를 입천장에 붙이기만 함.	동일
자1	(이) 길이를 재는 제구. 분(分)과 촌(寸), 또는 센티메트르(cm) 밀리메트르(mm) 따위의 눈을 새겨서 가늠하게 되었는데,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음. 자에도 모자랄 적이 있고 치에도 넉넉할 적이 있다. [마디] 경우에 따라 많아도 모자를 적이 있고 적어도 남을 적이 있음를 가리키는 말.	(이) 길이를 재는 제구. 분(分)과 촌(寸), 또는 센티메트르(cm) 밀리메트르(mm) 따위의 눈을 새겨서 가늠하게 되었는데,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음.	원고의 자 1 에 있던 부분을 자 2 로 옮겨 놓음
자2	[절이] 우리나라 재래의 길이의 단위. ‘치’의 열 갑절. 1메트로(metre)의 33분지 10. (척=尺)	[절이] 우리나라 재래의 길이 단위의 한 가지. ‘치’의 열 갑절. 1메트로(metre)의 33분지 10. (척=尺) 자에도 모자랄 적이 있고 치에도 넉넉할 적이 있다. [마디] 경우에 따라 많아도 모자럭 적이 있고 적어도 남을 적이 있읗를 가리키는 말.	

(2) 찌그러지다 - 진도바리

<생략>

(3) 척사윤음 - 정찰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첨뉘(僉尉)	(이)(고제) 의빈부(儀賓府)의 정·종삼품(正從三品)의 한 벼슬. 현주(縣主)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시켰음.	(이)(고제) 의빈부(儀賓府)의 정·종삼품(正從三品)의 한 벼슬. 현주(縣主)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시켰음.	동일
첨의(僉意)	(이) 여러 사람의 의견.	(이) 여러 사람의 의견.	동일

(4) 여- 옇다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여(如)	(이)(불교) 모든 법(法)이 항상 있어서 변하지 아니하는 실상(實狀). 참고: 진여=眞如)	(이) 모든 법(法)이 항상 있어서 변하지 아니하는 실상(實狀). 참고: 진여=眞如)	동일
여각(餘角)	(이) (수) 합치면 한 직각(直角)이 되는 두 각(角)의 한 쪽을, 다른 족에 대하여 이르는 말.	(이) (수) 합치면 한 직각(直角)이 되는 두 각(角)의 한 쪽을, 다른 쪽에 대하여 이르는 말.	동일

(5) ㅎ- 핸드백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ㆅ(쌍히읗)	(옛) 혀뿌리로 목젖의 앞쪽을 거의 마주 대면서 내쉬는 숨으로 그 자리를 세게 갈아 내는 소라. 곧 'ㄱ'소리 나는 자리를 약간 터 놓고 세게 마찰함. [ᄒᆞᅀᅴ爲引(訓例 21) : ᄒᆞᅀᅡ終而爲ᄒᆞᅀᅡ之類(訓例 17)	(옛) 혀뿌리로 목젖의 앞쪽을 거의 마주 대면서 내쉬는 숨으로 그 자리를 세게 갈아 내는 소라. 곧 'ㄱ'소리 나는 자리를 약간 터 놓고 세게 마찰함. [ᄒᆞᅀᅴ爲引(訓例 21) : ᄒᆞᅀᅡ終而爲ᄒᆞᅀᅡ之類(訓例 17)	동일
하	(토) (옛) 시여. 이시여. [님금하 아ᄅᆞ쇼셔 =(龍:10:52) 稀有ᄒᆞ신 世尊하(金剛上.7)]	(토) (옛) 시여. 이시여. [님금하 아ᄅᆞ쇼셔 =(龍:10:52) 稀有ᄒᆞ신 世尊하(金剛上.7)]	동일

이러한 비교를 통해 몇 가지 발견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로 남아 있는 자료는 대부분 사전을 간행할 때의 내용에 부합한다.
② 최종적으로 출판할 때에 수정한 부분이 꽤나 있다. 그래서 이 원고의 모두가 출판된 조선말큰사전 내용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수정할 때에는 교정지 상태에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편찬 원고를 수정하여 다시 인쇄소에 보낸 것은 아니다.
③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사전 편찬 원고는 조선말큰사전 편찬의 중요한 원천이

라고 할 수 있다.

ㅇ 문헌자료

이극로(1936), 조선어사전 편찬에 대하여, 한글 1권 1호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이윤재(1‘936), 조선어사전 편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글 4권 2호.
조선어학회(1947-1957), 조선말큰사전, 乙酉文化社.
조재수(1996), 한글학회와 사전편찬, 한힌샘 주시경연구 9.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

ㅇ 조성연대 : 1940-1942년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사전편찬사업이 시작되었고, 1939년 말경에 기초적인 사전편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학회에서는 기관지([한글]7-4, 1939.4.)를 통해 1939년 이내로 사전편찬을 끝낼 것임을 예고했고, 1939년 말부터 출판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갔다. 1939년 여름에 원고의 체계 잡기에 돌입한 후 원고의 3분의 1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고, 1940년 3월에 원고 수정을 조건으로 검열을 통과하였다. 초벌 풀이와 원고의 체계 잡기가 완성 단계에 이른 1942년 여름에 200여 면의 조판 교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원고는 1940-1942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ㅇ 현　　상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400자 원고지를 검은 끈으로 묶은 책자 형태로 되어 있다. 각 권마다 앞뒤로 표지가 있고 앞 표지에 해당 권에 수록한 첫 번째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를 써놓았다. 원고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으로 수정 사항을 기록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는 해방 후 출판을 위한 수정 작업 중 첨삭한 내용들이다. 수정 내용이 많은 경우 부전지를 덧붙이거나 별도의 원고지에 기록해 끼워 넣기도 하였다.

현재 한글학회 소장본 12권과 독립기념관 소장본 5권, 도합 17권의 원고가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와 524-2호로 지정되어 있고, 고 김민수 교수 유족의 소장본 1권(범례 22장, ㄱ 일부 29장)의 원고는 미등록 상태이다.

이중 한글학회 소장본 4권(‘우층-윙윙’, ‘유-윷판’, ‘으-읫만이’, ‘ㅎ-허리’)은 해방 이후 해당 원고를 다시 필사한 복제본이다. 따라서 1940-1942년 사이에 조성된

원고로 확인된 것은 한글학회 소장 8권과 독립기념관 소장 5권 그리고 고 김민수 교수 소장 1권이다.

ㅇ 내용 및 특징

1. 원고의 전모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3권 혹은 4권 규모로 출간할 예정([한글]10-1, 1942.1.)이었던 '朝鮮語大辭典'의 원고로 1940-1942년 사이에 조성된 것이다. 이 원고는 1942년 10월에 일어난 조선어학회 사건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해방 후 서울역 창고에서 되찾아 국어사전 편찬사업이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전 원고는 조선어학회 사건의 증거물로 홍원에 가져갔던 것을 이른바 피고들이 고등법원에 상고하게 되므로 증거물만이 먼저 서울로 발송되었던 것인데 작년 9월 초순에 경성역 창고에서 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원고를 쉽사리 찾게 될 때 20여 년의 적공(積功)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은 신명(神明)의 도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매 이 원고 상자의 뚜껑을 여는 이의 손을 떨리었다. 원고를 손에 드는 이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었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부터……."

-김병제, <조선어사전 편찬경과>, 《자유신문》, 1946년 10월 9일자.

서울역 창고에서 되찾은 원고는 사전 원고의 전량으로 원고지 26,500여 장이 52권으로 묶여 있었다. 당시 원고에는 16만여 어휘가 풀이되어 있었고, 5천여 어휘는 뜻풀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에는 올림말과 문법정보 등만 있고 뜻풀이가 공란인 경우가 40여 군데 남아 있는데, 이는 원고 조성 당시 뜻풀이가 완료되지 않은 5천여 어휘 중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어학회에서는 이 원고를 바탕으로 출판을 위한 수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1947년 1권, 1949년 2권, 1950년 3권, 1957년에는 나머지 4-6권을 포함하여 1-6권 전질을 출간하였다. 1권과 2권은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사전]으로, 3-6권은 한글학회의 [큰 사전]으로 출간되었고, 1957년 이후 1-6권의 제목이 [큰 사전]으로 통일되었다.

서울역 창고에서 회수한 원고가 52권 26,500여 장의 분량인데, 이중 현재 남아 있는 원고는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에서 보관 중인 13권(복제본 4권 제외)과 고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 51장을 포함해 총 3,568장이다. 이를 보면 현재 13권으로 묶인 원고는 기존에 묶인 52권을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한 것이 아니라 편찬 과정의 필요에 의해 다시 묶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47년과 1949년에 간행된 <큰 사전> 1, 2권에 해당하는 원고는 '범례'와 'ㄱ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지 않고, 1950년에 간행된 3권에 해당하는 원고는 '붇다 - 빟다'(3권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분량)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지 않다. 1957년

에 간행된 4-6권에 해당하는 원고는 앞서 간행된 1-3권의 원고에 비해 많이 남아 있지만 이 또한 해당 권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다. 이를 보면 사전이 출간된 후 원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원고가 유실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복제 원고(4권)의 특징

복제본은 한글학회 소장본 4권('우층-웡웡', '유-윷판', '으-읫만이', 'ㅎ-허리')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고를 해방 이후 다시 필사한 것이다. 이 중 세 권('우층-웡웡', '유-윷판', '으-읫만이')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복제 원고를 만든 후 여기에 수정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한 권('ㅎ-허리')은 수정 작업이 완료된 후 여벌로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제한 세 권의 원고('우층-웡웡', '유-윷판', '으-읫만이')도 기존 원고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해방 후에 정해진 기본적인 수정 원칙을 반영하여 필사한 것이어서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원고와는 차이가 있다. 해방 후 제시된 기본적인 수정 원칙으로 두드러진 것은 '名, 動, 形, 副...' 등과 같이 한자로 된 문법 형태 표시를 '이, 움, 어, 엊...' 등의 고유어로 바꾼 것이나 1946년 개정된 맞춤법에 따라 표기를 바꾼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보면 복제 원고 4권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와 1957년 완간된 [큰 사전]을 잇는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지만, 자료의 성격은 1940-1942년에 조성된 원고와 달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 그 의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복제 원고 4권을 지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3.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내용상 주요 특징

3-1. 범례의 특징

원고 작성 시 설계했던 사전의 체제와 기술 원칙에 대한 것은 범례를 통해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범례'에 해당하는 원고는 총 22장인데, 설명 항목을 '어휘, 어휘의 벌린 순서, 철자,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문법 형태의 표시, 해석의 방식,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등 9개 항으로 나누어 사전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어휘'와 '해석의 방식' 부분이다. '어휘' 항목에서는 올림말 선정의 원칙과 범위를 상세하게 밝히면서 올림말 내에서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처리 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석의 방식' 부분에서는 뜻풀이의 일반 원칙뿐만 아니라 용례, 관련어, 옛말 등의 표시와 관련한 원칙들이 상세

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범례'를 통해 사전의 구조와 기술 방식을 상세히 보여주는 것은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이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 담을 어휘 정보가 이전 사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본의 범례와 출판본의 범례에는 몇 가지 차이가 보인다. 눈에 띄는 것으로는 원고에서 연호 '소화(昭和)'를 '서기'로 바꾸었다가 출판 시에는 이를 '단기'로 바꾼 점이다.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항목 명칭의 변화로는 원고의 '철자'가 출판 시 '맞춤법'으로 바뀐 것을 들 수 있고, 설명에서의 변화로는 '철자', '발음', '어원' 등을 설명할 때 든 어휘의 예들이 일부 교체된 것을 들 수 있다.

3-2. 본문의 특징

사전의 체제 및 기술 원칙과 관련한 내용은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고 본문에 대한 특징만을 설명한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 한정하여 볼 때, 이 원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원고의 내용과 해방 후 수정한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는 점이다.

내용 수정은 주로 뜻풀이를 정교화하거나 개정 맞춤법, 변경된 문법 용어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원고의 맞춤법은 1933년 제정한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수정안(1937년)에 따른 것이지만, 출판본의 맞춤법은 1946년의 개정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정 작업이 필요했다. 또한 한자어 문법 용어를 고유어 문법 용어로 전환하면서 원고의 문법 정보를 완전히 바꾸는 수정 작업이 필요했다. 그런데 내용 수정 부분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해방 이후 12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정 작업의 흔적을 통해 해방 전후기 언어 상황 및 언어 의식 그리고 사전편찬 원칙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 원고가 만들어진 후 격변기를 거친 뒤라 수정 과정에서 어휘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다. 추가된 어휘들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전에 비해 폭넓게 쓰이는 것들이고, 빠진 어휘들은 독립국가의 공용어로 적절하지 못한 말이나 시대 변화에 뒤처진 것들이다.

'불고기', '불순하다'. '불이익' 등 현재로선 익숙한 어휘를 새로 추가한 것이나, 뜻풀이를 수정하면서 뜻풀이에 쓰인 '수부(首府)'를 '서울'로 바꾼 것이나, '불 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을 삭제한 것 등은 어휘 사용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경죄, 비상대권, 천황, 특별고등경찰' 등 원고가 완성되던 때의, 즉 일제강점기의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어휘가 삭제되었고, 원고에 포함

되어 있던 일본어 기원 외래어도 상당수 삭제된 것은 정치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를 통해서는 당시 조선총독부 검열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수정한 결과를 통해서는 독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목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韓國) 때의 국기”라고 풀이했던 ‘태극기’의 정의를 “우리나라의 국기”로 수정한 것, 그리고 “조선글의 이름. 정음(正音)을 맨 조선말로만 새기어서 지은 것.”이라고 풀이했던 ‘한글’의 정의를 “우리 나라 글자의 이름”으로 바꾼 것 등이 그러한 예인데, 이는 독립 국가의 국어사전이라는 위상에 맞게 원고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ㅇ 문헌자료

김민수(1980), ≪新國語學史≫, 일조각.
김민수(1987), ≪國語學史의 基本理解≫, 집문당.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최경봉(2016), ≪근대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ㅇ 기 타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은 한글학회 [큰 사전]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던 고 김민수 교수가 사전편찬이 완료된 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김민수 교수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사전 출판이 완료된 후 학회에서 원고를 특별히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출간 전후의 변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고자 ‘범례’ 22장과 ㄱ 부분 30여 장을 보관하였다고 한다.

□

ㅇ 조성연대

현재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고 김민수 교수 유가족 세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글학회 소장본은 전체 12권,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전체 5권이다. 한편, 최근 전 고려대 국문과 교수였던 김민수 교수의 소장본(1권, 범례 22장, ㄱ 일부 29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전체 18권이다.

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제작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 무렵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 이후에 자료 보관을 위해 ‘여벌’로 작성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된 뒤로, 1939년 말경에 원고가 마무리되어, 출간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원고가 제출되었고, 1940년 3월에는 원고 일부의 수정을 전제로 검열에 통과하였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원고는 조선총독부에서 사건을 위합 압류용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1940-1920년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글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4권(‘우층-윙윙’, ‘유-윷판’, ‘으-읫만이’, ‘ㅎ-허리’)은 해방 이후에 해당 원고를 다시 필사한 ‘여벌’ 복제본이다. 따라서 자료는 1940-1942년 사이에 조성된 원고로 확인된 것은 한글학회 소장 4권과 독립기념관 소장 5권 그리고 고 김민수 교수 소장 1권, 1960년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글학회 소장 4권으로 구분된다.

ㅇ 현　　상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현재, 검은색 실끈으로 묶인 책자 형태로 되어 있다. 각 권의 표지에는 해당 권에 수록한 표제어가 쓰여 있다. 그리고 본문은 400자 원고지에다가 항목별 내용을 기술하였다. 본문에는 항목별 기술 내용 이외에 해당 사항의 증보를 위한 ‘부전지(附箋紙)’, 기타 교정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도 남아 있다. 이때, 부전지와 기타 교정 과정에서 생긴 첨가 내용은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으로 기록해 두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현재 세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글학회에서 12권, 독립기념관에서 5권, 고 고려대 국문과 김민수 교수 유족의 소장본 1권이다. 이 원고들을 “1947년 1권, 1949년 2권, 1950년 3권, 1957년에는 나머지 4-6권을 포함하여 1-6권 전질”로 출간된 ‘조선말 큰사전(조선어학회)’, ‘한글학회(큰 사전)’과 대조해 보면, 원고가 출판본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와 구별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여벌’로 쓰여진 4권의 원고(‘우층-윙윙’, ‘유-윷판’, ‘으-읫만이’, ‘ㅎ-허리’)이다. 이 원고는 해방 이후 학회명칭이 ‘한글학회’로 바뀌고, 이곳에서 간행된 ‘큰사전’의 해당 원고를 다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ㅇ 내용 및 특징

(1)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서지/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대적 여건 속에서, 조선어학회에서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조선말 큰사전 원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1942년 10월에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총독부에 압수되었고, 이후 행방을 모르다가 해방 이후에 서울역 창고에서 극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자료는 이처럼 역사적 기록과 실체가 분명히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해방 이후에 간행되었던 '조선말큰사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지닌 서지/자료적 가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현재 중등교육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내용상 특징: '조선말 큰사전 원고' 중에서 고 김민수 교수의 소장본 권1의 '범례'를 통해서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기획했던 사전의 체제, 특징 등을 볼 수 있다. 범례는 '어휘, 어휘의 벌린 순서, 철자,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문법 형태의 표시, 해석의 방식,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등 9개 항으로 작성되어 있다. 범례를 통해서 어휘 항목의 선정, 어휘의 용례, 관련어, 옛말 등의 표시 등의 다양한 사전의 기술 방식을 볼 수 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여타의 국어사전들과 다른 특징은 표제어의 배열을 겹닿소리글자의 어휘들을 "가, 갸, 거, …… 까, 꺄, 꺼, 껴, ……"의 차례가 아니라 "가, 까, 거, 꺼, …… 의 차례로 하고 있다는 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반어만이 아니라 전문어·제도어·고유명사·옛말·이두 등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표준말'(1936)에 따라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분하면서, 비표준어와 버려야 할 말에 특별한 표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편차 및 자료 구분의 필요성: 현재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고 김민수 교수 유가족 세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글학회 소장본은 전체 12권,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전체 5권이다. 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제작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 무렵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 이후에 자료 보관을 위해 '여벌'로 작성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 14권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된 뒤로, 1939년 말경에 원고가 마무리되어, 출간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원고가 제출되었고, 1940년 3월에는 원고 일부의 수정을 전제로 검열에 통과하였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원고는 조선총독부에서 사건을 위합 압류용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1940-1920년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글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4권('우층-웡웡', '유-윷판', '으-읫만이', 'ㅎ-허리')은 해방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고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여벌'의 원고는 자료 편찬 과정과

변모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원고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ㅇ 문헌자료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최경봉(2016), ≪근대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박용규(2016),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역사적 의미≫, 기록인 V35.
최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제2판)≫, 책과함께.

ㅇ소장경위

故 고려대 국문과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하고 있는 원고는 1권이다. 수량은 적으나 이 자료는 사전 편찬의 과정과 사전 편찬에 관여한 인물을 적은 '범례' 22장을 통해서 '조선말큰사전' 편찬의 전모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대한 관리와 보존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건번호 동산 2020-07-009

9. 효의왕후 어필 및 함-만석군전·곽자의전
(孝懿王后 御筆 및 函-萬石君傳·郭子儀傳)

가. 심의사항

'효의왕후 어필 및 함-만석군전·곽자의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효의왕후 곤전어필 및 함-만석군전·곽자의전'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9.10./10.2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6차 회의('20.11.5.)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11.13.~1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효의왕후 곤전어필 및 함-만석군전·곽자의전
(孝懿王后 坤殿御筆 및 函-萬石君傳·郭子儀傳)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 수　　량 : 서책 1책, 함 1점

○ 규　　격 : 서첩 전체: 23.0×16.5cm, 함 전체: 25.6×18.9×3.9cm

○ 재　　질 : 종이에 먹, 오동나무

○ 형　　식 : 선장(線裝), 직육면형 함

○ 조성연대 : 1794년(정조 18)

○ 제 작 자 : 효의왕후 김씨(1753~1821)

그림 330. 효의왕후 곤전어필(우) 및 함(좌)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효의왕후 곤전어필(孝懿王后 坤殿御筆)은 만셕군뎐과 곽ᄌᆞ의전의 서사와 효의왕후·김기후의 발문으로 구성되었다. 만셕군뎐은『한서』에 수록된「萬石君石奮」의 번역이고, 곽ᄌᆞ의전은『신당서』에 수록된「郭子儀列傳」의 번역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이 '온전한 번역이 아니라 후대에 축약된 전기의 번역'이라 하거나 혹은『사기』의 열전을 번역한 것이라 한 것은 김기후 발문에서 '녁ᄃᆡᄉᆞ귀를좌우에버리오시고'에서 비롯된 것 같다. 여기에서 '녁ᄃᆡᄉᆞ귀'는 '歷代史記'로 史記는 역사의 기록이란 뜻이지만, 이를 사마천의『사기』로 본 것은 만셕군뎐과 곽ᄌᆞ의전의 내용을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곽ᄌᆞ의전에서 자손들의 전함을 생략하고 벼슬만 열거한 것은 굳이 그들의 행적까지 길게 적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니, 따라서 이는 축자적(逐字的)인 완역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의왕후 곤전어필은 왕실에서 만든 효의왕후의 친필이어서 18세기 언문의 특성과 서체를 통해 국문학적, 서예사적,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자료이다. 제작 시기와 서사자가 분명하고, 특히 곽ᄌᆞ의뎐은 이후 출간된『곽분양전(郭汾陽傳)』의 필사본·목판본·활자본 이본(異本)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효의왕후 곤전어필』은 연혁과 유래가 명확하고 많은 글자의 내용을 왕후가 직접 서사하고 발문까지 남긴 것이 매우 이례적이며, 또한 매우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어필이란 희귀성과 존엄성의 개념을 떠나 순수한 서예적 완성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한글흘림글씨의 범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낙성비룡』을 비롯하여 『서한연의』,『격몽요결』,『사문대의록』등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 높은 경지의 것이다. 또한 한글서사의 유문들이 대부분 서자를 알 수 없는 것에 반해 서자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도 우리 한글 서예사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언뜻 과연 왕후의 신분으로 써 낼 수 있는 것이었을까 혹시 서사 상궁의 대필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그 성취가 놀랍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효의왕후가 성품이 본시 개결(介潔)하였고 자녀를 두지 못했다는 점, 시대적으로 문예부흥의 시기이며, 한글서예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점, 이를 서사할 때의 왕후나이가 40대 한창나이였다는 점 등을 추론할 때 왕후의 진적으로서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가치에 충족된다고 하겠다.

ㅇ (지정 가치 있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신청된 '효의왕후 곤전어필 및 함'의 구성은 먼저 여닫이 뚜껑의 나무책갑·'坤殿御筆'이라고 한문 해서로 써 있는 제첨·만석군전과 곽자의전·효의왕후 발문·김기후의 한글 발문·김기후의 한문 발문으로 되어있으며, 김기후의 한문 발문의 글씨는 김기상이 썼다고 발문 말미에 적혀 있다.

효의왕후는 김기후의 요청에 따라 김씨 집안의 안복함을 위하여 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을 필사하였다. 이에 『한서』에 수록된 『만석군석분(萬石君石奮)』과『신당서』에 수록된 『곽자의열전(郭子儀列傳)』을 김종선에게 당시 언문으로 번역하게 한 뒤 자신이 필사하여 1첩 94면의 필사본 서첩을 제작하였다. 또한 18세기 왕실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본으로 특히 왕후의 신분으로 소설을 필사하고 발문을 남긴 예가 없으니 희귀본일 뿐더러 글씨 또한 필법·필세·필의에 맞게 필획을 운필하여 흘림체의 범본으로 손색이 없다.

18세기에 제작된『곤전어필』은 왕후의 친필이기도 하거니와 국문학적, 서예사적,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자료이다. 제작 년도와 필사자가 분명하고 역사적 변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이 매우 잘되어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ㅇ (지정가치 있음)

본 책함은 조선 후기 특징을 잘 보여주며, 매끄럽게 마무리한 刻된 글씨와 만듦새가 당시에 매우 잘 만든 함이다. 특히 이것이 정조비인 효의왕후(1753-1821)의 필사본으로 보는 <坤殿御筆>을 담았던 책함으로도 적합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함은 없으나 책을 보관하는 책함으로, 적절하게 만들어졌다. 윗면은 글씨를 새기는 만큼 단정한 곧은 결로 하고 뒷면은 무늬결로 된 오동나무를 썼는데, 오동나무는 제습작용을 하는 나무재질로 책함으로 쓰기에 적합하다. 윗면에 각이 된 정갈한 글씨 또한, 안에 들었던 책을 가문에 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잘 부합된다고 보인다. 또 윗면의 위아래만 변자를 두어 조선시대 책갑에서 보는 특징을 보여준다. 못 자국 없이 깔끔한 외관의 제작 또한 잘 만들어진 만듦새를 보여준다. 책함의 크기 역시 <坤殿御筆>을 담아 보관하기에 적절한 크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 <坤殿御筆>과 함께 지정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ㅇ 현 상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효의왕후 곤전어필(孝懿王后 坤殿御筆)은 정조의 비 효의왕후[24]가 조카 김종선[25]에게 『한서』에 수록된 「萬石君石奮」과 『신당서』에 수록된

24) 효의왕후(孝懿王后, 1753-1821)는 조선후기 제22대 정조의 왕비로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좌참찬 김시묵(金時默)의 딸이고, 모친은 남양홍씨(南陽洪氏)로 중찬성 홍상언(洪尙彦)의 딸이다. 한성부 가회방(嘉會坊) 사제(私第)에서 출생하였다. 1762년(영조 38) 세손빈으로 책봉되어 어의동(於義洞) 본궁에서 가례를 올렸고, 1776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진봉(進封)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여 시어머니 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를 지성으로 모시니 궁중에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애가 극진하여 화완옹주(和緩翁主)가 몹시 괴롭혔으나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특히 청연(淸衍)·청선(淸璿) 두 군주와는 더욱 우애가 돈독하였다. 청선군주의 상을 당하였을 때는 스스로 슬픔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비통해하였고, 그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보살펴주었다. 성품이 개결(介潔 : 절개가 굳고 깨끗함)하고 사정에 흐르지 않아서 사가(私家)에 내리는 은택을 매우 경계하며 수진궁(壽進宮)과 어의궁(於義宮)에서 쓰고 남는 재물이 있어도 궁화(宮貨 : 궁궐내에 있는 재물)는 공물이라 하여 사사로이 사가에 물화를 내린 적이 없었다. 자녀를 두지 못한 채 창경궁 자경전(慈慶殿)에서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일생을 검소하게 보냈으며, 생전에 여러 차례 존호(尊號)가 올려졌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시호는 예경자수효의왕후(睿敬慈粹孝懿王后)이고, 능호는 건릉(健陵)으로 경기도 화성군 안룡면 안녕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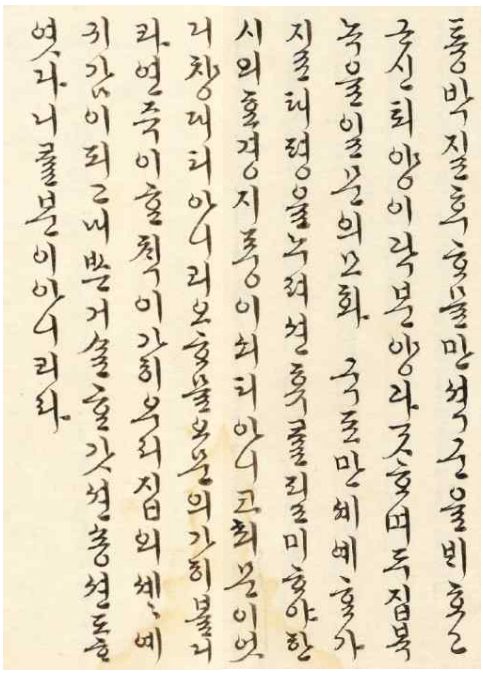
25) 김종선(金宗善, 1766-1810)은 본관이 청풍(淸風)이고 자는 성보(城甫)이며, 호는 송재(松齋)이다. 조부는 정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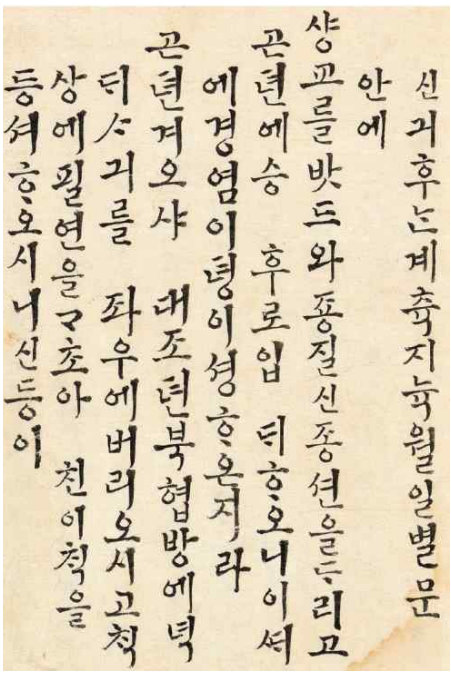
「郭子儀列傳」을 번역하게 한 다음, 효의왕후가 직접 서사한 책이다. 사촌오빠 김기후[26]의 발문에 의하면, 계축년(1793, 영조 39) 6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종질 김종선을 데리고 곤전에 문안을 올리러 갔는데, 왕후가 역대 사기를 벌여 놓으시고 친히 책을 옮겨 적으셨다[신긔후ᄂᆞᆫ계츅지뉵월일별문안에샹교를밧드와죵질신종션을ᄃᆞ리고곤뎐에승후로입ᄃᆡᄒᆞ오니이ᄯᅢ에경염이뎡이셩ᄒᆞ온지라곤뎐겨오샤대조뎐북협방에녁ᄃᆡᄉᆞ귀를좌우에버리오시고칙상에필연을ᄀᆞ초아친이칙을등셔ᄒᆞ오시니]고 하였다. 효의왕후 발문에는 갑인년(1794, 영조 40) 김종선이 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손수 베껴 보냈다는[셰갑인의가딜종션으로만셕군뎐과곽ᄌᆞ의뎐을언문으로번셔ᄒᆞ야이에손조벗겨보내믄]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1793년 효의왕후는 역대 사기를 친히 옮겨 적었으며, 1794년 종질 김종선에게 「萬石君石奮」과 「郭子儀列傳」을 언문으로 번역시킨 것을 손수 베껴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쓴 목적은 효의왕후 발문에 의하면, 충성스럽고 질박하며 도타움[忠樸質厚]은 만석군을 배우고, 근신하고 물러나며 사양함[謹愼退讓]은 곽분양(즉 郭子儀로 汾陽郡王에 봉해짐)과 같으니, 쇠락한 우리 가문[衰門[27]]에 대대손손의 귀감(龜鑑)으로 삼고자 하는[튱박질후ᄒᆞ믈만셕군을ᄇᆡ호고근신퇴양이곽분양과ᄀᆞᆺᄒᆞ며두집복녹을일문의모화국됴만셰예ᄒᆞᆫ가지로태평을누려션휴롤필미ᄒᆞ야한시의효경지풍이쇠티아니코최문이엇디창대티아니리오ᄒᆞ믈오문의가히볼디라연즉이ᄒᆞᆫ칙이가히우리집의셰〃예귀감이되고내쁜거슬ᄒᆞᆫ갓션숑션도ᄒᆞ였다니롤분이아니리라]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원문을 읽기의 편함을 위해 오른쪽부터 차례로 나열하였다.

장인인 청원부원군 김시묵(金時默)이고, 부친은 공조참의 김기대(金基大)이다. 일찍이 이술원(李述源)으로부터 글을 배운 뒤 박윤원(朴胤源)·오윤상(吳允常)의 문인이 되었다. 정조에 의해 특별히 척신(戚臣)으로 기용되어 돈녕부주부가 되었고, 1800년 순조가 즉위하면서 의령현감을 역임한 뒤 승지·도승지가 되어 매번 강연(講筵)에 나아갔다. 1809년(순조 9) 형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우윤(右尹)이 되었다.

26) 김기후(金基厚, 1747-1830)는 본관이 청풍(淸風)으로 자는 사중(士重)이고, 부친은 판돈녕부사 김지묵(金持默)이다.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부친 김우명(金佑明)의 5대손이고, 이구상(李龜祥)의 문인이다. 1774년(영조 50) 생원시에 합격하여 음보(蔭補)로 기용되어 영릉참봉(寧陵叅奉)이 되었고, 1811년(순조 11) 총융사(摠戎使)에 임명되었다. 이어 금위대장·공조판서·지돈녕부사·도총관·한성부판윤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왕실과 인척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언행에 조심하여 60년 동안 궁궐에 출입하였어도 집안사람들에게 궁궐 안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부친의 뒤를 이어 궁궐 일을 관장하게 되자 더욱 근신하여 영비(營費)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봉직에 전력을 다하였다. 1826년 노령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승진하였다가 서만수(徐萬修)의 무고를 받아 외진 고을에 유폐된 지 수년 만에 별세하였다.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27)
衰門은 쇠락한 가문이란 뜻으로'衰'의 음은 쇠미해진다는 뜻일 경우는'쇠', 차이를 둔다는 뜻일 경우는'최', 도롱이라는 뜻일 경우는'사'등 세 종류이다. 곽ᄌᆞ의뎐에는 원래 쇠미해진다는 뜻의'쇠'로 올바르게 썼으나 다시 가필하여'최'로 고친 흔적이 보여 결과적으로 뜻이 어긋났다.


효의왕후 발문


김기후 발문

장황 크기는 23.0×16.5cm이고, 붉은 실을 이용하여 오침(伍針)으로 선장(線裝)하였다. 앞뒤 표지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 꽃이 있는 비단으로 싸여 있고, 앞표지 왼쪽에 해서로 쓴 '곤전어필(坤殿御筆)'이란 제첨(題簽)이 있다. 이를 보관하였던 오동나무상자 중앙에는 해서로 쓴 '傳家寶藏'이란 네 글자를 1행으로 음각(陰刻)하였고, 아래에는 소전(小篆)으로 쓴 '子〃孫〃其永寶藏'이란 인문(印文) 여덟 글자를 3행에 두 글자씩 음각하였다. 보전 상태는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하다.

ㅇ 내용 및 특징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효의왕후 곤전어필(孝懿王后 坤殿御筆)은『한서』에 수록된「萬石君石奮」과『신당서』에 수록된「郭子儀列傳」을 김종선에게 번역하게 한 다음 이를 효의왕후가 직접 서사한 책이다. 만석군뎐은 한나라 경제 때 벼슬을 하였던 석분(石奮)[28]의 전함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사람들을 공경하고 신중한 태도로 예의를 지켰고, 자식들을 잘 교육하여 아들 넷이 모두 관직에 올라 녹봉이

28) 석분(石奮, 기원전 220-기원전 124)은 자가 천위(天威)이고 호는 만석군(萬石君)이며, 하내군온현(河內郡溫縣, 지금의 하남성 溫縣 서남쪽) 사람이다. 문학에 통하지 않았으나 공손하고 근면함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처음 말단 벼슬아치가 되어 한 고조를 모셨는데, 그의 공경함을 아껴서 여동생을 불러 미인(美人)으로 삼고 그를 중연(中涓)으로 삼았다. 한 문제 때 벼슬은 태자태부(太子太傅)와 태중대부(太中大夫)에 이르렀고, 경제가 즉위한 뒤 구경(九卿)에 나열하여 녹봉이 이천 석이었다. 네 아들 모두 벼슬이 이천 석에 이르러 호를 만석군이라 한 뒤 상대부(上大夫) 벼슬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장자 석건(石建)은 낭중령(郎中令), 막내아들 석경(石慶)은 승상에 이르렀다.

만석에 이를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내용이다. 곽즈의뎐은 당나라 무장 곽자의(郭子儀)[29]의 전함으로 안녹산의 난을 진압하고 토번(吐蕃)을 치는 데 공을 세워 분양군왕(汾陽郡王)에 봉해졌다는 내용이다. 이는 왕실에서 만든 효의왕후의 친필이어서 18세기 언문의 특성과 서체를 통해 국문학적, 서예사적,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자료이다. 특히 곽즈의뎐은 이후 출간된『곽분양전(郭汾陽傳)』의 필사본・목판본・활자본 이본(異本)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효의왕후 곤전어필의 전체 구성, 내용 분석, 서예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구성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효의왕후 곤전어필(孝懿王后 坤殿御筆)은 앞뒤 표지를 제외한 94면으로 구성된 첩(帖)으로 내용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앞표지 : '곤전어필(坤殿御筆)'의 제첨(題簽)이 있음.
제1면 : 공간
제2-17면 : 만셕군뎐
제18-79면 : 곽즈의뎐
제80-82면 : 효의왕후 발문
제83면 : 공간
제84-87면 : 김기후의 언문 발문
제88-90면 : 김기후의 한문 발문으로 끝에 '臣 基厚權識 臣 基常謹書'라고 썼음.
제91-94면 : 공간
뒤표지 : 공간

효의왕후와 김기후의 발문을 통해 번역자와 번역시기 및 서사자와 서사시기를 알 수 있고, 서사의 동기와 목적도 알 수 있다. 김기후의 한문 발문은 언문 발문을 한문으로 기록한 것이고, 글씨는 사촌 동생 김기상(金基常)[30]이 해서로 썼다.

---

29) 곽자의(郭子儀, 697-781)는 당나라의 정치가・군사가로 화주정현(华州郑县, 지금의 섬서성 华县) 사람이다. 젊었을 때 무과에 높은 점수로 합격하고 종군하여 공을 쌓아 구원태수에 이르렀으나 줄곧 중용되지 못하였다. 안사의 난이 일어난 뒤 그는 삭방절도사로 군대를 몰아 하북・하동을 수복하여 병부상서・동중서문하평장사가 되었다. 그는 안사의 난을 평정한 공이 제일이었다. 757년 사도를 더하여 대국공(代國公)에 봉하였고, 다음해 중서령이 되었으며, 762년 분양군왕(汾陽郡王)을 봉하였다. 763년 복고회은(僕固懷恩)이 토번(吐蕃)・회흘(回紇)과 결탁하고 침략하여 장안을 함락시켰다. 곽자의는 다시 등용되어 관내부원가를 맡아 다시 장안을 수복하였다. 765년에 토번・회흘이 다시 연합하여 침략하자 곽자의는 경양에서 단독으로 말을 타고 가서 말로 회흘을 물러나게 하였다. 아울러 토번을 궤멸시켜 관중을 안온하게 하였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30) 김기상(金基常, 1770-?)은 본관이 청풍(淸風)으로 자는 형여(亨汝)이고, 조부는 김성응(金聖應)이다. 부친은 승지 김치묵(金峙默)이고 모친은 현감 송익흠(宋益欽)의 딸이며, 부인은 한용정(韓用靜)의 딸이다. 음보(蔭補)로

2. 내용 분석

‘만석군뎐’은 한나라 석분(石奮)의 전기로 사마천의『史記・列傳第四十三・石奮』권103과 반고의『漢書・列傳第十六・萬石君石奮』권46에 전함이 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반고의『한서』는 사마천의『사기』를 근거하여 일부 단어를 바꾸거나 생략하고 때로는 문장을 더한 곳이 보인다. ‘만셕군뎐’의 해석은『한서』를 저본(底本)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증거는 먼저『한서』의 원문을 소개한 뒤『사기』와 다른 점을 비교하고, 다시 ‘만셕군뎐’의 내용을 대조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한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고, 붉은 글자 아래에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해석하지 않았거나 생략한 곳이다.

萬石君名奮, 其父趙人也. 趙亡, 徙溫. 高祖東擊項籍, 過河內, 時奮年十五, 爲小吏, 侍高祖. 高祖與語, 愛其恭敬, 問曰：“若何有？” 對曰：“有母, 不幸失明. 家貧. 有姊, 能鼓琴.” 高祖曰：“若能從我乎？” 曰：“願盡力.” 於是高祖召其姊爲美人, 以奮爲中涓, 受書謁, 徙其家長安中戚里, 以姊爲美人故也.

奮積功勞, 孝文時官至大中大夫. 無文學, 恭謹, 擧無與比. 東陽侯張相如爲太子太傅, 免. 選可爲傅者, 皆推奮爲太子太傅. 及孝景卽位, 以奮爲九卿. 迫近, 憚之, 徙奮爲諸侯相. 奮長子建, 次甲, 次乙, 次慶, 皆以馴行孝謹, 官至二千石. 於是景帝曰：“石君及四子皆二千石, 人臣尊寵乃擧集其門.” 凡號奮爲萬石君.

孝景季年, 萬石君以上大夫祿歸老於家, 以歲時爲朝臣. 過宮門闕必下車趨, 見路馬必軾焉. 子孫爲小吏, 來歸謁, 萬石君必朝服見之, 不名. 子孫有過失, 不誚讓, 爲便坐, 對案不食. 然後諸子相責, 因長老肉袒固謝罪, 改之, 乃許. 子孫勝冠者在側, 雖燕必冠, 申申如也. 僮僕訢訢如也, 唯謹. 上時賜食於家, 必稽首俯伏而食, 如在上前. 其執喪, 哀戚甚. 子孫遵教, 亦如之. 萬石君家以孝謹聞乎郡國, 雖齊魯諸儒質行, 皆自以爲不及也.

建元二年, 郎中令王臧以文學獲罪皇太後. 太後以爲儒者文多質少, 今萬石君家不言而躬行, 乃以長子建爲郎中令, 少子慶爲內史.

建老白首, 萬石君尙無恙. 每五日洗沐歸謁親, 入子舍, 竊問侍者, 取親中裙廁牏, 身自浣洒, 復與侍者, 不敢令萬石君知之, 以爲常. 建奏事於上前, 卽有可言, 屛人乃言極切；至廷見, 如不能言者. 上以是親而禮之.

萬石君徙居陵里. 內史慶醉歸, 入外門不下車. 萬石君聞之, 不食. 慶恐, 肉袒請罪,

출사하여 1819년(순조 19) 10월 청도군수로 부임했다가 1820년(순조 20) 4월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후 1821년(순조 21) 왕실 상사(喪事) 때 종척집사(宗戚執事)로 선발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품계를 올려 받았다. 1822년(순조 22) 임금의 특별 명령에 따라 승지에 임명되었다. 1823년(순조 23) 효희전(孝僖殿)의 관원으로서 홍이간(洪履簡)・정의(鄭漪)・홍현주(洪顯周)・김기후(金基厚)・박제일(朴齊一) 등과 함께 숙마(熟馬)를 하사받았으며, 가선대부에 올랐다. 1828년(순조 28) 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管)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1833년(순조 33) 임금의 특지로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에 제수되었다.

不許. 擧宗及兄建肉袒, 萬石君讓曰："內史貴人, 入閭里, 里中長老皆走匿, 而內史坐車中自如, 固當！" 乃謝罷慶. 慶及諸子弟入里門, 趨至家.

萬石君以元朔五年中卒. 建哭泣哀思, 杖乃能行. 歲餘, 建亦死. 諸子孫咸孝, 然建最甚, 甚於萬石君.

建爲郎中令, 奏事下, 建讀之, 曰："書'馬'者與尾當五, 今乃四, 不足一, 獲譴死矣！" 其爲謹愼, 雖他皆如是.

慶爲太僕, 御出, 上問車中幾馬, 慶以策數馬畢, 擧手曰："六馬." 慶於兄弟最爲簡易矣, 然猶如此. 出爲齊相, 齊國慕其家行, 不治而齊國大治, 爲立石相祠.

元狩元年, 上立太子, 選群臣可傅者, 慶自沛守爲太子太傅, 七歲遷御史大夫. 元鼎五年秋, 丞相趙周坐酎金免, 制詔御史："萬石君先帝尊之, 子孫至孝, 其以御史大夫慶爲丞相, 封爲牧丘侯." 是時漢方南誅兩越, 東擊朝鮮, 北逐匈奴, 西伐大宛, 中國多事. 天子巡狩海內, 修古神祠, 封禪, 興禮樂. 公家用少, 桑弘羊等致利, 王溫舒之屬峻法, 兒寬等推文學, 九卿更進用事, 事不關決於慶, 慶醇謹而已. 在位九歲, 無能有所匡言. 嘗欲請治上近臣所忠、九卿咸宣, 不能服, 反受其過, 贖罪.

元封四年, 關東流民二百萬口, 無名數者四十萬, 公卿議欲請徙流民於邊以適之. 上以爲丞相老謹, 不能與其議, 乃賜丞相告歸, 而案御史大夫以下議爲請者. 慶慚不任職, 乃上書曰："臣幸得待罪丞相, 疲駑無以輔治. 城郭倉廩空虛, 民多流亡, 罪當伏斧質, 上不忍致法. 願歸丞相侯印, 乞骸骨歸, 避賢者路."

上報曰："間者, 河水滔陸, 泛濫十餘郡, 堤防勤勞, 弗能堙塞, 朕甚憂之. 是故巡方州, 禮嵩嶽, 通八神, 以合宣房. 濟淮江, 歷山濱海, 問百年民所疾苦. 惟吏多私, 徵求無已, 去者便, 居者擾, 故爲流民法, 以禁重賦. 乃者封泰山, 皇天嘉況, 神物幷見. 朕方答幾應, 未能承意, 是以切比閭里, 知吏奸邪. 委任有司, 然則官曠民愁, 盜賊公行. 往年覲明堂, 赦殊死, 無禁錮, 咸自新, 與更始. 今流民愈多, 計文不改, 君不繩責長吏, 而請以興徙四十萬口, 搖蕩百姓, 孤兒幼年未滿十歲, 無罪而坐率, 朕失望焉. 今君上書言倉庫城郭不充實, 民多貧, 盜賊衆, 請入粟爲庶人. 夫懷知民貧而請益賦, 動危之而辭位, 欲安歸難乎? 君其反室！"

慶素質, 見詔報反室, 自以爲得許, 欲上印綬. 掾史以爲見責甚深, 而終以反室者, 醜惡之辭也. 或勸慶宜引決. 慶甚惧, 不知所出, 遂復起視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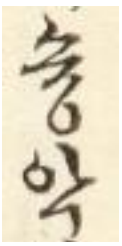
慶爲丞相, 文深審謹, 無他大略. 後三歲餘薨, 謚曰恬侯. 中子德, 慶愛之. 上以德嗣, 後爲太常, 坐法免, 國除. 慶方爲丞相時, 諸子孫爲小吏至二千石者十三人."

贊曰: 仲尼有言, "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其萬石建、建陵侯、塞侯、張叔之謂與? 是以其教不肅而成, 不嚴而治.(『二十四史全譯・漢書(全二冊)』世紀出版集團・漢語大詞典出版社 2004年, 1029-1035쪽)

이상의 내용을『사기』와 비교하여 다른 곳을 통해 '만석군뎐' 번역을 살펴보면, 무엇을 저본으로 삼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만석군뎐'의 현대어역은『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총서1』(국립한글박물관 2014)을 인용하였다.

『사기(史記)』	『한서(漢書)』	만석군뎐
姓石氏. 趙亡, 徙居溫	趙亡, 徙溫	조나라가 망하여 온(溫) 지역으로 옮겨와 살았는데
奮獨有母, 不幸失明	有母, 不幸失明	어머니가 계신데 불행히도 실명(失明)하셨고
身自浣涤	身自浣洒	직접 빨아서
建爲郎中令, 事有可言, 屛人恣言	建奏事於上前, 卽有可言, 屛人乃言	건(建)이 상전 앞에서 일을 아뢸 때 가히 할 말이 있으면 사람을 물리치고 이에 말씀을
是以上乃親尊禮之	上以是親而禮之	상이 이로써 친히 하시고 대접하셨다.
長子郎中令建哭泣哀思	建哭泣哀思	건이 울고 슬프게 생각하여
書奏事, 事下, 建讀之	奏事下, 建讀之	일을 아뢴 글이 내려오니 건이 읽다가
誤書！'馬'者與尾當五	書'馬'者與尾當五	말 마(馬) 자 쓴 것의 꺾인 점까지 다섯 점인데
上譴死矣	獲譴死矣	죄를 얻어 죽겠구나
甚惶恐. 其爲謹愼,	其爲謹愼	그 근심함이
萬石君少子慶爲太僕	慶爲太僕	경이 태복(太僕)이 되어서
丞相有罪, 罷	丞相趙周坐酎金免	승상(丞相)이 조주(趙周)에게 금(金)을 받은 것으로 인해 죄를 받아 면직되니
推文學至九卿, 更進用事	推文學, 九卿更進用事	학문(學文)을 이루어 구경(九卿)이 서로 나아와 권세를 부리고
事不決於丞相, 丞相醇謹而已	事不關決於慶, 慶醇謹而已	석경에게 일을 결정하지 않게 했는데 (그것은) 경이 순박하고 신중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丞相慚不任職	慶慚不任職	경이 부끄러워하여
慶幸得待罪丞相, 罷駑	臣幸得待罪丞相, 疲駑	신이 운이 좋아 승상의 직무를 맡았사오나 재능이 부족하여
天子曰："倉廩旣空, 民貧流亡, 而君欲請徙之, 搖蕩不安, 動危之, 而辭位, 君欲安歸難乎？" 以書讓慶, 慶甚慚, 遂復視事	上報曰："間者, 河水滔陸, 泛濫十餘郡, 堤防勤勞, 弗能堙塞, 朕甚憂之. 是故巡方州, 禮嵩嶽, 通八神, 以合宣房. 濟淮江, 歷山濱海, 問百年民所疾苦. 惟吏多私, 徵求無已,	상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즈음께 하수(河水)가 평지를 넘어 십여 군에 범람하였는데 능히 막지 못하였다. 짐이 심히 근심하여 방주(方舟)로 (십여 군을) 두루 살펴 송악에 예하고 회강(會江)을 건너 산을 지나며 바다를 건너 백

『사기(史記)』	『한서(漢書)』	만석군뎐
	去者便，居者擾，故爲流民法，以禁重賦．乃者封泰山，皇天嘉況，神物幷見．朕方答幾應，未能承意，是以切比閭里，知吏奸邪．委任有司，然則官曠民愁，盜賊公行．往年覲明堂，赦殊死，無禁錮，咸自新，與更始．今流民愈多，計文不改，君不繩責長吏，而請以興徙四十萬口，搖蕩百姓，孤兒幼年未滿十歲，　無罪而坐率，朕失望焉．今君上書言倉庫城郭不充實，民多貧，盜賊衆，請入粟爲庶人．　夫懷知民貧而請益賦，動危之而辭位，欲安歸難乎？君其反室	성의 질고(疾苦)를 물으니 ‘관이 사정이 많아 (백성에게) 징수하는 것이 많기에 (백성들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편하고 (머물러) 있는 이들이 소요한다.’ 하니 유민법(流民法)을 만들어 무거운 세금을 금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유민이 더욱 많아졌다. 군이 수령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사십만 구를 옮겨 백성을 이동시키기를 청하니 짐이 실망했는데 이제 또 글을 올려 창고와 성곽이 충실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많이 가난하고 도적이 많다고 하여 곡식을 들이고 평민이 되고 싶다고 청하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慶文深審謹	慶爲丞相，文深審謹	경이 승상이 되어 삼가고 살필 따름이었고
後三歲餘，太初二年中，丞相慶卒，謚爲恬侯	後三歲餘薨，謚曰恬侯	삼 년 후에 (석경) 죽었는데 시호를 염후(恬侯)라 하였다.
上以德爲嗣，代侯．後爲太常，坐法當死，贖免爲庶人	上以德嗣，後爲太常，坐法免，國除	상이 덕으로 하여금 (석경의 뒤를) 이어 후에 태상(太常) 벼슬을 하게 하였고
太史公曰，“仲尼有言曰	贊曰：仲尼有言	찬하여 말하기를，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이상에서 ‘만석군뎐’은『한서』를 저본으로 삼은 완역임을 알 수 있다. ‘만셕군뎐’에 왼쪽의 글자를『소장자료총서1』에서는 ‘숑악’이라 판독하고 현대어역은 ‘송악’이라 하였는데, 이는 ‘슝악’으로 판독하고 현대어역은 ‘숭악’이라 해야 옳은 것 같으니,『한서』원문의 ‘嵩嶽’과도 부합한다.

‘곽ᄌᆞ의뎐’은 당나라 곽자의(郭子儀)의 전기로『舊唐書・列傳第七十・郭子儀』권120과『新唐書・列傳第六十二・郭子儀列傳』권137에 전함이 있다. 문자의 다름이 많고, ‘곽ᄌᆞ의뎐’을 대조하면『신당서』를 저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고, 붉은 글자 아래에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해석하지 않았거나 생략한 곳이다.

郭子儀，字子儀，華州鄭人．長七尺二寸．以武擧異等補左衛長史，累遷單於副都護、振遠軍使．天寶八載，木剌山始築橫塞軍及安北都護府，詔卽軍爲使．俄苦地偏不可耕，徙築永清，號天德軍，又以使兼九原太守．

十四載，安祿山反，詔子儀爲衛尉卿、靈武郡太守，充朔方節度使，率本軍東討．子儀收靜邊軍，斬賊將周萬頃，擊高秀巖河曲，敗之，遂收雲中、馬邑，開東陘．加御史大夫．賊陷常山，河北郡縣皆沒．會李光弼攻賊常山，拔之，子儀引軍下井陘，與光弼合，破賊史思明衆數萬，平櫜城．南攻趙郡，禽賊四千，縱之，斬僞守郭獻璆，還常山．思明以衆數萬尾軍，及行唐，子儀選騎五百更出挑之．三日，賊引去，乘之，又破於沙河，遂趨常陽以守．祿山益出精兵佐思明．子儀曰：“彼恃加兵，必易我；易我，心不固，戰則克矣．”與戰未決，戮一步將以徇，士殊死鬥，遂破之，斬首二千級，俘五百人，獲馬如之．於是晝揚兵，夜搗壘，賊不得息，氣益老．乃與光弼、僕固懷恩、渾釋之、陳回光等擊賊嘉山，斬首四萬級，獲人馬萬計．思明跳奔博陵．於是河北諸郡往往斬賊守，迎王師．方北圖范陽，會哥舒翰敗，天子入蜀，太子卽位靈武，詔班師．子儀與光弼率步騎五萬赴行在．時朝廷草昧，衆單寡，軍容缺然，及是國威大振．拜子儀兵部尚書、同中書門下平章事，仍總節度．肅宗大閱六軍，鼓而南，至彭原．宰相房管自請討賊，次陳濤，師敗，衆略盡，故帝唯倚朔方軍爲根本．

賊將阿史那從禮以同羅、僕骨騎五千，誘河曲九府、六胡州部落數萬迫行在．子儀以回紇首領葛邏支擊之，執獲數萬，牛羊不可勝計，河曲平．

至德二載，攻賊崔乾佑於潼關，乾佑敗，退保蒲津．會永樂尉趙復，河東司戶參軍韓旻，司士徐景及宗室子鋒在城中，謀爲內應，子儀攻蒲，復等斬陴者，披闔內軍．乾佑走安邑，安邑僞納之，兵半入，縣門發，乾佑得脫身走．賊安守忠壁永豐倉，子儀遣子旰與戰，多殺至萬級，旰死于陣．進收倉．於是關、陜始通．詔還鳳翔，進司空，充關內、河東副元帥．率師趨長安，次滻水上．賊守忠等軍淸渠左．大戰，王師不利，委仗奔．子儀收潰卒保武功，待罪于朝，乃授尙書左僕射．俄從元帥廣平王率蕃，漢兵十五萬收長安．李嗣業爲前軍，元帥爲中軍，子儀副之，王思禮爲後軍，陣香積寺之北，距澧水，臨大川，彌亘一舍．賊李歸仁領勁騎薄戰，官軍囂，嗣業以長刀突出，斬賊數十騎，乃定．回紇以奇兵繚賊背，夾攻之，斬首六萬級，生禽二萬，賊帥張通儒夜亡陜郡．翌日，王入京師，老幼夾道呼曰：“不圖今日復見官軍！”王休士三日，遂東．

安慶緖聞王師至，遣嚴莊悉衆十萬屯陜，助通儒，旌幟鉦鼓徑百餘里．師至新店，賊已陣，出輕騎，子儀遣二隊逐之，又至，倍以往，皆不及賊營輒反．最後，賊以二百騎掩軍，未戰走，子儀悉軍追，橫貫其營．賊張兩翼包之，官軍却．嗣業率回紇從後擊，塵且坌，飛矢射賊，賊驚曰：“回紇至矣！”遂大敗，僵尸相屬于道．嚴莊等走洛陽，挾慶緖度河保相州，遂收東都．於是河東、河西、河南州縣悉平．以功加司徒，封代國公，食邑千戶．入朝，帝遣具軍容迎灞上，勞之曰：“國家再造，卿力也．”子儀頓首陳謝．有詔還東

都，經略北討.

乾元元年，破賊河上，執安守忠以獻，遂朝京師. 詔百官迎於長樂驛，帝御望春樓待之. 進中書令. 帝卽詔大擧九節度師討慶緒，以子儀、光弼皆元功，難相臨攝，第用魚朝恩爲觀軍容宣慰使，而不立帥.

子儀自杏園濟河，圍衛州. 慶緒分其衆爲三軍. 將戰，子儀選善射三千士伏壁內，誡曰："須吾却，賊必乘壘，若等噪而射." 旣戰，僞遁，賊薄營，伏發，注射如雨. 賊震駭，王師整而奮，斬首四萬級，獲鎧冑數十萬，執安慶和，收衛州. 又戰愁思岡，破之. 連營進圍相州，引漳水灌城，漫二時，不能破. 城中粮盡，人相食. 慶緒求救於史思明，思明自魏來，李光弼、王思禮、許叔冀、魯炅前軍遇之，戰鄴南，夷負相當，炅中流矢. 子儀督後軍，未及戰. 會大風拔木，遂晦，跬步不能相物色，於是王師南潰，賊亦走，輜械滿野. 諸節度引還. 子儀以朔方軍保河陽，斷航橋. 時王師衆而無統，進退相顧望，責功不專，是以及於敗. 有詔留守東都，俄改東畿、山南東道、河南諸道行營元帥.

魚朝恩素疾其功，因是媒譖之，故帝召子儀還，更以趙王爲天下兵馬元帥，李光弼副之，代子儀領朔方兵. 子儀雖失軍，無少望，乃心朝廷. 思明再陷河、洛，西戎逼擾京輔，天子旰食，乃授邠寧、鄜坊兩節度使，仍留京師. 議者謂子儀有社稷功，而孽寇首鼠，乃置散地，非所宜. 帝亦悟.

上元初，詔爲諸道兵馬都統，以管崇嗣副之，率英武、威遠兵及河西、河東鎭兵，繇邠寧、朔方、大同、橫野軍以趨范陽. 詔下，爲朝恩沮解. 明年，光弼敗邙山，失河陽. 又明年，河中亂，殺李國貞，太原戕鄧景山. 朝廷憂二軍與賊合，而少年新將望輕不可用，遂以子儀爲朔方、河中、北庭、潞儀澤沁等州節度行營，兼興平、定國副元帥，進封汾陽郡王，屯絳州. 時帝已不豫，群臣莫有見者，子儀請曰："老牙受命，將死於外，不見陛下，目不瞑." 帝引至臥內，謂曰："河東事一以委卿." 子儀嗚咽流涕. 賜御馬、銀器、雜彩，別賜絹布九萬. 子儀至屯，誅首惡王元振等數十人，太原辛雲京亦治害景山者，諸鎭皆惕息.

代宗立，程元振自謂於帝有功，忌宿將難制，離構百計. 因罷子儀副元帥，加實戶七百，爲肅宗山陵使. 子儀惧讒且成，盡哀代宗所賜詔敕千餘篇上之，因自明. 詔曰："朕不德，詒大臣憂，朕甚自愧，自今公毋有疑." 初，帝與子儀平兩京，同天下憂患，至是悔悟，眷禮彌重.

時史朝義尙盜洛，帝欲使副雍王，率師東討，爲朝恩、元振交訾之，乃止. 會梁崇義據襄州叛，僕固懷恩屯汾州，陰召回紇、吐蕃寇河西，殘涇州，犯奉天、武功，遽拜子儀爲關內副元帥，鎭咸陽. 初，子儀自相州罷歸京師，部曲離散，逮承詔，麾下才數十騎，驅民馬補行隊. 至咸陽，虜已過渭水，幷南山而東，天子跳幸陜. 子儀聞，流涕，董行營還京師. 遇射生將王獻忠以彀騎叛，劫諸王欲奔虜，子儀讓之，取諸王送行在. 乃率騎南收兵，得武關防卒及亡士數千，軍浸完. 會六軍將張知節迎子儀洛南，大閱兵，屯商州，威

震關中. 乃遣知節率烏崇福、羽林將長孫全緒爲前鋒, 營韓公堆, 擊鼓歡山, 張旗幟, 夜叢萬炬, 以疑賊. 初, 光祿卿殷仲卿募兵藍田, 以勁騎先官軍爲游弈, 直度滻, 民紿虜曰："郭令公來." 虜惧. 會故將軍王甫結俠少, 夜鼓朱雀街, 呼曰："王師至！" 吐蕃夜潰. 於是遣大將李忠義屯苑中, 渭北節度使王仲升守朝堂, 子儀以中軍繼之. 射生將王撫自署京兆尹, 亂京城, 子儀斬以徇. 破賊書聞, 帝以子儀爲京城留守.

自變生倉卒, 賴子儀復安, 故天下皆咎程元振, 群臣數論奏. 元振惧, 乃說帝都洛陽, 帝可其計. 子儀奏曰：

雍州古稱天府, 右隴、蜀, 左崤、函, 襟馮終南、太華之險, 背負清渭、濁河之固, 地方數千里, 帶甲十餘萬, 兵强士勇, 眞用武之國, 秦、漢所以成帝業也. 後或處而泰、去而亡者不一姓, 故高祖先入關定天下, 太宗以來居洛陽者亦鮮. 先帝興朔方, 誅慶緒, 陛下席西土, 戮朝義, 雖天道助順, 亦地勢則然. 比吐蕃馮陵而不能抗者, 臣能言其略. 夫六軍皆市井人, 竄虛名, 逃實賦, 一日驅以就戰, 有百奔無一前；又宦竪掩迷, 庶政荒奪, 遂令陛下旁徨暴露, 越在陝服. 斯委任失人, 豈秦地非良哉！今道路流言, 不識信否, 咸謂且都洛陽. 洛陽自大盜以來, 焚埃略盡, 百曹榛荒, 寰服不滿千戶, 井邑如墟, 豺狼群嗥；東薄鄭、汴, 南界徐, 北綿懷、衛及相, 千里蕭條, 亭舍不烟, 何以奉萬乘牲餼、供百官次舍哉？且地狹厄, 裁數百里, 險不足防, 適爲鬥場. 陛下意者不以京畿新罹剽蹂, 國用不足乎？昔衛爲狄滅, 文公廬於曹, 衣大布之衣, 冠大帛之冠, 卒復舊邦, 況赫赫天子, 躬儉節用, 寧爲一諸侯下哉？ 臣願陛下斥素餐, 去冗食, 抑閹寺, 任直臣, 薄征弛役, 恤隱撫鰥, 委宰相以簡賢任能, 付臣以訓兵御侮, 則中興之功, 日月可冀. 惟時邁亟還, 見宗廟, 謁園陵, 再造王家, 以幸天下.

帝得奏, 泣謂左右曰："子儀固社稷臣也, 朕西決矣." 乘輿還, 子儀頓首請罪, 帝勞曰："用卿晚, 故至此." 乃賜鐵券, 圖形凌煙閣.

僕固懷恩縱兵掠幷、汾屬縣, 帝患之, 以子儀兼河東副元帥、河中節度使, 鎮河中. 懷恩子瑒屯榆次, 爲帳下張惟岳所殺, 傳首京師, 持其衆歸子儀. 懷恩惧, 委其母走靈州. 廣德二年, 進太尉, 兼領北道邠寧、涇原、河西通和吐蕃及朔方招撫觀察使. 辭太尉不拜. 懷恩誘吐蕃、回紇、党項數十萬入寇, 朝廷大恐, 詔子儀屯奉天. 帝問計所出, 對曰："無能爲也. 懷恩本臣偏將, 雖剽果, 然素失士心. 今能爲亂者, 詬思歸之人, 劫與俱來, 且皆臣故部曲, 素以恩信結之, 彼忍以刃相向乎？" 帝曰："善." 虜寇邠州, 先驅至奉天, 諸將請擊之. 子儀曰："客深入, 利速戰. 彼下素德我, 吾緩之, 當自携貳." 因下令："敢言戰者斬！" 堅壁待之, 賊果遁.

子儀至自涇陽, 恩賚崇縟, 進拜尚書令, 懇辭, 不聽. 詔趣詣省視事, 百官往慶, 敕射生五百騎執戟寵衛. 子儀確讓, 且言："太宗嘗踐此官, 故累聖曠不置員, 皇太子爲雍王, 定關東, 乃得授, 渠可猥私老臣, 隳大典？且用兵以來, 僭賞者多, 至身兼數官, 冒進亡耻. 今凶醜略平, 乃作法審官之時, 宜從老臣始." 帝不獲已, 許之, 具所以讓付史官. 因

賜美人六人，從者自副，車服帷帟咸具.

永泰元年， 詔都統河南道節度行營， 復鎭河中. 懷恩盡說吐蕃、回紇、党項、羌、渾、奴剌等三十萬，掠涇、邠，躪鳳翔，入醴泉、奉天，京師大震. 於是帝命李忠臣屯渭橋，李光進屯雲陽，馬璘、郝廷玉屯便橋，駱奉先、李日越屯屋盌，李抱玉屯鳳翔，周智光屯同州，杜冕屯坊州，天子自將屯苑中. 急召子儀屯涇陽，軍才萬人. 比到，虜騎圍已合，乃使李國臣、高升、魏楚玉、陳回光、朱元琮各當一面，身自率鎧騎二千出入陣中. 回紇怪問， ：“是謂誰？” 報曰：“郭令公.” 警曰：“令公存乎？ 懷恩言天可汗棄天下，令公卽世，中國無主，故我從以來. 公今存，天可汗存乎？” 報曰：“天子萬壽.” 回紇悟曰：“彼欺我乎！” 子儀使諭虜曰：“昔回紇涉萬里，戡大慈，助復二京，我與若等休戚同之. 今乃棄舊好，助叛臣，一何愚！ 彼背主棄親，於回紇何有？” 回紇曰：“本謂公云亡，不然，何以至此. 今誠存，我得見乎？” 子儀將出，左右諫：“戎狄野心不可信.” 子儀曰：“虜衆數十倍，今力不敵，吾將示以至誠.” 左右請以騎五百從，又不聽. 卽傳呼曰：“令公來！” 虜皆持滿待. 子儀以數十騎出， 免冑見其大酋曰：“諸君同艱難久矣，何忽亡忠誼而至是邪？” 回紇舍兵下馬拜曰：“ 果吾父也.” 子儀卽召與飲，遺錦彩結歡，誓好如初. 因曰：“吐蕃本吾舅甥國，無負而來，棄親也. 馬牛被數百里，公等若倒戈乘之，若俯取一芥，是謂天賜，不可失. 且逐戎得利，與我繼好，不兩善乎？” 會懷恩暴死，群虜無所統一，遂許諾. 吐蕃疑之，夜引去. 子儀遣將白元光合回紇衆追躡，大軍繼之，破吐蕃十萬於靈臺西原，斬級五萬，俘萬人，盡得所掠士女牛羊馬橐駝不勝計. 遂自涇陽來朝，加實封二百戶，還河中.

大曆元年，華州節度使周智光謀叛，帝間道以蜡書賜子儀，令悉軍討之. 同、華將吏聞軍起，殺智光，傳首闕下. 二年，吐蕃寇涇州，詔移屯涇陽. 邀戰於靈州，敗之，斬首二萬級. 明年，還河中. 吐蕃復寇靈武，詔率師五萬屯奉天，白元光破虜於靈武. 議者以吐蕃數爲盜，馬璘孤軍在邠不能支，乃以子儀兼邠寧慶節度使，屯邠州，徙璘爲涇原節度使. 回紇赤心請市馬萬匹，有司以財乏，止市千匹. 子儀曰：“回紇有大功，宜答其意，中原須馬，臣請內一歲奉，佐馬直.” 詔不聽，人許其忠.

九年，入朝，對延英，帝與語吐蕃方强，慷慨至流涕. 退，上書曰：

朔方，國北門，西御犬戎，北虞獫狁，五城相去三千里. 開元、天寶中，戰士十萬，馬三萬匹，僅支一隅. 自先帝受命靈武，戰士從陛下征討無寧歲. 頃以懷恩亂，痍傷雕耗，亡三分之二，比天寶中止十之一. 今吐蕃兼吞河、隴，雜羌、渾之衆，歲深入畿郊，勢逾十倍，與之角勝，豈易得邪？ 屬者虜來，稱四節度，將別萬人，人兼數馬. 臣所統士不當賊四之一，馬不當賊百之二，外畏內惧，將何以安？ 臣惟陛下制勝，力非不足，但簡練不至，進退未一，時淹師老，地廣勢分. 願於諸道料精卒滿五萬者，列屯北邊，則制勝可必. 竊惟河南、河北、江淮大鎭數萬，小者數千，殫屈稟給，未始搜擇. 臣請追赴闕中，勒步隊，示金鼓，則攻必破，守必全，長久之策也.

又自陳衰老，乞骸骨．詔曰：“朕終始倚賴，未可以去位．”不許．

德宗嗣位，詔還朝，攝冢宰，充山陵使，賜號“尚父”，進位太尉、中書令，增實封通前二千戶，給粮千五百人，芻馬二百匹，盡罷所領使及帥．建中二年，疾病，帝遣舒王到第傳詔省問，子儀不能興，叩頭謝恩．薨，年八十五．帝悼痛，廢朝五日．詔群臣往吊，隨喪所須，皆取於官．贈太師．陪葬建陵．及葬，帝御安福門，哭過其喪，百官陪位流涕．賜謚曰忠武，配饗代宗廟廷．著令，一品墳崇丈八尺，詔特增丈，以表元功．

子儀事上誠，御下恕，賞罰必信．遭幸臣程元振、魚朝恩短毀，方時多虞，握兵處外，然詔至，卽日就道，無纖介顧望，故讒間不行．破吐蕃靈州，而朝恩使人發其父墓，盜未得．子儀自涇陽來朝，中外惧有變，及入見，帝唁之，卽號泣曰：“臣久主兵，不能禁士殘人之墓，人今發先臣墓，此天譴，非人患也．”朝恩又嘗約子儀修具，元載使人告以軍容將不利公．其下衷甲願從，子儀不聽，但以家僮十數往．朝恩曰：“何車騎之寡？”告以所聞．朝恩泣曰：“非公長者，得無致疑乎？”田承嗣傲狠不軌，子儀嘗遣使至魏，承嗣西望拜，指其膝謂使者曰：“茲膝不屈於人久矣，今爲公拜．”李靈耀據汴州，公私財賦一皆遏絶，子儀封幣道其境，莫敢留，令持兵衛送．麾下宿將數十，皆王侯貴重，子儀頤指進退，若部曲然．幕府六十餘人，後皆爲將相顯官，其取士得才類如此．與李光弼齊名，而寬厚得人過之．子儀歲入官俸無慮二十四萬緡．宅居親仁里四分之一，中通永巷，家人三千相出入，不知其居．前後賜良田、美器、名園、甲館不勝紀．代宗不名，呼爲大臣．以身爲天下安危者二十年，校中書令考二十四．八子七婿，皆貴顯朝廷．諸孫數十，不能盡識，至問安，但頷之而已．富貴壽考，哀榮終始，人臣之道無缺焉．

子曜、旰、晞、晛、晤、曖、曙、映，而四子以才顯．

曜，性沉靜，資貌瑰傑．累從節度府辟署，破虜有功，爲開陽府果毅都尉．至德初，推子儀功，授衛尉卿，累進太子詹事、太原郡公．子儀專征伐，曜留治家事，少長無閑言．諸弟或飾池館，盛車服，曜獨以朴簡自處．子儀罷兵，遷太子少保，昆弟六人，共制拜官．子儀薨，以遺命簿上四朝所賜名馬珍物，德宗復賜之，乃悉散諸弟．居喪以禮，疾甚，或勸茹葱薤，終不屬口．後盧杞秉政，忌勛族，子儀婿太僕卿趙縱、少府少監李洞清、光祿卿王宰皆以次得罪．奸人幸其危，多論奪田宅奴婢，曜大恐，獨宰相張鎰力保護．德宗稍聞之，詔有司曰：“尚父子儀有大勛力，保乂王家，嘗誓山河，琢金石，許宥十世．前日其家市田宅奴婢，而無賴者以尚父歿，妄論奪之，自今有司毋得受．”建中三年，卒，贈太子太傅，謚曰孝．

初，曜襲代國公，食二千戶．貞元初，詔減半以封晞、曖、映、曙，人二百五十戶．未幾，復詔四人各減五十戶，封曜子鋒、晤子鏞各百戶云．

晞，善騎射，從征伐有功，復兩京，戰最力，出奇兵破賊，累進鴻臚卿．河中軍亂，子儀召首惡誅之，其支黨猶反仄，晞選親兵晝夜警，以備非常，奸人不得發．以功拜殿中監．吐蕃、回紇入寇，加御史中丞，領朔方軍援邠州，與馬璘合軍擊虜，破之．虜復來，陣涇

水北，子儀遣晞率徒兵五千、騎五百襲虜．晞以兵寡不進，須暮，賊半濟，乃擊，斬首五千級．加御史大夫，子儀固讓，乃止．居父喪，值朱泚亂，南走山谷．賊舁致之，欲汚以官，佯暗不答；賊露兵脅之，不動．數以城中事貽書李晟．既而奔奉天．天子還，改太子賓客．子鋼，從朔方杜希全幕府．希全檄爲豊州刺史，晞怜其弱不任事，丐罷．德宗遣使者召鋼，鋼疑得罪，挺身走吐蕃，不納．希全執送京師，賜死．晞坐免，尋復太子賓客．累封趙國公．卒，贈兵部尚書．孫承嘏．

承嘏，字復卿，幼秀異，通《五經》．元和中，及進士第，累遷起居舍人．居母喪，以孝聞．太和六年，爲諫議大夫，言政事得失．文宗以鄭注爲太僕卿，承嘏极論其非，注頗惧．進給事中．俄出爲華州刺史，給事中盧載還詔書，且言："承嘏數封駁稱職，宜在禁闥．"帝曰："朕謂久次，欲优其稍入耳．"乃復留給事中．時江淮旱，用度不支，詔宰相分領度支、戶部．承嘏言："宰相調和陰陽，安黎庶．若使閱視簿書，校緡帛，非所宜．"帝順納．遷刑部侍郎．帝嘗稱其儒素，無貴驕氣，不類勛家．每進對，恩接備厚．方大任用，會卒．家無餘貲，親友爲辦喪祭．贈吏部尚書．

曖，字曖，以太常主簿尚升平公主．曖年與公主侔，十餘歲許昏．拜駙馬都尉，試殿中監，封清源縣侯，寵冠戚里．大曆末，檢校左散騎常侍．建中時，主坐事，留禁中．朱泚亂，逼署曖官，辭以居喪被疾．既而與公主奔奉天．德宗嘉之，釋主罪，進曖金紫光祿大夫，賜實封五十戶．尋遷太常卿．貞元三年，襲代國公．卒，年四十八，贈尚書左僕射，初，曖女爲廣陵郡王妃．王卽位，是爲憲宗．妃生穆宗．穆宗立，尊妃爲皇太后，贈曖太傅．四子：鑄、釗、鏦、銛．鑄襲封．

釗，長七尺，方口豊下．代宗朝，以外孫爲奉禮郎．累官至左金吾大將軍，改檢校工部尚書，爲邠寧節度使，入爲司農卿．憲宗寢疾，宦竪或妄議廢立者．穆宗問計於釗，答曰："殿下爲太子，當旦夕視膳，何外慮乎？"時稱得元舅體．穆宗卽位，檢校戶部尚書兼司農卿．俄爲河陽三城節度使．徙河中尹，領晉絳慈隰節度．敬宗立，召拜兵部尚書，又帥劍南東川．太和中，南蠻寇蜀，取成都外郛，杜元穎不能御，詔釗兼領西川節度．未行，蠻衆已略梓州．州兵寡，不可用．釗貽書譙蠻首𥫱巔以侵叛意．𥫱巔曰："元穎不自守，數侵吾圉，我以是報．"乃與修好，約無相犯．天子嘉之，卽拜西川節度使．以疾請代，爲太常卿，卒，贈司徒．

子仲文、仲恭、仲詞．開成二年，詔仲文襲太原郡公．給事中盧弘宣奏："劍妻沈，公主女，代宗皇帝外孫，其子仲詞尚饒陽公主．仲文冒嫡不應襲．使仲文承嫡，則沈當黜，且仲詞亦不得尚主．"乃詔仲詞檢校殿中少監、駙馬都尉，襲封．而仲文以太皇太後故，置不問．仲恭歷詹事府丞，亦尚金堂公主．

鏦，字利用，尚德陽郡主．詔裴延齡爲主營第長興里．順宗立，主進封漢陽公主，擢鏦檢校國子祭酒、駙馬都尉．自景龍後，外戚多爲檢校官，不治事．宰相遷其才，不當以外戚廢，乃拜右金吾將軍，封太原郡公．恭遜折節，不以富貴加人．性周畏，不立赫赫名．

有諫於上，退必毁稿，家人子弟無知者．別墅在都南，尤勝埒，穆宗嘗幸之，置酒极歡．改太子詹事，充閑廄宮苑使．卒，贈尚書左僕射．

銛，性和易，累爲殿中監，尚西河公主．鏦卒，代爲太子詹事、宮苑閑廄使．長慶三年，暴卒．太後遣使按問發疾狀，久乃解．初，西河主降沈氏，生一子，銛無嗣，以沈氏子嗣．

曙，代宗朝累官司農卿．德宗幸奉天，曙方領家兵獵苑北，聞蹕至，伏謁道左，遂從乘輿入駱谷．霖雨涂潦，衛兵或異語．帝召謂曰："朕不德而苦公等，宜執朕送朱泚，以謝天下．" 諸將皆感泣曰："願死生從陛下．" 時曙與功臣子李升、韋清、令狐建、李彦輔被甲請見，言曰："南行路險，且虞奸變．臣等世蒙恩，今相誓，願更挾帝馬．"許之．帝還，曙、清擢金吾大將軍，餘幷爲禁軍將軍．曙終祁國公．

子儀母弟幼明，性謹願無過，拙於武，喜賓客．以子儀故，終少府監，贈太子太傅．

子昕，肅宗末爲四鎭留後．關、隴陷，不得歸，朝廷但命官遙領其使．建中二年，昕始與伊西、北庭節度使曹令忠遣使入朝．德宗詔曰："四鎭、二庭，統西夏五十七蕃十姓部落，國朝以來，相與率職．自關、隴失守，王命阻絶，忠義之徒，泣血固守，奉遵朝法，此皆侯伯守將交修共治之效，朕甚嘉之．令忠可北廷大都護、四鎭節度留後，賜氏李，更名元忠．昕可安西大都護、四鎭節度使．諸將吏超七資叙官"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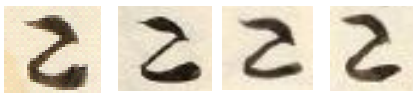
贊曰：天寶末，盜發幽陵，外阻內訌．子儀自朔方提孤軍，轉戰逐北，誼不還顧．當是時，天子西走，唐祚若贅旒，而能輔太子，再造王室．及大難略平，遭讒甚，詭奪兵柄，然朝聞命，夕引道，無纖介自嫌．及被圍涇陽，單騎見虜，壓以至誠，猜忍沮謀．雖唐命方永，亦由忠貫日月，神明扶持者哉．及光弼等畏逼不終，而子儀完名高節，爛然獨著，福祿永終，雖齊桓、晋文比之爲褊．唐史臣裴垍稱："權傾天下而朝不忌，功盖一世而上不疑，侈窮人欲而議者不之貶．" 嗚呼！垍誠知言．其子孫多以功名顯，盖盛德後云．(『二十四史全譯・新唐書(全八冊)』第六冊，世紀出版集團・漢語大詞典出版社 2004年，3215-3230쪽)

이상의『신당서』원문을 '곽ᄌᆞ의뎐'과 대조하면, 곽자의의 전함과 '贊曰'은 완역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곽자의 아들의 전함은 주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벼슬만 간단히 소개하였을 뿐이다. 이 중에서 섬(銛)은 '곽ᄌᆞ의뎐'에 "뎐듕감을ᄒᆞ니라"고 하였는데,『신당서』원문에 殿中監은 보이지 않고 '鏦卒, 代爲太子詹事、宮苑閑廄使'라 하였다. 또한 "희ᄂᆞᆫ이빅호롤봉ᄒᆞ고돌은샹세오"라고 하였는데, 희(晞)는『신당서』원문에 '封晞、曖、映、曙, 人二百五十戶'라 하였고, 불(昢)의 벼슬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칠ᄌᆞ영은복애오'라 하였는데,『신당서』원문에 영(映)이 僕射를 지냈다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원문과 일치한다.

3. 서예 특징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효의왕후 곤전어필에 나타난 서예는 서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의왕후의 궁서체, 김기후의 한글 서체, 김기상의 한문 해서의 세 가지 서체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서체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궁서체는 17세기 중반 이후 한글 필사체를 궁중 인물들이 쓰기 시작함으로부터 '궁체'라는 독특한 서체 형성의 물꼬를 열어주었고, 이후 18세기 영조·정조 시기(1724-1800)에 이르러 한글소설·장편가사·한글편지 등의 융성에 따라 한글 쓰기가 확산하였다. 효의왕후 곤전어필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궁서체이다. 글자는 한글의 옛 자모 ·(ᄂᆞᄉᆞᄒᆞᆯ·ᄅᆞᆯ)를 비롯하여 ㅺ(ᄭᅵ·ᄭᅮ), ㅽ(ᄯᅩ·ᄯᅡ·ᄯᅢ), ㅶ(ᄲᅡ·ᄲᅥ·ᄲᅳ), ㅾ(ᄊᆞᆯ·ᄊᆞᄇᆞ·ᄊᆡ), ㆄ(ᄑᆞ·피), ㅑ(샹·쟝), ㅖ(뎨·셰), ㅛ(쇼·툥), ㅠ(쉬·듕) 등을 사용하였다. 자형은 장방형이고, 자간보다 행간이 넓어 종세(縱勢)의 필세로 시원하고 유창함을 나타내었다. 글자는 간혹 한두 글자를 연결하여 행서 필의가 나타나 더욱 유창함을 나타내었고, '고'자는 예외 없이 작은 형체이면서 위아래의 두 필획은 굵고 이를 연결하는 것은 가는 실선의 견사(牽絲)를 운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음은 궁서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ㅇ·ㅣ'의 서사 기법을 살펴보겠다.


고

'ㅇ'은 초성일 경우 위의 뾰족한 가는 실선을 축으로 삼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 반원같이 둥글게 한 다음, 다시 필획을 바꾸어 오른쪽 위에서 조금 사이를 띄어서 남은 반원을 왼쪽을 향해 둥글게 하면서 가운데 혹은 조금 오른쪽에서 맺음을 하였다. 'ㅇ'의 위치는 초성일 경우 대체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ㅑ'와 결합할 경우는 조금 위에다 위치하였으며, 'ㅕ·ㅓ·ㅖ·ㅣ'와 결합할 경우는 대체로 왼쪽 중앙에 위치하였다. 종성일 경우에는 위의 뾰족한 실선이 없는 둥근 형체로 'ㅕ·ㅏ·ㅑ·ㅣ'와 결합할 경우 가는 실선의 견사를 띠며 연결하였다. 궁서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ㅣ' 모음은 세 가지 형체를 나타내고 있다. 모두 시작과 중간 과정은 같으나 끝부분의 변화에서 하나는 마치 바늘을 매단 것처럼 곧바로 내려긋는 현침(懸針)이고, 둘은 왼쪽으로 향하는 것이며, 셋은 중심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는 'ㅣ'가 연결 없이 단독으로 쓸 때 많이 나타나고, 둘째의 경우는 종성과 연결하거나 다음 글자와 연결할 때 주로 나타나며, 셋째의 경우는 특히 'ㅏ'가 다음 글자나 종성과 연결할 때 흔히 보인다. 셋째의 경우로 말미암아 전체 글씨가 오른쪽으로 향해 약간 기울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현상은 대개 한문 서예를 많이 연마하지 않았거나 혹은 서사할 때 두 눈의 중심이 글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ㅣ' 모음에 치우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효의왕후 곤전어필의 전체적 특징은 비록 제2-82면에 걸쳐 만셕군뎐·곽ᄌᆞ의뎐·발문으로 나누어 서사하였지만, 전체를 하루에 쓸 수 있는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ㅇ’의 변화

초성일 경우

‘ㅏ’와 결합

‘ㅕ·ㅓ·ㅖ·ㅔ·ㅏ·ㅣ’와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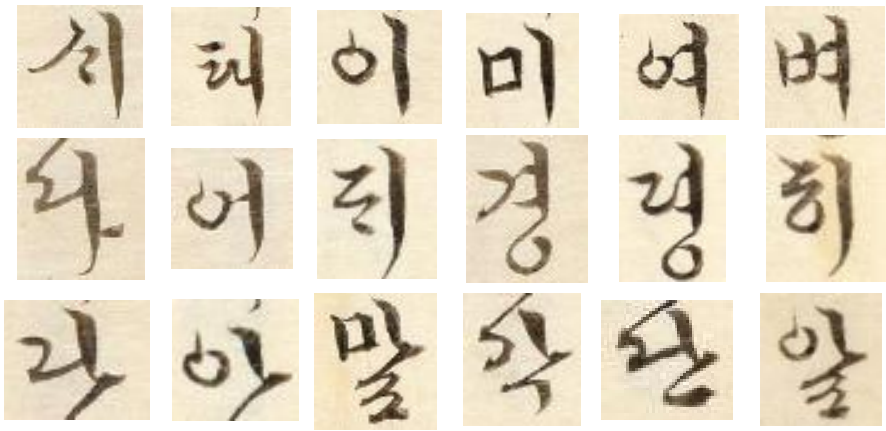
종성일 경우

‘ㅣ’의 변화

현침(懸針)

왼쪽으로 향함

오른쪽으로 향함



어느 면을 보더라도 하나같이 일정함을 나타내며 한 기운으로 꿰뚫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일관(首尾一貫)한다는 것이다. 글씨는 힘차고 굳세며,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당시 나이 40대 초반임을 고려하면, 어려서부터 각고의 연마와 노력의 결정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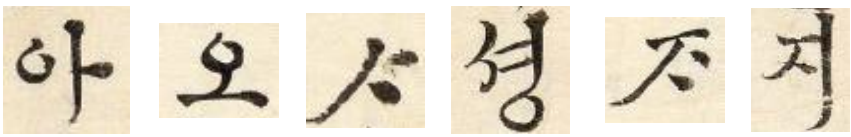
김기후의 발문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김기후 자신이 쓴 것이냐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서체를 무엇이라 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전자의 의문은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쓴 글에서 ‘臣 基厚權識 臣 基常謹書’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의 가로획은 기필에서 누에머리 형상과 수필에서 말발굽 형상의 마제잠두(馬蹄蠶頭)가 분명하며, 전체적 필획은 굵고 필세는 힘차며, 다소 거친 필치는 김기상이 쓴 한문 서예와는 판이하므로 김기후가 쓴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서체는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자체(字體) 또는 1736년(영조 12)의 활자본『어제여사서언해(御製女四書諺解)』를 본받은 고체(古體)를 바탕으로 삼고, 여기에 한문의

가로획 비교

김기후(金基厚)

김기상(金基常)

한문의 필법

궁서체의 필의 

필법을 섞어 궁서체의 필의로 쓴 서체이다. 한문의 필법은 점과 '一・丨'에서 '一'의 마제잠두와 '丨'를 굵게 하면서 끝부분은 이슬을 드리운 수로(垂露)로 서사한 곳에서 알 수 있고, 궁서체의 필의는 필획의 연결 부분과 'ㅇ・ㅅ・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어느 특정한 서체로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형체는 한글서예보다 한문서예를 연마한 남성이 한글을 서사할 때 흔히 보인다.

김기후는 자신의 한글 발문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이를 김기상이 해서로 쓴 서체는 당나라 유공권(柳公權, 778-865)의 <현비탑비(玄秘塔碑)>를 본받았다. 유공권은 안진경의 웅건한 필획과 구양순의 긴밀한 결구를 결합하였다. 김기후의 글씨는 유공권의 필법을 정확하게 본받았고 필획은 섬세하면서 깨끗하며, 뾰족한 필봉으로 서사하여 맑은 정취를 나타내었다. 유공권의 특징은 가로획은 가늘고 세로획은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굵게 하여 입체감을 나타내었으며, 서풍은 질박하면서도 굳세고 활발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비해 김기후는 단지 겉모습만 본받았을 뿐 이러한 내면의 특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으니, 단정하고 정성스러운 선비의 글씨라 하겠다.

ㅇ 문헌자료

- 『史記・列傳第四十三・石奮』卷一百三, 『漢書・列傳第十六・萬石君石奮』卷四十六
- 『舊唐書・列傳第七十・郭子儀』卷一百二十, 『新唐書・列傳第六十二・郭子儀列傳』卷一百三十七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총서1 김씨부인한글상언 정조어필한글편지첩 곤전어필』, 국립한글박물관 2014.
・곽노봉,『서체』, 다운샘 2015.

ㅇ 기　　타

국립한글박물관은 2013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

□

ㅇ 내용 및 특징

『효의왕후 곤전어필』은 효의왕후가「만석군석분」과「곽자의열전」을 조카 김종선에게 번역하게 하여 1794년에 손수 서사한 한글 서첩이다. 말미에 효의왕후가 이를 쓰게 된 동기와 쓴 목적 등을 적은 발문과 김기후의 하사에 대한 감개를 적은 발문이 있어 연혁과 유래의 더없는 증빙이 되고 있다.

이 어필서첩은 크기는 23.0 × 16.5㎝이고 2~79면의 본문, 80~82면 왕후의 발문, 84~90면 한글 및 한문 발문 등 모두 9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교하게 제작된 오동나무 상자에 잘 보관되어 보존상태가 매우 좋다.

□

ㅇ 현　　상

효의왕후[31] '坤殿御筆'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2014년에 간행한 『소장자료총서 1』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한서』에 실려 있는 '만석군석분(萬石君石奮)'과 『신당서』에 실려 있는 '곽자의열전(郭子儀列傳)'을 조카 김종선이 한글로 번역하였고, 효의왕후가 한글로 필사하였으며 제첨은 '坤殿御筆'로 되어있다. 이 필사본의 말미에는 효의왕후가 이 소설을 친히 필사하게 된 동기와 의의를 적은 발문과 본인의 친정인 청풍 김씨 가문에 하사하게 된 경위를 적은 김기후의 한글과 한문 발문, 그리고 한문 발문의 필사는 김기상이 썼노라고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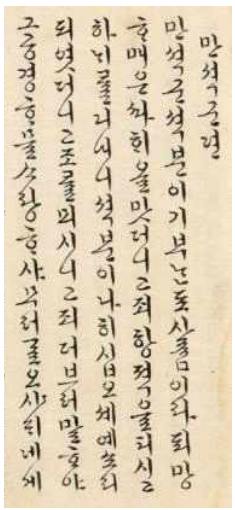
'坤殿御筆'의 서체는 흘림으로 소설의 내용은 한글로 필사하였고 한 면에 10행 배열로 14-19 글자까지 행마다 글자의 형태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필사하였다.

31) 효의왕후(1753-1821)는 정조의 비로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아버지는 좌참찬 김시묵(金時默),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증찬성 홍상언(洪商彦)의 딸이다. 1762년(영조 38)에 세손빈으로 책봉되어 어의동 본궁에서 가례를 올렸고, 1776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진봉(進封)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여 시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지성으로 모셨고, 자녀를 두지 못한 채 창경궁 자경전에서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일생을 검소하게 보냈으며, 생전에 여러 차례 존호가 올려 졌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시호는 예경자수효의왕후(睿敬慈粹孝懿王后)이고, 능호는 건릉(健陵)으로 경기도 화성군 안룡면 안녕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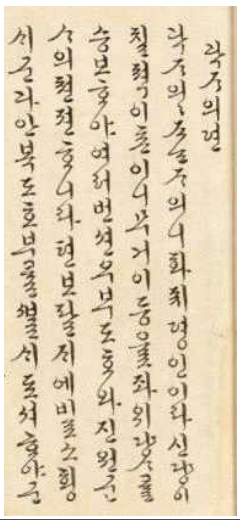
坤殿御筆 앞표지와 제첨

坤殿御筆을 보관한 나무책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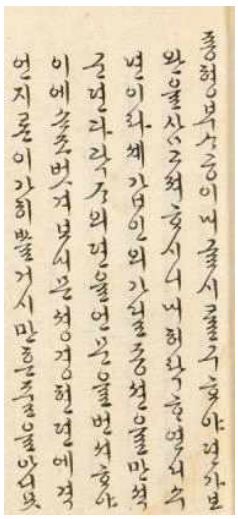
효의왕후 坤殿御筆 뒤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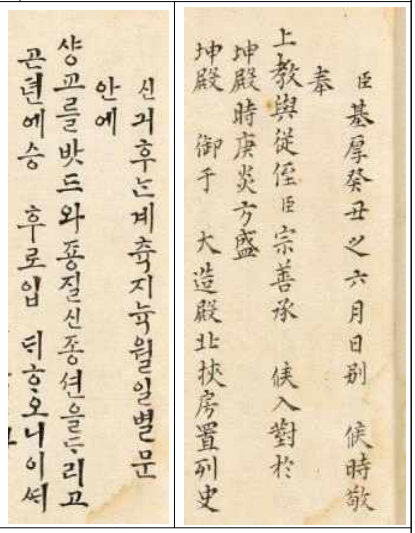
만석군전



곽자의전



효의왕후 발문



김기후 한글과 한문발문

한 행의 글자 크기는 비교적 작은 글씨로 행마다 다르지만 대략 1.5㎝×0.5㎝(세로×가로)의 크기이다. 김기후의 발문은 정자로 필사하였고 김기상이 쓴 김기후의 한문 발문은 한자 해서로 적혀 있다.

장황은 23.0㎝×16.5㎝(세로×가로)이며 붉은 실을 이용하여 오침(伍針)으로 선장(線裝)하였다. 표지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 꽃이 있는 비단으로 싸여 있고 제첨 글씨의 서체는 한자 해서로 쓰여 있으며 글씨의 크기는 대략 1.6㎝×1.5㎝이다.

‘坤殿御筆’은 나무책갑에 담겨있는데 겉에는 ‘傳家寶藏’이라는 글자와 ‘子子孫孫其永寶藏’이라는 인문(印文)이 새겨져 있다.

‘坤殿御筆’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나 뒤표지 왼쪽 하단에 비단이 해어져서 면지가 보인다.

필사본의 구성을 보면 표지와 면지로 시작하여 『만석군전』은 3면-18면, 『곽자의전』은 19면-80면, 효의왕후가 이 두 책을 한 권에 담아 필사하게 된 동기와

의의는 81면-83면 적었다. 이후 84면은 면지, 85면-88면은 김기후가 쓴 한글 발문이며 89면-91면까지는 한문 발문이다. 이에 대한 글씨는 김기상이 썼다. 92면-95면까지 면지이며 다음이 뒤표지이다.

ㅇ 내용 및 특징

효의왕후 '坤殿御筆'은 언문을 필사한 18세기 중요한 필사본 사료로서 당시 언문의 특성과 서체를 통해 국문학적, 서예사적,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자료이다. 따라서 '坤殿御筆'의 간단한 개요 및 전체 구성과 내용 분석, 서사기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개요 및 전체 구성

'坤殿御筆'이 필사된 18세기 후반의 시대 상황을 보면 정조(1752-1800)는 창덕궁 북원에 왕실 연구기관인 규장각을 신설하고 경사토론(經史討論) 및 서적 간행에 힘을 썼다. 교서관(校書館)은 규장각 외각으로 편입하고 주자소(鑄字所)를 두는 등 영조의 인쇄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조선후기 인쇄정책의 찬란한 꽃을 피웠다.[32] 또한 이 시기 문자사용의 특징은 한문이 혼용된 환경에서 점차적으로 한글 전용으로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당시 김노경, 김윤겸과 같은 사대부들도 한글 전용으로 편지를 필사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한글 필사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효의왕후의 '坤殿御筆'은 필사자가 본인이라는 발문이 있다는 점과 당시 왕후가 소설을 필사했다는 점 그리고 전혀 훼손이 되지 않고 보존이 잘 되어있어서 매우 희귀하고 소중한 역사적, 서예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효의왕후가 이 소설을 필사하게 된 동기는 사촌 오빠인 김기후[37]가 효의왕후의 친필 글씨를 김씨 집안의 가보로 삼고자하는 뜻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예의와 공경'을 신념으로 하는 석분이 주인공인 『萬石君石奮』과 '복록이나 부귀'를 누렸던 곽자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郭子儀列傳』을 선택하여 김종선에게 번역하게 하였다. 이후 효의왕후가 곤전에서 정성스럽게 필사하여 얻은 텍스트는 그 뜻을 기려 소중하게 보관하여 후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 필사본의 전체 구성과 내용을 보면 대략 아래 표와 같다.

효의왕후 坤殿御筆의 전체 구성

전체 구성	필사자	서체	시기	전체줄거리
萬石君石奮, 郭子儀列傳	번역자 김종선		1793	김종선이 『한서』에 수록된 '萬石君石奮'[33]과 『신당서』에 수록된 '郭子儀列

32) 예술의 전당, 『조선시대 한글서예』 106쪽, 1994 미진사.

전체 구성	필사자	서체	시기	전체줄거리
				傳'을 한글로 번역
나무책갑(여닫이 뚜껑)		해서		'坤殿御筆'을 보관했던 보관함으로 '傳家寶藏'이라는 글자와 '子子孫孫其永寶藏'이라는 인문(印文)이 새겨져 있다. 이는 대대로 아주 소중히 여겨 잘 보관해 두기를 바라는 김씨 가문의 뜻이 담겨져 있다.
坤殿御筆		해서		앞표지에 '坤殿御筆'이라는 제첨이 있음
만석군전	효의왕후	흘림	1793-1794	한나라 경제 때 벼슬을 하였던 석분(石奮)[34]의 전함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사람들을 공경하고 신중한 태도로 예의를 지켰고, 자식들을 잘 교육하여 아들 넷이 모두 관직에 올라 녹봉이 만석에 이를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내용
곽자의전[35]	효의왕후	흘림		당나라 무장 곽자의(郭子儀)[36]의 전함으로 안녹산의 난을 진압하고 토번(吐蕃)을 치는 데 공을 세워 분양군왕(汾陽郡王)에 봉해졌다는 내용
효의왕후 발문	효의왕후	흘림		사촌오빠 부사공의 청으로 갑인년(1794)에 조카 종선에게 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을 언문으로 번역시켜 손수 베껴 보낸다. 성현이 지은 여러 가지 책에는 격언과 지론이 많겠지만 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을 필사함에 마음을 다하는 것은 청풍 김씨가 대대로 어질고 후덕함을 이어가 질박하고 꾸밈이 적어 충성되고 소박하여 도타운 것은 만석군을 배우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사양하여 물러남은 곽분양과 같으며 두 집의 복록을 김씨 한 가문에 모아우리 집안에 세세의 귀감이 되길 바라니 내가 쓰기를 잘하였다
김기후 한글발문	김기후	정자		김기후는 계축년(1793) 유월에 임금의 명으로 종선을 데리고 문안차 곤전에 입궐하여 인사를 여쭙는다. 이 때 왕비께서 대조전 북쪽 곁방에 역대 사기를 좌우에 벌여 놓으시고 붓과 벼루를 갖추어 친히 책을 옮겨 적으시니.....우러러 청하되 "명성황후의 친필이 제동 종가에 있으시되 대대로 전하는 보장이 되었사오니 대대로 이어나갈 거룩한 뜻으로 친필을 내리시면 집안에 자자손손 보배로 여겨 감상하고 간직할 것이니

전체 구성	필사자	서체	시기	전체줄거리
				이는 지금껏 없었던 성대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 곤전께서 신의 말씀을 들으시어 손수 쓴 글씨 1권을 내리시었다. 또한 이에 만분의 일이라도 우러러 닮아 충성스럽고 부지런함을 대대로 이어가게 된다면 이 한권의 책이 장차 문호를 창대하게 할 근본이 될 것이로다.
김기후 한문발문	김기상	해서		臣基厚權識 臣基常謹書
				신 기후가 기록하고 신 기상이 삼가 씀

김기후의 발문을 보면 계축년(1793) 유월에 이미 효의왕후는 소설을 필사 중이었고 나이는 40세였다.

33) 김기후의 발문을 보면 효의왕후가 사기열전을 펼쳐놓고 필사를 하고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를 보고 『사기』를 저본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곽노봉의 「효의왕후 곤전어필 지정조사보고서」의 7-10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석군던’은 한나라 석분(石奮)의 전기로 사마천의 『史記・列傳第四十三・石奮』 권 103과 반고의 『漢書・列傳第十六・萬石君石奮』 권 46에 전함이 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반고의 『한서』는 사마천의 『사기』를 근거하여 일부 단어를 바꾸거나 생략하고 때로는 문장을 더한 곳이 보인다. ‘만석군던’의 해석은 『한서』를 저본(底本)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증거는 먼저 『한서』의 원문을 소개한 뒤 『사기』와 다른 점을 비교하고, 다시 ‘만석군던’의 내용을 대조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고, 붉은 글자 아래에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해석하지 않았거나 생략한 곳이다.....이상에서 ‘만석군던’은 『한서』를 저본으로 삼은 완역임을 알 수 있다.

34) 만석군전에 나오는 석분(石奮 기원전 220-124)은 한나라 사람으로 건(建)・갑(甲)・을(乙)・경(慶) 등 4명의 아들이 있었다. 모두 행실이 착하고 효성스러우며 삼가고 신중해 관직이 2000석(二千石・지방장관)의 지위에 이르렀다. 이에 경제는 “석군(石君·석분)과 네 아들이 모두 2000석의 지위에 올랐으니 존귀와 총애가 마침내 그 가문에 다 모였구나.”라고 하였다. 그래서 석분을 만석군이라고 불렀다. 석분은 무제 원삭 5년(元朔, 기원전 12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후 효행・공경・예의・근검이 뛰어나 한나라 관리 선발의 기준이 되었다.

35)‘곽자의전’의 주인공인 곽자의는 조선 후기에 다수 유통되었던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곽자의의 활약상을 담은‘곽분양전’은 필사본・목판본・활자본으로도 출간되었다.

36) 곽자의(郭子儀, 697-781)는 당나라의 정치가・군사가로 화주정현, 지금의 섬서성 사람이다. 안사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명장 이광필(李光弼)과 함께 ‘이곽(李郭)’이라는 존칭으로 불렸다. 관료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장수를 누렸을 뿐 아니라 자손들 또한 번창하여 세속에서의 복을 마음껏 누린 인물로서 곽자의는 후대에 부귀공명의 상징이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곽자의의 삶을 병풍으로 형상화한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라는 병풍이 크게 유행했는데, 곽자의와 같은 부귀와 장수를 염원하는 길상의 의미가 담긴 공예품으로서 현재 한국에 20점 정도의 「곽분양행락도」가 남아 전하고 있다.

37) 김기후(金基厚, 1747-1830)는 효의왕후의 사촌 오빠이다. 조선후기 지돈녕부사・도총관・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의 아버지 김우명(金佑明)의 5대손이다. 왕실과 인척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언행에 조심하여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궁궐 일을 관장하게 되자, 더욱 근신하여 영비(營費)를 추호도 낭비하지 않고 봉직에 전력을 다하였다. 1826년 노령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승진하였다가, 서만수(徐萬修)의 무고를 받아 외진 고을에 유폐된 지 수년 만에 별세하였다.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2. 서사기법의 특징

조선 후기의 여성들이 주로 보았던 교육서나 규방가사・소설・편지 등은 대부분 필사의 형태로 남아있다. 그만큼 한글의 필사는 당시 여성들의 어문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시 필사 문화를 보면 필사본의 말미에 종종 필사자의 후기나 첨기가 적혀 있다. 글씨를 익히거나 내용의 학습과 내용을 자세히 읽기 위한 필사 그리고 효의왕후와 같이 자신의 존재와 후대를 위한 마음을 필체를 통하여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필사의 의미는 인쇄문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필사문화라고 할 수 있다.

왕실에서 사용한 한글 전용의 형태는 1593(선조 26년) 9월에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 교서를 방으로 붙인 것이 있고, 1603년 12월 19일 정숙옹주에게 쓴 선조어찰은 국한문혼서로 필사하였다. 효종대왕・현종대왕・숙종대왕・인목대비・인선왕후・장열왕후・명성왕후・인현왕후 등이 보낸 편지들은 모두 한글 전용의 편지글이다.

효의왕후가 '坤殿御筆'을 필사하던 시기는 1794년이다. 이 시기 여인들의 독서문화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다.

"요즘 규방에서 서로들 다투듯 능사로 삼는 것은 패설(소설)을 읽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날마다 늘고 달마다 불어나서 그 수효가 천백 종에 달하기에 이르렀다."(채제공, 1720-1799, 여사서서(女四書序)), "언문으로 된 전기 읽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집안일을 등한히 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책을 빌려다가 탐독하는 바람에 가산을 기울이는 일까지 있기 때문이다."(이덕무, 1741-1793, 사소절(士小節))[38]

18세기 후반의 이러한 소설 필사의 문화는 궁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아직까지 왕후가 소설을 필사한 자료는 '坤殿御筆'이 최초인 듯 하다. 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은 한글 '흘림체'[39]이고 김기후의 한글 발문은 '정자체'[40]이다. 김기후 발문을 쓴 김기상의 서체는 한문으로 '해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효의왕후와 김기후의 서체에 대하여 장법과 서사기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의 장법은 10행 배열로 개격은 없으며 대략 한 면에 14-19 글자까지 행마다 글자의 형태에 따라 대소・장단과 연면으로 크기를 다르게 필사하였다. 한 행의 한 글자 크기는 비교적 작은 글씨로 행마다 다르지만 대략 1.5㎝×0.5cm(세로×가로)의 크기이며 글씨의 중심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흘림의 특징

3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왕실의 여성』 224쪽, 2005.

39) 흘림체는 한문서예의 행서・초서와 같이 한 글자 안에서 견사(絹紗) 필획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어지는 듯한 필의를 가지고 운필하여 필획과 필획 사이를 끊어지지 않도록 쓰는 한글서체이다. 또는 필획을 생략하면서 여러 글자가 서로 호응하여 2-3글자, 3-5글자를 모두 필의가 끊이지 않게 몇 글자씩 연면하여 서사하는 글씨를 가리킨다. 이러한 흘림은 간혹 한 행을 모두 이어서 쓰기도 하며 간혹 종성을 '정자'처럼 쓰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글씨들을'진흘림체'혹은'반흘림체'라고도 명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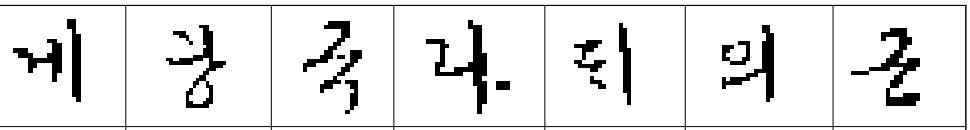
40) 정자체는 한문서예의 해서와 같이 형체가 바르고 법도가 삼엄하고 정밀하며 필획은 곧고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필획과 필획은 잇지 않고 점과 필획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여 바르고 안정되며 글자의 구성에서 자간과 행간이 고르기 때문에 고른 균제미를 느낄 수 있다. 필획의 굵기는 큰 변화가 없으며 기필은 대부분 노봉으로 필획을 운필한다.

이 잘 나타나 있다. ‘坤殿御筆’의 글씨는 당시 한글서체로서 흘림의 범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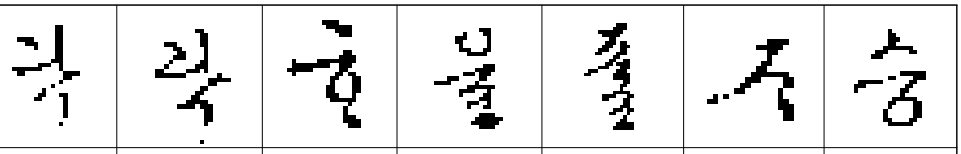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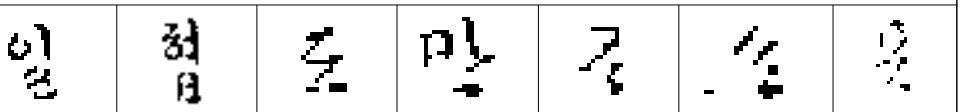
흘림의 특징인 필획과 필획의 연결, 글자와 글자의 연결이 매우 자연스러우며 연결의 형태는 대부분이 견사로 표현하였다. 아주 가끔은 종성의 자음을 정자처럼 필사한 형태도 있다. 글자의 형태는 비교적 장방형으로 세로로 길다. 필획의 시작에서 기필의 운필은 노봉으로 붓끝이 그대로 드러나게 운필하였으며, 가로획은 앙·평·부를 골고루 운용하여 글씨에 필력과 필세를 더하고 있다.

서예의 기본 요소는 필법·필세·필의로 나눌 수 있다. 필법은 붓을 잡고 운필을 하는 것이고 필세는 점과 필획, 글자와 글자, 행과 행사이의 승접과 호응의 관계를 타당하게 하는 것이다. 필세는 글씨를 필사하는 가운데 쓰는 사람의 정취·성정·인품·주관 등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필법과 필세는 서예의 기본이면서 본체에 해당하고 필의는 서예의 본래 뜻이면서 본질에 속한다.

다음은 이와 같이 흘림의 범본이라 할 수 있는 ‘坤殿御筆’을 필법·필세·필의[41]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하겠다.

<table>
<tr><td rowspan="4">필법</td><td rowspan="4">기필</td><td>  </td></tr>
<tr><td>게 | 광 | 극 | 다 | 대 | 의 | 근</td></tr>
<tr><td>만석군전 | 곽자의전 | 만석군전</td></tr>
<tr><td>‘게’의 글자에서는 ‘ㄱ과 ㅔ’의 두 세로획의 시작에서 노봉으로 필봉을 드러내어 필획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ㄱ’의 기필은 대략 35도 정도의 각도로 공중에서 붓을 운필하였고, ‘ㅔ’의 첫 번째 세로획은 30도 정도로 붓을 내려 짧게 운필한 뒤 붓을 왼쪽으로 꺾어 세로로 운필하였다. 두 번째 세로 필획은 45도 정도로 공중에서 필봉을 드러내며 지면에 낙필하여 기필 부분을 길게 운필하였다. ‘광’의 ‘ㄱ’은 편봉으로 기필하였고, ‘극’의 ‘ㄱ’ 또한 필봉을 드러내며 편봉으로 붓끝을 지면에 대어 운필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의 ‘ㄷ’의 기필은 노봉으로 붓을 대어 중봉으로 운필하였고, ‘대’의 ‘ㄷ’의 기필은 공중에서 낙필하여 편봉으로 운필한 것을 볼 수 있다. ‘의’의 ‘ㅇ’에서 꼭지의 기필은 거의 수직으로 곧게 기상을 보이며 노봉으로 운필하여 붓을 세운 뒤 왼쪽으로 필봉을 돌리고 있다. ‘ㅢ’의 가로획의 기필은 초성 ‘ㅇ’에서 필의를 이어 붓끝을 감춘 뒤 장봉으로 운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의 가로획의 기필은 초성 ‘ㄱ’에서 필의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봉을 드러내어 노봉으로 운필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하나의 글자를 운용하더라도 각각 기필 부분의 각도와 길이를 달리하여 필사한 것은 결구의 짜임을 긴밀하면서도 여백을 생각하여 한 글자에서도 나타 낼 수 있는 필법의 변화와 대비를 보여 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효의왕후의 능숙하고 다양한 용필법이라 생각한다.</td></tr>
</table>

41) 필법·필세·필의는 서예의 삼요소이다.

<table>
<tr><td rowspan="4"></td><td>행필</td><td colspan="7">  </td></tr>
<tr><td></td><td>곽1</td><td>곽2</td><td>ᄒᆞ-하</td><td>을</td><td>쥴</td><td>ᄌᆞ-자</td><td>승</td></tr>
<tr><td></td><td colspan="3">곽자의전</td><td colspan="2">만석군전</td><td colspan="2">곽자의전</td></tr>
<tr><td></td><td colspan="7">‘행필’은 흘림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필획과 필획은 이어주기도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필의를 보아 글자를 유추할 수 있다. ‘곽’1의 ‘ㄱ’에서 ‘ㅗ’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견사로 겨우 이어지고 있으나 이 필획은 사실 ‘ㅗ’와 연결된 실획이다. ‘곽2’를 보면 사실을 알 수 있다. ‘곽2’의 ‘고’를 보면 ‘ㄱ’에서 ‘ㅗ’로 연결되는 필획이 실획으로 필사하였다. 그러나 모든 필획이 행필에서 실획이든 허획이든 같은 글자로 읽히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운필하여 대략 5번 정도로 붓을 멈추었다 운용하는 글자이다. 먼저 ‘ㅎ’의 점에서 가로획으로 행필하는 과정에서 견사로 운필하고 끝나는 아래아 점에서도 견사로 행필한 것을 볼 수 있다. ‘을’은 ‘ㅇ’에서 가로획으로 행필하였으나 운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끊겼다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가로획과 종성 ‘ㄹ’의 행필은 실획과 같이 두텁게 행필한 것을 볼 수 있다. ‘쥴’이 그런 경우이다. ‘ㅈ’과 ‘ㅠ’의 연결을 실획과 같이 두텁게 운필했으니 서예전공자가 아니면 오인하기 쉽다. ‘자’의 왼쪽 삐침에서 오른쪽으로 행필은 왼쪽 삐침 수필에서 회봉하여 견사로 운필하였다. ‘승’자는 ‘ㅅ’의 오른쪽 필획에서 행필하여 공중으로 붓을 운용하고 다시 붓 끝은 장봉으로 감추어 지면에 붓을 안착하였다. 이러한 필획의 행필은 다소 많은 견사로 하여 어지러울 수 있는 행과 행, 글자와 글자 사이의 여백을 두어 필획의 변화를 준 것이다.
한글서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필의 습관이다. 허획과 실획을 잘 구분하여 연결하여 써야 가독성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오자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td></tr>
<tr><td rowspan="4"></td><td>수필</td><td colspan="7">  </td></tr>
<tr><td></td><td>일</td><td>협</td><td>도</td><td>만</td><td>ᄅᆞ-라</td><td>손</td><td>못</td></tr>
<tr><td></td><td colspan="3">곽자의전</td><td colspan="4">만석군전</td></tr>
<tr><td></td><td colspan="7">수필은 필획의 끝 부분에 이르러 마무리 할 때의 용필법을 가리킨다. ‘일’의 수필은 ‘ㄹ’의 끝나는 부분인데 보통 ‘ㄹ’에서 필획을 거둘 때는 끝에서 붓끝을 세워 회봉하며 둥글게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글씨는 수필에서 붓 끝을 뽑아 올린 것을 볼 수 있다. ‘협’은 ‘ㅂ’의 마지막 가로 점을 무겁게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회봉하여 마무리 하는 듯 하다가 필봉을 세워 왼쪽 아래로 붓끝이 향하고 있다. ‘도’의 수필에서 마지막 가로획의 마무리 또한 오른쪽 위로 붓을 살짝 올려 회봉한 뒤 둥글게 원필로 마무리 하였다. ‘만’의 세로획 수필은 세로획의 끝에 이르러 붓을 들어 가늘게 끝을 보이다가 다시 붓을 오른쪽으로 눌러 ‘ㄴ’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 용필법은 주로 세로획에서 많이 나타나는 수필법이다. ‘라’에서 ‘ㄹ’의 마지막 수필은 필획의 끝에서 붓을 들어 그대로 모나게 방필로 붓을 눌렀다가 들어서 아래 점으로 필획을 출봉하였다. ‘손’은 왼쪽 삐침과 같이 가로획을 운필하였다. 이때 수필은 필획 끝에서 회봉하여 다시 오른쪽으로 향배하듯이 운필하여 동세가 잘 나타났음을 볼 수 있</td></tr>
</table>

		다. '못'에서 종성 'ㅅ'의 오른쪽 점의 수필은 오른쪽 아래로 무겁게 눌러 회봉하여 필봉을 감추면서 마무리 하였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필획을 변화하여 운용한다는 그만큼 오랫동안 글씨를 많이 썼다는 증거이며 효의왕후의 글씨가 매우 숙달된 필력과 용필법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세			효의왕후 곤전어필의 '곽자의전' 한 단락이다. 전체적 필세는 소박하고 단아하며 필획은 꾸밈이 없고 질박하나 쇠하지 않다. 각 면마다 10행으로 한 행에 14-19글자까지 배자하였다. 운필의 속도・강약・방원・장단・부앙・향배 등과 같이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각기 글자마다의 진정한 자태를 다하고 또한 효의왕후의 성정이 글씨에 그대로 녹아들어 모든 점과 필획들은 특수한 형체와 자세를 갖추고 있다. 어느 면 어느 행의 필획을 보더라도 필획의 왕래와 운필하는 추세는 하나같이 일정함을 나타내며 필획과 필획의 여백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은 효의왕후의 성품과 매우 닮아있는 것 같다. 효성이 지극하고 주변을 살피는 성정은 마침내 이렇게 노련하고 침착한 글씨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의		곤전어필의 풍격은 왕후의 글씨인 만큼 정갈한 필묵의 기교가 있다. 이미 소설을 필사하여 후손에게 남기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필사에 임하였을 테니 필사 전에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고 시작했을 것인가. 그러니 의취・풍격・공력이야 다른 필사자료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곤전어필의 필의는 효의왕후의 내재적 정신면모가 글씨에 그대로 나타나 후대까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혁혁한 신채가 나타나는 것이다.	

김기후의 발문을 보면 먼저 한글 발문을 수록하고 뒤에 김기상이 쓴 한문 발문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한문으로 먼저 발문을 만들어 놓고 쓰기는 뒤에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위 표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흘림체의 정수인 곤전어필의 글씨와 김기후, 김기상의 글씨는 물론 상의하게 다르다. 따라서 김기후는 한글로 발문을 썼지만 한글서체를 공부하지 않은 글씨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글로 필사는 하였으나 한문의 필법으로 한글 발문을 썼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김기상의 한문 발문과 필획을 비교하면 가로획은 김기상의 한문에 비하여 오른쪽으로 많이 올리지 않았으며 간혹 보이는 필획에서 흘림체에서 볼 수 있는 필의가 있다. 이것은 한문의 행서를 오래 썼던 습관이 배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종합하면 곤전어필의 글씨를 보면 매우 작아서 착완[42]법(着腕法)[43]으로 필사했을 가능성이 보이고 글씨는 효의왕후의 성정이 글씨에 그대로 녹아들어 모든 점

42) 곽노봉・홍우기, 『서론용어 소사전』 93쪽, 다운샘 2007.

43) 착완법(着腕法)은 오른손을 직접 책상에 붙이고 필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큰 결함이 있다. 즉 완력의 발휘를 제한하고 활동 범위도 단지 손가락 관절에 국한하며 전환하는 여지도 너무나 작다. 극히 작은 파리머리만한 소해서를 쓸 때 이러한 완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완법은 조선시대 한글 필사의 특성상 0.5 미만의 아주 작은 글씨를 필사할 경우 책상 위에 손목을 붙이고 쓸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세로획이 오른쪽 밖으로 빠지는 필획을 종종 볼 수 있다.

과 필획들은 특수한 형체와 서로 호응하는 필세를 갖추고 있다. 어느 면 어느 행의 필획을 보더라도 필획의 왕래와 운필하는 추세는 하나같이 일정함을 나타내며 필획과 필획의 여백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효의왕후의 성품과 매우 닮아있는 것과 같다. 효성이 지극하고 주변을 살피는 성정은 마침내 이렇게 노련하고 침착한 글씨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ㅇ 문헌자료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총서1 김씨부인한글상언 정조어필한글편지첩 곤전어필』, 국립한글박물관 2014.
- 예술의 전당, 『한글서예변천전』, 1991.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 왕실의 여성』, 2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우리 한글의 멋과 아름다움』, 2004.
- 예술의 전당, 『조선시대 한글서예』, 미진사 1994.
- 곽노봉・홍우기, 『서론용어 소사전』, 도서출판 다운샘 2007.
- 이정자, 「한글서예의 서사기법 연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ㅇ 기　　타

국립한글박물관은 2013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

□

ㅇ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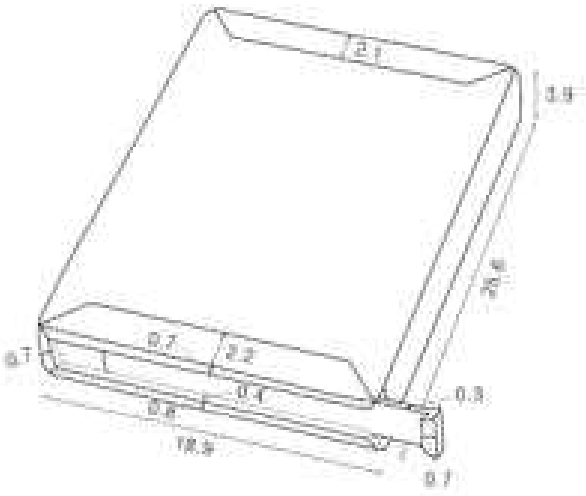
높이 4cm 정도의 납작한 사각함으로 책을 눕혀 넣어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수납 개폐는 아래 단측면에 미닫이 개폐구를 만들어 두었고, 윗면에는 '전가보장(傳家寶藏)'의 글귀와, '자손기영보장(子孫其永寶藏)' 이라는 방인이 새겨져 있음. 음각으로 된 글씨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음.

<곤전어필 함 윗면> (사진1)

<곤전어필 함 뒷면> (사진 2)

ㅇ 내용 및 특징

이 책함은 정조비인 효의왕후(1753-1821)가 직접 한글로 필사한 책으로 보고 있는 <坤殿御筆>과 함께,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책함의 크기는 책을 넣어 보관하기에 적당하다.



<곤전어필 함 글씨 부분>(사진 3)　　< 곤전어필 함 각 부위 칫수(단위 cm)>(사진 4)

글씨가 刻되어 있는 윗면의 짜임을 자세히 보면(사진 4), 윗판의 위아래에만 변자를 연귀로 맞댐하였다. 오동나무로 된 가로결 변자를, 양쪽을 연귀로 하고 위아래에만 끼워 맞췄는데, 이유는 세로곧은결을 한 윗판이 줄지 않도록, 위아래에만 가로결의 변자를 끼워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시대 책갑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글씨를 쓴 면의 반대면, 즉 바닥 면이 되는 뒷면을 보면,(사진 2) 윗면의 곧은 결에 비해 화려한 오동나무 결을 드러내고 있고, 맨 아래에는 얇은 막대를 오동보다 단단한 나무로(폭 1cm) 덧대어 두었다. 이것은 미닫이 문을 달아 둔 부분으로 내구성을 고려한 구조로 보인다.

앞뒤면과 측면의 오동판은 연귀맞댐으로 되어어 있는데, 표면에 못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이 매끈하다. 아마도 연귀 맞댐부분 안쪽으로 촉을 끼워 연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동나무 재질의 나무결은 낙동을 하여 결을 도드라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긁힌 자극 등도 함께 남아 있으나, 나무결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인다. 윗면에 각이 된 글씨는 인두로 마무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글씨가 검게 되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글씨의 획이 깔끔하게 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갈하게 쓰여지고 각이 잘된 글씨는 '傳家寶藏(가문에 전하는 보장)', '子孫其永寶藏(자손들은 영원히 보장할지어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사진 3)

ㅇ 문헌자료

<坤殿御筆>의 발문에, 1793에 필사를 시작 1794년에 번역본을 받아 이후 완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함께 있는 이 <곤전어필함>은 책을 넣어 보관하기에 적절한 크기를 하고 있다. 왕실의 유물들을 보관 시, 대부분 보자기를 싸서 匣에 두는 것이 일반적임을 상기할 때, 본 함이 책 크기보다 사방으로 1cm 가량 크게 하여 여분을 두었다는 것은, 당시 이 <곤전어필> 책을 보관하기 위한 책함으로 제작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안건번호 동산 2020-07-010

10.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가. 심의사항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성보문화재연구원장으로 부터「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6.3.)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6.24.) 및 과학조사(’20. 6.15.~6.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6차 회의(’20.11.5.)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11.13.~1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9호(1994.7.4.)

○ 명　　칭 :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옥천사

○ 수　　량 : 괘불도 1폭, 괘불함 1점

○ 규　　격 : 괘불도 : 전체 1,006.0×737.0㎝(화면 945.6×705.5㎝)
괘불함 : 길이 821.4×33.0×34.6㎝

○ 재　　질 : 비단에 채색(괘불), 나무(괘불함)

○ 형　　식 : 축(軸)

○ 조성연대 : 1808년(순조 8)

○ 제 작 자 : 評三, 錫奎, 唯性, 度日, 察旻, 璽安, 再澄, 弘泰, 敎桓, 千佑, 趙鑒, 敬朋, 彭憲, 仙己, 仙敏, 演日, 慕訓, 志洪

그림 441.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1808년

그림 442. 고성 옥천사 괘불함, 1808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는 1808년 수화승 평삼을 비롯하여 18명의 화승들이 제작한 것으로, 석가여래 삼존과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6구의 타방불을 배치한 간결한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 이 괘불도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양식적 특징들, 예를 들어 세장한 신체와 둥근 얼굴에 가늘게 묘사된 이목구비, 동안에 가까운 얼굴, 화려한 문양과 고분법을 이용한 기법,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루며 청색과 흰색 등이 조화롭게 사용된 채색 등은 1769년 남해 용문사 괘불도, 1783년 화순 만연사 괘불도 등 18세기 후반의 괘불도 도상 및 양식과 친연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옥천사 괘불도는 삼존을 거의 비슷한 규모로 그린 두 괘불도와 달리 협시보살의 크기를 작게 하고 상단에 타방불을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의 변화있는 구도를 채용한 평삼의 화풍이 잘 드러나 있다.

평삼은 40여 년간의 활동에 비해 작품은 많지 않은 편으로 현재 11점의 작품이 남아있다. 그중 옥천사 괘불도는 평삼이 본격적으로 수화승이 되어 17명이나 되는 화승을 거느리고 제작한 작품으로, 기 지정된 괘불도들에 비해 조성시기가 조금 늦기는 하지만 義謙의 화풍을 계승한 비현 및 쾌윤, 복찬 등과 함께 활동하던 평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삼의 화승으로서의 역량이 집약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괘불도와 함께 제작된 궤불함이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19세기 초반 괘불도 조성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옥천사 괘불은 석가모니삼존이 법회에 강림하는 효과를 극대화한 입상의 영산회 상도로서 이러한 도상은 18세기 전라도에서 활동하던 대화승 의겸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려졌고, 이후 비현과 쾌윤, 평삼 등으로 계승되어 온 전통적인 괘불 도상의 하나이다. 옥천사괘불은 평삼이 수화승으로 제작하였는데 그의 불화 중 가장 마지막 작품이다. 석가삼존을 중심으로 한 간결한 구도, 적색과 녹색 및 백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화면 전체가 밝고 화사하며 색감이 명료한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문양을 대담하게 그려 배치하여 명료함을 더하고 있다. 화사한 색감과 명료하고 정성들인 문양, 입체감있는 고분법의 구사 등은 이 불화의 특징이며 수화승 평삼의 화풍상 특징이라 할수 있다. 19세기 초 불화의 제작이 침체되었던 상황에서 수백명의 승속이 함께 후원하여 제작한 괘불로서 앞시기 불화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기량과 품격있는 예술성을 지니는 불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하단에 3개의 곽으로 괘불 조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화기를 남기고 있고, 뒷면에도 삼백여명의 시주질을 기록하여 제작 당시의 옥천사의 상황을 알려주는 등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 역사적, 자료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함께 만들어진 궤불함 역시 옻칠로 마감하고 다양한 모양의 장석과 철물로 장식한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고, 기법적 측면에서도 공예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내부에 묵서로 제작연도와 제작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 공예사 연구에서도 좋은 자료로서 주목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고성 옥천사 괘불도>는 기우재나 영산재 등 사찰의 의식거행 시 마치 하늘에서 강림하는 듯한 압도적인 효과를 지닌 도상 뿐만아니라 양식적으로도 밝고 화사한 색채와 명료한 화풍 등 완성도있는 작품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측면에서 모두 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는 先代의 도상을 수용한 작품으로, 3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어도 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용하여 제작한 사례이자, 18세기의 도상을 수용하였지만 19세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특징들을 반영한 작품으로 그 의의가 크다.

전반적으로 18세기 전통 화풍을 계승하고 있는 가운데, 색감이나, 비례, 인물의 표현, 선묘 등은 19세기 전반기 화풍을 투영하고 있고 작품성도 뛰어나다. 지금까지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괘불은 5점 정도 확인되고, 규모도 10m이상 되는 화면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화기에'大靈山會'라는 화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앞선 시기 그의 스승과 함께 제작한 괘불도 중 畵題가 없는'화순 만연사 괘불도', '남해 용문사 괘불도'의 신앙적 근거와 도상 파악, 유파 양식의 변천과정 연구에도 기준이 된다.

수화승 평삼 등 참여한 畵僧의 면면도 18세기와 19세기를 연결해 주고 있는 화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 괘불화의 도상 전승은 물론 불화사 연구에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불화이다. 또한 괘불함도 묵서를 통해 괘불조성에 참여했던 화원들이 함께 일습으로 제작한 것이고, 장식성과 공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괘불함 장식물을 만든 장인의 명단까지 기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이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김천 직지사 괘불도와 마찬가지로 19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불화이자 대형 괘불로서 괘불함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이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김천 직지사 괘불도와 마찬가지로 19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불화이자 대형 괘불로서 괘불함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문화재의 현상과 특징

1. 영산회 괘불도(1808)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는 가경13년(1808)에 華岳堂 評三을 수화승으로 하여 錫奎·唯性·度日·察旻·璽安·再澄·弘泰·敎桓·千佑·趙鑒·敬朋·彭憲·仙己·仙敏·演日·慕訓·志洪 등 총18명의 화원이 함께 제작한 괘불도이다. 현재 화면에 일부 누수 자국과 오염, 접힌 자국 등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1994년 4월에 固城玉泉寺所藏品이라는 명칭으로 총110점의 유물과 함께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9호로 지정되어 있다.

옥천사는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에 하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말사이다. <玉泉寺事蹟記>(寺藏 筆寫本), <蓮華山玉泉寺創建記文>(1718년, 『朝鮮寺刹史料』 上1 所收) 등에 의하면 중국 당나라 종남산 至相寺의 智嚴 문하에서 화엄학을 배우던 義湘大師가 670년 귀국하여 왕명으로 창건했다고 한다. 1280년에 普覺國師 慧諶이 중창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가람이 완전히 소실되어 1640년 學明과 義悟이 중창하면서 1644년 窮玄堂, 1660년 法堂, 1664년 正門을 건립하였다. 1667년에는 妙旭이 華嚴會相을 개최하였고 默漏閣, 香積殿, 觀音殿, 滿月堂이 건립되었으며, 1764에는 大雄殿과 滋芳樓(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호)가 건립되었다. 1883년 龍城이 중건하였으나 1894년에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어, 현재 옥천사에는 寂默堂(1754)와 探眞堂(1754), 滋芳樓 등 18세기의 전각과 19세기 말에 건립된 대웅전과 팔상전, 나한전,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 명부전 등이 남아 있다.

18세기 중엽 옥천사는 僧軍이 주둔하고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통제사가 건축불사를 후원할 정도로 번영하였다. 18세기 말에는 御供紙 진상사찰로 지정되면서 사찰경제가 어려움을 겪긴 하였지만, 19세기 초 새로 괘불도를 조성한 사실을 보면 어느 정도 寺勢를 유지해 나간 듯하다. 옥천사 괘불도

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제작되었다.

이 괘불도는 20폭의 비단을 붙여 만든 세로 10.09m(화면 9.48m), 폭 7.35m(화면 7.03m)의 비단바탕에 채색되어 있다. 세로로 긴 화면에는 釋迦牟尼三尊이 화면을 꽉 채우듯 큼직하게 배치되었으며, 화면 상부에는 阿難尊者와 迦葉尊者, 6구의 부처가 구름 속에 배치되어 있다. 본존불 석가모니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배경으로 偏袒右肩의 적색 법의를 입고 오른손은 무릎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왼손은 가슴부근으로 들어 올린 채 두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서있다. 螺髮의 머리에는 육계가 뾰족한데, 中間髻珠는 나지막한 반면 원형의 頂上髻珠는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중간계주와 정상계주에는 모두 2줄의 띠를 그려 넣었는데, 붉은 색으로 바림하 듯 채색한 것이 특징적이다. 얼굴은 원형에 가까운 둥근 방형이며, 바깥쪽으로 쳐진 눈썹과 짧은 코, 작은 입 등이 어린아이 얼굴같은 童顔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체는 어깨가 좁고 각이 졌으며, 아래로 내린 오른쪽 팔도 가늘고 길어서 전체적으로 세장하지만 신광의 내부를 육색과 유사한 색으로 처리하여 왜소해 보이지 않는다. 가슴 가운데에는 큼직하게 卍자가 그려져 있는데, 적색·분홍색·청색. 적색·분홍색·녹색의 색대를 교차해 화려해 보인다. 왼쪽 어깨에 걸친 법의의 끝단에는 검은 바탕에 寶相唐草紋과 蓮華唐草紋이 그려져 있으며, 붉은 법의 위에는 둥근 문양이 흩어지듯 그려져 있다. 문양은 지름이 33~40cm 정도로 아주 큼직한데, 먹선으로 윤곽선을 잡고 붉은 색의 淡彩의 꽃잎과 푸른 색 계열의 진채로 표현한 꽃잎을 중첩하여 그렸으며, 부분적으로 고분법을 사용하여 금니를 칠하거나 금박을 올려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꽃문양 외에 가슴 아래쪽 법의와 왼쪽 어깨에 걸친 법의자락에는 황금빛의 용을 붉은 여의주와 함께 표현하였는데, 용에도 금니를 고분법으로 칠해 화려하게 보인다.

본존의 좌우로는 왼쪽에 문수보살, 오른쪽에 보현보살이 화려하게 장식된 보관을 쓰고 각기 如意와 연꽃을 든 채 두 발을 약간 벌리고 연화좌 위에 서 있다. 둥근 얼굴에 쳐진 눈썹과 짧은 코, 작은 입 등이 본존의 모습과 동일하다. 가슴에는 큼직한 목걸이를 착용하였으며 온 몸에 영락을 걸쳐서 매우 화려하며, 천의와 裳衣에는 별다른 장식이나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상의 끝단에 본존의 법의처럼 보상화당초문을 시문하였다. 반면 문수보살의 무릎부분에는 백색 바탕에 포도넝쿨과 청설모, 계수나무 아래서 절구질을 하는 토끼, 매화문과 연화문을, 보현보살의 무릎부분에는 각각 학과 여의주, 연화문을 담채의 청색과 적색으로 그려 넣어 마치 청화백자의 문양을 보는 듯 하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뒤쪽 두광의 양쪽에는 아난과 가섭이 상반신을 내밀고 본존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으며, 그 위로 원형의 거신광 안에는 좌우 각각 3구씩의 타방

불이 본존을 향해 합장하고 서있다. 타방불의 頭部에는 석가모니처럼 큼직한 정상계주가 표현되었으며, 아난존자와 가섭존자의 가사 끝에도 석가모니의 법의 끝단과 동일한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옥천사 괘불도의 인물표현의 특징, 즉 좁은 어깨와 세장한 신체, 둥글고 큰 얼굴에 쳐진 눈썹과 가는 눈, 짧은 코와 작은 입 등은 남해 용문사 괘불도(1769년)와 영암 불갑사 지장시왕도(1777년), 고흥 불탑사 괘불도(1778년), 화순 만연사 괘불도(1793년) 등 18세기 후반 호남 및 서부 경남지역의 불화에 보이는 양식과 유사하다. 특히 화순 만연사 괘불도(1783년)와는 상호표현 뿐 아니라 본존의 법의의 큼직한 문양과 끝단의 보상당초문과 연화당초문, 정상계주의 바림질한 2줄의 적색 표현을 비롯하여 협시보살 무릎의 백색바탕에 담채로 그린 문양, 협시보살의 지물을 든 모습 등이 거의 흡사하며, 남해 용문사 괘불도와도 협시보살 무릎의 문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옥천사 괘불도는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인근지역의 용문사 괘불도, 만연사 괘불도의 도상을 참고하여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화면 아래에는 중앙과 좌, 우 세부분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화기가 적혀있다(아래의 화기는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참조하였음)

(중앙)

嘉慶拾參年戊辰四月日慶」 尙右道晋州牧南嶺蓮花」 山玉泉寺大靈山會新畫」 成奉安」 王參殿下壽萬歲」 主上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萬歲」 國泰民安法輪轉」 緣化秩」 證師萬波堂 太如」 枕虛堂 守一」 金魚 華岳堂 評三」 錫奎」 唯性」 度日」 片手 察旻」 璽安」 再澄」 弘泰」 敎桓」 千佑」 趙鑒」 敬朋」 彭憲」 仙己」 仙敏」 演日」 慕訓」 志洪」 誦呪法師 玄冶」 性仁」 德冶」 似洪」 始鑑」 戒恩」 正原」 永安」 義伯」 乞閑」 有軒」 德性」 再還」 戒活」 持殿 松谷堂 等學」 有希」 供養主 演澄」 道益」 幸印」 致淑」 淨桶 有性」 景洽伏爲」 魚山 永安 亡父金孟哲」 性宇 生母安氏」 守還 思訓伏爲」 處仁 生父金德守」 好益」 海圓 冶手金業發」 茶角 景芸 徐尙季伏爲」 書寫 宅修 亡父再冉」 鍾頭 哲性 子仁福」 再淑 文守伏爲」 木手 福性 鄭氏体保」 朴重孫」 化主 松谷堂 等學」 斗印」 前僧統 敬活」 己還」 別座 前僧統 泰旭」 都監圓峰堂 曰宗」 前僧統 葑寓」 摠勘前僧統 思彦」 察衆前僧統 廓順」 維那 前僧統 六蘭」 負木 守伯」

(향우측)

施主秩 掛佛迚大施主 統營沙工廳」 基布大施主 張奉雲 李德茂」 基布大施主 朴日權」 基布大施主 李龍澤」 基布大施主 金宗吉」 基布大施主 安順福」 基布大

施主 趙晋吾」 綻岑 伏爲」 亡恩師 豊悟靈駕」 亡父 黃世宗灵駕」 柳丙祚」 柳甲浔」 鄭時載」 聖菴堂 好賢 伏爲」 亡父 姜弼貴兩主靈駕」 泰旭 伏爲」 亡父 鄭昌文兩主靈駕」 思彦 伏爲」 忘恩師 通政 若律靈駕」 亡父 文德奉兩主靈駕」 亡兄 以昌靈駕」 葑寓 伏爲」 忘恩師 永審靈駕」 亡母 鄭氏靈駕」 生父 姜旺世保体 敬活 伏爲」 忘恩師 霜谷堂 錦華靈駕」 覺靈」 嘉善大夫 有修 保体」 記泰 伏爲」 忘恩師 通政 開宗靈駕」 亡父 崔雲慶兩主靈駕」 得敏 伏爲」 忘恩師 澤澄靈駕」 亡父 丁仲世兩主靈駕」 戒察 伏爲」 亡父 姜選泰靈駕」 生母 金氏保体」 亡祖父 姜重奎兩主靈駕」 定悟 伏爲」 亡父 高時東 靈駕」 生母 全氏靈駕」 生弟 孟岩回 保体」 孟元」 全命五 伏爲」 亡父 全渭安靈駕」 奉希 伏爲」 忘恩師 智英靈駕」 說旻 伏爲」 忘恩師」 瑞淸靈駕」 尙輝 伏爲」 亡恩師 己益靈駕」 大洪 伏爲」 生母金氏 保体」 官察」 等伏爲」 再和」 忘恩師 位摠捻靈駕」 宅修 伏爲」 生母 文氏保体」 處仁 伏爲」 亡父 金岳起兩主靈駕」 文淑 伏爲」 忘恩師 樂修靈駕」 亡父 文德福兩主靈駕」 廓順 伏爲」 亡父 鄭元仲兩主靈駕」 忘恩師 忍察靈駕」 金玧平兩主保体」

(향좌측)

施主秩 鄭有倍保体」 益濟 伏爲」 亡兄 八定靈駕」 斗仁 伏爲」 亡師比丘 瑞淸靈駕」 司洪 伏爲」 亡父 黃命三兩主靈駕」 呂允比丘」 亡父 李德興靈駕」 晉淑旻弘伏爲」 亡師 永谷堂 碩宇覺靈」 幸奎 伏爲」 亡師 普岩堂 道愼覺靈」 幸守 伏爲」 亡師 通政大夫 幻審靈駕」 等學 伏爲」 亡師 官淑靈駕」 亡父 李廷源靈駕」 倜修 伏爲」 亡師 意學靈駕」 記贇 伏爲」 亡師 性祐靈駕」 定宅 伏爲」 亡母 金氏靈駕」 祥定 伏爲」 亡父 吳夢石靈駕」 德印 伏爲」 亡師 嘉善大夫 文贇靈駕」 佑日 伏爲」 亡師 廓淸靈駕」 補日伏爲」 亡父 朴萬守靈駕」 亡父 許召史 伏爲」 亡父母 兩主靈駕」 守一 伏爲」 生母 徐氏保体」 永贇 伏爲」 亡師 承學靈駕」 嘉善大夫比丘 贇永保体」 宣弘 伏爲」 亡師 典輝靈駕」 己郁 伏爲」 生父 嘉善大夫 姜日貴保体」 亡母方氏靈駕」 亡兄 尙齊靈駕」

本寺秩 林就龍保体」 大禪師 聖菴堂 好賢」 萬波堂 太如」 無說堂 有聞」 老德 快澄」 照平」 碩摠」 智岑」 豊澄」 前僧統 性慧」 時僧統 大彦」 典佐 司存」 當司戒察」 公員 益濟」 持司 竺冶」 三綱 書記 印俊」 三寶 演冶」 新畫成于白蓮堂」

중앙부분의 화기에는 조성연대와 봉안사찰 등과 祝願文이 적혀있고, 이어 괘불도 제작에 직접 참여한 緣化秩이 적혀있다. 즉 가경13년인 무진년 4월 일에 경상우도 진주목 남령의 연화산 옥천사에 大靈山會 새그림을 완성하여 봉안하였으며, 주상전하수만세, 왕비전하수만세, 세하저하수만수 및 나라가 태평

하고 백성이 평안하며 불법이 항상 돌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원문이 적혀있으며, 이어 證師, 金魚, 誦呪, 持殿, 供養主, 淨桶, 魚山, 冶手, 茶角, 書寫, 鍾頭, 木手, 化主, 別座, 維那, 負木 등 괘불도 조성에 참여한 다양한 소임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향우측과 향좌측 화기에는 시주질이 적혀 있는데, 시주는 무려 300여 명으로 주로 돌아가신 부모와 은사, 형제 등의 명복을 빌며 시주질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시주자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향우측 화기 제일 앞부분에 적혀있는 統營沙工廳이다. 사공청은 조선시대 수군의 총본영이 있었던 통영의 江口에 있던 관아 중 하나로서, 뱃사공들을 관리하는 곳이었다. 옥천사에서 괘불도를 조성할 때 통영사공청에서 대시주 중 하나로 참여한 것은 당시 괘불도의 조성이 관민합동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대불사였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화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新畵成于白蓮堂'라고 적혀있다. 보통 화기에서 '成于○○○'라고 할 때는 불화를 조성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옥천사의 괘불도는 사내의 당우인 백련당에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옥천사에는 백련당이라는 건물이 없어 괘불도를 제작한 장소가 과연 어떤 곳이었는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옥천사 괘불도처럼 거의 10미터에 달하는 대형 불화를 그렸던 장소라면 강당처럼 널찍하고 트인 공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괘불도의 뒷면에는 당시 괘불도를 조성할 때 시주했던 淸溪堂, 極樂堂, 靑蓮菴, 白蓮菴, 無說堂, 探眞堂, 說禪堂, 滿月堂, 白蓮堂, 淸風寮 등 옥천사 소속 암자와 각 방의 300여 승려들의 명단이 적혀있는데, 그중 백련당에는 37명의 승려들이 시주자로 참여하였다고 적혀있다. 백련당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는 모르지만 37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함께 거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여기에 적혀있는 명단은 백련당을 거쳐 간 승려들의 명단을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혹 승려들이 모두 그곳에서 기거했다고 할지라도 백련당은 요사의 성격을 지닌 곳으로서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당시 백련당에서는 괘불도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808년 경 옥천사에는 1764년에 건립된 정면 7칸, 측면 3칸의 滋芳樓가 있었던 것을 볼 때, 누각 형태의 개방된 공간인 자방루에서 괘불도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언할 수는 없다.

옥천사 괘불도를 제작한 18명의 화승 중 수화승인 華嶽堂 平三[評三, 萍三]은 18세기 반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승이다. 평삼은 1765년에 강진 백련사 삼세불도를 제작에 참여하면서 화업을 시작하여 1808년 옥천사 괘불도까지 40여 년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1781년에 쌍계사 아미타불화 조성 때부터 수화승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그가

참여하여 제작한 작품은 10건 11점이 남아있 는데, 백련사 삼세불도 제작 때부터 의겸의 영향을 받은 丕玄과 그의 제자인 快允·福粲 등과 함께 작업을 해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18세기 중, 후반 전라도에서 활동했던 비현의 영향이 많이 드러나 있다. 즉 세장한 신체에 둥근 얼굴, 약간 처진 듯한 눈썹과 짧은 코, 작은 입술, 커다란 정상계주와 나지막한 중간계주, 적색과 녹색을 주조로 하여 백색이 섞인 밝은 녹색과 청색을 많이 쓰는 채색법, 고분법을 이용한 장식기법 등은 비현의 불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차후 평삼의 작품에서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삼은 1769년 쾌윤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남해 용문사 괘불도와 비현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1777년 영광 불갑사 팔상전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 1778년 곡성 태안사 삼세여래도와 신중도, 삼장보살도, 1778년 태안사 명적암 신중도 등에 참여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 불갑사 지장시왕도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옥천사 괘불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어서, 평삼이 이 불화들을 조성할 때 터득한 도상과 구도, 양식 등이 1808년 옥천사 괘불도 조성 때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다. 이후 평삼은 1781년에 하동 쌍계사 삼세불도 제작 때 아미타불도의 수화승을 맡아 勝允 ·萬輝 ·泓源 ·智淳 등과 함께 작업하면서 수화승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어 1786년에는 의령 수도사 감로왕도, 1788년에는 상주 남장사에서 쾌윤과 함께 湖南畫工으로 초대되어 활동하였으며, 1790년에는 쌍계사에서 화엄경변상도와 제석천룡도를 제작하였고, 1808년 옥천사 괘불도를 마지막으로 화업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옥천사 괘불도는 평삼의 마지막 작품이자 수화승을 맡아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18세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및 전라도 지역의 화풍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괘불함

옥천사에는 1808년에 괘불도와 함께 조성된 괘불함이 남아있다. 이 괘불함은 길이 820.5㎝ 높이 33.5㎝ 너비 34㎝이며, 소나무로 제작하고 옻칠로 마감하였다. 덮개와 몸체에는 장석과 약과형 자물쇠 장치, 둥근 고리 등 다양한 철물이 부착되었는데, 특히 앞면에는 梵字 出悉地를 투각하고 日光, 月光이라는 글자를 새긴 둥근 철물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그중 일광이라고 새겨진 금속판에는 꽃이 핀 식물을 섬세하게 새겼으며, 월광이라고 새겨진 금속판은 반을 잘라내어 반달처럼 표현하였다. 이 밖에도 주역의 괘와 卍자, 그리고 여의두문, 안상문, 보상화 꽃잎 문양이 새겨져 있다. 또 괘불함 덮개 안쪽 면에는 晉陽牧의 성 안에 거주하는 金來源 부부가 시주하고, 진양목에 거주하는 金業發과 鐵城邑의 金潤泙이 裝飾片手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괘불도의 제작

연도와 제작자, 시주자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궤불함 묵서화기]

掛佛造成年月日」 證師萬波堂太如」 金魚 華岳堂評三」 化主松谷堂等學」 斗印」 時僧統 大彦」 嘉慶拾參年戊辰四月日」

莊飾片手」 金業發保體居晋陽牧」 金潤泙保體居鐵城邑」 願以此功德徃生極樂」 共成成佛道之願」 慶嘉十三季龑月日」

施主」 牧地城內居戊戌生金來源兩主」 保體世世亨泰灾消障」 盡之願」 時僧統兩宗判司大彦」 書記 印俊」 三綱 持寺笠冶」 三宝永俊」

이외에 괘불도 조성과 같은 해에 九淵璿鎰이 짓고 印俊이 쓴 <玉泉寺掛佛畫成記>(1808년, 나무에 음각, 28×84㎝, 자방루소장)에는 사찰에 있던 괘불이 파손되어 새로 괘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1808년 괘불도 조성 시 옥천사에는 오래된 괘불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1.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도2. 남해 용문사 괘불탱, 1769年, 삼베, 954×623.5 / 865.5×585, 보물 제1446호

도3. 만연사 괘불탱, 1783年, 비단, 827×592.4 / 758.1×573.4, 보물 제1345호

□

ㅇ 현　　상

경남 고성 개천면 연화산 옥천사의 괘불은 높이가 10미터나 되는 대형 괘불이다. 한 폭이 약 40cm 내외의 비단 20폭을 감침질하여 화면을 이루었다. 거대한 규모임에도 상축과 하축의 축봉은 지름이 각기 9cm, 7cm로 가는 편이다.

1808년 화악당 평삼(華岳堂 評三)을 수화사로 하는 18명의 화원이 제작하였으며 화기에 기록되었듯이 석가모니불의 영취산 설법을 내용으로 하는 영산회괘불이다. 삼존 위주의 간략한 구성이지만 화면을 압도할 듯이 꽉 차게 그려져 석가모니불의 강림 효과가 강조되었다. 비록 19세기초기의 작품이지만 삼존도 형식의 영산회괘불의 전통 도상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채색도 선명함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손상이 많지는 않지만 축봉의 두께가 가늘어서인지 가로 꺾임이 심한편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존 오른쪽 어깨 부위를 지나는 세로의 긴 꺾임선이 상하로 길게 이어져 있다.

괘불도 뒷면에는 범자와 괘불조성 시 시주했던 300여명의 승려 시주질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괘불을 보관하던 궤불함이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장석과 뚜껑 내부에 명문이 묵서되어 있어 제작자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당대 목공예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ㅇ 내용 및 특징

1. 괘불도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16년(676)에 의상대사에 의해 화엄십찰의 하나로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사찰명은 경내에 맑은 물이 솟아나는 옥천이라는 샘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를 알려주듯 <고려 옥천사 청동금고>(보물 제495호)와 같은 고려시대의 유물도 전하고 있으나 현재의 당우는 모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17세기에 건립된 것이다.「옥천사창건기문(玉泉寺創建記文)」(1706)에는 1640년 학명(學明)과 의오(義悟)비구에 의해 제7차 중창이 시작되어 1654년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현재 옥천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대웅전 맞은편에 있는 자방루(滋芳樓, 경상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53호)로 영조 40년(1764)에 건립되었다. 자방루에는 수많은 현판들이 걸려있어 옥천사의 내력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중 구연선시(九淵璿諡) 스님이 괘불조성 후 기록한「옥천사괘불화성조기(玉泉寺掛佛畵成造記)」(1808)에는 옥천사의 괘불이 파손되고 오래되어 새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마도 17세기 중창시 괘불도 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옥천사괘불은 화기에 '대영산회(大靈山會)'라 기록되어 있듯이 영취산에서의 영

산법회를 그린 것이지만 석가삼존 위주의 매우 간단한 도상을 이루고 있다. 화면에 꽉 차게 석가삼존상이 서있는데 중앙의 석가모니불은 우견편단형식으로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손은 좌상의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처럼 무릎 아래로 길게 내리고 왼손은 가슴으로 들어올려 엄지와 약지를 맞대고 있다. 손 위쪽 가슴에는 卍자가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본존 좌우에는 협시인 문수와 보현보살이 각기 여의와 연꽃을 받쳐든 긴 줄기를 잡고 시립하고 있으며, 본존의 두광의 좌우에는 노비구로 표현된 가섭과 젊은 아난존자가 합장하고 있는데 상반신만 드러나 있다. 그 좌우에는 원형 공간 안에 각기 3구의 타방불이 구름속에 싸여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큰 화면의 영산회괘불에서 구성은 단순한 삼존이지만 존상을 거대하게 강조하여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하는 효과를 주는 이러한 도상은 의겸(義謙)이 제작한 <진주 청곡사 괘불도>(1722년), <무주 안국사 괘불도>(1728), <고성 운흥사 괘불도>(1730), <나주 다보사 괘불도>(1745), <부안 개암사 괘불도>(1749) 등에 반복적으로 지속되던 도상으로 이후 <남해 용문사 괘불도>(1769년), <화순 만연사 괘불도>(1783년), 그리로 이 <고성 옥천사 괘불도>(1808년)로 이어지며 조선후기 괘불 도상의 한 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용문사괘불이나 만연사 괘불에서는 삼존불만을 표현하였고 삼존의 크기도 유사하지만, 옥천사 괘불에서는 협시보살의 크기를 줄이고 가섭과 아난존자, 그리고 타방불을 첨가하여 화면이 보다 짜임새있고 조화롭게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이 불화를 제작한 화승의 감각과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길게 내린 석가모니불은 내연이 짙은 녹색으로 칠해진 원형 두광을 뒤로하고 서있다. 석가모니불의 두상에서 특징적인 점은 높게 솟은 육계와 큼직한 정상계주와 중간계주의 모습이다. 둥글지 않지만 각지지도 않은 원만한 형태의 얼굴에 이목구비 역시 과하게 크거나 작지 않고 눈꼬리도 올라가지 않아 전체적으로 온화한 인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정은 평삼이 그린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도>(1781)의 본존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며, 입술과 수염표현, 그리고 살구색 바탕에 적색 줄무늬를 가한 계주의 묘사법도 동일 필치임을 확인할수 있다. 이러한 양식 특징은 불의(佛衣) 끝단의 보상화덩쿨무늬, 두꺼운 금박의 고금처리 등 복식표현에서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삼존의 도상은 물론 온화한 얼굴 표정과 계주의 형태, 그리고 문양처리 등은 쾌윤(快允)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남해 용문사 괘불도> 및 <화순 만연사 괘불도>의 영향을 직감할수 있는데, 평삼은 용문사괘불 제작에도 참여하였으므로 영향관계가 인정된다.

옥천사괘불의 화풍에서 주목할수 있는 점은 적색과 백색 위주의 명료하고 화사한 색감과 다양한 문양이라고 할수 있다. 우선 불보살 등 존상의 육신부에는 흰

색안료(만연사괘불의 백색안료는 연백임)를 많이 넣어 마치 살이 흰색으로 보일 정도로 밝게 채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역시 만연사 괘불탱과 흡사하지만 운흥사 괘불이 더 백색에 가까운 적색과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화승 평삼의 독특한 미감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본존의 붉은색 가사에는 둥근 원 안에 연꽃 혹은 용 등 각종 문양을 넣은 큼직한 원문을 곳곳에 배치하였다. 원문은 적색, 녹색, 청색 꽃잎을 세겹돌리고 내부에는 바림한 자색 혹은 금박의 문양을 넣어 정성들여 완성하였다. 금색의 문양은 우선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고분법으로 문양을 도드라지게 하고 그 위에 금니 혹은 금박을 얹혀 금빛이 더 빛나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각기 녹색과 적색 천의(天衣)를 두르고 여의와 연봉오리를 지물로 들고 정면으로 서있는 문수와 보현보살은 얼굴 표정, 화려한 보관의 형태와 영락 장식이 많이 가해진 복식 표현 등에서 <화순 만연사 괘불도>(1783)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보살의 무릎 위쪽에 보이는 군의(裙衣)의 백색 바탕에 청색으로 그린 독특한 모양은 다른 괘불에서는 보기 어려운 인상적인 것이다. 백색바탕에 군청색 안료로 문양을 그렸는데 문수보살의 군의에는 바탕에는 전면적으로 연화당초문을 그리고 여러겹으로 테두리를 돌린 큼직한 원 안에 각기 포도넝쿨과 다람쥐, 그리고 계수나무 아래에서 절구질하는 토끼를 그렸고, 보현보살의 군의에는 운학문을 그렸다. 포도와 다람쥐는 다복과 다산을 상징하는 문양이고 운학문 및 계수나무와 토끼 역시 도자기 등 다양한 민간예술품에서 사용하던 길상문이다. 또한 모두 청색물감으로 구륵없이 그려져 조선후기 불교와 민간사상의 상호습합 양상, 그리고 일반 회화기법의 적용 등을 알려주는 사례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비현과 쾌윤이 제작한 <영암 불갑사 팔상전 석가설법도>(1777년, 전라남도 시도유형문화재 제307호)의 보살 군의에서도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비현과 쾌윤의 화풍을 평삼이 수용하여 옥천사괘불에 적용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는 도상은 물론 표현기법 면에서도 <남해 용문사 괘불도> 및 <화순 만연사 괘불도>를 그린 쾌윤 등의 기법을 수용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협시를 작게 표현하여 본존의 우위를 강조하여 삼존의 안정적인 효과를 주고, 여백에 제자와 타방불을 배치하는 등 구성에서 변화를 주었고, 육신부를 밝게 하여 전반적으로 밝고 화사한 화면 효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개성은 용문사나 만연사괘불과는 달리 본존 신광에 연주문, 금강저 등 문양대를 돌린 점에서도 드러난다.

화면의 사방 변아는 비교적 좁은 편이며 회청색 바탕에 흰색으로 연화당초무늬를 그려 넣었고, 화면의 하부에는 삼존의 발아래 위치에 각기 3개의 화기란을 만들어 화기를 기록하였다.

2. 괘불함

궤불함은 1808년 괘불조성 시 함께 제작되었다. 재목은 820.5×33.5×34cm의 소나무이며 판재는 서로 맞물리도록 사개짜임으로 끼워 맞췄다. 덮개와 몸체에는 장석과 약과형 자물쇠 장치, 둥근 고리 등 여러개의 철물을 부착하였다. 특히 앞면에는 철물에 범자로 출실지(아라바자나)를 투각했고, 철물을 잘라 해와 달을 형상화하고 '日光', '月光'을 투조하고 나무 문양을 타출한 둥근 장식을 부착하였다. 이외에도 주역의 괘와 卍자, 여의두문, 안상문, 보상화문양을 표현하여 정성을 많이 들였음을 알 수 있다. 목공예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것으로 판단된다.

도한 뚜껑 안쪽에 '고성 와룡산 운흥사 궤불함' 대시주 연화 공양주 조성연원일 등의 기록이 묵서되어 있다. 진양목(晉陽牧)의 성 안에 거주하는 김래원(金來源) 부부가 시주했으며, 진양목에 거주하는 김업발(金業發)과 철성읍(鐵城邑)의 金潤泙(金潤泙)이 장식편수(裝飾片手)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어 제작 장인을 알려주는 사례로서도 주목된다.

ㅇ 문헌자료

『고성 옥천사 괘불』, 2017년 괘불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2017.

최엽, 「연화산 옥천사 괘불탱 연구」,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27-고성 옥천사괘불탱』도록, (통도사성보박물관, 2012)

『괘불조사보고서Ⅲ』,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ㅇ 조사내용

고성 옥천사는 연화산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의 말사이다. 사찰의 창건은 676년(문무왕 10)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40년(인조 17) 學明과 義悟가 중창하였고, 1883년(고종 20)에는 龍城이 중건하였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제작된 주요 불사로는 1670년에 제작된 <명부전 석조지장시왕, 경옥 작>과 1744년에 제작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보물 제1693호), 1721년(숙종21)에 주조된 <동종>, 1745년에 중창된 대웅전, 1774년(영조 50)에 그려진 대웅전 영산회상도, 1808년 그려진 영산회 괘불도가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괘불은 화면은 모두 20폭의 비단을 이어 붙여 대화면을 마련하였다. 상·하 축은 원래의 것으로 생각되며 청색 바탕의 폭이 좁은 회장에 바로 연접해 달려 있다. 상축에는 괘불을 걸기 위한 5개의 고리를 마련하였고, 상·하축의 끝부분에는 주칠

이 되어 있다. 변아에는 회청색 바탕 위에 백묘로 회화성 짙은 연화넝쿨문을 상큼하게 그려 넣어 장엄하였다. 화면 하단 3곳에는 붉은 바탕에 장방형의 화기란을 마련하고 먹으로 제작연대, 제작자, 제작에 동참한 시주자 명단을 빈틈없이 기록해 두었다. 시주자 명단에 수많은 亡者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때 이 괘불의 제작 배경이 영가천도와 크게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뒷면에도 괘불 제작에 동참한 시주자를 堂庵별로 열거하고, 특이하게도 '廣 二十四尺三寸', '長三十三尺'이라는 괘불의 크기를 적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옥천사 주변의 堂庵 현황은 물론 괘불도의 크기 고증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화기에는 '大靈山會'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 괘불이 靈山齋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산회 괘불도'임을 밝히고 있다. 제작에 참여한 화원은 모두 18명으로, 수화승은 18세기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한 평삼이다. 평삼은 쾌윤, 비현 등의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유파를 계승한 화원이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평삼의 마지막 작품이자, 그가 수화승으로 남긴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다. 평삼 외 참여자는 錫奎, 唯性[44], 度日[45], 察旻[46], 璽安, 再澄, 弘泰[47], 敎桓[48]. 千佑, 趙鑑, 敬朋[49], 彭憲, 仙己, 仙敏, 演日, 慕訓, 志洪 등으로, 18명의 화원이 공조하였던 만큼 당시 진행된 불사로서는 대규모 불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단위 화승들이 참여하여 그렸지만 등장인물이 많지 않고 도상이 단순하여 간결하고 간단한 구성을 보인다. 화면의 구성은 크게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五尊을 이루고 있다. 화면 중앙에 가장 크고 돋보이게 석가여래를 배치하고, 석가여래의 어깨 정도 높이로 좌우 협시를 그보다 작게 배치하였다. 삼존은 모두 입상으로 표현하였고, 원근감 없이 나란히 자리한 모습이다. 화면의 상단 좁은 여백에는 가섭과 아난 양대 존자와, 그 좌우측에 각각 3위의 여래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간결한 오존 구도

---

44) 3위 唯性(또는 惟性)은 수도사 감로도(1786년, 2위/惟性, 首 評三)를 제작하였다.

45) 4위 度日(또는 道鎰, 道日, 度鎰)은 仙巖寺 仙助庵 神衆圖(1801년, 1위/道鎰), 仙巖寺 羅漢殿 三世佛圖(1802년, 3위/道日, 首 快允), 仙巖寺 羅漢殿 神衆圖(1802년, 3위/道日, 首 快玩), 仙巖寺 二刹主 道詵國師眞影(1805년 중수, 1위/道日), 仙巖寺 三刹主 大覺國師眞影(1805년 중수, 1위/道日), 玉泉寺 靈山會掛佛圖(4위), 仙巖寺 修道庵 三世佛圖(홍탱, 1812년, 1위/度鎰), 仙巖寺 修道庵 神衆圖(1812년, 1위/道鎰), 松廣寺 廣遠庵 三世佛圖(1823년, 1위/度鎰), 松廣寺 浮屠殿 神衆圖(1828년, 1위/道鎰) 제작에 참여하였다.

46) 察旻(또는 察敏)은 救仁寺展示館 阿彌陀如來圖(1786년, 2위/察敏, 首 評三), 修道寺 甘露圖(1786년, 4위, 首 評三, 통도사성보박물관), 雙溪寺 古法堂 神衆圖(제석, 1790년, 5위/察旻, 首 評三), 仙巖寺 雲水蘭若 地藏圖(1796년, 4위, 首 快玩), 仙巖寺 雲水庵 神衆圖(1796년, 4위/察敏, 首 快玩) 제작에 참여하였다.

47) 弘泰(또는 洪泰)는 百泉寺 雲水庵 甘露圖(1801년, 5위/洪泰, 首 泰榮), 雲臺庵 神衆圖(1801년, 5위/洪泰, 首 泰榮, 쌍계사 소장) 제작에 참여하였다.

48) 敎桓은 仙巖寺 羅漢殿 三世佛圖(1802년, 9위, 首 快玩), 仙巖寺 羅漢殿 神衆圖(1802년, 11위, 首 快玩) 제작에 참여하였다.

49) 敬朋(또는 敬鵬)은 仙巖寺 羅漢殿 三世佛圖(1802년, 14위/敬鵬, 首 快玩), 仙巖寺 羅漢殿 神衆圖(1802년, 14위, 首 快玩), 仙巖寺 修道庵 三世佛圖(홍탱, 1812년, 2위, 首 度鎰), 仙巖寺 修道庵 神衆圖(1812년, 2위, 首 度鎰) 제작에 참여하였다.

와 배치는 괘불도에서는 흔히 살펴지는 배치와 구도법이다. 검푸른 하늘에는 오색으로 뭉게 구름과 떠가는 구름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화면 구성과 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가여래는 둥근 두광과 화염이 타오르는 꽃잎모양의 신광을 갖추고 있다. 두광의 표면은 녹색이며, 테두리는 2빛의 적색계통과 청색 계통 처리하여 빛이 발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석가불의 육계는 뾰족하게 솟았으며 정상에는 둥글고 큰 정상계주가 표현되었고, 머리와 육계의 경계부에는 초승달 모양의 중앙계주를 나타내었다. 양 계주에는 붉은색으로 호선을 그어 瑞氣를 표현하였다. 정상계주와 머리의 양 측면에서는 光明이 발하여 하늘로 뻗어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래의 발제선인데, 앞선시기의 작품에는 발제선 중앙에 머리카락을 'ω'모양으로 애교머리를 표현했지만 이곳에는 'U'로 처리하여 시대변화를 읽을 수 있다. 석가여래의 윗면에는 활짝 핀 연꽃이 天蓋를 대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천개의 표현은 1730년 운흥사 대웅전 삼세불도(약사여래도, 아미타여래도)에서 비롯하여 19세기 초 작품인 쌍계사 아미타여래도 등에서도 두루 확인된다. 대의는 편단우견으로 착용하였고 활짝 열린 가슴에는 영롱한 무지개 빛으로 '卍'字를 그려 넣었다. 대의 깃에는 연꽃과 석류동을 결합한 문양을 엇갈리게 시문하였고, 표면에는 큼직한 圓花文을 그려넣었다. 이곳에 표현된 도상과 시문 방식은 평삼의 스승인 비현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왼손은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여 마치 가슴에 새겨진 만자를 받치듯 처리하였고, 오른손은 정강이까지 길게 내려 촉지인을 취하였다. 두 발은 八字로 벌려 각각으로 마련된 홍련좌를 딛고 섰다. 상호는 갸름한 편이며 눈은 크게, 코와 입술은 오밀조밀 작게 표현했다. 눈꼬리는 살짝 올라갔고 눈썹은 시작 부분에서 끝 부분으로 갈수록 내려가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입술은 코 너비보다 작게 그렸으며, 입술 가운데를 황색으로 위·아래 구분하여 살짝 벌린 듯 보인다. 수염의 경우, 턱에 그려진 수염은 입술보다도 크게 그려 돋보인다.

정면을 향해 시립해 있으며, 그 좌·우에 여의를 든 문수보살과 연꽃을 든 보현보살이 위치해 있다. 또한 상단에는 비로자나불처럼 지권인을 결한 가섭과 합장한 아난존자가 석가여래의 광배 좌우에 각각 배치되었고, 어깨는 약간 틀어 석가여래를 향했으나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다. 양대 존자 옆으로는 둥근 정상계주와 반달모양의 중앙계주를 갖추고 대의를 착용한 여래 3위가 합장을 하고 석가여래를 향했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적색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 외에 녹색과 황색 순으로 사용했다. 또한 부분적으로 문양에 청색을 채색했는데, 특히 가슴의 만卍자에 적색, 녹색, 청색, 흑색 등 4가지 이상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했다. 主線은 먹 선을 사용하였고 입체감을 주기 위에 먹선 곁으로 백선을 한 번 더 그어

강조하였다.

한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얼굴을 비롯하여 보관, 천의까지 대칭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손에 들고 있는 연꽃 가지의 길이와 이를 잡고 있는 방식, 군의에 그려진 문양은 다르게 표현했다. 보관은 화염과 각종 보석으로 구름으로 이루어진 3엽 花冠인데, 화관의 표면에도 섬세한 꽃무늬를 시문하여 소홀함 없이 처리하였다.

군의의 문양을 보면, 좌협시 문수보살의 군의에는 방아 찧는 토끼와 포도를 따먹는 청솔모(다람쥐)를 그려 넣었으며, 보현보살의 경우는 군의의 여백을 활용하여 보주를 물고 있거나 입에서 놓친 학을 대칭으로 그렸다. 이렇듯 군의에 백색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청색으로 다양한 문양을 그리는 특징은 전라도에서 활동한 화원 비현을 비롯하여 평삼 등 그 계보가 주로 사용한 표현 기법이다. 옥천사본은 비현의 계보로 알려진 화악당 평삼이 수화원으로 참여하였는데, 비현이 1783년에 그린 만연사 괘불탱과 유사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의 화기는 화면 하부에 세 곳의 화기란을 마련하여 기록했다. 화기 A는 가경嘉慶 13년 무진戊辰, 즉 1808년 4월에 경상좌도 진주목 남령 연화산 옥천사에 대영산회를 새로 조성하여 봉안한 사실을 기록했다. 뒤로는 주상삼전하의 축수와 연화질을 기록했다. B에서는 시주질을 열거하고 있으며, C는 시주질과 본사질을 기록했다.(화기 성보문화재연구원 제공)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은 1994년 7월 4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9호로 지정된 이래 2012~2013년 통도사 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과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 괘불전시 때 출품, 전시된 바 있다. 2017년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때는 안료 안정화 작업과 일부 찢어진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응급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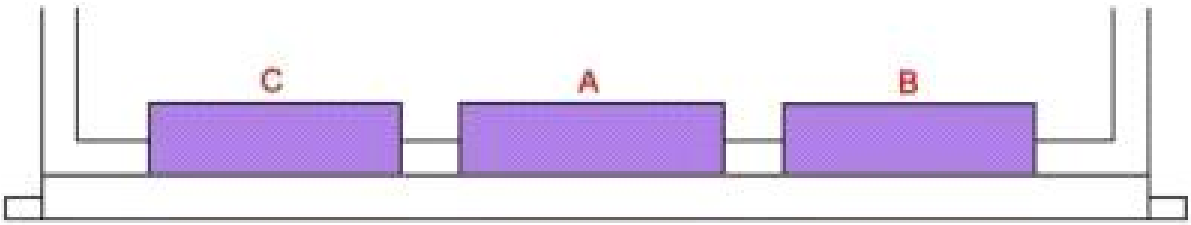
ㅇ 괘불함

옥천사 괘불함은 긴 장방형의 함으로, 전체 크기는 821.4cm, 높이 32.8cm, 너비 34.6cm, 두께는 1.8~2.5cm며, 무게는 134kg이다.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괘불함은 괘불도 조성 당시 함께 제작한 함으로 덮개 안쪽 좌우 2곳에는 묵서가 남아 있다. 묵서에 따르면 진양목의 城 안에 거주하는 김래원 부부가 시주했으며, 진양목에 거주하는 金業發과 철성읍의 金潤平이 장식편수로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괘불함 앞면에는 범자로 출실지를 투각했으며, 철물을 잘라 해와 달을 형상화해 '日光', '月光'이라는 글자가 새긴 둥근 장식을 부착했다. 뒷면 장석에는 호신진언과 만자를 투각했다. 고리는 정면에 5개, 측면에 2개 달았다. 함의 밑면과 측면에는 장식성이 강한 장석과 감잡이를 부착하여 뒤틀림을 방지하였다. 장석은 후대 보수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작하여 부착된 것도 확인된다.

옥천사 괘불함

그림 141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1808년

【화기】



A.

嘉慶拾叁[50]年戊辰四月日慶[51]
尙右道晋州牧南嶺蓮花
山玉泉寺大靈山會新畫
成奉安
　王妃[52]殿下壽[53]萬歲[54]
主上殿下　壽萬歲
　世子邸下壽萬歲
　國泰民安[55]法輪轉

　　緣化秩
證師萬波堂 太如
　　枕虛[56]堂 守一
金魚華[57]岳堂 評三
　　錫奎[58]
　　惟[59]性
　　度日

---

50)'叁'의 속자
51)'慶'의 이체자
52)'妃'의 이체자
53)'壽'의 이체자
54)'歲'의 이체자
55)'安'의 이체자
56)'虛'의 이체자
57)'華'의 이체자
58)'奎'의 이체자
59)'唯'의 이체자

片手	察旻
	垔[60]女
	冉[61]澄
	弘恭
	敎桓
	千佑
	趙鑒
	敬朋
	彭憲
	仙己
	仙敏
	演日
	慕訓
	志洪
誦呪法師	玄冶
	性仁
	德冶
	似洪
	始鑑
	戒昆[62]
	正原
	永安
	義伯
	宊閑
	有軒
	德性
	冉璟[63]
	戎[64]活
持殿松谷堂	等[65]學
	有希

60)'壐'의 이체자
61)'再'의 이체자
62)'恩'의 이체자
63)'環'의 이체자
64)'戒'의 이체자
65)'等'의 속자

供養[66]主	演澄	
	道益[67]	
	幸印	
	致淑	
浄桶	有性	景冶伏為
魚山	永安	亾父金孟哲
	性宇	生母女氏
	守還[68]	思訓伏為
	處[69]仁	生父金德守
	好益	
	海圓	冶手金業發[70]
茶角	景芸	徐尙季伏為
書寫[71]	宅修	亡[72]父尋章
鍾頭	哲性	子仁福
	尋淑	文守伏為
木手	福性	鄭氏体保[73]
	朴重孫	
化主松谷堂	等學	
	斗印	
前僧統	敬活	
	己還	
別座前僧統	恭旭	
都監圓峰堂	曰宗	
前僧統	葑寓	
摠[74]勘前僧統	思彦	
察衆前僧統	廓順	
維那前僧統	六蘭	

66)'養'의 속자
67)'益'의 이체자
68)'還'의 이체자
69)'處'와 같은자
70)'發'의 이체자
71)'寫'의 이체자
72)'亡'의 이체자
73)'保体'의 오기
74)'摠'의 이체자

負木　　守伯

B.

施主秩　掛佛㪷大施主統營沙工廳[75]
基布大施主　　張奉雲　李德[76]茂
基布大施主　　朴日權
基布大施主　　李竜澤
基布大施主　　金宗吉
基布大施主　　安順福
基布大施主　　趙晋吾
　　綻岑　　伏為
亡恩師　　豊悟　　靈駕
亡父　　黃世宗　灵駕
　　柳丙祚
　　柳甲浔
　　鄭時載
聖菴堂　　好賢　　伏為
亡父　　姜弼貴丙[77]主 灵[78]駕
　　恭旭　　伏為
亡父　　鄭昌文丙主 灵駕
　　思彦　　伏為
亡恩師 通政　　若律　　灵駕
亾父　　文德奉丙主 灵駕
亡兄　　以昌　　灵駕
　　葑寓　　伏為
亡恩師　　永審　　灵駕
亡母　　鄭氏　　灵駕
生父姜旺世保体 敬活　　伏為
亡恩師霜谷堂　　錦華　　覺灵
嘉善大夫　　有修　　保体
　　記泰　　伏為
亡恩師通政　　開宗　　灵駕

---

75)'廳'의 이체자
76)'德'의 속자
77)'兩'의 속자
78)'靈'의 이체자

亡父　　崔雲慶两主 灵駕
　　得敏　　伏為
亡恩師　　澤澄　　灵駕
亾父　　丁仲世两主 灵駕
　　戎察　　伏為
亾父　　姜選恭　　灵駕
生母　　金氏　　保体
亡祖父　　姜重奎两[79]主 灵駕
　　定悟　　伏為
亾父　　高[80]時東　灵駕
生母　　全氏　　灵駕
生弟　　孟岩囲[81]
　　孟元　　保体
　　全命五　伏為
亡父　　全渭安　　灵駕
　　奉希　　伏為
亡恩師　　智英　　灵駕
　　說[82]旻　伏為
亡恩師　　瑞淸　　灵駕
　　尙輝　　伏為
亡恩師　　己益　　灵駕
　　大洪　　伏為
生母　　金氏　　保体
　　官察
　　　　等[83]伏為
　　冉和
亾恩師　　位捻[84]　　灵駕
　　宅修　　伏為
生母　　文氏　　保体
　　處仁　　伏為
亡父　　金岳起两主 灵駕

---

79)'兩'의 속자
80)'高'의 속자
81)'回'의 이체자
82)'說'의 이체자
83)'等'의 속자
84)'摠'의 속자

文淑　　伏為

亡恩師　　樂[85]修　　灵駕

亡父　　文德福两主　灵駕

廓順　　伏為

亡父　　鄭元仲两主　灵駕

亡師　　忍察　　灵駕

金玩平两主　保体

C.

施主秩　鄭有倍保体

益濟伏為

亾兄比丘　八定灵駕

斗仁伏為

亾師比丘　瑞淸灵駕

司洪伏為

亾父　黃命三两主灵駕

呂允[86]比丘

亾父　李德興灵駕

晉淑旻弘伏為

亾師永谷堂　碩宇覺灵

幸奎伏為

亾師普岩堂　道愼覺灵

幸守伏為

亾師通政大夫　幻審灵駕

等學伏為

亾師　官淑灵駕

亾父　李廷源灵駕

倜修伏為

亾師　意學灵駕

記賛伏為

亾師　性祐灵駕

定宅伏為

亾母　金氏　灵駕

祥定伏為

85)'樂'의 약자

86)'允'의 이체자

亾父　　吳夢[87]石灵駕
　　德印伏為
亾師嘉善大夫　文貸灵駕
　　佑日伏為
亾師　　廓淸灵駕
　　補日伏為
亾父　　朴萬守灵駕
　　許召史伏為
亾父母　　両主灵駕
　　守一伏為
生母　　徐氏保体
　　永貸伏為
亾師　　承學灵駕
嘉善大夫比丘　貸永保体
　　宣弘伏為
亾師　　典輝灵駕
　　己郁伏為
生父嘉善大夫　姜日貴保体
亾母　　方氏　灵駕
亾兄　　尙齊　灵駕

本寺秩　　林就[88]龍保体
大禪[89]師聖菴堂　好賢
　　萬波堂　太如
　　無說堂　有聞
　　老德　快澄
　　照平
　　碩揔
　　智岑
　　豊澄
前僧統　　性慧
時僧統　　大彦
典佐　　司存

87)'夢'의 이체자
88)'就'의 속자
89)'禪'의 속자

當司　　戒察
公貟　　益洛[90]
　　持司 竺洽
三綱　　書記 印俊
　　三寶[91] 演洽
新畫成于　白蓮堂

【뒷면 후배지 묵서】

淸溪堂
聖菴堂大禪師好賢
　　斗印
前僧統　　奉寓
　　八揔
　　有○
　　司存
　　得旻
　　戒岑
　　最悅[92]
　房○ 定云
　　己贅
　　印元
　　記泰
　　官悅[93]
　　斗伯
　　幸玧
　　永鵬
　　以洽
　　志性
　　教性
　　文守
　　採永
　　拌花

90)'濟'의 이체자
91)'寶'의 속자
92)'悅'의 속자
93)'悅'의 이체자

㐄淑
㐄守
呂弘
典幸
呂花
守輝
典廣
文拭
小者　　得拜
夢釋
旭以
○○
金重瑞
金○岩
裵○以
極樂堂
正宅
通政豊澄
敬芸
前僧統通政　廓順
房丈重○
八弘
瑞澄
己俊
品印
文覺
瑞永
印宗
克玧
○貽
官信
仁幸
呂性
謹行
仙學94)
戎鵬

94)'學'의 속자

小者　得○
末孫
謂得
○種
金元善
河大孫
大甲
觀[95]音殿
萬波堂大禪師　太如
快宊
真順
志順
萬輝
綻岑
房長　福性
戎言
寬察
哲性
志洽
寬平
普允
司洪
天性
性學
敏洪
振夙
振添
妙元
玕益
福還
玕沾
義澄
性宇
小者　福談
以得
得明

95)'觀'의 속자

貴孫
仁孫
諸作志
朴季元
青蓮菴
圓峯堂大禪師　曰宗
志岑
化俊
六守
位成
戒〇
宣洪
元冶
時冶
明元
幵雄
允卓
幵天
允幸
幵俊
元俊
宇玩
宊旻
致寬
周如
明允
小者　尙彦
白蓮菴
無說堂大禪師　有聞
快澄
尙〇
演澄
抱順
前僧統大德首座思彦
祕玹
允添
允性

文叔
止○
○○
○○
吉○
大○
小者　種○
春尙

○○○　仁○
戒云
斗官
有旭
明活
寬俊
房長　學淸
成學
典日
成贇
玕悅
小者　應云
季春
宋春葉
得福

○慶十三戊辰三月日玉泉○
掛佛重畫時施主㸔[96]各房名欵以
記遺之後人覽[97]之
探眞堂
前僧統通政泰郁
時僧統登階大彦
漢英
正學
信還
采元

96)'兼'의 이체자
97)'覽'의 이체자

補日
正旭
房長幸宅
印玄
印雋
斗洪
唯演
詳宅
寬哲
明淑
訐元
元卓
呂冶
允學
小者　以孫
俊伊
龍伊
以岑
希玉
宗錄
施主諸聖大
趙春得
說禪堂
色允
奉稀
說旻
竺冶
竺安
守閑
宅修
幸彦
性祐
幻平
景儀
大弘
印貸
房長妙安

德貧
好益
守日
性悟
性一
尙輝
晉冶
元哲
採俊
典湜
慶希
右冶
呂允
小者　福暹
性孫
福大
具現有
金得只
滿月堂
照平
前僧統通政敬活
敞寬
前僧統登階性慧
官忍
永安
時公貞房長益濟
運弘
會英
品性
宣彦
冉仁
官宗
時演
任輝
希湜
守伯
希信

旻洽
永周
小者　致文
宗得
汗用
○得
○○
○孫
徐有光
白蓮堂
前僧統嘉善六蘭
嘉善碩揔
叙云
八訓
楽元
處仁
快仁
斗印
戒彦
幸守
幸信
而還
己活
景岑
巨永
房長己旭
演洽
天鵬
景洽
官洽
景宗
守性
明連
進律
徳仁
洪哲
右○

呂𣳾
義宅
祐性
定玉
採丸
謹命
興世
甲伊
光悅
宗攝
金占得
金孟悅
清風寮
謹旻
敍言
仁察
天𣳾
徳岑
現演
戒察
學宗
景守
幸淑
房長天希
敏官
〇悟
永俊
洪日
明察
幷稀
〇〇
〇〇
仁〇
仁守
小者〇〇
〇興
秀元

○○

掛佛造成年月日
證師萬波堂太如
金魚革岳堂評三
時僧統　　大彦
化主松谷堂等學
　　斗印
嘉慶拾參[98]年四月日
廣二十四尺三寸
長三十三尺

出家子比丘宊宅
伏為
亡母金氏　　靈駕

癸酉生金氏妙義

【뒷면 후배지 주서】

奉
○子曰宗常誦願文
○為佛弟子終身不退志消灾降福究○
徃生之願
　歎白
德震三千界　普放光明眼
慈被四部衆　大地一顧中 ……

【궤불함 묵서】

掛佛造成年月日
證師萬波堂太如
金魚革[99]岳堂評三

98)'叅'의 속자
99)'華'의 이체자

化主松谷堂等學
斗印
時僧統　大彦
嘉慶拾参年戊辰四月日

莊飾片手
金業[100]發保體居晋陽牧
金潤泙保體居鐵城邑
願以此功德[101]往[102]生極楽[103]
共成
佛道之願

慶嘉[104]十三季鶉月[105]日
施主
牧地城内居戊戌生金来源丙[106]主
保體世ミ亨泰灾消障
盡之願
時僧統両宗判司大彦
書[107]記[108]印俊
三綱　持寺笠冶
三宝永俊

100)'業'의 이체자
101)'德'의 속자
102)'往'의 속자
103)'樂'의 약자
104)'嘉慶'의 오기
105)'鶉月'은 5월은 의미함
106)'兩'의 속자
107)'書'의 이체자
108)'記'의 이체자

○ 고성 옥천사 영사회괘불도 수화승 평삼의 활동

순번	작품명	제작 시기	재질	크기	화원	비고
1	순천 선암사 삼세불도	1765년	마본 채색	505x376	快潤, 朗心, 帶閑, 浔仁, 震一, 良活, 天心, 典環, 偉箴 爰粲, 暢善, 測遠, 軌演, 平三	海川寺 三世佛圖(釋迦)
2	용문사 괘불	1769년	마본 채색	865.5x585	快玩, 福燦, 朗心, 震平, 得仁, 愛粲, 講雲, 洪彦, 益淳, 萍三, 銀華, 妙定, 奉圭	보물 제1445호
3	불갑사 팔상전 석가모니불도	1777년	견본 채색	149x200	金魚 丕賢, 再華, 福粲 片手 快允, 勝甫, 講云, 洪彦, 支順, 平三, 泰閏, 咸湜, 國印, 性岑, 禮俊, 宇寬	
4	쌍계사 삼세불도(석가)	1781년	견본 채색	474x316.5	金魚 勝允, 萬輝, 泓源, 智淳, 平三 片手 端誨, 勝文, 咸湜, 旺演, 維性, 出定, 旺仁, 普信, 極贊, 察森, 斗贊, 巨奉, 戒卓, 月賢	보물 제1364호
5	쌍계사 삼세불도(아미타)	1781년	견본 채색	496x320.5	金魚 平三, 咸湜, 旺演, 旺仁, 察森, 極贊	보물 제1364호
6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년	견본 채색	197x363	金魚 勝允, 萬輝, 泓源, 智淳	
7	구인사 아미타도	1786년	견본 채색	215x240	畫師 評三 片手 察敏, 惟性, 極贊, 幻永, 友心, 永□, 快性, 性□, □□	
8	수도사 감로도	1786년	견본 채색	189x204	畫師 評三, 惟性, 性允 片手 察敏, 極贊, 幻永, 友心, 快性, 影輝, 永宗	*통도사성보박물관
9	쌍계사 고법당 신중도(제석)	1790년	견본 채색	160.5x118.5	金魚 評三, 弘愿, 智淳, 極贊 片手 察旻, 暢修, 印俊	*경남유형 제385호
10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1808년				

ㅇ 19세기 괘불현황

no	명칭	조성 연대	크기(cm)	소재지	비고
1	직지사 괘불도	1803	1,270×506	경북 김천시 직지사	
2	청룡사 비로자나괘불도	1806	827×332	서울 종로구 청룡사	현 원통사
3	옥천사 영산회괘불도	1808	1,009×736	경남 고성군 옥천사	
4	계림사 석가여래괘불	1809	710×327	경북 김천시 계림사	
5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1832	544×366	서울 성북구 흥천사	서울 유형 제372호
6	영은사 영산회괘불도	1856	840×603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	강원유형제108호
8	천축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1858	507.0×312	서울시 도봉구 천축사	서울유형 제251호
9	흥국사 괘불도	1858	582×323.5	경기도 남양주시 흥국사	
10	청계사 비로자나삼신괘불	1862	510×323.5	경기도 의왕시 청계사	
11	백련사 괘불도	1868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	
12	경국사 괘불도	1878	608×375.5	서울시 성북구 경국사	서울 유형제264호
13	개운사 괘불도	1879	730×366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	
14	아미타괘불도	1882	570×329	불교미술박물관	서울유형제 122호
15	내원암 괘불도	1885	580×329	경기도 남양주시 내원암	경기유형제83호
16	화계사 아미타괘불도	1886	710×404	서울시 도봉구 화계사	서울 유형제386호
17	봉은사 석가여래괘불	1886	686×394.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	서울 유형제231호
18	의정부 망월사 괘불도	1887	617×348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사	경기 유형 제272호
19	해인사 영산회괘불도	1892	875×457	경남 합천군 해인사	경남 유형 제574호
20	불암사 괘불도	1895	589×356.5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사	경기 유형 제315호

玉泉寺掛佛畫成記

1808년, 나무에 음각, 28×84㎝, 자방루

玉泉寺掛佛畫成記
按南華老仙云 至人無己 聖人無名 況釋氏 無相爲體 無住爲用 豈假名相爲哉 但以正容範物 導人追宗 强言無相之相 無名之名爾[109] 歲[110]戊辰 余自天嶺 移會稽之花林 庵居數[111]月 玉泉寺香室走伻諗余曰 環嶺七十州 莫晉陽如也 環州數百刹 莫我寺若也 品物備具 掛佛破古 賁發重新之計 謀諸衆僉[112]曰諾 於是焉 時僧統葑寓 寔主張事 前揔摂敬活斗印記還 寔招募財 余亦預也 司貨者泰旭 監役者司彦大彦也 邀畫士以成之 光相顯ㄷ[113] 瑞氣蟠空 儼然大雄氏丈六金軀特立 實未曾有也 惟子毋惜一齑臼以誌焉 余蹶然而起 口呿而驚曰 記者名也 事者實也 我将為名乎 余悪乎為然 有不得已者存 凡[114]物之興賛 必待乎人與時 有其人後事可成 有其時後人可功矣 不然則 龍興之殿 何待乎三百年後 非衣功德[115]主而成也 是知功成事就 關於時而係於人也 余觀近世僧輩沒於情波 爛於欲火 坐視佛像之破壞 如視越人之肥瘠 可勝惜哉 若諸公佛而忘[116]身 公而忘私 至於金容變壞 法殿傾頹 以彌[117]縫補闕為事 比諸汲ㄷ[118]為身者 實天壤矣 事可尚也 略誌云爾香室誰 我法兄松谷也 畫士誰 花岳評三也
崇禎紀元後三戊辰四月 日九淵璿鎰誌 時書記印俊書

109) '爾'의 이체자
110) '歲'의 이체자
111) '數'의 이체자
112) '僉'의 이체자
113) '顯'자 반복 부호임
114) '凡'의 속자
115) '德'의 속자
116) '忘'의 속자
117) '彌'의 이체자
118) '汲'자 반복 부호임

大施主秩

大施主 滿月堂

嘉善宥修

朴日權

李龍宅

聖菴好賢

通政泰旭

供養[119]主 思彦

道益[120] 葑寓

演澄

別座 通政泰旭

都監 葑寓

圓峯曰宗

緣化秩

證師 萬波太如

枕虛[121]守一

誦呪 比丘玄冶

畫師 華嶽評三

金魚 比丘察旻

化主 松谷等學

敬活 斗印 記還

總監 司彦 大彦

持殿 有希

維那[122] 六蘭

察衆 廓順

時僧統 大彦

前唄 六蘭

廓順

魚山 處仁

書寫 宅修

好益

鍾頭 哲性

笠冶

三綱 印俊

連冶

刻手 順孫

---

119) '養'의 속자

120) '益'의 약자

121) '虛'의 속자

122) '那'와 같은 자

살펴보니, 장자가 이르기를, “지극한 사람에게는 사심이 없고 성인에게는 명예가 없다.”고 한다. 하물며 불교는 모습 없음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 없음을 작용으로 삼으니, 어찌 이름과 모습을 빌리겠는가. 다만 바른 용모로 남의 모범이 되어 사람들을 이끌고 종지를 좇을 뿐이지만, 억지로 이름 붙여 모습 없음의 모습이라 하고 이름 없음의 이름이라 할 뿐이다.

무진년(1808)이었다. 나는 천령[123]으로부터 회계[124]의 화림동으로 옮겨 암자에 거주한 지 수개월이 되었다. 옥천사의 향실이 와서 내게 이르기를 , 천령 주변 70주 가운데 진양[125]만한 곳이 없고, 그 70주의 수백 개 사찰 가운데 우리 사찰만한 곳이 없습니다. 물품이 모두 구비되어 있지만, 괘불이 파손된 지 오래되어 다시 조성할 계획을 세워 대중에게 모의하니 모두 좋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승통 봉우가 일을 관장하고 전 총섭인 경활, 두인, 기환이 재물을 모았고, 나도 참여하였다. 재정 담당자는 태욱이고, 일의 감독자는 사언과 대언이었다. 화사를 불러 완성하니, 빛나는 모습 엄정하고 하늘에 서기 서려 있으며 위엄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장육금상 우뚝 서 있어 실로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고 한 마디 기록도 아까울 것이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입을 벌려 놀라며 말하였다.

기록은 이름 붙이는 것이고 일은 사실이니, 내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왜 내가 그렇게 하려 하는가. 부득이한 것이 있으니, 모든 만물의 흥하고 쇠퇴하는 것에는 반드시 사람과 때를 만나야 한다. 사람이 있고 난 후에야 이룰 수 있고, 그 때가 있은 후에야 사람이 공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용흥의 전각이 어찌 삼백년 후의 비의 공덕주를 기다려서야 완성되겠는가. 내가 근세 승려들을 보니 정욕의 파도에 빠져있고 욕심의 불에 문드러져 있다. 불상이 파괴되는 것을 앉아서 보는 것이 마치 월나라 사람의 살찌고 여윔을 보는 것처럼 하니, 어찌 애석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가령 여러 스님이 부처님을 생각하여 자신을 잊고 공공을 생각하여 사심을 잊는다고 하면서도 불상이 파괴되고 법전이 무너지는 것에는 미봉책으로 수리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있다. 이는 모두 자신을 급급해 하는 것이며 실로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는 것이니 가상히 여길 수 있는 일이겠는가. 간략히 기록한다. 향실은 누구인가. 나의 법형 송곡이다. 화사는 누구인가. 화악평삼이다.

1808년 4월 구연선일이 짓고, 서기 인준이 글씨를 쓰다.

번역 : 이종수(순천대 교수), 국립중앙박물관,『고성 옥천사 괘불』(2017. p90.에서 옮김)

123) 경남 함양의 옛 이름

124) 경남 산청의 옛 이름

125) 경남 진주의 옛 이름

검 토 사 항

Ⅲ.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7-011

11. 보물 제1512호
20공신회맹축 - 영국공신녹훈후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

가. 검토사항

'보물 제1512호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보물 제1512호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신청('19.4.1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2.26./11.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512호(2007.4.20. 지정)
○ 명　　칭 :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1축
○ 규　　격 : 세로 88.9cm × 가로 2,413.0cm
○ 재　　질 : 비단, 종이, 옥, 나무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권축장(卷軸裝, 白玉軸)
○ 조성연대 : 1646년(인조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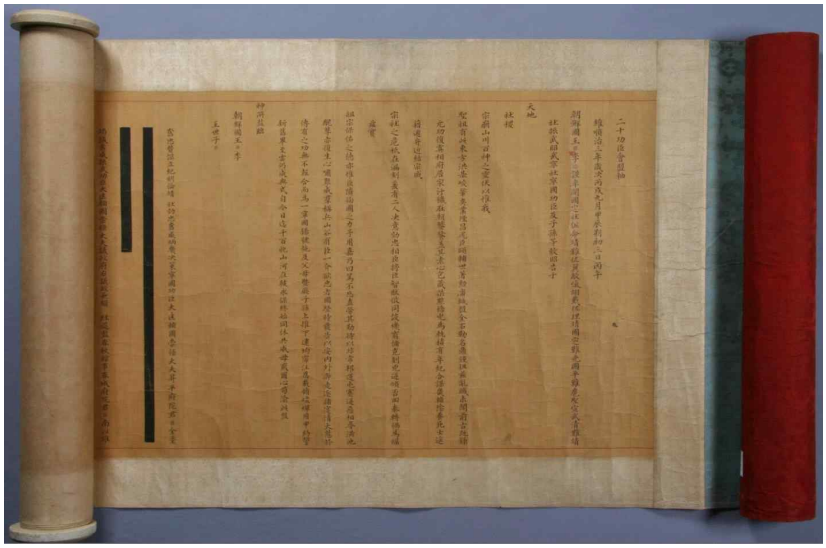


그림 695. 보물 제1512호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미흡)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이십공신회맹축』 두 종은 당시 정국의 전개과정이나 공신 녹훈과 삭훈의 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원천적인 사료이자 어람용 유일본이다. 더욱이 정성을 들여 쓴 글씨와 선명한 주사란, 제작에 사용한 각종 자료의 재질, 그리고 축을 제작한 장인의 솜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존하고 있는 회맹축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회맹축들은 당시 조선 왕실이 최대한의 정성과 노력을 결집하여 만든 유물로 현재 두 종 모두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①『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완성도와 어보가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삭훈된 이들이 묵삭된 흔적으로 보아 국보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회맹축은 숙종 20년(1694) 보사공신을 복훈한 후 회맹축을 제작하면서 인조 때의 회맹축 원안을 바탕으로 다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제작기법 등이 뒤에 제작된 보사공신과 거의 흡사하며, 선대의 어보도 찍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ㅇ (지정 가치 미흡)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인조 24(1646)년 회은군(懷恩君)을 추대하려던 역모를 수습하고 당시 호란으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역대 공신과 후손을 모아 충성맹세를 받기 위해 제작된 어람용으로서, 반사용

으로 훈련도감목활자로 『이십공신회맹록』(의 간본 및 회맹의 전말을 기록한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도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효종 2년(1651) 12월 김자점의 아들인 김익(金鈘)이 수어청 군사를 일으켜 숭선군(崇善君)을 추대하려던 역모가 발각되어 김자점과 아들과 손자 등 4명의 먹으로 지운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정치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회맹문을 쓴 서사관은 당대에 명필로 이름이 높았던 김의신이며 그의 필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예사적으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 회맹축이 주목되는 이유는 옥을 비롯한 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최고의 장인이 솜씨를 발휘한 장황에서 찾을 수 있다. 『녹훈도감의궤』에 의하면 회맹축을 장황을 위한 재료와 도구 및 장인이 기록되어 있어 제용감 등 여러 상설아문에서 장황을 위한 고급 재료를 녹훈도감 이방에 집산시키고, 별공작에서 만든 베틀이나 다회틀을 직조색으로 보내 초장(綃匠)이나 다회장(多繪匠) 등의 장인들이 생초(生綃)와 다회(多繪)를 제작하였다. 상하횡목의 옥막이는 평안도 성천에서 진상한 옥으로 옥장(玉匠)이 만들었다. 이처럼 그동안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축초의(軸初衣)와 상하좌우 회장과 상하횡목 및 옥막이 등 회맹축의 회장에 사용된 각종 재료와 도구 및 그것을 제작한 장인들을 밝힐 수 있어서 17세기 전반 왕실 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어 당시 조형예술의 백미로 주목된다.
이와 같은 어람용 공신회맹축은 조선 말기까지 본 인조 24년(1646)의 것과 숙종 20년(1694)의 『이십공신회맹축』, 영조 4년(1728) 『이십일공신회맹축』의 총3건이었는데, 현존하는 것은 2점으로 희귀한데, 본 회맹축은 그중에서도 시기가 이른 17세기의 것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중요성도 있다. 그러나 본 회맹축은 제작연월일을 쓴 다음에 국왕의 국새인 '시명지보'가 찍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람용 회맹축으로서 완결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건을 국보로 승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필사본인 본 <이십공신회맹축>은 왕실 유물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44년의 제작연대를 확인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인본인 『이십공신회맹록』, 회맹축의 제작과정 일체를 기록한 『녹훈도감의궤』 등 일체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어 이것들 일체를 함께 지정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현재 보물 제1512호의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이십공신회맹축>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권고한다.

ㅇ (지정 가치 미흡)

인조 대에 작성된『二十功臣會盟軸 - 寧國功臣敎書軸』은 회맹축 문서로는 현재 남아있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가진다. 그리고 24m가

넘는 대규모 生綃에 朱墨으로 邊欄을 치고 寫字官이 단정한 楷書體로 써서 제작하여 왕실자료의 장황에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문서를 완결시키는 '施命之寶'가 찍혀있지 않고, 削勳된 이들을 墨削한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완전성이 떨어진다. 본 회맹축은 인조 대에 작성된 원본이기 보다는 이를 베껴놓은 부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국보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ㅇ (지정 가치 미흡)

조사 대상본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은 호란 후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왕권 안정의 목표하에 이루어진 회맹의 기록으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또한 제작에 소용된 재료와 장황의 형태로 보아 어람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 왕실의 문화를 나타내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조에 제작된 보물 1513호 『二十功臣會盟軸』과 비교하여 삭훈된 이들을 묵삭한 흔적의 존치 문제, 보물 1513호에는 보이는 寶印이 없는 점등을 통하여 이 자료가 완전한 회맹축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으며[126] 회맹축의 말미에 상당한 분량의 여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규명한 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1910년 작성된 『奉謨堂奉藏書目』에 조사 대상본과 함께 영조조에 제작된 『二十一功臣會盟軸』이 소장되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에 대한 행방을 확인하는 것도 회맹축의 검토와 함께 숙제로 남아있음을 기록한다.

ㅇ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교서축』은 1646년(인조 24)년 9월에 영국공신(寧國功臣)을 녹훈(錄勳)한 것을 계기로 국왕이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부터 영국공신(寧國功臣)에 이르는 20공신과 그 자손들을 거느리고 회맹제(會盟祭)를 행한 이후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권축장으로 만든 것이다.

왕실이나 충훈부(忠勳府)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 회맹축은 당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寧國功臣을 녹훈하고 공신회맹을 하던 인조 때의 정치적 상황과 함께 회맹축 명단에서 묵말된 4명은 金自點과 그 자손들은 효종의 즉위 후 북벌론이 대두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

126) 全炅穆 ; 朴用萬 (2009),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16. 그러나 박성호(2017)는 이들 이외에는 두 종의 회맹축에 차별점이 없으며 인조조의 공신회맹축에는 보인을 찍지 않았다가 숙종조 복훈때에 회맹축에 보인을 날인했을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였다. 박성호(2017),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의 옛 맹약을 지키다』, 92.

또한 조사본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교서축』은 장대하게 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재료의 최고 재질, 축을 제작한 장인의 최고 솜씨, 선명한 주사란에 정성을 들여 쓴 寫字官의 달필 등 모든 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조사본은 이같은 문화재적 가치를 통하여 보물로 지정되었다. 다만, 함께 지정된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교서축』에는 '施命之寶'가 찍혀져 있으나 이곳에는 없고, 회맹록의 명단 가운데 일부 인불들이 삭훈된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 왕실자료로서의 한계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어람용의 경우 完全性과 함께 형식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면은 중요한 결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본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교서축』의 국보 지정은 조금더 시간을 두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미흡)

이 회맹축은 당시 정세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다. 寧國功臣을 녹훈하고 공신회맹을 하던 인조 때는 호란을 겪은 후 왕권은 약화되었고, 관료들은 親淸과 反淸으로 갈려 다투고, 인조를 제거하고 懷恩君을 추대하려는 역모가 일어나는 등 정국이 어지러웠으므로 이를 수습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였다. 인조 연간 네 차례의 공신 녹훈과 삭훈, 다시 복훈되는 과정을 통해 당대 정국 흐름의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관료간의 화합과 정치적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 역대 공신과 후손을 모아 충성맹세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회맹축에는 정치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회맹축 명단에서 묵말된 4명은 金自點과 그 자손이다. 효종의 즉위 후 북벌론이 대두하자 친청파였던 김자점이 역관 정명수를 통해 효종의 북벌정책을 청에 밀고하고 숭정 연호를 쓴 趙絅의 長陵 誌文을 보낸 것을 계기로 탄핵받았고, 아들 金鈇이 수어청 군사를 일으켜 崇善君을 추대하려던 역모가 효종 2(1651)년 12월 발각되어 김자점과 아들 鍊, 鈇, 손자 世昌 등이 역모를 꾀해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묵말된 시기는 효종 2(1651)년 12월 이후라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會盟軸은 政治史的으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롭고, 장대하게 제작된 『二十功臣會盟軸』은 문화재로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재료의 최고 재질, 축을 제작한 장인의 최고 솜씨, 선명한 주사란에 정성을 들여 쓴 사자관의 달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존하고 있는 회맹축 가운데 최고급이다. 인조 24(1646)년 녹훈도감에 차출되어 필사한 사자관은 雪峯 金義信이었다.

김의신은 병자호란 때는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서 외교문서의 필사를 전담하였고, 일본에 보내는 조선통신사의 사자관으로도 파견되었고, 글씨를 잘 써서 東部參奉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의 글씨는 조선중기에 유행한 石峯體와 같이 도학자들의 성정과 기질에 부합하는 엄정하고 단아한 글씨를 골격으로 유지하면서도, 붓놀림이 활달하고 생동감 넘치는 필획의 음양대비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서예가로서 개성이 강한 서풍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사자관으로서 능숙한 필력으로 한석봉 이래 사자관 서풍의 전통을 잘 계승하였다. 본 회맹축은 그의 뛰어난 필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조선후기 기록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예술품이라 할 만하다.

공신 회맹연이 개최될 때마다 어람건 회맹축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말 1910년까지 전래가 확인된 회맹축은 3건이었다. 인조 24(1646)년과 숙종 20(1694)년 제작한 『二十功臣會盟軸』 2건과 영조 4(1728)년 奮武功臣 녹훈 때의 『二十一功臣會盟軸』이다. 이들은 珍藏閣에 수장되었다가 정조 9(1785)년 10월 奉謨堂으로 이봉되었다. 2축은 봉모당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었지만, 영조년간 제작한 『이십일공신회맹축』은 그 전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완정한 상태의 회맹축은 매우 稀覯하다.

간본의 회맹록은 공신들에게 반사된 교서이지만, 조사대상본은 반사본이 아니고 어람용으로 제작한 회맹축이다. 이 회맹축에 사용된 재료, 장인의 솜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존하고 있는 회맹축 가운데 최고급이다. 그러나 교서로서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 아니어서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건이 승격되기 위해서는 본 회맹축, 회맹축의 간본, 『錄勳都監儀軌』를 일건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20공신회맹축』 두 종은 왕실이나 충훈부(忠勳府)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최고의

재질로 제작된 어람용 회맹축이다. 두 종 모두 생초(生綃)에 정성들여 쓴 해서체 글씨, 주사란(인찰) 그리고 크기 면에서 조선왕조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록유물이다. 이 회맹축들은 진장각(珍藏閣)에 소장되어 있다가 정조 9년(1785)에 봉모당(奉謨堂)으로 이안되어 오늘에 전한다. 표죽(褾竹)은 비단으로 감쌌고, 붉은색의 권서(卷緖), 권축의 양쪽 끝에는 둥근 백옥(白玉)이 있으며 보존 상태는 거의 온전하다. 회맹축을 담고 있는 오동나무 궤는 정조 연간 또는 그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인조 24년(1646) 9월에 영국공신(寧國功臣)을 녹훈(錄勳)한 것을 계기로 개국공신부터 영국공신에 이르기까지 20공신과 그 자손들을 거느리고 회맹제(會盟祭)를 행한 뒤 회맹문, 회맹록 등을 적어 권축장으로 만든 것이다. 제첨은 없으며, 권두의 제명은 『二十功臣會盟軸』이다. 회맹록에는 김유(金瑬) 등 영국공신과 개국공신 이하 19공신의 공신 및 그 장자, 적장손들의 군호(君號), 공신호(功臣號), 직함(職銜), 성명(姓名) 등이 기록되어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영국공신은 인조 22년(1644)에 남한산성 수어사(守禦使) 심기원(沈器遠, 1587~1644)이 인조를 폐위하고 회은군(懷恩君) 덕인(德仁)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역모를 바로잡은데 기여한 공신이다. 심기원은 인조반정의 공신으로서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에 봉해지고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을 지냈다. 1644년 좌의정으로 수어사를 겸하게 되자 심복 장사들을 호위대(扈衛隊)에 두고, 지사(知事)를 지낸 이일원(李一元), 광주부윤(廣州府尹) 권억(權億) 등과 함께 모반을 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심기원의 부하인 황헌(黃瀗), 이원로(李元老) 등이 훈련대장 구인후(具仁垕)에게 밀고함으로써 회은군과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영국공신 녹훈이 마무리되자 1646년 9월 3일 영국회맹제(寧國會盟祭)를 거행하였고, 이어 회맹축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회맹제에는 참석대상 377명 중에서 신병(身病) 18명, 인공재외(因公在外) 8명, 재상(在喪) 19명 등 45명을 제외한 332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김자점(金自點)과 그의 장남 김련(金鍊), 차남 김식(金鉷), 손자 김세창(金世昌) 등 4명은 지워져 있다. 그것은 김자점과 아들 김식이 수어청 군사를 일으켜 숭선군(崇善君)을 추대하려한 역모 등으로 효종 2년(1651) 12월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사진>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와 함

이 회맹축은 인조 22년(1644) 5월에 녹훈된 영국공신을 계기로 제작하였다. 개국공신 이하 20공신이 인조 24년(1646)에 회맹하였을 때의 기록으로 훈련도감에서 제작하였다. 20공신은 開國(1392), 定社(1398), 佐命(1401), 靖難(1453), 佐翼(1455), 敵愾(1467), 翊戴(1468), 佐理(1471), 靖國(1506), 定難(1507), 光國(1590), 平難(1589), 扈聖(1592), 宣武(1604), 淸難(1596), 靖社(1623), 振武(1624), 昭武(1627), 寧社(1628), 寧國功臣 등이다.

첫 부분은 회맹문으로, 인조 24년(1646, 순치 3) 9월 3일 개국공신 이래 영국공신까지의 공신과 그 자손들을 모아 천지, 사직, 종묘, 산천, 백신의 령에게 고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말미에는 조선국왕과 왕세자를 기록하였다. 처음 녹훈된 영국공신은 1등에 황헌, 이원로, 구인후, 김류 4명, 2등에 여이재 1명, 3등에 구오, 능봉군이(綾峯君儞), 신경호, 이계영, 정부현 5명이었으며, 뒤에 두 차례에 걸쳐 약간의 변개가 있었다. 말미에는 녹훈도감에서 회맹한 계(啓), 회맹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명단과 그 사유(身病秩, 因公在外秩, 在喪秩-盲人)를 적어 올린 초기가 있다. 마지막 행에는 "順治三年九月初三日"이라고 쓰여 져 있다. 그러나 사자관인 설봉(雪峯) 김의신(金義信)이 쓴 이 회맹축은 여러 측면에서 뛰어나기는 하나 뒷부분에 상당한 분량이 여백지가 남아 있고, 어보가 날인 되어 있지 않는 등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겠다. 한편 녹훈도감에서는 회맹축과 함께 별도의 『이십공신회맹록』을 훈련도감목활자로 인출하여 반사하였다.

ㅇ 문헌자료

전경목 · 박용만,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2009) 5-22.
박성호,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 옛 맹약을 지키다』(성남: 한중연 출판부, 2017)

□

ㅇ 현 상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인조 24(1646)년 9월 호란 이후 왕권이 약화되어 인조 대신 회은군(懷恩君)을 추대하려는 역모가 일어나 정국이 어지러워지자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자 역대 공신과 후손을 모아 충성맹세를 받고자 영국공신(寧國功臣)을 녹훈(錄勳)한 것을 계기로 국왕이 개국공신 이하 각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들도 모아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하고, 여기에 참여한 개국공신 이하 보사공신까지 공신 · 공신의 적장자손 · 영국공신의 직함(職銜)과 관계(官階)를 열거하여 기록한 총377명의 명단이다. 당시 회맹제는 녹훈도감이 주관하여 국왕에게는 필사본의 <이십공신회맹축>을 제작하여 진상하였고, 공신들에게는 훈련도감목활자로 『이십공신회맹록』(규13023, 규1004)의 인본을 반사하였으며, 이를 기록한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규14946, 규14584)도 현존하고 있다.

이 회맹축의 내용은 회맹문, 회맹록, 불참자로 구분되어 있다. 회맹문은 왕세자 이하가 회맹제 때의 제문이고, 회맹록은 개국공신 이하 20공신 총332명의 군호(君號), 공신호(功臣號), 직함(職銜), 성명을 기록한 명단, 그리고 신병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효종 2년(1651) 12월 이후 역모로 처형된 김자점(金自點)과 그 직계 자손인 김식(金鉷), 김련(金鍊), 그 적장자 김세창(金世昌)의 4명은 먹으로 지워져 있고, 마지막 행은 “順治三年九月初三日”이고, 국왕의 국새인 시명지보(時命之寶)’는 찍지 않았고, 여백이 유례 없을 정도로 길게 남아 있다.

이 회맹축은 국왕에게 진상하는 어람용으로 특별히 장인들이 비단과 다회를 직조하고 배접과 회장 등을 정교하게 제작한 위에 당시 서사관(書寫官)이었던 상호군(上護軍) 김의신(金義信, 1603-?)이 필사하고, 지름 15.0cm의 옥으로 옥막이를 만들어, 세로 88.9cm, 2,413cm로 매우 크고 화려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옥축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의 제작과 장황 관련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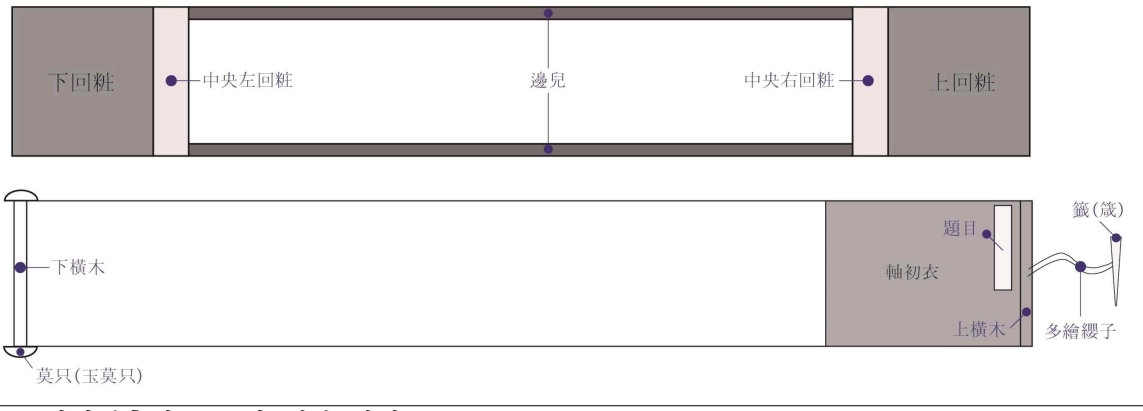
1. 회맹축의 구조

어람회맹축의 구조는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된다. 앞면은 회맹문이 써 있는 본문과 그 상하의 변아, 좌우의 회장 및 양 끝의 상하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뒷면은 표지에 해당되는 오른쪽 축초의가 있고, 제목에 해당되는 제첨이 붙이며, 뒤쪽 배접지 양 끝에는 상횡목과 다회영자가, 하횡목과 상하 옥막이[玉莫只]로 구성되어 있다.

회맹축의 세부 명칭은 1646년 『녹훈도감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앞면의 중앙에 회맹문 등을 쓰는 바탕 부분은 명칭을 찾을 수 없지만, 바탕면의 상하는 ‘변아(邊兒)’이고, 서본의 좌우는 ‘중앙 좌우회장(左右回粧)’이 위치하고, 그 양쪽 끝은 ‘상하 회장(上下回粧)’이다.

뒷면의 경우 양쪽 끝의 상하 회장 부분은 ‘상하횡목(上下橫木)’이 위치한다. 이 중 ‘상횡목’은 반달 모양이며, 아래쪽은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위쪽은 편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횡목은 하나의 나무로 상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게 단면을 배접한 비단으로 싸서 마감한다. ‘하횡목’의 위아래 부분은 일반적으로 횡목과 유사한 나무로 조금 짙은 색으로 만든 상하 ‘막이[莫只]’로 마감한다. 이렇게

나무로 상하의 양끝을 만들고 두루마리를 말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두께만큼 높이의 둥근 원형으로 마감된다. 그런데 본 회맹축은 둥근 옥을 사용하여 마감한 것이 특징이다.



20공신회맹축의 구조와 세부 명칭

한편 뒷면 전체는 배접지로 마감처리 한 다음, 두루마리를 감으면 오른쪽 끝부분에 해당되는 표지는 '축초의(軸初衣)'이다. 여기에는 제목에 해당되는 제첨(題籤)을 붙이게 되어 있지만, 현재 제첨 부분에 종이를 붙였던 풀 자국이 남아 있을 뿐 제첨은 유실되었다. '상횡목'의 중앙 부분에는 창구멍을 내고 '다회영자(多繪纓子)'를 붙이고 그 끝에는 상아제 '잠(簪)'을 매달아 두루마리를 말아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비녀는 유실된 상태이다.

2. 장황의 재료와 장인

1646년 회맹축을 제작한 과정의 전말은 함께 편찬된 『녹훈도감의궤』에 수록되어 있다. 회맹축의 장황과 재료와 도구 및 장인을 도감에서 관장하였다. 어람용 생초나 다회영자 등은 녹훈도감 이방에서 직조하였고, 직조및교서색에서는 여러 관청에서 보낸 비단과 종이 등으로 배접을 해서 회장 등의 장황을 마친 다음, 인찰화원이 선을 그은 다음 서사관이 글씨를 써서 장황을 마친다.

(1) 재료와 도구

회맹축의 바탕면으로 사용된 직물은 초(綃) 혹은 생초(生綃)라 불리는 것이다. 이것을 짜기 위해 1646년에는 제용감에서 백사 2냥을 들여 별공작에서 만든 베틀 위에서 이방에서 생초는 길이 50자, 너비 1자 6치를 짰다.

당시 실제 짰던 것에는 다회영자도 있는데 제용감에 있는 백사 1근을 들여 별공작에서 만든 다회틀 위에서 홍진사로 이방에서 길이 4자, 너비 1치 5푼으로 짰다.

회장에 사용된 각종 비단은 제용감에서 들였다. 축초의(軸初衣)는 다홍유문대단

(大紅有紋大段) 2자, 상하 회장감으로는 남팽단(藍彭段) 4자, 변아와 좌우회장은 백릉(白綾) 30자이다. 상배접에 사용된 종이는 장흥고에서 들였다. 축초의의 뒤쪽 배접지는 모변지(毛邊紙) 15장이고, 양색 필단의 배접지는 백지(白紙) 1권이며, 뒷면 전체의 배접지는 저주지(楮注紙) 5권이다.

인찰은 주홍(朱紅) 1냥이었다. 모두 제용감에서 들였다.

회맹축의 상하횡축에 사용할 나무로 상횡축은 자작나무[樺木] 1도막과 가래나무[楸木] 1도막이었다. 회맹옥축의 사용할 옥은 평안도의 성천부에서 만들어서 진상하였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회맹축의 다회영자 끝에는 상아를 아로새긴 잠(簪)을 붙여 사용하는데, 이것은 공신교서축의 잠으로 녹각(鹿角)을 사용한 것과 비교된다. 회맹축의 비단과 배접지를 붙이고 명반을 넣는 아교 포수[礬水]를 하여 표면을 강화하였는데, 이때 필요한 각종 재료를 여러 관청에서 보내주었다. 아교가루 2되(예빈시), 비상 3냥과 백반 2냥(제용감), 황밀 3냥(의영고), 어교 20장(군기시), 소주 1대야(내섬시), 청밀 4홉(내자시) 그리고 이것들을 끓이기 위해 땔나무 5단(사재감)까지 들였다.

(2) 장황 관련 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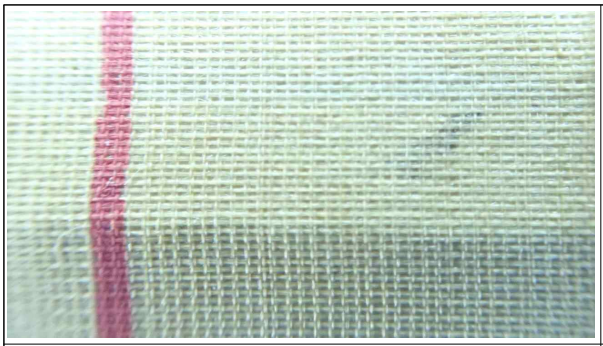
회맹축을 만드는 장인들은 주로 도감의 이방 직조겸교서색에 소속되어 있었다. 생초의 직조는 초장(綃匠) 임개국(任介國) 등 5명이 작업하였고, 이것을 돕는 직조치(織造直) 군사 2명은 병조의 위장소에서 불러서 썼다. 실을 자아 날줄을 정경하고 바디에 거는 연사장(練絲匠)은 장계남(張繼男) 등 2명이다. 베틀의 바디를 만든 성장(筬匠)은 평연(平連) 등 2명이다. 다회영자를 짠 다회장(多繪匠)은 김태복(金泰福)이나 강성간(姜成間)의 2명이고, 다회영자의 상아제 비녀(簪)를 만든 잠장(簪匠)은 안이남(安二男)이다. 평안도 성천에 만들어서 진상한옥으로 옥막이를 만드는 것은 옥장(玉匠) 김막남(金莫男)이 별공작에서 담담하였다.

3. 어람회맹축의 구조와 세부 실측

영국공신녹훈후의 회맹축은 세로 88.9cm, 가로 2,413cm의 긴 두루마리 형식이다.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의 장황의 세부 명칭과 칫수

회맹문의 본문이 쓰여지는 바탕의 서면(書面)은 생초(生綃)를 짠 후 뒤쪽에 모변지를 배접하였는데, 그 크기는 세로 69.3cm, 2,290.6cm이다. 생초는 표면이 까실까실하고, 실의 굵기가 가늘고 섬세하며 밀도는 치밀하지 않으며 경위사간은 여백이 많아 얇고 가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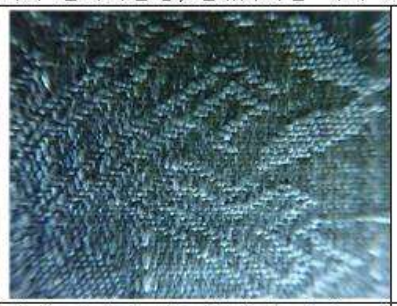
날줄:씨줄은 1:1의 평직이지만, 날줄은 가늘고 2줄 건너 1줄이 비고, 가로의 씨줄은 굵은 편임

생초의 뒤쪽에 배첩된 모변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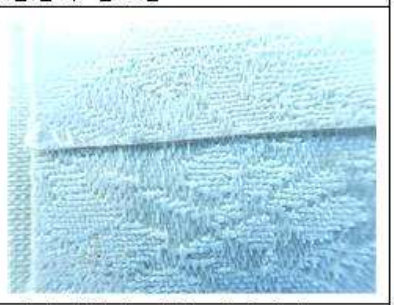
이제 그 상하의 변아는 상변아가 9.7cm, 아래 변아는 9.7cm로 의궤에는 백릉이라고 했는데, 실제 백색의 만자화문릉(卍字花文綾)이다. 그 뒤에도 모변지로 배접한 다음 서면과 1cm 정도를 겹쳐서 붙인다. 중앙 좌우회장도 백릉, 곧 백색 만자 화문릉을 사용하여 우회장 9.8cm, 좌회장 7.8cm로 만든다. 만(卍)자 문양이 바탕 전체에 배경으로 처리되고 그중간 중간에 모란 문양과 난초문양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단위 문양의 크기는 세로 4.8cm, 가로 3.7cm이다. 변아와 좌우회장에 사용된 백릉의 뒷면도 각각을 모변지로 배접을 한 다음 이것을 서면과 1cm 겹쳐 붙인다. 특히 변아의 경우 전체 길이가 22m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연결하여 사용할 때에도 배접한 것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변아와 중앙 좌우회장에 사용된 백색의 만자화문릉, 만(卍)자문 위의 모란문과 난초문

만자문의 확대 부분



만자 사이의 난초문 확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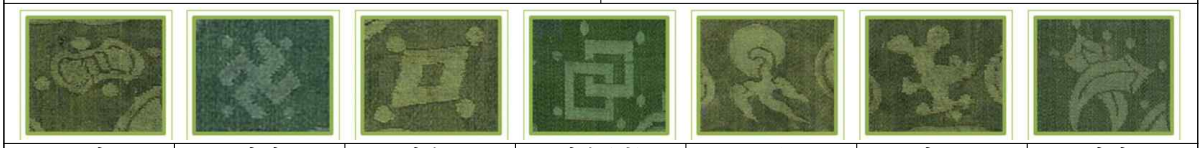


변아 부분의 백릉 연결부분

양 끝에 위치한 상회장과 하회장은 팔보문(八寶文)의 남팽단(藍彭段)을 사용하여 상회장 54.3cm, 하회장 50.5cm의 크기로 만들며 배접지는 백지를 사용한다. 남팽단의 경우 비교적 크기가 큰 팔보문인 것이 특징이다. 팔보문은 금정(金錠), 방승(方勝), 보주(寶珠), 산호(珊瑚), 서각(犀角), 서보(書譜), 여의두(如意頭), 전보(錢寶)의 여덟 가지 보문이다. 이러한 팔보문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단위 문양의 크기는 세로 26.2cm, 가로 15.2cm이다. 현재 회맹축의 상회장 부분은 상하 모서리 부분이 해어져 후대에 언젠가 흰 종이로 붙이고, 하회장의 하횡목 좌우도 옥막이를 접착하면서 오염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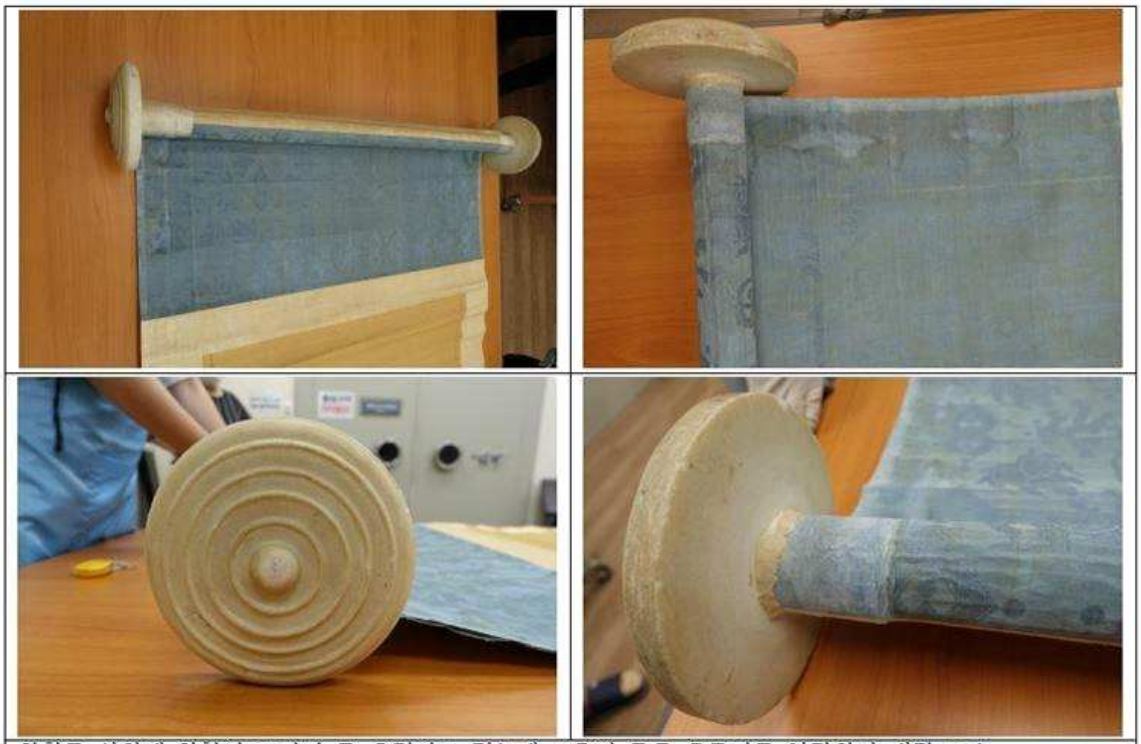
왼쪽 끝 하회장과 중앙 좌회장 및 변아의 모습

왼쪽 하횡목과 옥막이 및 그 위에 접착된 하회장

<table>
<tr><td> </td><td> </td></tr>
<tr><td>오른쪽 끝 상횡목 위에 붙인 상회장의 팔보문 남팽단과 양쪽 끝 모서리가 헤진 모습</td><td>왼쪽 끝 하횡목 위에 붙인 하회장의 팔보문 남팽단을 붙인 모습과 하회장의 끝부분이 변색된 모습</td></tr>
<tr><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금정* | 만자 | 방승* | 방승(쌍) | 보주* | 산호* | 서각*</td></tr>
<tr><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서보* | 애엽 | 여의두* | 전보* | 전보(쌍) | 특경 | 화보*</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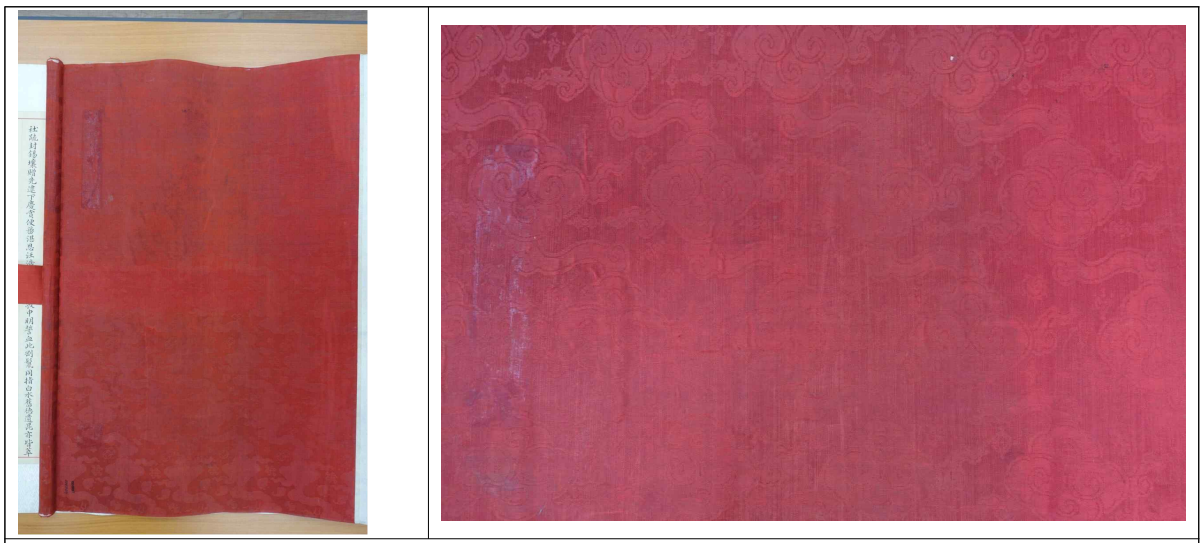
<팔보문의 여러 종류> (*해당 팔보문의 사례)

어람회맹축의 뒷면의 경우 오른쪽 끝의 상횡목(上橫木)은 자작나무(樺木)으로 폭 3.0cm의 반달형이다. 왼쪽 하횡목(下橫木)은 두께 4.8cm의 가래나무[楸木]로 만들었다. 특히 하횡목에는 상하 막이[莫只]가 끼워져 있는데, 평안도의 성천부에서 만들어서 진상한 백옥으로 만든다. 옥막이[玉莫只]는 지름 15.2cm, 두께 4.0cm이며 반원형의 형태로 상하를 마감하고 있다. 옥막이는 안쪽 하횡목의 양쪽에 붙였는데 접착상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옥막이의 외부 형태는 지름 15.2cm의 원형이고 가운데는 태양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그로부터 4줄로 둥근 줄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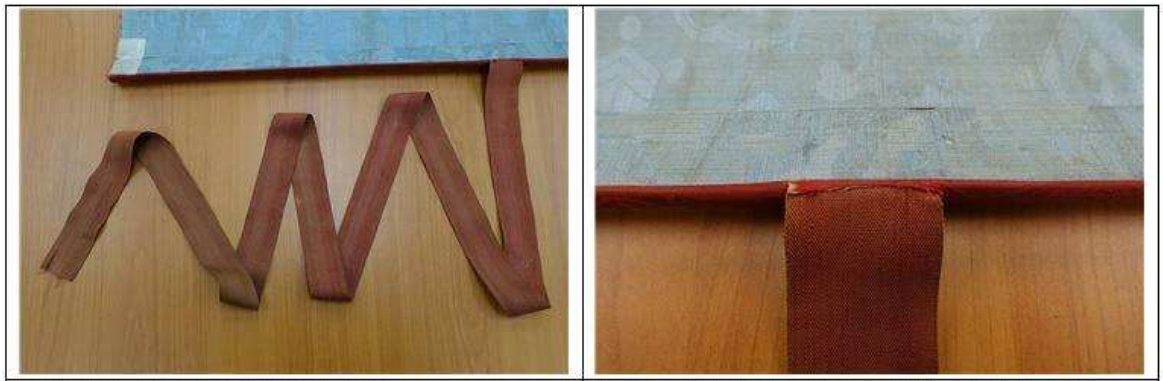
하횡목 상하에 원형의 크기가 큰 옥막이로 막는데, 5줄의 둥근 줄무늬를 양각하여 새긴 모습

회맹축의 표지에 해당되는 축초의(軸初衣)는 다홍색의 운보문 비단[大紅有紋大段]이며, 가로의 나비는 57.8cm이다. 다홍색 운보문은 크기가 큰 만자형 구름 문양 사이에 팔보를 배치한 것이며, 반복되는 단위 문양의 크기는 22.3cm, 가로 17.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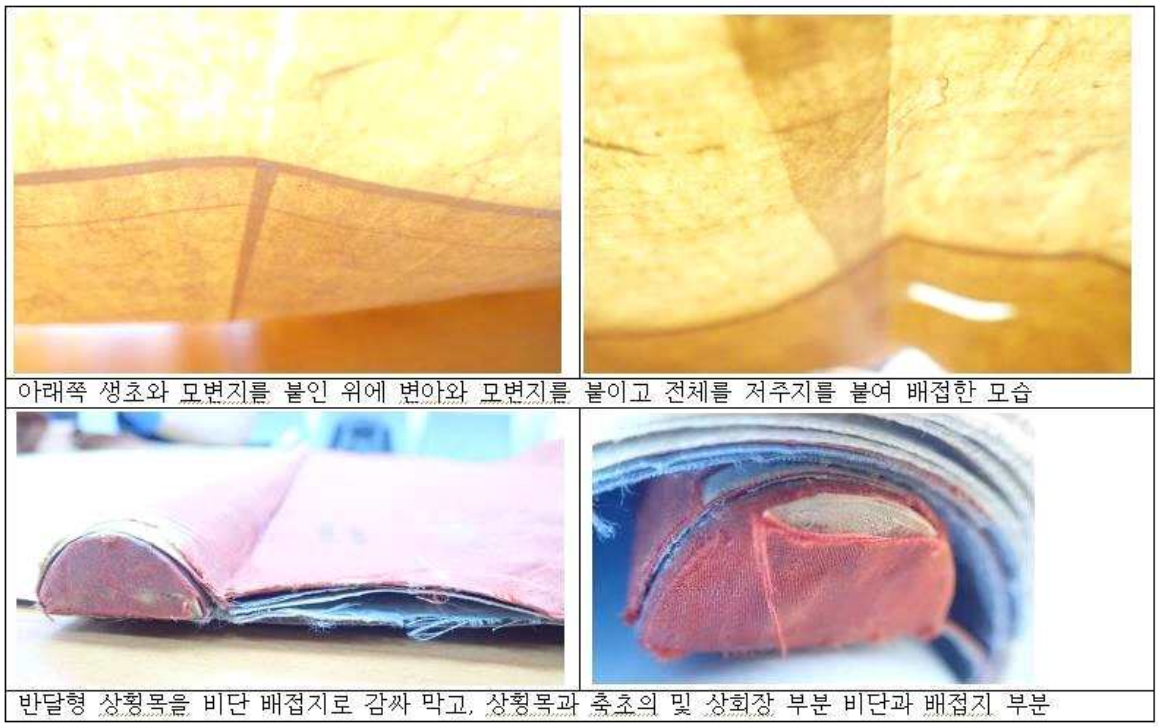
다홍색 운보문단의 축초의 ; 만자 구름과 매듭, 전보(쌍), 방승(쌍), 여의두, 애엽, 보주, 방승, 화보

축초의의 문양은 앞쪽 상회장의 팔보문과는 종류가 다르다. 축초문은 만자 운보문이 중심을 이루고 그 사이에 팔보문은 매듭, 전보(쌍), 방승(쌍), 여의두, 애엽, 보주, 방승, 화보 8가지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문양은 만자 구름문이고, 그 사이에 팔보문이 배치되어 있다.



축초의에 매단 다회영자의 모습 | 축초의 중앙 창구멍에 다회를 접착한 모습

축초의의 중앙에 3.8cm의 창구멍을 내고 다회영자를 끼워 넣고 접착했다. 다회영자는 폭 3.8cm, 길이 169.0cm이며 끝 부분에 달려야 할 잠(簪)은 유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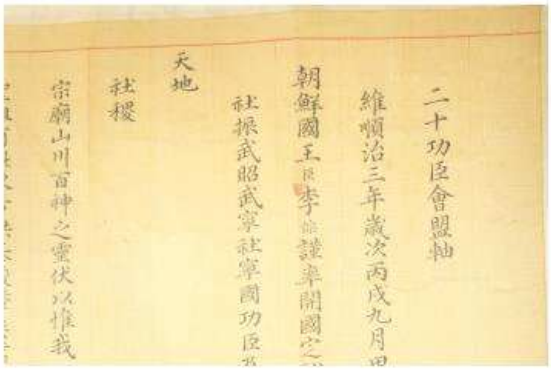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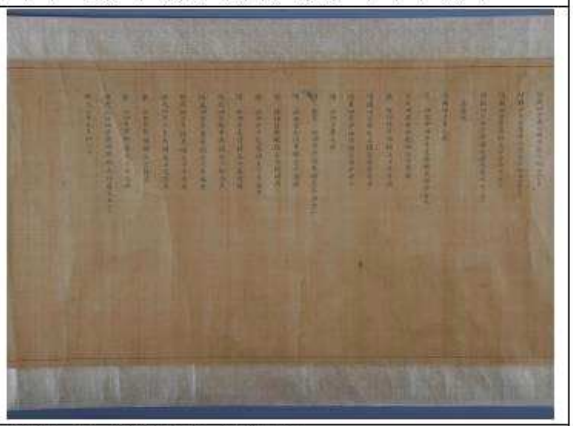
아래쪽 생초와 모변지를 붙인 위에 변아와 모변지를 붙이고 전체를 저주지를 붙여 배접한 모습

반달형 상횡목을 비단 배접지로 감싸 막고, 상횡목과 축초의 및 상회장 부분 비단과 배접지 부분

회맹축은 비단 표면에 종이로 배접하고 있다. 서면의 생초, 변아의 백릉, 회장의 남팽단, 축초의의 대홍단의 뒷면에는 각각마다 모변지(毛邊紙)나 백지로 1차 배접을 한다. 이렇게 배접을 한 다음 서면과 변아 및 회장을 권자축의 형식으로 접착한 다음 뒷면 전체에는 2차로 저주지(楮注紙)를 발라 마감한다.

비단과 종이를 배접하여 회맹축의 형식이 완성되면 이제 도화서의 인찰화원을 불러 주홍으로 인찰(印札)을 한다. 좌우로 굵고 긴 변란과 상하로 가느다란 계선을 긋는다. 상하 변아로부터 변란(邊欄)의 위쪽은 1.8cm, 아래쪽은 1.6cm의 여백을 두고 굵게 진하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긋고 있다. 글자를 쓰기 위해 상하로

내리그은 계선(界線)의 간격은 4.3-4.5cm 너비로 긋고 있으며, 그 안에 서사관 김의신이 해서체의 묵서로 정갈하게 쓰고 있다. 여백은 총186칸이다.

<table>
<tr><td> </td><td> 
</td></tr>
<tr><td>어람회맹축의 처음 시작 부분</td><td>시작 부분의 인찰 세부, 1면 여백과 제목</td></tr>
<tr><td> </td><td>  </td></tr>
<tr><td>서면의 인찰, 굵은 변란과 가느다란 계선</td><td>인찰 위 서사관의 회맹록</td></tr>
<tr><td> </td><td> </td></tr>
<tr><td>어람회맹축의 마지막 부분 인찰</td><td>마지막 부분 인찰의 세부</td></tr>
</table>

ㅇ 서지사항

『二十功臣會盟錄』 0001권(古4252.4-12,)

여백

二十功臣會盟軸

維順治三年歲次丙戌九月甲辰朔初三日丙午

朝鮮國王臣李【諱】謹率百官開國之社佐命靖難佐翼敵愾翊戴佐理靖國之難光國平難扈聖宣武難靖

社振武昭武寧/社寧國功臣及子孫等敢昭告于

天地

社稷

宗廟山川百神之靈伏以惟我

聖祖有此東方洪基峻鞏奕業隆昌厖臣碩輔世著勳庸緘盟金石勒名鼎鍾徂玆亂賊未聞前古旣錄

元功復寘相府居家汚穢在朝饕餮盖其素心包藏桀黠稔兇爲軌積有年紀合謀畿輔陰養死士遙

藉逋弁近結宗戚

宗社之危祇在漏刻爰有二人決意效忠相臣將臣智猷攸同設機窮捕克剪兇逆傾否回泰轉禍爲福

玆實

祖宗保佑之德亦惟臣隣徇國之力予用嘉乃曰篤不忘盍勞其勤待以非常邦運屯蹇逆惡相尋潢池

醜孽亦復生心嘯聚成羣稱兵山谷有臣一介欲忠者國登時發告以安外內奔走逐捕寔淸大慈於

傳有之功無不報合而爲一寧國錫號施及父母暨厥子孫上推下逮均霈汪恩載修壇墠用申約誓

新舊畢至雲仍咸與式自今日迄千百祀山河在彼永保終始同休共戚毋貳爾心苟渝此盟

神所監臨

여백

朝鮮國王[臣]李

王世子臣

여백

奮忠贊謨立紀明倫靖　社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昇平府院君臣金壔

奮忠贊謨立紀明倫靖　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

館觀監事世子師洛興府院君臣金自點

竭誠奮威振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春城府院君臣南以雄

奮忠贊謨立紀靖　社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崇祿大夫綾川君臣具仁垕

奮忠贊謨靖　社功臣崇政大夫行漢城府判尹兼五衛都摠府都摠管南陽君臣洪振道

奮忠贊謨立紀靖　社功臣資憲大夫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原平君臣元斗杓

奮忠贊謨立紀靖　社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延陽君臣李時白

奮忠贊謨靖　社功臣嘉義大夫完川君臣崔來吉

奮忠贊謨立紀靖　社功臣嘉義大夫咸陵君臣李澥

竭誠奮威振武功臣嘉義大夫順陽君臣安夢尹

效忠奮威炳幾寧國功臣嘉義大夫平安道兵馬節度使兼安州牧使檜興君臣黃濾

奮忠贊謨立紀靖　社功臣嘉善大夫平興君兼五衛都摠府副摠管臣申埈

奮忠贊謨立紀靖　社功臣嘉善大夫延城君臣李時昉

奮忠贊謨靖　社功臣嘉善大夫西城君臣韓汝復

奮忠贊謨靖　社功臣嘉善大夫晉川君臣柳碩

奮忠贊謨靖　社功臣嘉善大夫刑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完南君臣李厚源

竭誠奮威振武功臣嘉善大夫全平君臣李慶禎

竭誠奮威振武功臣嘉善大夫漢豐君臣崔應一

竭忠效誠寧　社功臣嘉善大夫淸興君臣金得聲

竭忠效誠寧　社功臣嘉善大夫淸陵君臣金振聲
竭忠效誠寧　社功臣嘉善大夫平昌君臣申瑞檜
奮忠贊謨靖　社功臣通政大夫水原都護府使兼防禦使臣具仁堅
奮忠贊謨靖　社功臣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臣趙瀚
奮忠贊謨靖　社功臣通政大夫掌隷院判決事臣金鍊
奮忠贊謨靖　社功臣通政大夫前守廣州府尹臣洪振文
奮忠贊謨靖　社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姜得
輸忠奮義決策昭武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元克咸
輸忠奮義昭武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辛慶英
竭忠效誠炳幾寧　社功臣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臣許禊
竭忠效誠寧　社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李斗堅
竭忠效誠炳幾寧　社功臣通政大夫前行楊根郡守臣許選
效忠奮威寧國功臣通政大夫行漆原縣監臣李碩龍
竭誠奮威振武功臣通訓大夫前行平康縣監臣金光燾
輸忠奮義昭武功臣通訓大夫行掌隷院司評臣陳克一
扈　聖功臣柳永慶嫡長孫光德大夫全昌君臣柳廷亮
扈　聖功臣翊嫡長子承憲大夫平雲君臣俅
靖難佐翼佐理功臣韓確佐理功臣韓致仁嫡長孫資憲大夫西原君臣韓好問
扈　聖功臣金應壽嫡長子資憲大夫盆興君臣金夢祥
扈　聖功臣李好閔嫡長子嘉義大夫漢城府左尹延川君臣李景嚴
扈　聖功臣沈友勝嫡長子嘉義大夫　世子左副賓客靑松君臣沈詻
宣武功臣李純信嫡長子嘉義大夫完山君臣李琡
扈　聖功臣柳肇生嫡長子嘉義大夫完陵君臣柳坡
扈　聖功臣高曦嫡長子嘉義大夫行龍驤衛副護軍臣高弘建
靖國功臣曹繼商嫡長孫嘉善大夫開城府留守夏寧君臣曹文秀
靖　社寧國功臣具仁垕嫡長子嘉善大夫廣州府尹廣州鎭兵馬節制使兼防禦使臣具鏊
扈　聖功臣李元翼嫡長子嘉善大夫完善君臣李義傳
扈　聖功臣許浚嫡長子嘉善大夫巴陵君臣許謙
振武功臣李守一子嘉善大夫洪淸道兵馬節度使臣李浣
開國功臣鄭熙啓嫡長孫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臣鄭承勳
佐理功臣鉉嫡長孫通政大夫守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臣李曻
靖　社功臣李貴子通政大夫行綾州牧使臣李時聃
靖　社功臣李時白嫡長子通政大夫行海州牧使臣李忻
開國功臣金栭嫡長孫通政大夫臣金元重
振武功臣鄭忠信嫡長子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果兼司僕將臣鄭砯
佐理功臣韓致義嫡長孫折衝將軍前行僉知中樞府事臣韓榮
靖國功臣李敞嫡長孫折衝將軍行龍驤衛大護軍臣李壽鵬
敵愾翊戴功臣朴仲善靖國功臣朴元宗長孫折衝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朴時榮
佐翼佐理功臣尹子雲嫡長孫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尹游
扈　聖功臣金俊榮繼嫡長子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金啓元
振武功臣李澤嫡長子折衝將軍行義興衛副司直臣李元敬
開國功臣柳瑗廷嫡長孫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果臣柳天民
敵愾功臣吳自治嫡長孫通政大夫臣吳以健
平難功臣金命元嫡長子通訓大夫前濟用監正臣金守廉
扈　聖功臣朴春成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上護軍臣朴命吉
靖難功臣權蹲嫡長孫禦侮將軍前行忠佐衛上護軍臣權澳

扈　聖功臣崔世俊嫡長子禦侮將軍前行訓鍊院副正臣崔孝生
翊戴佐理功臣愼承善嫡長孫禦侮將軍前行忠佐衛大護軍臣愼得義
佐理功臣鄭蘭宗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鄭震遠
開國定　社功臣趙浚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趙憲國
開國功臣劉敞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劉尙顔
靖國功臣沈亨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沈孝源
靖　社功臣具仁堅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具鎰
翊戴功臣朴之蕃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朴元吉
淸難功臣崔湖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崔孝說
靖國功臣趙世勛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趙瑾
敵愾功臣李陽生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李德潤
昭武功臣洪霬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洪柱世
佐翼功臣權恭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權廣
開國功臣咸傅霖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咸應和
佐命功臣趙涓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趙應純
靖國功臣文致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文希顔
翊戴佐理功臣鄭孝常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鄭漢臣
開國功臣李伯由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李悅
扈　聖功臣閔希騫繼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閔寧
扈　聖功臣柳希霖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柳敬身
開國定　社佐命功臣李之蘭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李敏中
靖難功臣薛繼祖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薛馣
靖國功臣李孟友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李希古
振武功臣成大勳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成時夏
靖國功臣許磉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許諧
光國平難功臣兪泓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兪懋曾
敵愾功臣孟碩欽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孟世楨
宣武功臣權應銖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權山重
靖國功臣金碔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金鳳禎
靖難功臣韓明澮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韓克敏
開國功臣趙英珪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趙拔
開國功臣黃希碩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黃得後
佐翼敵愾佐理功臣韓繼美佐理功臣韓巖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韓正則
靖　社功臣韓嶠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韓宜吉
佐理功臣李克墩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李有後
靖國功臣盛同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李希宗
靖　社寧國功臣金墐嫡長孫靖社功臣金慶徵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金震標
扈　聖功臣白應範繼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白纘先
靖國功臣李夔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李俊長
扈　聖功臣吳致雲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吳得男
平難扈　聖功臣李憲國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李聃
佐翼功臣朴薑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朴胤宗
靖難佐翼翊戴佐理功臣鄭麟趾佐理功臣鄭崇祖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鄭裕慶
翊戴佐理功臣鄭顯祖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鄭臥龍
佐翼功臣李季疄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李栽
昭武功臣辛慶英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辛喜全

扈　聖功臣梁子儉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梁師丘
開國定　社功臣張思吉嫡長孫通訓大夫行瑞興都護府使臣張仲仁
靖國功臣宋軼嫡長孫通訓大夫前行司宰監僉正臣宋熙業
扈　聖功臣洪進嫡長孫通訓大夫前行司宰監僉正臣洪有煥
靖　社功臣李曙嫡長子通訓大夫前行司僕寺僉正臣李敏白
振武功臣邊瀜嫡長子通訓大夫前行永川郡守臣邊復一
振武功臣李守一嫡長子通訓大夫前行韓山郡守臣李淀
光國平難功臣韓應寅嫡長子通訓大夫行沃川郡守臣韓德及
靖難佐翼翊戴佐理功臣申叔舟嫡長孫靖　社功臣申景植嫡長子通訓大夫行榮川郡守安東鎭
管兵馬同僉節制使臣申泩
佐翼佐理功臣李克培嫡長孫平難功臣李廷立嫡長子通訓大夫前行天安郡守臣李玄聃
敵愾功臣金伯謙嫡長孫禦侮將軍前行濟物梁水軍萬戶臣金嶸
靖國功臣朴永昌嫡長孫通訓大夫行軍資監判官臣朴敞
靖　社功臣李重老子禦侮將軍前行洪淸道水軍虞侯臣李文偉
靖國功臣金任長孫禦侮將軍前行訓鍊院判官臣金蠡忠
扈　聖功臣鄭姬蕃嫡長子通訓大夫前行司饔院判官臣鄭玭
靖　社功臣崔來吉嫡長子通訓大夫前行司憲府持平臣崔後胤
靖　社功臣金自點子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司書臣金鈇
靖　社功臣柳舜翼嫡長子通訓大夫前行新溪縣令臣柳重炯
振武功臣南以興嫡長子通訓大夫前行振威縣令臣南斗極
靖　社功臣洪振道嫡長子通訓大夫前行司憲府監察臣洪溥
佐命功臣金承霆嫡長孫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臣金榮後
靖　社功臣李時白子通訓大夫行忠原縣監臣李(忄+閑)
振武功臣安夢尹嫡長子通訓大夫行金化縣監臣安應昌
淸難功臣林得義嫡長孫通訓大夫行報恩縣監臣林巑
佐命功臣權近嫡長孫通訓大夫行昌寧縣監臣權躋
振武功臣南以興子通訓大夫行義興縣監臣南斗樞
靖　社功臣李重老嫡長子通訓大夫行咸悅縣監臣李文雄
扈　聖功臣崔興源嫡長孫通訓大夫行井邑縣監臣崔汝衍
佐翼靖難功臣尹士昕靖國功臣尹汝弼嫡長孫通訓大夫前行連山縣監臣尹隮
靖國功臣柳順汀靖國功臣柳泓嫡長孫通訓大夫行永春縣監臣柳時慶
靖　社功臣申埈嫡長子通訓大夫行陽城縣監臣申汝挺
光國扈　聖功臣柳成龍嫡長孫通訓大夫前行黃澗縣監臣柳元之
靖　社功臣李時白子通訓大夫行鎭川縣監臣李悅
平難功臣韓準嫡長孫通訓大夫前行同福縣監臣韓楙
光國功臣黃廷彧嫡長孫通訓大夫行定山縣監臣黃爾徵
扈　聖功臣安滉嫡長孫通訓大夫前行兎山縣監臣安時聖
振武功臣張晩長子通訓大夫前行懷德縣監臣張歸漢
宣武功臣李億祺長孫通訓大夫前行長鬐縣監臣李猷
扈　聖功臣李恒福嫡長孫通訓大夫行堤川縣監臣李時中
振武功臣金良彦嫡長子通訓大夫前行尙衣院主簿臣金世豪
靖　社功臣李沅嫡長子通訓大夫前行司僕寺主簿臣李尙賢
敵愾翊戴功臣溥嫡長孫通訓大夫前行歸厚署別提臣李克善
光國平難功臣洪聖民嫡長孫中直大夫行承政院注書臣洪重普
振武功臣南以興子通訓大夫行長興庫直長臣南斗杓
靖　社功臣張維嫡長子禦侮將軍行世子翊衛司侍直臣張善徵

靖　社功臣朴烋子秉節校尉世子翊衛司侍直臣朴世堅
平難功臣李準嫡長孫通訓大夫行長水道察訪臣李德恒
靖國功臣鄭眉壽嫡長孫通訓大夫行自如道察訪臣鄭孝俊
敵愾佐理功臣金嶠嫡長孫通訓大夫臣金燧
宣武功臣權俊嫡長子通訓大夫前行氷庫別提臣權(山+完)
寧國功臣黃濾嫡長子定略將軍兼宣傳官臣黃碩耆
靖　社功臣李時昉嫡長子奉正大夫金井道察訪臣李恢
靖　社功臣趙瀚嫡長子通訓大夫行　顯陵參奉臣趙伯耘
佐翼功臣權攀嫡長孫通訓大夫行 昌陵參奉臣權侃
宣武功臣金時敏嫡長孫朝奉大夫行　肅寧殿參奉臣金得臣
翊戴佐理功臣韓伯倫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韓樹立
靖　社功臣張紳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張善沖
靖國功臣邊士謙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邊繼儉
翊戴功臣李存命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李偶
靖國功臣具賢輝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具正得
靖難功臣柳河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柳瓔
佐翼翊戴佐理功臣鄭昌孫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鄭義源
開國功臣李敷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李誠
靖國功臣金友曾嫡長孫振威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金鳴吉
光國功臣黃琳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黃澔
扈　聖功臣任發英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任毅立
昭武功臣李胤男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長榮
開國功臣洪吉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洪必祥
靖國功臣崔有井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崔國
靖國功臣金壽童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金震亨
扈　聖功臣壽崐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惟新
開國定　社佐命功臣趙英茂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趙繼宗
振武功臣申景瑗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申旻
定　社功臣福根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廷鳶
宣武功臣柳思瑗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柳仁培
寧　社功臣金得聲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金南斗
開國功臣南在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南宗伯
佐理功臣具文信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具承績
靖國功臣金敬義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金汝鍾
靖難翊戴佐理功臣康允禧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康逸
佐理功臣梁誠之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梁健
振武功臣李希建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尙輿
敵愾功臣魚世恭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魚克明
翊戴功臣魚世謙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魚尙健
靖國功臣李碩蕃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景忠
寧　社功臣申瑞檜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申繼一
扈　聖功臣李忠元嫡長孫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臣李正漢
翊戴佐命功臣延嗣宗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延萬甲
靖國功臣尹熙平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尹商翼
扈　聖功臣崔應淑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崔慶生
振武功臣宋德榮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宋授

靖　社功臣朴孝立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朴雲龍
靖　社功臣宋時範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宋孺敬
振武功臣文晦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文仲龍
扈　聖功臣慶宗智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慶大海
扈　聖功臣金應昌繼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金得生
靖國功臣曹繼殷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曹興立
平難功臣趙球嫡長子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臣趙應璧
昭武功臣陳克一嫡長子振威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陳自健
光國功臣金澍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金鼎基
靖　社功臣李元榮嫡長子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日磊
扈　聖功臣李有中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宜孝
振武功臣池繼濯嫡長子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池水漣
振武功臣金泰屹嫡長子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金孝信
靖　社功臣李義培嫡長子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汝誠
靖難功臣李蒙哥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昌彧
扈　聖功臣具寔嫡長孫定略將軍行忠武衛司果臣具鎏
靖　社功臣宋英望長子定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宋興緖
宣武功臣申點嫡長孫定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申墀
扈　聖功臣姜網嫡長孫彰信校尉行忠佐衛副司果臣姜頊
靖國功臣任元山繼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正臣任攝
開國功臣南閨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正臣南以達
振武功臣李珞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生茂
佐理功臣吳伯昌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吳允哲
定　社功臣張哲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張涉
靖　社功臣朴惟明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朴長源
開國功臣李舒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時栽
敵愾功臣閔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閔旭
扈　聖功臣吳連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吳忠世
扈　聖功臣安彦鳳繼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安仁
靖國功臣禹鼎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禹復興
扈　聖宣武功臣鄭期遠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鄭行成
翊戴佐理功臣權瑊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權有源
扈　聖功臣鄭漢璣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鄭承淵
開國定　社功臣金輅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克男
扈　聖功臣金應南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震文
佐理功臣徐居正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徐惟達
靖難功臣洪達孫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洪澄
宣武功臣李廷馣嫡長子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竧
佐翼功臣曹孝門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曹義男
開國功臣韓忠嫡長孫定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韓仲賢
佐理功臣沈瀚靖國功臣沈順經嫡長孫果毅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沈翼世
定　社功臣李佇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李後巡
開國功臣李敏道嫡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李(木+寅)
敵愾佐理功臣許琮嫡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許棗
靖國功臣朴楗嫡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朴昱
宣武功臣元均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元怵

扈　聖功臣辛大容繼嫡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辛贇克
靖國功臣辛允文嫡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辛後元
靖國功臣尹金孫嫡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尹商弼
扈　聖功臣李士恭嫡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李時謙
佐理功臣李壽男嫡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李宜弟
佐命功臣李來長孫展力副尉行忠佐衛副司勇臣李公尹
扈　聖功臣沈忠謙嫡長孫宣敎郎前繕工監監役官臣沈橉
扈　聖功臣李應順嫡長孫通德郎臣李琱
振武功臣安夢尹子通德郎臣安應望
平難功臣柳堍嫡長孫通德郎臣柳昌漢
光國功臣尹洞嫡長孫奉直郎臣尹松冑
靖　社功臣申埈子奉直郎臣申汝拭
開國定　社佐命功臣趙溫嫡長孫承議郎臣趙從善
敵愾功臣禹貢嫡長孫進勇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禹治平
靖　社功臣趙瀚子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趙仲耘
光國功臣尹卓然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尹湯弼
敵愾功臣車云革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車承禎
翊戴功臣柳漢繼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柳芝
翊戴佐理功臣韓繼禧靖國功臣韓斯文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韓宗伯
靖難功臣柳濬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柳璋
平難功臣閔仁伯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閔洚
佐命功臣宋居信嫡長孫學生臣宋周臣
扈　聖功臣楊舜民長孫學生臣楊德潤
光國平難功臣李山海嫡長孫學生臣李梧賓
敵愾功臣朴堉嫡長孫學生臣朴子龍
靖國功臣金俊孫嫡長孫學生臣金孝直
扈　聖功臣金璽信繼嫡長孫學生臣金振海
靖　社功臣崔鳴吉嫡長子學生臣崔後亮
靖　社功臣崔鳴吉子學生臣崔後尙
靖難佐翼佐理功臣崔恒嫡長孫學生臣崔萬年
靖　社功臣李澥長子學生臣李久松
振武功臣金起宗嫡長子學生臣金萬元
開國定　社佐命功臣李和嫡長孫學生臣李(艹+深)
敵愾功臣具謙長孫學生臣具土瞻
佐翼功臣尹巖嫡長孫學生臣尹埱
靖　社功臣柳碩子學生臣柳命才
靖　社功臣柳碩子學生臣柳命哲
靖　社功臣柳碩子學生臣柳命俊
靖國功臣李菡嫡長孫學生臣李喜寅
淸難功臣辛景行長孫學生臣辛光啓
平難功臣南截嫡長孫學生臣南壽一
靖國功臣閔孝曾嫡長孫學生臣閔灝
佐命功臣沈龜齡嫡長孫學生臣沈侹
光國功臣尹暹嫡長孫學生臣尹以明
靖國功臣(言+賞)嫡長孫學生臣李舜翊
寧　社功臣許選嫡長子學生臣許煥

佐理功臣柳輊嫡長孫學生臣柳軒仝
靖國功臣潘佑亨長孫學生臣潘永泗
振武功臣金光燸嫡長子學生臣金壽堅
靖　社功臣李時昉子學生臣李慣靖
社功臣李時昉子學生臣李憍
靖　社功臣李時昉子學生臣李愿
佐理功臣宋文琳嫡長孫學生臣宋仁述
扈　聖功臣尹自新長孫學生臣尹桓
敵愾功臣崔有臨嫡長孫學生臣崔昌運
翊戴佐命功臣徐愈嫡長孫學生臣徐聖翼
淸難功臣朴名賢長子學生臣朴成仁
扈　聖功臣李延祿嫡長孫學生臣李震彪
扈　聖功臣金鳳繼嫡長孫學生臣金屹
靖　社功臣韓汝復嫡長子學生臣韓瑗
佐理功臣金吉通嫡長孫學生臣金重榮
佐翼功臣韓終孫嫡長孫學生臣韓震漢
寧　社功臣李斗堅長子學生臣李信
靖　社功臣李厚源嫡長子學生臣李週
靖　社功臣李厚源子學生臣李選
光國功臣李陽元嫡長孫學生臣李箕老
靖難佐理功臣李季甸嫡長孫學生臣李汝芳
靖國功臣權鈞嫡長孫學生臣權重
靖　社功臣金鍊嫡長子學生臣金世昌
佐命功臣洪恕嫡長孫學生臣洪世憲
靖　社功臣李重老子學生臣李文俊
扈　聖功臣李春國嫡長孫學生臣李敬善
開國定　社功臣金士衡嫡長孫學生臣金璡
敵愾功臣金沔嫡長孫學生臣金命男
靖國功臣崔漢洪嫡長孫學生臣崔慶洙
靖國功臣許礦嫡長孫學生臣許鐸
開國佐命功臣李稷嫡長孫學生臣李元周
佐理功臣韓致亨嫡長孫學生臣韓曇
扈　聖功臣金良輔繼嫡長孫學生臣金德昌
靖　社功臣朴烜子學生臣朴世堂
光國平難功臣崔滉嫡長孫學生臣崔時亨
靖　社功臣洪孝孫子學生臣洪汲
靖　社功臣朴烜子學生臣朴世垕
扈　聖功臣洪澤嫡長孫學生臣洪禹平

여백

身病秩

靖 社功臣崔鳴吉
佐理功臣嫡長孫李希孟
佐理功臣朴居謙長孫朴天甲
靖國功臣趙元倫長孫趙繼昌
靖難功臣朴而溫嫡長孫朴元臣

靖難功臣尹衡嫡長孫尹永立
扈 聖功臣鄭琢嫡長孫鄭時亨
扈 聖功臣李希齡嫡長子李末男
扈 聖功臣朴忠敬繼嫡長子朴天龍
扈 聖功臣朴夢周繼嫡長孫朴慶男
扈 聖功臣金繼韓繼嫡長子金應澤
扈 聖功臣崔彦恂繼嫡長子崔岑
扈 聖功臣金秀源繼嫡長子金輿祥
敵愾功臣尹末孫長孫尹茂生
靖國功臣宋益孫嫡長孫宋德臣
靖國功臣林自蕃長孫林晩榮
靖國功臣鄭種嫡長孫鄭起門
定社功臣李良佑嫡長孫李彦伯

여백

因公在外秩
靖 社功臣盧守元[加里浦僉使]
靖 社功臣洪孝孫[肅川府使]
光國扈 聖功臣尹斗壽嫡長孫尹履之[咸鏡監司]
振武功臣金完嫡長子金汝水[釜山僉使]
振武功臣南以興子南斗柄[釜山僉使]
靖難功臣安慶孫長孫安信敏[彌助項僉使]
靖國功臣李(艹+深)嫡長孫李洵[理山郡守]
靖國功臣高守謙嫡長孫高處明[順天郡守]

여백

在喪秩
寧國功臣李元老
定 社佐命功臣辛克禮嫡長孫辛吉元
宣武功臣李雲龍嫡長子李儼
扈 聖功臣景溫嫡長子李偉國
靖國功臣李克正嫡長孫李茂英
佐翼功臣尹師路嫡長孫尹守仁
靖 社功臣李元榮
靖 社寧 社功臣洪瑞鳳嫡長子洪命一
靖 社功臣兪伯曾嫡長子兪棨
靖 社功臣張暾嫡長子張弼漢
靖 社功臣李起築嫡長子李萬實
靖 社功臣姜得嫡長子姜應曄
振武功臣柳孝傑嫡長子柳浩然
振武功臣李慶禎嫡長子李雄男
昭武功臣李擢男嫡長子李時胤
昭武功臣元克咸嫡長子元後益
寧 社功臣許(礻+商)嫡長子許暹
寧 社功臣黃縉嫡長子黃德輿
翊戴佐理功臣盧思愼嫡長孫盧克昌[盲人]
順治三年九月初三日

이하 여백 ;   218행

ㅇ 기　　타

인조 24(1646)년 9월 제작된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영조대까지 창덕궁 내 진장각(珍藏閣)에 보관되다가 정조 9년(1785) 10월에 봉모당(奉謨堂)으로 이관되어 1910년까지 봉모당에 봉안되어 있었다. 이 유물은 2007년 4월 보물 제1512호로 지정되었다.

ㅇ 참고문헌

『錄勳都監儀軌』, 1644년, 규14946. 규장각 소장
『二十功臣會盟錄』 , 1644년, (古4252.4-12, 규13023, 규1004), 규장각 소장
김나형, 「조선시대 공신교서 장황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박성호,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 옛 맹약을 지키다』, 한중연출판부, 2017.
송진충, 「寫字官 雪峯 金義信의 生涯와 書風」. 『美術史學』34. 2017.08. 7-32쪽.
오하나, 「15세기 이후 한중 전통직물의 보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은주, 「외규장각 의궤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문화재』52-5. 2019.
全炅穆 · 朴用萬,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2009.
鄭承珉, 『朝鮮時代 功臣會盟錄의 書誌的 硏究』 慶北大 大學院 碩士論文. 2005
한은희, 「조선 중기의 포백척」. 『한국생활과학지』 제16권 3호, 2007.

□

ㅇ 내용 및 특징

『二十功臣會盟軸 - 寧國功臣敎書軸』은 1646년(인조 24) 9월 3일에 국왕이 開國功臣으로부터 寧國功臣에 이르는 20공신과 그 자손들을 모아 會盟祭를 거행한 후 작성한 회맹축이다. 錄勳都監에서는 이 회맹축을 제작함과 동시에 『二十功臣會盟錄』 1책을 편찬하고 훈련도감 목활자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회맹축의 내제는 “二十功臣會盟軸”이며, 朱墨으로 邊欄과 界線을 치고 寫字官의 글씨로 단정하게 필사하여 어람용 자료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회맹축은 1644년에 沈器遠(1587~1644)의 역모를 적발하여 평정한 공으로 寧國功臣을 녹훈한 것을 계기로 제작되었으며, 5월 17일에는 1등 4명, 2등 1명, 3등 5명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의가 제기되어 6월 6일에 공신을 1등 2명, 2등 2명으로 정하였고, 6월 14일

에 3등 1명을 추가하여 9월 19일에 교서를 내렸다.

회맹축의 앞에는 天地, 社稷, 宗廟, 山川, 百神의 靈에게 고하는 會盟文이 있다. 이 회맹문을 필사한 寫字官은 金義信이다. 그 다음에 회맹제에 참석한 20공신과 후손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명단에 나타나는 사람은 총 377명이며, 그중 332명은 회맹연에 참석하였고, 身病으로 불참한 사람 18명, 公務在外로 불참한 사람 8명, 在喪으로 불참한 사람 19명이었다. 회맹제에 참석한 332명 가운데 4인은 후대에 墨削되었는데, 영의정 金自點, 김자점의 첫째 아들인 金鍊, 김자점의 둘째 아들인 金鈇, 김련의 아들인 金世昌이었다. 이들이 처형된 것은 1651년(효종 2) 12월이므로, 그들의 이름이 묵삭된 것은 그 이후로 보인다. 회맹록의 말미에는 '조선국왕'과 '왕세자'를 기록하였다.

영국공신 회맹제에 참석한 20공신은 開國(1392), 定社(1398), 佐命(1401), 靖難(1453), 佐翼(1455), 敵愾(1467), 翊戴(1468), 佐理(1471), 靖國(1506), 定難(1507), 光國(1590), 平難(1590), 扈聖(1604), 宣武(1604), 淸難(1604), 靖社(1623), 振武(1624), 昭武(1627), 寧社(1628), 寧國(1644) 공신을 말한다. 20공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開國功臣, 1392년(태조 1), 이성계를 조선의 국왕으로 추대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 1392년 8월 20일에 공신들의 위차를 정하고, 9월 21일에 공신들을 편전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고 敎書와 錄券을 내림. 일등공신 배극렴 등 44명

② 定社功臣, 1398년(태조 7, 정종 즉위), 제1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李芳碩 세력을 몰아내는데 기여한 공신. 1398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1월에 연회를 베풀고 교서와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이화 등 29명

③ 佐命功臣, 1401년(태종 1),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를 거두어 李芳遠을 3대 국왕으로 등극시키는 데 기여한 공신. 1401년 1월에 공신의 등급을 4등급으로 정하고, 3월에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와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이저 등 47명

④ 靖難功臣, 1453년(단종 1), 단종이 재위할 때 수양대군(세조) 세력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에 공을 세운 공신. 1453년 10월에 수양대군에게 공신호와 食邑을 내렸고, 11월에는 정난공신에게 加資하였으며, 1455년 1월에 경복궁 사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와 회맹축을 내림. 일등공신 수양대군 등 43명

⑤ 佐翼功臣, 1455년(세조 1),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보위세력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세조)이 왕위에 오르도록 기여한 공신. 1455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상급을 내림. 일등공신 이중 등 44명

⑥ 敵愾功臣, 1467년(세조 13), 함길도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

은 세운 공신. 1467년 8월과 9월에 공신을 정하고, 11월에 경복궁 인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이준 등 44명

⑦ 翊戴功臣, 1468년(예종 즉위), 유자광 등 훈구세력이 남이를 비롯한 신진세력을 역모에 연루시켜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녹훈된 공신. 1468년 10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469년(예종 1) 5월에 경회루에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신숙주 등 37명

⑧ 佐理功臣, 1471년(성종 2), 성종이 즉위하고 예종의 삼년상을 마친 시점에서 성종을 보필한 공이 있는 신하에게 녹훈한 공신. 1471년 3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472년(성종 3) 7월에 인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신숙주 등 73명

⑨ 靖國功臣, 1506년(중종 1),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이 즉위하는데 기여한 공신. 1506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507년(종종 2) 2월에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박원종 등 116명

⑩ 定難功臣, 1507년(중종 2), 중종 즉위 후 정국공신 선정에 불만을 품고 역모를 꾀한 혐의로 이과 등을 잡아서 옥사를 다스린 공을 세운 공신. 1507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1월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노영손 등 21명

⑪ 光國功臣, 1590년(선조 23), 명나라의 『大明會典』에 이성계의 계보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신. 1588년(선조 21)에 수정된 『대명회전』이 도착했고, 1590년 8월에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윤근수 등 19명

⑫ 平難功臣, 1590년(선조 23), 정여립의 역모를 사전에 고변하고 처리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 1589년(선조 22) 10월에 황해감사의 비밀보고서를 통해 정여립의 역모 의혹이 제기되었고, 정여립을 비롯한 동인계 인사들의 옥사가 일어남. 1590년 8월에 광국공신과 함께 평난공신에게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박충간 등 24명

⑬ 扈聖功臣,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을 세운 공신. 전란이 평정되고 나서 1604년 6월에 공신들에게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이항복 등 86명

⑭ 宣武功臣,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때 전장에서 무공을 세운 장수와 명나라에 奏請使로 갔던 사신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녹훈한 공신. 전란이 평정되고 나서 1604년 6월에 호성공신과 함께 녹훈됨. 일등공신 이순신 등 18명

⑮ 淸難功臣,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 데 기여한 공신. 1596년(선조 29)에 종실 자손인 이몽학이 충청도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홍주목사 홍가신 등이 난을 진압함. 전란이 평정되고 나서 1604년 6월에 호성공신, 선무공신과 함께 녹훈됨. 일등공신 홍가신 등 5명

⑯ 靖社功臣, 1623년(인조 1),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를 즉위시키는데 공을 세운 공신. 1623년 윤10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625년(인조 3) 4월에 융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김류 등 53명

⑰ 振武功臣, 1624년(인조 2), 정사공신에서 2등에 녹훈된 것에 불만을 가진 이괄이 1624년 1월에 평안도에서 군사를 이끌고 도성까지 점령한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신. 3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625년(인조 3) 4월에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장만 등 27명

⑱ 昭武功臣, 1627년(인조 5), 강원도 횡성에서 오랑캐를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킨 이인거의 난을 진압한 공신. 1627년 11월에 원주목사 홍보 등을 공신으로 녹훈함. 일등공신 홍보 등 5명

⑲ 寧社功臣, 1628년(인조 6), 인조반정 후 유배되었던 유효립이 광해군을 상왕으로 하고 인성군을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역모 사건을 고변하고 처리하는 공을 세운 공신. 1628년 3월에 공신으로 정함. 일등공신 허적 등 11명

⑳ 寧國功臣, 1644년(인조 22), 심기원 등이 인조를 폐하고 회은군을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역모 사건을 고변하고 옥사를 다스리는데 기여한 공신. 1644년 6월에 공신으로 확정하고, 9월에 창경궁 명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구인후 등 8명

인조 대에 작성된 『二十功臣會盟軸 - 寧國功臣敎書軸』은 회맹축 문서로는 현재 남아있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가진다. 그리고 24m가 넘는 대규모 生綃에 朱墨으로 邊欄을 치고 寫字官이 단정한 楷書體로 써서 제작하여 왕실자료의 장황에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문서를 완결시키는 '施命之寶'가 찍혀있지 않고, 削勳된 이들을 墨削한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완전성이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본 회맹축은 인조 대에 작성된 원본이기 보다는 이를 베껴놓은 부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국보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ㅇ 문헌자료

『保社功臣復錄都監儀軌』
『寧國功臣錄勳都監儀軌』
전경목・박용만,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藏書閣』 22, 2009.
박성호,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 옛 맹약을 지키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ㅇ 현　　상

서지사항

서명저자사항 :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 / 錄勳都監(朝鮮) 編

판사항 : 筆寫本

발행사항 : [仁祖 24(1646)年]

형태사항 : 1軸 ; 88.9 × 2,413cm

조사 대상본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은 세로 88.9 cm, 가로 2,413cm의 권축장본으로 소장처에서 인쇄하여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敎書)'제첨이 있다. 목재로 추정되는 軸心의 양 끝에 白玉을 끼워 고정하였고 回粧의 내면은 감색비단으로, 상단후면 회장은 다홍색의 비단을 사용하였다. 권두의 서명은 '二十功臣會盟軸'이며 변란과 계선을 朱墨으로 정교하게 그렸고 단정한 해서체로 묵서되어 있다. 명단의 끝에는 "順治三年九月初三日"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상당한 길이의 여백이 있다.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본문에 약간의 꺾임이 있고 비단은 전반적으로 탈색된 편이다. 또한 명단 중 지워진 곳이 있는데, 이는 효종 2(1651)년 伏誅된 金自點과 그 자손들인 金鍊, 金鍒, 金世昌이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함께 소장되어 있는 보물 1513호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에서 보이는 寶印은 없다.

<이십공신회맹축-영사공신>의 현상

ㅇ 내용 및 특징

영국공신은 1644년 즉 인조 22년 5월 좌의정 沈器遠(1587-1644)의 역모를 평정한 후 녹훈한 것이다. 남한산성수어사를 겸했던 좌의정 심기원은 知事를 지낸 李一元, 廣州府尹 權澺 등과 함께 懷恩君 李德仁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으나 심기원의 휘하에 있던 黃濾과 李元老 등이 사건의 전말을 훈련대장 具仁垕에게 알려 결국 심기원 등은 주살되고 회은군은 賜死되었다.

역모를 막은 공로로 인조 22(1644)년 5월17일 1등 공신에 具仁垕, 金瑬, 黃濾, 李元老 4명, 2등 공신에 申景虎 1명, 3등 공신에 呂爾載, 鄭傅賢, 李季榮을 책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6월6일에 다시 책정해 1등 공신에 具仁垕, 金瑬 2명은 그대로 두고, 黃濾, 李元老를 2등 공신으로 내렸다. 이후 인조 24(1646)년 5월16일 安益信과 權大用의 모반 사실을 고변한 李碩龍을 3등 공신으로 책록하여 영국공신은 모두 5명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조 24(1646)년 9월 3일 국왕이 개국공신 이하 寧國功臣에 이르는 각 공신의 嫡長子孫들도 모아 會盟祭를 행하게 되는데 會盟文과 이 회맹에 참여한 공신 · 공신의 적장자 · 衆子 · 적장손 · 영국공신의 職銜과 官階를 열록한 명단을 수록하여 제작한 것이 조사 대상본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이다.

한편 이십공신은 開國(1392년, 태조1년), 定社(1398년, 정종 즉위), 佐命(1401년, 태종1년), 靖難(1453년, 단종 1년), 佐翼(1455년, 세조 1년), 敵愾(1467년, 세조 13년), 翊戴(1468년, 예종 즉위), 佐理(1471년, 성종 2년), 靖國(1506년, 중종 1년), 定難(1507년, 중종 2년), 光國(1590년, 선조 23년), 平難(1590년, 선조 23년), 扈聖(1604년, 선조 37년), 宣武(1604년, 선조 37년), 淸難(1604년, 선조 37년), 靖社(1623년, 인조 1년), 振武(1624년, 인조 2년), 昭武(1627년, 인조 5년), 寧社(1628년, 인조 6년), 寧國(1644년 인조 22년) 에 녹훈된 공신을 의미하는데 이후 중종대에 녹훈된 정난공신이 삭훈되어 보물 1513호의 경우에도 『二十功臣會盟軸』이라 칭하게 된다.

ㅇ 문헌자료

全炅穆 ; 朴用萬(2009),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5-22.
박성호(2017),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의 옛 맹약을 지키다』,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조선왕조실록

ㅇ 지정사례

이 자료는 2007년 4월 보물 1512호로 지정된 바 있다.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1646년(인조 24) 9월에 영국공신(寧國功臣)을 녹훈(錄勳)한 것을 계기로 국왕이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부터 영국공신(寧國功臣)에 이르는 20공신과 그 자손들을 거느리고 회맹제(會盟祭)를 행하고 이 때의 회맹문(會盟文)과 참여자의 명단(會盟錄) 등을 적어 권축장(卷軸裝)으로 꾸민 것이다.

회맹문(會盟文)은 국왕, 왕세자, 공신 및 공신자손 등이 모여서 동맹을 서약하고 공신과 그 자손에게 내려준 나라의 은혜를 잊지 말고 협력하여 국은을 갚기에 힘쓸 것과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공신자손 간에도 단결하여 협력을 다할 것을 천지신명에게 맹세하는 것이다. 이어서 회맹록(會盟錄)에는 김유(金瑬) 등 영국공신과 개국공신 이하 19공신의 공신 및 그 장자, 적장손들의 군호(君號), 공신호(功臣號), 직함(職銜), 성명(姓名)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 녹훈도감(錄勳都監)에서 회맹한 계(啓)를 올리고 불참의 경우에는 신병질(身病秩)·인공재외질(因公在外秩)·재상질(在喪秩)로 구분하여 그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말미(末尾)에 ‘順治三年九月初三日’라는 년기가 있다.

이 “이십공신회맹축”은 왕실이나 충훈부(忠勳府)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최고의 재질로 거대하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에 걸쳐 한자 한자에 정성들여 쓴 글씨와 선명한 주사란, 고급 재질, 장대한 크기 등 모든 면에서 조선후기 기록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현존하는 완전한 상태의 회맹축이 희소하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

書誌事項

二十五功臣會盟軸 - 寧國功臣敎書軸 / 錄勳都監(朝鮮) 編
-- 筆寫本. -- , [仁祖 24(1646)年].
1軸 : 四周單邊, 88.9×2,413㎝,
朱絲欄, 有界, 字數不定, 紙·絹. 卷軸裝.
表紙書名 : 二十五功臣會盟軸 - 寧國功臣敎書軸

ㅇ 현 상

조사본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敎書軸』은 본래 숙종대의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과 영조대의 『二十一功臣會盟軸』 등 두 점과 함께 진장각(珍藏閣)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정조대에 봉모당(奉謨堂)으로 옮겨 봉안되

었고 이후 현재에까지 이어져 보관 관리되고 있음. 2007년 보물 제1512호로 지정되었고,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敎書軸』은 1646년(인조 24)년 9월에 영국공신(寧國功臣)을 녹훈(錄勳)한 것을 계기로 국왕이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부터 영국공신(寧國功臣)에 이르는 20공신과 그 자손들을 거느리고 회맹제(會盟祭)를 행한 이후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권축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십공신은 開國(1392), 定社(1398), 佐命(1401), 靖難(1453), 佐翼(1455), 敵愾(1467), 翊戴(1468), 佐理(1471), 靖國(1506), 定難(1507), 光國(1590), 平難(1589), 扈聖(1592), 宣武(1604), 淸難(1596), 靖社(1623), 振武(1624), 昭武(1627), 寧社(1628) 그리고 寧國功臣까지를 말한다. 영국공신은 1644년(인조 22) 3월에 심기원(沈器遠) 등이 인조를 제거하고 회은군(懷恩君)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훈호(勳號)이다.
공신회맹제는 공신과 공신의 자손들이 함께 지내는 제사를 의미한다. 조선 최초의 공신회맹은 1393년(태조 1) 9월 28일 개국공신과 왕세자가 회동하여 충효계(忠孝契)를 조직하고 왕륜동(王輪洞)에서 맹세한 것이 시초이다. 그후 공신을 책록한 후 임금이 공신들과 모여서 하늘과 성황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국왕에게 충성할 것을 하늘에 맹세하는 공신회맹제를 거행하고, 그 사실과 참석한 옛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과 새로운 공신을 모두 회맹록에 올리고 은전을 내리거나 상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참석자는 회맹록에 수결(手決)을 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한 공신의 수결은 공백으로 두었다.
회맹문(會盟文)은 국왕, 왕세자, 공신 및 공신자손 등이 모여서 동맹을 서약하고 공신과 그 자손에게 내려준 나라의 은혜를 잊지 말고 협력하여 국은을 갚기에 힘쓸 것과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공신자손 간에도 단결하여 협력을 다할 것을 천지신명에게 맹세하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국회맹제(寧國會盟祭) 와 관련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어 이해에 도움을 준다.

상이 신구 공신(新舊功臣) 및 자손(子孫)을 거느리고 영국 회맹제(寧國會盟祭)를 행하였다. 밤 삼경에 유사가 행사하기를 청하니, 예조 판서 정태화(鄭太和)가 찬례(贊禮)하였다. 상이 단하(壇下)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손 씻기를 마친 뒤 준소(樽所)에 나아갔으며, 이어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세 번 향(香)을 올리고 술잔을 드린 뒤 동계(東階)로부터 내려와 다시 배위에 나아가 꿇어앉아 삽혈한 뒤에 맹서문을 읽고 상이 사배례를 행하니, 찬례가 예를 마쳤음을 아뢰었다. 상이 막차(幕次)에 나아갔다가 그대로 궁궐로 돌아왔다.
(仁祖實錄 47권, 인조 24년 9월 3일 丙午, 順治三年)

조사본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교서축』은 왕실이나 충훈부(忠勳府)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꺼운 저지에 명주를 접착하여 만든 것으로 폭 89.2cm, 길이 2,413cm의 두루마리이다. 형태서지를 살펴보면 제첨은 없으며 內題는 '二十功臣會盟軸'이다. 본문은 楷書로 墨書하고 행간은 朱絲欄을 그었는데 매 칸의 넓이는 4.4~4.5cm이다. 여백은 무늬 있는 비단으로 앞부분에 황색 9.7cm, 남색 54cm 뒷부분에는 황색 8cm, 남색 22.5cm을 덧대었고, 본문 전체 비단 폭은 70.2~70.4cm, 본문의 朱線 上下間은 66cm이며, 권축 양쪽 끝에는 지름 14.5cm의 둥근 白玉이 있다. 권축의 나무 길이는 15.2cm이며, 양쪽 옥의 지름은 5cm이다. 褾竹의 폭은 3cm로 남색비단을 싸고 있으며, 가운데는 긴 붉은색 끈이 있어 회맹축을 붉은색 비단으로 말아 고정시키게 되어 있다. 마지막 행에는 "順治

三年九月初三日”끝을 맺고 여백을 많이 두고 있다.

문서의 첫부분에는 회맹문을 두었는데 1646년 9월 3일 ‘회맹제’에서 인조가 開國功臣～寧國功臣의 二十功臣 및 그 嫡長子孫을 이끌고 社稷·宗廟 山川百神之靈에 寧國功臣의 錄勳賜號와 앞으로의 共休共戚할 것의 서약을 告한 내용이다. 회맹문의 끝에는 조선국왕과 왕세자를 기록하였다.

‘회맹문’에 이어 회맹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의 명단까지 기록한 ‘회맹록(會盟錄)’이 있다. 내용은 二十功臣會盟祭에 참여한 寧國功臣 및 生存各功臣과 開國功臣 이하 각 공신의 嫡長子孫의 명단이다. 영국공신 녹훈이 마무리된 이후 회맹축을 제작하고 별도로 간행한 『二十功臣會盟錄』을 통하여 당시

표. 영국공신회맹제 참석 인원

참석여부		인원	비고
참석		328명(332명)	金自點, 金鉉, 金鍊, 金世昌 4인 묶삭
불참	身病秩	18명	
	因公在外秩	8명	
	在喪秩	19명	
총		373명(377명)	

(全炅穆 · 朴用萬,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2009. 표 재인용)

참여했던 인물과 그 동향을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면 당시 회맹제에는 총 377명 중 332명이 참석하였다.

회맹록은 일정한 수록 원칙을 갖고 있다. 우선 1646년 9월의 '회맹제'는 영국공신을 책훈하면서 가진 모임이므로 영국공신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다만, 1623년(인조 1) 광해군과 대북파의 이이첨(李爾瞻) 등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靖社功臣, 뒤이어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振武功臣 역시 회맹의 중요한 인물로 앞부분에 수록하였다.
영국공신의 책훈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몇 번의 변화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본래 1등으로부터 3등까지 책훈하였으나, 후에 1등과 2등만을 두고 3등은 제외하고 있다.

① 具仁垕·金瑬·黃瀁·李元老를 寧國功臣 1등으로, 申景琥를 2등으로 呂爾載·鄭傅賢·李季榮을 3등으로 삼았다.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5월 17일 갑진, 1644, 崇禎17年)

② 具仁垕·金瑬를 효충 분위 병기 결책 영국 공신(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으로 삼고 인후의 자급을 崇祿으로 뛰어 올렸으며, 黃瀁·李元老를 효충 분위 병기 영국 공신으로 삼고 헌에게는 檜興君을, 원로에게는 完陽君을 각각 봉하였으며, 자급을 모두 嘉義로 뛰어 올렸다. 柳俊昌을 정언으로, 沈熙世를 부교리로 삼았다.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6월 6일 임술, 1644, 崇禎17年)

한편, 정사공신은 1등에 김류·이귀·김자점(金自點)·심기원(沈器遠)·신경진(申景禛)·이서(李曙)·최명길(崔鳴吉)·이흥립(李興立)·구굉(具宏)·심명세(沈命世) 등 10명, 2등공신은 이괄(李适)·김경징(金慶徵)·신경인(申景禋)·이중로(李重老)·이시백(李時白)·기시방(奇時昉)·장유(張維)·원두표(元斗杓)·이해(李瀣)·신경유(申景裕)·박호립(朴好立)·장돈(張暾)·구인후(具仁垕)·장신(張紳)·심기성(沈器成) 등 15명, 3등공신은 박유명(朴惟明)·한교(韓嶠)·송영망(宋英望)·이항(李沆)·최내길(崔來吉)·신경식(申景植)·구인기(具仁堅)·조흡(趙潝)·이후원(李厚源)·홍진도(洪振道)·원우남(元祐男)·김원량(金元亮)·신준(申埈)·노수원(盧守元)·유백증(兪伯曾)·박정(朴炡)·홍서봉(洪瑞鳳)·이의배(李義培)·이기축(李起築)·이원영(李元榮)·송시범(宋時范)·김득(金得)·홍효손(洪孝孫)·김련(金鍊)·유순익(柳舜翼)·한여복(韓汝復)·홍진문(洪振文)·유구(柳구) 등 28명으로 모두 53명이었다.

또한 진무공신은 1등에 장만·정충신(鄭忠信)·남이흥(南以興) 등 3인으로 갈성 분위 출기 효력 진무 공신(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이라 하였고, 2등에 이수일(李

守一)·김기종(金起宗)·변흡(邊潝)·유효걸(柳孝傑)·김경운(金慶雲)·이희건(李希健)·조시준(趙時俊)·박상(朴瑺)·성대훈(成大勳) 등 9인으로 갈성 분위 효력 진무공신이라 하였으며, 3등에 남이웅(南以雄)·신경원(申景瑗)·김완(金完)·이신(李愼)·이휴복(李休復)·송덕영(宋德榮)·최응일(崔應一)·김태흘(金泰屹)·오박(吳珀)·최응영(崔應永)·지계관(池繼灌)·이락(李珞)·이경정(李慶禎)·이택(李澤)·이정(李靖)·안몽윤(安夢尹)·이우(李祐)·윤회(尹晦)·김광소(金光燾) 등 30인으로 갈성 분위 진무공신이라 하였다.
회맹록은 이같은 수록 원칙에 의해 가장 앞머리에 靖社功臣 1등이며 寧國功臣 1등으로 책훈된 金瑬를 시작으로 하여, 다음에 먹으로 지워 버린 金自點, 다음으로는 진무공신 3등에 책훈된 南以雄, 정사공신 2등으로 영국공신 1등에 책훈된 具仁垕, 정사공신 3등에 책훈된 洪振道 등을 차례대로 수록하였다.
그런데 회맹록의 명단 가운데 먹으로 완전히 지워버린 인물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별도로 간행한 『二十功臣會盟錄』을 통하여 관련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奮忠贊謨立紀明倫靖 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洛興府院君臣金自點(金瑬와 南以雄 사이)
② 奮忠贊謨靖 社功臣通政大夫掌隷院判決事臣金鍊(趙濬과 洪振文 사이)
③ 靖 社功臣金自點子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司書臣金鈇(崔後胤과 柳重炯 사이)
④ 靖 社功臣金鍊嫡長子學生臣金世昌(權重과 洪世憲사이)

金世昌

金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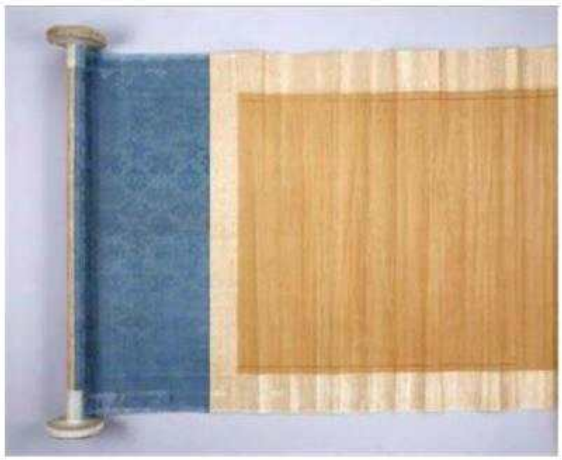
金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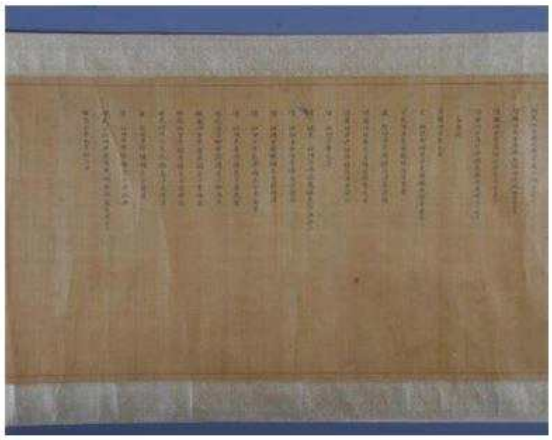
金自點

이들은 김자점(金自點, 1588~1651)과 그 일족이다. 김자점에게는 장남 金鍊과 차남 金鈇이 있었고, 김련은 金世昌과 金世龍 두 아들을 두었다. 그들 중 회맹제에 참석했던 인물들이 후에 삭제된 것이다. 명단을 묵삭한 시기는 이들이 처형된

1651년(효종 2) 12월 이후로 판단된다.

회맹록의 마지막 부분은 '順治三年九月初三日'이라는 간기가 적혀 있다. 이후 여백은 약 720cm 정도로 상당히 긴 상태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행에 옥쇄는 찍혀 있지 않다.





ㅇ 문헌자료

全炅穆 · 朴用萬,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2009) 5-22.
鄭承珉, 『朝鮮時代 功臣會盟錄의 書誌的 硏究』 慶北大 大學院 碩士論文. 2005
송진충, 寫字官 雪峯 金義信의 生涯와 書風. 美術史學 34. 2017.08. 7-32.

□

ㅇ 현 상

조사대상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敎書軸』은 인조 24(1646)년 9월에 寧國功臣을 錄勳한 것을 계기로 국왕이 개국공신 이하 각 공신의 嫡長子孫들도 모아 會盟祭를 행하고, 이 회맹에 참여한 개국공신 이하 보사공신까지 19공신의 본 공신 · 공신의 적장자 · 衆子 · 적장손 · 영국공신의 職銜과 官階를 열록한 명단이다. 여기에는 會盟文 · 참여자 명단 · 종묘 祭祝文이 수록되었고, 이를 권축장으로 만든 것이다.

<서지사항>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敎書軸 / 錄勳都監(朝鮮) 編.
筆寫本. [仁祖 24(1646)年] 88.9cm × 2,413cm.
1軸. 四周單邊. 有界.

表紙書名 :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敎書).

ㅇ 내용 및 특징

조선에서 공신회맹을 한 것은 태조 1(1393)년 9월 28일 개국공신과 왕세자가 회동하여 忠孝契를 조직하고 王輪洞에서 맹세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공신을 책록한 후 임금이 공신들과 모여서 하늘과 성황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국왕에게 충성할 것을 하늘에 맹세하는 공신회맹제를 거행하고, 그 사실과 참석한 옛 공신의 嫡長子孫과 새로운 공신을 모두 회맹록에 올리고 恩典을 내리거나 상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참석자는 회맹록에 手決을 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한 공신의 수결은 공백으로 두었었다.

국보로 승격 신청된 자료는 “二十功臣會盟錄” 2축 가운데 하나로서 인조 24(1646)년 9월3일에 국왕(인조)이 개국공신으로부터 寧國功臣에 이르는 20공신과 그 자손들을 거느리고 회맹할 때의 회맹축이다. 영국공신은 인조 22(1644)년 5월에 좌의정 沈器遠(1587-1644)의 역모를 평정한 후 녹훈하였다. 인조반정의 공신인 靑原府院君이며 좌의정인 심기원이 인조 22(1644)년 남한산성 수어사를 겸하게 되자, 知事를 지낸 李一元, 廣州府尹 權澺 등과 함께 懷恩君 李德仁을 추대하기 위해 모반을 꾀하였다. 그러나 심기원의 부하 黃濾과 李元老 등이 훈련대장 具仁垕에게 밀고함으로써, 일당은 주살되고 회은군은 賜死되었다. 이는 같은 훈신 사이에 있었던 군사권의 쟁탈과 反淸·親淸의 정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결국 친청의 金鎏·金自點 등이 승리한 사건이다.

인조는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錄勳都監에 명해 20공신 회맹을 주관하고 교서축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때 녹훈도감에서는 훈련도감자로 인출한 간본은 해당자에게 반사하고, 어람본 회맹축은 최고급으로 만들어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영국공신은 인조 22(1644)년 5월17일에 1등에 具仁垕, 金鎏, 黃濾, 李元老 4명, 2등에 申景虎 1명, 3등에 呂爾載, 鄭傅賢, 李季榮을 책록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6월6일에 다시 책정해 1등에 具仁垕, 金鎏 2명, 2등은 黃濾, 李元老를 정하고, 6월14일에 李碩龍을 3등으로 책록하였고, 9월19일 교서축을 반급하였다. 이에 11월7일 녹훈도감에서 李碩龍과 黃濾의 敎書를 개조해서 정서했고, 11월13일에는 寧國功臣錄券의 인출에 대해 別單으로 서계한 것으로 보아 교서축을 반사한 후 간본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공신은 몇 차례 수정된 것으로 미루어, 그때마다 교서축을 새로 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숙종 20(1694)년 6월25일 기록에 保社功臣復勳都監에서 『寧國功臣御覽會盟軸』을 견본으로 회맹축을 제작하겠다는 건의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영국공신어람회맹축』은 숙종 6(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책록한 보사공신을 복훈하면서 회맹축을 제작할 때 견본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종 3(1723)년 扶社功臣의 회맹축을 만들 때도 『영국공신어람회맹축』을 견본으로 제작하였다. 즉 1월3일 기사에 숙종 20(1694)년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서인이 파훈된 보사공신을 복훈할

때 숙종 6(1680)년 책록한 보사공신의 회맹축은 불타 없어졌으므로 내입해둔 『寧國功臣會盟軸』을 내어 제작한 후 환입하겠다고 건의한 것이다.
영국공신 책록 후의 회맹제에는 총 377명 중 332명이 참석하였다. 여기서의 20공신은 開國(1392), 定社(1398), 佐命(1401), 靖難(1453), 佐翼(1455), 敵愾(1467), 翊戴(1468), 佐理(1471), 靖國(1506), 定難(1507), 光國(1590), 平難(1589), 扈聖(1592), 宣武(1604), 淸難(1596), 靖社(1623), 振武(1624), 昭武(1627), 寧社(1628), 寧國(1644) 공신을 의미한다.

국보로 승격 신청된 어람본 회맹축은 비단보자기에 싸여 옻칠을 한 栢子板의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여백을 포함한 세로 88.9cm, 가로 2,413cm의 긴 두루마리이다. 표지에는 사주단변의 籤紙에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敎書)'라 인쇄된 제첨이 부착되어 있다. 표면이 될 부분에는 多紅紋 비단으로 마감되어 있고, 3cm 폭의 褾竹은 남색비단으로 싸여 있다. 그 가운데 紅眞絲의 卷緖가 있어 회맹축을 말아놓으면 多紅紋 비단의 表만 드러난다. 전후의 縹는 吉祥紋이 있는 藍色 비단이고, 四周의 邊兒는 白花紋 비단이다. 목재 軸棒의 길이는 15.2cm, 양단에는 지름 15.0cm의 둥근 白玉으로 마감되어 있다. 권두의 서명은 '二十功臣會盟軸'이다. 본문은 生綃에 상하 66.6cm의 정교한 朱絲欄 내에 楷書로 墨書되어 있다. 마지막 행은 "順治三年九月初三日"이고, 여백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길다.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앞에 수록된 회맹문은 王世子, 功臣 및 功臣子孫이 모여서 동맹을 서약하고, 공신과 그 자손에게 내려준 나라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협력하여 國恩을 갚기에 힘쓸 것과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공신 자손간에도 단결하고 협력을 다할 것을 天地神明에게 맹서한 것이다. 이어 수록된 회맹록에는 개국공신 이하 19공신의 공신 및 그 長子, 嫡長孫들과 金墐 등 영국공신의 君號, 功臣號, 職銜, 姓名이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녹훈도감에서 회맹한 啓, 회맹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명단과 그 사유(身病秩, 因公在外秩, 在喪秩-盲人)를 적어 올린 초기가 있다. 간간이 묵으로 지운 곳도 있는데, 이는 효종 2(1651)년 복주된 金自點과 그 직계이다. 그러나 말미에 옥쇄는 검인되지 않았다.

ㅇ 문헌자료

全炅穆 · 朴用萬,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2009) 5-22.
鄭承珉, 『朝鮮時代 功臣會盟錄의 書誌的 硏究』 慶北大 大學院 碩士論文. 2005
송진충, 寫字官 雪峯 金義信의 生涯와 書風. 美術史學 34. 2017.08. 7-32.

안건번호 동산 2020-07-012

12. 보물 제1513호
20공신회맹축 - 보사공신녹훈후
(二十功臣會盟軸 - 保社功臣錄勳後)

가. 심의사항

'보물 제1513호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보물 제1513호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신청('19.4.1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2.26./11.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513호(2007.4.20. 지정)
○ 명　　칭 :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1축
○ 규　　격 : 세로 88.8㎝ × 가로 2,414.0㎝
○ 재　　질 : 비단, 옥, 종이, 나무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권축장(卷軸裝, 白玉軸)
○ 조성연대 : 1694년(숙종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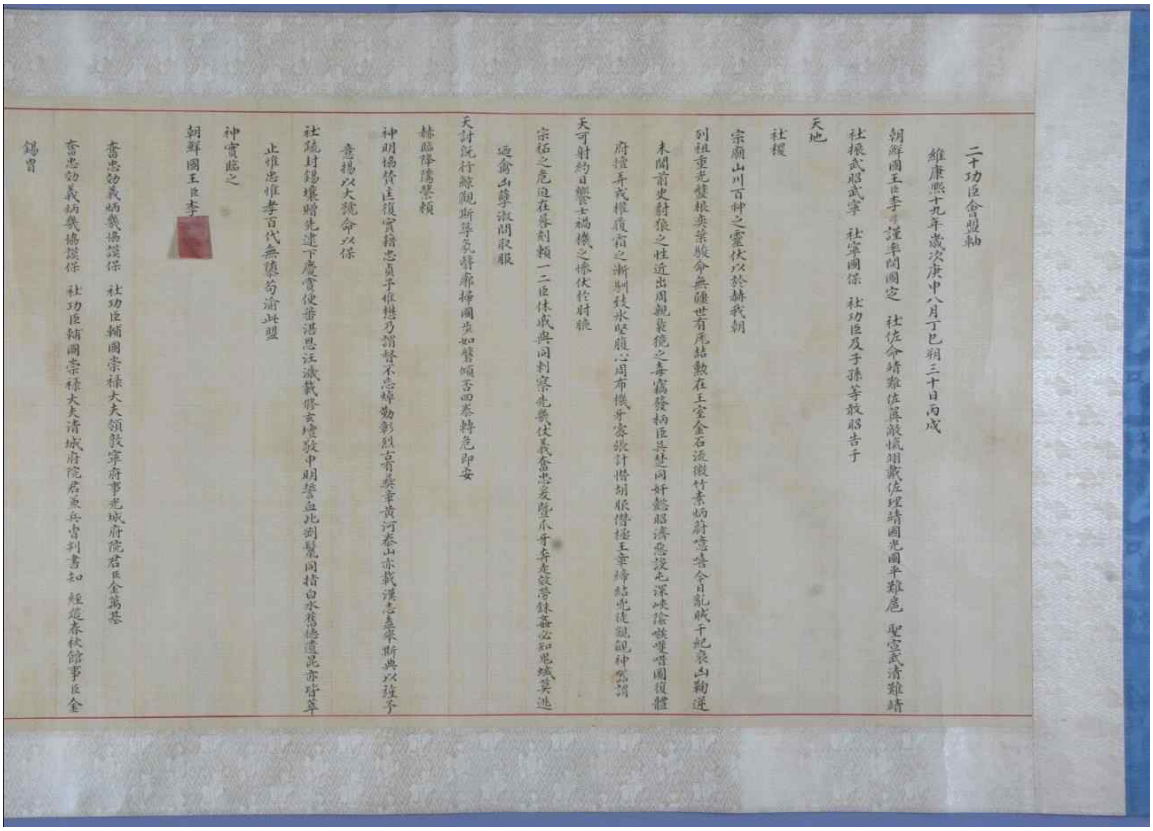


그림 726. 보물 제1513호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이십공신회맹축』 두 종은 당시 정국의 전개과정이나 공신 녹훈과 삭훈의 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원천적인 사료이자 어람용 유일본이다. 더욱이 정성을 들여 쓴 글씨와 선명한 주사란, 제작에 사용한 각종 자료의 재질, 그리고 축을 제작한 장인의 솜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존하고 있는 회맹축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회맹축들은 당시 조선 왕실이 최대한의 정성과 노력을 결집하여 만든 유물로 현재 두 종 모두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① 『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완성도와 어보가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삭훈된 이들이 묵삭된 흔적으로 보아 국보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회맹축은 숙종 20년(1694) 보사공신을 복훈한 후 회맹축을 제작하면서 인조 때의 회맹축 원안을 바탕으로 다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제작기법 등이 뒤에 제작된 보사공신과 거의 흡사하며, 선대의 어보도 찍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비해 “②『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는 모든 점에서 가장 완벽한 조선왕조의 공신회맹축이자 기록유산의 최고봉이라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20공신회맹축 보사공신녹훈후>는 숙종 20년(1694)에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의 정쟁으로 혼란하였던 정국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삭훈되었던 보사공신들을 복훈(復勳)하면서 서인과 남인의 정쟁으로 숙종의 정치적 의도를 엿볼 수 있어 역사적 사료로서 정치사적 가치가 높다.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역대 공신과 후손을 모아 충성맹세를 받았던 회맹제를 거행했을 때의 회맹문과 보사공신을 비롯한 20공신과 그의 적장자손 총489명의 명단을 기록한 회맹록 및 종묘축제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제작한 ‘康熙三十三年十月日’란 제작연대와 ‘己巳罷勳 甲戌夏勳’이라는 제작사유가 적혀있고 그 위에 국새인 「施命之寶」가 찍혀 있어 기록문화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공신과 공신의 적장자손에게 반사하기 위해 활자로 간행한 <회맹록>은 다수가 존재하나, 이 <20공신회맹축>은 세로 88.8cm x 가로 2,414cm의 긴 두루마리에 당시 글씨를 잘 쓴다고 알려진 서사관 이익신(李翊臣)이 글씨를 쓰고, 국왕을 위해 옥이나 상아, 생초나 비단과 같은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숙련된 기량을 지닌 관청 소속 경공장들이 솜씨를 발휘하여 형식적인 완성도가 높아 조형 예술적으로도 주목된다.

더욱이 어람회맹축은 인조 24년(1646)에 제작된 『20공신회맹축』과 함께 단 2점이 현존하여 희귀한 사례이다. 이 어람회맹축은 이것을 만드는 전말을 기록한 『녹훈도감의궤』를 통해 평남 성천에서 옥축을 진상하거나, 베틀로 생초(生綃)를 직조하고 다회틀로 다회(多繪)를 짜고 상아로 비녀(簪)를 만들었으며, 비단 위에 배접을 3번 바르고 매끈하게 광낸 후, 화원 한후방(韓後邦)이 인찰을 긋는 등 어람용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고급 재료와 도구 및 장인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왕실공예품의 기술적 수준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조사대상본은 반사본이 아니고 어람용으로 제작한 회맹축으로서 이 회맹축에 사용된 재료, 장인의 솜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존하고 있는 회맹축 가운데 최고급이고, 국새까지 찍혀 있어 완정한 상태의 것으로는 유일하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롭고 장대하게 제작하여 조선후기 왕실공예품 중 최고이고 형식미 또한 우수하여 국보로 승격시킬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의 명칭이 제작과 관련된 전말을 기록한 『보사공신복록도감의궤』나 신

하들에게 반사하기 위해 활자본으로 인간한 『이십공신회맹록』을 보면, 본 유물은 아라비아 숫자인 '20'이 아닌 '이십공신(二十功臣)'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숙종 대에 작성된『二十功臣會盟軸 - 保社功臣追復敎書』은 이러한 형식의 문서로는 현재 남아있는 2건 가운데 하나로 희소성을 가진다. 그리고 24m가 넘는 대규모 生綃에 朱墨으로 邊欄을 치고 寫字官이 단정한 楷書體로 필사한 후 제작하여 왕실자료의 장황에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2건의 회맹축 가운데 문서를 완결시키는 '施命之寶'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 완전성을 갖춘 유일한 자료이며, 숙종 대의 환국으로 인한 정치 변동이 뚜렷하게 반영된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사 대상본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는 숙종 20(1694)년 甲戌換局 이후 삭훈되었던 공신들을 復勳하면서 復勳都監에서 제작한 것으로 숙종 연간 수차례의 환국을 거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 기록물이다. 또한 제작에 관련된 전모가 외규장각본인 『復勳都監儀軌』에 수록되어 있다.

어람용으로 제작된 회맹축이니만큼 제작에 소용된 재료와 장황이 호화롭고 단정한 해서체로 묵서되어 품위가 있다. 또한 현존하는 회맹축이 희소한 상황에서 완벽한 보존 상태와 施命之寶의 寶印이 있어 조선 시대 기록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로 국보로 상향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된 기 지정명칭『20功臣會盟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는 1694년(숙종 20)년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서인이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파훈(罷勳)된 보사공신을 복훈(復勳)하고 개국공신 이하 보사공신까지 20공신의 본공신과 사망한 공신은 그 적장자 또는 적장손이 모여 회맹한 내용을 기록하여 권축장으로 만든 것이다.

본래 보사공신은 1680년(숙종 6)년 4월에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된 '경신환국(庚申換局)' 때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훈호(勳號)였으나, 1689년에 삭훈되었고 이후 1694년(숙종 20)년 甲戌換局 이후 삭훈되었던 공신들을 復勳한 것이다.

조사본은 이같은 숙종 연간 보사공신의 녹훈, 삭훈, 복훈이라는 역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한편 조사본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추복교서』는 반사본이 아니고 어람용으로 제작한 회맹축으로서 회맹축을 제작한 장인은 물론 사용된 재료 그리고 선명한 주사란에 정성을 들여 쓴 寫字官의 글씨 등 모든 면에서 현존하고 있는 회맹축 가운데 최고급으로 평가된다. 더욱 옥쇄까지 검인된 완전한 상태의 회맹축이라는 점은 그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특히 조사본은 제작된 이후 그 전래 과정이 매우 뚜렷하다. 조선말 1910년까지 전래가 확인된 회맹축은 인조 24(1646)년과 숙종 20(1694)년 제작한 『二十功臣會盟軸』 2건과 영조 4(1728)년 奮武功臣 녹훈 때의 『二十一功臣會盟軸』 등 3종이었다. 이들은 모두 珍藏閣에 수장되었다가 정조 9(1785)년 10월 奉謨堂으로 이봉되었고, 이후 1910년까지 봉모당에 봉안되었다가 『二十功臣會盟軸』 2축만 봉모당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추복교서』는 역사적 가치 및 예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유물 자체의 역사성이 뚜렷한 유물로서 동일 유형의 유물 가운데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국보 승격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보사공신을 녹훈하던 숙종 때는 서인과 남인의 정쟁으로 정변이 계속되었으므로,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간의 화합과 정치적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 역대 공신과 후손을 모으고 충성맹세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역대 공신 및 그 자손들을 초치하여 조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이를 통해 정국의 안정을 꾀한 왕실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의미에서 회맹축에는 정치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회맹축은 14년이 지나 숙종 20(1694)년 甲戌換局 이후 삭훈되었던 공신들을 復勳하면서 復勳都監에서 제작한 것이다. 숙종 연간 보사공신의 녹훈은 권력 구조상 종척의 빈자리를 메우는 권력의 지형을 구축하는 과정으로서 그 배경에는 숙종이 훈척을 중심으로 친위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대신과 대간들의 반대에도 녹훈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의지를 관철시키려 했던 배경이 있었다.

숙종 20(1694)년 10월 복훈도감에서 무신자로도 인출해 반사했는데, 무신자본의 내용은 「復勳時告宗廟祭祝文」까지는 어람본과 동일하지만, 말미에 「敎中 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等書」와 「復勳都監啓下別單」이 부록되어 있다. 부록에는 鄭元老 등이 복주되어 삭훈된 사실과 李師命 등의 추록, 김석주 등의 復勳에 대한

내용이 추록되어 있어 보사공신 녹훈 전후 경신환국에서 갑술옥사에 이르는 정변을 살피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復勳敎書軸』은 숙종 연간 보사공신의 녹훈, 삭훈, 복훈이라는 정국의 흐름을 증명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롭고, 장대하게 제작되어 문화재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재료의 최고 재질, 축을 제작한 장인의 최고 솜씨, 선명한 주사란에 정성을 들여 쓴 사자관의 달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존하고 있는 회맹축 가운데 최고급이다. 조선후기 기록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예술품이라 할 만하다.

공신과 공신의 嫡長子孫에게 반사하기 위해 활자로 간행한 회맹록은 많은 복본을 제작한 결과 전래본도 다수이다. 그렇지만 조사대상본은 반사본이 아니고 어람용이므로 유일본이다. 공신회맹이 있을 때마다 어람건 회맹축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선말 1910년까지 전래가 확인된 회맹축은 3건이었다. 인조 24(1646)년과 숙종 20(1694)년 제작한 『二十功臣會盟軸』 2건과 영조 4(1728)년 奮武功臣 녹훈 때의 『二十一功臣會盟軸』이다. 이들은 珍藏閣에 수장되었다가 정조 9(1785)년 10월 奉謨堂으로 이봉되었다. 이후 1910년까지 봉모당에 봉안되었다가 『二十功臣會盟軸』 2축만 봉모당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었고, 영조 4(1728)년 奮武功臣 녹훈 때의 『二十一功臣會盟軸』의 전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본은 반사본이 아니고 어람용으로 제작한 회맹축이다. 이 회맹축에 사용된 재료, 장인의 솜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현존하고 있는 회맹축 가운데 최고급이다. 옥쇄까지 검인된 완정한 상태의 회맹축은 이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軸』이 유일하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롭고 장대하게 제작하여 조선후기 기록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예술품이라 할 만하다. 또한 완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국보로 상향시킬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20공신회맹축』 두 종은 왕실이나 충훈부(忠勳府)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최고의 재질로 제작된 어람용 회맹축이다. 두 종 모두 생초(生綃)에 정성들여 쓴 해서체 글씨, 주사란(인찰) 그리고 크기 면에서 조선왕조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록유물이다. 이 회맹축들은 진장각(珍藏閣)에 소장되어 있다가 정조 9년(1785)에 봉모당(奉謨堂)으로 이안되어 오늘에 전한다. 표죽(標竹)은 비단으로 감쌌고, 붉은색의 권서(卷緖), 권축의 양쪽 끝에는 둥근 백옥(白玉)이 있으며 보존 상태는 거의 온전하다. 회맹축을 담고 있는 오동나무 궤는 정조 연간 또는 그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는 숙종 20년(1694)에 재집권한 서인이 숙종 15년(1689)에 기사환국으로 삭훈된 보사공신을 복훈(復勳)하고, 개국공신 이하 보사공신까지 20공신의 적장자, 중자(衆子), 적장손이 모여 회맹할 때의 회맹문과 참여자 등을 적어 권축장으로 만든 것이다. 제첨은 없으며, 권두의 제명은 『二十功臣會盟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보사공신은 숙종 재위 초기인 숙종 6년(1680)에 허적(許積)의 아들 허견(許堅)이 복창군(福昌君), 복선군(福善君), 복평군(福平君)과 더불어 꾀한 역모를 바로잡은데 기여한 공신이다. 1등에 김만기(金萬基), 김석주(金錫胄), 2등에 이입신(李立身), 3등에 남두북(南斗北), 정원로(鄭元老), 박빈(朴嬪)이 녹훈되었으나 숙종 15년(1689)에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삭훈되었다. 그러다가 숙종 20년(1694)에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삭훈된 5명의 공신이 복훈(復勳)되면서 이 회맹축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이 회맹축은 숙종 6년(1680) 8월에 있었던 보사공신회맹(保社功臣會盟) 때의 회맹문(會盟文)을 먼저 쓰고 회맹에 참여한 본공신과 자손의 군호, 공신호, 직함, 성명을 수록해 놓았다. 이어서 身病未參秩, 在喪未參秩, 廢病未參秩, 年幼未參秩, 邊將在外未參秩, 被謫未參秩 등 참석하지 못한 명단을 사유별로 수록하고, “康熙十九(1680)年 八月日”이라고 기년(紀年)을 써 놓았다. 그러나 이 회맹축은 1680년 회맹제를 올린 직후 제작된 것은 아니고, 14년이 지난 후인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삭훈되었던 공신들을 복훈하면서 복훈도감에서 제작된 것이다.

끝에는 1694년(갑술) 6월 20일의 “復勳時告宗廟祭祝文”, “復勳敎書”, “復勳都監啓下別單”이 있다. 이어 “康熙三十三年十月日”과 “己巳罷勳甲戌夏勳” 위에 「施命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이 회맹축의 20공신은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光

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 保社功臣 등이다. 그런데 이 회맹축의 공신은 "①20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에다 보사공신이 녹훈되면서 21공신이 되어야 하나 이과(李顆)의 역모를 평정한 정난공신(定難功臣)이 영국공신 녹훈 이후 삭훈(削勳)되었으므로 동일하게 20공신이 된 것이다.

이 회맹축의 필사자는 이익신(李翊信)으로 숙종 7년(1681) 4월에 청나라에서 온 칙사를 영접할 때 차출되기도 한 달필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숙종 20년(1694) 10월 복훈도감에서 이 회맹축을 무신자로 인출해 반사했는데, 무신자본은 "復勳時告宗廟祭祝文"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뒤에 "敎中 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等書"와 "復勳都監啓下別單"이 부록되어 있다.

<사진>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의 권두, 권미(어보), 함, 인본 (오른쪽 위부터 시계반대방향)

ㅇ 문헌자료

전경목 · 박용만,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2009) 5-22.

박성호,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 옛 맹약을 지키다』(성남: 한중연 출판부, 2017)

□

ㅇ 현　　상

숙종 6년(1680) 복선군 이남(李柟, 1647-1680)과 허견(許堅, -1680) 등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변으로 인해 경신환국(庚申換局)이 일어나 남인이 역적으로 몰렸고, 이 일을 수습했던 서인들에게 보사공신(保社功臣)이라는 훈호가 내려지고 경제적인 은전과 그 지위를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이때 국왕에게는 <20공신회맹축>을 진상하였고, 공신에게는 <회맹록>을 인쇄하여 반사하였고, 공신들의 화상을 제작하여 하사하였으며, 그 전말은 『보사공신녹훈도감의궤(保社功臣錄勳都監儀軌)』에 수록되어 있다.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경신환국을 무옥(誣獄)이라고 주장하여 보사공신은 삭훈되었다.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자 파훈(罷勳)시켰던 공신을 다시 복훈(復勳)시켰는데,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 保社功臣錄勳後)>은 이러한 녹훈, 삭훈, 복훈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제작되어 국왕에게 진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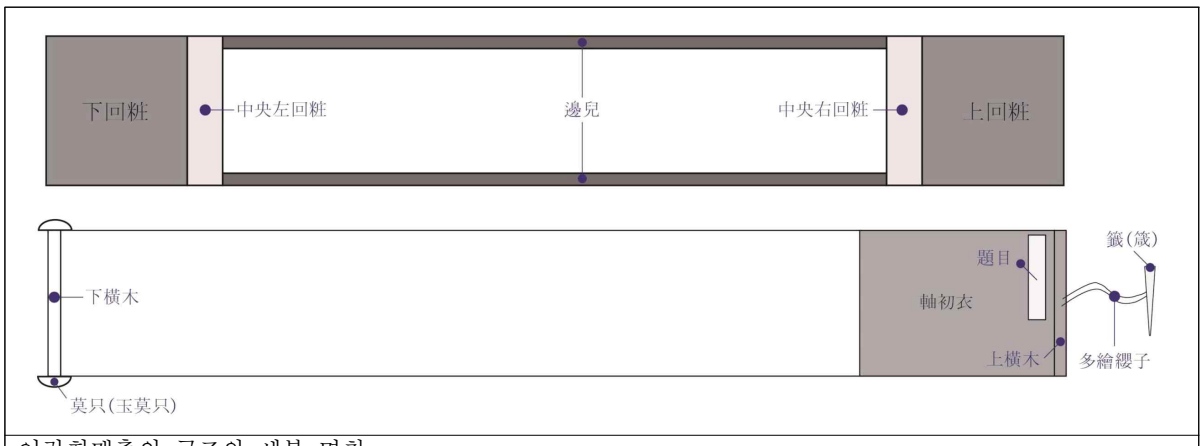
<20공신회맹축>은 세로 88.8cm x 가로 2,414cm의 긴 두루마리로, 회맹문, 회맹록, 종묘축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맹문은 숙종 6년 경신환국 이후 보사공신을 녹훈하고 8월30일에 지낸 공신회맹제의 제문이다. 회맹록은 회맹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국왕 이하 회맹에 참석한 공신과 그 적장자손의 군호(君號), 공신호(功臣號), 직함(職銜),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기록된 인원은 1등공신 2명, 2등공신 1명 , 3등공신 2명 이외에 참석자 412명, 미참석자 77명, 총 489명의 명단이다. 이어 숙종 20(1694)년 6월에 작성한 「복훈시고종묘제축문」이 있고, 말미에 '康熙三十三年十月日'란 연기를 쓰고, 細筆로 '己巳罷勳 甲戌夏勳'이라 쓰고, 그 위에 10.2cm, 가로 10.3cm의 국새인 「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보사공신 복록후 <어람회맹축>의 현재

이십공신회맹록, 1694년, 규장각 소장

ㅇ 숙종대 어람회맹축의 제작과 장황 관련 내용 및 특징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을 통해 복훈된 1등공신 2명, 2등공신 1명, 3등공신 2명으로 이뤄져 있는 보사공신을 비롯한 20공신들의 적장자손들이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회맹제를 거행하면서, 숙종에게는 필사본의 <어람회맹축>을, 공신들에게는 인쇄한 <회맹록>을 반사했다. 어람회맹축의 제작과 관련한 전말은 『보사공신녹훈도감의궤』에 수록되어 있다. 의궤에 의하면 회맹축은 도감의 이방에서 재료와 장인을 총괄하여 제작하였다. 생초나 다회 등은 장인들이 직접 짰고, 회장용 비단은 제용감, 배접용 종이는 장흥고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들였으며, 백옥은 평안남도 성천에서 만들어 들였다. 이렇게 생초나 각각의 비단마다 종이를 발라 배접을 먼저 해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든 다음, 인찰화원이 변란과 계선을 그으면, 서사관이 그 위에 회맹문 등을 쓰고 국새를 찍어 완성하고, 상의원에서 니금으로 용무늬를 그린 주홍함에 담고 주홍보자기로 싸서 국왕에게 진상하였다.



어람회맹축의 구조와 세부 명칭

1. 어람회맹축의 구조와 세부명칭

회맹축은 24m가 넘는 가로로 긴 권축장(卷軸裝) 두루마리 형식으로서, 1646년 인조대 영국공신(寧國功臣)의 어람 회맹축과 동일한 구조와 형식을 그대로 본 따서 제작하려고 노력하였다. 구조적으로 보면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되며, 세부 명칭은 『보사공신녹훈도감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앞면의 중앙 부분은 이 의궤 뿐 아니라 나머지 교서 관련 의궤에서도 명칭을 찾을 수 없는데 회맹문이 써 있어 우선 '서본(書本)'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서본의 상하는 '변아(邊兒)'이고, 서본의 좌우는 '중앙 좌우회장(左右回粧)'이 위치하고, 그 양쪽 끝은 '상하 회장(上下回粧)'이다.

뒷면의 경우 양쪽 끝의 상하 회장 부분은 '상하횡목(上下橫木)'이 위치한다. 이중 '상횡목'은 반달 모양이며, 아래쪽은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위쪽은 편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횡목은 하나의 나무로 상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게 단면을 배접한 비단으로 싸서 마감한다. ‘하횡목’의 위아래 부분은 일반적으로 횡목과 유사한 나무로 조금 짙은 색으로 만든 상하 ‘막이[莫只]’로 마감한다. 이렇게 나무로 상하의 양끝을 만들고 두루마리를 말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두께만큼 높이의 둥근 원형으로 마감된다. 그런데 본 회맹축은 둥근 옥을 사용하여 마감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상횡목은 반달 형태로서 음(陰)을 상징하고, 하횡목은 둥근 원형으로서 양(陽)을 상징하여 음양의 조화를 엿볼 수 있다.

한편 뒷면 전체는 배접지로 마감처리 한 다음, 두루마리를 감으면 오른쪽 끝부분에 해당되는 표지는 ‘축초의(軸初衣)’이다. 여기에는 제목에 해당되는 제첨(題籤)을 붙이게 되어 있지만, 현재 제첨 부분에 종이를 붙였던 풀 자국이 남아 있을 뿐 제첨은 유실되었다. ‘상횡목’의 중앙 부분에는 창구멍을 내고 ‘다회영자(多繪纓子)’를 꿰매어 붙이고 그 끝에는 상아제 ‘잠(簪)’을 매달아 두루마리를 말아서 보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상아제 잠[비녀]은 유실된 상태이다.

어람회맹축의 시작 부분; 우로부터 상회장(남대단), 중앙 우회장(백릉), 상하 변아(백릉)

보사공신복록녹훈도감의궤와 어람회맹축의 내용 비교 장면

2. 어람회맹축의 세부 관련 기록

『보사공신녹훈도감의궤』에는 어람회맹축을 만들 때 각 세부에 사용한 재료와 그것을 납입한 관청, 각각의 길이와 나비 등의 칫수, 그것을 제작한 장인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서본에 해당되는 생초와 다회영자는 장인들이 베틀과 다회틀을 사용하여 필요한 크기로 직접 제작한 것이고, 그밖에 회장에 사용된 비단이나 종이는 각 관청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필요한 칫수만큼 도감에 들여서 사용한 것이다. 백옥은 평안도에서 제작하여 들였다.

<녹훈도감의궤에 기록된 어람회맹축의 세부 칫수>

(*먹색 부분은 당시 실제 제작한 사례임)

구분	재료	관청	크기		제작 장인	
			길이(長)	나비(廣)	장색	장인명
서본	생초	제용감	50자	1자 3치 5푼	초 장 (綃匠)	鄭善 등 5명
	백사/해장죽	선공감	2근/15개		연사장	張繼男 2명
	대죽	선공감	2개		筴匠	平連 등 2명
	모변지, 저주지 백지	제용감 장흥고 장흥고	(생초)50장 (후배)3권 (후배)1권		배첩장	朴茂善 등 2명
	인찰주홍	제용감	1냥		인찰화원	韓後邦
변아	백릉	제용감	30자	30자		
중앙좌우회장	백화문대릉	제용감	綄2치			
상하회장	남대단	제용감	4자	4자		
축초의	다홍유문대단	제용감	2자	2자		
다회영자	진홍사	호조	6자	1치 5푼	다회장	李吉, 李莫男
비녀[簪]	상아				잠장	李應民
휘부첨[付標]	유문홍사(紗)	호조	5치	2치		
상하횡목	자작/가래					
옥막이	백옥	평남 성천	4개(예비 포함)		옥장	李以珍

1) 생초의 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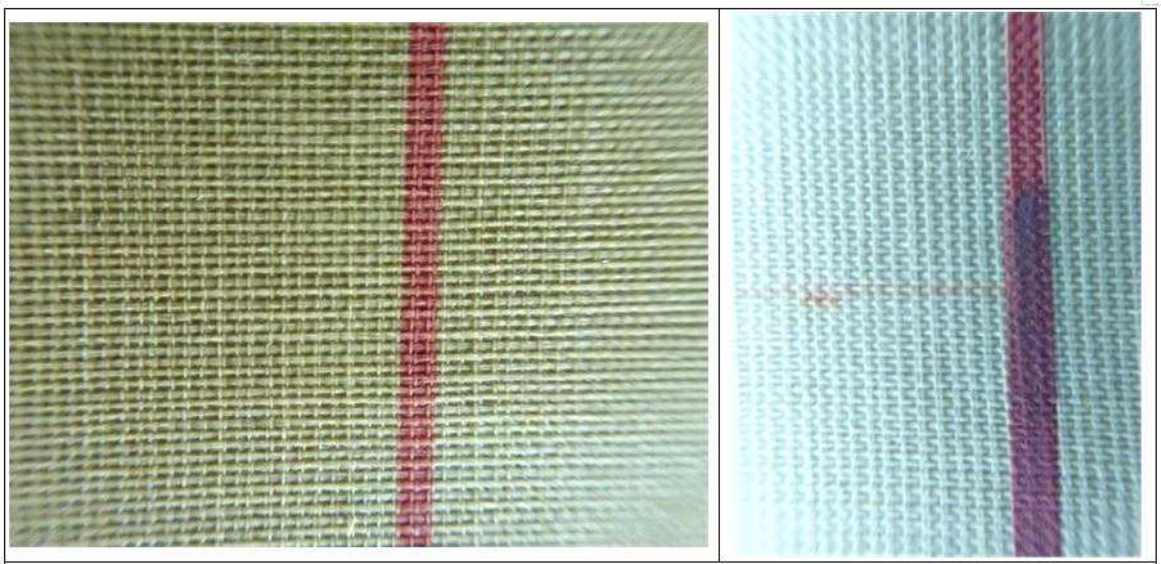
서본의 재료는 생초이며, 사용된 길이는 50자, 나비는 1자 3치 5푼이다. 이 생초를 짜기 위해 먼저 실을 잣고, 실을 정경하고, 풀을 매기고, 바디에 끼우고 베틀에 걸어 짰다.

1694년 생초의 직조는 자비문 밖에 설치된 녹훈도감의 이방 직조겸교서색(織造兼敎書色)에 관장하였다. 이곳에서는 날줄과 씨줄용 실을 만들고 베틀과 그에 필요한 부속도구를 각색 장인을 동원하였다. 회맹축에 사용할 백사는 지극히 가늘고 섬세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감에 잘 선택하여 호조의 백사(白絲) 7근 1냥을 납입하였다. 연사장(練絲匠) 장계남(張繼男) 등 2명이 선공감에 소장하고 있는 익은삼 밧줄 1거리 및 탄 2석 등과 해장죽 15개를 사용했고, 날줄과 씨줄을 만들기 위해 얼레 30개, 실틀 8개, 끌기 1개, 꽂이틀 2개, 쌍사기 2개를 사용하였다. 실을 자아 바디에 거는 연사장 2명은 16일간 작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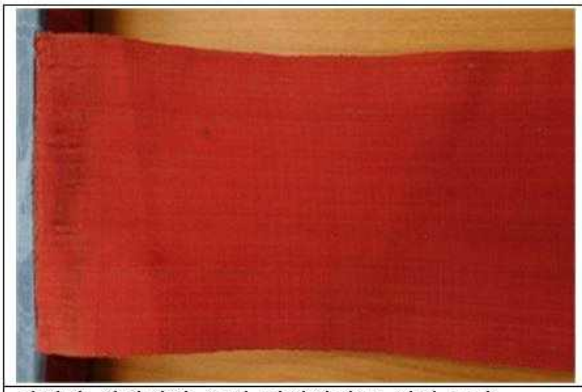
생초는 비단의 일종이어서 베틀[綃機]과 그 부속도구를 갖추어야 제작 가능하다. 특히 생초는 명주보다 성글기 때문에 이것을 끼울 바디[筴]가 중요한데, 바디장이 바디를 만들 바디틀 1개와 선공감에 소장되어 있는 대죽 2개와 평시서 소장 부레풀 등으로 만든다. 바디장[筴匠]은 평연(平連) 등 2명인데 1694년 5월 18일에 시작하였고 5일간 부역하였다.

북[梭] 2개는 교서관에서 황장목 2조를 길이 1자로 만들고, 베틀을 덮을 기름종이 11장은 장흥고에서 들여서 만든다. 베틀을 설치하고 나서 직조를 하는 장인[綃匠] 정선(鄭善) 등 5명을 징발하여 백포건을 머리에 쓰고 치마를 입었다. 생초는

5명의 초장들이 1694년 5월 20일에 짜기 시작하였으며, 12일간 작업하였다. 그들을 돕는 직조치(織造直) 군사 2명은 병조의 위장소에서 불러서 썼다.
당시 짠 생초의 총 길이는 54자였는데, 이중 50자는 회맹축에 사용했다. 이처럼 어람용 회맹축에서 글씨를 쓰는 부분은 교명이나 어진과 마찬가지로 생초(生綃)를 특별히 직조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왕실공예품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초를 짠 가느다란 날줄(상하)과 씨줄(좌우) 및 인찰화원의 변란(상하)과 계선(좌우)

2) 다회영자의 제작
다회영자는 회맹축 표지에 해당되는 축초의(軸初衣)의 중앙에 붙인 긴 끈이며 두루마리를 묶는 데 사용한다. 다회는 호조에 있는 홍진사 2냥을 들여서 만든다. 직조겸교서색에서는 다회장(多繪匠) 이길(李吉)과 이막남(李莫男)을 징발하였고, 그들은 1694년 6월 20일에 시작하여 19일간 작업을 했다. 다회틀은 별공작에서 만들었고 이것으로 다회장들은 동곶이 1개 등을 이용해서 다회끈 길이 6자, 너비 1치 5푼으로 짠다. 상회장(남대단)의 오른쪽 중앙 부분에 창구멍을 내고 꿰매어 다회영자를 붙이고 그 끝에 비녀를 붙이는데, 꿰매는 것은 침선비가 한다. 다회영자의 끝 부분에 다는 상아제 비녀(簪)는 잠장(簪匠) 안이남(安二男)이 만든다. 이렇게 다회영자에 상아제 비녀[簪]를 사용하는 것은 사대부들이 사슴뿔[鹿角] 잠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고급 재료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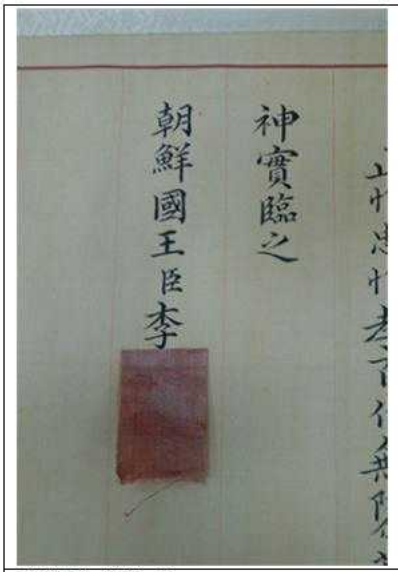
남대단 상회장의 끝에 다회영자를 꿰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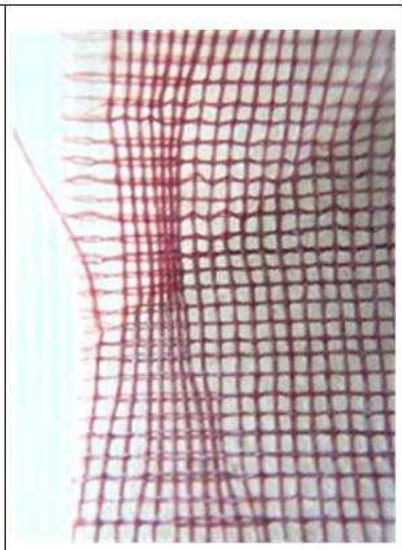
경사 위주가 드러나는 직조법의 다회

3) 회장용 비단과 부표(付標) 비단

어람회맹축의 회장에 사용할 비단은 제용감에서 필요한 크기만큼을 들여서 사용한다. 바탕면의 상하에 있는 변아(邊兒)는 백릉(白綾) 30자이다. 중앙 좌우의 회장 또한 백화문대릉 2자를 들인다. 양 끝의 상하회장은 남대단(藍大緞) 4자씩이다. 이것은 인조 때에 사용하던 남팽단(藍彭段)이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대신 사용하게 된 것이다. 축초의(軸初衣)는 다홍유문대단[大紅有紋大段]을 2자씩을 들인다.

국왕의 휘를 가리는[諱付籤] 부표(付標)는 무늬가 있는 얇고 투명한 유문홍사(有文紅紗)를 호조나 제용감에서 들여 길이 5치와 나비 2치를 준비하며 붙인다.





국왕의 휘부첨

부첨의 유문홍사 ; 날줄(상하)의 꼬임과 씨줄(좌우)로 무늬를 짬

4) 상하횡목과 옥막이[玉莫只]

뒷면의 경우 오른쪽 끝의 상횡목(上橫木)은 자작나무(樺木)으로, 왼쪽 끝의 하횡목(下橫木)은 가래나무[楸木]로 만든다. 하횡목에는 상하에 막이[莫只]가 끼워져 있

는데, 어람회맹축의 경우 평안도의 성천부에서 채취한 백옥으로 옥막이를 만든다. 이때 옥막이는 실제 사용할 것 2개와 예비 2개 총4개를 만들어서 진상한다. 이렇게 옥막이를 사용하는 것은 어람용에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제작하는 사례이다.

하횡목과 좌우 옥막이 및 하회장(남대단)과 중앙 우회장(백릉), 위로부터

상횡목과 다회영자, 상회장(남대단), 중앙 우회장(백릉) 및 바탕면(생초)과 상하 변아(백릉)

5) 종이와 배접

회장(回粧)은 두루마리 중앙에 쓴 글이나 그린 그림의 주변을 빙 둘러 장식한다는 뜻이며, 앞쪽은 서본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쪽빛 상하회장으로 마감하고, 뒤쪽은 비대칭으로 뒷면 전체 중 오른쪽 축초의 부분에만 붉은색 비단으로 마감하고 다회영자를 둘러 마감하는 것이다.

회맹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한 비단마다 총 3차에 걸쳐 배접을 한다. 1차는 서본, 변아, 중앙좌우 회장, 상하회장 및 축초의 등의 후면마다 각각 모변지를 배접하는 것이다. 2차는 1차 배접을 마친 서본, 변아, 중앙좌우 회장, 상하회장을 순서대로 1) 서본, 2) 상하 변아, 3) 중앙좌우 회장, 4) 상하회장을 순서대로 붙여 두루마리의 형태로 이어 붙이는 것이다. 3차는 하회장부터 중앙좌회장, 서본과 변아, 중앙우회장까지 순서대로 뒷면에 저주지를 배접지로 붙인 다음 그 끝 부분에 축초의를 붙여 마감을 하는 것이다.

어람회맹축은 생초에 정서하기 전에 승문원에서 서사관을 불러 출초(出草)는 저주지 3권 대신 풍저창에서 들인 초주지에 쓰고, 중초(中草)는 장흥고 소장의 저주지 3권에 쓴다.

어람회맹축을 만들기 위해 54자(28m) 이상의 긴 생초를 짰는데 여기에 풀을 칠하고 종이를 붙이고 나면 마를 때까지 팽팽하게 펴 놓아야 한다. 비단 위에 붙인 종이면을 한꺼번에 펴서 말릴 수 있게 길어야 해서 쟁틀(枰機)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길다란 작업대를 한꺼번에 펼 수 있으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경덕궁 공조를 사용토록 하였다가, 다시 창덕궁 인정문에서 하도록 하였다. 당시 쟁틀은 별공작에서 송판 96닢으로 54자를 만들고 청대죽으로 펼쳐놓는다.

3차 배접까지 끝나면 비단과 종이를 접착한 것이고, 이제 상하횡목과 축초의 부분을 붙여 장황의 마감에 해당된다. 먼저 하횡목에는 옥막이를 끼운다. 3차 배접까지 완료된 하회장 부분을 단단하게 하횡목에 붙여서 고정시킨다. 상횡목의 상하 막이는 축초의와 같은 붉은 비단을 배접해서 반달형으로 천을 꺾고, 그곳에 상회장에 사용한 배접된 파란 비단을 한번 씌워 준비한다. 다회영자 끝에는 상아잠을 끼워 연결하고 축초의 중앙에 붙일 준비를 한다. 이제 배접된 축초의를 중앙우회장보다 약간 안쪽의 서본 부분부터 붙인 다음 상횡목의 둥근 부분을 감싸 직선 부분에서 마감한다. 미리 준비한 다회영자의 나비에 맞춰 붉은 비단에 칼집을 내고 끼운 후 다회영자를 붙인다. 마지막으로 상회장에 해당되는 파란 비단을 상횡목의 직선 끝 부분에서 깔끔하게 잘라 붙이면 마감된다.

회맹축의 생초나 앞쪽의 상하 회장을 비롯한 각종 필단의 초배지는 모변지(毛邊紙)이고, 축초의 뒤쪽 배접지는 모변지(毛邊紙) 15장이다. 이것을 배첩장 박무선(朴茂善) 등 2명이 붙여서 이것들을 두루마리로 장황하고 난 뒷면에는 저주지(楮注紙) 5권이다. 배접한 뒤에 추조군(推造軍) 4명이 백밀(白蜜)로 종이를 밀어서 광을 낸다.

3. 어람회맹축 유물의 실측 및 현황 조사

보사공신 이십공신회맹축 장황의 세부 칫수

1) 바탕면[書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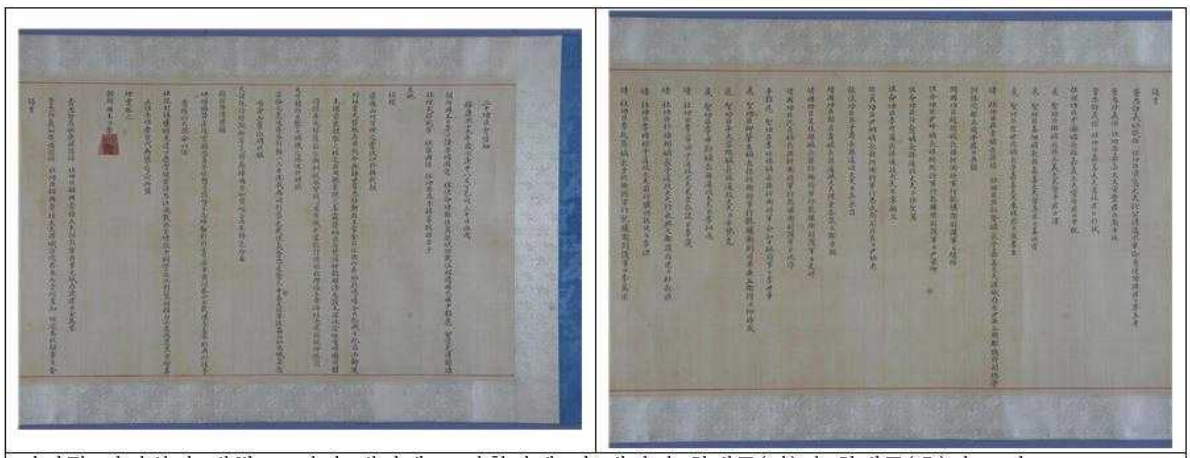
어람회맹축의 회맹문 등이 써 있는 바탕면을 실측한 결과 세로 66.6cm, 가로 2,286.5cm이다.

회맹문을 쓰기 위한 인찰(印札)의 경우 이미 장황이 다 끝난 다음에 도화서의 인찰화원 한후방(韓後邦)을 불러 제용감에서 들인 주홍(朱紅) 1냥으로 긋게 했는데, 당시 그는 스스로 만든 막대를 대고 그었다. 이것은 유물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변란(邊欄)의 경우 상하 변아로부터 위쪽은 1.5cm, 아래쪽은 1.4cm의 여백을 두고

굵게 진하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긋고 있는데, 막대의 길이만큼 긋고 다시 그 위에서 긋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자를 쓰기 위해 상하로 가늘게 내리 그은 계선(界線)의 간격은 너비 4.1cm이다.

화원의 인찰선이 중앙 좌회장에서 시작된 모습 | 인찰의 변란선이 우회장 끝에서 멈춘 모습

의궤 기록에 의하면 어람회맹축에 인찰한 행간은 총557행인데, 현재 전체 2,287cm를 4.1cm로 나누면 정확하게 557행이 나온다. 의궤 기록에 의하면 변란의 길이는 1자 3치 5푼, 너비 8푼, 매 1행에는 37자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인찰을 통해 변란을 긋고, 좌우 계선 557행이 완료된다고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생초로 만든 정본 어람본에 서사관이 글씨를 쓰기 전에 풍저창에서 도감으로 들여온 저주지에 출초(出草)를 회맹문과 회맹록을 1차로 써 보았고, 장흥고에 저주지에 중초(中草)를 2차로 써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서사관은 출초본과 중초본의 토대 위에 글씨를 쓰게 된다. 당시 어람회맹축의 서사관은 이익신(李翊臣)이었으며, 그는 이전 1680년에도 어람회맹축의 서사관이었다. 그는 총 557행 중 아래쪽 21행의 여백을 남기고 536행에 흐트러짐 없는 해서체로 정갈하게 써내려갔다.



서사관 이익신이 매행 37자씩 해서체로 정확하게 써 내려간 회맹문(좌)과 회맹록(우)의 모습

숙종 6년에 그가 쓴 회맹문은 다음과 같이 『숙종실록』에 실려 있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신 성(姓) 모(某)는 개국 정사 좌명 정난 좌익 적개 익대 좌리 정국 광국 평난 호성 선무 청난 정사 진무 소무 영사 영국 보사 공신(開國定社佐命靖難佐翼敵愾翊戴佐理靖國光國平難扈聖宣武淸難靖社振武昭武寧社寧國保社功臣)과 그 자손 등을 삼가 거느리고 천지(天地)·사직(社稷)·종묘(宗廟)·산천(山川)·백신(百神)의 영(靈)께 감히 밝게 고합니다.

빛나는 우리 왕조는 열조(列祖)에서 덕이 높은 임금이 잇달아 나와 반근(盤根)이 대대로 뻗어가고 천명(天命)이 끝이 없으니, 세상에 크고 밝은 이름이 있고 공훈(功勳)이 왕실(王室)에 있으므로, 금석(金石)에 새겨 아름다움을 후세에 전해 주고 죽소(竹素)에 실어 아름다움을 빛내어야 할 것이다. 아! 금일에 난적(亂賊)이 법도를 어기면서 흉도(兇徒)를 모으고 역적을 기르니, 전사(前史)에 듣지도 못하였도다. 시랑(豺狼) 같은 본성이 가까이 지친(至親)에게서 나왔으며, 효경(梟獍) 같은 독(毒)이 권신(權臣)에게서 슬그머니 나타나서, 오초(吳楚) 7국(國)처럼 같이 나라를 간범(奸犯)하였으나, 아름답고 빛나게 그 악독함을 구제하였도다. 둔군(屯軍)을 깊은 산골짜기에 설치하고, 남몰래 말이 많은 무리들을 사주(使嗾)하여 체부(體府)를 다시 설치하고, 군권(軍權)을 마음대로 농락하려고 도모하니, 서리를 밟는[履霜] 조짐이 점차로 얼음이 얼어붙는[氷堅] 지경에 이르렀다. 심복(心腹)이 두루 포진하고 기아(機牙)가 조밀하게 펼쳐지자, 호복(胡服)을 거짓으로 입고서 왕장(王章)을 찬탈하기를 계획하고, 흉도(兇徒)와 체결(締結)하여 신기(神器)를 엿보았다. 하늘[天]을 가리켜 활을 쏠 수 있다고 하고, 날짜를 약속하고 군사들에게 연향(宴饗)하니, 화기(禍機)의 참혹함이 목전에 가까이 있었고, 종사의 위험함이 경각에 임박하여 있었다. 한두 신하에 의뢰하여, 휴척(休戚)을 나라와 더불어 같이 하면서 선기(先機)를 예리하게 살피고서, 의리에 의지하고 충의(忠義)에 분발하여, 이에 조아(爪牙)를 시켜서 분주하게 힘쓰고 노력하게 하니, 수간(銖姦)445) 이 반드시 알고 귀역(鬼蜮)이 도망하지 못하였다. 이에 흉얼(凶孼)을 사로잡아서 숙문(淑問)하자 자복하였으므로, 천토(天討)가 이미 시행되니, 경관(京觀)이 이미 쌓여지고 추악한 기운이 깨끗하게 쓸어 없어져서, 나라의 운수가 반석(盤石)과 같이 되었다.

비괘(否卦)를 뒤엎어 태괘(泰卦)로 바꾸고, 위기를 바꾸어 곧 평안해지니, 국운이 오르내리는 때에 빛나게 임하고 신명(神明)에 간절하게 의지하여, 나라를 광복(匡復)하는 데 협찬(協贊)함은 실로 그 충정(忠貞)에 힘입었도다. 나는 오로지 그대들의 공덕(功德)을 돈독하게 여겨 잊지 아니하며 공렬(功烈)을 표창하는 데 아주 부지런하기를 힘쓴다. 옛날에 이장(彝章)이 있어서 황하(黃河)·태산(泰山)도 또한 한지(漢志)에 기록하였는데, 대개 이러한 은전(恩典)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뜻을 정표(旌表)하여 큰 작호(爵號)를 게시(揭示)하고, 사직을 보존하도록 명한다. 나누어 봉(封)하고 토지를 하사하는데, 선대(先代)에 주어 후대에까지 미치게 하여, 경사(慶事)와 상작(賞爵)이 곧 풍성하고 두터운 은혜가 깊고 넓게 미치게 한다. 이에 현단(玄壇)을 닦고 경건히 밝은 맹세(盟誓)를 올리는데, 이 강렵(剛鬣)을 삽혈(歃血)하면서 같이 백수(白水)를 가리키는 바이다. 구덕(舊德)의 남은 후손들이 또한 모두 모였으니, 오직 충성하고 오직 효도하여 백대(百代)에 이르도록 무너지지 말라. 진실로 이 맹세를 어기면 신(神)이 실지로 이에 임할 것이다."(『肅宗實錄』10권, 숙종6년 8월 30일 병술.)

당시 이익신은 석봉 한호만큼 글씨를 잘 쓴 이로 유명하였는데, 이 회맹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서사관이 글 쓰기가 끝나면 국새 시명지보(時命之寶)를 찍는데, 그 크기는 가로 10.2cm x 10.3cm이며 두께는 1.0cm이다.

서사관 이익신의 명징한 해서체 글씨와 제작일시 및 제작사유 위에 찍힌 국새(시명지보)

2) 변아와 중앙 좌우 회장

바탕면(생초)과 아래쪽 변아(백릉); 亞자문, 모란문, 난초문 | 변아 백릉의 연결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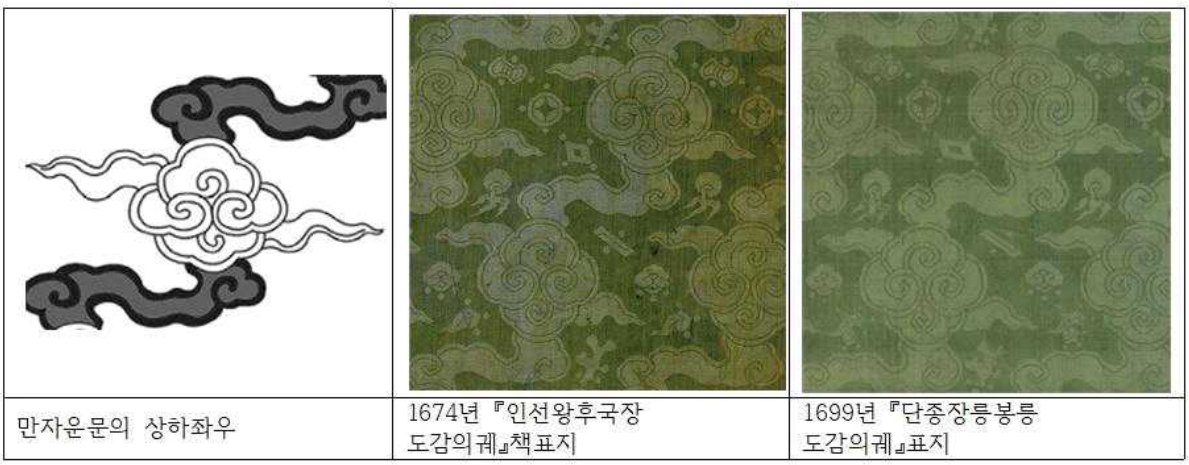
바탕면의 상하에 있는 변아(邊兒)는 백릉(白綾) 30자를 제용감에서 들였는데, 현재 회맹축의 상하 너비는 위쪽 변아 9.5cm, 아래쪽은 9.5cm이지만 그 길이는 2,287cm로 매우 긴 편이다. 중앙 좌우의 회장 또한 백화문대릉을 제용감에서 들였는데, 현재 중앙 좌우회장은 9.4-9.6cm x 88.8cm이다. 중앙 좌우회장과 변아는 문헌에는 백릉이나 백화문대릉으로 약간 다르지만, 둘다 아(亞)자형을 바탕 전체에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모란문과 난초문을 브릭형으로 배치한 것이다. 문양이 반복되는 단위의 크기는 세로 7.3cm, 가로 4.3cm이다. 변아는 생초로 만든 바탕부분만큼 길이가 길어서인지 중간에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3) 상하회장

현재 오른쪽의 상회장은 가로 54.7cm, 하회장은 53.8cm이다. 상하회장의 남대단은 운보문은 만자형(卍字形) 구름 문양이 상하로 연결되면서 그 사이에 팔보문이 배치되는데, 반복되는 단위 문양의 크기는 세로 19.0cm, 가로 11.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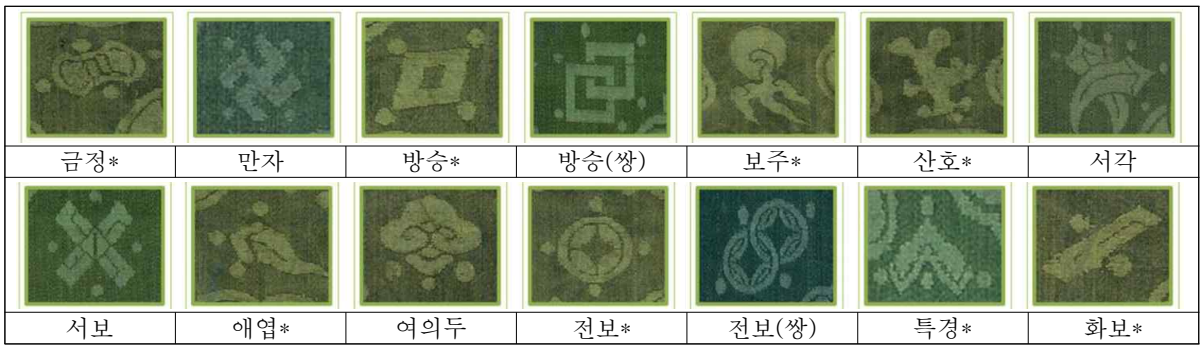
끝 하회장(남대단)/ 중앙 좌회장과 변아(백릉) | 끝 상회장(남대단) ; 만자 구름문, 팔보문양

이러한 운보문단은 조선후기 외규장각 의궤의 책표지를 통해 볼 때 1659년(현종 즉위년)의 『효종국장도감의궤-상하』(외규19-313)((외규19-314)의 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구름의 문양이 상하로 꼬리가 이어지고 좌우는 꼬리가 뾰족한 卍자형인 점, 보문에 있어 구름 좌우로 금정, 방승, 보주, 산호, 애엽, 전보, 특경, 화보의 8개가 분포되어 17세기 팔보문(八寶文)이 배치된 점과 마찬가지이다.



만자운문의 상하좌우 | 1674년『인선왕후국장 도감의궤』책표지 | 1699년『단종장릉봉릉 도감의궤』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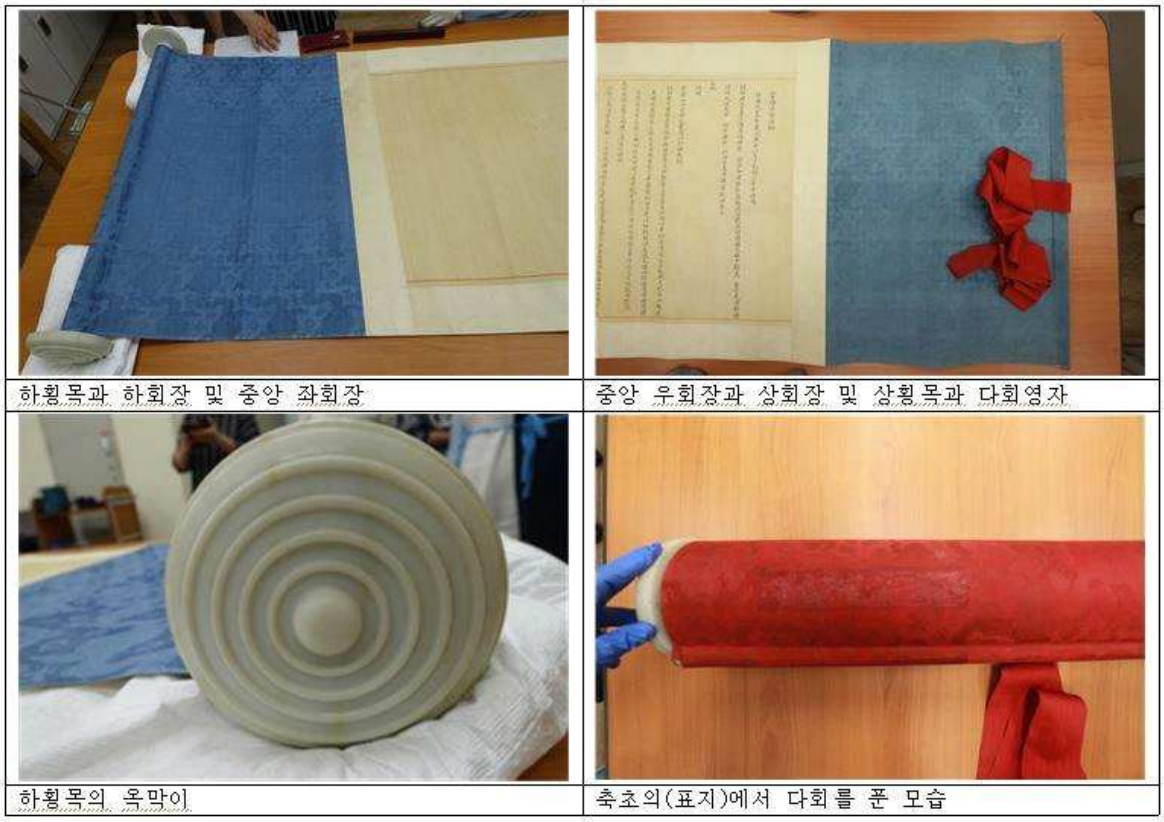
이보다 시기가 내려가는 18세기의 영조연간 왕실의궤의 표지에 사용된 팔보문은 방승이나 전보, 서보 및 서각 등이 쌍으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여 이 시기에 유행한 운보문단 직물의 문양과 양식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금정*	만자	방승*	방승(쌍)	보주*	산호*	서각
서보	애엽*	여의두	전보*	전보(쌍)	특경*	화보*

4) 상하횡목

뒷면의 경우 오른쪽 끝의 상횡목(上橫木)은 자작나무(樺木)으로 폭 3.0cm x 높이 1.5cm의 반달형이다. 왼쪽 끝의 하횡목(下橫木)은 가래나무[楸木]로 폭 4.3cm로 만든다. 하횡목에는 상하에는 평안도 성천에서 만든 옥막이가 끼워져 있는데, 지름 14.0cm이고, 두께 4.0cm 이다.



하횡목과 하회장 및 중앙 좌회장 | 중앙 우회장과 상회장 및 상횡목과 다회영자

하횡목의 옥막이 | 축초의(표지)에서 다회를 푼 모습

5) 축초의(軸初衣)

축초의는 두루마리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홍색의 운보문 비단[大紅有紋大段]이며 가로 88.8cm이다. 다홍색 운보문은 앞면에 배치된 크기가 큰 만자형 구름 문양 사이에 크기가 작은 팔보문(八寶文)을 배치한 운보문단과 같은 것이지만 다홍색으로 염색하여 청홍색으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것의 반복되는 단위 문양의 크기는 앞쪽의 남대단보다 크기가 커서 21.4cm, 가로 11.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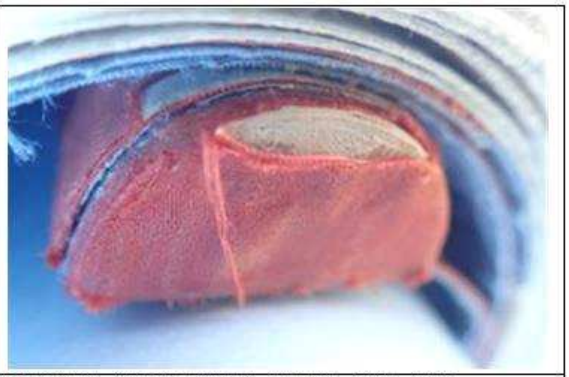
다회영자는 다회틀 위에서 경사가 위로 두드러지는 폭 7.9cm, 길이 276.5cm로 짠 직물(warp-faced woven fabric)이다. 이것은 앞쪽 상회장의 남대단 중간 부분에 7.9cm 폭만큼 창구멍을 내고 바느질로 꿰매어 고정시켰다. 이 다회 영자의 끝 부분은 약간 접고 뾰족한 상아제 잠(簪)을 위치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유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축초의(다홍색 운보문 비단)와 다회영자

축초의 만자형 구름 문양과 팔보문

이와 같이 중앙의 상하좌우에는 백색 비단으로 회장을 두르고 좌우 양끝에는 남색 비단이나 뒷면의 축초의에 해당되는 붉은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한 최상품의 비단으로 회장을 두르고, 비단의 배접은 모변지나 초주지 및 백지 등 최고급 종이를 3차로 바르며, 하횡목의 막이는 옥막이로, 할 때 고급스럽고 화려한 재료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달형 상횡목과 축초의



상횡목의 막이와 비단과 종이의 배접 상태

이렇게 완성된 어람회맹축은 상의원서 만든 용을 니금으로 그린 주홍함(朱紅函) 1부에 담고, 제용감에서 만든 홍주(紅紬) 보자기 1건으로 싼 다음 숙종에게 진상하였다. 현존하는 어람회맹축의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서지사항

<이십공신회맹문 ; 1680년, 古4252-4-12A, 규장각 소장, 二十功臣會盟錄>

여백

二十功臣會盟軸
維康熙十九年歲次庚申八月丁巳朔三十日丙戌
朝鮮國王臣李諱謹率開國定　社佐命靖難佐翼敵愾翊戴佐理靖國光國平難扈 聖宣武淸難靖
社振武昭武寧 社寧國保 社功臣及子孫等敢昭告于
天地
社稷
宗廟山川百神之靈伏以於赫我朝
列祖重光盤根奕葉駿命無疆世有厖喆勳在王室金石流徽竹素炳蔚噫嘻今日亂賊干紀裒凶鞠逆
未聞前史豺狼之性近出周親梟獍之毒竊發柄臣吳楚同奸懿昭濟惡設屯深峽陰嗾嚄唶圖復體
府擅弄戎權履霜之漸馴致氷堅腹心周布機牙密張計懾胡服僭極王章締結兇徒覬覦神器謂
天可射約日饗士禍機之慘伏於肘腋
宗祏之危迫在晷刻賴一二臣休戚與同刺察先幾仗義奮忠爰暨爪牙奔走效勞銖姦必知鬼蜮莫逃
迺禽凶孽淑問取服
天討旣行鯨觀斯築氛翳廓掃國步如磐傾否回泰轉危卽安
赫臨降鑒緊賴
神明協贊匡復實藉忠貞予惟懋乃謂督不忘焯勤彰烈古有彝章黃河泰山亦載漢志盍擧斯典以旌予
意揚以大號命以保
社疏封錫壤贈先逮下慶賞便蕃湛恩汪濊載修玄壇敬申明誓血此剛鬣同指白水舊德遺昆亦皆萃
止惟忠惟孝百代無窮苟渝此盟
神實臨之
朝鮮國王臣李

여백

奮忠效義炳幾協謨保　社功臣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臣金萬基
奮忠效義炳幾協謨保　社功臣輔國崇祿大夫淸城府院君兼兵曹判書知　經筵春秋館事臣金
錫胄
奮忠效義炳幾保　社功臣資憲大夫行公淸道水軍節度使陽興君臣李立身
奮忠效義保　社功臣嘉善大夫宜豐君臣南斗北
奮忠效義保　社功臣嘉善大夫密林君臣朴斌
佐理功臣申瀞嫡長孫嘉義大夫靈原君臣申梡
扈　聖功臣珝嫡長孫正義大夫晉平君臣澤
扈　聖功臣姜絅嫡長孫嘉善大夫晉善臣姜碩賓
扈　聖功臣崔世俊嫡長子嘉善大夫東林君臣崔孝生
靖　社功臣具宏嫡長孫靖　社功臣具仁堅嫡長子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訓鍊院都正綾平君臣具鎰
開國功臣趙狷嫡長孫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臣趙搢
佐命功臣尹坤嫡長孫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臣尹飛卿
佐命功臣徐愈嫡長孫通政大夫臣徐聖翼
佐命功臣李升商長孫通政大夫臣李嗣立
佐翼功臣尹炯嫡長孫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直臣尹聃老
敵愾功臣吳子慶長孫通政大夫臣吳永昌
靖國功臣鄭眉壽嫡長孫通政大夫禮曹參議臣鄭重徽
靖國功臣文致繼嫡長孫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臣文邴
靖國功臣沈貞嫡長孫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臣沈序
平難扈　聖功臣李恒福嫡長孫折衛將軍僉知中樞府事臣李世章
扈　聖功臣柳肇生嫡長孫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果兼五衛將臣柳時成
扈　聖功臣辛大容繼嫡長孫通政大夫臣辛贇克
扈　聖功臣李希齡嫡長孫通政大夫臣李相逸
靖　社功臣李厚源子通政大夫吏曹參議臣李選
靖　社功臣朴惟明嫡長子通政大夫行永興大都護府使臣朴長源
靖　社功臣李時昉子通政大夫前行驪州牧使臣李憤
靖　社功臣李起築嫡長子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臣李萬實

振武功臣金完嫡長孫折衝將軍行忠武衛副護軍臣金世器
振武功臣李祐長子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勇臣李東賓
振武功臣金泰屹嫡長子通政大夫臣金孝信
寧　社功臣金得聲嫡長子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正臣金南斗
光國平難功臣韓應寅嫡長孫通訓大夫前行南原府使臣韓聖輔
靖　社功臣崔鳴吉子通訓大夫前行司憲府執義臣崔後尙
靖　社功臣元斗杓子通訓大夫前行忠州牧使臣元萬春
靖　社功臣李時昉嫡長子通訓大夫前行豐德府使臣李恢
靖　社功臣張紳嫡長子通訓大夫行淮陽府使臣張善沖
振武功臣吳珀嫡長子禦侮將軍前行魚游澗僉使臣吳援南
靖難功臣權蹲嫡長孫通訓大夫前行珍山郡守臣權衍
佐翼功臣璔嫡長孫通訓大夫行韓山郡守臣李夢錫
敵愾功臣崔有臨嫡長孫通訓大夫前行遂安郡守臣崔昌運
扈　聖功臣李山甫嫡長孫通訓大夫前行寧越郡守臣李商雨
扈　聖功臣李元翼嫡長孫通訓大夫行永川郡守臣李曾賢
靖　社功臣崔鳴吉嫡長子通訓大夫前行榮川郡守臣崔後亮
佐理功臣韓致亨嫡長孫通訓大夫前行成均館司藝臣韓翊周
靖　社功臣沈命世嫡長子通訓大夫前行礪山郡守臣沈樞
靖　社功臣張紳子通訓大夫行益山郡守臣張善淹
振武功臣李守一嫡長孫通訓大夫行漢城府庶尹臣李仁碩
靖　社功臣申景禛靖社功臣申埈嫡長孫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臣申琓
敵愾功臣吳順孫嫡長孫昭威將軍前行訓鍊院判官臣吳廷旭
翊戴功臣趙益貞嫡長孫通訓大夫前行公山府判官臣趙汝耘
佐理功臣鉉嫡長孫通訓大夫行江原道都事臣李增
靖國功臣KC06442長孫通訓大夫行三道海運判官臣李瀡
靖　社功臣李時昉子通訓大夫行龍仁縣令臣李恒
振武功臣南以興子通訓大夫前行儀賓府都事臣南斗樞
靖國功臣尹湯老嫡長孫通訓大夫前行禮曹佐郎臣尹恢
佐命功臣趙涓嫡長孫通訓大夫行彦陽縣監臣趙復漢
翊戴佐理功臣姜希孟嫡長孫通訓大夫前行延豐縣監臣姜大後
靖國功臣崔漢洪嫡長孫通訓大夫前行交河縣監臣崔慶洙
靖國功臣柳順汀靖國功臣柳泓嫡長孫通訓大夫前行果川縣監臣柳寔
光國功臣尹暹嫡長孫通訓大夫前行靈山縣監臣尹以明
扈　聖功臣沈忠謙嫡長孫宣敎郎大興縣監臣沈壽亮
宣武功臣權恢嫡長孫通訓大夫前行咸悅縣監臣權以經
靖　社功臣李曙嫡長孫通訓大夫行康津縣監臣李咸
靖　社功臣李時昉子通訓大夫前行燕歧縣監臣李憪
靖　社功臣申埈子通訓大夫前行玉果縣監臣申汝拭
靖　社功臣李重老子通訓大夫行狼川縣監臣李文俊
昭武功臣辛慶英嫡長孫通訓大夫行機張縣監臣辛曇
靖　社功臣李沆嫡長子通訓大夫前行司僕寺主簿臣李齊賢
靖　社功臣李貴靖　社功臣李時白嫡長孫通訓大夫行通禮院引儀臣李泳
靖　社功臣李澥長子通訓大夫行禮賓寺主簿臣李久松
寧　社功臣黃性元嫡長孫寧　社功臣黃縉嫡長子通訓大夫前行司憲府監察臣黃德輿
佐命功臣權近嫡長孫通訓大夫行司宰監直長臣權胄
佐理功臣韓致義嫡長孫禦侮將軍行武臣兼宣　傳官臣韓德優
靖難佐翼功臣尹士昕靖國功臣尹汝弼嫡長孫通訓大夫行司圃署別檢臣尹嫺
光國平難功臣鄭澈嫡長孫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臣鄭治
光國扈　聖功臣尹根壽嫡長孫通訓大夫前行漢城府叅軍臣尹垿
扈　聖功臣李光庭嫡長孫啓功郎藝文館奉　敎臣李萬元
扈　聖功臣李好閔嫡長孫通訓大夫行尙瑞院副直長臣李濟後
宣武功臣權俊嫡長子通訓大夫前行麒麟道察訪臣權峓
宣武功臣權慄嫡長孫通訓大夫前行繕工監監役官臣權
靖　社功臣張維嫡長孫通訓大夫行繕工監直長臣張楦
靖　社寧國功臣金瑬靖　社功臣金慶徵嫡長孫通訓大夫行氷庫別檢臣金魯 得
靖　社功臣申景禛嫡長孫通訓大夫行繕工監監役官臣申汝晳

振武功臣南以興嫡長孫通訓大夫前行長興庫直長臣南泳
佐理功臣李塤嫡長孫奉正大夫前行長興庫奉事臣李浣
靖　社功臣柳舜翼嫡長孫通訓大夫行繕工監奉事臣柳長元
昭武功臣洪霬嫡長孫通訓大夫前行軍資監奉事臣洪萬宗
翊戴功臣魚世謙嫡長孫禦侮將軍前行中部將臣魚壽長
開國功臣鄭熙啓嫡長孫宣略將軍守門將臣鄭淵
開國功臣南在嫡長孫通訓大夫行　貞陵叅奉臣南雋龜
佐命功臣朴嵩嫡長孫通善郎　英陵叅奉臣朴之相
靖難佐翼翊戴佐理功臣申叔舟靖　社功臣申景植嫡長孫通訓大夫行　禧陵叅奉臣申泰澄
佐翼功臣李克堪宣武功臣李光岳嫡長孫朝奉大夫行　寧陵叅奉臣李萬徽
敵愾功臣張末孫嫡長孫將仕郎前行　章陵叅奉臣張胄男
靖國功臣李季男嫡長孫通訓大夫行　獻陵叅奉臣李堉
靖國功臣李蓀扈　聖功臣李男嫡長孫朝奉大夫前行南部叅奉臣李尙明
光國平難功臣李山海嫡長孫通德郎前行　光陵叅奉臣李東根
淸難功臣洪可臣嫡長孫中訓大夫行　齊陵叅奉臣洪日章
靖　社寧　社功臣洪瑞鳳嫡長孫通訓大夫行　昌陵叅奉臣洪處宇
寧　社功臣許U+256DA嫡長孫通訓大夫行　健元陵叅奉臣許煜
昭武功臣李擢男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大護軍臣李世胄
靖　社功臣崔來吉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崔錫三
靖　社功臣洪振道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洪聖元
寧　社功臣申瑞檜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申繼一
寧　社功臣許禊嫡長孫寧　社功臣許選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許煥
寧　社功臣金振聲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臣金南器
靖　社功臣韓嶠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韓址
振武功臣朴瑮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朴止善
振武功臣李慶禎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李豪男
寧　社功臣李斗堅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臣李天立
靖難佐翼翊戴佐理功臣韓明澮佐理功臣韓堡長孫靖　社功臣韓汝復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韓瑗
佐翼功臣黃守身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黃煐
翊戴佐理功臣李克增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相胤
靖國功臣尹坦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尹宗任
光國功臣尹泂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尹惟一
扈　聖功臣金應昌繼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金得生
扈　聖功臣許浚嫡長孫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臣許晏
宣武功臣李廷馣嫡長孫振武功臣李靖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　希賢
宣武功臣元均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元琡
靖　社功臣申景裕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申璨
靖　社功臣洪振文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洪灝
靖　社功臣元裕男靖　社功臣元斗杓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元夢殷
靖　社功臣李起築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萬樹
靖　社功臣盧守元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盧惟亮
靖　社功臣朴孝立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朴以純
靖　社功臣姜得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姜雲岦
靖　社功臣張暾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張守周
振武功臣金起宗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金一精
振武功臣邊瀹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邊是眞
振武功臣趙時俊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趙景相
振武功臣文晦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文仲龍
振武功臣崔應水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崔峻豪
振武功臣宋德榮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宋授
振武功臣李希建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李[山+堂]
振武功臣成大勳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成爾徵
昭武功臣元克咸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元精一
昭武功臣陳克一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陳邦翊
保　社功臣南斗北嫡長子定略將軍行忠佐衛副司果臣南[王+羽]

振武功臣金慶雲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正臣金世胤
振武功臣池繼濯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正臣池鏡澄
振武功臣李澤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正臣李春遇
昭武功臣李胤男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正臣李晩得
寧國功臣李碩龍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正臣李萬植
開國定　社佐命功臣趙溫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趙明漢
開國定　社功臣趙浚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趙門重
開國功臣金仁贊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萬碩
開國定　社功臣金輅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鐸
開國功臣鄭摠扈　聖功臣鄭崑壽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鄭昌堯
開國功臣咸傅霖佐理功臣咸禹治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咸進忠
開國定　社功臣芳毅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錫禧
開國功臣李敏道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木+寅]
開國功臣趙胖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趙錫祚
定　社佐命功臣李佇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後巡
定　社佐命功臣李天祐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萬葉
定　社功臣張哲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張仁述
定　社佐命功臣河崙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河大源
佐命功臣延嗣宗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延泰老
佐命功臣宋居信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宋周臣
佐命功臣沈龜齡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沈倪
佐命功臣朴錫命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朴振國
佐命功臣李來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薹
靖難佐翼功臣田畇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田埴
靖難佐翼功臣李思哲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維新
靖難翊戴佐理功臣康裒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勇臣司康逸
靖難功臣柳濈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柳璋
靖難佐翼功臣洪達孫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洪澄
靖難佐翼功臣李季甸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汝芳
靖難佐翼功臣李禮長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晩起
靖難功臣柳河長孫果毅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柳世翊
佐翼功臣權愷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權晩得
佐翼功臣李季疄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希蕃
佐翼功臣權恭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權保衡
佐翼功臣尹巖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尹埱
佐翼佐理功臣尹子雲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尹汝弼
佐翼功臣元孝然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元枓
佐翼敵愾佐理功臣韓繼美佐理功臣韓巖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韓坱
敵愾功臣裴孟達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裴茂勳
敵愾功臣魚世恭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魚震昌
敵愾功臣李德良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尙臣
敵愾功臣沈膺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沈廣
敵愾功臣李雲露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億信
敵愾功臣車云革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車順陸
敵愾翊戴佐理功臣朴仲善靖國功臣朴元宗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朴俊
敵愾佐理功臣金國光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益烋
敵愾功臣李從生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相
敵愾功臣許惟禮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許球
敵愾功臣徖嫡長孫進勇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李緯
敵愾功臣孟碩欽長孫秉節校尉行忠衛副司勇臣孟修明
翊戴佐理功臣盧思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盧瑗
翊戴功臣李存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後庭
翊戴佐理功臣鄭孝常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鄭暘
翊戴佐理功臣韓伯倫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韓翊五
翊戴佐理功臣韓繼禧靖國功臣韓斯文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韓相一
翊戴靖國功臣徐敬生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徐後契

翊戴功臣金孝江繼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峻德
翊戴佐理功臣韓繼純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韓寬
翊戴功臣安仲敬繼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安公望
佐理功臣李崇元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李時璡
佐理功臣李壽男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宜弟
佐理功臣李鐵堅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元賢
佐理功臣鄭蘭宗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鄭之翼
佐理功臣宋文琳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宋仁述
佐理功臣柳輊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柳禎
佐理功臣吳伯昌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吳相漢
佐理功臣韓致禮靖國功臣韓世昌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韓棨
佐理功臣梁誠之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梁益亨
佐理功臣李克墩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益昌
靖國功臣柳涇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柳繼元
靖國功臣閔懷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閔聖達
靖國功臣閔懷昌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閔道行
靖國功臣許磉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許愼
靖國功臣尹金孫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尹商弼
靖國功臣柳世雄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柳起瀛
靖國功臣柳洵靖國功臣柳應龍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柳珌
靖國功臣柳繼宗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柳彬
靖國功臣金俊孫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孝直
靖國功臣李世應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演咸
靖國功臣任元山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任俊久
靖國功臣金瑄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大興
靖國功臣朴永昌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朴尙沂
靖國功臣具賢輝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具胤後
靖國功臣邊士謙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邊廷俊
靖國功臣尹士貞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尹見龍
靖國功臣蔡壽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蔡之沔
靖國功臣姜漬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姜璨
靖國功臣李坤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李樑
靖國功臣申壽麟嫡長孫秉節校尉行忠佐衛副司勇臣申後胥
光國功臣洪純彦靖　社功臣洪孝孫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洪大有
平難功臣朴忠侃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朴文獻
扈　聖功臣金繼韓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鉉
扈　聖功臣李有中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宜孝
扈　聖功臣朴夢周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朴慶昌
扈　聖功臣奇孝福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奇仁述
扈　聖功臣金璽信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振海
扈　聖功臣安彦鳳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安秀賢
扈　聖功臣壽崑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元碩
扈　聖功臣楊舜民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楊義潤
扈　聖功臣金應壽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英發
扈　聖功臣李公沂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霽
扈　聖功臣申磔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申繼
扈　聖功臣林祐繼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林孝元
扈　聖功臣白應範繼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白以淸
扈　聖功臣金秀源繼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金起忠
宣武功臣李雲龍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再華
宣武功臣權應銖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權震衡
宣武功臣李億祺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震晟
靖　社功臣朴烜嫡長孫宣略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朴弼思
振武功臣張晩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張相周
振武功臣崔應一嫡長子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崔嶈
振武功臣李珞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實

振武功臣李愼嫡長孫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勇臣李道興
開國功臣趙仁沃嫡長孫禦侮將軍臣趙玖
開國功臣洪吉旼嫡長孫禦侮將軍臣洪爾遠
靖難佐翼功臣權擧嫡長孫禦侮將軍臣權諶
靖難功臣金孝誠嫡長孫禦侮將軍臣金興瑞
敵愾功臣吳自治嫡長孫禦侮將軍臣吳雲
敵愾功臣李恕長嫡長孫禦侮將軍臣李行敎
翊戴佐理功臣洪應嫡長孫禦侮將軍臣洪敍箕
佐理功臣婷長孫禦侮將軍臣李碩蕃
靖國功臣曹繼商嫡長孫禦侮將軍臣曹憲周
靖國功臣金壽卿嫡長孫禦侮將軍臣金昱
靖國功臣韓恂嫡長孫禦侮將軍臣韓載衡
靖國功臣金勘嫡長孫禦侮將軍臣金弘寶
光國平難功臣兪泓嫡長孫禦侮將軍臣兪植
扈　聖功臣柳希霖嫡長孫禦侮將軍臣柳集
宣武功臣趙儆嫡長孫禦侮將軍臣趙持重
扈　聖功臣朴東亮嫡長孫振威將軍臣朴泰斗
翊戴功臣權攢嫡長孫宣略將軍臣權完
靖國功臣洪景舟嫡長孫宣略將軍臣洪著
扈　聖功臣沈岱嫡長孫宣略將軍臣沈瑞圖
開國定　社功臣張思吉長孫通德郎臣張斗八
佐翼功臣權攀嫡長孫通德郎臣權揆
敵愾翊戴功臣溥嫡長孫通德郎臣李國英
翊戴佐理功臣琛靖國功臣誠嫡長孫通德郎臣李斗相
佐理功臣具文信嫡長孫通德郎臣具必昌
佐理功臣沈瀚靖國功臣沈順徑嫡長孫通德郎臣沈澂
靖國功臣李敞嫡長孫通德郎臣李相衡
扈　聖功臣李幼澄嫡長孫通德郎臣李龜齡
淸難功臣林得義嫡長孫通德郎臣林震喬
振武功臣朴瑮子果毅校尉臣朴取善
保　社功臣南斗北子果毅校尉臣南翮
靖國功臣洪景霖嫡長孫顯信校尉臣洪九範
靖難佐翼翊戴佐理功臣鄭麟趾佐理功臣鄭崇祖嫡長孫宣敎郎臣鄭斗章
靖難功臣韓瑞龜長孫秉節校尉臣韓天近
靖國功臣張珶嫡長孫秉節校尉臣張樴
靖國功臣成希顔長孫迪順副尉臣成憲
宣武功臣柳思瑗嫡長孫奮順副尉臣柳天錫
扈　聖功臣景溫嫡長孫承義副尉臣李冠宙
扈　聖功臣李延祿嫡長孫修義副尉臣李遠器
佐命功臣馬天牧嫡長孫效力副尉臣馬碩驥
靖難功臣柳泗嫡長孫效力副尉臣柳世章
靖國功臣李夔嫡長孫效力副尉臣李洙
靖國功臣李[草+深]嫡長孫效力副尉臣李墇
光國功臣黃琳嫡長孫效力副尉臣黃鈺
平難功臣李軸嫡長孫效力副尉臣李俊英
靖　社功臣李元榮嫡長孫效力副尉臣李後望
靖難功臣宋益孫嫡長孫展力副尉臣宋有濂
靖國功臣金敬義嫡長孫展力副尉臣金炅
靖國功臣尹熙平嫡長孫展力副尉臣尹海英
平難功臣金命元嫡長孫生員臣金鼎臣
靖難佐翼功臣韓確佐理功臣韓致仁嫡長孫進士臣韓明遇
扈　聖功臣崔興源嫡長孫進士臣崔壽錫
保　社功臣金萬基嫡長子進士臣金鎭龜
開國定　社佐命功臣趙英茂嫡長孫學生臣趙擢
開國佐命功臣李稷嫡長孫學生臣李攀龍
開國定　社佐命功臣李之蘭嫡長孫學生臣李後彰

開國功臣李舒嫡長孫學生臣李桓
開國功臣劉敞嫡長孫學生臣劉宗漢
開國功臣吳思忠長孫學生臣吳相漢
開國功臣韓忠嫡長孫學生臣韓震相
開國功臣金稛嫡長孫學生臣金載徽
開國功臣李伯由嫡長孫學生臣李墀
開國功臣李敷嫡長孫學生臣李棹
開國定　社功臣鄭擢長孫學生臣鄭命吉
定　社功臣李良祐嫡長孫學生臣李榮纘
佐命功臣金英烈嫡長孫學生臣金泰鎰
佐命功臣金宇嫡長孫學生臣金鈗
靖難功臣韓明澮嫡長孫學生臣韓世臣
靖難功臣朴從愚長孫學生臣朴秀文
靖難功臣柳子煥嫡長孫學生臣柳塤
靖難功臣權躽長孫學生臣權俊
靖難佐翼佐理功臣洪允成長孫學生臣洪汝俊
佐翼佐理功臣金礩嫡長孫學生臣金宗元
佐翼佐理功臣李克培平難功臣李廷立嫡長孫學生臣李樹業
佐翼佐理功臣具致寬嫡長孫學生臣具瑍
佐翼功臣曹孝門長孫學生臣曹興昔
佐翼翊戴功臣趙得琳長孫學生臣趙自興
佐翼佐理功臣黃孝源嫡長孫學生臣黃允濟
敵愾佐理功臣許琮嫡長孫學生臣許晟
敵愾佐理功臣金順命嫡長孫學生臣金萬兼
敵愾功臣具謙長孫學生臣具俾
敵愾功臣閔發嫡長孫學生臣閔宗魯
翊戴功臣李存命繼嫡長孫學生臣李廷華
翊戴佐理功臣鄭顯祖長孫學生臣鄭俊興
翊戴功臣朴之蕃長孫學生臣朴世雄
翊戴功臣柳漢繼嫡長孫學生臣柳時溫
翊戴佐理功臣權瑎嫡長孫學生臣權尙友
翊戴功臣申雲繼嫡長孫學生臣申景
翊戴功臣曙長孫學生臣李元弼
佐理功臣金吉通嫡長孫學生臣金泰禧
佐理功臣朴居謙嫡長孫學生臣朴時益
佐理功臣徐居正長孫學生臣徐惟達
佐理功臣成奉祖嫡長孫學生臣成萬齡
佐理功臣李石亨嫡長孫學生臣李莘老
佐理功臣金謙光嫡長孫學生臣金斗煥
佐理靖國功臣申浚嫡長孫學生臣申命汝
靖國功臣李克正嫡長孫學生臣李翊
靖國功臣邊脩嫡長孫學生臣邊復原
靖國功臣黃孟獻嫡長孫學生臣黃壽昌
靖國功臣盛同嫡長孫學生臣李慶壽
靖國功臣金任長孫學生臣金煜
靖國功臣崔有井嫡長孫學生臣崔尙霖
靖國功臣趙世勛嫡長孫學生臣趙廷亮
靖國功臣沈亨長孫學生臣沈汝舟
靖國功臣金繼恭繼嫡長孫學生臣金成翼
靖國功臣禹鼎嫡長孫學生臣禹錫九
靖國功臣朴而儉嫡長孫學生臣朴根厚
靖國功臣李宗義嫡長孫學生臣李時弼
靖國功臣U+27B62嫡長孫學生臣李世胄
靖國功臣李菡嫡長孫學生臣李培
靖國功臣許礦嫡長孫學生臣許胄
靖國功臣曹繼殷嫡長孫學生臣曹一雄

靖國功臣李翰元嫡長孫學生臣李好義
靖國功臣閔孝曾嫡長孫學生臣閔挺漢
靖國功臣柳濼嫡長孫學生臣柳檠
靖國功臣金銀繼嫡長孫學生臣金垕
靖國功臣李碩蕃嫡長孫學生臣李完璧
靖國功臣辛殷尹嫡長孫學生臣辛相說
靖國功臣金克成嫡長孫學生臣金重五
靖國功臣成希雍嫡長孫學生臣成大器
靖國功臣高守謙嫡長孫學生臣高時泰
靖國功臣朴健嫡長孫學生臣朴惟恒
靖國功臣權鈞嫡長孫學生臣權重
靖國功臣康允禧嫡長孫學生臣康震夏
光國功臣奇大升嫡長孫學生臣奇頊
光國功臣尹卓然嫡長孫學生臣尹世績
平難功臣韓準嫡長孫學生臣韓垙
平難功臣閔仁伯嫡長孫學生臣閔燫
平難功臣柳坱嫡長孫學生臣柳穰
平難扈　聖功臣李憲國長孫學生臣李斗興
平難功臣李增嫡長孫學生臣李潤雨
平難功臣姜紳嫡長孫學生臣姜碩蕃
扈　聖功臣洪進嫡長孫學生臣洪錫夏
扈　聖功臣柳永慶嫡長孫學生臣柳述
扈　聖功臣金應南嫡長孫學生臣金KC04921
扈　聖功臣韓淵長孫學生臣韓翼
扈　聖功臣朴崇元嫡長孫學生臣朴啓昌
扈　聖功臣沈友勝嫡長孫學生臣沈得震
扈　聖功臣李士恭嫡長孫學生臣李天錫
扈　聖功臣鄭姬蕃嫡長孫學生臣鄭冑勳
扈　聖功臣崔賓嫡長孫學生臣崔克賢
扈　聖功臣金俊榮繼嫡長孫學生臣金萬一
扈　聖功臣李春國嫡長孫學生臣李俊
扈　聖功臣吳連嫡長孫學生臣吳信民
扈　聖功臣呂定邦嫡長孫學生臣呂必元
扈　聖功臣梁子儉繼嫡長孫學生臣梁閩源
扈　聖功臣全龍嫡長孫學生臣全以恒
宣武功臣李純信嫡長孫學生臣李鼎和
宣武功臣奇孝謹嫡長孫學生臣奇震英
清難功臣辛景行嫡長孫學生臣辛得中
靖　社功臣李元榮子學生臣李日晶
靖　社功臣李元榮子學生臣李日聶
靖　社功臣洪振文子學生臣洪演
靖　社功臣洪孝孫子學生臣洪深
振武功臣鄭忠信嫡長孫學生臣鄭元石
振武功臣南以雄嫡長孫學生臣南壽奎
振武功臣池繼濬子學生臣池鏡明
寧　社功臣許選子學生臣許煐
寧國功臣李碩龍子學生臣李元立
保　社功臣金錫胄嫡長子學生臣金道淵
保　社功臣金萬基子學生臣金鎭圭
保　社功臣金萬基子學生臣金鎭瑞
保　社功臣朴斌嫡長子學生臣朴萬馨
　身病未叅秩
靖　社功臣李義培嫡長孫臣李汝發
靖　社功臣朴烜子臣朴世堅
靖　社功臣朴烜子臣朴世堂
靖　社功臣趙瀗嫡長子臣趙伯耘

靖難功臣安慶孫長孫臣安信敏
靖難功臣李興商嫡長孫臣李翊邦
振武功臣柳孝傑嫡長孫臣柳星三
振武功臣安夢尹嫡長子臣安應昌
振武功臣李休復嫡長孫臣李鐵堅
振武功臣金完子臣金汝河
宣武功臣金時敏嫡長孫臣金得臣
開國功臣韓尙敬嫡長孫臣韓允治
定　社佐命功臣辛克禮嫡長孫臣辛翼龍
佐命功臣成石璘嫡長孫臣成以命
定　社功臣福根長孫臣李廷卨
佐翼翊戴功臣朴薑嫡長孫臣朴胤宗
佐翼功臣姜孟卿嫡長孫臣姜海擧
佐翼功臣鄭守忠嫡長孫臣鄭源
敵愾功臣李亨孫嫡長孫臣李後聃
佐理功臣李承召嫡長孫臣李聖游
靖國功臣卞雋嫡長孫臣卞興胄
靖國功臣趙元倫嫡長孫臣趙亨基
靖國功臣朴而溫嫡長孫臣朴忠臣
扈　聖功臣金起文繼嫡長孫臣金世裕
扈　聖功臣慶宗智嫡長孫臣慶寅
扈　聖功臣朴春成嫡長孫臣朴弘建
扈　聖功臣鄭琢嫡長孫臣鄭軏
靖國功臣張溫嫡長孫臣張時卿
開國功臣南誾嫡長孫臣南緻
平難功臣趙球嫡長孫臣趙慧源
振武功臣金良彦嫡長孫臣金世英
振武功臣金泰屹嫡長孫臣金世老
定　社佐命功臣韓珪嫡長孫臣韓錫
淸難功臣崔湖嫡長孫臣崔崑
扈　聖功臣申應瑞嫡長孫臣申景烈
開國定　社功臣金士衡嫡長孫臣金璹
　在喪未叅秩
開國功臣李濟嫡長孫臣李南老
開國定　社佐命功臣和佐命功臣李淑
嫡長孫臣李益文
佐命功臣洪恕嫡長孫臣洪千頃
翊戴佐理功臣沈澮嫡長孫臣沈承祖
佐翼翊戴佐理功臣鄭昌孫嫡長孫臣鄭之說
佐翼功臣韓終孫嫡長孫臣韓震漢
敵愾佐理功臣金嶠嫡長孫臣金玧
光國扈　聖功臣尹斗壽嫡長孫臣尹彦　明
敵愾功臣金瓘嫡長孫臣金聲濩
扈　聖功臣具戩嫡長孫臣具文洙
扈　聖功臣李忠元嫡長孫臣李栢年
扈　聖功臣鄭大吉繼嫡長孫臣鄭斗望
扈　聖功臣柳根靖　社功臣柳頲嫡長孫臣柳搏
靖　社功臣柳頲子臣柳命才
靖　社功臣柳頲子臣柳命雄
靖　社功臣柳頲子臣柳命哲
振武功臣申景瑗嫡長孫臣申楠壽
靖　社功臣李厚源嫡長孫臣李山輝
靖　社功臣宋時范嫡長孫臣宋世甲
靖難功臣李蒙哥嫡長孫臣李鳳徵
靖　社功臣李重老嫡長孫臣李翊
靖國功臣金友曾嫡長孫臣金榦

佐理功臣崔恒嫡長孫臣崔潮
靖難功臣薛繼祖嫡長孫臣薛萬翼
靖國功臣辛允文嫡長孫臣辛迪
靖　社功臣兪伯曾嫡長孫臣兪命聃
佐翼功臣璉嫡長孫臣李文材
靖難功臣權擎嫡長孫臣權徽
　癈病未叅秩
開國功臣黃希碩嫡長孫臣黃均
佐命功臣柳亮嫡長孫臣柳東榮
佐命功臣李原嫡長孫臣李鏞
敵愾功臣金沔嫡長孫臣金命男
靖難功臣林自蕃嫡長孫臣林晩榮
靖國功臣姜渾嫡長孫臣姜曦
　年幼未叅秩
靖國功臣黃坦嫡長孫臣黃千萬
保　社功臣李立身嫡長子臣李邦華
開國功臣閔汝翼嫡長孫臣閔道一
靖　社功臣具仁垕嫡長孫臣具嫌
寧國功臣黃濡嫡長孫臣黃聖河
　邊將在外未叅秩
扈　聖功臣吳致雲嫡長孫臣吳時亮
　被謫未叅秩
敵愾功臣朴堉嫡長孫臣朴濟

여백

康熙十九年八月　日

여백

復勳時告
宗廟祭祝文
維康熙三十三年歲次甲戌六月丁酉朔二十日丙辰
孝曾孫嗣王臣焞
謹遣臣花陵君洮
敢昭告于
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
祖妣承仁順聖神懿王后韓氏
祖妣順元顯敬神德王后康氏伏以往在庚申討除亂逆諸臣效力再安
宗祏祗行祭告誓以帶礪鐵券丹書期保永世逮至己巳羣奸秉國謂逆可護削其勳錄凡厥
有功大肆誅屠至於告
廟恣其矯誣神人共憤六年于玆今乃大覺雖悔曷追爰命有司已復勳號載涓吉日庸申
虔告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尙
饗　各室祝辭同

여백

여백

康熙三十三年十月　日
己巳罷勳甲戌復勳

이하 21칸의 빈칸 있음

ㅇ 기　　타(소장 경위 등)

숙종 20년(1694)에 제작된 <20공신회맹축 보사공신녹훈후>는 영조대까지 창덕궁 내 진장각(珍藏閣)에 보관되다가 정조 9년(1785) 10월에 봉모당(奉謨堂)으로 이관되어 1910년까지 봉모당에 봉안되어 있었다. 이 유물은 2007년 4월 보물 제1513호로 지정되었다.

ㅇ 참고문헌

『保社功臣錄勳都監儀軌』, 1680년, 장서각 소장.
『保社功臣復勳都監儀軌』, 169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二十功臣會盟錄』, 장서각 소장.

김나형, 「조선시대 공신교서 장황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박성호,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 옛 맹약을 지키다』, 한중연출판부, 2017.
오하나, 「15세기 이후 한중 전통직물의 보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상식, 「숙종대 보사공신의 녹훈 과정과 사회적 관계망 분석」. 『한국사연구』 155, 2011.
이은경, 「朝鮮時代 中期의 布帛尺에 관한 硏究」,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한국생활과학회 2007.
이은주, 「외규장각 의궤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문화재』 52-5. 2019.
전경목·박용만, 「〈이십공신회맹축〉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2009.
鄭承珉, 『朝鮮時代 功臣會盟錄의 書誌的 硏究』 慶北大 大學院 碩士論文. 2005
한은희, 「조선 중기의 포백척」. 『한국생활과학지』 제16권 3호, 2007.

□

ㅇ 내용 및 특징

『二十功臣會盟軸 - 保社功臣追復敎書』은 1680년(숙종 6) 8월 30일에 開國功臣 이래 保社功臣까지의 공신과 그 자손들을 모아 會盟祭를 거행한 후 작성한 회맹축이다. 이 회맹축이 작성된 시기는 1694년이다. 회맹제가 거행된 시기와 회맹축을 작성한 시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숙종 대 정국의 변동 때문이다. 保社功臣은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공신으로 錄勳되었지만,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득세하면서 削勳되었다. 그러다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하면서 勳號를 회복하게 되었다. 復勳都監에서는 이 회맹축을 제작함과 동시에 『二十功臣會盟錄』 1책을 편찬한 후 갑인자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회맹축의 내제는 “二十功臣會盟軸”이며, 朱墨으로 邊欄과 界線을 치고 寫字官의 글씨로 단정하게 필사하여 어람용 자료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회맹축은 1680년(숙종 6) 4월에 金錫胄와 金益勳의 告變으로 일어난 庚申換局을 처리한 공을 세운 이들에게 保社功臣을 녹훈한 것을 계기로 제작되었으며, 녹훈된 보사공신은 1등 2명, 2등 1명, 3등 3명이었다. 그러나 3등에 들어간 鄭元老는 盡告하지 않고 역모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1680년 6월에 伏誅되고 削勳되었다.

회맹축의 내용은 二十功臣會盟文, 二十功臣會盟錄, 宗廟親祭文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십공신회맹문은 天地, 社稷, 宗廟, 山川, 百神의 靈에게 고하는 제문이다. 이 회맹문을 작성한 사람은 대제학 李敏敍이다. 이십공신회맹록은 회맹제에 참석했던 20공신과 그 후손들의 명단이다. 공신과 후손들의 명단은 총 489명이며, 그 중 412인은 회맹연에 참석하였고, 身病으로 불참한 사람 36명, 在喪으로 불참한 사람 28명, 癈病으로 불참한 사람 6명, 年幼로 불참한 사람 5명, 邊將在外로 불참한 사람 1명, 被謫으로 불참한 사람 1명이었다. 회맹록의 말미에는 ‘조선국왕’과 ‘왕세자’를 기록하였다. 종묘친제문은 1694년에 보사공신을 復勳하면서 종묘의 각 신실에 고한 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회맹축의 끝에는 “康熙三十三年十月日”이라 기록하고, 다음 행에 細筆로 “己巳罷勳 甲戌復勳”이라 기록한 뒤 “施命之寶”를 찍었다. 이는 경신년(1680)에 녹훈되고, 기사년(1689)에 삭훈되었으며, 갑술년(1694, 강희 33년)에 복훈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二十功臣會盟軸 - 保社功臣追復敎書』와 『二十功臣會盟錄』을 비교하면, 종묘친제문까지는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나 『二十功臣會盟錄』에는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等書」, 「復勳都監啓下別單」이 추가되어 있다.

보사공신 회맹제에 참석한 20공신은 開國(1392), 定社(1398), 佐命(1401), 靖難(1453), 佐翼(1455), 敵愾(1467), 翊戴(1468), 佐理(1471), 靖國(1506), 光國(1590), 平難(1590), 扈聖(1604), 宣武(1604), 淸難(1604), 靖社(1623), 振武(1624), 昭武(1627), 寧社(1628), 寧國(1644), 保社(1680) 공신이다. 1646년(인조 24)에 있었던 영국공신 회맹제와 비교하면 保社功臣이 추가되었으므로 21공신이 되어야 하지만 중간에 定難功臣(1507)이 削勳되어 여전히 20공신이 되었다. 定難功臣이 削勳된 시기는 두 개의 회맹축이 작성된 1646년부터 1694년 사이이다. 20공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開國功臣, 1392년(태조 1), 이성계를 조선의 국왕으로 추대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 1392년 8월 20일에 공신들의 위차를 정하고, 9월 21일에 공신들을 편전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고 敎書와 錄券을 내림. 일등공신 배극렴 등 44명

② 定社功臣, 1398년(태조 7, 정종 즉위), 제1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李芳碩 세력을 몰아내는데 기여한 공신. 1398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1월

에 연회를 베풀고 교서와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이화 등 29명

③ 佐命功臣, 1401년(태종 1),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를 거두어 李芳遠을 3대 국왕으로 등극시키는 데 기여한 공신. 1401년 1월에 공신의 등급을 4등급으로 정하고, 3월에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와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이저 등 47명

④ 靖難功臣, 1453년(단종 1), 단종이 재위할 때 수양대군(세조) 세력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에 공을 세운 공신. 1453년 10월에 수양대군에게 공신호와 食邑을 내렸고, 11월에는 정난공신에게 加資하였으며, 1455년 1월에 경복궁 사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와 회맹축을 내림. 일등공신 수양대군 등 43명

⑤ 佐翼功臣, 1455년(세조 1),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보위세력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세조)이 왕위에 오르도록 기여한 공신. 1455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상급을 내림. 일등공신 이중 등 44명

⑥ 敵愾功臣, 1467년(세조 13), 함길도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은 세운 공신. 1467년 8월과 9월에 공신을 정하고, 11월에 경복궁 인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이준 등 44명

⑦ 翊戴功臣, 1468년(예종 즉위), 유자광 등 훈구세력이 남이를 비롯한 신진세력을 역모에 연루시켜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녹훈된 공신. 1468년 10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469년(예종 1) 5월에 경회루에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신숙주 등 37명

⑧ 佐理功臣, 1471년(성종 2), 성종이 즉위하고 예종의 삼년상을 마친 시점에서 성종을 보필한 공이 있는 신하에게 녹훈한 공신. 1471년 3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472년(성종 3) 7월에 인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녹권을 내림. 일등공신 신숙주 등 73명

⑨ 靖國功臣, 1506년(중종 1),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이 즉위하는데 기여한 공신. 1506년 9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507년(종종 2) 2월에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박원종 등 116명

⑩ 光國功臣, 1590년(선조 23), 명나라의 『大明會典』에 이성계의 계보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신. 1588년(선조 21)에 수정된 『대명회전』이 도착했고, 1590년 8월에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윤근수 등 19명

⑪ 平難功臣, 1590년(선조 23), 정여립의 역모를 사전에 고변하고 처리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 1589년(선조 22) 10월에 황해감사의 비밀보고서를 통해 정여립의 역모 의혹이 제기되었고, 정여립을 비롯한 동인계 인사들의 옥사가 일어남. 1590년 8월에 광국공신과 함께 평난공신에게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박충간 등 24명

⑫ 扈聖功臣,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을 세운 공신. 전란이 평정되고 나서 1604년 6월에 공신들에게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이항복 등 86명

⑬ 宣武功臣,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때 전장에서 무공을 세운 장수와 명나라에 奏請使로 갔던 사신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녹훈한 공신. 전란이 평정되고 나서 1604년 6월에 호성공신과 함께 녹훈됨. 일등공신 이순신 등 18명

⑭ 淸難功臣,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 데 기여한 공신. 1596년(선조 29)에 종실 자손인 이몽학이 충청도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홍주목사 홍가신 등이 난을 진압함. 전란이 평정되고 나서 1604년 6월에 호성공신, 선무공신과 함께 녹훈됨. 일등공신 홍가신 등 5명

⑮ 靖社功臣, 1623년(인조 1),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를 즉위시키는데 공을 세운 공신. 1623년 윤10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625년(인조 3) 4월에 융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김류 등 53명

⑯ 振武功臣, 1624년(인조 2), 정사공신에서 2등에 녹훈된 것에 불만을 가진 이괄이 1624년 1월에 평안도에서 군사를 이끌고 도성까지 점령했던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신. 3월에 공신의 위차를 정하고, 1625년(인조 3) 4월에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장만 등 27명

⑰ 昭武功臣, 1627년(인조 5), 강원도 횡성에서 오랑캐를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킨 이인거의 난을 진압한 공신. 1627년 11월에 원주목사 홍보 등을 공신으로 녹훈함. 일등공신 홍보 등 5명

⑱ 寧社功臣, 1628년(인조 6), 인조반정 후 유배되었던 유효립이 광해군을 상왕으로 하고 인성군을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역모 사건을 고변하고 처리하는 공을 세운 공신. 1628년 3월에 공신으로 정함. 일등공신 허적 등 11명

⑲ 寧國功臣, 1644년(인조 22), 심기원 등이 인조를 폐하고 회은군을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역모 사건을 고변하고 옥사를 다스리는데 기여한 공신. 1644년 6월에 공신으로 확정하고, 9월에 창경궁 명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교서를 내림. 일등공신 구인후 등 8명

⑳ 保社功臣, 1680년(숙종 6) 녹훈, 1689년(숙종 15) 삭훈, 1694년(숙종 20) 복훈. 숙종 재위 초인 경신년(1680)에 허적의 아들 허견이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과 함께 도모한 역모 사건을 사전에 고변하고 처리하는 데 공을 세운 공신. 이 사건으로 남인 세력이 축출되고 서인 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됨. 1680년에 錄勳되었으나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여 削勳되었으며,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復勳됨. 일등공신 김석주 등 6명

숙종 대에 작성된『二十功臣會盟軸 - 保社功臣追復敎書』은 이러한 형식의 문서로는 현재 남아있는 2건 가운데 하나로 희소성을 가진다. 그리고 24m가 넘는 대규모 生綃에 朱墨으로 邊欄을 치고 寫字官이 단정한 楷書體로 필사한 후 제작하여 왕실자료의 장황에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2건의 회맹축 가운데 문서를 완결시키는 '施命之寶'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 완전성을 갖춘 유일한 자료이며, 숙종 대의 환국으로 인한 정치 변동이 뚜렷하게 반영된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ㅇ 문헌자료

『保社功臣復錄都監儀軌』
『寧國功臣錄勳都監儀軌』
전경목・박용만,「<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藏書閣』22, 2009.
박성호,『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 옛 맹약을 지키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ㅇ 현　　상

서지사항
서명저자사항 :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 / 復勳都監(朝鮮) 編
판사항 : 筆寫本
발행사항 : 肅宗 20(1694)年
형태사항 : 1軸 ; 88.8×2,414㎝

表紙書名 :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
　　白玉軸
印文 : 施命之寶

조사 대상본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은 세로 88.5 cm, 가로 2,414cm

의 권축장본으로 소장처에서 인쇄하여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敎書)'제첨이 있다. 목재로 추정되는 軸心의 양 끝에 白玉을 끼워 고정하였고 回粧의 내면은 감색비단으로, 상단후면 회장은 다홍색의 비단을 사용하였다. 권두의 서명은 '二十功臣會盟軸'이며 변란과 계선을 朱墨으로 정교하게 그렸고 단정한 해서체로 묵서되어 있다. 명단의 끝에는 "康熙十九年八月 日"이 기록되어 있으며 施命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御諱에는 다홍색 비단을 付籤하여 피휘되어 있다.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보사공신은 1680년 즉 숙종 6년 4월 외척이며 서인이었던 金錫胄와 金益勳 등이 남인 許積의 서자인 許堅이 福昌君 · 福善君 · 福平君과 함께 역모한다고 고발하여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의 현상과 관련 자료

남인 세력은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공으로 5월에 녹훈한 것이다. 1등 공신에 金萬基 · 金錫胄, 2등 공신에 李立身, 3등 공신에 南斗北 · 鄭元老 · 朴斌이 녹훈되었다. 이 중 鄭元老는 역모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6월에 伏誅되고 삭훈되었다. 8월30일 왕이 회맹단에 나아가 회맹제를 거행하고, 환궁하여 숭정전에서 보사공신의 교서축을 반포하였다. 11월에는 李師命 · 金益勳 · 趙泰相 · 申範華를 2등 공신, 李光漢 · 李元成을 3등 공신에 추가로 보사공신에 녹훈되었다.

그러나 숙종 15(1689)년 소의 장씨의 소생을 왕세자로 삼는 일에 대해 노론 세력이 반대하는 가운데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경신환국을 誣獄이라고 주장하여 보사공신은 삭훈되었다. 이후 숙종 20(1694)년 폐비 민씨의 복위 문제가

대두되며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자 罷勳시켰던 공신을 다시 復勳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신교서와 녹권, 공신회맹축도 다시 제작되게 되었는데 조사 대상본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은 바로 서인이 다시 집권한 숙종 20(1694)년 6월에 保社功臣을 복훈한 후 작성된 회맹축이다. 따라서 말미에'己巳罷勳 甲戌夏勳'이라 기록이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이다.

한편 이십 공신은 開國(1392년, 태조1년), 定社(1398년, 정종 즉위), 佐命(1401년, 태종1년), 靖難(1453년, 단종 1년), 佐翼(1455년, 세조 1년), 敵愾(1467년, 세조 13년), 翊戴(1468년, 예종 즉위), 佐理(1471년, 성종 2년), 靖國(1506년, 중종 1년), 定難(1507년, 중종 2년), 光國(1590년, 선조 23년), 平難(1590년, 선조 23년), 扈聖(1604년, 선조 37년), 宣武(1604년, 선조 37년), 淸難(1604년, 선조 37년), 靖社(1623년, 인조 1년), 振武(1624년, 인조 2년), 昭武(1627년, 인조 5년), 寧社(1628년, 인조 6년), 寧國(1644년 인조 22년) 에 녹훈된 공신을 의미하는데 이후 중종대에 녹훈된 정난공신이 삭훈되어 보물 1512호인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錄勳後』과 같이 조사 대상본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도 모두 "二十功臣會盟軸"이라 칭하게 되었다.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은 二十功臣會盟文, 二十功臣會盟錄, 宗廟祭祝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맹문은 숙종 6(1680)년 庚申換局 이후 保社功臣을 녹훈하고 8월30일에 지낸 공신회맹제의 제문으로 개국공신 이래 보사공신까지 공신과 그 자손들을 모아 천지, 사직, 종묘, 산천, 백신의 영에게 고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회맹록은 회맹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국왕 이하 회맹에 참석한 功臣·功臣嫡長子孫의 君號, 功臣號, 職銜, 姓名이 기록된 명단이 실려 있는데 회맹축에 기록된 인원은 참석자 412명, 미참자 77명으로 모두 489명이다. 후손들의 명단 마지막에는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身病未參秩, 在喪未參秩, 廢病未參秩, 年幼未參秩, 邊將在外未參秩, 被謫未參秩로 구분되어 있다.

명단에 이어 '康熙十九年 八月日'이란 紀年이 기록되어 있고 회맹문 시작 부분에 회맹제를 올린 '康熙十九年歲次庚申八月丁巳朔三十日丙戌'이라는 기록을 보면 이 부분까지가 처음 작성된 회맹축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숙종 20(1694)년 6월에 작성한 「復勳時告宗廟祭祝文」이 있다. 또한 말미에 '康熙三十三年十月日'란 紀年이 기록되고, 다음 행에 細筆로 '己巳罷勳 甲戌夏勳'의 기록이 있어 복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두 행 위에 「施命之寶」가 검인되어 있다.

ㅇ 문헌자료

全炅穆 ; 朴用萬(2009),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5-22.
박성호(2017), 『이십공신회맹축, 공신과의 옛 맹약을 지키다』,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조선왕조실록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

ㅇ 지정사례

본 자료는 2007년 4월 보물 1513호로 지정된 바 있다.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는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서인이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에 파훈(罷勳)된 5명의 공신을 복훈(復勳)한 것을 계기로 제작된 것이다. 이 회맹축은 먼저 1680년(숙종 6) 8월에 있었던 보사공신회맹(保社功臣會盟) 시의 회맹문(會盟文)을 쓰고 회맹에 참여한 본공신과 자손의 군호, 공신호, 직함, 성명이 기록된 명단을 싣고 있다. 이어서 신병(身病), 재상(在喪), 발병(廢病), 연유(年幼), 변장재외(邊將在外), 피적(被謫) 등 참여하지 못한 명단을 사유별로 수록하고 ‘康熙十九年 八月日’이라 썼다. 마지막으로 1694년(甲戌) 6월 20일의「復勳時告宗廟祭祝文」에 이어 ‘康熙三十三年十月日’이라는 년기를 적고 좌편에 세필(細筆)로 ‘己巳罷勳甲戌复勳’이라 쓴 후 그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날인(捺印)하였다.

이 “이십공신회맹축”은 왕실이나 충훈부(忠勳府)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최고의 재질로 거대하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에 걸쳐 한자 한자에 정성들여 쓴 글씨와 선명한 주사란, 고급 재질, 장대한 크기 등 모든 면에서 조선후기 기록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현존하는 완전한 상태의 회맹축이 희소하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

書誌事項

二十五功臣會盟軸 - 保社功臣追服敎書軸 / 復勳都監(朝鮮) 編
-- 筆寫本. -- , [肅宗 20(1694)年].
1軸 : 四周單邊, 88.8×2,414.0㎝,
朱絲欄, 有界, 字數不定, 紙·絹. 卷軸裝.
表紙書名 : 二十五功臣會盟軸 - 保社功臣追復敎書
印 ; 施命之寶

ㅇ 현 상

조사본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은 본래 인조대의 『二十功臣會盟軸-寧國功臣敎書軸』과 영조대의 『二十一功臣會盟軸』 등 두 점과 함께 진장각(珍藏閣)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정조대에 봉모당(奉謨堂)으로 옮겨 봉안되었고 이후 현재에까지 이어져 보관 관리되고 있음. 2007년 보물 제1513호로 지정되었고,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ㅇ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는 1694년(숙종 20)년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서인이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파훈(罷勳)된 보사공신을 복훈(復勳)하고 개국공신 이하 보사공신까지 20공신의 본공신과 사망한 공신은 그 적장자 또는 적장손이 모여 회맹한 내용을 기록하여 권축장으로 만든 것이다.

본래 보사공신은 1680년(숙종 6)년 4월에 외척인 김석주(金錫胄)가 남인 허적(許

積)의 서자인 허견(許堅)이 복창군(福昌君)·복선군(福善君)·복평군(福平君)과 함께 역모한다고 고발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된 '경신환국(庚申換局)' 때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훈호(勳號)이다.
본 교서에서의 이십공신은 開國(1392), 定社(1398), 佐命(1401), 靖難(1453), 佐翼(1455), 敵愾(1467), 翊戴(1468), 佐理(1471), 靖國(1506), 光國(1590), 平難(1589), 扈聖(1592), 宣武(1604), 淸難(1596), 靖社(1623), 振武(1624), 昭武(1627), 寧社(1628), 寧國(1646) 그리고 保社功臣功臣까지를 말한다. 인조대 녹훈된 寧國功臣까지 본래 二十功臣이었으므로 이후 책훈된 보사공신을 포함하면 二十一功臣이 되어야하나, 이곳에서는 1507년(중종 2) 이과(李顆)의 옥사(獄事)를 처리하는데 공이 있었던 사람에게 내린 定難功臣이 대간의 啓에 의해 그 녹훈이 삭훈되면서 다시 二十功臣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난공신의 파훈과 관련된 사실은 기록이 전하지 않아 정확한 과정과 시기를 알기 어렵다.
반면 보사공신의 책훈과 파훈 그리고 추복훈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히 전하고 있어 이해에 도움을 준다.

① 분충 효의 병기 협모 보사 공신(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 1등은 김만기(金萬基)·김석주(金錫胄), 2등은 이입신(李立身), 3등은 남두북(南斗北)·정원로(鄭元老)·박빈(朴斌)이다. 김석주에게는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를 가자(加資)하여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으로, 이입신에게는 자헌 대부(資憲大夫)를 가자하여 양흥군(陽興君)으로, 남두북은 의풍군(宜豊君)으로 삼고, 정원로는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초자(超資)하여 동원군(東原君)으로 삼고, 박빈(朴斌)은 밀성군(密城君)으로 삼았다. (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5월 18일 병오, 1680, 康熙十九年)

② 임금이 단소(壇所)에 나아가서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하였는데, 그 서문(誓文)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 신 성(姓) 모(某)는 개국 정사 좌명 정난 좌익 적개 익대 좌리 정국 광국 평난 호성 선무 청난 정사 진무 소무 영사 영국 보사 공신(開國定社佐命靖難佐翼敵愾翊戴佐理靖國光國平難扈聖宣武淸難靖社振武昭武寧社寧國保社功臣)과 그 자손 등을 삼가 거느리고 천지(天地)·사직(社稷)·종묘(宗廟)·산천(山川)·백신(百神)의 영(靈)께 감히 밝게 고합니다.
빛나는 우리 왕조는 열조(列祖)에서 덕이 높은 임금이 잇달아 나와 반근(盤根)이 대대로 뻗어가고 천명(天命)이 끝이 없으니, 세상에 크고 밝은 이름이 있고 공훈(功勳)이 왕실(王室)에 있으므로, 금석(金石)에 새겨 아름다움을 후세에 전해 주고 죽소(竹素)443) 에 실어 아름다움을 빛내어야 할 것이다. 아! 금일에 난적(亂賊)이

법도를 어기면서 흉도(兇徒)를 모으고 역적을 기르니, 전사(前史)에 듣지도 못하였도다. 시랑(豺狼) 같은 본성이 가까이 지친(至親)에게서 나왔으며, 효경(梟獍) 같은 독(毒)이 권신(權臣)에게서 슬그머니 나타나서, 오초(吳楚) 7국(國)처럼 같이 나라를 간범(奸犯)하였으나, 아름답고 빛나게 그 악독함을 구제하였도다. 둔군(屯軍)을 깊은 산골짜기에 설치하고, 남몰래 말이 많은 무리들을 사주(使嗾)하여 체부(體府)를 다시 설치하고, 군권(軍權)을 마음대로 농락하려고 도모하니, 서리를 밟는[履霜] 조짐이 점차로 얼음이 얼어붙는[氷堅] 지경에 이르렀다. 심복(心腹)이 두루 포진하고 기아(機牙)가 조밀하게 펼쳐지자, 호복(胡服)을 거짓으로 입고서 왕장(王章)을 찬탈하기를 계획하고, 흉도(兇徒)와 체결(締結)하여 신기(神器)를 엿보았다. 하늘[天]을 가리켜 활을 쏠 수 있다고 하고, 날짜를 약속하고 군사들에게 연향(宴饗)하니, 화기(禍機)의 참혹함이 목전에 가까이 있었고, 종사의 위험함이 경각에 임박하여 있었다. 한두 신하에 의뢰하여, 휴척(休戚)을 나라와 더불어 같이 하면서 선기(先機)를 예리하게 살피고서, 의리에 의지하고 충의(忠義)에 분발하여, 이에 조아(爪牙)를 시켜서 분주하게 힘쓰고 노력하게 하니, 수간(銖姦)이 반드시 알고 귀역(鬼蜮)이 도망하지 못하였다. 이에 흉얼(凶孼)을 사로잡아서 숙문(淑問)하자 자복하였으므로, 천토(天討)가 이미 시행되니, 경관(京觀)이 이미 쌓여지고 추악한 기운이 깨끗하게 쓸어 없어져서, 나라의 운수가 반석(盤石)과 같이 되었다.
비괘(否卦)를 뒤엎어 태괘(泰卦)로 바꾸고, 위기를 바꾸어 곧 평안해지니, 국운이 오르내리는 때에 빛나게 임하고 신명(神明)에 간절하게 의지하여, 나라를 광복(匡復)하는 데 협찬(協贊)함은 실로 그 충정(忠貞)에 힘입었도다. 나는 오로지 그대들의 공덕(功德)을 돈독하게 여겨 잊지 아니하며 공렬(功烈)을 표창하는 데 아주 부지런하기를 힘쓴다. 옛날에 이장(彝章)이 있어서 황하(黃河)·태산(泰山)도 또한 한지(漢志)에 기록하였는데, 대개 이러한 은전(恩典)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뜻을 정표(旌表)하여 큰 작호(爵號)를 게시(揭示)하고, 사직을 보존하도록 명한다. 나누어 봉(封)하고 토지를 하사하는데, 선대(先代)에 주어 후대에까지 미치게 하여, 경사(慶事)와 상작(賞爵)이 곧 풍성하고 두터운 은혜가 깊고 넓게 미치게 한다. 이에 현단(玄壇)을 닦고 경건히 밝은 맹세(盟誓)를 올리는데, 이 강렵(剛鬣)을 삽혈(歃血)하면서 같이 백수(白水)를 가리키는 바이다. 구덕(舊德)의 남은 후손들이 또한 모두 모였으니, 오직 충성하고 오직 효도하여 백대(百代)에 이르도록 무너지지 말라. 진실로 이 맹세를 어기면 신(神)이 실지로 이에 임할 것이다. 삼가 희생(犧牲)과 예주(醴酒)로써 이에 밝은 천신(薦新)을 베푸는 바이다." 하였다.
임금이 행례(行禮)를 마치고 막차(幕次)로 돌아왔다. 이어서 환궁(還宮)하고 숭정전(崇政殿)에 거둥하여 보사 공신(保社功臣)의 교서축(敎書軸)을 반포하였는데, 그 글에, "왕은 말하노라. 기변(機變)을 살려서 적란(賊亂)을 주멸(誅滅)하는 데 진실

로 충직한 신하들에게 힘입었으니, 공령(功令)에 따라서 충성과 노고에 보답하는데 어찌 이전(彝典)을 폐하겠는가? 이에 대려(帶礪)의 맹세를 올리고 윤발(綸紼)450) 의 윤음(綸音)을 널리 펴노라.

과매(寡昧)의 젊은 나이를 돌이켜보건대, 어렵고 큰 조상의 유업(遺業)을 이어받아 비록 나라의 근심을 막으려는 데 마음이 간절하지만, 거조(擧措)가 도리에 어긋남을 면치 못하는 바이다. 간사함을 밝혀내는 데 분명히 힘이 부족하니, 참람하고 간사함이 스스로 뜻을 얻음을 다행하게 여기고, 위령(威靈)이 점점 시들어져서 점차로 변하여 화란(禍亂)이 더욱 성한 지경에 이르렀다. 종실(宗室)의 골육지친(骨肉之親)이 남몰래 역적의 생각을 품음이 있었고, 대신이 심복(心腹)의 부탁을 받고 흉악한 음모를 조성(助成)하여, 비천한 서얼(庶孼)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역모를 주장하게 하였다. 귀총(貴寵)을 도와서 궐내(闕內)를 염탐하고, 외경(外警)을 빙자하여 체부(體府)를 개설(開設)하며, 제군(諸軍)을 통솔하여 깊은 산골짜기에 나아가서 군사를 단련(團練)시키며, 노장(老將)과 약속하고 궁금(宮禁)과 교통하였다. 음모를 꾸민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이르자, 역적을 의논한 친신(親臣)의 형적(形迹)이 여러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맹세가 이루어져 회맹(會盟)하고 삽혈(歃血)하여 형세가 이미 절박해지니, 나라의 일에 음모(陰謀)가 많아지고 화(禍)가 더욱 깊어졌다. 다행히 나라를 위하여 먼저 걱정하고서 곧 능히 제때에 맞추어 빨리 대비하니, 바야흐로 사기(事機)가 호흡하는 순간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으나,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찡그리고 신음하는 무리들을 살피니, 적(賊)들이 발로할 수가 없었다. 전후하여 그들이 지시한 계획과 비용이 방도를 다하게 되자, 곧 좌우의 이목(耳目) 같은 사람들이 모두 노고를 바치고 급서(急書)의 언장(言狀)이 있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큰 괴수(魁首)들이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정상이 이미 밝혀져 이매(魑魅)451) 가 우정(禹鼎)을 도망하지 못하고, 토벌이 이에 시행되니 경예(鯨鯢)가 모두 한장(漢章)에 복주(伏誅)되었다. 이것이 비록 종사(宗社)가 내려 주는 아름다움이라고 할지라도, 실지로 고굉(股肱) 같은 신하들의 협책(協策)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옛날을 돌이켜 생각건대, 어찌 다만 모발(毛髮)이 곤두서고 한심(寒心)하기만 하겠는가? 하루아침에 구름이 없어지고 안개가 깨끗이 걷힐 수가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한가? 진평(陳平)이 한가롭게 지내면서 깊이 생각하여 과연 여씨(呂氏)를 주멸(誅滅)한 공훈을 이루었으며, 박륙후(博陸侯)가 숙위(宿衛)하면서 충성하고 부지런하여 마침내 한(漢)나라를 부지(扶持)하는 공적을 세웠도다.

국가에서 이미 흉도(凶徒)를 제거하고 난적(亂賊)을 평정하였으니, 내가 어찌 덕(德)을 갚고 공(功)을 갚는 데 아까와하리오! 원훈(元勳)을 서임(敍任)하고 은총으로 하사하고 숭질(崇秩)을 더하며, 조그마한 공로라도 기록하여 상뢰(賞賚)를 차등

있게 주겠도다. 운대(雲臺)의 도상(圖像)을 밝게 만들어 후세에 밝게 보이기를 끝없이 하겠으며, 모토(茅土)를 나누어 계봉(啓封)하고, 그 아름다움을 더불어 같이 즐거워하며, 재서(載書)457) 에 두루 써서 맹약(盟約)을 올리는 바이다. 욕의(縟儀)를 다 거행하고 길일(吉日)를 가려서 신기(神祇)에 고하는 것은 모두 구제(舊制)를 따른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 보존하기에 힘쓰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함께 충정(忠貞)하기를 귀하게 여겨서 방가(邦家)에 지극히 부지런해야 할 것이다. 철권(鐵券)을 내려 주어 믿음을 보이고, 이에 후세에까지 미치도록 백수(白水)를 가리켜 기약을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교시(敎示)하니, 의당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제학(大提學) 이민서(李敏敍)가 지어서 바친 것이다.】 하였다. 행례(行禮)를 끝마치자, 공신(功臣)과 제관(祭官)들이 음복례(飮福禮)를 행하였다.
(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 8월 30일 병술, 1680, 康熙十九年)

③ 보사훈(保社勳)을 삭제하여 종묘(宗廟)에 고(告)하고, 중외(中外)에 교서(敎書)를 반포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무옥(誣獄)은 온 세상의 원통한 바가 되어, 이미 형서(形書)의 억울함을 씻었고 공론은 백 년이 못되어 정해졌으니, 이에 훈적(勳籍)의 이름을 깎는다. 이에 십행(十行)을 팔역(八域)에 널리 고한다. 생각하건대, 내가 왕위(王位)를 이어받은 것은 어린 나이였다. 선왕(先王)의 뜻을 받들어서 예론(禮論)의 종통(宗統)을 어지럽게 함을 통탄하고, 섬인(纖人)을 모두 쫓았으니 당의(黨議)가 임금을 속인 것을 미워한다. 김석주(金錫胄)는 대비(大妃)의 친족으로 성품이 음흉하고 사나와 신화(新化)487) 를 협찬한 자취가 비록 뜻을 같이 한 것과 가까운 듯하나, 옛 붕당(朋黨)을 돌아본 뜻은 진실로 사사로운 마음을 쾌하게 한 것이다. 오직 그 이리처럼 탐욕에 골몰하여 빼앗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않았으니, 이로써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김만기(金萬基)는 본래 간사한 소인(小人)의 괴수(魁首)로써 오랫동안 폐부(肺腑)의 친밀함에 의탁하여, 선왕(先王)이 예(禮)를 물으시던 날에는 한결같이 하늘을 속이기를 뜻하였고, 송시열(宋時烈)이 죄를 입었을 때에 온갖 수단을 마련하였다. 공(公)을 배반하고 당(黨)을 위해 죽는 습속이 고질이 되어, 뼈에 사무치는 듯한 원한이 깊었고, 힘을 같이하고 꾀를 합하는 형세를 이루면서 이를 갈며 엿보았다. 귀척 자제(貴戚子弟)의 불량한 무리를 불러서 더불어 몰래 일을 도모하고, 사납고 간사한 무뢰배(無賴輩)를 불러서 큰 이(利)를 탐하였다. 생각하건대 김익훈(金益勳)과 이사명(李師命)은 진실로 심복(心腹)이며, 남두북(南斗北)과 박빈(朴嬪)은 누가 그 우익(羽翼)이 아니리오? 형찰(詗察)하는 데는 이입신(李立身)이 힘을 다하였고, 경영하는 데는 이광한(李光漢)

이 꾀를 바쳤다. 금전(金錢)은 부고(府庫)의 재물에서 꺼낸 것인데, 환관(宦官)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어, 죄를 교묘하게 꾸미고 짜서 궁위(宮闈)에 말을 퍼뜨렸다. 그 림자를 숨기고 자취를 감춘 소이(所以)는 진실로 사이에 의탁하고 틈에 끼려고 한 것이었다. 불행히도 상문(相門)의 천얼(賤孼)이 왕실(王室)의 지친(至親)과 사귀어 통하니, 기회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비밀히 세객(說客)을 보냈고, 교만하고 방자함이 반드시 난(亂)을 일으킬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심(邪心)을 도발시켰다. 처음에는 추명(推命)의 술(術)을 가지고 사사로운 정성을 바치는 것과 같았으나, 끝내는 복갑(伏甲)의 말을 만들어서 기화(奇禍)로써 겁주었다. 드디어 무안군(武安君)의 부도(不道)한 말을 발설하여 회남왕(淮南王)의 분수 밖의 바람을 끌어 일으켰다. 장심(將心)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는 것은 삼척(三尺)에 진실로 용서하기 어려우니, 슬프다! 이 죄없는 사람들이 한 그물에 걸린 것을 어찌하겠는가? 적남(賊南) 【남두북(南斗北)을 이른다.】 의 글이 막 던져지자마자 위양(渭陽) 【김석익(金錫翼)이다.】 의 계(啓)가 잇따라 올라 왔다. 대간(臺諫)의 글이 이를 물리쳐 쫓으니 조정이 먼저 비었고, 급한 글이 창황국옥(鞫獄)이 크게 일어났다. 화기(禍機)가 호흡(呼吸)에 박두해 있는 것과 같아, 각(角)을 삼경(三更)에 불자 철기(鐵騎)가 어지러이 도로에서 엇갈려 달리고, 열흘을 환위(環衛)490) 하니, 공동(恐動)하는 흉계(凶計)가 아님이 없어 한 때에 놀라고 의혹함을 면치 못하였다. 체부(體府)를 설치하자는 계책이 도리어 화(禍)의 빌미가 되었고, 협병(峽兵)을 단속한 명령이 또한 난계(亂階)로 돌아갔다. 은혜를 온전히 하라는 논의는 모두 의친(議親)을 위한 것인데 난(亂)을 빚는 근본이라고 지목하고, 친경(親耕)을 청한 것은 진실로 예(禮)를 준수하려고 한 것인데 왕후를 폐하는 매개(媒介)라고 무함(誣陷)하였다. 날조한 것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속이고 과장함이 극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참소하는 말이 세 번 이르면 사랑하는 어머니도 북을 던졌고, 불꽃이 산을 모두 태우면 곤산(崑山)의 옥(玉)도 드디어 불탔다. 선조(先祖)의 고명(顧命)을 받은 원로(元老)가 유사(攸司)에서 죄(罪)를 받았고, 산야(山野)에서 글을 읽은 유신(儒臣)을 당여(黨與)에 몰아 넣었다. 왕손(王孫)이 형벌 아래 죽었으니 행인도 슬픔을 같이하고, 숙장(宿將)이 두우(杜郵)의 억울함을 품었으니, 삼군(三軍)이 얼굴을 가리고 울먹였다. 슬프다! 우리 충성스러운 총재(冢宰)에게도 모함하는 죄명을 가하여, 편비(褊裨)로부터 이서(吏胥)에 이르기까지 속박(束縛)을 가하고 고략(拷掠)을 베풀어서, 비록 의논해 처리하라는 명이 내렸으나, 한결같이 고집하여 억울함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더욱 함부로 단련(鍛鍊)하니, 일곱 곳에 국청(鞫聽)을 설치함은 예전에 듣지 못하였으며, 1백 사람이 갇혀서 한사람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원성(李元成)의 추고(追告)에는 받은 바가 있어 종백(宗伯)이 형벌을 당하는 데 이르렀으니 더욱 참혹하였다. 흉한 칼날을 거두지 아니하여 길욱(吉頊)의 비밀한 그물을 그대로 폈었고, 독사의 독기[虺毒]를 가만히 불었지만, 보국

(輔國)의 살피는 일을 사방에 폈고 오히려 맑은 의논이 그 사이에 나타남에 힘입어 【조지겸(趙持謙)의 일을 가리킨다.】 다행하게도 여러 바른 사람이 모두 죽는 것을 면하였다. 국법으로써 논하면 머리털을 뽑아도 속죄(贖罪)하기 어려운 죄를 지었는데, 맹단(盟壇)을 쌓고 세상에 드물게 있는 의식을 거행하며, 물을 가리켜 맹세하여 동반(銅盤)에 피를 마심을 욕되게 하였고, 하늘을 속일 수 있다고 하여 이름을 철권(鐵券)498) 에 기록하는 데 이르렀으나, 원악(元惡)이 차례로 모두 죽었으니, 하늘도 마치 아는 바가 있는 듯하다. 10년이 거듭 돌아오니 천도(天道)가 순환(循環)하는 이치가 있고, 밤중에 세 번 탄식하니 내 마음에 뉘우쳐 깨닫는 단서를 열었다. 보배로운 거울이 공중에 달렸으니 도깨비가 그 형상에서 도피할 수 없고, 밝은 해가 두루 비치니 깊숙한 골짜기에 봄이 돌아왔다. 무릇 임금을 모르고 나라를 저버리며 무고(誣告)하여 사람을 죄에 빠뜨린 일에 관계한 자는 혹은 변경에 유배하고 혹은 사형에 처하겠으나, 오직 충의(忠義)를 품고 억울함을 머금은 채 운명(隕命)한 자는 혹은 사제(賜祭)하고 혹은 복관(復官)한다. 국시(國是)가 스스로 밝아진 날을 맞이하여, 이미 추록(追錄)을 파(罷)하였고, 억울한 옥사(獄事)를 모두 신설(伸雪)함에 미쳐서 다시 위훈(僞勳)을 깎았다. 이에 보사 공신(保社功臣)을 혁파할 것을 명하여 김석주(金錫胄)·김만기(金萬基)·이입신(李立身)·남두북(南斗北)·박빈(朴嬪)·이사명(李師命)·김익훈(金益勳)·이광한(李光漢)·신범화(申範華)·이원성(李元成)·조태상(趙泰相)에게는 그 녹권(錄券)을 거두고, 그 봉작(封爵)을 빼앗아서 저승의 원통함을 위로하고 국민의 노여움을 조금 풀게 한다. 아아, 깎을 만한 것을 깎으니, 일은 지당(至當)함이 귀하고, 이를 생각하고 이에 마음을 두니, 내가 감히 조금이라도 아끼겠는가? 당일이 거조(擧措)를 미루어 생각하니 진실로 구묘(九廟)의 노여움을 이루었으며, 과궁(寡躬)의 밝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니, 어찌 흉적(凶賊)만을 서로 업신여길 뿐이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그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하는데 천토(天討)를 생전(生前)에 가하지 못하였다. 《주역(周易)》에 '소인(小人)을 쓰지 말라.'고 하였으니, 밝게 경계(警戒)함을 마땅히 후일(後日)에 드리울 것이다.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대제학(大提學) 민암(閔黯)이 지은 것이다. 인하여 공신 교서(功臣敎書)와 녹권(錄券)을 불태웠다.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7월 25일 기미, 1689, 康熙二十八年)

④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보사 공신(保社功臣)을 추복한 교서축(敎書軸)을 반포하고, 이어 중외(中外)에 교서(敎書)를 반포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왕(王)은 말한다. 교언(巧言)은 옳음과 그름을 현혹할 수 있지만 마침내는 일정한 천리(天理)대로 되는 것이고, 대경(大經)은 반드시 공과 죄를 밝혀야 하는 것인데 어찌 오래도록 왕법(王法)이 문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에 다시 주봉(疇封)하고

대강 그 원위(源委)를 밝힌다. 지난 기미년과 경신년에 흉얼(凶孼)들이 생겨 처음에는 근척(近戚)들이 은덕만 믿고 바라서는 안될 일을 노리다가, 마침내 권신(權臣)들이 당(黨)을 만들어 몰래 간사한 역모(逆謀)를 하였는데, 은연중 배치가 이미 이루어져 위태한 화변(禍變)이 곧 터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폐부(肺腑) 같은 보필(輔弼)들이 함께 종사(宗社)를 위해 깊이 근심하며 기회를 보아 알맞게 해 가지 않는 것이 없었고, 좌우의 이목(耳目) 같은 신료(臣僚)들이 모두 능히 사전에 앞질러 염탐하여 알고서 드디어 그 역모(逆謀)의 괴수(魁首)를 제거하여 왕실(王室)을 편안하게 보호했다. 공로에 보답하고 덕을 갚아줌은 본시 나라가 해야 하는 떳떳한 규정인 것으로서, 공신 이름을 내리고 공신전(功臣田)을 줌은 대개 장차 후대에 전해 가며 변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원훈(元勳)들이 잇달아 돌어가자, 그만 저들의 참소가 마구 일어나며 의사(疑似)한 단서(端緖)를 가지고서 처음에는 옥사(獄事)가 외람했다고 지칭(指稱)하는 것 같다가, 터무니없는 흉계를 꾸며 공공연히 방무(邦誣)라고 지척(指斥)하여 실정을 자백하고 죄를 받았던 무리들이 모두 용서받는 자리로 돌아가고, 가재(家財) 적몰(籍沒)과 연좌(連坐)의 율(律)이 도리어 동맹(同盟)한 사람의 집에 시행되었다. 특히 뒤에 가서 역적들을 위해 보복(報復)을 한 그 마음은 곧 그 당시의 공정(公正)을 배반하고 결탁하는 짓을 한 본래의 작태(作態)인 것인데, 진실로 과인(寡人)이 암매(暗昧)하여 가만히 앉아서 가리워져 속았기 때문에, 고아와 홀어미가 귀양가 원통을 씻지 못한 채 황천에 가게 되고, 피와 살이 낭자(狼藉)하여 형벌을 받는 화가 특히 참혹하였으므로 국가의 떳떳한 법이 버려지고 온 나라 대중의 심정이 분개하고 답답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록 단서(丹書)와 철권(鐵券)은 뭉개버릴 수 있어도 사적(事蹟)은 그대로 있고, 태산(泰山)과 황하(黃河)처럼 변함없기를 맹세했던 말은 아직도 굳건하기에, 경장(更張)하는 날에 깊이 회오(悔悟)하는 충심(衷心)을 털어놓고, 《춘추(春秋)》의 무장(無將)의 법을 밝히려고 경중(輕重)을 가려 죄악을 처벌하였고, 종정(鍾鼎)에다 없어지지 않는 전거(典據)를 마련하려고 등급을 정하여 공을 기록하였으며, 모토(茅土)에도 고례(古例)대로 이름을 붙여 탕목(湯沐)하게 하고, 운대(雲臺)에는 단청(丹靑)으로 화상을 그려 생전의 면목이 완연하게 하여, 지하(地下)에서라도 원통함이 모두 풀어지고, 신명(神明)과 인간이 서로 통쾌하도록 했다. 흉악한 무리들의 정절(情節)과 모든 신하들의 충성·근로에 있어서는 이미 반포한 교서축(敎書軸)에다 자세히 논했기에 여기 거듭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아, 천지가 비색(否塞)했다가 마침내 태평해진 지 이제 6년이니, 풍운(風雲)이 만나 상종(相從)해야 할 것인데 구원(九原)이 멀기만 하다. 애석하게도 이 아름다운 기회를 보게 할 수 없으므로 나의 비통한 마음이 배나 간절하다. 이에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 갈 상전(賞典)을 내리며 국가와 휴척(休戚)을 함께 하게 하는 것이니, 마땅히 국가에 몸을 바치는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시(敎示)

하니, 마땅히 알리라 여긴다." 하였다. 【대제학 박태상(朴泰尙)이 지어 올린 것이다.】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10월 12일 병오, 1694, 康熙三十三年)

조사본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는 장서각에 소장된 <二十功臣會盟軸> 2종 가운데 하나이다. 회맹축은 비단보자기에 싸여 옻칠을 한 栢子板의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회맹축은 여백을 포함한 세로 88.8cm, 가로 2.414cm의 긴 두루마리이다. 표지에는 사주단변의 첨지에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라 인쇄된 제첨이 부착되어 있다. 보관할 때의 표면이 될 부분에는 다홍문(多紅紋) 비단으로 마감되어 있고, 3cm 폭의 표죽은 남색비단으로 싸여 있다. 표죽의 한가운데에 紅眞絲의 卷緖가 있어 회맹축을 말아놓으면 다홍문 비단의 表만 드러난다. 전후의 縹는 길상문이 있는 남색 비단이고, 四周邊兒는 白花紋 비단이다. 목재의 축봉 길이는 15.2cm, 양단에는 지름 14.1cm의 둥근 白玉으로 마감되어 있다. 권두의 서명은 '二十功臣會盟軸'이다. 본문은 生綃에 상하 66.6cm의 정교한 주사란 내에 해서로 정성스럽게 묵서되어 있다. 어휘(御諱)에는 다홍색 비단을 부첨하여 피휘되어 있다.

교서의 내용은 회맹문을 앞에 두고 이어 회맹록과 종묘제축문(宗廟祭祝文)을 두었다. 회맹문은 숙종 6(1680)년 경신환국 이후 보사공신을 녹훈하고 8월30일에 지낸 공신

회맹제의 제문으로 그 전문이 숙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이 단소(壇所)에 나아가서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하였는데, 그 서문(誓文)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 신 성(姓) 모(某)는 개국 정사 좌명 정난 좌익 적개 익대 좌리 정국 광국 평난 호성 선무 청난 정사 진무 소무 영사 영국 보사 공신(開國定社佐命靖難佐翼敵愾翊戴佐理靖國光國平難扈聖宣武淸難靖社振武昭武寧社寧國保社功臣)과 그 자손 등을 삼가 거느리고 천지(天地)·사직(社稷)·종묘(宗廟)·산천(山川)·백신(百神)의 영(靈)께 감히 밝게 고합니다.
빛나는 우리 왕조는 열조(列祖)에서 덕이 높은 임금이 잇달아 나와 반근(盤根)이 대대로 뻗어가고 천명(天命)이 끝이 없으니, 세상에 크고 밝은 이름이 있고 공훈(功勳)이 왕실(王室)에 있으므로, 금석(金石)에 새겨 아름다움을 후세에 전해 주고 죽소(竹素)443) 에 실어 아름다움을 빛내어야 할 것이다. 아! 금일에 난적(亂賊)이 법도를 어기면서 흉도(兇徒)를 모으고 역적을 기르니, 전사(前史)에 듣지도 못하였도다. 시랑(豺狼) 같은 본성이 가까이 지친(至親)에게서 나왔으며, 효경(梟獍) 같은 독(毒)이 권신(權臣)에게서 슬그머니 나타나서, 오초(吳楚) 7국(國)처럼 같이 나라를 간범(奸犯)하였으나, 아름답고 빛나게 그 악독함을 구제하였도다. 둔군(屯軍)을 깊은 산골짜기에 설치하고, 남몰래 말이 많은 무리들을 사주(使嗾)하여 체부(體府)를 다시 설치하고, 군권(軍權)을 마음대로 농락하려고 도모하니, 서리를 밟는[履霜] 조짐이 점차로 얼음이 얼어붙는[氷堅] 지경에 이르렀다. 심복(心腹)이 두루 포진하고 기아(機牙)가 조밀하게 펼쳐지자, 호복(胡服)을 거짓으로 입고서 왕장(王章)을 찬탈하기를 계획하고, 흉도(兇徒)와 체결(締結)하여 신기(神器)를 엿보았다. 하늘[天]을 가리켜 활을 쏠 수 있다고 하고, 날짜를 약속하고 군사들에게 연향(宴饗)하니, 화기(禍機)의 참혹함이 목전에 가까이 있었고, 종사의 위험함이 경각에 임박하여 있었다. 한두 신하에 의뢰하여, 휴척(休戚)을 나라와 더불어 같이 하면서 선기(先機)를 예리하게 살피고서, 의리에 의지하고 충의(忠義)에 분발하여, 이에 조아(爪牙)를 시켜서 분주하게 힘쓰고 노력하게 하니, 수간(銖姦)이 반드시 알고 귀역(鬼蜮)이 도망하지 못하였다. 이에 흉얼(凶孼)을 사로잡아서 숙문(淑問)하자 자복하였으므로, 천토(天討)가 이미 시행되니, 경관(京觀)이 이미 쌓여지고 추악한 기운이 깨끗하게 쓸어 없어져서, 나라의 운수가 반석(盤石)과 같이 되었다. 비괘(否卦)를 뒤엎어 태괘(泰卦)로 바꾸고, 위기를 바꾸어 곧 평안해지니, 국운이 오르내리는 때에 빛나게 임하고 신명(神明)에 간절하게 의지하여, 나라를 광복(匡復)하

는 데 협찬(協贊)함은 실로 그 충정(忠貞)에 힘입었도다. 나는 오로지 그대들의 공덕(功德)을 돈독하게 여겨 잊지 아니하며 공렬(功烈)을 표창하는 데 아주 부지런하기를 힘쓴다. 옛날에 이장(彝章)이 있어서 황하(黃河)·태산(泰山)도 또한 한지(漢志)에 기록하였는데, 대개 이러한 은전(恩典)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뜻을 정표(旌表)하여 큰 작호(爵號)를 게시(揭示)하고, 사직을 보존하도록 명한다. 나누어 봉(封)하고 토지를 하사하는데, 선대(先代)에 주어 후대에까지 미치게 하여, 경사(慶事)와 상작(賞爵)이 곧 풍성하고 두터운 은혜가 깊고 넓게 미치게 한다. 이에 현단(玄壇)을 닦고 경건히 밝은 맹세(盟誓)를 올리는데, 이 강렵(剛鬣)을 삽혈(歃血)하면서 같이 백수(白水)를 가리키는 바이다. 구덕(舊德)의 남은 후손들이 또한 모두 모였으니, 오직 충성하고 오직 효도하여 백대(百代)에 이르도록 무너지지 말라. 진실로 이 맹세를 어기면 신(神)이 실지로 이에 임할 것이다. 삼가 희생(犧牲)과 예주(醴酒)로써 이에 밝은 천신(薦新)을 베푸는 바이다." 하였다. 임금이 행례(行禮)를 마치고 막차(幕次)로 돌아왔다.

표. 보사공신회맹제 참석 인원

참석여부		인원	비고
참석		412명	
불참	身病未參秩	36명	
	在喪未參秩	28명	
	發病未參秩	6명	
	年幼未參秩	5명	
	邊將在外未參秩	1명	
	被謫未參秩	1명	
총		489명	

(全炅穆 · 朴用萬,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2009. 표 재인용)
(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 8월 30일 병술, 1680, 康熙十九年)

회맹문의 끝에는 "朝鮮國王臣李"라 적었는데 휘(諱)에는 다홍색 비단을 부첨하여 피휘하였다. 회맹문에 이어서 보사공신 1등으로 책훈된 金萬基 · 金錫胄를 시작으로 ,회맹에 참석한 功臣·功臣嫡長子孫의 君號, 功臣號, 職銜, 姓名이 기록된 명단이 실려 있다.

회맹축에 기록된 인원은 참석자 412명, 미참자 77명, 합 489명이다. 회맹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身病 · 在喪 · 癈病 · 年幼 · 邊將在外 · 被謫의 경우이다. 명단에 이어 '康熙十九年 八月日'이란 연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어 숙종 20(1694)년 6월에 작성한 「復勳時告宗廟祭祝文」이 있다. 말미에 '康熙三十三年十月日'란 연기가 기

록되고, 다음 행에 細筆로 '己巳罷勳 甲戌夏勳'이라 기록되었는데, 이 두 행 위에 10.2cm, 가로 10.3cm의 「施命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이는 경신년에 녹훈되고 기사환국으로 삭훈되었다가 갑술환국으로 다시 복훈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어람회맹축의 필사자는 李翊信이다. 그는 숙종 7(1681)년 4월 청에서 온 勅使 영접시에 차출되기도 한 능서가였다.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ㅇ 문헌자료

이상식, 「숙종대 보사공신의 녹훈 과정과 사회적 관계망 분석」. 『한국사연구』 155. (2011)
전경목·박용만, 「〈이십공신회맹축〉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2009)

□

ㅇ 현 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의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은 숙종 20(1694)년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서인이 숙종 15(1689)년 기사환국으로 罷勳된 보사공신을 復勳하고 개국공신 이하 보사공신까지 20공신의 본공신과 사망한 공신은 그 적장자 또는 衆子나 적장손이 모여 회맹하하였는데, 이때의 盟文과 참여자 및 종묘 祭祝文을 모은 것이다.

<서지사항>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 / 復勳都監(朝鮮) 編.
筆寫本. [肅宗 20(1694)年] 88.8㎝ × 2.414㎝.
1軸. 四周單邊. 有界.

表紙書名 :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
印 : 施命之寶.

ㅇ 내용 및 특징

조선에서 공신회맹을 한 것은 태조 1(1393)년 9월 28일 개국공신과 왕세자가 회동하여 忠孝契를 조직하고 王輪洞에서 맹세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공신을 책록한 후 임금이 공신들과 모여서 하늘과 성황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국왕에게 충성할 것을 하늘에 맹세하는 공신회맹제를 거행하고, 그 사실과 공신들의 성명 및 직위를 기록하여 회맹록을 만들었다. 옛 공신의 嫡長子孫과 새로운 공신이 참석하는데, 참석자는 모두 회맹록에 올리고 恩典을 내리거나 상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참석자는 회맹록에 수결을 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한 공신의 手決은 공백으로 두었다.

지정 신청된 조사대상은 “二十功臣會盟軸” 2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의 20공신은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 保社 功臣을 가리킨다. 이는 인조 연간 회맹축의 20공신과 차이가 있다. 인조 연간 회맹축에 보이는 20공신에 보사공신이 녹훈되면서 21공신이 되어야 하나, 李顆의 역모를 평정한 중종 연간 定難功臣이 인조 연간 寧國功臣 녹훈 이후 삭훈되어 역시 20공신이 된 것이다.

지정 신청된 회맹축은 서인이 다시 집권한 숙종 20(1694)년 6월에 保社功臣을 복훈한 후 작성한 회맹축이다. 숙종 6(1680)년 4월에 외척인 金錫胄가 남인 許積의 서자인 許堅이 福昌君 · 福善君 · 福平君과 함께 역모한다고 고발한 경신대출척으로 남인 세력은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경신환국’이다. 이때의 공으로 5월에 공신을 책록했는데, 이들이 보사공신이다. 1등에 金萬基 · 金錫胄, 2등에 李立身, 3등에 南斗北 · 鄭元老 · 朴斌이 녹훈되었다. 이중 鄭元老는 역모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6월에 伏誅되고 삭훈되었다. 8월30일 임금이 壇所에 나아가서 회맹제를 거행하고, 환궁하여 숭정전에서 보사공신의 교서축을 반포하였다. 11월에는 대신들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영의정 김수항과 이조판서 김석주와 상의하여 李師命 · 金益勳 · 趙泰相 · 申範華를 2등공신, 李光漢 · 李元成을 3등공신에 추록시켰다. 숙종 15(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경신환국을 誣獄이라고 주장하여 보사공신은 삭훈되었다. 숙종 20(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자 罷勳시켰던 공신을 다시 復勳시켰다. 이 과정에서 숙종이 훈척을 중심으로 친위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녹훈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의지를 관철시키려 했던 배경이 있었다.

조사대상의 어람본 회맹축은 비단보자기에 싸여 옻칠을 한 栢子板의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회맹축은 여백을 포함한 세로 88.8cm, 가로 2.414cm의 긴 두루마리이다. 표지에는 사주단변의 첨지에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追復敎書)’라 인쇄된 제첨이 부착되어 있다. 보관할 때의 표면이 될 부분에는 多紅紋 비단으로 마감되어 있고, 3cm 폭의 褾竹은 남색비단으로 싸여 있다. 표죽의 한 가운데에 紅眞絲의

卷緖가 있어 회맹축을 말아놓으면 多紅紋 비단의 表만 드러난다. 전후의 縹는 吉祥紋이 있는 藍色 비단이고, 四周邊兒는 白花紋 비단이다. 목재의 軸棒 길이는 15.2cm, 양단에는 지름 14.1cm의 둥근 白玉으로 마감되어 있다. 권두의 서명은 '二十功臣會盟軸'이다. 본문은 生綃에 上下 66.6cm의 정교한 朱絲欄 내에 楷書로 정성스럽게 墨書되어 있다. 御諱에는 다홍색 비단을 付籤하여 피휘되어 있다.

내용은 二十功臣會盟文, 二十功臣會盟錄, 宗廟祭祝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맹문은 숙종 6(1680)년 庚申換局 이후 保社功臣을 녹훈하고 8월30일에 지낸 공신회맹제의 제문이며, 회맹록은 회맹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명단에는 국왕 이하 회맹에 참석한 功臣·功臣嫡長子孫의 君號, 功臣號, 職銜, 姓名이 기록된 명단이 실려 있다. 회맹축에 기록된 인원은 참석자 412명, 미참자 77명, 합 489명이다. 회맹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身病 · 在喪 · 癈病 · 年幼 · 邊將在外 · 被謫의 경우이다.

명단에 이어 '康熙十九年 八月日'이란 연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어 숙종 20(1694)년 6월에 작성한 「復勳時告宗廟祭祝文」이 있다. 말미에 '康熙三十三年十月日'란 연기가 기록되고, 다음 행에 細筆로 '己巳罷勳 甲戌夏勳'이라 기록되었는데, 이 두 행 위에 10.2cm, 가로 10.3cm의 「施命之寶」가 검인되어 있다. 이는 경신년에 녹훈되고 기사환국으로 삭훈되었다가 갑술환국으로 다시 복훈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어람회맹축의 필사자는 李翊信이다. 그는 숙종 7(1681)년 4월 청에서 온 勅使 영접시에 차출되기도 한 능서가였다.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ㅇ 문헌자료

이상식, 「숙종대 보사공신의 녹훈 과정과 사회적 관계망 분석」. 『한국사연구』 155. (2011)

전경목·박용만, 「〈이십공신회맹축〉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22. (2009)

Ⅳ.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7-013

13. 고려사(高麗史)

가. 검토사항

‘고려사’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고려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9.4.3.)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10.5.) 및 보완조사(’20.10.21./11.10./11.24.)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연번	지정현황	명 칭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수량 (판종)	조성 연대
1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4호 (2010.9.20.)	고려사 (高麗史)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139권 75책 (목판본)	1613년 (광해군5) 간, [17 - 18세기] 후인
2	비지정	고려사 (高麗史)	국 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31권 43책 금속활자본 (을해자)	1482년 (성종 13)
3					98권 32책 금속활자본 (을해자)	1482년 (성종 13)
4					139권 85책 (목판본)	1613년 (광해군 5) 간, [초인]
5					139권 85책 (목판본)	1613년 (광해군 5) 간, [초인]
6	비지정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도서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139권 33책 (목판본)	1613년 (광해군 5) 간, [17-18세기] 후인

○ 수　　량 : 대상목록 참조
○ 규　　격 : 대상목록 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목판본
○ 형　　식 : 선장본

라. 조사배경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려사(高麗史)』(139권 75책) 에 대한 국가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4.3.)과 그에 대한 1차 조사('20.10.5.) 결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및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된 동일 자료에 대한 일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10.21), 연세대 도서관(11.10) 및 동아대 석당박물관 보완조사(11.24.)가 추진되었다.

조사 결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1482년(성종 13) 간행되었던 을해자(乙亥字) 판본 2종 및 1613년(광해군 5)에 목판 번각 후 인출하여 사고(史庫)에 봉안되었던 태백산사고본 및 오대산사고본 2종이 확인되었고, 연세대 도서관에서는 조선 말기의 유학자인 최한기(崔漢綺, 1803~1877) 소장본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1종 및 합본 1종 등 2종이 확인되어 비교 검토하였다.

마. 대상목록

금번 조사한 3개 기관 소장 『고려사』의 서지사항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표1] 『고려사』의 서지사항

소장처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비고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을해자 (乙亥字)	1482년 (성종13)간	46책(139권)	전체 30.8×18.4내외 반곽 21.7×14.5내외	目錄(上下), 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권1~137 중 아래 8권을 제외한 나머지가 을해자본 권19~21(필사) 권73~74(필사) 권81~83(필사)
					奎貴5553
			32책 (98권)	전체 30.8×18.4내외 반곽 21.7×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 進高麗史箋 결본다수

소장처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비고
					奎貴5554
	목판본 (木版本)	1613년 (광해군5)간, [초인]	85책 (139권)	전체 34.4×21.0내외 반곽 20.3×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奎貴3539
			85책(139권)	전체 34.4×21.0내외 반곽 20.3×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奎貴3579
동아대 석당박물관	목판본 (木版本)	1613년 (광해군5)간, [17 - 18세기] 후인	75책(139권)	전체 27.5×18.3내외 반곽 19.6×14.2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02312
연세대 중앙도서관	목판본 (木版本)	1613년 (광해군 5) 간, [17-18세기] 후인	33책(139권)	전체 29.0×18.7내외 반곽 20.3×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권122-123의 1책은 필사본으로 보충
					951.4 /복-나
			72책(139권)	전체 30.2×19.5내외 반곽 19.7×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후대 합질본
					951.4 /복-가

『고려사』는 고려시대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모두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사』의 역사적 가치로서 우선 사료적 중요성을 들 수 있다.

紀傳體로 된 고려의 正史로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사료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역대 正史를 비롯하여, 고려의 역대 實錄과 金寬毅의 『編年通錄』, 閔漬의 『編年綱目』, 李齊賢의 『史略』, 李穡·李仁復의 『金鏡錄』, 崔允儀의 『古今詳定禮』·『式目編修錄』·『蕃國禮儀』, 李齊賢의 『益齋亂藁』·『櫟翁稗說』, 金九容의 『周官六翼』 등 지금은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술하

였던 사실은 史料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歷史學的인 가치이다. 편찬과정 중 수차의 개수 경위는 直書主義를 견지하는 가운데 고려시대의 原史料를 그대로 수록하고자 하는 역사서술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내용상 <本紀>를 두지 않고 <世家>를 두었으나, '宗'·'陛下'·'太后'·'太子'·'節日'·'制詔'와 같은 칭호를 제후의 명분에 맞게 改書하지 않고 사실대로 直書한다는 원칙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서이다.

세 번째는 문화사적인 가치이다. <世家>에 기록된 '圓丘'·'籍田'·'燃燈'·'八關' 등의 군주가 親行한 행사 등의 사실과 <志>에 수록된 고려의 제도와 관련된 풍부한 자료에 있다. 특히 <志>의 머리에 실려 있는 序文은 편찬자들의 高麗史에 대한 인식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려의 제반 제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해 주고 있으며, 제도의 서술에 있어서 형식적인 분류에서 벗어나 『古今詳定禮』 등 많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던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마지막 文獻學的 중요성이다. 『고려사』는 『국조보감(國朝寶鑑)』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의 기록에 의하여 1454년(단종 2)에 간행되어 널리 반포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되었던 판본과 이후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 번각 목판본으로 다시 찍은 판본이 고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몇 종의 목판본이 판각 인출되었으나 그 시기는 상세하지 않다.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판본들은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랜 활자본 및 목판 번각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 간행 시기는 물론 판식과 장정의 비교를 통해서 해당 시기의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인쇄기술사적인 면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고려사』에 대한 일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 가운데 지정 대상은 크게 세 유형에 해당한다. 첫 번째 유형은 1482년(성종 13)에 '乙亥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두 번째는 1613년(광해군 5) 판각된 '乙亥字' 목판 번각본의 초인본이다. 세 번째는 1613년(광해군 5) 판각된 '乙亥字' 목판 번각본의 후인본 등이다. 이 중에서 지정 대상과 수량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지정 대상 선정

연번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비고	소장처
1	을해자 (乙亥字)	1482년 (성종13)간	43책 (131권)	전체 30.8×18.4내외 반곽 21.7×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후대 필사 보충된 권19-21, 73-74, 81-83 등 8권 3책은 제외함	서울대 규장각

연번	판종	간행시기	수량	규격(cm)	비고	소장처
					奎貴5553	
2	을해자 (乙亥字)		32책 (98권)	전체 30.8×18.4내외 반곽 21.7×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소장 권수) 권9-16, 권23-25, 권29, 권35, 권40-52, 권56-70, 권75-76, 권79-82, 권86-124, 권129-137.	
					奎貴5554	
3	목판본 (木版本)	1613년 (광해군5) 간, [초인]	85책 (139권)	전체 34.4×21.0내외 반곽 20.3×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奎貴3539	
4	목판본 (木版本)		85책 (139권)	전체 34.4×21.0내외 반곽 20.3×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奎貴3579	
5	목판본 (木版本)	1613년 (광해군5) 간, [17-18세기] 후인	75책 (139권)	전체 27.5×18.3내외 반곽 19.6×14.2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동아대 석당박물관
					02312	
6	목판본 (木版本)	1613년 (광해군 5) 간, [17-18세기] 후인	33책 (139권)	전체 29.0×18.7내외 반곽 20.3×14.5내외	目錄(上下)·世系·凡例·進高麗史箋 권1-137	연세대 도서관
					951.4 /복-나	

우선 『고려사』 판본으로 현재 전하는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乙亥字' 인출본 두 종은 모두 포함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貴5553'과 '奎貴5554' 는 표지의 개장과 장정, 판식 등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본래 각각 전해지던 판본 가운데 하나의 완질을 구성한 후 별도의 한 질을 추가로 모아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奎貴5553'에 없는 을해자본의 해당 권 및 약간의 손상 부분을 '奎貴5554'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다만, '奎貴5553' 전체 46책 139권 가운데 후대에 필사한 것으로 보완한 권19~권21, 권73~권74, 권81~권83 등 3책 8권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 판본으로 판단되는 43책 131권만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한편, 1613년(광해군 5) 을해자본의 번각본을 인출한 조사 대상본 가운데 규장각 소장본인 태백산사고본과 오대산사고본은 인출된 이후 사고에 봉안되었던 중요 서적으로서 간행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간행에 사용된 인출지와 장정 그리고 표지의 면지에 기록된 內賜記와 '宣賜之記' 印 등 조선의 서적 정책과 인쇄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또한 을해자본의 번각본인 동아대본과 연세대 전 최한기 수택본은 규장각의 태백산 사고본 및 오대산 사고본과 비교할 때 인출상태 및 장정 상태에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나, 이미 오래전부터 현재 전하는『고려사』의 완질본으로서 그동안 영인·발간 및 국역(國譯)의 저본으로 활용되어 왔던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1955년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에서 도서관에 소장된 '전 최한기(崔漢綺) 수택본(手澤本)'을 3책으로 영인하고, 색인 1책을 출판하였다. 1971년에는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에서 석당박물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국역 사업을 추진하여 국역본 11책과 색인 1책을 간행하였다. 또 이 판본들은 규장각에 전하는 을해자 판본과의 비교 그리고 태백산 사고본 및 오대산 사고본과의 편제 형식의 차이 등 학술적인 검토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들 판본들은 을해자로 인출된 원 간본과 을해자본의 번각본(완질본)으로 분류하여 보물로 지정하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20. 12. 5.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종합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정창손(鄭昌孫, 1402~1487) 등이 1451년(文宗 1)에 기전체로 찬진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의 하나이다. 또한『고려사』는『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와 함께 고려시대에 관한 각 방면의 연구에서 기본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고려사』는 조선시

대에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일정한 주관과 제약이 가해진 2차적인 성격을 지닌 사료이긴 하나, 『고려실록』 등의 각종 고려시대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직서(直敍)를 원칙으로 하여 편찬된 것이다.

고려사는 총 139권으로서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사』에는 이 외에도 정인지가 찬한 「진 고려사 전(進高麗史箋)」, 태조의 선대의 사적을 실은 「고려세계(高麗世系)」, 고려사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인 「수사관(修史官)」, 서술원칙을 담은 「찬수 고려사 법례(纂修高麗史凡例)」가 수록되어 있다. 권1～권46은 세가로서 태조대에서 공양왕대까지의 각 왕대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우왕·창왕대의 기사는 세가가 아니라 열전에 수록되어 있다. 권47～85는 지로서, 권47～권49는 천문지(天文志), 권50～권52는 역지(曆志), 권53～권55는 오행지(五行志), 권56～권58는 지리지(地理志), 권59～권69는 예지(禮志), 권70～권71는 악지(樂志), 권72는 여복지(輿服志), 권73～권75는 선거지(選擧志), 권76～권77은 백관지(百官志), 권78～권80은 식화지(食貨志), 권81～권83은 병지(兵志), 권84～권85는 형법지(刑法志)이다. 권86～권87은 표로서 연표(年表)가 수록되어 있다. 권88～권137은 열전으로, 권88～권89는 후비전(后妃傳), 권90～권91은 종실전(宗室傳), 권92～권120은 일반열전(一般列傳), 권121은 양리(良吏)·효우(孝友)·열녀(烈女), 권122는 방기(方技)·환자(宦者)·혹리(酷吏)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123～권125는 폐행전(嬖幸傳), 권125～권126은 간신전(姦臣傳), 권127～권137은 반역전(叛逆傳)에 해당한다.

『고려사』의 편찬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고려국사(高麗國史)』: 1392년(태조 원년) 10월에 착수하여 1395년 정월에 완성된 것으로, 태조의 명을 받아 정도전과 정총이 편찬하였다. 편년체 사서로 37권에 달한다. 이 책은 현전하지 않는다.

• 제1차 개수: 1414년(태종 14) 5월에 『고려국사』의 필법이 부실하다고 하여, 하륜·남재·이숙번·변계량 등은 태종의 명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1416년 하륜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되었다. 그 후 세종은 1419년(세종 원년) 9월 류관·변계량 등에게 개수를 명해, 1421년(세종 3) 정월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 1423년 12월에 류관·윤준에게 명하여 다시 개수하게 하여 다음 해 8월에 완성된 것이다. 참칭한 용어의 직서를 강경히 반대하는 변계량의 주장으로 반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 1438년(세종 20)에서 1442년(세종 24) 사이에 신개와 권제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고려사전문』은 인쇄까지 되었으나, 교정 과정에서 역사 기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반포가 중단되었다.

•『고려사』: 세종은 1449년(세종 31) 정월 김종서, 정인지, 이선제 등에게 개찬을 명하였다. 이때에는 사체의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어, 김종서 등은 세자(뒤에 문종)와 함께 왕에게 건의해 기전체로 편찬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리하여 1451년(문종 원년) 8월에 기전체 사서로 완성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고려사』이다.

문종 원년에 편찬된 고려사는 1452년(단종 즉위년)에 인쇄되었다. 당시에는 소량만이 인간(印刊)되어 내부(內府)에 보관되었다. 이때 인간된 고려사는 활자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 남아 전하는 것이 없다. 규장각에 전하는 奎貴5553, 奎3467, 奎貴5554, 奎5874 그리고 6면만 남은 奎26637 등은 成宗 13년 즉 1482년 2월 梁誠之의 상소로 印出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을해자본 5종은 모두 완질본이 아니나, 초기 주자본의 원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해되고 있다.

임진왜란 시에 각종 전적들이 소실된 것을 계기로 하여, 광해군 2년에『고려사』의 추가 인쇄를 추진하였다. 이때『고려사』의 추가 인쇄는 을해자본을 인쇄 반포하는 식이 아니라 을해자본을 복각한 목판본을 제작 반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612년(광해군 4)에도 판각 작업은 진행되고 있었고, 목판본『고려사』의 반포는 이 무렵에 이루어진 듯하다. 복각 목판본은 을해자본과 비교하면 군데군데 자구의 차이가 있다. 을해자본을 대상으로 한 교정이 이루어진 결과다. 거꾸로 을해자본의 맞는 글자가 목판본에서 틀린 글자로 바뀐 경우도 있다. 을해자본의 복각목판본은 현재 여러 종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서울대 규장각, 연세대 도서관, 동아대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은 인쇄 시기와 상태는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 판목을 사용한 인쇄본이다.

현재 알려진 『고려사』는 1908년 日本國會刊行會에서 活版本으로 간행한 것, 1948년 국제신문사에서 서울대 소장 木板本으로 ＜世家＞부분만 영인 간행한 것, 1955년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에서 木板本으로 영인 간행한 것, 1972년 亞細亞文化社에서 乙亥字本으로 간행한 것이 있다. 첫머리에 鄭麟趾가 찬한 「進高麗史箋」, 태조의 3대조의 사적을 실은 「高麗世系」, 찬수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실은 「修史官」, 서술 원칙을 담은 「纂修高麗史凡例」 및 「目錄 上·下」 등이 수록되었는데, 책에 따라 순서의 차이가 보이고 있다.

조사가 이루어진 소장처별 판본의 내용과 서지적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을해자본 (奎貴5553)

○ 규　　격 : 30.8×18.4cm 내외 / 반곽21.7×14.5cm내외
○ 수　　량 : 46책(139권)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을해자)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82년(성종13)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활자본이다. 총 46책(139권)으로 제1책에는 '目錄上', '目錄下', '高麗世系', '凡例', '進高麗史箋', '修史官' 이 수록되었고, 권1～권46(2책～15책)에는 '世家', 권47～권85(16책～30책)에는 '志', 권86～권87(31책)에는 '表', 권88～권137(32책～46책)에는 '列傳'을 수록하여 완질을 이루고 있다.
다만, 46책 가운데 권19～권21(8책), 권31～권33(12책), 권73～권74(26책) 등 3책(8권)은 필사본으로 대체되어 있고, 권65와 권66의 일부가 부분 결락된 상태이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표지 가운데 일부에서 '공사십칠(共四十七)'이란 묵서가 확인되고 있어 본래 46책이 아닌 47책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책의 표지는 본래의 원상이 아닌 개장된 상태이다. 또한 표제의 서체는 초서와 행서의 두 형식이 있고, 표제의 형식에서도 서제(書題)만 쓴 경우와 서제와 권차(卷次)를 모두 쓴 형식 등 다른 양상이 섞여 있어 각각 전해지던 판본을 모아 한 질로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책등에는 '인(釼)'과 '우(雨)'라는 글자가 묵서로 쓰여져 있는데, 책의 전래 과정 중 소장자와 관련된 정보로 추정된다.

책의 크기는 30.8×18.4cm 내외이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21.7×14.5cm 내외이다. 界線이 있으며 9행 17자 소자쌍행으로 되어 있다. 版口는 白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표제는 제첨을 붙이지 않고 '高麗史' 또는 '麗史' 그리고 내용상 분류인 '志' 등을 묵서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특기할 점은 표지 가운데 일부 書腦部에 '共四十七'이라 하여 총책수를 47책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다. 현재 전하는 책 가운데 권33～권34는 서로 다른 전래본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를 보여 주는데, 이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奎貴5553'은 을해자 판본 가운데 상태가 좋은 책을 중심으로 한 질을 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고려사』 판본으로 현재 전하는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乙亥字' 인출본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책등 [서배] 인(釼)/우(雨)

奎貴5553

進高麗史箋 (1책)

표지 (麗史 / 高麗史 / 高麗史 八十一之三)

[표3] 규장각 을해자본(奎貴5553) 목록

책	권	비고
1	目錄 上, 下, 高麗世系, 凡例, 進高麗史箋, 修史官 명단	
2	권1, 2, 3 (世家 1, 2, 3)	
3	권4, 5, 6 (世家 4, 5, 6)	
4	권7, 8, 9 (世家 7, 8, 9)	
5	권10, 11, 12 (世家 10, 11, 12)	
6	권13, 14, 15 (世家 13, 14, 15)	
7	권16, 17, 18 (世家 16, 17, 18)	
8	권19, 20, 21 (世家 19, 20, 21)	필사본
9	권22, 23, 24 (世家 22, 23, 24)	
10	권25, 26, 27 (世家 25, 26, 27)	
11	권28, 29, 30 (世家 28, 29, 30)	
12	권31, 32, 33, 34 (世家 31, 32, 33, 34)	
13	권35, 36, 37, 38 (世家 35, 36, 37, 38)	

책	권	비고
14	권39, 40, 41 (世家 39, 40, 41)	
15	권42, 43, 44, 45, 46 (世家 42, 43, 44, 45, 46)	
16	권47, 48 (志 1, 2)	
17	권49, 50 (志 3, 4)	
18	권51, 52 (志 5, 6)	
19	권53, 54 (志 7, 8)	
20	권55, 56, 57 (志 9, 10, 11)	
21	권58, 59, 60 (志 12, 13, 14)	
22	권61, 62 (志 15, 16)	권62 일부 결락
23	권63, 64, 65 (志 17, 18, 19)	권65 일부 결락
24	권66, 67, 68 (志 20, 21, 22)	권66 일부 결락
25	권69, 70, 71, 72 (志 23, 24, 25, 26)	
26	권73, 74 (志 27, 28)	필사본
27	권75, 76 (志 29, 30)	
28	권77, 78, 79, 80 (志 31, 32, 33, 34)	
29	권81, 82, 83 (志 35, 36, 37)	필사본 권81·82는 <奎貴5554> 제18책으로 보완 가능
30	권84, 85 (志 38, 39)	
31	권86, 87 (表 1, 2)	
32	권88, 89, 90 (列傳 1, 2, 3)	
33	권91, 92, 93, 94 (列傳 4, 5, 6, 7)	
34	권95, 96, 97, 98 (列傳 8, 9, 10, 11)	
35	권99, 100, 101, 102 (列傳 12, 13, 14, 15)	
36	권103, 104, 105 (列傳 16, 17, 18)	
37	권106, 107, 108, 109 (列傳 19, 20, 21, 22)	
38	권110, 111, 112 (列傳 23, 24, 25)	
39	권113, 114, 115 (列傳 26, 27, 28)	
40	권116, 117, 118 (列傳 29, 30, 31)	
41	권119, 120, 121 (列傳 32, 33, 34)	
42	권122, 123, 124, 125 (列傳 35, 36, 37, 38)	
43	권126, 127, 128 (列傳 39, 40, 41)	
44	권129, 130, 131 (列傳 42, 43, 44)	
45	권132, 133, 134 (列傳 45, 46, 47)	권132 일부 결락
46	권135, 136, 137 (列傳 48, 49, 50)	

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을해자본(奎貴5554)

○ 규　　격 : 30.8×18.4cm 내외 / 반곽21.7×14.5cm내외
○ 재　　질 : 저지(楮紙)
○ 수　　량 : 32책(98권)
○ 판　　종 : 금속활자본(을해자)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82년(성종13)

을해자로 간행된 활자본이다. 총 32책(98권)으로 전체 139권 가운데 41권이 없는 零本이다. 제1책에는 '目錄上', '目錄下', '高麗世系', '凡例', '進高麗史箋', '修史官'이 실려 있다. 현재 전하는 부분은 권9～권16(2책～3책), 권23～권25(4책), 권29(5책), 권35(5책), 권40～권52(6책～10책), 권56～권70(11책～15책), 권75～권76(16책), 권79～권82(17책～18책), 권86～권124(19책～29책), 권129～권137(30책～32책)에 해당한다.

32책 가운데 권101과 권104 등 일부 책에서 약간의 손상이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책의 크기는 30.8×18.4cm 내외이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21.7×14.5cm 내외이다. 界線이 있으며 9행 17자 소자쌍행으로 되어 있다. 版口는 白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표제는 제첨을 붙이지 않고 '高麗史' 또는 '麗史'라 묵서한 두 유형이 있다.

한편 책의 표지 상태 및 서체를 '奎貴5553'과 비교할 때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각각 전해지던 판본을 모아 가장 상태가 좋은 책을 중심으로 한 질을 만들고, 다른 책들은 비록 한 질은 되지 않으나 별도로 모아둔 때문으로 보인다. 책등에서 '日'과 함께 '共四十三'이란 묵서가 확인되고 있어 본래 43책본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奎貴5554' 을해자 판본은 비록 일부만이 남아 있으나, '奎貴5553'에 없는 권81, 권82를 보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부 권에서 확인되는 몇 글자씩 탈락된 면을 상호 비교하여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奎貴5553 권31~권34
표제 志 卷次 / 인(鈐)</td>
<td>奎貴5553 / 奎貴5554</td>
</tr>
</table>

[표4] 규장각 을해자본(奎貴5554) 목록

책	권	비고
1	目錄 上, 下, 高麗世系, 凡例, 進高麗史箋, 修史官 명단	
2	권9, 10, 11, 12 (世家 9, 10, 11, 12)	
3	권13, 14, 15, 16 (世家 13, 14, 15, 16)	
4	권23, 24, 25 (世家 23, 24, 25)	
5	권29, 35 (世家 29, 35)	
6	권40, 41, 43, (世家 40, 41, 43,)	
7	권44, 45, 46 (世家 44, 45, 46)	
8	권47, 48 (志 1, 2)	
9	권49, 50 (志 3, 4)	
10	권51, 52 (志 5, 6)	
11	권56, 57, 58 (志 10, 11, 12)	
12	권59, 60, 61 (志 13, 14, 15)	
13	권62, 63, 64 (志 16, 17, 18)	
14	권65, 66, 67 (志 19, 20, 21)	
15	권 68, 69, 70 (志 22, 23, 24)	
16	권75, 76 (志 29, 30)	
17	권79 (志 33)	

책	권	비고
18	권80, 81, 82 (志 34, 35, 36)	
19	권86, 87 (表 1, 2)	
20	권88, 89, 90, 91 (列傳 1, 2, 3, 4)	
21	권92, 93, 94 (列傳 5, 6, 7)	
22	권95, 96, 97 (列傳 8, 9, 10)	
23	권98, 99, 100 (列傳 11, 12, 13)	
24	권101, 102, 103, 104 (列傳 14, 15, 16, 17)	
25	권105, 106, 107, 108 (列傳 18, 19, 20, 21)	
26	권109, 110, 111, 112 (列傳 22, 23, 24, 25)	
27	권113, 114, 115 (列傳 26, 27, 28)	
28	권116, 117, 118, 119 (列傳 29, 30, 31, 32)	
29	권120, 121, 122, 123, 124 (列傳 33, 34, 35, 36, 37)	
30	권129, 130, 131 (列傳 42, 43, 44)	
31	권132, 133, 134 (列傳 45, 46, 47)	
32	권135, 136, 137 (列傳 48, 4−+++−++9, 50)	

⑶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태백산사고본 (奎貴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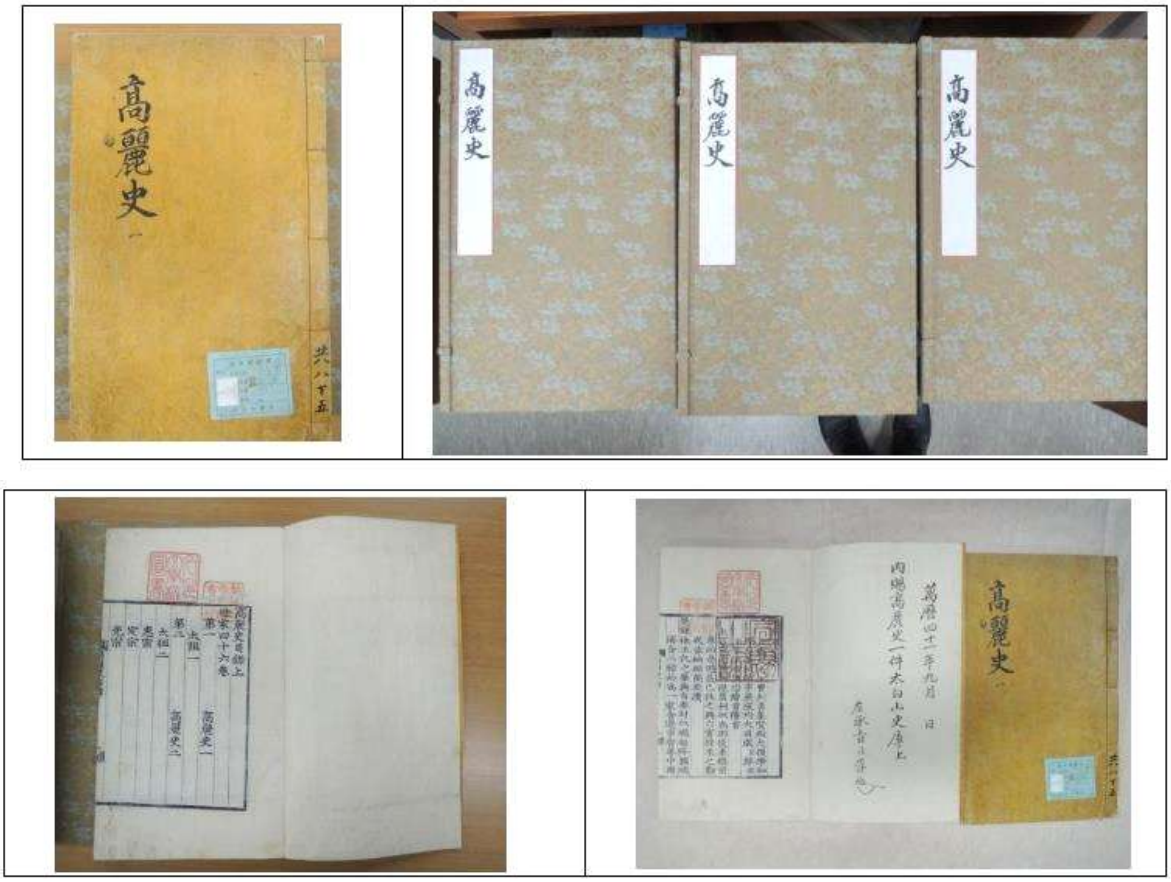
○ 규　　격 : 34.4×21.0cm 내외 / 반곽20.3×14.5cm내외
○ 수　　량 : 85책(139권)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13년(광해군 5)간, [초인]

을해자본을 복각한 목판본이다. 태백산 사고본으로 광해군 4년 무렵에 제작되었을 목판을 1613년(光海君 5)에 印刊한 것이다. 이는 內賜記인 “萬曆四十一年(1613)九月日 內賜高麗史一件 太白山史庫上 左承旨臣李(手決)”를 통해 알 수 있다.
총 85책 139권이다. 제1책에 ‘目錄上’, ‘目錄下’, ‘高麗世系’, ‘凡例’가 들어 있고, 제2책의 앞부분에 「進高麗史箋」이 붙어 있다. ‘世家’를 시작으로 ‘志’, ‘表’, ‘列傳’을 수록하였고, 권137이 끝난 뒷부분에 ‘修史官’을 기록하였다.

책의 크기는 34.4×21.0cm 내외이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20.3×14.5cm 내외이다. 을해자본과 비교할 때 책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광곽은 세로의 길이가 약 1.0~1.5cm 정도 줄어든 상태이다. 界線이 있으며 9행 17자

소자쌍행으로 되어 있다. 版口는 白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를 중심으로 2엽화문과 3엽화문 등 상당히 다양한 상태를 보여준다.
표지에는 묵서로 '高麗史'라고 하였고, 면지에는 내사기를 적었다. 권두에 '宣賜之記'가 찍혀 있고, 상변란의 중간에 걸쳐 '朝鮮總督府圖書之印'과 상변란 밖으로 '서울大學校圖書'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사고본으로서 인출 상태는 물론 장정의 원형도 보존하고 있어 높은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오대산사고본 (奎貴3579)

○ 규　　격 : 34.4×21.0cm 내외 / 반곽20.3×14.5cm내외
○ 수　　량 : 85책(139권)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13년(광해군 5)간, [초인]

을해자본을 복각한 목판본이다. 오대산 사고본으로 광해군 4년 무렵에 제작되었을 목판을 1613년(光海君 5)에 印刊한 것이다. 이는 內賜記인 “萬曆四十一年(1613) 九月日 內賜高麗史一件 五臺山史庫上 左承旨臣李(手決)”를 통해 알 수 있다.
총 85책(139권)이다. 제1책에 ‘目錄上’, ‘目錄下’, ‘高麗世系’, ‘凡例’가 들어 있고, 제2책의 앞부분에 「進高麗史箋」이 붙어 있다. ‘世家’를 시작으로 ‘志’, ‘表’, ‘列傳’을 수록하였고, 권137이 끝난 뒷부분에 ‘修史官’을 기록하였다.

태백산사고본(奎貴3539)과 비교하여 표지에 제첨을 붙였고, 표지 면지에는 내사기와 함께 ‘京城帝國大學圖書章’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권두에 ‘宣賜之記’가 찍혀 있고, 상변란의 중간에 걸쳐 ‘朝鮮總督府圖書之印’과 상변란 밖으로 ‘서울大學校圖書’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책의 크기는 34.4×21.0cm 내외이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20.3×14.5cm 내외이다. 을해자본과 비교할 때 책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광곽은 세로의 길이가 약 1.0~1.5cm 정도 줄어든 상태이다. 界線이 있으며 9행 17자 소자쌍행으로 되어 있다. 版口는 白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를 중심으로 2엽화문과 3엽화문 등 상당히 다양한 상태를 보여준다.

오대산사고본으로서 인출 상태는 물론 장정의 원형도 보존하고 있어 높은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표5] 규장각 태백산사고본(奎貴3539) / 규장각 오대산사고본(奎貴3579) 목록

책	권	비고
1	目錄 上·下, 高麗世系, 凡例	
2	進高麗史箋, 권1, 2 (世家 1, 2)	
3	권3, 4 (世家 3, 4)	
4	권5, 6 (世家 5, 6)	
5	권7, 8 (世家 7, 8)	
6	권9, 10 (世家 9, 10)	
7	권11, 12 (世家 11, 12)	
8	권13, 14 (世家 13, 14)	
9	권15, 16 (世家 15, 16)	
10	권17, 18 (世家 17, 18)	
11	권19, 20, 21 (世家 19, 20, 21)	
12	권22 (世家 22)	
13	권23, 24 (世家 23, 24)	
14	권25, 26 (世家 25, 26)	
15	권27 (世家 27)	
16	권28 (世家 28)	
17	권29, 30 (世家 29, 30)	
18	권31, 32 (世家 31, 32)	
19	권33, 34 (世家 33, 34)	
20	권35, 36 (世家 35, 36)	
21	권37, 38 (世家 37, 38)	
22	권39, 40 (世家 39, 40)	

책	권	비고
23	권41, 42, 43 (世家 41, 42, 43)	
24	권44, 45 (世家 44, 45)	
25	권46 (世家 46)	
26	권47 (志 1)	
27	권48 (志 2)	
28	권49 (志 3)	
29	권50 (志 4)	
30	권51 (志 5)	
31	권52 (志 6)	
32	권53 (志 7)	
33	권54, 55 (志 8, 9)	
34	권56 (志 10)	
35	권57 (志 11)	
36	권58, 59 (志 12, 13)	
37	권60, 61 (志 14, 15)	
38	권62, 63 (志 16, 17)	
39	권64, 65 (志 18, 19)	
40	권66, 67 (志 20, 21)	
41	권68, 69 (志 22, 23)	
42	권70, 71 (志 24, 25)	
43	권72 (志 26)	
44	권73, 74 (志 27, 28)	
45	권75 (志 29)	
46	권76, 77 (志 30, 31)	
47	권78, 79 (志 32, 33)	
48	권80, 81 (志 34, 35)	
49	권82, 83 (志 36, 37)	
50	권84 (志 38)	
51	권85 (志 39)	
52	권86, 87 (表 1, 2)	
53	권88, 89 (列傳 1, 2)	
54	권90, 91 (列傳 3, 4)	
55	권92, 93 (列傳 5, 6)	
56	권94, 95 (列傳 7, 8)	
57	권96, 97 (列傳 9, 10)	
58	권98 (列傳 11)	
59	권99 (列傳 12)	
60	권100, 101 (列傳 13, 14)	

책	권	비고
61	권102, 103 (列傳 15, 16)	
62	권104 (列傳 17)	
63	권105 (列傳 18)	
64	권106 (列傳 19)	
65	권107, 108 (列傳 20, 21)	
66	권109, 110 (列傳 22, 23)	
67	권111 (列傳 24)	
68	권112 (列傳 25)	
69	권113 (列傳 26)	
70	권114 (列傳 27)	
71	권115 (列傳 28)	
72	권116, 117 (列傳 29, 30)	
73	권118, 119 (列傳 31, 32)	
74	권120 (列傳 33)	
75	권121, 122 (列傳 34, 35)	
76	권123, 124 (列傳 36, 37)	
77	권125 (列傳 38)	
78	권126 (列傳 39)	
79	권127, 128 (列傳 40, 41)	
80	권129 (列傳 42)	
81	권130 (列傳 43)	
82	권131, 132 (列傳 44, 45)	
83	권133, 134 (列傳 46, 47)	
84	권135 (列傳 48)	
85	권136, 137 (列傳 49, 50) 修史官 명단	

(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본

○ 규　　격 : 27.5×18.3cm 내외 / 반곽19.6×14.2cm내외
○ 수　　량 : 75책(139권)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13년(광해군5) 간, [17 - 18세기] 후인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이다. 총75책(139권)으로 제1책에는 '目錄上', '目錄下', '高麗世系', '凡例', '進高麗史箋', '修史官' 이 수록되었고, 권1부터 순서대로 1권 혹은

2권씩 수록되었는데, 대부분은 2권씩 수록되었고 제25책, 제26책, 제28책～제31책, 제43책～제44책, 제48책, 제58책, 제63책 등 11책은 1권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표지의 좌상단에는 '麗史'라는 표제가 묵서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권차 표시 대신 고려사의 총권차 표시가 작은 글씨로 묵서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사고본(史庫本)에서는 책의 가장 뒤에 배치된 '修史官'이 이 판본에서는 책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고, 사고본 제2책의 첫머리에 배치되었던 '進高麗史箋'이 이 판본에서는 '高麗世系'와 '纂修高麗史凡例'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판본에서는 장정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 즉 제21책에 수록된 권39와 권40이 순서가 서로 바뀌어 권40과 권39의 순서로 장정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27.5×18.3cm 내외로, 조사 대상 『고려사』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이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19.6×14.2cm 내외이다. 을해자본 및 사고본과 비교할 때 책의 크기가 작아지고, 광곽 역시 을해자본과는 세로의 길이가 약 1.5～2.0cm, 사고본 보다는 약 0.5～1.0cm 정도 줄어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활자본 및 목판 번각본의 초쇄본과 후쇄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界線이 있으며 9행 17자 소자쌍행으로 되어 있다. 版口는 白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를 중심으로 2엽화문과 3엽화문 등 상당히 다양한 상태를 보여준다.

이 판본은 규장각에 소장된 사고본과의 판식, 서체의 인출 상태를 고려할 때 초간본 인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열전 권제23의 권수제면에는 唐興府院君 洪進(1541～1616)의 장서인으로 판단되는 「唐興府院君章」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홍진의 소장본이었던 초인본으로 결권을 보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에서 국역한 『역주 고려사』의 대본이었던 이 소장본은 완질본이면서 보존상태도 좋은 편이다.

동아대학교 소장 '고려사'

世家 卷第一	目錄 上

[표6] 동아대 소장본 목록

책	권	비고	책	권	비고
1	목록 상하		41	권 73~74	
2	권 1~2		42	권 75~76	
3	권 3~4		43	권 77	
4	권 5~6		44	권 78	
5	권 7~8		45	권 79~80	
6	권 9-10		46	권 81~82	
7	권 11~12		47	권 83~84	
8	권 13~14		48	권 85	
9	권 15~16		49	권 86~87	
10	권 17~18		50	권 88~89	
11	권 19~20		51	권 90~91	
12	권 21~22		52	권 92~93	
13	권 23~24		53	권 94~95	
14	권 25~26		54	권 96~97	

책	권	비고	책	권	비고
15	권 27~28		55	권 98~99	
16	권 29~30		56	권 100~101	
17	권 31~32		57	권 102~103	
18	권 33~34		58	권 104	
19	권 35~36		59	권 105~106	
20	권 37~38		60	권 107~108	
21	권 39~40		61	권 109~110	
22	권 41~42		62	권 111~112	
23	권 43~44		63	권 113	
24	권 45~46		64	권 114~115	
25	권 47		65	권 116~117	
26	권 48		66	권 118~119	
27	권 49~50		67	권 120~121	
28	권 51		68	권 122~123	
29	권 52		69	권 124~125	
30	권 53		70	권 126~127	
31	권 54		71	권 128~129	
32	권 55~56		72	권 130~131	
33	권 57~58		73	권 132~133	
34	권 59~60		74	권 134~135	
35	권 61~62		75	권 136~137	
36	권 63~64				
37	권 65~66				
38	권 67~68				
39	권 69~70				
40	권 71~72				

(6) 연세대학교 소장본 [전 최한기(崔漢綺) 수택본]

○ 규　　격 : 29.0×18.7cm 내외 / 반곽20.3×14.5cm내외
○ 수　　량 : 33책(139권)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13년(광해군5) 간, [17 - 18세기] 후인

을해자본을 복각한 목판본이다. 「崔漢綺藏」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최한기의 수택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33책 139권이다. 이 판본은 현재 광

곽의 크기가 규장각의 사고본과 동일하고 동아대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다, 이같은 사실은 인출 시기가 규장각의 사고본과 동일한 시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책의 크기는 29.0×18.7cm 내외로 규장각에 전하는 을해자본과 사고본에 비해서는 작으나, 동아대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태이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20.3×14.5cm 내외이다. 동아대본 반곽의 크기인 19.6×14.2cm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다. 界線이 있으며 9행 17자 소자쌍행으로 되어 있다. 版口는 白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를 중심으로 2엽화문과 3엽화문 등 상당히 다양한 상태를 보여준다.

완질본으로 인쇄 상태가 나쁘지 않고, 보관 상태도 좋은 편이다. 다만 제30책에 수록된 권 122와 권123은 후대에 작성된 필사본으로 보완된 상태이다.

[표7] 연세대 소장본(전 최한기 수택본) 목록

책	권	비고	책	권	비고
1	凡例, 進高麗史箋 修史官, 高麗世系 目錄上/下 권 1~2		21	권 84~87	
2	권 3~6		22	권 88~91	
3	권 7~10		23	권 92~95	
4	권 11~14		24	권 96~99	
5	권 15~19		25	권 100~103	
6	권 20~25		26	권 104~106	
7	권 26~29		27	권 107~111	
8	권 30~33		28	권 112~115	
9	권 34~39		29	권 116~119	
10	권 40~45		30	권 120~125	권122 권123 필사본
11	권 46~48		31	권 126~129	
12	권 49~51		32	권 130~133	
13	권 52~53		33	권 134~137	
14	권 54~57				
15	권 58~62				
16	권 63~68				
17	권 69~71				
18	권 72~75				
19	권 76~79				
20	권 80~83				

(7) 연세대학교 소장본 (합질)

○ 규　　격 : 30.2×19.5cm 내외 / 반곽19.7×14.5cm내외
○ 수　　량 : 72책(139권)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613년(광해군5) 간, [17 - 18세기] 후인

을해자본을 복각(번각)한 목판본이다. 총 72책으로 139권을 갖추고 있으나, 표지의 양상과 각 책에 찍혀 있는 장서인 등을 비교하면 본래 한 질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합본 중 일부분의 표지에 '共七十二'라는 묵서가 기록되어 있어 기본적인 구성은 72책본으로 생각되나, 서로 다른 곳에서 전래된 책들이 하나의 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책의 크기는 30.2×19.5cm 내외로 상당히 다양하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19.7×14.5cm 내외이다. 界線이 있으며 9행 17자 소자쌍행으로 되어 있다. 版口는 白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를 중심으로 2엽화문과 3엽화문 등 상당히 다양한 상태를 보여준다.

보완된 책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小栖', '鄭斗鎬', '慕叟', '淸芬室' 의 소장인이 찍혀 있는 유형으로 모두 28책이 있다. 권23~24, 권25~26, 권29~30, 권31~32, 권37~38, 권41~42, 권43~44, 권51, 권52, 권54~55, 권56~57, 권58~59, 권66~67, 권74~75, 권78~79, 권86~87, 권90~91, 권92~93, 권98~99, 권100~101, 권104~105, 권106~107, 권110~111, 권112~113, 권114~115, 권116~117, 권128~129, 권132~133이 해당된다.

한편 '朴儀東' 소장인이 있는 책은 권15~16, 권64~65의 2책, 변란의 바깥에 '眞寶校上' 가 '龍校上' 등 향교에 봉안되었던 사실을 전하는 묵서가 있는 책은 권102, 권19~20의 2책이 있다.

朴儀東 / 淸芬室

小栖 / 鄭斗鎬 / 慕叟 / 淸芬室

眞寶校上	淸芬室

[표8] 연세대 소장본(합질) 목록

책	권	비고	책	권	비고
1	凡例, 進高麗史箋 目錄上/下 修史官, 高麗世系		41	권76~77	
2	권1~2		42	권78~79	
3	권3~4		43	권80~81	
4	권5~6		44	권82~83	
5	권7~8		45	권84~85	
6	권9~10		46	권86~87	
7	권11~12		47	권88~89	
8	권13~14		48	권90~91	
9	권15~16		49	권92~93	
10	권17~18		50	권94~95	
11	권19~20		51	권96~97	
12	권21~22		52	권98~99	
13	권23~24		53	권100~101	
14	권25~26		54	권102	
15	권27~28		55	권104~105	
16	권29~30		56	권106~107	
17	권31~32		57	권108~109	
18	권33~34		58	권110~111	
19	권35~36		59	권112~113	
20	권37~38		60	권114~115	
21	권39~40		61	권116~117	
22	권41~42		62	권118~119	
23	권43~44		63	권120~121	

책	권	비고	책	권	비고
24	권45~46		64	권122~123	
25	권47~48		65	권124~125	
26	권49~50		66	권126~127	
27	권51		67	권128~129	
28	권52		68	권130~131	
29	권53		69	권132~133	
30	권54~55		70	권134~135	
31	권56~57		71	권136	
32	권58~59		72	권137	
33	권60~61				
34	권62				
35	권63				
36	권64~65				
37	권66~67				
38	권68~69				
39	권70~73				
40	권74~75				

안건번호 동산 2020-07-014

14. 윤승길 초상 및 함·함받침
(尹承吉 肖像 및 函·函臺)

가. 검토사항

‘윤승길 초상 및 함·함받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윤승길 초상 및 함·함받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6.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1.16./1.22.) 및 과학조사(’20.5.6.~5.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윤승길 초상 및 함·함받침(尹承吉 肖像 및 函·函臺)

○ 소유자(관리자) : 윤**(여주박물관)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12, 여주박물관

○ 수　　량 : 초상화 1폭, 함 1점, 함받침 1좌

○ 규　　격 : ① 초상화 : 전체 266.0×119.5㎝, 화면 182.5×104.5㎝
② 함 : 세로 17.5㎝, 가로 138.5㎝, 높이 14.5㎝
③ 함받침 : 세로 30.0㎝, 가로 158.5㎝, 높이 136.5㎝

○ 재　　질 : 비단에 채색(초상화), 목조(함·함받침)

○ 조성연대 : 초상화 : 1613년(광해군 5), 함·함받침 : 조선 후기

윤승길 초상

함 받침대

초상함

초상함 내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미흡)

<윤승길 초상>은 광해군 대의 전형적인 공신상의 형식과 양식을 지닌 작품이자 윤승길의 모습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고, 회화적으로 볼 때도 17세기 초 궁중회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한국 전통 초상화의 뛰어난 표현력을 지닌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그러나 현재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동일 시기의 초상화들과

비교할 때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특히 화면의 가필과 가채로 인하여 원형이 손상되어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함께 전하는 함 및 함받침은 정확한 시기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초상화 제작 시기보다 후대에 제작된 것들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초상화와 함 등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상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ㅇ (지정 가치 미흡)

<윤승길 초상>은 1613년에 익사공신에 책록되었을 때 그려진 것으로 보이나 초상화를 보관해온 함과 함받침은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선 후기에 다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사 유물에 비해 장석의 종류와 칠 상태로 보아 초상함 중 격이 높지 않은 편으로 보이며 현재 보관상태도 좋지 않아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초상화와 함께 초상화를 감쌌던 비단, 함, 함 받침대, 초상화를 감쌌던 비단보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예로는 매우 귀중한 사례이다.

따라서 보물로서 지정가치는 미흡하지만 지방유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보존 관리와 학술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ㅇ (지정 가치 미흡)

<윤승길 초상>은 1613년 제작된 광해군대 공식화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 당대에 제작된 원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가채로 인해 원형이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보물로서 지정가치는 미흡하지만 지방유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된다.

ㅇ (지정 가치 미흡)

<윤승길 초상>은 광해군 대의 전형적인 공식상 양식을 보이는, 또한 표현 수법이 매우 뛰어난 초상화이다. 그러나 화면 곳곳의 덧칠(가채)로 인해 원형의 훼손이 발생한 데다 현재 그 보존 상태 역시 좋지 않다. 더욱이 함께 전하는 함 및 함받침은 이 초상화가 제작될 때 함께 만들어진 것들이 아닌 후대에 제작된 것들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초상화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윤승길 초상>은 17세기 활약한 사대부 관료 윤승길의 모습을 기록한 초상화이다. 작품 중 윤승길은 전신공복좌상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검은 사모를 쓰고, 공작무늬의 흉배가 부착된 단령을 입고 있으며, 허리 부분에는 1품대의 서대(犀帶)를 착용하고 두 손을 모아 공수(拱手)를 한 모습이다. 검은 교의에 앉아 있고, 교의 아래로는 화려한 채전이 깔려 있으며, 두 발은 족좌대 위에 올려놓았다.

<윤승길 초상>은 윤승길이 1613년에 익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을 때 제작된 공신상이다. 현재 족자의 상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1991년에 현재 상태로 새롭게 개장되었다. 윤승길의 후손이 대대로 수장하여 왔는데, 종손가인 해평윤씨 동강공파종택(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에서는 윤승길의 제례 때 이 초상화를 사용해 왔다고 한다. 이 초상화는 보존을 위하여 2011년에 여주박물관에 기탁되었고, 이후 여주박물관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윤승길 초상>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은 아니다. 화면 위에는 전반적으로 결실된 부분을 다른 비단이나 종이로 보충하였는데, 이러한 보수는 1991년 장황을 하면서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화면의 여러 곳에서 비단이 부분적으로 찢어졌거나 구겨진 것이 확인되어 1991년의 장황 이후에도 보존 및 관리가 잘 안된 것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화면의 여러 부분에 가필 및 가채가 보인다. 사모, 흉배 속 공작의 깃털과 몸체, 트임 부분의 단령 안감 및 단령 안의 포 부분에서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가필과 덧칠이 보인다.

<윤승길 초상>은 함과 함받침과 함께 전해져 왔다. 목재로 된 함은 외부에 검은 칠이 되어 있고 금속구가 붙어 있다. 함 내부에는 문양이 있는 종이가 붙여져 있고 윤승길 초상화를 감쌌던 갈색의 비단이 들어 있다. 이 비단의 보존 상태는 매우 나쁘다. 함 받침 역시 목제이고 흑칠이 되어 있다. 이 함과 함받침은 이 초상화가 제작된 시기보다는 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윤승길 초상>은 해평윤씨 동강공파종택(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에서 보존해 온 초상화이다. 2011년 12월에 동강공파 종손이 여주박물관에 이 초상화를 기탁하여 현재 이 초상화는 여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윤승길(尹承吉, 1540-1616년)은 광해군 대의 문신이다. 부는 사헌부감찰을 지낸 윤홍언(尹弘彦), 조부는 이조참판을 지낸 윤은필(尹殷弼)이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자일(子一), 호는 남악(南岳), 시호는 숙간(肅簡)이다. 그는 1561년(명종 16)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64년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이후에 승문원 정자, 사헌부장령, 형조판서, 강원도 및 평안도 관찰사 등의 여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는 선조의 제7왕자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장인이기도 하다. 그는 임해군의 역모사건을 잘 처리한 공으로 1613년에 익사공신(翼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해선군(海善君)에 봉해졌다.

<윤승길 초상>은 1613년에 윤승길이 익사공신 2등에 책록된 뒤에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초상화로 추정된다. 이 초상화는 17세기 초 광해군 대에 제작된 공신상의 전형적인 형식과 양식을 지니고 있다. 광해군 대에는 익사공신 외에 위성공신(衛聖功臣), 정운공신(定運功臣), 형난공신(亨難功臣) 등의 여러 공신이 책봉되었는데, 613년에 동시에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동시에 많은 공신이 책봉되었고, 공신상이 제작되었던 까닭에 이 시기에 하사된 공신상들이 현재까지 적지 않은 수가 전한다.

<전 윤효전 초상>(보물 제 1503호), <유숙 초상>(보물 제1479호), <이성윤 초상>(보물 제1490호), <유근 초상>(보물 제 566) 등이 각 공신들의 후손가에 유전되어 왔다. 또한 <심희수 초상>, <윤중삼 초상>, <전 조의 초상>, <기자헌 초상>, <이사경 초상>(이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임장 초상>(연세대박물관 소장, 보물 1503호) 등 여러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들이 같은 시기에 제작된 공신상들로 알려져 있다. 이 초상화들에서 각 인물은 전신공복좌상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신체와 안면은 측면을 향해 있으며 검은 오사모를 쓰고 흉배가 부착된 단령과 품대를 착용하였다. 두 손은 소매 속에 가리운 채 공수를 하였고, 검은 색의 교의는 화려한 문양을 가지 채전 위에 놓여 있며 두 발은 족좌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형식과 화풍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선조 대에서 인조 대까지 제작된 공신상의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광해군 대에 제작된 공신상의 독특한 요소들도 나타나고 있다. 1. 광해군 대의 공신상에 단령의 트임 사이로 보이는 녹색, 홍색 혹은 청색의 단령 안감 및 단령 안에 입은 포가 삼각형 모양으로 중첩된 모습을 보인다. 선조 혹은 인조 대의 공신상 대부분에는 원호(圓弧) 형태의 안감이 있지만 광해군 대에 제작된 초상화에서는 오로지 삼각형 형태의 것만 확인된다. 2. 광해군 대의 공신상에 그려진 채전은 모두 4단의 문양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선조 대와 인조 대의 공신상의 채전이 대부분 3단의 문양대를 갖춘 것과 대조된다. 3. 광해군 대의 공신상에서는 교의 다리 끝 장식이 3군데 표현되어 있다. 이는 인조 대의 공신상에서 그것이 대개 2군데만 표현되어 있는 것과 구분된다. 4. 광해군 대의 공신상에서는 단령의 왼쪽 부분에 트임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단령의 왼쪽 아래 부분의 끝이 수직으로 떨어진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현전하는 17세기 전반의 공신상 중 광해군 대의 것으로 파악되는 초상화들에서는 이 4가지의 표현 요소가 모두 확인된다. <윤승길 초상>에서도 이 4가지 표현 요소를 모두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윤승길 초상>은 광해군 대의 전형적 공신상 양식을 공유한 초상화로 파악된다.

<윤승길 초상>에서 윤승길은 운문(雲紋)이 있고 가슴 부분에 모란꽃과 운문(雲紋) 사이로 노니는 공작 1쌍의 흉배(胸背) 문양이 수놓아져 있는 단령을 착용하고 있다. 그는 허리에는 서대(犀帶)를 차고 있다. 공작문과 서대는 『경국대전』에 문관 1품의 흉배무늬와 품대(品帶)로 각각 규정된 것이다. 이 흉배와 서대는 당시 윤승길의 직품(職品)에도 부합한다. 그는 1612년 11월에 익사공신 2등에 책훈되고 해선군에 봉해져 종1품의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 <윤승길 초상>에서 윤승길의 안면(顔面) 표현은 매우 섬세하다. 특히 눈 주변의 주름선이나 엉켜 있는 모양의 수염은 특히 세밀하게 그려졌다.

해평윤씨동강공파 종택에서는 <윤승길 초상> 외에 이 초상화를 보관한 함과 함받침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 함은 목제로 만들어졌으며, 함 외부에는 흑칠이 되어 있고 금속구가 붙어 있다. 함 내부에는 문양이 있는 종이가 붙여져 있고 윤승길 초상화를 감쌌던 갈색의 비단이 들어 있다. 이 비단의 보존 상태는 매우 나쁘다. 함 받침 역시 목제로 만들어졌으며, 흑칠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함과 함받침은 그 재질과 규격으로 볼 때 이 초상화와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윤승길 초상>은 광해군 대에 제작된 공신상의 전형적인 상용형식을 갖춘, 또한 뛰어난 표현 기법이 적용된 초상화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초상화는 보존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초상화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이 초상화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점다. 현재 이 초상화의 장황은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최근까지 제례 때마다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탓인지 화면 곳곳에 찢어졌거나 심하게 구겨진 자국이 다수 확인된다. 특히 화면 하단의 단령이 표현된 곳 여기저기가 조금씩 찢어진 상태로 있다. 이 초상화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어렵게 만드는 보다 큰 요인은 작품 곳곳에서 보이는 가필과 가채의 흔적이다. 먼저 단령의 안감 및 단령 안에 입는 포 부분에 녹색과 파란색의 안료가 채색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가채로 여겨진다. 족좌대 상단에 파란 색으로 채색된 부분도 가채된 것으로 보인다. 사모

에도 가채가 이루어졌다. 흉배에서도 가채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특히 녹색과 푸른색으로 각각 채색된 공작의 꼬리 깃털과 공작의 몸체 부분, 그리고 녹색의 꽃잎 부분에서 가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화면 곳곳에 가채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안료의 이탈 때문으로 추정된다. 채전 부분에서 특히 녹색과 푸른 색의 안료가 이탈된 것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다만 이 부분에는 가채가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승길 초상>은 해군 대의 전형적인 공신상의 형식과 양식을 지닌 작품이자 윤승길의 모습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고, 회화적으로 볼 때도 17세기 초 궁중회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한국 전통 초상화의 뛰어난 표현력을 지닌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화면 위의 가필과 가채로 원형이 훼손되었다.

ㅇ 문헌자료

조선미,『韓國의 肖像畵』, 悅話堂, 1983.
-----,『초상화 연구-초상화와 초상화론』, 문예출판사, 2004.
권혁산,「光海君代(재위: 1608-1623)의 공신화상과 이모본 제작 : 〈조공근 초상〉과 초본을 중심으로」, 『미술자료』 88, 2018.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초상화Ⅱ』, 국립중앙박물관,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조선의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

ㅇ 현 상

<윤승길 초상>은 1613년에 익사공신에 책록되었을 때 그려진 윤승길의 공신상이다. 이 초상화를 보관하던 목제함과 함 받침대가 함께 전한다. 현재 초상화는 여주박물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함과 함 받침은 여주시 점동면 해평윤씨동강공파 종택에서 보관하고 있다.

함은 목제로 만들어졌으며, 함 외면은 흑칠이 되어 있고, 함 내면은 문양이 있는 종이로 도배가 되어 있다. 함의 내부에는 윤승길 초상화를 쌌던 갈색 비단이 들어 있다.

전면 중앙 상단에 뚜껑과 연결된 낙목과 자물쇠를 지를 수 있는 철제 고리가 박혀 있다. 후면에는 약과형 경첩 2개가 뚜껑과 몸체를 연결하고 있으며, 뚜껑과 몸통 각 모서리에는 단순한 형태의 여의두형 거멀장석으로 보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목제의 상태나 외부 칠 상태가 좋지 않고, 내부 도배 종이도 후보의 흔적과 훼손, 오염 부위가 있다. 현재 자물쇠는 결실된 상태이며, 경첩을 제외한

거멀장석은 군데군데 결실되거나 훼손된 상태이다.
초상화를 쌌던 비단은 오랜 세월에 바래고 헤어져서 만지면 바스러질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

ㅇ 내용 및 특징

<윤승길 초상>은 초상화는 종택에서 계속 보관해오다가 2011년 이후로 여주시 공립박물관인 여주박물관에 기탁 보관하고 있고, 초상함과 함 받침은 해평윤씨동강공파 종택에서 보관하고 있다.
초상화와 함께 초상화를 감쌌던 비단, 함, 함 받침이 온전히 남아 있는 예로는 매우 귀중한 사례이다. 여기에 초상화를 감쌌던 비단보도 남아 있다.
<윤승길 초상> 초상함은 목제흑칠함으로 전형적인 영정함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제작방식도 사개짜임과 흑칠로 전통방식으로 제작되었고, 무쇠장석도 전형적이다. 그러나 다른 영정함 유물들과 비교했을 때 목제나 칠의 상태, 장석의 종류로 보아 격이 높은 작품은 아니다. 나무에 옹이도 있고, 장석은 자물쇠 앞바탕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감잡이도 단순한 거멀장석만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장식적인 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유물들에 비해 격이 낮고, 정성이 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손상된 부위가 많다. 목재가 틀어지거나 파손된 부위가 있고, 칠이 벗겨진 부위가 많다. 장석도 표면에 녹이 슬고 결손부위가 있으며, 결실된 것들도 있다. 이에 최근이 아닌 오래 전에 이미 쇠못을 박아 보강한 흔적이 있다.

내부 도배지 역시 후대에 다시 바른 것으로 보이며 뚜껑과 몸통에 쓰인 종이가 다른 것으로 보아 여러 차례에 걸쳐 후보된 것으로 보인다.

함 받침은 초상함과 함께 유전되어 온 것으로 함을 올려놓기 위해 교의 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형식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함과 나무 재질이 함과 틀릴 뿐더러 표면에 칠한 칠도 옻칠이 아니고 질이 떨어져 보인다. 다만 각목의 모서리를 깎은 것은 그나마 정성을 들인 증거이다.

눈에 띄는 것은 목재간의 촉짜임이 헐거워 쪽을 박아 여러 군데 후보해서 사용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가 없어 확실하진 않지만 제작당시부터 있었던 형식을 후대에 다시 만들었거나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초상화를 쌌던 비단은 많이 손상되었지만 비단의 상태, 홈질로 폭을 이은 바느질 상태 등으로 보아 초상화 제작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ㅇ 기　　타(소장 경위 등)

후손에 의하면 광해군대에 그려진 초상화와 함께 후손에 의해 유전되어 온 것으로 2011년까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의 해평윤씨동강공파 종택에서 보관해 왔으며, 2011년 이후로 초상화는 여주박물관에 기탁 보관하고 있고, 함과 함받침은 종택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 1991년 초상화 장황 등 수리 때에는 함께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학술・고증 자료

현재 초상함이 같이 남아 있는 유물 중 이호민, 유순정, 유수의 초상함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호민(1553~1634) 초상화를 보관해온 초상함은 17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17세기 전반 초상함의 예로 비교할 수 있다. 한편 유순정(1459~1512) 초상함은 유순정의 초상화가 18세기에 모사되었을 때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그림 ?), 유수 초상함은 초상화가 1726년에 그려졌기 때문에 그 보관함도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물들과 장석의 종류와 상태 등을 비교해본 결과 17세기보다는 18세기 유물과 유사하다.

ㅇ 사진자료

그림 1 종택 보관상태

그림 2 초상함

그림 3 초상함 내부

그림 4 사개짜임 및 거멀장석

그림 5 낙목 전면

그림 6 낙목 측면

그림 7 쇠못 후보 및 칠벗겨짐 흔적

그림 8 내부 도배지 1

그림 9 내부 도배지 2

그림 10 내부 도배지 오염현황

그림 11 초상화 쌌던 비단 펼친 모습

그림 12 비단 세부

그림 13 함 받침대

그림 14 함 올린 모습

그림 15 기둥과 종대

그림 16 기둥과 횡대

그림 17 함 받침대 촉짜임 보수

그림 18 함받치대 기둥 손상부취

그림 17 이호민 초상함 및 교지함, 17세기 초반, 연안이씨 종친회

그림 18 유수 초상함, 18세기, 경기도박물관

그림 19 유순정 초상함, 18세기, 경기도박물관

□

ㅇ 연혁과 유래

<윤승길 초상>은 광해군대 1613년 제작된 익사공신초상이다. 해평윤씨 동강공파종택에서 소장하다가 2011년에 여주박물관에 기탁하였다. <윤승길 초상>은 함과 함받침이 함께 전해진다. 함과 함받침은 초상화와 동일한 시기가 아닌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승길(尹承吉, 1540-1616년)은 광해군 대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자일(子一), 호는 남악(南岳)이다. 1564년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형조판서, 강원도 및 평안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臨海君, 1574~1609)의 역모사건을 잘 처리한 공으로 1613년에 익사공신(翼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광해군 재위 5년 1613년은 4개의 공신호가 동시에 내려졌다.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호종한 위성공신(衛聖功臣), 임해군을 제거 하는데 공을 세운 익사공신(翼社功臣), 소북파 유영경(1550~1608) 등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정운공신(定運功臣), 김직재(?~1612)의 옥사에 공을 세운 형난공신(亨難功臣)이다. 광해군대의 공신들은 인조반정(1623년)으로 모두 삭훈되는 바람에 공신화상도 다수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되지 않고 현재 전하는 광해군대의 공신화상은 <유숙 초상>, <전 윤효전 초상>, <임장 초상>, <이성윤 초상>, <유근 초상>, <윤중삼 초상>, <심희수 초상>, <이산해 초상> 등이 있다.

ㅇ 현황 및 특징

<윤승길 초상>은 다음과 같은 광해군대의 공신화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조선미, 2007/ 권혁산, 2018 참조)

①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 앉아 있는 좌안 7분면의 전신 교의 좌상이다.
② 사모는 높이가 낮고 이마 쪽은 각이 지고 뒤통수 쪽은 둥글게 표현되었다.
③ 의자의 손잡이는 양쪽으로 뻗어 있되 오른쪽 손잡이는 뒤쪽으로 연결되었다.
④ 안면은 옅은 살빛을 바탕으로 이목구비를 선으로 구획하고, 빰에 홍기를 띤다.
⑤ 흑단령위에 주름선만을 발췌하여 선염기 없이 직선으로 그려 넣었다.
⑥ 바닥의 채전은 4단이며 족자대 위에는 팔자형의 흑피화가 있다.

<윤승길 초상>은 다음과 같은 화면상의 훼손과 가채의 흔적이 있다. 우선 화면 상단에 얼굴 좌우로 세로로 헤어진 선이 있는데, 장황하면서 비단을 덧대어 보완하였다. 화면 상단에는 군데군데 뜯겨져나간 구멍이 나있다. 한편 사모, 흉배, 족좌대 부분에서 덧칠이 보인다. 사모의 가운데 부분, 흉배의 공작 깃털과 몸체 부분,

족좌대의 푸른 선과 흰 문양 부분 등은 그 주변과 색깔과 기술이 달라서 후대에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윤승길 초상>은 1613년 제작된 광해군대 공식화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 당대에 제작된 원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가채로 인해 원형이 훼손되었다.

ㅇ 문헌자료

조선미,『韓國의 肖像畵』, 悅話堂, 1983.
_____,『초상화 연구-초상화와 초상화론』, 문예출판사, 2004.
_____,「17세기 공신상에 대하여」,『다시 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권혁산,「朝鮮中期 功臣畵像에 관한 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7.
_____,「光海君代(재위: 1608-1623)의 공신화상과 이모본 제작 : 〈조공근 초상〉과 초본을 중심으로」, 미술자료88, 2018.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3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초상화Ⅱ』, 국립중앙박물관,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조선의 공신』, 국립중앙박물관, 2012.

□

ㅇ 현　　상

<윤승길 초상>은 윤승길이 1613년에 익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공신상이다. 현재 이 작품은 족자로 장황되어 있다. 이 장황은 1991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초상화는 윤승길의 후손가에서 대대로 유전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해평윤씨 동강공파종택(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에서는 제례 때마다 이 초상화를 사용했다. 동강공파종택에서는 2011년에 이 초상화를 여주박물관에 기탁했으며, 이때 이후로 여주박물관에서 이 초상화를 보관·관리해 오고 있다.

<윤승길 초상>에서 윤승길은 측면을 향해 있다. 그는 공작 무늬의 흉배가 부착된 단령과 서대(犀帶)의 1품대를 착용하고 공수를 한 채 채전 위에 놓인 교의에 앉았으며 발은 족좌대 위에 올려놓았다.

<윤승길 초상>의 화면 상단 곳곳에서 화면 결실로 다른 비단이나 종이로 보충된 부분이 확인된다. 이러한 보충·보완은 1991년에 이 초상화를 새로이 장황할 때 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화면 화단 곳곳에서 비단이 부분적으로 찢어졌거나 구겨진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구김 및 찢김 자국은 1991년의 장황 이후

에 발생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초상화 곳곳에서 가채 흔적이 확인된다. 사모, 흉배 속 공작의 깃털과 몸체, 트임 부분의 단령 안감 및 단령 안의 포 부분에서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덧칠이 보인다.

<윤승길 초상>은 함과 함받침과 함께 유전되어 왔다. 함은 목제로 만들어졌으며, 함 외부에는 흑칠이 되어 있고 금속구가 붙어 있다. 함 내부에는 문양이 있는 종이가 붙여져 있고 윤승길 초상화를 감쌌던 갈색의 비단이 들어 있다. 이 비단의 보존 상태는 매우 나쁘다. 함 받침 역시 목제로 만들어졌으며, 흑칠이 되어 있다. 이 함과 함받침은 이 초상화와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ㅇ 내용 및 특징

윤승길(尹承吉, 1540-1616년)은 광해군 대의 문신이다. 부는 사헌부감찰을 지낸 윤홍언(尹弘彦), 조부는 이조참판을 지낸 윤은필(尹殷弼)이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자일(子一), 호는 남악(南岳), 시호는 숙간(肅簡)이다. 그는 1561년(명종 16)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64년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이후에 승문원정자, 사헌부장령, 형조판서, 강원도 및 평안도 관찰사 등의 여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는 선조의 제7왕자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장인이기도 하다. 그는 임해군의 역모사건을 잘 처리한 공으로 1613년에 익사공신(翼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해선군(海善君)에 봉해졌다.

<윤승길 초상>은 해평윤씨 동강공파종택(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에서 보존해 온 초상화이다. 2011년 12월에 동강공파 종손이 여주박물관에 이 초상화를 기탁하여 현재 이 초상화는 여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윤승길 초상>은 1613년에 윤승길이 익사공신 2등에 책록된 뒤에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초상화로 추정된다. 이 초상화는 광해군 대에 제작된 공신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광해군 대에는 익사공신 외에 위성공신(衛聖功臣), 정운공신(定運功臣), 형난공신(亨難功臣) 등의 공신호가 공통적으로 1613년에 내려졌다. 이 공신호들의 책록 때 공신들에게 하사된 초상화는 오늘날까지 적지 않은 수가 전한다. <전 윤효전 초상>(보물 제 1503호), <유숙 초상>(보물 제1479호), <이성윤 초상>(보물 제1490호), <유근 초상>(보물 제 566) 등 초상화 주인공의 후손가에서 유전되어 온 작품들 그리고 <심희수 초상>, <윤중삼 초상>, <전 조의 초상>, <기자헌 초상>, <이사경 초상>(이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임장 초상>(연세대 박물관 소장, 보물 1503호) 등 여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이때 제작된 공신상들로 알려져 있다. 이 초상화들에서 각 인물은 측면을 향해 있으며 또한 흉배가 부착된 단령과 품대를 착용하고 공수를 한 채 채전 위에 놓인 교의에

앉았으며 발은 족좌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형식은 선조-인조 대에 제작된 공신상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해군 대의 공신상에서 주로 확인되는 표현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광해군 대의 공신상에 단령의 트임 사이로 보이는 녹색, 홍색 혹은 청색의 단령 안감 및 단령 안에 입은 포가 삼각형 모양으로 중첩된 모습을 보인다. 선조 혹은 인조 대의 공신상 대부분에는 원호(圓弧) 형태의 안감이 있지만 광해군 대에 제작된 초상화에서는 오로지 삼각형 형태의 것만 확인된다. 다음으로 광해군 대의 공신상에 그려진 채전은 모두 4단의 문양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선조 대와 인조 대의 공신상의 채전이 대부분 3단의 문양대를 갖춘 것과 대조된다. 세 번째로 광해군 대의 공신상에서는 교의 다리 끝 장식이 3군데 표현되어 있다. 이는 인조 대의 공신상에서 그것이 대개 2군데만 표현되어 있는 것과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광해군 대의 공신상에서는 단령의 왼쪽 부분에 트임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단령의 왼쪽 아래 부분의 끝이 수직으로 떨어진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현전하는 17세기 전반의 공신상 중 광해군 대의 것으로 파악되는 초상화들에서는 이 4가지의 표현 요소가 모두 확인된다. <윤승길 초상>에서도 이 4가지 표현 요소를 모두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윤승길 초상>은 광해군 대의 전형적 공신상 양식을 공유한 초상화로 파악된다.

<윤승길 초상>에서 윤승길은 운문(雲紋)이 있고 가슴 부분에 모란꽃과 운문(雲紋) 사이로 노니는 공작 1쌍의 흉배(胸背) 문양이 수놓아져 있는 단령을 착용하고 있다. 그는 허리에는 서대(犀帶)를 차고 있다. 공작문과 서대는 『경국대전』에 문관 1품의 흉배무늬와 품대(品帶)로 각각 규정된 것이다. 이 흉배와 서대는 당시 윤승길의 직품(職品)에도 부합한다. 그는 1612년 11월에 익사공신 2등에 책훈되고 해선군에 봉해져 종1품의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 <윤승길 초상>에서 윤승길의 안면(顔面) 표현은 매우 섬세하다. 특히 눈 주변의 주름선이나 엉켜 있는 모양의 수염은 특히 세밀하게 그려졌다.

해평윤씨동강공파 종택에서는 <윤승길 초상> 외에 이 초상화를 보관한 함과 함받침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 함은 목제로 만들어졌으며, 함 외부에는 흑칠이 되어 있고 금속구가 붙어 있다. 함 내부에는 문양이 있는 종이가 붙여져 있고 윤승길 초상화를 감쌌던 갈색의 비단이 들어 있다. 이 비단의 보존 상태는 매우 나쁘다. 함 받침 역시 목제로 만들어졌으며, 흑칠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함과 함받침은 그 재질과 규격으로 볼 때 이 초상화와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윤승길 초상>은 광해군 대에 제작된 공신상의 전형적인 상용형식을 갖춘, 또한 뛰어난 표현 기법이 적용된 초상화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초상

화는 보존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초상화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이 초상화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을 언급할 수 있다. 현재 이 초상화의 장황은 1990년대 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최근까지 제례 때마다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탓인지 화면 곳곳에 찢어졌거나 심하게 구겨진 자국이 다수 확인된다. 특히 화면 하단의 단령이 표현된 곳 여기저기가 조금씩 찢어진 상태로 있다. 이 초상화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어렵게 만드는 보다 큰 요인은 작품 곳곳에서 보이는 가채의 흔적이다. 먼저 단령의 안감 및 단령 안에 입는 포 부분에 녹색과 파란색의 안료가 채색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가채로 여겨진다. 족좌대 상단에 파란 색으로 채색된 부분도 가채된 것으로 보인다. 사모에도 가채가 이루어졌다. 흉배에서도 가채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특히 녹색과 푸른색으로 각각 채색된 공작의 꼬리 깃털과 공작의 몸체 부분, 그리고 녹색의 꽃잎 부분에서 가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화면 곳곳에 가채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안료의 이탈 때문으로 추정된다. 채전 부분에서 특히 녹색과 푸른 색의 안료가 이탈된 것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다만 이 부분에는 가채가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승길 초상>은 광해군 대의 전형적인 공식상 양식을 보이는, 또한 표현 수법이 매우 뛰어난 초상화이다. 그러나 화면 곳곳의 덧칠(가채)로 인해 원형의 훼손이 발생한 데다 현재 그 보존 상태 역시 좋지 않다.

ㅇ 문헌자료

조선미,『韓國의 肖像畵』, 悅話堂, 1983.
-----,『초상화 연구-초상화와 초상화론』, 문예출판사, 2004.
권혁산,「光海君代(재위: 1608-1623)의 공신화상과 이모본 제작 : 〈조공근 초상〉과 초본을 중심으로」, 미술자료88, 2018.
국립중앙박물관 편, 『조선시대 초상화Ⅱ』, 국립중앙박물관,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조선의 공신』, 국립중앙박물관, 2012.

안건번호 동산 2020-07-015

15.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성보문화재연구원장으로부터 「전국 사찰 소장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9.1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9.9.26.) 및 과학조사('19.7.16~'19.7.19./9.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제1차 회의('20.2.13.)에서 복장유물 보완조사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관계전문가 보완조사('20.5.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제3차 위원회('20.6.11.)에 검토사항으로 재부의하였으나, 소유자 재확인 사유로 보류되었고, 조계종총무원 주재로 직지사와 남장사와 협의를 거쳐 동 괘불의 소유권이 직지사에서 남장사로 최종 정리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 소 재 지 : ① 괘불도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직지사성보박물관
② 복장유물 :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 1길 259-22, 남장사

○ 수　　량 : 괘불도 1폭, 동경 1점, 복장낭 1점, 복장낭함 1점

○ 규　　격 : 괘불 전체 1,101.4×590㎝, 화면 1,050×564.4㎝
동경 지름 37.7cm, 복장낭 78.0×63.0cm, 복장낭함 79.0×73.7×17.7cm

○ 재　　질 : 삼베에 채색, 목조

○ 조성연대 : ①괘불 및 복장낭 : 1776년(정조 1), ②복장낭함 : 1783년(정조 7)
○ 제 작 자 : 有誠,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玹性, 富一, 永印, 信一, 靜坦, 觀淨, 笠涵. 守仁, 笠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閏, 喚鳳, 若禪, 德弘, 戒印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동경과 복장낭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이 작품은 전체 크기가 1,104×590cm나 되는 대형의 작품으로, 1776년 유성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0여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괘불은 1776년 제작된 괘불이지만, 제작된지 얼마 후 관내 기우제 행사 때 사용하다 손상을 입어 지금껏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린 채 전래되어 온 괘불화이다. 비록 손상을 크게 입었으나, 다행스럽게도 諸존상의 주요 부분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 괘불화의 가치는 사용하지 않은 만큼 원래의 채색과 장황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17·18세기에 제작된 괘불들이 제작 이래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래 장황모습을 상실한 것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학술적 가치이다.
괘불의 복장유물은 복장낭과 동경, 복장낭 보관함 1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우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1788년 새롭게 제작된 괘불에 재사용 되었다. 따라서 이 괘불은 괘불과 더불어 복장유물 일습도 모두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 괘불의 완전성을 두루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압도적인 크기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협시 등 중요 존상을 존격에 따라 상승감 있게 배치하고 사천왕상을 화면 사방에 두어 화면을 마무리 지어 짜임새 있는 구성력을 보여준다. 주존 석가여래를 다른 존상들보다 한걸음 앞에 돌출시켜 돋보이게 한 점은 마치 석가여래가 도량으로 성큼 걸어 나오는 듯한 극적 효과를 부여한 부분도 작가의 역량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중요 권속으로 용왕과 용녀를 중요 권속으로 등장시켜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드러낸 점은 물론, 존격에 따라 육신의 색을 달리 하여 강약을 조절하였고, 사천왕상에서는 각기 다른 색과 음영을 강하게 베풀어 작자의 재치와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 예술성도 높게 평가된다.

다만, 괘불의 복장유물은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검토사항에서 구본과 신본(보물 제2007호) 중 어느 것과 더 관련성이 깊은지 분명히 한 다음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으므로, 재조사후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18세기 실력있는 화승인 유성이 수화승으로 참여해 22명의 화승들과 함께 1776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10미터가 넘는 대형화면에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권속들을 함께 그렸다. 이 작품은 형상의 안정감과 상호의 원만함, 필선과 채색의 아름다움 등 수화승 유성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희귀성 · 작품성 등에서 지정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지니고 있다. 안료의 탈락과 화면 손상이 심하나 다행히 주존을 비롯한 주요존상들은 잘 남아있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더 이상의 손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수리 · 보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ㅇ (지정 가치 있음)

1776년 남장사괘불도는 1788년에 조성된 남장사괘불도와 함께 한 사찰에서 10여년을 사이에 두고 제작된 괘불로 18세기 괘불 제작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1788년괘불도 조성 과정을 기록한『佛事成功錄』을 통해 1776년의 괘불도가 기우제에 사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를 맞아 손상된 채로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괘불도가 寺中이 아닌 장소에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불사에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實例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작에는 수화승 有誠을 중심으로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玆性 富一 永印 信一 靜

坦 觀淨 笠涵 守仁 笠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閏 喚鳳 若禪 德弘 戒印 등 20명이 넘는 화승들이 참여하였다. 수화승 有誠은 有性, 維誠, 唯性, 惟性, 有成 등으로도 쓰이며 1755년부터 1808년의 불화 화기에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중 有誠으로 표기된 예가 가장 많다. 유성이 제작한 불화는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유성은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초까지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경상도 불화승 任閑과 함께 참여한 기록이 있으며 현존작품을 기준으로 볼 때 評三이 주도한 불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그 외 처일, 부일, 승윤 등의 화사와도 작품을 함께 하였다.

개심사영산회괘불도(1772) 남장사영산회괘불도(1776)

(도183) 유성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괘불도 비교

유성은 조선후기 활동한 화승으로 『雲門寺本末寺誌』에 '良工本寺有成'이라는 간략한 기록이 전한다. 현존하는 작품은 약 20여점으로 1755년에서 1808년에 걸쳐서 남아있는데 대부분 경상도 지역의 불화들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유성이 단독으로 조성한 진영도가 6점 남아있어 유성의 작품 경향을 잘 알려주는데 암석을 배경으로한 뛰어난 인물묘사와 치밀한 문양, 날카로운 필선 등에서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진영도에서 보이는 구도와 인물표현, 문양표현 등은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중심화사인 임한의 영향도 보인다. 유성은 177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운사 지장보살도와 1772년 개심사 괘불도, 1777년 은해사 신중도를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하고 있어 1776년의 남장사괘불도 제작에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개심사 영산회괘불도의 경우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우견편단의 옷을 걸치고 화면

중앙에 서 있는 석가모니불의 모습이 남장사괘불도의 본존불과 자세는 물론이고 둥근 얼굴, 비대한 어깨, 유난히 길고 굵은 팔, 짧은 하체 등의 모습에서 유성의 특징이 보인다.

<표1> 유성작 불화목록 및 유성 한자 표기

	불화명	조성연대	수화승	유성표기
1	운문사 삼신불도	1755	任閑	有性
2	온양민속박물관 삼장보살도(지지보살도)	1755	任閑	有性
3	봉정사 환성당대선사지안진영	1766	有誠	단독조성
4	봉정사 포월당대선사초민진영	1766	有誠	
5	봉정사 설봉당대선사사욱진영	1766	有誠	
6	봉정사 영월당대선사응진진영	1766	有誠	
7	봉정사 청허당대선사진영	1758	有宬	
8	봉정사 송운당대선사진영	1768	有宬	
9	모운사 지장보살도	1770추정	有誠	
10	서악사 석가모니불도	1770	富日	有誠
11	개심사 영산회괘불도	1772	有誠	
12	통도사 팔상도	1775	1.2.3相 ; 抱冠 4相 ; 有誠	
13	통도사 석가모니불도	1775	定聰	
14	남장사 영산회괘불도	1776	有誠	
15	은해사 기기암 신중도	1777	比丘 有誠	
16	쌍계사 삼세불도	1781	석가불 ; 勝允	維性
			아미타불 ; 評三	
17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	勝允	維性
18	통도사 감로도	1786	評三	惟性
19	의령 아미타불도	1786	評三	惟性
20	옥천사 괘불도	1808	評三	唯性

1776년작 남장사영산회괘불도는 전체적으로 손상이 매우 심하다. 손상은 특히 초록색 안료가 칠해진 부분에서 두드러지는데 본존을 비롯한 존상들의 광배 등에서 박락과 탈락 등 화면 결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존을 비롯한 존상들의 얼굴부분과 다른 채색층에서는 그나마 손상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불화의 상태가 불완전한 측면이 아쉽기는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8세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 유성의 작품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화인 동시에 18세기 괘불도의 제작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며 시급히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 보완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상주 남장사 복장유물의 구성은 분책되어진 몇 종류의 불교서적·봉인된 후령통·유리가 납입되어 있는 복장낭과, 복장낭과 함께 걸었던 원형의 동경, 그리고 이들을 보관한 목제 보관함으로 되어 있다. 18세기 후반기에 제작된 이 복장유물은 복장낭의 경우 특히 야외의식용 대형 괘불의 복장낭인만큼 현전하는 불화의 복장낭 중 보기 드문 대형의 복장낭으로 구성물들의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복장낭의 제작자, 보관함의 제작자대와 제작연대도 명확하다. 또한 잘 갖춰진 구성물과 더불어 복장낭의 제작기법이나 재질, 유려한 글씨체의 금박의 범자 등에서 괘불과 더불어서 정성을 다한 종교의식물로서도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복장물일괄유물은 현전하는 1776년과 1788년에 제작된 2점의 남장사 괘불도 중 후령통의 기록과 1766년 괘불도의 화기, 그리고 목제제작함의 제작연대로 미루어 보아 1776년의 괘불도와 함께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상주 남장사 소장 복장유물은 복장낭과 그 속에 안립하였던 후령통, 복장낭과 함께 괘불도에 달았던 원경, 이 복장유물을 보관한 목제보관함 등이 남아있어 18세기 후반 불화 복장유물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장사에서 1776년에 조성된 영산회괘불도(구본)와 1788년에 제작된 영산회 괘불도(신본) 중 구본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776년에 조성된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와 함께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복장유물은 후령통과 목제함에 보이는 묵서명을 통해 1776년 괘불 조성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종이로 감싼 사각형의 후령통은 겉에 '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를 적은 朱書 띠지를 감아 봉했는데 띠지 안쪽 면에 '○斟基謹封'이라고 적은 묵서가 희미하게 보인다. 斟基는 구본 괘불도 화기 연화질에서 증명을 맡았던 여러 스님들 중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鼈山堂斟基 스님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복장낭을 보관했던 목제함의 덮개 안쪽면에 '乾隆四十八年癸卯五月日造成省學 振樞' 라는 묵서명이 적혀 있어 목제함은 1783년에 省學과 振樞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省學과 振樞는 1776년 영산회괘불도 화기에 대시주자로 등장하고 있어 복장유물은 구본 괘불 조성시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따로 보관하기 위해 목제함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省學은 1788년 괘불도에도 대시주로 등장하고 있는데, 당시 남장사 불사를 완료하면서 그 전말을 기록한 『불사성공록』의「남장사괘불신화성기」「괘불복장원문」「유명교주지장대성신화성복장원문」등에 의하면 성학스님은 1788년 남장사 불사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입적한 이후였고 제자들이 스님을 기리기 위해 여러 불사

를 행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상주 남장사에 전하는 복장유물 일체(복장낭, 후령통, 원경, 목제함)는 1776년에 제작된 남장사영산회괘불도와 함께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복장낭과 동경은 1776년 괘불도와 함께 제작된 것이고, 복장낭함은 1783년 복장낭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괘불도와 일괄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ㅇ 조사내용

이 괘불은 乾隆 41년 丙申(1776년) 10월 20일 尙州 露岳山 南長寺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靈山會掛佛圖이다. 화면은 삼베 17폭을 바느질로 이어 붙여 대화면을 마련하였다. 그림의 제목은 화기에 “小靈山一位畵成”이라고 기록되어 본존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석가여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영산회’라는 명칭을 통해 대영산회 보다 권속을 축소하여 그린 것으로 생각되지만, 17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화기에 표기된 ‘영산회 괘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등장 인물의 수와 화기의 명칭과는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화기의 영산회 표기사례

no	지정사항	명칭	시대	화기명칭	비고
1	국보 제299호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1664	大靈山會幀	군도
2	보물 제1340호	천은사 괘불탱	1673	大靈山敎主尊像一軸	독존
3	보물 제1263호	수덕사 석가모니괘불탱	1673	靈山掛佛幀	군도
4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괘불탱	1673	靈山大會掛佛幀	군도
5	보물 제1278호	북장사 영산회괘불탱	1688	靈山掛佛一會	군도
6	보물 제1608호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탱	1702	靈山會圖一部	6존
7	보물 제1692호	통영 안정사 영산회 괘불도	1702	靈山會掛佛幀	7존
8	보물 제1445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	1705	靈山會掛佛一部	5존
9	보물 제1642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도	1710	靈山會一部	군도
10	보물 제1267호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1728	靈山掛佛	7존
11	보물 제1269호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1749	靈山掛佛幀	7존
12	보물 제1419호	선암사 석가모니 괘불탱	1753	掛佛靈山敎主釋迦牟尼佛	독존
13	보물 제1552호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도	1764	靈山掛佛幀	5존
14	보물 제1264호	개심사 영산회 괘불탱	1772	大靈山掛佛幀	3존
15	경남유형 제299호	고성 옥천사 괘불	1808	大靈山會	5존
16	강원유형 제108호	삼척 영은사 괘불	1856	靈山幀畵	군도
17		남양주 흥국사 괘불	1858	大靈山掛佛幀一軸	3존

이 괘불은 입상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문수·보현보살, 가섭·아난존자, 용왕·용녀, 사천왕상, 시방제불을 위계질서에 맞게 배치한 영산회상괘불도이다. 제작 연대는 1776년이며, 제작에는 수화승 유성을 비롯한 23명의 화원들이 참여하였고, 용면질의 우두머리 화원을 繪首라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23명의 화원이 참여한 만큼 대규모 인원의 화승들이 공력을 기울여 제작한 불화임을 짐작케 한다. 수화승 유성은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아 있는 작품을 통해 대략 1755년에서 1786년까지 활동을 펼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전반기는 당대의 대화승 任閑, 處一 등 선배 화승들과의 작업을 통해 화승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고, 1766년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도 제작 시점부터 수화승의 반열에 올라 독자적인 기량을 발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참여한 불화의 장르는 괘불도를 비롯하여 주요 여래도, 삼장보살도, 팔상도, 진영도, 신중도, 감로도 등 상·중·하단 불화 할 것 없이 전반에 걸쳐 있다. 그의 활동 지역은 충남 서산 개심사 괘불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이 경상도 지역 사찰에 봉안된 것으로, 그의 주된 활동지역은 경상도 지역, 그 중에서도 경북지역이 주 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괘불은 『상주남장사불사성공록』에 따르면 “종전의 괘불은 그려진 지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랜 가뭄을 당해 성안으로 옮겨져 하늘에 비를 빌 때 덮개 막대 드리우는 것을 잊어버려 부처님의 몸이 비에 젖고 채색이 떨어져 주존과 그 밖의 불상들이 인간과 천상에서 우러르던 바 32상을 잃게 되어 참으로 귀의하여 공경하던 모습이 남지 않게 되었으니, 절의 나이든 이나 젊은이들이 모두 애달파 한지 한 해가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괘불은 관내 기우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어 괘불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껏 말아둔 채로 전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손상으로 인하여 화면과 배접지는 산화되었고, 안료는 탈·박락 완연하여 보존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조성이후 한차례 보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료와 장황 형식은 후대의 변형 없이 제작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면의 중앙에 입상의 석가여래를 배치하고, 본존은 주위의 권속보다 한걸음 앞서 표현하여 원근감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본존은 체구가 건장하며 , 둥글넙적한 얼굴에 비해 이목구비는 작게 표현하였다. 머리의 외곽을 따라 경사가 급한 봉우리처럼 육계가 솟았으며, 육계의 정상에는 반타원형의 정상계주가 묘사되었다. 머리와 육계의 경계 지점에는 중앙계주를 표현하였고, 발제선의 중앙에는 맵시있게 머리 결을 봉긋하게 모아 가르마를 타고, 그 아래로 '八'자형의 애교머리를 그렸다. 법의는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떡 벌어진 가슴에는 군의와 띠 자락이 드러나 있다. 대의 주문양은 연꽃을 중심으로 네 곳에서 소용돌이가 휘감아 돌고 이를 구름이 둥글게 감싼 '蓮花卷雲文'이 시문되었다. 대의 깃에는 길상문이, 군의의 깃에는 연화당초문을 각각 시문하였다. 무릎까지 촉지인으로 길게 내린 오른손은 둔중한 편이다. 머리의 양 측면에서 뻗어나온 五色光明은 천공을 휘감으며 시방제불을 떠받들었고, 중앙계주에서 흘러나온 오색은 작은 毘盧蔗那佛(化佛)을 떠받든 모양새다.

본존불의 어깨부근 좌우측에는 녹색의 두광을 갖춘 입상의 협시보살상이 상반신만 노출한 채 본존을 향해 합장하였는데, 이들은 보관을 쓰고 적색의 천의와 장신구를 걸쳤다. 보살상의 바로 위에는 가섭과 아난이 배치되었는데, 가섭은 육계가 불룩하게 솟은 머리 형태와 지권인처럼 수인을 결한 점이 특징이다. 다시 그 위로는 龍王과 龍女가 표현되었다. 용왕과 용녀는 『묘법연화경』 제바달다품의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일반 영산회상도가 아닌 괘불도에서 이들의 등장은 드물다. 이들이 등장하는 괘불로서는 1727년에 제작된 미황사 괘불탱(보물 제1342호)을 들 수 있는데, 미황사 괘불은 琢行 雪心 喜心 任閑 敏輝 就詳 明現 등이 함께 그린 것이다. 미황사 괘불은 화면 중앙에 촉지인의 석가여래를 배치하고, 무릎 좌우측에 작게 용왕과 용녀를 협시처럼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남장사 영산회괘불도의 배치와 표현방식이 다르지만 영산회괘불도의 권속의 일부로 등장시킨 점은

유성의 화풍에 영향을 미친 임한과의 관련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천왕상은 화면의 네 모퉁이에 배치하여 도량을 옹호하고 있다. 사천왕은 화면의 향 우측 상방부터 시계방향으로 琵琶, 寶劍, 龍과 如意珠, 寶塔의 지물을 들어 조선시대 일반적인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으며, 시선은 위쪽 두 구는 오른쪽을, 아래쪽 두 구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호방한 필선을 바탕으로 한 대범하고 과장된 모습에서 강력한 분위기를 발현하고 있다. 표현 방식과 기법에서는 유성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불국사 사천왕 벽화와 매우 닮아있다.

또한 본존불의 중앙 계주에서 피어나는 오색서광 광배 위에 비로자나 화불이 표현된 도상과 변아와 회장에 불복장 관련 여러 가지 진언문을 배치한 장황 형식은 이 보다 12년 늦게 제작된 新本 남장자 영산회괘불도(1788년) 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사찰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성된 두 본 괘불도의 도상과 장황의 전승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요소이다.

채색은 전통 불화에 사용되는 오방색과 이들을 혼합한 중간 색조를 적절히 설채하여 영산회상의 장면을 웅장하게 표현하였다. 문양은 번잡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알맞게 베풀어졌고, 피부의 윤곽은 가늘고 섬세한 선을 사용하였고, 옷 주름은 굵고 가는 다양한 색선을 자유롭게 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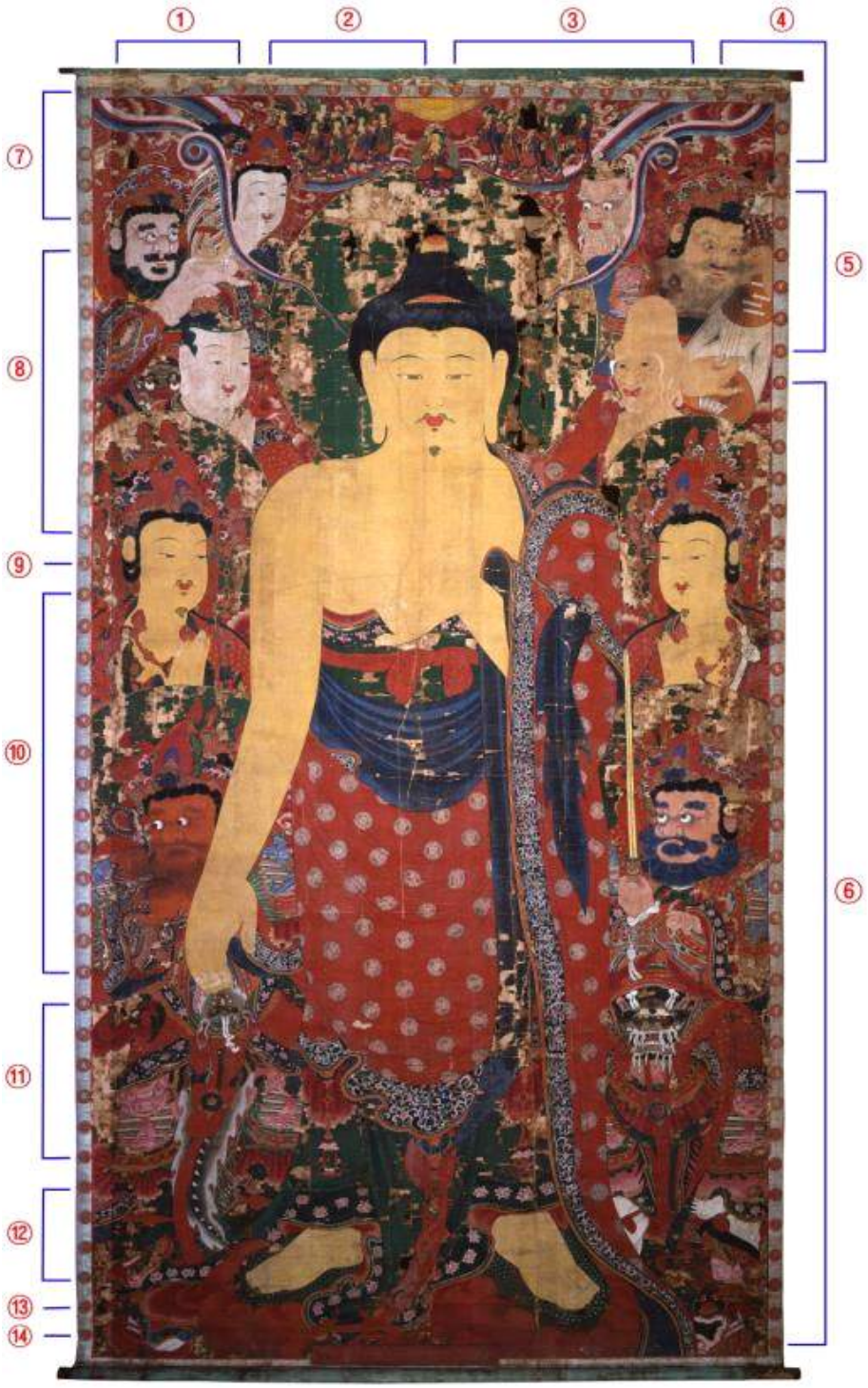
현재 괘불은 반달형의 상축과 원형이 하축이 그대로 달려 있고, 상축의 좌우측 두 곳에는 '圭形'의 낙영을 달아 늘어뜨렸고, 화면의 향 좌측에는 길이 115.5cm의 유소 1개가 달려있다. 이 유소는 남아 있는 복장주머니의 재질과 제작 방식이 유사하다. 변아와 회장에는 범자원문의 진언을 적었는데, 주로 불복장과 관련된 진언들이다. 이러한 진언은 이곳 외에도 안료가 박락되어 드러나 있는 초배지 곳곳에서도 확인 되므로, 바탕면 전체에도 복장과 관련된 다양한 진언들을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1> 수화승 유성의 작품활동

no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비고
1	삼장보살도	1755	견본채색	263.5x136.5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3폭 중 지지보살 화기 首頭 任閑 畫員 處一, 性淸, 性澄, 鵬演, 就愚, 萬澄, 有性, 宇察, 最玩, 彩淨, 義典, 曄雲, 普寬, 性贊, 卓悟, 若鵬, 致行, 旺玄, 太日
2	청도 운문사 비로전 삼신불도	1755	견본채색	466x522	首頭 任閑 畫員 處一, 性淸, 性澄, 鵬演, 就愚, 萬澄, 有性, 宇察, 最玩, 彩淨, 抱寬, 義全, 秀雲, 性贊,

no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비고
					卓悟, 致行, 若鵬, 國玄, 泰一
3	구미 대둔사 아미타여래도	1761	마본채색	299x281	畵師 處一, 有性, 釆性, 知悅, 守衍
4	안동 봉정사 영산암 환성당지안진영도	1766	견본채색	120x83	良工 有誠
5	안동 봉정사 영산암 포월당초민진영도	1766	견본채색	103.5x75.5	良工 有誠
6	안동 봉정사 영산암 설봉당사욱진영도	1766	견본채색	105x76	良工 有誠
7	안동 봉정사 영산암 청허당진영도	1768	견본채색	105x73.5	良工 有誠
8	경주 불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및 사천 왕벽화	1769	견본채색	498x447	*보물 제1797호 *塗金良工 尙淨, 碩岑, 淸益, 宇學, 抱寬, 德仁, 定安, 脫閏, 藏榮, 報恩, 圓敏, 最善, 桂觀, 慕欣, 有誠 *都畵師 智瞻, 次全, 幼禪, 哲印, 富一, 大演, 宥祥,
9	안동 모운사 지장도	1770	견본채색	144x142	*경북 문화재자료 제4222호 *良工 有誠, 天性, 若朋, 有祥, 錦仁, 宇兼
10	예천 서악사 석가여래도	1770	마본채색	123x172	*경북 유형문화재 제380호 *金魚 富日, 有誠, 慧又, 快宗
11	개심사 영산회괘불도	1772	마본채색	921x553	*보물 제1264호 *畵師 有誠, 宥倖, 性聰, 報恩, 尙欽, 富一, 守仁, 信日, 法筌, 錦仁, 義玄, 快宗
12	통도사 응진전 석가여래도	1775	견본채색	285x313	*良工 定聰, 有誠, 定坦, 富一, 守仁, 坦悟, 色一
13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1775	견본채색	233.5x151	*비람강생상 *良工 抱冠, 有誠
14	은해사 기기암 신중도	1777	견본채색	124.3x121	*良工 有誠, 萬湜
15	하동 쌍계사 삼세불도	1781	견본채색	495x314.5	*석가여래도, 보물 제1364호 *施主 維性
16	하동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	견본채색	197x363	*경남 유형 제384호 *金魚 勝允, 萬輝, 泓源, 智淳 *片手 平三, 端誨, 勝文, 咸湜, 國演, 維性, 出定, 國仁, 普信, 極贊, 察森, 斗贊, 巨奉, 戒卓, 月賢
17	구인사박물관 아미타여래도	1786	견본채색	215x240	*충북유형문화재 제210호 *畵師 評三

no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비고
					*片手 察敏, 惟性, 極贊, 幻永, 友心, 永○, 快性, 性○, ○○
18	수도사 감로도	1786	견본채색	189x204	*경남 유형 제418호, 통도사성보박물관 *畵師 平三, 有性, 性允 *片手 察敏, 極贊, 幻永, 友心, 快性, 影輝, 永宗
19	보경사 팔상도	18c			*설산수도상 *良工 聖明, 抱冠, 定聰, 壬坪, 宥聖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에 쓰인 眞言의 위치와 내용>

번호	진언 명
1	출실지
2	육자대명왕진언
3	준제구자
4	비밀실지
5	입실지
6	항마진언
7	진심종자

번호	진언 명
8	열금강왕여래
9	람
10	발절라수진언
11	합장수진언
12	열금강왕여래
13	람
14	훔

<畵記>

乾隆四拾壹年丙申々十月二十日
小靈山一位畫成于尙州露岳山南
長寺仍爲奉安仗此功德[127]奉爲
干戈息靜
主上三殿下龍樓萬世
國泰民安
大施主秩
白峯堂信嚴[128]
省學　幹事時僧統振樞
大允　首僧廣玉
宇淳　三綱三寶碩敏
鍊秋　掌務道占
守明
良輝　山中老■[129]秩
金性才　思運
姜貴世　致文
崔大甲　致軒
時坦　希伯
尙輝　省學
泰堅　宗言
大善　泰堅
曇裕　大善

127)'德'의 속자

128)'嚴'의 이체자

129) 글자가 탈락되었으나'德'자가 기록되었음

宗悅[130]　曇裕
大悅　鍊秋
宇習　大允
尙雲　宗悅
普閑[131]　信賛
道鑑　施主無[132]本寺秩
日言　文習
漢柱　太日
宠[133]曄　大悅
寬演　法蘭
腹藏[134]金氏　怡現
腹藏宋氏　寬允
烏金丶乭夢　位策
金命吉　廣先
緣化秩　法善
證師秩　寬演
聾山堂斗基　道監
性月堂希倫　道寬
沖虛堂肯冊　亘三
南岳堂暎琶　宗言
括虛堂掫[135]如　海宗
如應堂就成　漢日
白華堂呂恢　普閑
秉法　緇悅
詠虛堂析誠　緇俊
持殿　宠曄
靑岳堂大仁　碧楚
海機　元察

130)'悅'의 속자
131)'閑'의 이체자
132)'兼'의 이체자
133)'寵'의 이체자
134)'藏'의 이체자
135)'取'의 오기로 보임

誦呪秩	宊貧
道仁	善忍
快有	道令
棹綆	卓連
誠旻	雪淨
佳玉	唯察
天㞢[136]	頓機
德俊	頓珠
位成	快察
道寬	尊信
體普	體行
觧源	平淳
自詢	體玉
瑞希	快淨
尊輝	景弘
戒欽	快日
月珠	煥希
明悟	漢奎
印鑑	漢已
敬源	先察
處[137]寬	平益
淵寬	萬澄
華希	景澄
豊演	煥信
龍眠秩	煥宇
繪首有誠	好信
會萬	取淑
聖朋	直敏
守密	達令
有晴	希俊
玆性	道輝
富一	法淳

136)‘定’의 약자

137)‘處’와 같은 자

永印
信一
靜坦
觀淨
笠涵
守仁
笠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閏
喚鳳
若禪
德弘
戒印
供養[138]主
如學
學岑
智鑑
良貽
法心
瑞榮
得念
朋仁
寬坦
再雲
有眼
致弘
好澄
萬訓
鍾頭秩
幻愚
漢佑
快信
性天
普日
等祐
萬天
普弘
萬貽
快淳
萬曄
普哲
景修
景有
平吾
快淨
普寬
卓允
普雲
俊益[139]
法藏
德行
大行
取三
守閑
俊元
俊令
萬輝

138)'養'의 속자
139)'益'의 약자

普閑
智曄
璟雲
平日
快念
喚攝[140]
淨桶秩
覺淳
朗日
明松順和
別座秩
大允
日言
都鑑秩
省學
希伯
化士秩
宗念
時仁

□

ㅇ 현　　상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10미터가 넘는 대형 화면에 입상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협시보살과 사천왕 등 권속들을 양 옆에 배치한 구성이다. 목제의 상하축에 범자(梵字)를 포함한 그림 장황으로 되어 있으며, 낙영과 유소가 남아 있다. 화면 전체적으로 주존의 광배 등 녹청 부분이 심하게 박락되어 바탕천이 드러나 있으며, 상하축의 연결부분 역시 손상이 심하다. 또한 수해(水害)의 흔적이 확연하다. 드러난 바탕천에 붉은 색으로 쓴 다라니가 보인다.

화면 하단에 화기가 잘 남아있어 조성인연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76년에 수화승 유성이 화승들을 이끌고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채색층과 배접층의 분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안료탈락과 화면이 분리되는 등 손상이 심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다만, 다행히 주존을 비롯한 각 존상들은 잘 남아있는 편이고 채색의 변색도 거의 없어 시급히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140)'攝'의 약자

수 있겠다.

ㅇ 내용 및 특징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장황까지 포함하여 11미터가 넘는 대형 의식용 불화로, 주존은 우견편단에 오른팔은 아래로 내려뜨리고 오른손은 가슴께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결하였다. 육계가 높이 솟아있으며 둥근 정상계주와 반달형의 중간계주를 갖추고 있다. 정상계주에서 피어오른 서기(瑞氣)에는 지권인을 한 좌상의 비로자나불을 표현하였고 그 양쪽에 타방불들을 배치하였다. 양옆에는 협시보살과 사천왕, 아난ㆍ가섭, 용왕 등이 자리하였다.

화기에 '小靈山一位'를 조성했다고 하여 주존이 석가모니임을 확실히하고 있다. 화기에는 이밖에도 제작연도(건륭 41년, 1776년)와 주요한 시주자였던 승려들, 제작자 등 불화 제작과 관련한 모든 인원들을 기록하였다. 이 중 실제로 괘불을 제작한 이들은 총 23명의 화승으로, 18세기의 실력있는 화승인 유성(有誠)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다. 유성은 1776년 이 괘불을 제작하기 4년 전인 1772년에 충남 개심사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264호)를 제작할 때 역시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는데, 두 작품의 주존인 석가모니불의 모습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석가모니의 건장하게 드러난 어깨와 당당하고 안정된 자세와 원만한 상호, 그리고 수인 및 복식은 두 작품 간의 유사성을 확인시켜준다.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안정된 밑그림 뿐 아니라 필선과 채색 등 세부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당시 화승 집단과 수화승 유성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불보살의 상호나 육신의 윤곽선은 강직하고 탄력있는 선으로 표현하였고, 사천왕은 그 성격에 부합하도록 비수(肥瘦)가 있는 활력넘치는 선으로 호방한 상호와 윤곽선을 능숙하게 그려 제작자의 필력을 가늠하게 한다. 색조합이나 세부 문양들도 매우 아름다워 현전하는 괘불들 중에서도 단연 수작이라 할 수 있다.

1788년의 남장사 불사(佛事) 전말을 기록한 『불사성공록(佛事成功錄)』에는 1788년에 새로운 괘불을 조성하게 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기록을 통해 1766년에 제작된 상주 남장사 <괘불도>가 제작한지 10여년이 되었을 때 기우제를 위한 의식에서 비에 젖는 사건으로 손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새로운 괘불을 제작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상주 남장사 <괘불도>에는 물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얼룩이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광배의 녹청 등 녹청 부분의 안료는 거의 탈락되었으며, 군데군데 다른 안료들도 탈락된데다 화면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다. 안료가 탈락한 바탕천에 붉은색으로 쓴 다라니가 군데군데 확인된다. 또한 범자를 넣어 그림장황으로 마무리하

였는데, 장황 가운데 상하축과 이어지는 부분의 손상이 매우 심하다. 다행히 주존인 석가모니불과 주요존상들의 상호와 육신부는 훼손이 덜해 하루라도 시급히 보존처리를 실시해 더 이상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다.

ㅇ 문헌자료

『佛事成功錄』
『남장사 영산회 괘불탱 -대형불화정밀보고서 17』, 문화재청 · 성보문화재연구원, 2017
조수연, 「화승 有誠作 眞影의 연구」, 『강좌미술사』,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

1) 현황 및 특징

남장사 영산회괘불도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가섭과 아난존자, 용왕과 용녀, 사천왕을 대칭으로 배치한 불화이다. 석가모니불의 원형 두광 위에는 연화좌에 앉아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을 화불 형태로 표현하고 그 좌우에 각각 그리고 5위씩 적색 연꽃을 딛고 서서 합장한 자세의 시방불을 표현했다. 화면 중앙에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서있는 석가모니불은 적색 연꽃을 딛고 서서 왼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했으며, 오른손은 아래로 내렸다. 머리 형태는 테두리만 나발에 우뚝 솟은 육계와 반원형의 중간 계주, 원형의 정상 계주를 표현했다. 용수염이 표현된 용왕의 얼굴에서 18세기 신중도에 표현된 용왕 도상을 떠올릴 수 있고 사천왕의 수염표현 등에서 세밀하고 정치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사천왕은 향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탑을 든 북방천왕, 비파를 든 지국천왕, 칼을 든 증장천왕, 용을 쥐고 있는 광목천왕을 배치하였다. 서방광목천왕의 육색을 다른 사천왕들과 비교했을 때 어둡게 표현하고 있어 기존 불화들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존과 두 협시보살의 육색은 밝고 환하게 표현한 반면 제자, 용왕과 용녀 등의 육색표현에 차이를 두는 등 존격에 따라 육색을 달리 표현함으로써 불화 전체에 변화감을 주고 있다.

불화 전체에 표현된 색은 채도가 높은 주홍계열의 붉은 색이 돋보이는데 이는 본존불의 광배를 비롯하여 초록색 안료가 사용된 부분의 탈락이 심한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면 하부를 제외한 3면 변아에는 모두 104자의 梵字가 원문 안에 쓰여져 있다. 범자는 석록과 백록으로 구분한 원문 안에 진사를 바탕으로 칠하고 상부에 22자, 좌우측에 각각 41자씩 나누어 썼다. 원문의 전체 지름은 12.8~13.5㎝이다. 범자는 부분적으로 결실되거나 탈색된 글자가 많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분석 결과 14종류의 진언을 조상경 보다는 의식집을 모본으로 해서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141]

(도19)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1776)

괘불도 조성에 있어 특이한 점은 채색층 바로 아래 바탕층에도 범자를 써서 기록해놓았다는 점이다. 바탕면에 드러난 범자는 초록의 채색층이 박락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본존과 두 보살, 두 사천왕의 광배 부분의 초록색이 탈락된 자리에 보이는데, 이 외에도 초록으로 칠해진 화면상단 중앙의 비로자나불의 두광 등에도 나타나 있어 변아 부분 뿐만 아니라 화면의 바탕면 전체에도 범자 진언을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41) 상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出悉地, 六字大明王眞言, 准提九字, 秘密悉地를 썼다. 좌측은 入悉地와 降魔眞言을 적었는데, 항마진언의 마지막에는 두 글자를 함께 기록했다. 우측은 위에서 아래로 眞心種子, 列金剛王如來 10位와'람'자, 跋折羅手眞言, 合掌手眞言, 列金剛王如來 4위,'람'자,'훔'자를 차례로 썼다.

(도190) 채색층 아래 바탕면에 드러난 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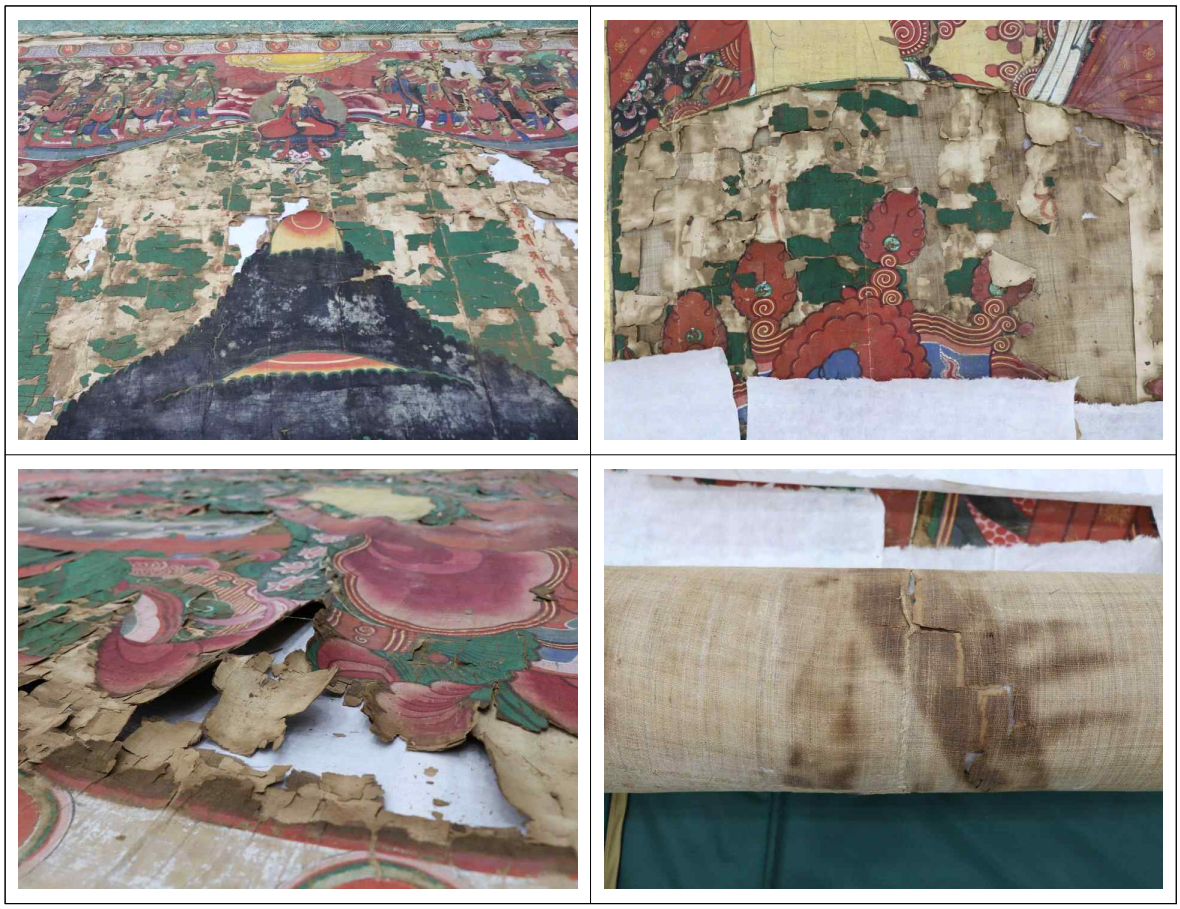
괘불도 뒷면은 18폭의 삼베를 이어 배접을 하였고 화면 좌우에는 길이 67㎝, 너비 21.3㎝의 낙영이 부착되어 있고 화면의 향좌측에는 길이 115.5㎝의 유소 1개가 매어져 있다. 1788년 조성된 남장사괘불도 조사 당시 복장낭이 어느 괘불도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최근의 정밀분석을 통하여 1766년에 조성된 괘불도의 낙영 재질과 문양이 남장사에 보관된 복장낭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남장사에 보관된 복장낭은 1776년 영산회괘불도의 것으로 추정된다.

(도191) 남장사괘불도(1776)의 낙영, 유소, 복장낭

현재 괘불도는 전체적으로 손상이 매우 심하다. 특히 초록색 안료의 박락으로 인한 화면 결실이 매우 심한데 석가모니불과 보살, 사천왕의 두광에서 두드러지며, 상부의 시방불과 비로자나불, 하부 사천왕의 갑주 등에서도 초록색 안료의 결실된 부분이 관찰된다. 이외에 상축 회장 부분도 가로로 결실되었다.

또한 바탕 마직물과 배접지는 열화 및 마모로 인해 부서지고 있으며, 조각난 화면 편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다. 이밖에 곰팡이 흔적과 변색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찰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탈락과 박락이 심한편이나 다행인 것은 여래를 비롯

하여 주변 권속들의 상호 부분은 박락없이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192) 남장사괘불도(1776)의 손상 일부

2) 조성관련 특징

남장사괘불도는 건륭41년인 1776년에 제작된 불화이다. 1776년은 영조의 재위(1724~1776)가 끝나고 정조가 즉위한 해이다. 괘불도는 '主上三殿下龍樓萬世 干戈息靜[142] 國泰民安'을 위해 1776년 10월 20일에 완성되었다. 제작에는 수화승 有誠을 중심으로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玹性 富一 永印 信一 靜坦 觀淨 笠涵 守仁 笠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閏 喚鳳 若禪 德弘 戒印 등 20명이 넘는 화승들이 참여하였다.

현재 남장사에는 이 괘불도보다 12년 늦은 1788년에 제작된 또 다른 영산회괘불도가 전하는데, 1788년 불사를 완료하고 기록한 『佛事成功錄』에 1776년의 괘불도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142) 간과 : 창과 방패, 즉 전쟁, 식정 : 그치어 조용하게 되었다는 뜻

“종전의 괘불은 그려진 지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랜 가뭄을 당해 성안으로 옮겨져 하늘에 비를 빌 때 덮개 막대 드리우는 것을 잊어버려 부처님의 몸이 비에 젖고 채색이 떨어져 주존과 그 밖의 불상들이 인간과 천상에서 우러르던 바 32상을 잃게 되어 참으로 귀의하여 공경하던 모습이 남지 않게 되었으니, 절의 나이든 이나 젊은이들이 모두 애달파 한지 한 해가 지났다.143)

(도5)남장사영산회괘불도(1788)

위의 내용을 통해 1776년의 이 괘불도는 그려진지 10여년만인 약 1786년경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사찰이 아닌 성안으로 옮겨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비가 내렸는데 덮개를 씌우지 않아 비에 젖어 채색이 떨어졌고 큰 손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를 맞아 큰 손상을 입은 괘불을 그대로 지금까지 보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寺中에서 새로이 불화를 제작할 때 훼손된 불화는 태우거나 매장을 하는데 이 경우는 훼손된 채 그대로 보관을 해왔다는 점에서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88년의 남장사영산회괘불도는 조선후기 대표 불화승인 尙謙의 주도하에 총 22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불화이다. 이 괘불도에는 4면의 변아에 梵字를 기록하고 있는데 범자는 장황이 아닌 화면의 바탕 직물에 의도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괘불탱을 처음 조성할 때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괘불도는 높이 10m가 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존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주위에 권속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고 밝고 짙은 채색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화면이 특징이다. 명료하고 능숙한 필선으로 대상을 표현하여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18세기 후반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불화 중 하나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1788년의 괘불도는 불사성공록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한양)의 화사인 尙謙이 그렸다. 1776년 괘불도를 제작한지 12년의 세월밖에 흐르지 않았고 이 때는 1776년 괘불도를 조성한 수화승 유성이 한참 활동을 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다시 제작에 나서지 않은 점이 의문이 남는다. 『佛事成功錄』의 연화질에 誦呪를 맡았던 승려중에 有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동

143) ...前掛佛畵來者 不過十餘載 而逢久旱 入城呼雨諸天 忘垂寶盖之枊 全身蒙雨 彩像脫漏 主伴不具三十二相 人天所仰 固未存歸敬之糾 一寺老少 咸生悽愴者年矣 有老比丘省學 早寄於斯...(『佛事成功錄』<南長寺掛佛新成聖記>)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17, 『남장사 영산회괘불탱』(2017), pp.174~179. 불사성공록 참조.

일인이라면 당시 다른 소임을 맡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776년 남장사괘불도의 <화기>는 다음과 같다.

乾隆四拾壹年丙申々十月二十日
小靈山一位畫成于尙州露岳山南
長寺仍爲奉安仗此功德奉爲
干戈息靜
主上三殿下龍樓萬世
國泰民安
大施主秩
白峯堂信嚴
省學　幹事時僧統振樞
大允　首僧廣玉
宇淳　三綱三寶碩敏
鍊秋　掌務道占
守明
良輝　山中老■秩
金性才　思運
姜貴世　致文
崔大甲　致軒
時坦　希伯
尙輝　省學
泰堅　宗言
大善　泰堅
曇裕　大善
宗悅　曇裕
大悅　鍊秋
宇習　大允
尙雲　宗悅
普閑　信貧
道鑑　施主無本寺秩
日言　文習
漢柱　太日
宠曄　大悅
寬演　法蘭
腹藏金氏　怡現
腹藏宋氏　寬允
烏金ヽ乭夢　位策

金命吉　　廣先
　　緣化秩　　法善
證師秩　　寬演
韝山堂斟基　　道監
性月堂希倫　　道寬
沖虛堂肯冊　　亘三
南岳堂暎琣　　宗訁
括虛堂掫如　　海宗
如應堂就成　　漢日
白華堂呂恢　　普閑
　秉法　　緇悅
詠虛堂析誠　　緇俊
　持殿　　宂曄
靑岳堂大仁　　碧楚
　　海機　　元察
　誦呪秩　　宂貧
道仁　　善忍
快有　　道令
棹綆　　卓連
誠旻　　雪淨
佳玉　　唯察
天宊　　頓機
德俊　　頓珠
位成　　快察
道寬　　尊信
體普　　體行
觧源　　平淳
自詢　　體玉
瑞希　　快淨
尊輝　　景弘
戒欽　　快日
月珠　　煥希
明悟　　漢奎
印鑑　　漢已
敬源　　先察
處寬　　平益
浻寬　　萬澄
華希　　景澄
豊演　　煥信

龍眠秩
繪首有誠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玹性
富一
永印
信一
靜坦
觀淨
笁涵
守仁
笁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閏
喚鳳
若禪
德弘
戒印
供養主
如學
學岑
智鑑
良貽
法心
瑞榮
得念
朋仁
寬坦
再雲
有眼
致弘
好澄
萬訓

煥宇
好信
取淑
直敏
達令
希俊
道輝
法淳
幻愚
漢佑
快信
性天
普日
等祐
萬天
普弘
萬貽
快淳
萬曄
普哲
景修
景有
平吾
快淨
普寬
卓允
普雲
俊益
法藏
德行
大行
取三
守閑
俊元
俊令
萬輝

鍾頭秩
普閑
智曄
璟雲
平日
快念
喚攝
淨桶秩
覺淳
朗日
明松順和
別座秩
大允
日嘗
都鑑秩
省學
希伯
化士秩
宗念
時仁

보완조사보고서

□

ㅇ 현　　상

복장낭은 상부의 홍색 덮개와 하부의 청색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5-6겹 정도의 한지를 심지로 넣었다. 청색 주머니 하단 중앙에 색실 장식이 달려 있고, 홍색 덮개의 상단 중앙에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 4개의 유소는 근래에 추가한 것이다. 복장낭의 겉면인 홍색과 청색의 천은 견직으로 보이며, 운보문으로 이루어졌다.(복장낭의 내부에 후령통과 지름 65미리의 유리, 『묘법연화경』,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가 분책되어져 납입되었다.: 『대형불화 정밀조사보고서 17 남장사 영산회 괘불탱』, 2017)

복장낭의 상부 홍색 덮개에는 일괄로 보관 중인 동경을 걸었던 둥근 모양의 흔적이 확연하다. 복장낭의 앞면 중앙에는 세로로 상하 2자씩 총 4글자, 옴 · 아 · 훔 · 람의 금박으로 찍은 범자가 있다. 복장낭 뒷면은 하부의 청색 주머니 중앙부와 하부 2군데가 가로로 길게 헤어져 부분적으로 속의 한지가 드러나 보이므로 보견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복장낭의 표면에는 누수 혹은 알 수 없는 원인의 오염과 변색 현상이 보이는데, 특히 뒷면의 변색 부분이 더 많이 보인다.

후령통과 서적류, 유리가 납입된 복장낭은 동경과 함께 목제함에 보관되어 있으며, 목제함의 내부 바닥면 오른쪽에 세로로 묵서가 기재되어 있어 이 보관함이 건륭48년인 1783년 5월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 내용 및 특징

복장낭의 뒷면 하부 주머니 왼쪽 끝단에 세로로 '원침공덕원찰(願針功德元察)'이라고 금니로 적힌 내용과 상부 덮개 안쪽에 묵서로 쓰인 '작침원찰(作針元察)'의 내용으로 보아 복장낭의 제작자가 원찰이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복장낭에 납입된 개봉하지 않은 후령통은 종이로 감싸고, 주서가 적힌 띠지를 감아 봉했는데, 띠지 안쪽에 적은 묵서 '○斟基謹封'이라는 글씨가 드러나 보여 '두기'라는 승려가 봉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남장사에는 1776년과 1788년에 제작된 2점의 괘불이 전하는데, 그 중 1776년의 괘불 화기에는 증사질(證師秩)에 7명이나 되는 승려가 기록되어 있으며, 가장 먼저 기재된 승려가 '농산당두기(聾山堂斟基)'이다. 1788년의 괘불 화기에는 '두기(斟基)'라는 승려가 없어 앞서 언급한 후령통을 봉인한 승려 '두기'가 1776년 제작 당시 증사로 참여한 큰 스님으로 추정된다. 또 복장낭의 겉면에 있는 금박의 유려한 범자의 글씨체 역시 1776년의 괘불도의 그림장황 부분에 쓰인 범자체와 유사성이 보인다. 따라서 1783년에 제작된 목제 보관함의 연대와 후령통의 봉인 기록, 1776년의 화기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남장사 복장유물 일괄은 1776년 제작 즈음 혹은 조금 지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788년의 괘불도 보다는 1776년 괘불도와 함께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ㅇ 문헌자료

『대형불화정밀조사보고서 17 남장사 영산회 괘불탱』(문화재청 ·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2017)

[사진]

□

ㅇ 현상 및 특징

상주 남장사에는 1776년에 제작된 영산회괘불도(구본)와 1788년에 제작된 영산회괘불도(신본) 등 두 점의 괘불도와 복장낭을 비롯한 복장유물이 전하고 있다. 복장유물은 크게 복장낭과 그 속에 납입된 후령통, 동경, 목제보관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장낭(78×63cm)은 홍색 덮개와 청색 주머니, 부속 장식물로 이루어져 있다. 홍색

의 주머니 덮개는 그 위에 동경(지름37.7cm)을 올려 보관하여 해당 부분은 주변보다 색상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주머니와 덮개는 서로 다른 운보문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내부는 5~6겹 정도를 배접한 한지를 심지로 넣어 덮개와 주머니 양쪽 끝과 중앙을 바느질하여 연결하였다. 청색주머니의 뒷부분은 비단이 닳아 한지가 드러난 부분이 있고 군데군데 얼룩이 확인된다. 복장낭의 앞면에는 범어 옴, 아, 훔, 람을 금박으로 찍었는데 일부는 표면이 박락되어 접착제의 검은색이 드러난 부분도 있다. 뒷면 주머니부분 좌측에는 '願針功德元察'을 금니로 적었다. 홍색 덮개 부분 안쪽 배접 한지면에는 '作針元察'이라는 글씨가 묵서로 적혀 있다.

복장낭에는 分冊된 『妙法蓮華經』,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齊儀纂要』, 候鈴筒, 지름 6.5㎝의 유리가 들어 있었다. 분책된 책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찍은 목판본이다. 후령통(가로 22.2, 세로 15,1, 두께 9.2cm)은 개봉하지 않아 내부의 납입물을 알 수 없지만 두꺼운 종이로 감싸고 겉면에 '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를 朱書로 적은 띠지를 감아 봉하였다. 또한 겉면에 '南 面'이라는 묵서가 있으며, 띠지 안쪽 면에 '○卦基謹封'이라고 적은 묵서가 비춰 보인다.

銅鏡(지름 37.7cm)은 복장낭과 함께 괘불도에 달았던 것으로, 형태는 원형이다. 앞면은 표면을 잘 다듬고 문질러 사물이 비추어지게 했으며, 뒷면에는 外區와 內區를 구획하고 중앙에 꼭지(鈕)를 배치했다. 내구 안에는 81개의 화문과 6개의 단권單圈에 범자를 돋을새김 했다.

복장낭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목제함도 전하고 있는데 전체 크기는 폭 79.0×73.7cm, 높이 17.7cm, 두께 1.2cm이다. 현재 바탕은 옻칠로 마감되었으며, 덮개 안쪽면에는 '乾隆四十八年癸卯五月日造成 省學 振樞'라는 묵서가 있어 1783년, 省學 振樞가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령통

복장낭 보관함 내부 묵서

□

남장사 괘불도는 괘불의 복장유물을 안립한 복장주머니도 조성당시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고 있어 중요하다. 복장낭은 전체크기가 세로 67.4cm 가로 66.0cm로 山모양의 뚜껑과 타원형의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복장낭의 안쪽에서 바깥으로 끈을 내어 걸 수 있도록 하였고, 아래 쪽에는 비단색실로 만든 수술이 달려 있다. 바탕 재질은 견이며, 안쪽에는 종이로 빳빳하게 배접하여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복장낭의 앞면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기로 '옴·아·훔·람·" 사방주를 네 글자를 금박으로 찍었다. 뒷면 좌측 끝에는 '願針功德元察"이라고 금니로 적었고, 윗부분의 안쪽에도 '作針元察'이라는 묵서가 있어 元察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사성공록』에는 元察이 圓察로 나오지만 동일인으로 판단되며, 그는 1788년 불사때 化主 소임을 맡았다. 따라서 이 괘불 복장낭은 괘불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장낭에는 분책된 『묘법연화경』,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후령통, 유리편 등이 납입되었다. 분책된 책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찍은 목판본이다.

후령통은 종이로 만든 사각형으로 겉에는 '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를 적은 朱書 띠지를 감아 봉했다. 띠지 안쪽 면에는 '○卦基謹封이라고 적은 것이 어렴풋이 보인다. 후령통의 표면에는 남면이라고 묵서하여 정면을 표시하였다. 후령통의 크기는 세로 15.1cm, 가로 22.2cm, 두께 9.2cm이다.

그림48 복장낭

그림49 복장낭 명문1

그림 50 복장낭 명문2

그림 51 복장내 납입 복장유물

4. 복장낭 보관함

그림 49 복장낭 보관함

그 림 50 복장낭 보관함 명문

상자모양으로 여러 판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 각 면이 만나는 가장자리를 나무못과 국수형 거멀감자이로 잡고 네면은 모를 죽였다. 상자의 정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다. 전체 크기는 폭 79.0×73.7cm, 높이 17.7cm, 두께 1.2cm이다. 상자의 내부에는 乾隆四十八年癸卯五月日造成 省學 振樞'라는 묵서가 있어 1783년이라는 제작시기와 省學 振樞라는 제작자를 알 수 있다.

그림 51 복장 동경

5. 동경

복장낭 앞 쪽에 매달았던 동경이다. 형태는 원형이며 앞면은 매끈하게 처리하였고, 뒷면은 꼭지 중심에 두고 내구와 외구로 구획하였다. 내구에는 81개의 화문과 6개의 범자원문을 도드라지게 새겼다. 크기는 전체 지름 37.7cm, 두께는 0.61cm이다.

안건번호 동산 2020-07-016

16. 구미 대둔사 경장
(龜尾 大芚寺 經櫃)

가. 검토사항

‘구미 대둔사 경장’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장으로부터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결과물로 ‘구미 대둔사 경장’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5.12.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9.17./10.22./11.19.) 및 과학조사(’20.10.2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구미 대둔사 경장(龜尾 大芚寺 經櫃)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

○ 소 재 지 : 경강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691-78, 대둔사

○ 수　　량 : 1쌍(2좌)

○ 규　　격 : ① 연화문 경장(향좌측) 117.0×63.3×50.2cm
② 모란문 경장(향우측) 119.0×67.0×51.2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불전형(佛殿形) 경장

○ 조성연대 : 1630년(인조 8)

○ 제 작 자 : 쌍연(雙連), 유혜(裕惠)

구미 대둔사 경장

라. 조사자 검토 의견

ㅇ (지정 가치 있음)

<대둔사 경장>은 명문을 통해 제작시기와 제작 장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희귀한 사례로 미술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불교목공예품 중 명문이 있는 예가 드물 뿐더러 경장 자체도 유물이 희귀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대둔사 경장>은 기년명일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조형적으로 우수하여 조선후기 불교목공예의 편년과 도상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목공예품은 재료적 한계와 조선시대 장인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묵서나 문헌기록 등 관련자료가 희소하여 편년이나 도상연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금번 지정 조사 결과 <대둔사 경장>은 부분적인 후보와 가채가 있지만 2018년도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북장사 경장>과 비교하여 조형적인 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제작수법이나 양식에 가구 있어서 오히려 제작시기가 이른 古式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숭정 3년 경오년(1630)에 제작기년명 작품이기 때문에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정밀조사와 보존처리를 거쳐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ㅇ (지정 가치 있음)

조선후기에 제작된 목공예품은 목어, 전패, 불연, 경장, 촛대, 업경대, 대좌, 불단, 소통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지만 제작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은 드물다. 이 대둔사 경장은 좌측 경장의 뒷면과 밑면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 용도 등을 두루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목공예를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특히 좌우 경장의 문짝 안쪽에 각각 2구씩 그려진 사천왕상을 배치를 통해 원래부터 한 쌍으로 제작되어 대웅전의 불단 좌우에 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일부 수리되고 개채된 부분을 있지만, 제작 당시의 문양과 채색 기법을 대부분 상실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 당시의 채색기법 연구 및 선묘불화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사천왕도는 17세기 선묘불화의 유일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 경장은 대좌와 몸체의 비례가 0.35:1 가량으로 구성하여 상당히 안정되고 조화로운 비례를 갖추고 있으며, 대좌와 몸체에는 게눈각의 초각, 담백하게 처리한 안상, 정감 있게 새긴 꽃무늬, 섬세하고 능숙하게 그려낸 사천왕상과 꽃넝쿨문 등 공예적인 요소와 조각, 회화적 요소가 서로 잘 어우러져 있는 경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장의 문 안쪽에 사천왕상을 그려 넣어 법보를 옹호하게 한 점이 돋보이는데, 단순히 불단을 장엄하는 목공예로서의 경장이 아니라 숭고한 종교적 상징성을 부가하였다. 따라서 佛龕이나 탑, 승탑 등의 탑신부에 외호신중을 새겨 넣는 전통 법식을 경장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로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어서 더욱 가치가 크다.

이 대둔사 경장은 '經莊'이라는 명칭, 1630년이라는 제작 시기뿐만 아니라 '畵員', '引出匠人', '焰匠人' 등 당시 경장과 관련된 제작자 정보를 모두 알려 주는 귀중한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

ㅇ (지정 가치 있음)

구미 대둔사 소재 경장 2점은 보물지정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불교공예품에서 매우 희소한 조성연대 기록이 있어, 1630년 제작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조성 연대가 전하는 목조 불교공예품으로는 김천직지사 대웅전 수미단(1651년), 부여 무량사 삼전패(1654), 울진 불영사 불패(1678) 등 매우 희소한 예에 한정되어 있다.
   - 조성기록은 왼쪽 경장의 뒷면에 ('崇禎 三年 庚午') 쓰여진 명문 뿐 아니라, 왼쪽 경장의 기단부(몸체를 받치고 있는 하부) 내부에서 '崇禎 三年 庚午'(현재 육안으로는 崇禎 二年 庚午으로 보임)의 묵서명이 발견되어, 뒷면의 명문 기록을 뒷받침한다. 뒷면의 명문에는 시주자와 경장 문짝 안쪽에 선묘로 그린 사천왕도를 그린 화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2. 두 점의 경장은, 경장을 제작하는 처음부터 문짝 내부에 사천왕도를 고려하여 제작된 것이다. 경장 안에, 현재 전하는 예가 드문 불화가 함께 전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 왼쪽과 오른쪽 경장의 외부 장식형태나(각 경장의 한쪽 측면에는 장식을 비워둔 점), 경첩의 달린 위치(경첩의 위치를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두어 대칭으로 마주하게 한 점), 나란히 높인 두 경장의 문을 열었을 때의 사천왕상의 배치를 고려한 점은 처음부터 이 두 개의 경장은 불화와 함께 고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북장사의 경장(시도유형문화재)과 비교할 때, 대둔사의 것이 보다 古式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장식 면에 있어서도, 경장의 세부를 통해, 당시 솜씨 좋은 장인의 참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금속장식이나, 칠 등 후보 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원형을 벗어날 만큼의 훼손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장식이나 짜임에서, 북장사의 경장과 비교하여, 보다 古式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쇠못의 사용이나 장식에서 확인함)
- 대둔사의 문짝 짜임과 기단부 제작형태, 기둥의 쇠시리 등을 살폈을 때, 당시 솜씨 좋은 장인이 참여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짝이 휘거나, 그 외 연결 부위에 틈이 벌어지거나 떨어진 부분, 그리고 왼쪽 경장의 족대가 좌우가 아닌 앞뒤로 달려 후보 된 점 등은 향후 보존을 위해 수리 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 (지정 가치 있음)

불교 목공예품은 목재라는 유기적 재료의 한계로 인해 조선 후기에 유물이 집중되어 있고 기년명 유물이 희소하여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예가 적어 그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불교 목공예는 종교적 상징성, 학술성, 예술성 등이 뛰어난 공예 분야로 불교 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일면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 연대를 알 수 있고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불교 목공예품을 중심으로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유형문화재로의 지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미 대둔사 경장은 외관이 소박하고 부분적으로 부재 교체가 이루어졌으나 명문으로 인해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조선 중기의 중요한 불교 목공예품이다. 특히 명문에는 기년뿐 아니라 시주자, 제작 장인, 화원에 이르는 자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그 학술적 가치를 더한다. 아울러 대좌부의 조각 수법이 매우 우수하고, 문 안쪽의 사천왕도도 보존 상태가 매우 좋고 필치나 세부표현이 섬세하다. 또한 문판의 연화, 모란문 조각이나 몸체 측널의 화문들도 주목되어 예술성 면에서도 뛰어남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하여 본 조사대상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1) 크기

연화문경장(향좌측, 蓮花紋經櫃) : 전체 높이 117cm,
몸체 높이 75.3, 66.1 × 50.2cm,
좌대 높이 41.7, 63.3 × 48.6cm

모란문경장(향우측, 牧丹紋經櫃) : 전체 높이 119cm,
몸체 높이 78.5, 67.0 × 51.2cm,
좌대 높이 40.5, 61.2 × 45.5cm

(2) 명문

<經櫃①(향좌측, 蓮花紋經櫃) 銘文> : 후면

崇禎三年庚午五月日」蓮花座臺經莊兼大施主應順幡兩主」金孫伊兩主」龍介兩主」黃貴世兩主」金丁大兩主」金丁而兩主」張應补兩主」朱紅大施主李千伊兩主」寺中」大雲」鷲靈」呂元」性衍」禪熙」淨楫」時三綱太默」崇禎三年庚午五月日」引出匠人忠願大裕」炤匠人金德云兩主」畵員雙連」裕惠」

<經櫃①(향좌측, 蓮花紋經櫃) 銘文> : 좌대 바닥

崇禎二年庚午五

: 후면에 쓰인 崇禎三年의 오기로 보임. 崇禎三年이 庚午年이 맞음

2) 조사 내용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에 위치한 구미 대둔사(龜尾 大芚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이다. 신라시대 아도화상(阿度和尙)이 세웠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창건 후 고려 고종 18년(1231년) 몽골족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것을 충렬왕의 아들 왕소군(王小君)이 출가하여 다시 세웠고, 그 후 1606년(선조 39)에 사명대사(四溟大師) 유정(惟政)이 중건하여 승군(僧軍)을 주둔시켰는데, 당시 암자가 1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사찰의 모든 암자가 해체되었으나, 최근 들어 신도들의 모금으로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사역은 원래 대둔사의 암자인 청련암(靑蓮庵) 자리이며, 현재 자리에서 서남쪽 약 300m 지점에 대둔사 옛터가 남아 있다.

대둔사의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된 17세기 말의 건축물로서 내소사(來蘇寺)의 대웅전과 그 형태가 비슷하며, 보물 제1945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 안에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시대의 좌불로서 대웅전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둔사 경장(經藏)>은 2점으로 대웅전 불단 위 본존불 좌우에 한기씩 안치되어 있다. 경장은 불교 경전을 수납하는 가구로 유사한 예로 상주 북장사에 경장 한 쌍이 있으며, 예천 용문사에는 윤장대(輪藏臺) 한 쌍이 있다.

<대둔사 경장>은 두 점이 크기나 형태가 거의 같고 문짝의 장식조각만 다르다. 향 좌측은 연화문이고, 향 우측은 모란문을 조각하고 있는데 이는 북장사 경장의 형식과 같다.

이 경장은 높이가 1m가 넘는 크기이고, 불단 위의 공간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단 위에 본존불의 양쪽에 안치되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문짝에 달린 여닫이문의 열리는 방향을 중앙 쪽으로 맞춰 문고리와 경첩을 단 점과 바깥쪽으로 보이는 측면에만 연화넝쿨무늬 단청을 그렸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한 쌍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향좌측에 위치한 연화문경장의 후면과 좌대 바닥에 제작시기와 시주자, 화원 등을 알 수 있는 명문(銘文)이 묵서로 쓰여 있어 미술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크다. 불교목공예품 중에는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예가 적기 때문에 유물들의 편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유물은 하나의 기준작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명문에 쓰인 숭정 3년은 1630년, 경오년(庚午年)으로 바닥에는 숭정 2년이라고 쓰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글씨가 흐릿하여 잘 안보인 것일 수도 있고, 숭정 2년이라고 쓴 것이 맞다면 단순 오기(誤記)일 수 있다. 경오년은 숭정 3년 1630년이

맞기 때문이다.
명문에서 또 이 유물을 '經莊'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경장(經藏)을 지칭한 것우볼 볼 수 있으며, 雙連, 裕惠라는 화원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아직 이 화원들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지만 앞으로 다른 유물들의 발굴에 따라 관련연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글씨가 문짝 내부의 불화를 그린 황색 안료와 같은 색이어서 제작당시 불화와 명문이 같이 쓰였을 것을 짐작케 한다.[144]

<대둔사 경장>은 두 점 모두 불상 대좌(臺座), 또는 석탑의 기단과 같이 상·중·하대를 갖춘 삼단의 좌대(座臺) 위에 경전을 수납할 수 있는 방형의 장(欌)을 설치하고 정면에는 여닫이문을 단 경장이다. 장의 상부는 <북장사 경장>과 같은 궁륭형 지붕이 아니라 판재로 마감되어 있고 3면에는 단청으로 연화넝쿨문이 그려진 여모가 설치되어 있다. 전체적인 조형은 여모를 설치한 전각형(殿閣形)이라고 할 수 있다.

3단의 좌대는 중단까지 연결되어 있고, 하단만 분리된다. 현재 모란문 경장만 분리가 되긴 하지만 원래 연화문경장도 분리되는 구조인데 오랜 세월과 개칠 등으로 인해 접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분리된 부분을 살펴보면 중단 밑에 좌우로 촉을 내어 하단에 안정감 있게 끼워지도록 장치하였다. 주칠(朱漆)이 칠해진 좌대의 중단에는 후면을 제외한 3면에 능화형(菱花形) 안상(眼象)을 부조로 장식하였는데 전면에는 중앙에 동자를 사이에 두고 하나씩 2개, 좌우 측면에 한 개씩 표현하였는데 안상 안에는 별다른 조각이나 채색은 없다. 장식적이진 않지만 각 부재의 모서리는 모두 쇠시리를 깊게 하여 정성을 들여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안상 내부도 장식은 없지만 단이 지게 깎아 낸 점도 17세기 고식(古式)이라고 본다. 현재 연화문경장에만 하단에 족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후대에 붙인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좌우에 붙이는데 특이하게 앞뒤로 붙어 있다. 각 부재의 모서리는 깊지는 않지만 모두 쇠시리하여 정성을 들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의 여닫이문에는 각각 연화문과 모란문을 조각하고 단청으로 화려하지만 현란하지 않고 격조있게 장식하였다. 장의 전면에 문틀을 설치하고 조각장식문을 액자형 틀에 끼워 상하 2개의 경첩으로 고정하였다. 문고리를 달아 잠금장치를 마련하였는데 현재는 자물쇠는 결실되었고, 향좌측 연화문경장에만 원형의 문고리가 남아 있다. 문짝 변자는 바깥쪽은 연귀짜임이고, 안쪽은 맞짜임으로 짜서 신경을

144) 최응천, 「조선 후반기 제1기(광해군-경종대) 불교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성 연구」(강좌미술사 38, 2012, pp172)

써서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문양을 살펴보면 연화문경장의 문에는 6송이의 연꽃을 각각 다른 형태로 한 단에 두송이씩 삼단으로 구성하였고, 모란문경장의 문에는 만개한 모란문 다섯 송이와 모란꽃봉오리 한 송이로 구성하였다. 조각수법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꽃송이의 배치에 나름 신경을 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각이 깊지는 않지만 수법은 좋은 편이다.

두 경장의 문짝 내면에는 황색안료로 사천왕상을 그린 불화가 그려져 있다. 그림의 구성은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두 점 다 구성과 표현이 우수한 편으로 17세기 양식으로 추정된다. 황색 안료가 금묘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과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또 연화문경장의 왼쪽 측면, 모란문경장의 오른쪽 측면, 즉 외부에서 보이는 쪽 측면에만 연화넝쿨문이 그려져 있는데 현재 희미하게 확인되고 있다. 반대쪽에는 아무런 무늬가 그려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개채된 것으로 보이지만 양쪽 경장이 같은 상태인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쪽이라서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화넝쿨문과 같이 경장 위에 설치된 여모에도 연화넝쿨문은 두 점이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단청의 상태로 보아 후대에 같이 개채(改彩)된 것으로 보인다.

두 경장 모두 문에 문고리와 자물쇠가 달려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지금은 연화문경장의 문고리 외에는 모두 결실되어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경첩과 국화형 배목은 두 점 모두 남아 있다. 다만 장석의 재질이 무쇠보다 질이 낮은 철제 장석이고 두께가 얇고 조악한 점과 문고리의 부착 위치를 옮겨서 현재 위치보다 아래쪽에 못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으로 보아 현재의 장석들은 후대에 갈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재의 수종은 아직 과학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확언할 수 없으나 좌대와 몸통이 목재는 처음부터 다른 나무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개칠이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문짝 조각과 여모의 단청 역시 후대에 개채된 것으로 판단된다. 채색안료의 과학적 성분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육안으로 관찰되는 색감으로는 역시 양록(洋綠) 등 근대기 화학안료로 개칠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적으로 목재가 부분부분 손상되거나 칠이 벗겨진 곳이 발견되며 연화문경장의 후면이 어긋나 빠져 있고, 손상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보강목재를 대 놓은 곳과 나무편을 박아 땜질할 곳도 있다. 그러나 기단에 보이는 시우쇠 철장석, 못 등을 볼 때 시기가 올라가는 古式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장과 유사한 예인 2018년 유형문화재 523호로 지정된 상주 <북장사 경장>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북장사 경장>보다 장식적이지는 않지만 안정된 조형

감과 정제된 장식, 문짝 내면의 불화양식, 장석의 쓰임 등으로 보아 <북장사 경장> 보다 제작시기가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북장사 경장>이 함께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장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1676년에 제작된 점을 고려하여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도 연동된다.
크기도 <북장사 경장> 보다 약간 작지만 두 유물이 비슷한 크기와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경전신앙의 대상으로서 제작된 경장의 기본형식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북장사 경장은 목재로 궁륭형 천정을 설치하고, 장식적이어서 불연과의 친연성이 더 돋보인다.

즉 <대둔사 경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형양식으로 보아 연화문경장 후면에 쓰여진 명문과 좌대 밑에 쓰여진 묵서에 쓰여진 대로 숭정 3년인 1630년에 제작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칠 및 보수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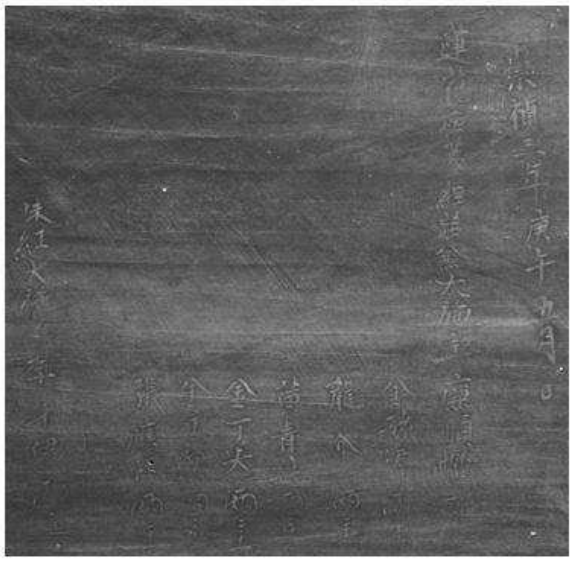
ㅇ 사진자료

[도 1] 대둔사 경장 ① (1630)

[도 2] 대둔사 경장 ① _ 내부

[도 3] 대둔사 경장 ② (1630)

[도 4] 대둔사 경장 ② _ 내부



[도 3] 대둔사 경장 ① _ 후면 묵서

[도 4] 대둔사 경장 ① _ 후면 묵서

[도 5] 대둔사 경장 ① _ 후면 묵서

[도 6] 대둔사 경장 ① _ 좌대 밑 묵서

[도 6-1] 대둔사 경장 ① _ 묵서 확대

[도 7] 대둔사 경장 ① _ 여모 연화넝쿨문

[도 8] 대둔사 경장 ② _ 여모 연화넝쿨문

[도 9] 대둔사 경장 ① _ 연화문 조각

[도 10] 대둔사 경장 ② _ 모란문 조각

[도 11] 대둔사 경장 ① _ 외측면 불화

[도 12] 대둔사 경장 ② _ 외측면 불화

[도 13] 대둔사 경장 ① 좌대

[도 14] 대둔사 경장 ② _ 좌대

[도 15] 대둔사 경장 ① _ 경첩

[도 16] 대둔사 경장 ② _ 문고리

[도 17] 북장사 경장 ① _ 연화문경장,
148*69.5*51.9cm, 직지사성보박물관

[도 18] 북장사 경장 ② _ 모란문경장
145*69.5*53.5cm, 직지사성보박물관

□

ㅇ 내용 및 특징

대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직지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다. 446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으며, 고려 충렬왕 때 왕자 王小君이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사찰에는 고려 말에 조성된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과 1614년에 건립된 대웅전, 1630년 제작으로 추정되는 응진전 16나한상, 1741년에 제작된 삼장보살도와 1761년에 제작된 영산회상도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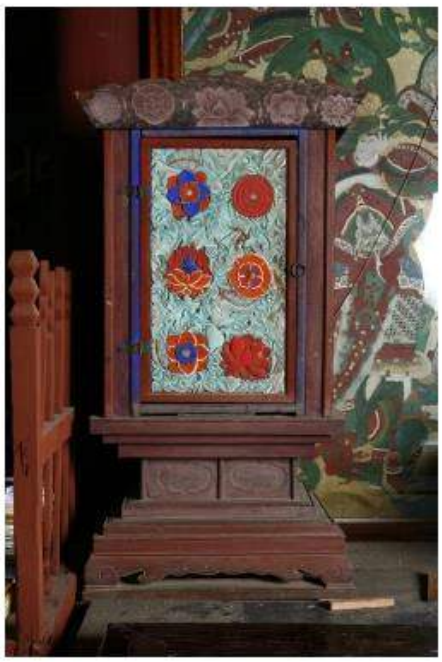
대둔사 경장은 대웅전 불단의 좌우측에 봉안되어 있다. 뒷면에 기록된 명문에 의해 1630년 引出匠人 大裕, 焰匠人 金德云, 畵員 雙連, 德惠 등의 合作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명문의 첫머리에 제작연도와 함께 '蓮花座臺經莊兼大施主…'라는 명문을 통해 이 작품이 경을 보관하기 위한 經櫃(명문에는 經莊)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장이 제작되던 1630년에는 응진전 나한상이 조성되는 등 대둔사에 일련의 佛事가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된다.[145]

경장 2좌 모두 臺座와 屋身(몸체), 개판으로 구성된 佛殿形 經櫃이며 몸체에는 여닫을 수 있도록 홑 문을 설치하였다. 佛輦처럼 弓隆形 천장으로 이루어진 북장사 경장과 달리 지붕은 설치하지 않고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지붕의 세 모서리에는 밖으로 벌어진 花稜形의 개판을 달았으며, 후면 개판은 결실하였다. 후면은 불단 위에 올려놓으면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원래부터 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제작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표면이 채색되어 있어 정확히 어느 부분이 보수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구멍난 부분을 때워서 사용하거나 벌어진 부분은 부목을 대어 사용한 점을 볼 때 수리의 범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좌우 경장의 개판에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시문된 문양은 서로 약간 달리 표현하였다. 좌측 경장의 개판 정면에는 문에 표현된 꽃문양과 거의 같은 5개의 꽃문양을 그렸고, 우측면에는 여의주를 가운데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두 獅子를 시문하였다. 우측 경장의 개판의 정면에도 5개의 큼직한 꽃문양을 시원스럽게 그려 넣었고, 좌측면에도 큼직한 3개의 꽃과 넝쿨이 어우러진 문양을 시문하였다. 이곳은 원래 주색바탕에 황색선묘로 그려진 경장의 몸체의 시문기법과 비교해 볼 때 채색으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면이 갖는 상징성을 볼 때 원래부터 측

145) <응전전 나한상 좌제석 밑면 묵서>崇禎庚午季?造成之後康熙四十二年癸未初夏日」靈山會重修之時左片帝釋主新造成寫也」緣化秩」證明 三彦」持殿 淨心 중단 畫員嘉善 金文」世均」卓勝」 呂贊」 就習 하단 供養主 勝謙」 宗念」負木 信淑」別座 雪雲」化主 淸日」
응진전 나한상의 초창 조각승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17세기 전반기 조각승들은 불상뿐만 아니라 불교 목공예와 불화 작업에도 참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둔사 경장을 제작한 조각장인이 16나한상 제작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독특한 인상을 가진 대둔사 16나한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수많은 17세기 조각승과 비교할 만한 분이 없었는데, 어쩌면 대둔사 경장을 만든 쌍련과 유혜가 16나한상 제작과 관련된 화원일 가능성도 있다.

면과 달리 채색기법으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의 것은 문의 꽃문양과 함께 후대 개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 1 우측 경장

그림 2 우측 경장 우측면

도 3 좌측 경장

도 4 좌측 경장 좌측면

두 경장의 몸체는 사면에 기둥을 세우고 얇은 몇 장의 판을 세우거나 가로로 이어 붙여 몸체를 구성하였다. 정면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문틀을 내고 문을 달았다. 문변자의 겉은 연귀짜임으로 하고, 내부는 맞짜임으로 짰다. 문틀은 청색으로 칠했으며 문틀과 기둥 사이의 좁은 벽체에는 선묘로 넝쿨문으로 시문하였다. 두 경장의 문짝은 서로 대응하도록 달았다. 즉 오른쪽 경장은 좌측(향 우측)에 문고리를 달았고, 왼쪽 경장은 우측(향좌측)에 문고리를 달았다. 기둥과 문틀의 부재의 면과 모서리에는 쇠시리와 모죽임을 하여 기교를 부렸다. 문짝의 표면에는 활짝 핀 꽃무늬를 가득 새겨 넣었으며, 왼쪽 경장(향 우측)에는 모란꽃으로 채웠다. 왼쪽 경장 문의 모란꽃은 꽃잎 속에서 활짝 핀 모란꽃을 형상화 하였다. 꽃의 배열은 가장 아랫단에 큼직한 모란꽃이 대좌처럼 자리 잡고, 올라가면서 각 2개의 꽃을 3단으로 배치하였다. 가장 윗단에는 활짝 핀 모란꽃 사이에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를 슬쩍 집어넣어 변화를 주었다. 꽃은 위로 올라 갈수록 크기를 조금씩 줄여서 원근감이 들도록 하였다. 오른쪽 경장의 문에는 이와 달리 연꽃, 국화꽃 등 서로 다른 6개의 꽃을 배열하였다. 경장에 표현된 꽃의 형태나 조각 수법은 대둔사 대웅전 본존불의 대좌에 표현된 꽃문양과 거의 같아, 어쩌면 기록대로 함께 제작된 연화좌대가 이 대좌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연 꽃 표현 중에는 연꽃 위에 석류동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단청과 관련된 문양이지만 17세기 괘불화와 主尊 大衣 깃에도 즐겨 사용된 문양 중이어서 시대성이 짙은 문양으로 볼 수 있다. 경장의 몸체 측면에도 붉은색 바탕에 황색 선묘로 다양한 꽃과 넝쿨이 역동적으로 어우러진 꽃과 넝쿨문을 그려 넣었다. 지금은 색채가 퇴락되어 고풍스러움 멋을 주지만, 원래 모습은 상당히 화려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두 경장의 문짝 안쪽 면에는 각각 2구씩의 사천왕상을 그려놓았다. 조선후기 조각과 불화에 등장하는 사천왕상의 배치를 따랐으며, 그에 맞게 경장도 안치되어 있다. 즉 좌측 경장에는 비파를 든 북방 다문천왕과 보검을 든 동방 지국천왕 2구를, 우측 경장에 용과 여의주를 든 남방 증장천왕과 당·탑을 든 서방 광목천왕을 배치하였다. 대체로 사천왕상은 보관을 쓰고 갑옷을 입은 무장형인데, 그 중 동방 지국천만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다. 특히 동방 지국천왕이 쓴 깃털과 털로 장식된 투구와 남방 증장천왕이 하반신에 착용한 獸皮장식의 모티프는 조선 전기 불화에 보이는 약사십이신장도의 신장상과 16세기 마본불화를 거쳐 17세기 들어 완전한 사천왕상 도상으로 정착되어 나간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곳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읽을 수 있어 주목된다. 이곳 대둔사 경장에서 표현된 사천왕의 양식은 침잠하게 인상을 쓴 북방 다문천왕을 제외한 나머지 사천왕상은 튀어날 올 듯 동그랗게 눈을 부릅 뜬, 둥글고 크게 묘사한 코, 상하좌우 폭이 거의 같은 얼굴, 유분방한

필치로 그린 수염과 눈썹, 그리고 작은얼굴에 우람한 신체, 사천왕상의 갑옷과 장식 등은 17세 불화적 요소를 보인다. 특히 육신부를 제외한 갑옷과 신체의 윤곽 등 대부분의 선은 같은 굵기의 선을 사용했음에도 붓의 회전과 반전, 멈추고 이어짐이 능숙하여 섬세하고 활력이 넘치는 필세를 느낄 수 있다. 갑옷의 빈 여백에는 작운 圓文, 쇄기문, 꽃무늬, 日輝文, 寶珠文. 草文 등 시기성을 담은 다양한 문양을 채워 넣었다. 시계 방향 대로 비파-보검-용·여의주-당·보탑을 지물로 취한 사천왕상의 배치와 지물, 그리고 花冠形의 寶冠과 털이 달린 투구, 작은 얼굴과 건장하고 다부진 신체, 강한 스카프와 리본으로 치장한 갑옷, 갑옷에 새겨진 다양한 시대성을 반영한 문양들은 1649년 보살사 영산회괘불탱, 1652년작 안심사 영산회 괘불탱 등 17세기 불화에서 표현된 사천왕상의 도상과 양식에서 일치한다.

도 3 우측 경장 문

도 4 좌측 경장 문

도 6 우측 경장 사천왕

그림 7 좌측 경장 사천왕

臺座는 불상의 대좌처럼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면은 정면이 넓고 측면이 좁은 직사각으로 계획되었다. 眼象이 새겨진 중대를 중심으로 상하에 각각 2단의 받침대를 두고 상·하대로 구분하였다. 받침대는 약간 경사지게 처리하였고 모서리는 쇠시리로 처리하였다. 중대의 아랫부분에 2개의 촉을 꽂아 하대와 연결하였다. 하대에는 족대를 달았으며, 족대의 좌우에는 둥글게 말린 게 눈각을 초각하였고, 족대와 족대 사이에는 낙양각형 운각을 달아내어 멋을 부렸다. 이러한 족대의 모습은 17세기 전반기 불상의 대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족대의 하부에 놓이는 마대는 좌측 경장은 없으며, 우측에는 후대에 달았던 것이 일부 남아 있다.

안상은 중대의 정면과 측면에 새겨 넣었는데, 정면에는 2개의 면으로 분할하여 각각 1개씩의 안상을, 측면과 배면에는 1개의 안상을 새겨 넣었다. 안상의 형태는 上下 尖頭稜花形으로, 같은 사찰의 건칠아미타불상 대좌의 안상 표현과 거의 같다. 이외 1624년의 순천 송광사 응진당 소조석가여래좌상 대좌, 1634년의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대좌, 1630년대의 여수 흥국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 대좌 등 단정한 형태미를 뽐내는 17세기 대좌와도 시대적 특징을 공감하고 있다.

오른쪽 경장의 몸체 뒷면과 좌대 아래쪽 내면에는 경장의 제작과 관련된 명문이 남아 있다. 뒷면의 명문은 황색으로 적혀있고, 저면에는 묵서로 제작연대만을 간단히 기록하였다. 묵서의 안료로 사용된 황색은 몸체의 문양과 문짝의 사천왕도에 사용된 황색과 같은 안료로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과학 분석 결과 석황으로 확

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경장은 尙州 北長寺 木造經櫥(경북 유형문화재 제523호)와 곧잘 비교되고 있는데, 북장사 경장은 기단의 층급받침도 많아지고 중대 안상에도 사자와 꽃문양을 새겨 넣었고, 몸체의 문짝에도 대둔사 경장과 달리 화려하고 회화성 짙은 연꽃과 모란꽃으로 새겨 넣었으며, 궁륭형 지붕과 보주를 모두 표현하여 다소 화려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대둔사 경장은 화려함은 덜 하지만, 간결함에서 오는 담백한 미감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오른쪽 경장의 몸체 뒷면과 대좌의 바닥면에 조성과 관련된 명문, 제작당시의 채색 등을 남기고 있어 조선 후기 목조경장, 목공예 연구에 기준을 삼을 수 있다.

○ 우측 경장 명문

崇禎三年庚午五月日」蓮花座臺經莊兼大施主廉順幡兩主」金孫伊兩主」龍介兩主」
黃貴世兩主」金丁夫兩主」金丁而兩主」張應朴兩主」朱紅大施主李千伊兩主」
寺中」大雲」鷲靈」呂元」性衍」禪熙」淨構」時三綱 太默」」
崇禎三年庚午五月日
引出匠人 惠頓(?)」 大德(?)」炤匠人 金德云兩主」畵員 雙連」裕惠」
別座 德安 法宗」信律(?)」
供養主 三印」命守」
大化主 敬星」
副化主 ??

② 저면 묵서
崇禎二年庚午

○ 조선시대 주요 선묘불화 현황(벽화 제외)

지정현황	문화재명	제작 연대	크기	비고
보물 제1522호	영산회상도	1565	207×188.3	朱地線描
보물 제2012호	화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1565	59×31.3	黑地線描
보물 제1644	예천 용문사 천불도	1709	207×235	朱地線描
보물 제1996호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1741	275.5×272.4	朱地線描

지정현황	문화재명	제작 연대	크기	비고
비지정	실상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749	247×243	朱地線描
비지정	선암사 아미타여래삼존도	1751	79×89	朱地線描
비지정	수정사 석가여래삼불도	1776	248×238	朱地線描
경남유형 제386호	쌍계사 국사암 아미타여래설법도	1781	146×107.5	朱地線描
비지정	은해사 거조암 석가여래설법도	1786	287×426	朱地線描
비지정	남지장사 석가여래설법도	1789	407×326	朱地線描
강원유형 제137호	월정사 관음변상도	1791	61×40	黑地線描 원 운수암
비지정	남장사 관음보살도	1796		朱地線描 직지성보박물관
보물 제1811호	양산 통도사 화엄탱	1811	193×265	黑地線描

ㅇ 참고문헌

박은경, 『조선 전기 불화 연구』, SIGONGART, 2008

柳正根, 「17世紀 木造 八角臺座 硏究」, 원광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대둔사 좌·우 경장 약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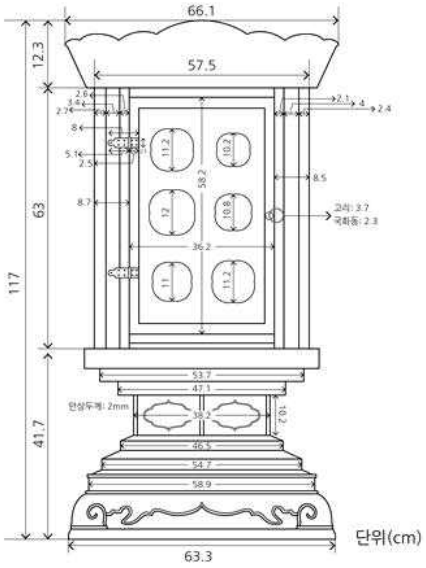


그림 6 우측 경장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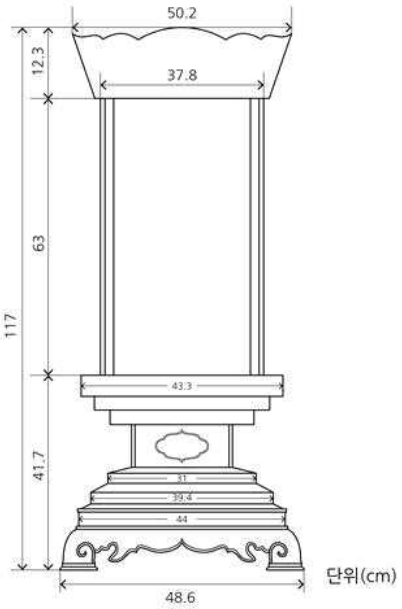


그림 7 우측 경장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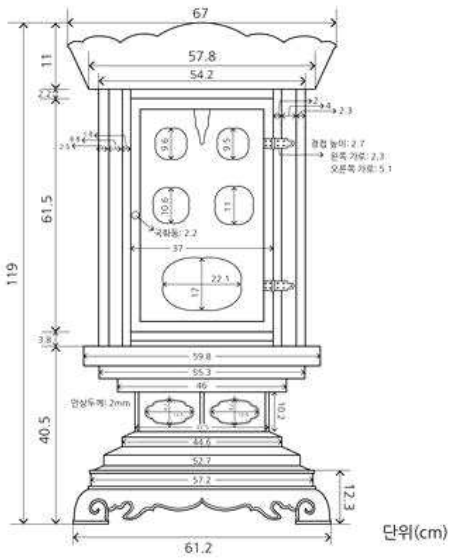


그림 5 좌측 경장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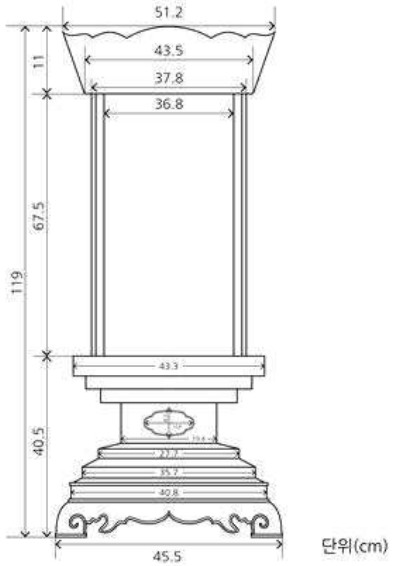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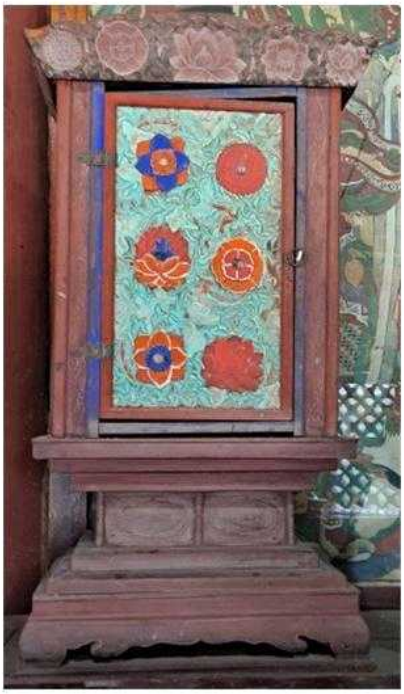


그림 6 좌측 경장 측면

□

ㅇ 현　　상



도판 1) 대둔사 왼쪽 경장

도판 2) 대둔사 오른쪽 경장

도판 3) 대둔사 경장 세부

<table>
<tr><th colspan="2">왼쪽경장</th><th colspan="2">오른쪽 경장</th></tr>
<tr><td>좌측면</td><td>우측면</td><td>좌측면</td><td>우측면</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뒷면</td><td>뒷면의 명문</td><td colspan="2">뒷면</td></tr>
<tr><td> </td><td>
 </td><td colspan="2"> </td></tr>
<tr><td rowspan="2">하부(기단부)</td><td rowspan="2"></td><td colspan="2">하부(기단부)</td></tr>
<tr><td>기단의 하대</td><td>기단의 하대와 연결부위</td></tr>
<tr><td colspan="2">

(묵서명 崇禎三年庚午)</td><td> </td><td> </td></tr>
</table>

도판 4) 대둔사 경장, 문짝 내부 불화

왼쪽 경장	오른쪽 경장

1. 경장은 현재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놓여 2점이 보관되어 있다. 이하 좌측의 것을 '왼쪽경장', 우측의 것을 '오른쪽 경장'으로 이름하였다. 본래의 위치는 현재 확인된 바 없으나, 같은 시기에 한 쌍으로 제작되어, 왼쪽에 연화문 조각의 경장이 놓였고, 오른쪽에 모란문이 조각된 경장이 나란히 놓였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 왼쪽 경장의 오른쪽 측면과 오른쪽 경장의 왼쪽 측면은 후보 된 밤색과 푸른 칠만 남아 있는데, 본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도판 3) 중앙을 중심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았을 부분은 장식을 생략했을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닫이 문도 왼쪽의 경장은 경첩이 왼쪽에 달리고, 오른쪽의 경장은 오른쪽에 달려있어, 문짝을 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며, 문짝 안에 그려진 4구의 사천왕도 역시 조선시대 불화에서 보는 사천왕도의 시선 처리와 비교하여 자연스럽다.(도판 4)

2. 각 경장은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맨 위 외반 된 3면의 판으로 된 상부, 몸체에 해당하는 중부, 기단부라 할 수 있는 하부로 나눌 수 있다. '기단부'라 명칭한 것은 석탑의 기단과 매우 흡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왼쪽경장의 뒷면에는 조성기가 적혀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때 사천왕상의 황색 선묘와 동일한 색으로 적혀 있어, 불화 제작과 같은 시기에 명문도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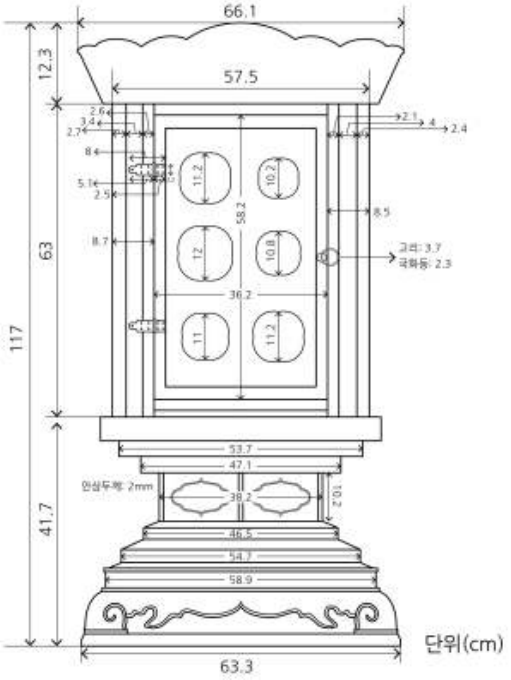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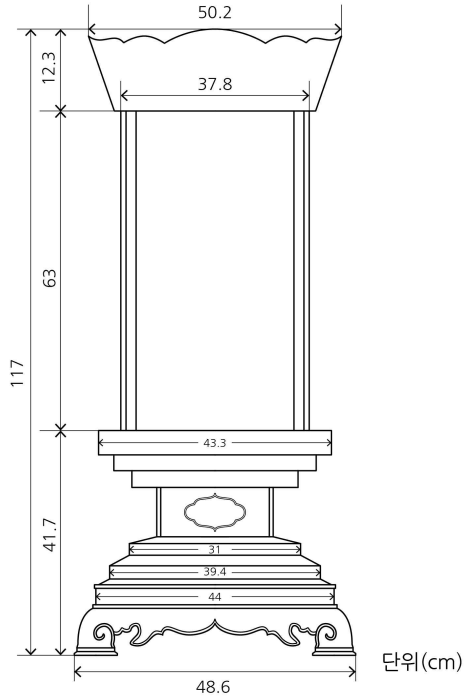
1) 상부 중, 왼쪽 경장의 좌측면 상부에는 백택으로 보이는 동물이 좌우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 경장의 우측면 상부에는 연화문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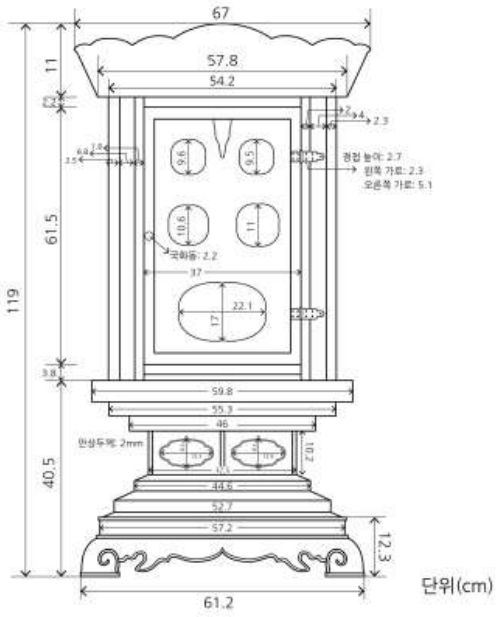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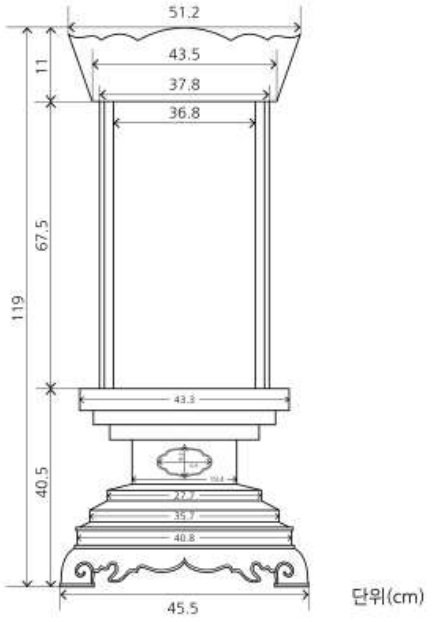
상부 정면에는 두 점 모두 연화문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왼쪽 경장의 우측면과 오른쪽 경장의 좌측면은 후보 된 푸른 칠만 되어 있다.

2) 중부인 몸체 부분에는, 왼쪽 경장의 좌측면 몸체부분과 오른쪽 경장의 우측면에는 연꽃과 모란의 그림이 남아 있다. 반면에 왼쪽 경장의 우측면과 오른쪽 경장의 좌측면은 몸체에는 후보 된 밤색의 칠만 남아 있다. 몸체의 문짝은 여닫이로 되어 있는데, 문받이 턱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안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휨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문짝이 있는 몸체 부분의 구조를 보면, 문변자를 다시 문틀이 에워싼 형태인데, 이러한 구조는 목조가구에서 조선 중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양식으로 본다.
- 문짝의 조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왼쪽 경장 문짝에 조각된 꽃은 연꽃 측면 묘사 2송이, 겹으로 된 4엽 꽃 위에 다시 꽃잎을 덧붙인 꽃의 정면 조각 2송이, 겹으로 된 4엽 꽃 1송이, 국화 정면 1송이의 총 6송이를 조각하고 바탕은 삽엽형의 여러 잎으로 가득 채웠다. 오른쪽에 놓인 경장은, 맨 위 중앙에 조각한 측면의 꽃 송이를 포함하여 총 6송이의 모란형 꽃 정면을 조각하고 바탕은 사실적인 묘사의 모란잎 조각으로 가득 채웠다.

3) 하부인 기단부에는, 앞면에는 세로의 짧은 둥근형 막대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안상문을, 양측면에는 하나의 안상문을 넣어 장식했는데, 이중선으로 둘러 조각하였다. 세로의 짧은 둥근형 막대는 안상이 조각된 기단부의 네 각에도 역시 붙였고 무쇠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세로의 짧은 둥근형 막대는 목조가구에서는 동자주, 석탑에서는 우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
(*탑 기단부의 상대갑석, 부연 상대면석, 부연, 중대받침, 하대갑석 (국립경주연구소 자료마당)과 비교할 수 있거나 혹은 탑의 맨 아래의 탑신부와도 흡사하다.)
- 오른쪽 경장의 경우, 기단의 하대에 속하는 부분이 분리된다. 분리된 하대부분에서는 굵게 박은 시우쇠로 된 꺽쇠를 볼 수 있다.(도판 3 기단부 사진 참조) 기단부의 다른 연결부위나 상부 각 면의 연결부위에서도 꺽쇠로 박아 고정한 것이 확인되며, 여러 연결부위에서 쇠못이 확인된다. 못대가리가 부정형인 쇠못의 사용은, 목조가구에서 조선후기로 내려오기 전에 보는 특징 중 하나이다.
- 왼쪽경장의 기단부의 안쪽에서 “崇禎 3年 庚午”라는 묵으로 쓴 명문이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도판 3 기단부 사진 참조)
(*사진으로는 숭정 2년으로 보이나 ‘경오’라 썼으니, 흐린 먹의 획이라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숭정 3년 경오’로 판단하였다.)

참조) 대둔사 경장 실측

왼쪽 경장	
정면	측면
	

오른쪽 경장	
정면	측면
	

○ 내용 및 특징

1. 대둔사는 직지사의 말사이다. 현재 보물 제1633호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龜尾 大芚寺 乾漆阿彌陀如來坐像)과 보물 제1945호 구미 대둔사 대웅전 (龜尾 大芚寺 大雄殿) 등의 유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전의 건립연대는 17-18세기로 추정되고 있고, 아직 정확한 조성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다. 1614년(광해군 6)부터 1804년(순조 4)까지 다섯 차례 수리가 있었다고 하며, 지붕에는 '건륭31년 병술(1766)'이라고 기록한 망와가 다수 남아 있어서 최소 1766년 이전에는 본 대웅전이 건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 대둔사 목조경장은 대웅전에 보관되어 있는데, 대웅전의 조성 시기와 비교하여 조성 시기를 밝힐 수는 없다. 다행히 왼쪽 경장의 뒷면에는 조성기(숭정3년, 1630년)가 남아 있다. 문짝 안쪽에 2점 각각에 사천왕상 2구씩이 선묘로 그려져 있으며(경장 뒷면의 명문에는 참여 화원이 이름도 기록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왼쪽 경장 기단부에서도 숭정 3년명의 묵서명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기단부를 제외한 몸체부의 꽃문 조각에 올려진 칠 혹은 상부나 몸체에 후보 된 칠, 벌어진 틈새나 약간 훼손되어 진 부분 등이 있기는 하나, 제작 시기의 원형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비교 자료로 지정문화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3호 상주 북장사 목조경장(尙州 北長寺 木造經櫃)(2018.12.20.지정)이 있다. 북장사 역시 직지사의 말사이다. 북장사의 경장은 조성기가 남아 있지 않으나, 화려한 장엄과 나무를 깎아 만든 궁륭형의 상부조각이 온전히 남아 있는 유물로 주목된다. 현재 17세기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목조경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둔사의 경장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둔사 경장과 비교하여 외형적인 모습에만 주목하면, 대둔사의 상부는 외반된 3면만이 남아 있고 천장이 막힌 상태로만 마감한 듯이 보이고, 북장사의 것은 내부에 막음 없이 궁륭형으로 된 천장만을 만들었다. 기단부의 처리에서도 북장사의 것은 몸체 네 면을 둘러싼 형태로, 몸체와 기단부 사이에 구멍 자국이 있어 이 경장을 장엄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단부의 투각 장식이나 문짝의 회화적 장식 역시 구별되는 점이다.

2) 세부적인 비교를 통해 조성 연대의 선후를 짚어 보면, 대둔사의 것이 북장사의 것보다 앞선다고 판단된다.
두 곳의 경장 모두, 생활 속에서 사용하였던 조선시대 목조가구들에 비하면 거칠게 제작되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전문 소목장이 사대부가의 생활가구로 만들었던 가구와 사찰에서 자체 제작되었던 것의 차이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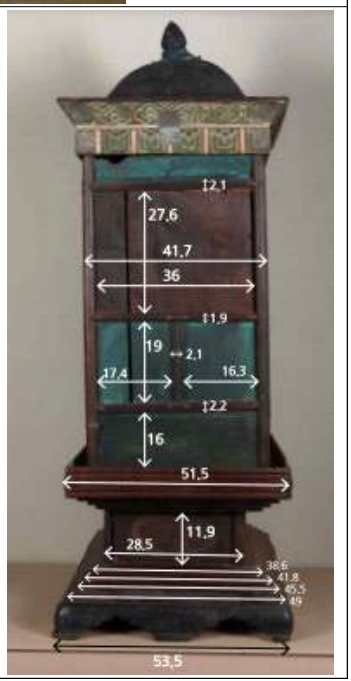
- 대둔사의 것을 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보는 이유는(아직은 사례조사가 많지 않아, 불교가구가 아닌 일반 목조가구의 사례를 기준하는 것에 부족한 점은 있으나) 대둔사의 것에는 꺽쇠나 시우쇠 못으로 보는 쇠못의 적극적인 사용이 두드러진다. 쇠못은 조선 초기까지 목조가구에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된 연결방법이었다. 그리고 장석의 사용에 있어서도, 북장사의 것이 외반된 상부부분이나 몸체의 문짝 등 금속장식을 여러 곳에 붙이고 있다. 이는 일반 가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둔사의 것이 보다 앞서는 시기의 것임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3) 두 곳의 경장의 외관은, 일견 비교적 화려한 외관의 북장사의 것보다 대둔사의 것은 단순하게만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짜임이나 쇠시리 장식, 석탑의 기단부와 같은 조형적 감각은 당시 제작에 참여했던 솜씨 좋은 장인의 기량이 확인된다.

- 문짝의 문변자 짜임을 보면 대둔사의 것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연귀로 하고 내부는 맞댐의 형태를 하여 장부촉연귀짜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나무를 다루는 솜씨를 갖춘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북장사의 것은 문판 겉면에 문변자를 네변에 그대로 덧붙여 처리하였다.
- 북장사 경장은 쇠목이나 동자주에 쇠시리를 깊게 넣어 장식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대둔사의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였지만, 둥근 기둥 부분에 넣은 쇠시리를 보면 단순하면서도 정성을 들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일반 목조가구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둥이나 동자주에 쇠시리를 넣어 시각적으로 투박함을 없애도록 하였는데, 대둔사의 경장의 기둥에서도 이러한 장인의 배려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 기단부의 안상문 조각 역시 북장사의 것은 현재 여의두문형의 덧붙인 조각이 있었거나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해 대둔사의 것은 2줄의 양각으로 조각하였고, 기단부의 각 층위의 쇠시리 역시 명확하고 솜씨 있게 밀어낸 장인의 솜씨를 볼 수 있다.
- 대둔사의 기단부의 형태를 보면, 조선시대 사찰에 놓였던 석탑과도 흡사한 조형미를 훌륭히 갖추고 있다.
- 두 곳 경장의 경첩 위치를 보면, 북장사의 것은 경첩이 두 점 모두 문짝 오른

쪽에 달아, 문짝 왼쪽에 달린 고리를 잡아 당겨 문을 여닫게 되어 있다. 반면, 대둔사의 두 경장의 경첩 위치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두어서, 안에 그려진 사천왕상의 배치를 고려하였다. 이것은 대둔사 경장을 제작할 때에, 처음부터 문짝 안의 불화제작과 함께 고안하였고 이를 고안하여 제작하였음을 설명해준다.

도판 5) 북장사 경장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3호)

연꽃문 경장	모란문 경장	
		

ㅇ 문헌자료

<經櫥① 銘文>(왼쪽 경장의 뒷면)
崇禎三年庚午五月日」蓮花座臺經莊兼大施主應順幡兩主」金孫伊兩主」龍介兩主」黃貴世兩主」金丁大兩主」金丁而兩主」張應补兩主」朱紅大施主李千伊兩主」寺中」大雲」鷲靈」呂元」性衍」禪熙」淨楫」時三綱太默」崇禎三年庚午五月日」引出匠人忠願大裕」焰匠人金德云兩主」畵員雙連」裕惠」

- 숭정 3년 제작되었음과 시주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 연구자

는 경장을 '經莊'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았다.

- '이 글씨는 그림과 동일한 황색으로 썼다. 여기서 引出匠人은 出草를 한 후 炤匠人이 바탕 채색을 한 후 화원이 그 위에 선묘를 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실제 사천왕도에서도 검은색의 초안 위에 황색으로 덧칠한 것을 살필 수 있어, 명문의 내용과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응천, 「조선 후반기 제1기(광해군-경종대) 불교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성 연구」(강좌미술사 38, 2012, pp172))

<經櫃① 銘文>(왼쪽 경장의 저면 내부)
崇禎三年庚午
- 사진으로는 숭정 2년으로 보이나 '경오'라 썼으니, 흐린 먹의 획이라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사려되어, '숭정 3년 경오'로 판단하였다.

□

ㅇ 현 상

<도1> 향 좌측 경장, 1630년, 66.1×43.3×117㎝, 구미 대둔사.

<도2> 향 우측 경장, 1630년, 67×43.3×119㎝, 구미 대둔사.

<도3> 북경 지화사 장전, 명대, 북경 지화사.

구미 대둔사 대웅전 불단 위에는 한 쌍의 목재 경장(經櫃)이 봉안되어 있다. 향 좌측 경장의 몸체 뒷면에는 숭정(崇禎) 3년(1630)의 제작 연도와 시주자, 제작자를 명시한 명문이 있어 역사적,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경장의 구조는 頭部, 身部, 臺座部의 3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몸체는 여닫이문이 있는 櫃 형태로 상주 북장사 경장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현재 향 좌측 경장 몸체의 뒷널과 옆널이 다소 떨어져 있고 아래쪽 문틀도 결실되어 문짝이 기울어져 있는 등 보수가 시급하다. 또한 양쪽 경장 모두 원래의 금구장식 등이 결실된 것으로 보이며, 문판과 문틀 등의 채색이 근래에 개채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본 경장

은 원래의 모습을 유지해 왔으나 오랜 시간과 목재라는 유기적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다소 훼손되고 비지정 상태로 방치되어 시급한 보존 처리, 보수 및 문화재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ㅇ 내용 및 특징

대둔사의 현재 위치는 원래 대둔사의 암자인 청련암(靑蓮庵)의 위치이며 대둔사의 옛 터는 현 위치에서 서남쪽 300m 지점에 남아있다. 대둔사는 446년(신라 눌지왕 30)에 아도화상(阿度和尙)이 창건했다는 설이 있으며 1231년 몽고항쟁 때 소실된 것을 고려 충렬왕대(忠烈王代)에 중창하였고 선조 39년(1606)에 사명대사(四溟大師) 유정(惟政)이 중건하여 승군을 주둔시켰다고 전한다. 대웅전(보물 제1945호, 2017년 지정)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인 조선시대 다포계 건물로 1614년에 건립되어 1804년까지 다섯 차례의 중수가 이루어졌다. 주존불로는 고려시대 건칠불로서 14세기 고려 후기의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보이는 乾漆阿彌陀如來坐像(보물 제1633호, 2010년 지정)이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대웅전 향 우측벽에 봉안되어 있는 三藏菩薩圖(보물 제2025호, 2019년 지정)는 1740년(영조 16)에 조성된 것으로 화기가 분명하여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및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작품이다.

경장(經欌)은 절에서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불교 목공예품으로 현전하는 예가 희소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매우 중요시되는 유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물은 구미 대둔사 목조 경장(龜尾 大芚寺 木造 經欌), 상주 북장사 목조 경장(尙州 北長寺 木造 經欌,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3호, 2018년 지정), 근대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목조 경장, 靑龍寺 경장 등이 있다. 구미 대둔사 경장은 중국 명대 1443년에 세워진 북경(北京) 지화사(智化寺) 장전(藏殿)과 비교되기도 하며[146], 명문에 의해 1630년의 제작 연대, 시주자, 제작장인, 화원 등을 알 수 있어 조선시대 사찰 경장 연구의 기준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공예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도1, 2, 3).

향 좌측 경장은 頭部, 身部, 臺座部로 이루어진 3단 구조로 상주 북장사 목조 경장과 유사한 구조이다(도4). 頭部는 가름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면 가름대에는 왼쪽부터 국화 당초문, 보상화 당초문, 연화 당초문, 보상화 당초문, 연화 당초문이 배치되어 있다(도5). 화문은 꽃 주위에 파련형의 촘촘한 잎이 달린 줄기를 둥글게 두른 형식이다. 꽃은 윤곽선과 세부를 흰색으로, 잎은 녹색의 몰골법으로 채색하였는데 변색, 박락이 진행되어 색이 다소 희미한 편이다. 왼쪽 측면 가름대에는 가운데 여의주를 둔 한 쌍의 瑞獸와 구름문을 적, 녹, 흑, 백색 등으로 그려 장엄하였다(도6). 서수와 구름문은 정면 가름대의 화당초문보다는 표현 수법이 우수하며 채색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어 좀 더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146) 정은우, 신은제, 「일본 오타니 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 연구」, 『문화재』 제52권 제4호, 2019, 49~50쪽.

<도4> 상주 북장사 경장, 17세기경, 폭 67.7cm, 높이 145cm, 직지성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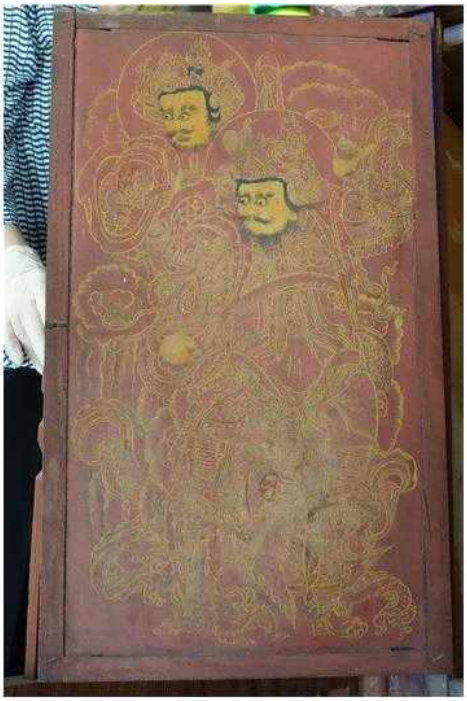
<도5> 향 좌측 경장 정면 세부, 1630년, 구미 대둔사

身部는 여닫이문이 있는 방형의 櫃 형식으로 내부에 경전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종이를 발랐던 흔적이 남아있다. 몸체 내부에 층널은 없는데 이는 본 경장의 내부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몸체 내부의 바닥 면은 테두리를 연귀이음으로 제작한 후 그 안쪽에 판재를 두었다. 몸체는 모서리 기둥에 홈을 파고 널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다. 몸체의 기둥들은 삼면으로 모가 져 있고 쇠시리로 처리되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쇠시리 등을 통해서도 조선 중기 목가구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왼쪽 측널에는 도식화된 연화 당초문, 국화 당초문, 보상화 당초문 등을 설채하였는데 색이 많이 바래졌으나 시문될 당시의 원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당초문들은 가름대에 그려진 것과 유사하여 문양 배치에 통일성을 추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판에는 연꽃, 국화, 보상화 등의 불교 전통 문양을 부조하였는데 바탕에 잎과 줄기를 깔고 그 사이에 화문을 6개 배치한 구성이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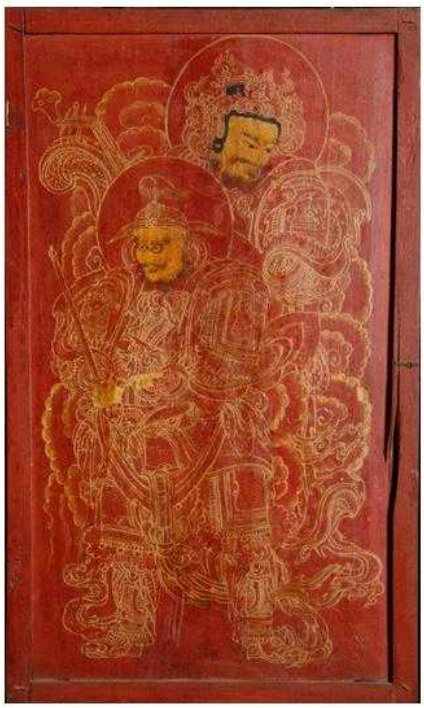
<도6> 향 좌측 경장 왼쪽 측면 세부, 1630년, 구미 대둔사

<도7> 향 좌측 경장 문판, 1630년, 구미 대둔사

7). 측면형의 연화, 위에서 본



<도8> 향 좌측 경장 문짝 안쪽의 사천왕도, 1630년, 구미 대둔사



<도9> 향 좌측 경장 문짝 안쪽의 사천왕도, 1630년, 구미 대둔사

습의 국화, 보상화문은 적색을 주조로 이 외에 청색, 흰색 등으로 채색되었고, 잎은 녹색으로 채색되어 화려하다. 그러나 후대의 개채로 인해 본래의 아름다움을 상실하여 다소 아쉽다. 문 이외의 몸체 앞판에도 시문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당초문이 선묘로 시문되어 있어 본 경장의 본래의 모습은 매우 화려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문짝 안쪽에는 주칠 위에 황색 선묘로 경전을 수호하는 사천왕상 2구가 그려져 있다(도8,9). 사천왕도는 다른 곳의 문양보다 필치나 세부 표현 등이 섬세하여 주목된다. 또한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한데 이는 사천왕도가 경장 내부에 위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판의 왼쪽에는 국화형 경첩 2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국화동과 문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국화동 아래에 원래 금구장식의 흔적으로 보이는 구멍들이 남아있어 제작 당시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臺座部는 상단, 중단, 하단으로 이루어진 삼단 대좌인데 이러한 불상대좌 형식을 차용한 구조는 북장사 경장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法寶인 경전을 존숭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도10). 대좌의 상단과 하단은 각각 3단으로, 중단은 1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좌 하단의 층단들은 윗면을 부드럽게 굴린 양감 있는 형태이며, 윗면과 측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얕은 턱을 두는 등 세심한 수법으로 제작되었다(도11). 대좌 중단의 정면은 동자목으로 두 면으로 구획하여 2㎜ 깊이로 안상을

<도10> 금동삼존불감의 본존, 국보73호, 고려, 간송미술관

조각하였다(도12).

중단의 측면은 1면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한 개의 안상을 조각하였다. 대좌 바깥쪽의 동자목은 모서리에 끼우고 쇠못을 박아 부착한 구조이고 내부의 동자목도 쇠못을 박아 고정시켰다. 이러한 것들로 보아 臺座部의 조각 수법은 꽤 정교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마대는 뇌문형의 다리와 좌우대칭의 운각형 풍혈로 이루어져 있다. 풍혈은 17세기의 기타 불교 목공예품에 보이는 풍혈보다는 조선 후기 목가구의 풍혈 형태에 가깝다.

<도11> 향 좌측 경장 대좌부의 세부, 1629년, 구미 대둔사

<도12> 향 좌측 경장 대좌부, 1630년, 구미 대둔사

다리 앞쪽에는 후대에 덧댄 것으로 보이는 족대가 부착되어 있는데 가로 방향이어서 일반적인 조선시대 목가구의 족대 형식을 벗어난 모습이다.

향 우측 경장은 향 좌측 경장과 한 쌍으로 제작된 동일한 구조의 경장이다. 정면 가름대에는 화당초문들이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의 배치 순서가 향 좌측 경장과 좌우대칭을 이룬다. 오른쪽 측면 가름대에는 연화 당초문과 보상화 당초문이 그려져 있어 향 좌측 경장의 문양과 구분된다. 문판에는 모란이 부조되어 있는데 문판에 모란과 연꽃이 한 쌍으로 장엄된 것은 상주 북장사 경장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문판에는 중앙·좌우에 세 가닥의 모란 가지를 두고 맨 하단에 한 송이

<도13> 향 우측 경장 문판, 1630년, 구미 대둔사

의 커다란 모란을, 중단에는 이보다 작은 모란 4송이를 배치하였고, 맨 위에는 모란 꽃봉오리가 두 송이의 모란 사이에 부착되어 있다(도13). 그런데 이러한 구성은 조선시대 민화나 궁중 회화의 모란도와 유사하여 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모란은 위에서 본 모습으로 적색의 꽃 주위에 녹색 잎이 촘촘히 달린 형태이며 모란의 윤곽선과 화심은 모두 흰색이다. 한편 향 우측 경장에는 아래쪽 문틀이 남아 있어 원래의 구조를 알 수 있게 한다. 臺座部도 향 좌측 경장과 구조와 장식이 동일하나 중단과 하단이 분리되는 구조임이 본 조사에서 확인되었다(도14,15). 대좌부의 하단은 층단마다 쇠못을 박아 고정시켰으며 못구멍은 접착제와 섞은 나무가루로 메워 마감하였다.

한편 경장의 명문에는 기년 외에 시주자, 제작 장인, 화원의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도16,17). 한편 명문에 의해 제작에 引出匠人과 焰(炭)匠人, 畵員 등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사찰 경장의 제작이 여러 장인에 의해 분업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어 주목된다.[147]

<도14> 향 우측 경장의 대좌부 구조 ①, 1629년, 구미 대둔사

<도15> 향 우측 경장의 대좌부 구조 ②, 1629년, 구미 대둔사

<左側 經櫃 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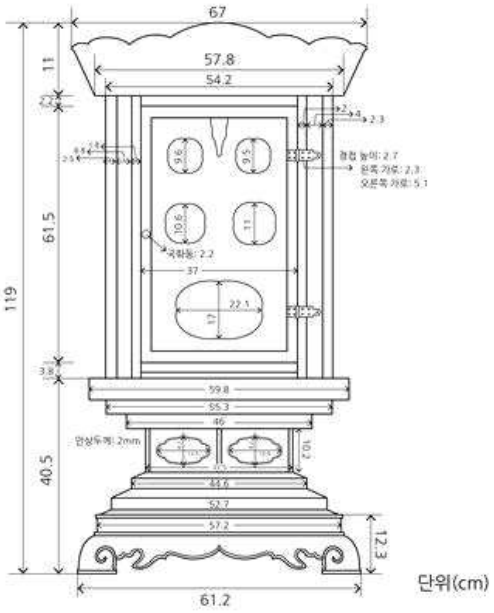
崇禎三年庚午五月日 蓮花座臺經莊兼大施主應順幡兩主 金孫伊兩主 龍介兩主 黃貴世兩主 金丁大兩主 金丁而兩主 張應朴兩主 朱紅大施主李千伊兩主 寺中 大雲 鷲靈 呂元性衍 禪熙 淨楫 時三綱太默 崇禎三年庚午五月日 引出匠人忠願大裕 焰匠人金德云兩主 畵員 雙連 裕惠 別座 德定 法宗 □□ 供養主 三年 命守 大化主 敬星 副化主 □□[148]

147) 최응천, 위의 논문, 1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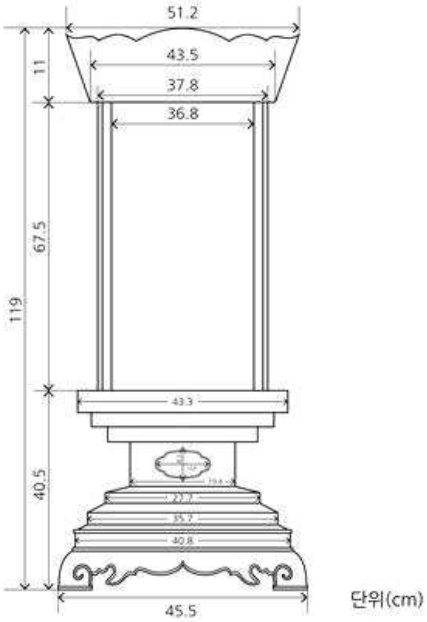
148) 최응천, 위의 논문, 172쪽

〈도16〉 향 좌측 경장 뒷면의 명문, 1630년, 구미 대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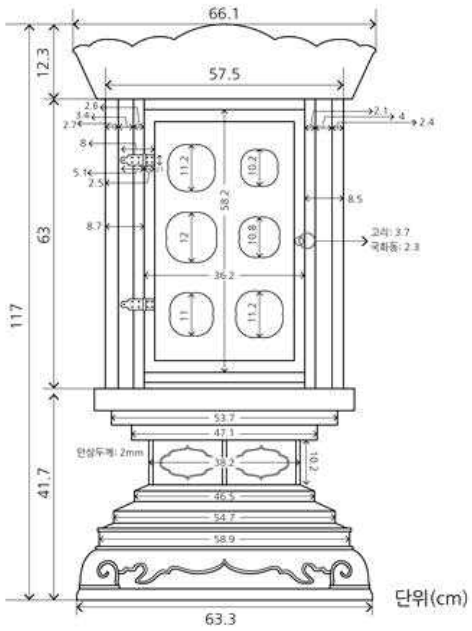
〈도17〉 향 좌측 경장 뒷면 명문 세부, 1630년, 구미 대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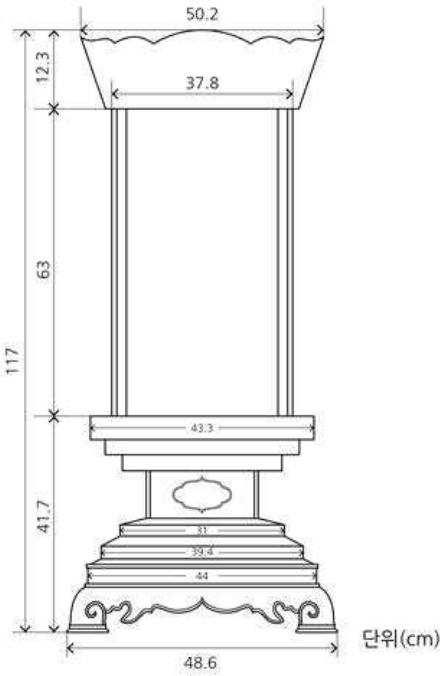
<도18> 향 좌측 경장 정면



<도19> 향 좌측 경장 측면



<도20> 향 우측 경장 정면



<도21> 향 우측 경장 측면

ㅇ 문헌자료

최응천, 「조선 후반기 제1기(광해군-경종대) 불교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성 연구」, 『강좌미술사』 38호, 2012.

정은우, 신은제, 「일본 오타니 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 연구」,『문화재』 제52권 제4호, 2019.